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100069-1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최효미·김은설·최윤경·김동훈·김지현·김자연·조혜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100069-1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69-1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교육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화 02-6222-6060
팩스 044-203-6093
홈페이지 <https://www.moe.go.kr>
인쇄처 (주)승림디엠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
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
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교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부의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요약	1
I. 서론	33
1. 조사의 배경	35
2. 조사 목적	37
3. 조사 수행 개요	37
4. 응답자 특성	59
5. 용어 정의 및 유의사항	62
II.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63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65
2. 비용 지원	78
III.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87
1. 인구학적 특성	89
2. 사회·경제적 특성	100
3. 시사점	131
IV. 영유아 양육 특성	133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135
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44
3. 장애 영유아 양육	165
4. 추가 출산 의향	171
5. 시사점	175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179
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181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185
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188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210
5.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223
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228
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237
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240
9. 소결 및 시사점	255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259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261
2. 어린이집 이용 비용	293
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302
4. 어린이집 특별활동	310
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322
6. 연장보육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	330
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348
8.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351
9.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357
10. 시사점	371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375

1. 유치원 이용 특성	377
2. 유치원 이용 비용	402
3. 유치원 제공 서비스	410
4.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414
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422
6. 시사점	425

VIII.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및 요구 427

1.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특성	429
2.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요일 및 시각 관련	433
3.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	442
4.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등·하원 방법 및 소요 시간	447
5.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만족도	449

6.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서비스 및 특별활동	451
7. 시사점	459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459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461
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467
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478
4. 시사점	487
X.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487
1.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489
2.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실태	492
3. 개별교육 이용 실태	504
4. 시사점	515
XI. 육아정책 관련 인식	515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517
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519
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536
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537
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542
6. 소결 및 시사점	557
XII. 결론	559
1.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수요 예측 및 수급 전략 수립 필요	561
2.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 추가개선 사항	562
3.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563
4.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564
5. 육아시간 지원 정책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565
6. 가정양육 부모 지원 및 시간제 보육 인지도 개선 노력 필요	565

참고문헌	568

부록	571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표	571
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 조사표	584



표 목차

〈표 Ⅰ-3- 1〉 가구 설문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	40
〈표 Ⅰ-3- 2〉 아동 설문 주요 내용과 변경 고려 사항	42
〈표 Ⅰ-3- 3〉 지역별 정부지원 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4.5월 말)	45
〈표 Ⅰ-3- 4〉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4.5월 말)	45
〈표 Ⅰ-3- 5〉 지역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분포(기준시점: 2024.5월 말)	45
〈표 Ⅰ-3- 6〉 시도 및 읍면동 구분별 아동 가구 현황(기준시점: 2024.5월 말)	47
〈표 Ⅰ-3- 7〉 각 시도별 모집단 및 각 방안별 표본배분 결과	48
〈표 Ⅰ-3- 8〉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48
〈표 Ⅰ-3- 9〉 새로운 표본설계의 시도별 표본 읍면동 수	49
〈표 Ⅰ-3-10〉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도 및 정부지원 유형별 조사 아동 수(예상)	50
〈표 Ⅰ-3-11〉 조사완료 부모급여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51
〈표 Ⅰ-3-12〉 조사완료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52
〈표 Ⅰ-3-13〉 조사완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52
〈표 Ⅰ-3-14〉 조사완료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53
〈표 Ⅰ-3-15〉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	53
〈표 Ⅰ-3-16〉 조사완료 아동의 정부지원 유형별 분포	54
〈표 Ⅰ-3-17〉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55
〈표 Ⅰ-3-18〉 지역별 아동 가중치 분포	56
〈표 Ⅰ-3-19〉 조사 설계 주요 변경 사항	58
〈표 Ⅰ-4- 1〉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59
〈표 Ⅰ-4- 2〉 가구 조사 응답가구 특성	60
〈표 Ⅰ-4- 3〉 아동 조사 응답자 특성	61
〈표 Ⅱ-1- 1〉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24)	66
〈표 Ⅱ-1- 2〉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1~2024)	68
〈표 Ⅱ-1- 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3, 2015, 2017, 2018~2024)	69
〈표 Ⅱ-1-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추이(2012~2024)	71
〈표 Ⅱ-1-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이(2012~2024)	72
〈표 Ⅱ-1- 6〉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6~2024)	74
〈표 Ⅱ-1- 7〉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2011~2024)	75
〈표 Ⅱ-1- 8〉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2024)	77
〈표 Ⅱ-2- 1〉 국고 지원 보육예산(2012~2024)	79

〈표 Ⅱ-2- 2〉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 단가(2024)	80
〈표 Ⅱ-2- 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9/2012~2024)	81
〈표 Ⅱ-2- 4〉 전국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24)	82
〈표 Ⅱ-2- 5〉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 한도액(2024)	83
〈표 Ⅱ-2- 6〉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지원 금액(2024)	86
〈표 Ⅱ-2- 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2024)	87
〈표 Ⅲ-1- 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90
〈표 Ⅲ-1- 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91
〈표 Ⅲ-1- 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92
〈표 Ⅲ-1- 4〉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3
〈표 Ⅲ-1- 5〉 영유아 부모의 혼인상태 및 학력 특성	94
〈표 Ⅲ-1- 6〉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94
〈표 Ⅲ-1- 7〉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95
〈표 Ⅲ-1- 8〉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	96
〈표 Ⅲ-1- 9〉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	97
〈표 Ⅲ-1-10〉 지역별 영유아의 성별	98
〈표 Ⅲ-1-11〉 출생순위	98
〈표 Ⅲ-1-12〉 영유아의 건강상태	99
〈표 Ⅲ-2- 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 상태	100
〈표 Ⅲ-2- 2〉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102
〈표 Ⅲ-2- 3〉 지원유형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102
〈표 Ⅲ-2- 4〉 취업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104
〈표 Ⅲ-2- 5〉 취업 영유아 부모의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105
〈표 Ⅲ-2- 6〉 영유아 부모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여부	105
〈표 Ⅲ-2- 7〉 영유아 부모의 육아시간지원제도 사용 경험	107
〈표 Ⅲ-2- 8〉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직장 정기 휴일	108
〈표 Ⅲ-2- 9〉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및 주당 근로 시간	108
〈표 Ⅲ-2-10〉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109
〈표 Ⅲ-2-11〉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110
〈표 Ⅲ-2-12〉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111
〈표 Ⅲ-2-13〉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	112
〈표 Ⅲ-2-14〉 자녀 양육을 위해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경험	113
〈표 Ⅲ-2-15〉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14
〈표 Ⅲ-2-16〉 최연소 자녀의 부모 육아휴직시기	114
〈표 Ⅲ-2-17〉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115

〈표 Ⅲ-2-18〉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116
〈표 Ⅲ-2-19〉 이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117
〈표 Ⅲ-2-20〉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118
〈표 Ⅲ-2-21〉 소득 분위별 평균	119
〈표 Ⅲ-2-22〉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120
〈표 Ⅲ-2-23〉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121
〈표 Ⅲ-2-24〉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122
〈표 Ⅲ-2-25〉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123
〈표 Ⅲ-2-26〉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124
〈표 Ⅲ-2-27〉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125
〈표 Ⅲ-2-28〉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126
〈표 Ⅲ-2-29〉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	127
〈표 Ⅲ-2-30〉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128
〈표 Ⅲ-2-31〉 가구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129
〈표 Ⅲ-2-32〉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130
〈표 Ⅲ-2-33〉 영유아 가구의 주택소유 특성	130
〈표 Ⅳ-1- 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136
〈표 Ⅳ-1- 2〉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138
〈표 Ⅳ-1- 3〉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139
〈표 Ⅳ-1- 4〉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141
〈표 Ⅳ-1- 5〉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142
〈표 Ⅳ-2- 1〉 영유아 부모별 부정적 양육 정서	144
〈표 Ⅳ-2- 2〉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145
〈표 Ⅳ-2- 3〉 부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146
〈표 Ⅳ-2- 4〉 모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147
〈표 Ⅳ-2- 5〉 부모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149
〈표 Ⅳ-2- 6〉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151
〈표 Ⅳ-2- 7〉 아동연령별 선호하는 양육형태	152
〈표 Ⅳ-2- 8〉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아이 직접 돌보기	153
〈표 Ⅳ-2- 9〉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154
〈표 Ⅳ-2-10〉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사 지원(집안일) 등	155
〈표 Ⅳ-2-11〉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156
〈표 Ⅳ-2-12〉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158
〈표 Ⅳ-2-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159
〈표 Ⅳ-2-14〉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161

〈표 IV-2-15〉 육아심포(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제도 인지 및 이용 경험	161
〈표 IV-2-16〉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63
〈표 IV-2-17〉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정보(복수문항)	164
〈표 IV-2-18〉아이돌봄미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165
〈표 IV-3- 1〉제 특성별 등록 장애 유형(중복응답)	166
〈표 IV-3- 2〉제 특성별 등록 장애 정도	167
〈표 IV-3- 3〉장애 진단 시기	168
〈표 IV-3- 4〉장애 진단 계기	169
〈표 IV-3- 5〉이용기관, 이용 시간 및 만족도	169
〈표 IV-3- 6〉제 특성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170
〈표 IV-4- 1〉추가 출산 관련 의견 비율	172
〈표 IV-4- 2〉추가 출산계획 시기	173
〈표 IV-4- 3〉추가 출산계획 자녀 수	173
〈표 IV-4- 4〉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174
〈표 V-1- 1〉최초 이용기관	181
〈표 V-1- 2〉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182
〈표 V-1- 3〉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183
〈표 V-1- 4〉사유별 최초 이용 월령	185
〈표 V-2- 1〉자녀 연령대별 이용했던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 서비스(중복응답)	186
〈표 V-2- 2〉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187
〈표 V-3- 1〉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	189
〈표 V-3- 2〉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 취업 및 맞벌이 여부	190
〈표 V-3- 3〉유치원 이용 아동 모 취업 및 맞벌이 특성	190
〈표 V-3- 4〉기관 소재지와 아동 거주지와의 관계	191
〈표 V-3- 5〉기관 소재지와 아동 거주지가 다른 이유	193
〈표 V-3- 6〉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194
〈표 V-3- 7〉돌봄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194
〈표 V-3- 8〉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195
〈표 V-3- 9〉현재 이용기관 이용 지속기간	196
〈표 V-3-10〉기관별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198
〈표 V-3-11〉주당 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199
〈표 V-3-12〉토요일 보육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어린이집 이용자)	199
〈표 V-3-13〉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원 시각	200
〈표 V-3-14〉이용기관별 영유아의 하원 시각	201
〈표 V-3-15〉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202

〈표 V-3-16〉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시작 시기에 대한 인식	203
〈표 V-3-17〉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끝나는 시각에 대한 인식	204
〈표 V-3-18〉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 시각	205
〈표 V-3-19〉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 시간	205
〈표 V-3-20〉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207
〈표 V-3-21〉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나눔 정도	208
〈표 V-3-22〉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208
〈표 V-3-23〉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 시간	209
〈표 V-3-24〉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 시간	209
〈표 V-4- 1〉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210
〈표 V-4- 2〉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212
〈표 V-4- 3〉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213
〈표 V-4- 4〉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월평균 보육료·교육비 제외)	214
〈표 V-4- 5〉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216
〈표 V-4- 6〉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217
〈표 V-4- 7〉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218
〈표 V-4- 8〉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입소비(입학준비금, 입학금)	219
〈표 V-4- 9〉 총 보육·교육 비용 부담 정도	220
〈표 V-4-10〉 매월 기관에 내는 비용 우선지원	221
〈표 V-4-11〉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추가 부담 의사 및 비용	222
〈표 V-5- 1〉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224
〈표 V-5- 2〉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빈도	225
〈표 V-5- 3〉 기관 제공 부모서비스 만족도	227
〈표 V-5- 4〉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별 만족(매우 만족+만족) 비율	228
〈표 V-6- 1〉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229
〈표 V-6- 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이용 비율	230
〈표 V-6- 3〉 이용 특별활동 개수	230
〈표 V-6- 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232
〈표 V-6- 6〉 제 특성별 특별활동 이용 비용	233
〈표 V-6- 7〉 특별활동 과목별 주당 이용 횟수	234
〈표 V-6- 8〉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234
〈표 V-6- 9〉 제 특성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235
〈표 V-6-10〉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 여부	236

〈표 V-7- 1〉 이용기관별 교직원, 시설, 서비스 질, 비용 등 만족 비율	238
〈표 V-7- 2〉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239
〈표 V-7- 3〉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240
〈표 V-8- 1〉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중복응답)	241
〈표 V-8- 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가장 주된 이유 1가지)	242
〈표 V-8- 3〉 국·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가장 주된 이유 1가지)	244
〈표 V-8- 4〉 출생코호트 및 연도별 향후 어린이집 이용 의향	246
〈표 V-8- 5〉 출생코호트 및 연도별 향후 유치원 이용 의향	246
〈표 V-8- 6〉 지역규모별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도의 어린이집 수요	247
〈표 V-8- 7〉 지역규모별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도의 유치원 수요	248
〈표 V-8- 8〉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도의 기타 시설 수요	249
〈표 V-8- 9〉 2024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250
〈표 V-8-10〉 2023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251
〈표 V-8-11〉 2022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251
〈표 V-8-12〉 2019년생~2021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252
〈표 V-8-13〉 출생코호트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	254
〈표 V-8-14〉 출생코호트별 유치원 이용 현황 및 계획	255
〈표 VI-1- 1〉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261
〈표 VI-1- 2〉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모 취업 특성	263
〈표 VI-1- 3〉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264
〈표 VI-1- 4〉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1순위)	265
〈표 VI-1- 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66
〈표 VI-1- 6〉 지역 및 모 취업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67
〈표 VI-1- 7〉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68
〈표 VI-1- 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270
〈표 VI-1- 9〉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271
〈표 VI-1-10〉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273
〈표 VI-1-11〉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274
〈표 VI-1-12〉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275
〈표 VI-1-13〉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 시각	276
〈표 VI-1-1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277
〈표 VI-1-1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277
〈표 VI-1-16〉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278
〈표 VI-1-17〉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79
〈표 VI-1-1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80

〈표 VI-1-19〉 아동 연령 및 모 취업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81
〈표 VI-1-20〉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관련 의견	282
〈표 VI-1-21〉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등원시각	283
〈표 VI-1-22〉 제 특성별 희망 등원시각	284
〈표 VI-1-23〉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하원시각	285
〈표 VI-1-24〉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하원시각	286
〈표 VI-1-25〉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희망 이용시간	287
〈표 VI-1-26〉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288
〈표 VI-1-27〉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289
〈표 VI-1-28〉 제 특성별 등·하원 시 정보 교류	291
〈표 VI-1-29〉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292
〈표 VI-2- 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비용 분포	293
〈표 VI-2- 2〉 어린이집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294
〈표 VI-2- 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295
〈표 VI-2- 4〉 어린이집 유형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296
〈표 VI-2- 5〉 제 특성별 보육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보육 비용	297
〈표 VI-2- 6〉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298
〈표 VI-2- 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담 정도	299
〈표 VI-2- 8〉 어린이집 유형·보육료 지원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300
〈표 VI-2- 9〉 제 특성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301
〈표 VI-3- 1〉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303
〈표 VI-3- 2〉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304
〈표 VI-3- 3〉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5점 척도	305
〈표 VI-3- 4〉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306
〈표 VI-3- 5〉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306
〈표 VI-3- 6〉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307
〈표 VI-3- 7〉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307
〈표 VI-3- 8〉 참여율, 도움 정도, 참여 의향	308
〈표 VI-3- 9〉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	308
〈표 VI-3-10〉 부모참여 도움 정도	309
〈표 VI-4- 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310
〈표 VI-4- 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311
〈표 VI-4- 3〉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312
〈표 VI-4- 4〉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이용 개수	313

〈표 VI-4- 5〉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수	314
〈표 VI-4- 6〉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315
〈표 VI-4- 7〉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비자발적 이용 비율	315
〈표 VI-4- 8〉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 여부	316
〈표 VI-4- 9〉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317
〈표 VI-4-10〉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318
〈표 VI-4-11〉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	319
〈표 VI-4-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 비용	319
〈표 VI-4-13〉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321
〈표 VI-4-1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선호도	322
〈표 VI-5- 1〉 어린이집 구성요소별 만족도: 5점 척도	323
〈표 VI-5- 2〉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324
〈표 VI-5- 3〉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325
〈표 VI-5- 4〉 지역규모별 및 모 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326
〈표 VI-5- 5〉 영유아구분 및 지역규모별,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도	327
〈표 VI-5- 6〉 어린이집 유형별(공공형, 서울형, 일반) 만족도: 5점 척도	328
〈표 VI-5- 7〉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순위)	329
〈표 VI-5- 8〉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2순위)	330
〈표 VI-6- 1〉 연장보육 이용 여부	331
〈표 VI-6- 2〉 연장보육 이용 이유(중복응답)	332
〈표 VI-6- 3〉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	333
〈표 VI-6- 4〉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비용 부담	334
〈표 VI-6- 5〉 연장보육 시 월 기준 저녁 급간식 비용	334
〈표 VI-6- 6〉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중복응답)	336
〈표 VI-6- 7〉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여부	336
〈표 VI-6- 8〉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 여부	337
〈표 VI-6- 9〉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	338
〈표 VI-6-10〉 연장보육 만족도	339
〈표 VI-6-11〉 기본보육 만족도	340
〈표 VI-6-12〉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이용 빈도	341
〈표 VI-6-13〉 야간연장보육 주로 이용하는 요일(중복응답)	342
〈표 VI-6-14〉 야간연장보육 주로 이용하는 시간	343
〈표 VI-6-15〉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필요성	343
〈표 VI-6-16〉 제 특성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필요성	344
〈표 VI-6-17〉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서비스 만족도	346

〈표 VI-6-18〉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347
〈표 VI-7- 1〉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주기 및 이용 건당 이용 시간	348
〈표 VI-7- 2〉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349
〈표 VI-7- 3〉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 정도	350
〈표 VI-8- 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신청방식, 대기 기간	352
〈표 VI-8- 2〉 입소 대기신청 기관	353
〈표 VI-8- 3〉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만족 이유	354
〈표 VI-8- 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356
〈표 VI-9- 1〉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성 인식	358
〈표 VI-9- 2〉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관련 정보 인지 정도	358
〈표 VI-9- 3〉 공공형(서울형 포함)어린이집의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유사성 인식	359
〈표 VI-9- 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의 영향	360
〈표 VI-9- 5〉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경험, 만족도	362
〈표 VI-9- 6〉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화에 대한 인식 및 경험	363
〈표 VI-9- 7〉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363
〈표 VI-9- 8〉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도움이 된 정보 (1+2+3순위)	365
〈표 VI-9- 9〉 어린이집 평가제도 인지 여부	366
〈표 VI-9-10〉 어린이집 평가제도 등급제 폐지 후 서술형 평가 결과서 공표 정도의 도움	367
〈표 VI-9-11〉 CCTV 의무화와 확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 정도	368
〈표 VI-9-12〉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여부 및 열람 경험	369
〈표 VI-9-13〉 CCTV 열람 신청 사유	369
〈표 VI-9-14〉 CCTV 열람 시기	370
〈표 VII-1- 1〉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	377
〈표 VII-1- 2〉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특성	378
〈표 VII-1- 3〉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379
〈표 VII-1- 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이유	380
〈표 VII-1- 5〉 연령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381
〈표 VII-1- 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382
〈표 VII-1- 7〉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383
〈표 VII-1- 8〉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	384
〈표 VII-1- 9〉 현재 이용 유치원 이용 지속기간	385
〈표 VII-1-10〉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요일 유형	385
〈표 VII-1-11〉 연령별 유치원 등원 시각	386
〈표 VII-1-12〉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 시각	387

〈표 VII-1-13〉 연령별 유치원 하원 시각	388
〈표 VII-1-1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388
〈표 VII-1-15〉 연령별 유치원 이용시간	389
〈표 VII-1-1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시간	390
〈표 VII-1-17〉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391
〈표 VII-1-18〉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392
〈표 VII-1-1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393
〈표 VII-1-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393
〈표 VII-1-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395
〈표 VII-1-22〉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395
〈표 VII-1-23〉 지역 및 기관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396
〈표 VII-1-24〉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398
〈표 VII-1-25〉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399
〈표 VII-1-26〉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399
〈표 VII-1-27〉 유치원 등·하원 시 기관과 정보교류 정도	400
〈표 VII-1-28〉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401
〈표 VII-2- 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403
〈표 VII-2- 2〉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404
〈표 VII-2- 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405
〈표 VII-2- 4〉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406
〈표 VII-2- 5〉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 정도	407
〈표 VII-2- 6〉 제 특성별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비용	409
〈표 VII-3- 1〉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411
〈표 VII-3- 2〉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및 5점 척도	413
〈표 VII-3- 3〉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관리	413
〈표 VII-3- 4〉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414
〈표 VII-4- 1〉 유치원 유형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415
〈표 VII-4- 2〉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	415
〈표 VII-4- 3〉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율(중복응답)	416
〈표 VII-4-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417
〈표 VII-4- 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 비율	418
〈표 VII-4- 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418
〈표 VII-4- 7〉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419
〈표 VII-4- 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420

〈표 VII-4- 9〉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421
〈표 VII-4-10〉 유치원 이용 유아 특성별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선호도	421
〈표 VII-5- 1〉 유치원 만족도 비율 및 평균: 5점 척도	423
〈표 VII-5- 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5점 척도	424
〈표 VII-5- 3〉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425
〈표 VIII-1- 1〉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429
〈표 VIII-1- 2〉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	430
〈표 VIII-1- 3〉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	431
〈표 VIII-1- 4〉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시기 및 기간	431
〈표 VIII-1- 5〉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 고려 요인	432
〈표 VIII-1- 6〉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 고려 요인	433
〈표 VIII-2- 1〉 영유아 구분별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요일 유형	433
〈표 VIII-2- 2〉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등원 시각	434
〈표 VIII-2- 3〉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등원시각	435
〈표 VIII-2- 4〉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하원 시각	435
〈표 VIII-2- 5〉 지역규모 및 모 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하원시각	436
〈표 VIII-2- 6〉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	437
〈표 VIII-2- 7〉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	438
〈표 VIII-2- 8〉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 관련 의견	438
〈표 VIII-2- 9〉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등원 시각	439
〈표 VIII-2-10〉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등원 시각	439
〈표 VIII-2-11〉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하원 시각	440
〈표 VIII-2-12〉 지역 및 모 취업 여부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하원 시각	441
〈표 VIII-2-13〉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이용 시간	441
〈표 VIII-2-14〉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이용 시간	442
〈표 VIII-3- 1〉 반일제이상 학원 월평균 비용	442
〈표 VIII-3- 2〉 연령별 월평균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443
〈표 VIII-3- 3〉 제 특성별 월평균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	443
〈표 VIII-3- 4〉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평균	444
〈표 VIII-3- 5〉 반일제이상 학원 부담에 대한 인식	445
〈표 VIII-3- 6〉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비용	446
〈표 VIII-4- 1〉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447
〈표 VIII-4- 2〉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448
〈표 VIII-4- 3〉 연령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448

〈표 VIII-5- 1〉 반일제이상 학원의 만족도	449
〈표 VIII-5- 2〉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5점 척도	450
〈표 VIII-6- 1〉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451
〈표 VIII-6- 2〉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운영여부	452
〈표 VIII-6- 3〉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개수	453
〈표 VIII-6- 4〉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중복응답)	454
〈표 VIII-6- 5〉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	454
〈표 VIII-6- 6〉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	455
〈표 VIII-6- 7〉 연령 및 지역별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455
〈표 VIII-6- 8〉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456
〈표 VIII-6- 9〉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457
〈표 VIII-6-10〉 지역별 반일제이상 학원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457
〈표 VIII-6-11〉 지역별 반일제이상 학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2순위)	458
〈표 IX-1-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461
〈표 IX-1- 2〉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462
〈표 IX-1- 3〉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이용 시 돌봄 제공자 (중복응답)	463
〈표 IX-1- 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기관 병행이용 시 돌봄 제공자	463
〈표 IX-1- 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464
〈표 IX-1- 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465
〈표 IX-1- 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466
〈표 IX-2- 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468
〈표 IX-2- 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469
〈표 IX-2- 3〉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470
〈표 IX-2- 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472
〈표 IX-2- 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473
〈표 IX-2- 6〉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데려오는 주기	473
〈표 IX-2- 7〉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475
〈표 IX-2- 8〉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제 특성별 비용 지불 여부	476
〈표 IX-2- 9〉 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비용 시 금액(월평균)	477
〈표 IX-2-10〉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478
〈표 IX-3- 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479
〈표 IX-3- 2〉 비혈연 양육지원자 구인 경로	480

〈표 IX-3- 3〉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481
〈표 IX-3- 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482
〈표 IX-3- 5〉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483
〈표 IX-3- 6〉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484
〈표 IX-3- 7〉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485
〈표 IX-3- 8〉 비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월 평균 비용	486
〈표 IX-3- 9〉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487
〈표 X-1- 1〉 제 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	490
〈표 X-1- 2〉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491
〈표 X-2- 1〉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 분포	493
〈표 X-2- 2〉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494
〈표 X-2- 3〉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 시간	496
〈표 X-2- 4〉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이용비용	498
〈표 X-2- 5〉 제 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499
〈표 X-2- 6〉 제 특성별 및 프로그램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	500
〈표 X-2- 7〉 가구소득 및 프로그램별 시간제 교육 월 평균 비용	501
〈표 X-2- 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시간, 전반적 만족도 비교	502
〈표 X-2- 9〉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02
〈표 X-2-10〉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503
〈표 X-3- 1〉 개인·그룹지도 이용 현황	504
〈표 X-3- 2〉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 유무	505
〈표 X-3- 3〉 개별교육 이용 개수	506
〈표 X-3- 4〉 개별그룹 주 평균 이용시간	508
〈표 X-3- 5〉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509
〈표 X-3- 6〉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510
〈표 X-3- 7〉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 비용	511
〈표 X-3- 8〉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512
〈표 X-3- 9〉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513
〈표 X-3-10〉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514
〈표 XI-1- 1〉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	518
〈표 XI-1- 2〉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519
〈표 XI-2-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520
〈표 XI-2- 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521
〈표 XI-2- 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523
〈표 XI-2- 4〉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524

〈표 XI-2- 5〉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527
〈표 XI-2- 6〉 시간제보육 통합반 인지 정도	528
〈표 XI-2- 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알게 된 경로	529
〈표 XI-2- 8〉 시간제보육 이용한 이유	531
〈표 XI-2- 9〉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	532
〈표 XI-2-10〉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533
〈표 XI-2-11〉 시간제보육 만족도	534
〈표 XI-2-12〉 시간제보육 통합반 만족도	535
〈표 XI-3- 1〉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누리과정 관련 인식	536
〈표 XI-4- 1〉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538
〈표 XI-4- 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539
〈표 XI-4- 3〉 비용 등 지원 수혜 여부 및 만족도	541
〈표 XI-4- 4〉 영유아 가구의 출산 관련 지방정부수당 수급 여부	542
〈표 XI-5- 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544
〈표 XI-5- 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545
〈표 XI-5- 3〉 부모교육 경험 여부(3년 이내)	547
〈표 XI-5- 4〉 부모교육 내용(복수응답)	548
〈표 XI-5- 5〉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복수응답, 온라인 포함)	550
〈표 XI-5- 6〉 부모교육 필요 여부	551
〈표 XI-5- 7〉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교육 내용	552
〈표 XI-5- 8〉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554
〈표 XI-5- 9〉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	555
〈표 XI-5-10〉 가정양육수당, 아동 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받을 의향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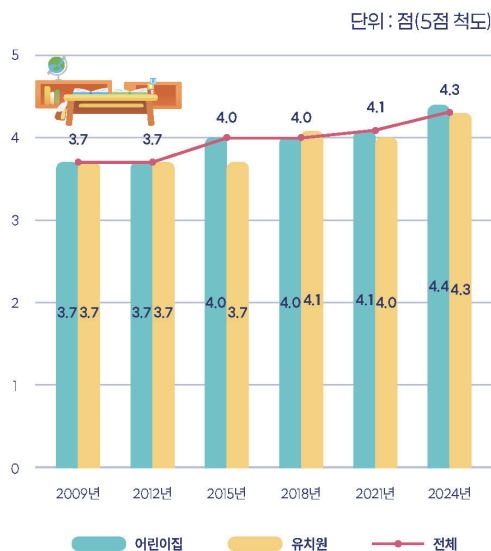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3-1] 가구 조사 실사 과정 개요	38
[그림 1-3-2] 가구조사 설문 개발 과정 및 일정	39

보육·교육기관 이용자 만족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 크게 증가하여 5점 기준 4.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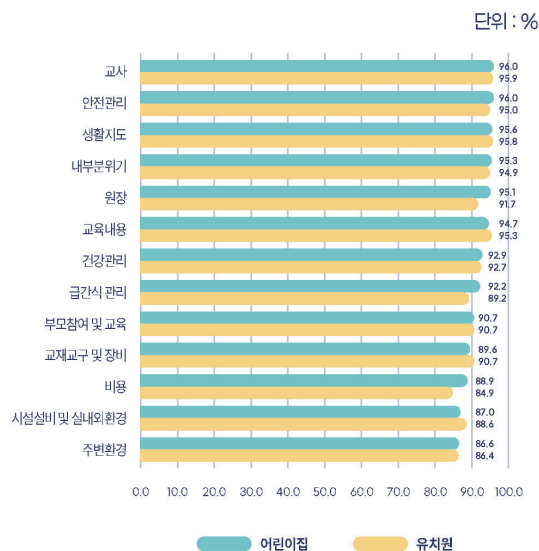
-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는 4.4점,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는 4.3점임.



<보육교육기관 이용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 보임.

- 교사, 안전관리, 생활지도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생활지도, 교육내용, 교재교구 및 장비,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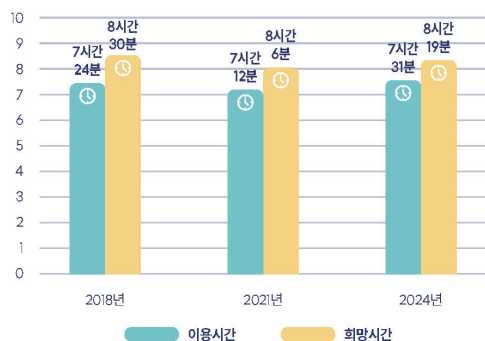


<보육교육기관 이용 항목별 만족 비율: 2024년도>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2024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에 비해 19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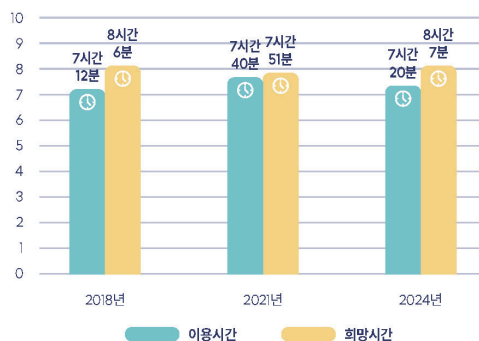
어린이집 이용자가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8시간 19분으로, 실제 이용 시간보다 48분이 길었음.



<어린이집>

2024년 유치원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0분으로 2021년에 비해 20분이 감소함.

유치원 이용자가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8시간 7분으로, 실제 이용시간보다 약 47분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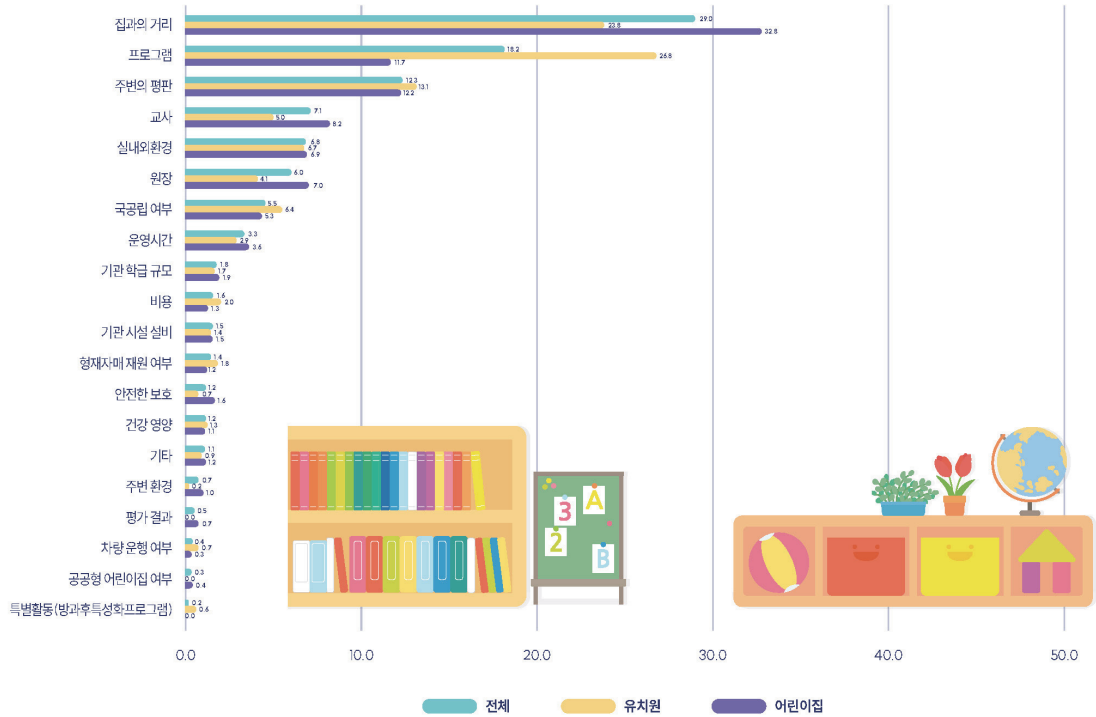


<유치원>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기관 선택 이유(순위 기준)는 어린이집 이용자는 집과의 거리 32.8%, 주변의 평판 12.2%, 프로그램 11.7% 순이며, 유치원 이용자는 프로그램 26.8%, 집과의 거리 23.8%, 주변의 평판 13.1% 순임.

단위 : %



<기관 선택 이유(1순위 기준)>

보육교육 기관 이용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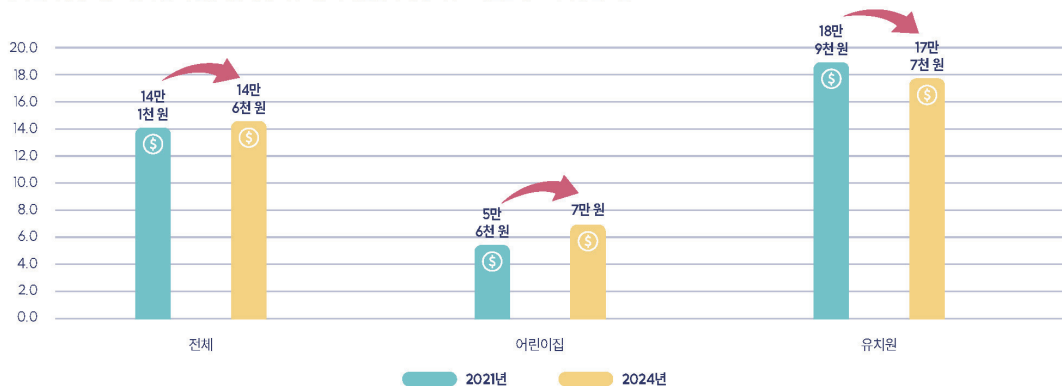
전체 영유아 기준 학부모 부담비용은 평균 14만6천원임.

어린이집 이용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월평균 7만원으로 2021년 5만 6천원에서 1만 4천원 증가함.

유치원 이용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17만 7천원으로 2021년보다 1만 2천원 감소함.

어린이집 이용 총비용*은 보육·교육비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와 기타비용을 모두 포함.

유치원 이용 총비용**은 수업료, 현장학습비, 방과후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 교육돌봄비, 교재비 등을 포함.



1. 서론

-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정(法定) 실태조사로, 「영유아보육법」 제9조는 교육부 장관이 매 3년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를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보육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보육사업 및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유아 가구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육아지원 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크게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나누어짐.
- 202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조사 완료 표본은 2,494가구로, 아동조사 기준 3,007명이 응답함.

2.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가. 아동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2024년 영유아 가구는 가구원 수 평균 3.5명으로, 2018년 3.9명, 2021년 3.8명에 이어 가구규모의 감소세를 보임.
 - 전체적으로 3명 이상,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다른 한편 가구원 수 2명은 2024년 2.4%로 이전의 1.2~1.3%에 비해 증가하여 한부모 가정이 늘어났음을 엿볼 수 있음.
-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90.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의 평균 연령은 39세 전후, 모의 평균 연령은 36세 전후로 이전과 큰 변화는 없음. 하지만 부모의 학력 수준은 점차 고학력화 되는 추세를 보임.

- 이민 가구 비중은 2021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모 비중이 높고, 읍·면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나.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2024년 부모의 취업률은 부 97.0%, 모 64.2%로, 2021년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모의 취업률이 크게 상승함.
 - 2015년 이후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유연근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부 38.2%, 모 45.3%로 나타나, 과반의 취업 부모가 유연근무제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연근로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자에게 실제 사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부 35.6%, 모 41.1%로, 60% 내외의 부모가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경험은 없는 것으로 응답됨.
 -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내(2023.9~2024.8) 해당 제도를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실제 사용은(모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특히 모에 비해 부의 시간지원 제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5%, 아버지가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3.6%,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음 6.1%로, 아버지만 한 경우보다 좀 더 높게 응답됨.
 -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모, 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긴급 상황(3.3점)과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시간(3.2점)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됨.
- 이주민 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응답이 5점 만점 기준 평균 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평균 3.0점 미만으로 응답됨.
 - 2021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이주민 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83.9%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택 소유 여부는 전체 응답 가구에서 자가 56.8%, 전세 26.6%, 전월세 10.4%로, 2021년 대비 영유아 가구의 자가 소유 비율이 약 2.9%p 감소하여 2012~2021년 기간에 있었던 자가 비율의 완만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영유아 양육 특성

가.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가 돌본다 37.3%임.
 - 2021년과 비교하여 기관이용과 부의 돌봄이 증가하고 모와 조부모 돌봄, 공공아이 돌보미 이용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평일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평균 7.1시간으로, 2021년 평균 7.9시간에 비해 감소함.
 - 평일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전체 평균 3.7시간으로 2021년 평균 4.0시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주말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모 평균 12.7시간, 부 평균 10.9시간으로, 2021년 모 13.2시간, 부 11.6시간에 비해 감소함.
-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2021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오히려 양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음.
 - 아동의 연령이나 다른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이는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길었을 뿐 아니라, 2024년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 등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됨.
 -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중에는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주말에는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하여, 주로 아버지의 자녀 양육은 주말에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부모의 돌봄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휴직 중인 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가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위험이 높은 부모, 즉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정양육)에게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정서 지원 등의 양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나. 부모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

-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4.0점으로 2021년 3.8점에 비해 부의 참여도가 증가함.
-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도는 5점 기준 평균 4.8점으로 아버지의 참여도 4.0점에 비해 높았으며, 2018년과 2021년 조사 결과 모의 참여도 4.7점에 비해 소폭 증가함.
- 부와 모 간에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양육’에 있어 10점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평균 7.0, 아버지가 3.0을 담당하는 것으로 응답됨.
- ‘가사분담’에서도 동일하게 어머니 7.0, 아버지 3.0으로 나타남.
- 2021년과 비교하여 모의 자녀양육 분담은 7.1점에서 7.0점으로 0.1점 감소하였으며, 모의 가사분담은 7.2점에서 7.0점으로 0.2점 감소함. 즉, 부모의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이 소폭 상승함.
- 모의 분담이 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모 취업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였고, 영유아 부모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계획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와 모 간 자녀돌봄 및 가사 분담의 격차를 줄이고 부모 공동양육과 참여를 위한 육아지원의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6.0%로, 2021년의 41.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74.9%로 2021년 70.3%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5년 81.1%, 2018년 83.9%에 비해서는 감소함.

- 가사 지원 등 육아 외 집안일의 도움을 받는지 질문한 결과 75.1%는 없다고 응답하여, 2021년 64.5%에 비해 증가함.
-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시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는 경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육아관련 사이트/어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21년 32.8%와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임.
- 친구나 동료가 25.6%였으며, 집안어른 12.5%, 육아전문가 7.7%, 형제자매 6.8%의 순으로 응답됨.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2021년 3.3%에 비해 다소 증가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는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해 높지 않음.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음 58.7%, 모름 41.3%로 나타났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연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7개 유형)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인지도에서 장난감·도서 대여에 대한 인지도가 89.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놀이·체험 프로그램 84.0%, 육아정보제공 81.4%의 순으로 나타남.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도 각 70% 이상으로 높았으며, 영유아발달검사·상담과 부모 상담·검사에 대해서는 각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 개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 경험은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장난감·도서대여(45.5%) > 놀이체험프로그램(44.2%) > 육아정보제공(33.7%)의 순으로 높았으며, 영유아발달검사상담(31.9%)과 부모교육(25.0%)에 대한 이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부모 대상의 상담·검사는 16.8%, 시간제보육 10.2%로 나타남.
- 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모두 4.0점 이상으로 전체 평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3.8~4.1점)에 비해 상승한 수치임.
-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사업으로 ‘육아쉽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육아쉽표에 대해 잘 알고 있음 2.4%, 들어본 적 있음 18.7%로 나타나, 전체 21.1%의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이용 경험은 전체 2.4%로, 97.6%의 다수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대한 인지도는 84.5%로, 2021년 73.0%에 비해 증가함.
-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88.6%로 나타났으며(이용 경험 없음 11.4%), 월 1~3회 이용이 42.9%로 가장 많음.
- 이용 만족도는 5점 평균 3.6점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이 56.0%의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임. 단, 이는 이전연도에 비해서는 만족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상승한 것임.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자에게 주로 이용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찾기/정보 등과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보 및 보육료 결제에 대해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4.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가. 반일제이상 기관 최초 이용 경험

- 최초 이용 반일제이상 기관은 어린이집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초 이용 월령은 평균 19.8개월에 기관 이용을 시작함.
-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은 2009년 조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계속 빨라지고 있음.
-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 33.2%로 가장 높고,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움이 30.9%, 양육부담 경감 16.2%, 사회성 발달이 14.4% 순임.
- 영아의 경우 돌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유아기에 처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이나 전인적 발달 등을 이유로 기관 이용을 시작함.
-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응답자(355명)를 대상으로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한 결과 아무데도 안 보내겠다고 한 경우가 12.3%,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고 한 경우가 87.7%로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양육 의향은 그다지 높지 않음.

나. 반일제이상 기관 선택 이유

-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기준) 집과의 거리(32.8%), 주변 평판

(12.2%), 프로그램(11.7%), 교사(8.2%), 원장(7.0%)의 순으로 응답됨.

-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기준) 프로그램(26.8%), 집과의 거리(23.8%), 주변 평판(13.1%), 실내외환경(6.7%), 교사(5.0%)의 순임.
-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응답이 72.5%임.

다. 반일제이상 기관 등·하원 시각

- 이용 기관별 등원 시각은 모든 기관에서 8:31~9:00 사이 등원하는 비중이 과반 (51.8%)으로 가장 높고, 9:01~9:30에 등원하는 비율이 21.1%로 그다음으로 높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등원 시각의 분포가 좀 더 넓게 퍼져있는 경향성을 보임.
 - 2015년부터의 경향성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사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9 시 전에 기관에 등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이용 기관별 하원 시각은 15:01~16:00 사이 하원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49.3%, 유치원 48.3%이며, 16:01~17:00에 하원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25.0%, 유치원 33.6%로, 대체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하원시간도 2015년 이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나, 최근으로 올수록 15:01~16:00 에 하원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성이 발견됨.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6~7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7~8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20.7%, 8~9시간 이용자가 13.7%임.
 - 유치원의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0분으로 6~7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45.5%, 7~8시간 이용자 비중이 28.3%로 어린이집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6시간 26분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는 이용 시간이 1시간가량 짧았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하원 시각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이 평균적으로 한 시간 정도 빨랐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세 기관 모두 이용시간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희망 등원 시각은 8:31~9:00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55.2%로 가장 높고, 희망 하원 시각은 15:01~16:00 사이 등원하는 비율이 31.5%, 16:31~17:00가 29.7%로

높음.

- 실제 등·하원 시각과 비교해 볼 때 등원 시각의 경우 8:30 이전 등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28.2%로 실제 이 시각 등원 비율 18.4%보다 9.8%p 높고, 하원 시각의 경우 17:31 이후에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31.9%로 실제 이 시각에 하원하는 비율인 13.2%보다 18.7%p 높게 나타나, 현재 이용시간보다 더 이른 등원과 늦은 하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 희망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19분,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8시간 7분, 반일제이상 학원 7시간 22분으로, 전체 기관 평균 8시간 13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제 이용 시간인 7시간 25분보다 약 48분가량 긴 시간임.
 - 2021년 하루 평균 7시간 58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서 약 14분가량이 증가한 것이지만, 2018년 조사 결과인 8시간 18분과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도입된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점차 보육현장에 안착되고 있음을 시사함.

라. 토요일 보육 이용 경험 및 필요성

-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토요일 보육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음' 89.1%로 대부분이긴 하나 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약 10.9%가 토요일 보육이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읍·면지역에서 토요일 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자주 있음' 6.4%, '가끔 있음' 9.6%로 높게 나타남.

마. 월 보육·교육비

- 전체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4만5,800원이며,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9만2,100원으로 나타남.
-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4만1,000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9만2,800원보다 약간 감소함.
- 이용기관별 보육료·교육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비용 기준 이용 기관별 전체

- 24.1%가 비용을 내지 않았고, 순보육·교육비용 기준 이용기관별 전체의 81.3%가 비용을 내지 않음.
- 2024년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급함에 따라, 순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을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으며, 표에는 전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순보육·교육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1.0%만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어린이집 7만300원, 유치원 17만7,000원, 반일제이상 학원 147만7,400원이며, 순보육·교육비는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치원 8만6,500원, 반일제이상 학원 108만8,000원임.
- 추가비용은 어린이집 7만300원, 유치원 9만600원, 반일제이상 학원 38만9,300원임.
 -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어린이집이 1.3%, 유치원이 3.2%인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2012년부터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2년 5.0%, 2018년 3.4%, 2021년 2.7%, 2024년 2.3%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임.
- 2024년 기준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2021년 대비 현장 학습비 등 기타 비용과 방과후 특성화비는 상승한 반면, 급간식비가 감소했다는 점임.
-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학습이나 대면 행사가 위축되었던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4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학습 등이 크게 증가했음을 짐작케 함.
 - 유치원 이용자의 급간식비는 2021년 기준 월평균 8만1,000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4만5천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부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시도가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보임.
 - 2021년 대비 2024년에는 기관 이용비용은 월평균 4,8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추가 비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매월 기관에 내는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이전연도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비용 부담 정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2.6점으로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은 정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매월 부모가 기관에 내는 비용 중 추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활동비'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급간식비 16.0%, 현장학습비 15.7%, 기타비용 15.3%로 세 항목이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3.6%임.
- 이러한 수치는 2018년 40.5%, 2015년 29.6%에 비해 더욱 높아진 수치이나, 2021년 수치와는 유사함.
- 한편,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평균 7만5,700원으로, 2018년 11만4,400원, 2021년 9만6,800원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순보육·교육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월 보육·교육비는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현장학습비·행사비 등 기타 비용, 특별활동비(방과후 특성화비) 등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1년 크게 위축되었던 현장학습과 대면행사, 특별활동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차액보육료 및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의 정책 효과를 일부 상쇄함.

바. 기관이 제공하는 부모서비스

- 기관이 제공하는 부모서비스는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제공률을 보였으나, 발달평가(70.9%), 부모교육자료(83.7%), 부모참여프로그램(87.7%), 양방향 알림장(88.7%)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공률을 보임.
- 그러나, 2021년 상대적으로 제공률이 낮은 서비스의 제공률이 모두 개선됨.
- 애초 제공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항목들(보육·교육계획, 급간식식단 등)은 여전히 높은 제공률을 유지하고 있음.
- 부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2021년 대비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사.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은 2021년 조사에 비해 운영률과 이용률이 모두 증가함.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과목별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78.5%로 가장 높았고, 예능(미술, 음악) 75.0%, 영어 67.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8.3%, 수학/과학 관련 46.3%의 순서로 운영함.
 -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비율은 과목별로 예능(미술, 음악) 64.3%, 체육관련 67.1%, 영어 55.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4.4%, 수학/과학관련 33.7%, 기타 13.6% 순임.
- 특별활동 이용개수를 살펴보면, 5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27.3%에 달했으며, 이용이 없는 경우가 22.2%, 3개가 16.3%, 4개인 경우가 13.7%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 특별활동 2.9개를 이용하고 있음.
- 특별활동 과목별 이용비용은 기타를 제외하고 월평균 영어가 2만9,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체육 2만6,500원, 예능(미술, 음악)이 2만5,900원, 수학/과학 2만2,400원 순임.
 - 2018년에 비해서는 2021년이 이용비용이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모든 과목에서의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모든 과목이 평균 4.3점으로 높게 나타남.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반일제이상 학원이 4.0점 전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별활동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질문한 결과, 체육이 23.9%, 예능(미술, 음악)이 23.4%로 비슷한 비율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언어(12.9%)와 영어(12.6%) 순임.
 - 영어는 체육(26.0%)과 예능(21.2%), 유아는 영어(16.9%), 언어(16.8%)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른다' 26.5%, '비해당' 18.8%, '잘 안다' 16.1%로 나타남.

아. 보육·교육기관 만족도와 요구

-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로, 2018년(80.9%), 2021년(77.7%) 조사에 비해서는 각각 11.0%p, 14.2%p가량 높아짐.
 - 세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 평균으로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90.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어린이집의 경우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등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90% 이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뿐 아니라 비용, 급간식 관리가 90% 이하의 만족도를 보임.
- 기관별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3점으로 모든 항목이 4.2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1순위 응답에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증원'이 17.0%, '노후시설 정비' 14.9%, '인력의 질 제고' 10.3% 순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내용 다양화'에 각 18.0%와 19.5%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반일제이상 학원은 '비용절감'을 34.3%로 가장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함.

자.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6.8%, 사립유치원 29.5% 순임.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5%였으며,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응답 비중도 10.4%임.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한 번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16명으로, 가장 주된 이유는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3.2%로 절반 이상

이었으며, ‘집에서 가까워서’가 17.1%, ‘비용이 저렴해서’ 16.6% 순임.

- 국공립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서’가 54.9%로 가장 높음.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서’(20.1%)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교육내용이 좋아서’(11.0%)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임.

5.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가. 어린이집 이용 현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38.3%), 민간(37.4%), 가정어린이집(12.4%) 등임.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은 2015년(14.4%), 2018년(21.7%), 2021년(29.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 및 선택 시 고려사항

-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고, 부모 대리보호(18.4%), 사회성 발달(17.5%), 양육 부담감(14.6%) 등의 순임.
- 전인적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018년(27.6%), 2021년(40.1%)에서 다소 늘어났으며 부모 대리보호는 2018년(23.1%), 2021년(22.0%)에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영아는 전인적 발달(36.6%), 부모 대리보호(22.6%), 사회성 발달 (17.5%), 양육 부담감(16.8%) 순이었으나, 유아는 전인적 발달(49.6%), 사회성 발달 (17.5%), 부모 대리보호(11.7%), 양육 부담감(11.1%) 순으로 이용 이유에 따른 비중과 순위 차이가 있음.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으로는 집과의 거리가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주변의 평판(12.2%), 프로그램(11.7%), 교사(8.2%) 등의 순임.
- 2012년 조사 이후 집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어린이집 중단 사유로는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 중단한 경우가 45.3%로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였고, 이외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맞지 않음(18.8%), 어린이집 관련 불만(17.9%), 기관 폐원 및 이사(7.9%) 등의 순임.

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

- 영유아 전체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31분(표준편차 1시간 19분)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2018년 평균 7시간 24분(표준편차 1시간 18분), 2021년 평균 7시간 12분(표준편차 1시간 22분)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다소 늘어남.
 - 등원 시각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구간은 8:30~9:00이며, 하원 시각은 15:00~16:00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이는 2021년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된 기본보육시간의 하원 시간에 맞춰진 결과로 보임.
- 어린이집 시작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6.2%였으며, 끝나는 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91.4%임.
 -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은 보육연령이 늘어날수록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규모에 따라 끝나는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도시(90.8%), 중소도시(92.8%), 읍·면지역(88.6%)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은 미취업(91.9%), 취업(91.2%), 휴직 중(90.2%)순임.
- 어린이집 희망 등원 시각은 실제 등원 시각과 마찬가지로 8:31~9:00인 경우가 5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8:01~8:30과 9:01~9:30이 각 10.7%를 보임.
 - 어린이집 희망 하원 시각은 15:01~16:00가 3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31~17:00가 20.6%임.
- 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평균 8시간 19분으로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 7시간 31분에 비해 48분가량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균 희망 이용 시간은 2018년(8시간 30분), 2021년(8시간 6분)으로 2021년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으로 조사됨.
 - 희망 이용 시간은 9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24.7%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희망 이용시간의 분포는 영유아 구분과 보육연령에 따라 유아가 좀 더 장시간 보육

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희망 이용시간에 대한 평균값은 영유아 구분이나 보육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연장보육까지 이용하는 비중은 6.9%p가량 늘긴 했으나,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33.7%에 그침.
 -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장보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았고,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21.7%를 차지하여, 대부분 자발적 이유로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연장보육 미운영의 경우 3.6%에 그침.
-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은 8.0%로 2021년 조사의 9.3%에 비해 감소함.
 -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 애로사항으로는 어린이집에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응답은 2021년 조사의 54.4%에 비해서도 다소 증가함.
 - 이 외의 애로사항으로는 아이의 적응 어려움(19.0%), 담임교사의 하원지도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12.7% 등으로 높게 나타남.
- 하원의 경우 대체로 17시 이전에 이뤄지는데,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희망하원 시각은 좀 더 늦은 시각대로, 영아나 취업모 등이 보다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연장보육을 희망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기본보육지원체계의 개편 등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 요구는 크지 않다고 보임.

라. 어린이집 이용비용

-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은 전체의 25.5%가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은 7만300원으로 세부 항목으로 특별활동비(4만1,100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비용(2만5,300원), 어린이집 시도 특성화비(3,800원)로 확인됨.
 - 2024년 조사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별도의 순보육비(차액보육료)를 설문에서 제외하여 질문하지 않음.

-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의 전체 비용 및 세부 항목별 비용은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민간어린이집이 8만9,5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3만9,400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도 24.6%에 달함.
-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5점으로 보통 이하의 부담 수준으로 조사됨.
- 2021년 조사에서 부담 정도는 2.7점으로, 2024년 조사에서 부담 정도가 더욱 낮아짐.
-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이용비용의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직장어린이집(72.1%), 법인·단체등어린이집(57.9%), 국공립어린이집(56.8%), 민간어린이집(54.7%) 등에서 높은 추가 부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부담 가능 비용은 평균 7만5,900원으로, 법인·단체등 어린이집(10만3,000원), 민간어린이집(8만1,400원), 직장어린이집(7만6,600원)으로 추가 지불 의사를 보임.
- 차액보육료 지원 및 5세 추가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4년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감소한 현상이 발견됨.
- 다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금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비용 경감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됨.

마. 어린이집 이용 아동 건강검진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은 비중은 84.4%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법인·단체등어린이집(89.1%), 국공립어린이집(87.2%), 직장어린이집(86.9%), 가정어린이집(8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83.4%)로 중소도시(85.1%), 읍·면지역(84.9%)에 비해 건강검진 비중이 낮음.
- 건강검진 수검 비중은 보육연령 5세에서 87.9%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연령 0세에서 8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이는 5세는 초등취학전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기인한 영향으로 보이며, 0세는 가정

보육 상황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사료됨.

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보육실태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구성요소별로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4.50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4.42점, 생활지도 4.41점 순임.
- 반면,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이 4.2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주변환경 4.26점,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부모참여 및 교육이 각 4.29점으로 다음을 이음.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2015년 4.10점이었으며, 2018년 약간 낮아져 4.03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2021년에는 4.02점에 그침.
- 2024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모든 구성요소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평균 4.62점이었으며, 다음으로 협동어린이집 4.47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4.45점 순임.

- 직장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항상 높았던 상황으로, 특히 이들 유형의 어린이집은 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건강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 반면,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용,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 부모 참여 및 교육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임.

□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4.53점으로 매우 높고, 일반 어린이집 4.31점, 공공형 어린이집 4.29점 순임.

- 서울형 어린이집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만족도가 일반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교육내용(4.73점), 건강관리(4.72점), 비용(4.6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사. 어린이집 개선 사항

□ 어린이집 개선 사항은 1순위 응답 기준 ‘교육내용 다양화’가 1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력 증원’ 17.5%, ‘노후시설 정비’ 14.3% 순임.

- 반면, '회계 투명성'은 2.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비용 절감' 2.9%, '아동 학대 예방'이 3.3%로 낮은 순위를 보임.
- 어린이집 개선 사항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도 '교육내용 다양화'가 33.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인력의 질 제고(24.6%)', '인력 증원(24.2%)' 순으로 응답됨.

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음.
 -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야간 연장 보육(3.9%), 야간 12시간 보육(2.1%), 휴일보육(1.8%), 24시간 보육(1.0%) 순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93.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부모'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음.
 - 부모로 응답한 비중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75.5%, 아이가 아플 때는 80.3%로 나타났으며 '부모' 이외에는 혈연관계의 사람이 긴급 상황 시(23.6%), 아이가 아플 때 (19.0%) 돌본다고 응답함.
 - 이외에 '비혈연'이나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은 1% 이하의 낮은 응답비중을 보임.

자. 시간제보육 제공

-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73.5%,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6.5%로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비율이 2015년 86.1%, 2018년 42.4%, 2021년 13.7%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2024년에 약간 상승함.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의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5점 기준에 평균 4.3점으로 2021년 3.9점에 비해 상당히 상승하였고, '만족비율(매우만족+만족)'도 2021년 79.4%에서 2024년 88.9%로 높아짐.

-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4.4점으로 2021년 4.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함.
- 시간제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 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51.5%로 가장 많았고, ‘도보’는 41.3%, ‘대중교통’은 3.6%로 나타남.
-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 시 교통수단별 평균 소요시간은 ‘대중교통’ 이용이 23.7분, ‘자가용’이 10.2분, ‘도보’는 7.6분임.

차. 어린이집 입소대기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기 전 대기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5%였고, 대기 기간은 평균 7.2개월임.
- 입소 전 대기 경험자 중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입소대기 방식은 영아는 93.1%, 유아는 88.9%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2세의 경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중이 94.6%로 가장 높음.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비율은 2015년 68.4%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현재 거의 대부분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소대기 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8.9%, 민간어린이집 24.0%, 가정어린이집 8.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2.2%, 사립유치원 2.0%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이 2021년 43.1%에서 2024년 58.9%로 크게 증가함.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3.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에 그 이유로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5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기기간 단축’이 22.6%,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가 20.5%, ‘맞벌이자녀 입소거부 차단’ 2.0% 순임.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사항으로는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로 가장 많았고,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1.9%,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

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3.2%임.

- 특히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이 41.3%이었는데, 문자로 입력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이나 앱 사용의 불편함', '전화 안내 등 대기 순번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필요', '정확한 현황(순번) 공개' 등의 개선 의견이 있음.

카.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공공형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봤고 어떤 제도인지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9%,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8.0%로 나타남.
- 자녀가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해당 기관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려함'으로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려함+매우 그려함)이 73.6%에 달하여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가 기관 선택 시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단,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봤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42.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4.2%로 나타남.
-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46.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는 비율은 30.9%,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2.6%로 나타남.

타.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 정부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info.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8.2%가 인지하고 있었고, 31.9%가 모르고 있음.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47.4%였고 평균 점수는 3.5점임.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서 '찾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조사됨.

- 어린이집 정보 조회 경험비율은 2015년 22.9%, 2018년 25.3%, 2021년 31.7%, 2024년 38.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도움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8점으로 2018년 3.5점, 2021년 3.7점에 비해 소폭 상승함.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추가로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우선순위 3개), 교직원 관련 정보가 61.3%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평가등급 관련 정보 52.4%, 보육과정 관련 46.1%, 보육공간 현황 29.4%, 환경안전 관련 28.0%, 특별활동 관련 24.9% 등의 순으로 응답됨.

파.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알고 있다는(잘 알고 있음+대충 앎) 비율이 56.6%로,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7.6%임.
- 평가인증에서 2019년 평가제로 변경된 이후 2021년 실태조사에서 평가제도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30.2%로 상당하였으나,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상당부분 부모들의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7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되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서를 공표하는 방식으로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매우 도움 됨+어느 정도 도움 됨) 82.1%로 매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CCTV 설치

-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열람범위가 확대된 점이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매우 도움 됨+어느 정도 도움 됨) 92.8%로 CCTV의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요건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먼저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음'이 40.1%, '모름'이 59.9%로 나타남.
-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3%가 열람 신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 열람 신청 사유를 질문한 결과, ‘안전사고 의심’이 63.2%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의심’은 22.6%, ‘단순 의심’은 14.2%임.

-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는 ‘즉시 열람함’이 34.2%, ‘신청 당일 열람함’이 30.1%,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함’이 17.4%,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함’이 4.7%였고, ‘열람을 거부당함’도 13.6%임.

□ 전반적으로 보육정책(공공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 평가 등)에 대한 인지도는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어, 그간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일정 정도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유치원 이용 및 요구

가. 유치원 이용 현황

□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은 국·공립유치원은 30.4%, 사립유치원은 69.6%였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함.

□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가 가장 많았으나 응답 비율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 국·공립유치원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립유치원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응답 비율이 22.0%로, 사립유치원 13.0%에 비해 상당히 높음.

나. 유치원 이용 시간

□ 유치원 등원 시각은 오전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72.9%, 사립유치원은 51.2%, 오전 9:01~9:30에 등원하는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은 7.6%, 사립유치원은 23.0%로 차이를 보임.

- 즉,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사립유치원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등

원하는 경향이 있음.

- 모의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모 유아는 오전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77.2% 인데 반해, 휴직 중인 모의 유아는 60.6%, 미취업모의 유아는 70.8%로 차이를 보여, 취업모의 경우 출근 등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시각이 좀 더 빠른 것으로 사료됨.
- 유치원 유형별로는 15:01~16:00 하원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54.0%, 사립유치원은 45.7%였고, 16:01~17:00 하원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은 29.4%, 사립유치원은 35.4%임.
- 대체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에 비해 하원 시각도 다소 빠른 경향이 있음.
- 모의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 시각을 보면, 17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취업모인 경우는 81.2%. 휴직 중인 모는 100.0%, 미취업모는 95.5%임. 취업 모의 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이 18.8%로, 상대적으로 휴직 중 또는 미취업모의 유아보다 다소 늦게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20분이며,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7분으로 실제 이용시간과 47분 차이가 있음.
- 유치원 유형별 희망 이용시간은 국·공립유치원의 희망 이용 시간이 8시간, 사립유치원 8시간 10분임.
-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가구가 희망하는 이용 시간이 7시간 57분으로 대도시 8시간 10분, 중소도시 8시간 7분에 비해 짧게 나타남.
-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은 8시간 27분으로 휴직 중인 모의 경우인 8시간 3분, 미취업모인 경우의 7시간 34분에 비해 장시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다. 유치원 이용비용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17만7,000원이었으며, 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 이용비, 졸업앨범비, 급간식비, 교재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월평균 8만6,500원, 그 외 추가비용(부대비용)이 9만600원으로 조사됨.
- 월평균 교육비는 2015년 13만500원에서 2018년 23만8,800원으로 크게 증가한

- 후, 2021년 18만8,700원, 2024년 17만7,000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국·공립유치원은 총지출 교육비가 월평균 7만8,000원이었으나,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23만8,800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임.
 - 이 중 순교육 지출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은 2만6,900원, 사립유치원은 11만2,400원, 추가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은 5만1,100원, 사립유치원은 10만7,800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임.
 -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매우 부담+부담되는 편)이 25.2%, 적당 37.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전혀 부담 안 됨+부담되지 않음) 36.9%였고, 5점 만점 기준으로 2.7점으로 나타남.
 - 부담 정도는 2015년 3.2점, 2018년 3.1점, 2021년 2.9점, 2024년 2.7점으로 부모들의 유치원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51.1%, 없다는 비율은 48.9%로 거의 유사함.
 -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2015년 26.0%, 2018년 35.8%, 2021년 49.8%, 2024년 5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단,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현재보다 매월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평균 7만1,900원으로, 최대 지불 가능액수 평균은 2015년 12만2,600원, 2018년 11만6,400원, 2021년 10만1,500원에 비해 매 조사시기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015년 26.0%, 2018년 35.8%, 2021년 49.8%, 2024년 51.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단,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라.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여부를 살펴본 결과, 예능(미술, 음악 등) 85.0%, 체육관련 88.2%, 수학/과학 관련 64.4%, 영어 83.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63.5%, 기타 15.1% 순이었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7.0%로 나타남.
 - 유치원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운영 비율(93.7%)이 국·

공립유치원(91.3%)보다 더 높았고, 예능이나 체육관련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학/과학관련(72.2%), 영어(87.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70.5%) 등 학습 위주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3.7개로 2018년 2.9개, 2021년 2.6개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균 3.2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3.9개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보다 특성화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1만1,700원에서 2만8,900원까지 다양함.

- 기타를 제외하면 영어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이 월평균 1만9,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1만4,700원, 예능(미술, 음악 등) 1만3,500원, 수학/과학 관련 1만2,500원, 영어 1만1,700원 순임.

- 단, 영어 프로그램의 월평균 비용은 2018년 3만500원, 2021년 2만4,200원으로 이용비용이 가장 컸으나, 2024년에는 다소 낮아짐.

마. 유치원 만족도

□ 전반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만족수준은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매우 만족+만족)이 91.7%였고, 5점 척도로 환산하면 4.3점임.

- 세부 항목 중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95.9%)였으며, 다음으로 생활지도(95.8%), 교육내용(95.3%), 안전관리(95.0%), 내부 분위기(94.9%), 건강관리(92.7%), 원장(91.7%), 교재교구 및 장비와 부모참여 및 교육(90.7%), 급간식 관리(89.2%),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88.6%), 주변환경(86.4%), 비용(84.9%) 순임.

-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5년 4.0점, 2018년 4.05점, 2021년 4.0점, 2024년 4.3점으로 만족 수준이 크게 상승함.

- 유치원 유형별로는 전반적 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이 4.4점, 사립유치원이 4.3점으로 국·공립유치원 만족도가 더 높음.

- 국·공립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중 4.5점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4.0점으로 가장 낮아 유형에 따라 비용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이외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에서도 국·공립유치원 만족도가 사립유치원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유치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1순위 응답 기준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후시설 정비’ 17.1%, ‘인력증원’ 16.8%, ‘인력의 질 제고’ 9.7%, ‘비용 절감’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7.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및 요구

가.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현황

-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이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반일제이상 학원을 최초 이용인 기관인 비율이 13.1%였으며 유치원인 경우 전혀 없음.
- 즉,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대체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에 반일제이상 학원으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짐.

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

-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보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준비, 특기교육 순으로 나타남.
-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이 유아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비율이 낮음.
-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에는 프로그램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의 응답자의 72.5%를 차지함.
- 다음은 주변의 평판, 비용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6%대에 그쳐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고려 요인인 것으로 조사됨.

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시간

-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 시간은 일일 평균 6시간 24분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약간 줄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음.

-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는 한 시간가량 이용 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됨.
-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로 하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료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27%로 나와 돌봄의 측면에서 이용 시간에 대해 불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희망하는 하원 시각으로는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높음.

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

- 반일제이상 학원의 월 이용비용은 평균 147만7,4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는 가구소득 대비 16.2%를 차지하고 있음.
- 순교육·보육비는 108만8,000원이고, 38만9,300원은 추가비용에 해당함.
-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비용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는 부담감을 보면 5점 기준 평균 3.9점으로, 보통 이상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용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에 달함.
- 반일제이상 학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29.2%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됨.
- 추가 부담할 경우 최대 40만원, 평균 13만8,4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비교하여 추가 비용 부담 의사는 낮은 편이나, 일단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지불 의향이 있는 지출 수준 자체는 높은 수준임.

마.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4.2점으로, 2021년 조사에서 산출된 3.8점에 비해 0.4점 상향된 만족도를 보임.
-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교사와 내부분위기, 교육내용으로 각각 4.4점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남.
- 반면,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비용으로 3.4점에 지나지 않음.

8.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2024년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18.3%인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 6.8%p 높아짐.
 -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유아의 경우에는 100% 기관 병행 이용이었음.
 - 전체적으로 개인양육지원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3.2%였고,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과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15.2% 수준임.
-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 혈연(93.1%)이 돌보고 있으며, 비혈연인이 단독으로 돌보는 경우는 11.1%임.
 - 돌봄제공자가 혈연인 경우 비동거 조부모가 7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거 조부모 10.4%임.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의 경우는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5.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4.9%)도 공공아이돌보미보다는 0.4%p 낮았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혈연양육지원서비스의 주된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고, '하원 후 퇴근 전'이 23.1%, '출근 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을 모두 이용하는 빈도가 21.6%의 순임.
 -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경우는 9.4% 정도에 그침.
 -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고,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경우는 5%p가량 감소됨.
-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6.7%,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8.9%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 평균 67만4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1년에 72만7천원, 2018년 70만3천원에 비하면 금액이 줄어든 것임.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 아이돌보미가 47.8%로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 육아돌보미 44.2%, 이웃과 지인이 6.0% 순임.
 - 2021년 조사결과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비율이 36.1%이었던 것에 비하여 11.7%p가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임.
 -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사이트나 앱'이 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민간업체 사이트나 앱'이 22.8%임.
-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중복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을 병행한다는 비중이 49.1%로 가장 많았고, 혈연과 비혈연 및 기관 이용 등 3가지 유형을 병행 이용한다는 비중 또한 33.6%로 상당한 비중을 보임.
-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유형별 비용 지불 수준을 보면, 지불 비용 평균은 97만2,000원임.
 -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금액 84만8천원보다 증가한 것임.

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3.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5% 순임.
 - 전체 영유아 중 72.6%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과 비교할 때, 모든 과목에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이 4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37.1%, 가정양육 8.1%, 반일제이상 학원은 7.6%임.
 - 즉,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병행 이용하는 경우임.
- 시간제 사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월평균 20만4,800원이었으며, 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 이상이 24.6%로 가장 많음.

- 이는 2021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데, 2021년 평균 비용은 20만2,900원으로 2024년보다 2천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금액 구간별에서 '21년은 10~1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던 반면 '24년은 15만원 이상에서 비율이 높아져 분포의 차이가 있음.

10. 육아정책 관련 인식

가.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학부모 의견

- 영유아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각 육아지원 정책별로 필요성을 7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평균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가 6.2점, '영유아 가구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와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지원 강화'가 각 6.1점, '어린이집·유치원 등 인프라 확대',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가 6.0점이었고, '가정 양육 지원 확대'가 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 2021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도 2024년 조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각 6.2점,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나.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수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51.6%,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8.1%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은 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37.1%로, 불충분하다는 응답 41.3%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하다와 불충분하다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20% 후반에 그침.
- 한편, 2015년 조사와 201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50% 대였으며,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30%대로, 2024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비중을 보임.
- 즉, 2024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이전 조사인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10%p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거주지 주변에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많다는 응답이 11.8%, 1~2곳 있다는 응답이 67.3%, 없다는 응답이 5.0%임.
-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믿고 보낼만한 곳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경향을 보임.
- 유치원의 경우에도 믿고 보낼만한 곳이 많다는 응답이 10.1%, 1~2곳 있다는 응답 51.9%로, 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특성별로 영아 자녀의 경우 유아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
-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 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 시간제보육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4.6%임.
-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2.4%, 실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함.
- 단, 시간제보육반 설문은 이용연령이 아닌 영유아(36개월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질문한 문항으로, 실제 이용 대상이 아닌 영유아 가구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0~2세 정규 보육반에 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때 일일 3시간 단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3.4%, 잘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10.6%,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2%임.
- 이는 앞서 시간제보육반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도 낮은 인지도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8.8%p 높은 수준임.
-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2022~2023년 시범사업 이후 2024년 본 사업으로 도입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 기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가 2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이 23.8%, ‘지인의 소개’ 19.9%,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16.7%, ‘교육부, 지자체의 홍보물’ 10.2% 순임.

- 2021년에는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이 30.9%로 가장 높았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가 24.5%로 다음 순위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4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인지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라.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 정부의 각종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를 보여, 보편 지원 형태의 0~1세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이 각 59.8%, 59.0%, 53.5%임.

- 반면, 지원 대상이 특정되는 장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76.6%에 달했으며,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와 시간제보육료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각 59.7%, 52.8%로 매우 높음.

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순위 응답 기준)은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2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0%,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임.

- 2021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보육·교육비 등 정부지원금 인상’ 2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14.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순으로, 2024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 2018년 조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이었음.

- 지난 3년 동안 영유아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과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최근 3년 이내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3%로, 2021년 28.3%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2018년 37.2%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1.3%, 필요없음 10.2%, 잘 모름 8.6%로 다수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21년에는 80.2%, 2018년에는 81.6%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난 3년간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은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이 57.7%로 확연히 높은 비중을 보임.
 - 다음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17.3%, ‘부모의 자기 이해 및 역할’ 8.6% 순임.
 - 이는 실제 부모들이 받았던 부모교육의 내용의 비중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임.
 -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는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이나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 교육을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하고, 유아는 ‘부모 자기 이해 및 역할’과 ‘미디어·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등을 좀 더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모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에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교육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영양, 안전 교육’이나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통합이나 다문화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이 4.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이나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이미 받은 적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의 방식은 온라인 교육이 42.5%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면 1:1 컨설팅 35.0%, 집합 교육 22.0% 순임.
- 정부지원금(가정양육수당, 아동 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등)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73.5%, 없

다는 응답이 26.5%임.

- 2021년 조사 결과에서도 있다는 응답이 76.9%, 없다는 응답이 23.1%로, 2021년에 비해서는 2024년에 부모교육 참여 의향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부모교육을 더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8%,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69.3%로, 오히려 과거에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앞으로도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I. 서론

1. 조사의 배경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정(法定) 실태조사로, 보육 분야의 정책 시행의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김은설 외, 2021).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9조는 교육부 장관¹⁾이 매 3년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를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다시 가구설문과 아동설문으로 구분되며, 가구설문은 영유아 가구의 보육 분야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요자 요구 등을 파악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아동설문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 각각에 대해서 실시되는 조사로, 영유아의 가정 양육실태, 어린이집을 비롯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개인양육서비스 활용 실태 등 주로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 및 보육 수요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 보육 사업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최근 극심한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보통합의 추진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보육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요구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의 역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무엇보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 분야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승인통계 자료로서, 영유아 가구의 정책적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보육 정책의 발굴과 다양한 보육 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2009년 제2차 전국보육실태조사 이후 육아정책연구소가 지속적으로 해당 조사와

1) 20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어린이집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 → 교육부로 변경)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실태 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대적 변화 상황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조사 자료의 구축과 동시에 장기간의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 및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7차²⁾ 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온 영유아와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와 정책 수요에 관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통계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³⁾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던 시기에 실시된 조사로, 자녀 양육 및 보육 양태가 이전연도 조사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지원체계의 안정과 코로나19를 완전히 벗어나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에 실시되는 조사로, 2021년과는 달리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 양태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는 2018~2024년생 아동으로, 2023년 이후 출생아⁴⁾를 제외한 모든 출생코호트의 영유아가 코로나19를 경험한 세대라는 점과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⁵⁾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는 점에서 2018년도의 보육 실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2024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유관 정책 사업들로 인한 제도적 변화는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수요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년은 유보통합 초기 단계로 관리 체계의 일원화, 법령 개정 등에 제도 변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특수한 시기적 상황과 사회적, 정책적 변화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보육 실태와 정책적 요구의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여, 현행 육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4년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2009년에 2회 조사가 실시됨. 이후 조사주기가 매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까지 총 6회의 조사가 실시됨.

3)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기본보육(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를 말함(보건복지부, 2024).

4) 보육연령 기준 0세아임.

5)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과 2023년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모급여 정책을 의미함. 단,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모두 2022년 이후 출생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2. 조사 목적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는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보육정책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보육사업 및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유아 가구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육아지원 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은설 외, 2021).

첫째,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및 개선 사항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이용 기관 유형 별로 이용 여부, 비용 부담, 개선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가구특성 등에 따른 차이를 고찰한다. 셋째,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이나 육아 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 평가, 제도 개선 요구 및 선호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넷째, 육아지원 정책의 최근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 변화가 영유아 가구에 미친 영향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육아지원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조사 수행 개요

가. 조사 방법 및 실사 절차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크게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나뉘어진다. 먼저 가구조사 설문은 이용하여 가구사항 및 전반적인 영유아 가구의 정책에 대한 인지 등을 파악하였다. 가구용 설문은 조사 대상인 모든 가구가 하나의 가구용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성공률은 가구조사 설문의 완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편, 아동조사 설문은 가구조사를 완료한 이후 가구 내 모든 0~5세⁶⁾ 영유아별로 각각 1부의 아동조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가구 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5세와 초등

6) 보육연령 기준.

3학년(8세)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조사 설문을 1부만 작성하지만, 2세와 5세가 있는 가구는 각각의 아동에 대해 각 1부(총 2부)의 아동조사 설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영유아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의 조사시간이 길어져 응답자의 응답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 수에 따라 추가 사례금을 지급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⁷⁾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지원금 수급 가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표집틀로 활용하였다⁸⁾.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 가구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종이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단, 다자녀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 장시간의 면접 조사 시간 확보가 어려운 일부 표본의 경우에는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 대상 가구에 유치한(남겨둔) 후 추후 방문 면접을 실시하거나 전화 조사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조사 실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I-3-1]과 같다.

[그림 I-3-1] 가구 조사 실사 과정 개요

조사대상 선정	가구 조사(면접 조사)	조사 관리	조사 완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료 등 정부지원금 수혜자 명단 확보 -조사대상 표집 (아동 연령, 지역규모 등을 고려한 표집) -어린이집, 지자체를 통한 조사 안내 배포	-면접원 교육 -가구 주 양육자 전화 건택 -대면 면접 조사 실시 -면접 시 조사원 방문, 조사 참여 설명 진행 -면접원 확인용 공문 등 배포	-조사 참여 독려 -2주 단위 실사 현황 파악 및 관리 -설문 결과 1차 검증 (조사업체 수퍼바이저 활용) -조사 완료분에 대한 중간점검 및 보완	-조사자료 더블 편칭 (자료 2차 검증) -조사자료 정리 및 클리닝(3차 검증) -승수(가중치) 산출 -분석 및 표 작성

- 주: 1) 조사방법은 대면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표본은 혼합조사(대면+설문 유치, 설문 유치+전화 등) 방법을 병행함.
 2) 자료 검증 과정에서 오류 값으로 의심되는 응답(표본)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및 재조사, 표본 교체 등을 실시함.
 3) 자료 조사 완료 후 자료 정제 과정에서 설문에 오류가 있거나 응답 누락이 많은 표본 등은 표본을 삭제함.

7) 2024. 6. 27일 기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 표집틀 협조 당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였음.

8) 표본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다'항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람.

나.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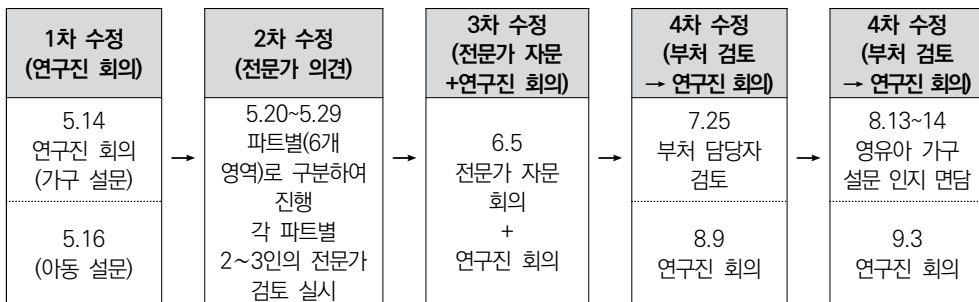
1) 2024년 설문 개발 개요

가구조사는 조사원이거나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4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설문은 이전 조사의 설문을 기초로 하여, 2022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또, 2021년 설문에서 표현이 모호하거나 설문 구조가 복잡하여 응답자가 응답하기 어려웠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응답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한편, 2021년 조사 당시 시의성을 고려하여 추가된 문항, 예를 들면 보육지원체계 개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 등의 문항은 2024년에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거나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므로, 반복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설문 문항을 삭제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기본보육이나 연장보육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이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및 제도 개선 사항 등과 연관된 문항은 여전히 설문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반면,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등과 같이 보육정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 문항으로 추가, 신설하여 조사하였다. 또, 기존 문항이라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세부적인 정책 지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화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설문 수정 사항으로 반영하였다.

2024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조사문항의 개발 과정과 추진 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그림 I-3-2]와 같다.

[그림 I-3-2] 가구조사 설문 개발 과정 및 일정



2024년 조사에서는 연구진 및 관련 부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수정·보완 이

외에도 전문 조사원이 영유아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 인지 면담을 실시하여, 설문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설문 인지 면담은 일종의 예비조사로, 응답자가 단순히 설문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닌 설문 내용 중 이해가 안 되거나 주어진 설문이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는지를 면담 과정에서 구술하도록 하는 방식의 예비조사이다. 설문 인지 면담은 전문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며, 연구진은 응답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관찰실에서 면담(조사)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설문 내용이 연구진의 의도대로 조사 대상에게 인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응답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을 완성하였다.

2) 가구 설문지 주요 내용

가구 설문지의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설문은 우선 전반적인 가구원 현황 및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설문으로 구성된다. 이때 가구원 현황 등의 경우 설문지 앞쪽에 배치된 반면,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설문은 가구 설문 뒤쪽에 배치하여 조사 초반 응답 거부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특성과 자녀 양육 방식,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경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요구, 추가출산계획 및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조사하였다. 2021년 가구 설문지의 주요 조사 내용과 2024년 주요 변경 사항은 <표 I-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3-1> 가구 설문지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

구분	2024년 조사 내용	2024년 변경 시 고려 사항
I. 가구 현황 & VII. 가구의 경제적 특성	① 가구 구성 현황: 가구 일련번호, 자녀 수, 자녀와의 관계 ② 가구원별 일반현황 · 이름, 대상 아동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 · 교육정도: 학교, 졸업 여부 ·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여부 · 혼인상태 · 경제활동: 취업 여부 활동분야 · 동거여부, 비동거 사유 ③ 동거 가구인(부모-자녀제외) · 관계, 성별, 생년월 · 교육정도: 학교, 졸업 여부 · 경제활동: 취업 여부 ④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	가구 현황 조사표 중복 문항 조정 및 응답자 편의성 제고

구분	2024년 조사 내용	2024년 변경 시 고려 사항
	· 주택: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아동 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 · 가계지출: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지출액(소비+비소비), 월평균 양육비 지출 · 기초생활 수급 여부, 수급액 · 지방정부 양육수당 수급 여부, 수급액(1년간)	
II. 부모특성	① 다문화 가구: 이주민 여부 확인, 부모 출신국 ② 부모경제활동: 근무형태, 종사자 지위,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여부,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 직장에서 육아시간 지원제도 활용 여부, 각 육아시간근로제도 활용 가능 여부 및 사용 여부, 취업 여부, 정기휴일 기간, 평일 출퇴근 시간, 일주일당 평균 근로시간, 취업계획, 취업 시기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 육아휴직 여부, 부/모의 육아휴직 시기별 일자, 해당 자녀 출생순	-동거 문항은 가구원 특성에서 조사하도록 조정 -육아휴직 활용 문항은 응답자 편의성 제고.
III. 자녀양육	① 취업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 이주민 가구의 자녀 양육 어려움 ②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양육정서 ③ 양육 참여: 부부 양육 참여 정도, 부부의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양육에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 육아정보 및 상담 받는 사람 및 기관 ④ 육아지원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활동별 인지 여부, 이용경험, 이용 시 자녀도움 정도, 육아쉽표 제도 인지 및 경험 여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인지 및 이용 경험, 주로 이용하는 정보(2가지), 만족도,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	-최근 정책 변화 내용 반영하여 세부 내용 수정
IV. 보육·교육 정책	① 육아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필요성,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② 정부에게 요구하는 육아지원 정책(3순위)	-부모급여 등 변화된 정책 내용 반영하여 수정 -정부지원금 수혜경험은 아동설문으로 이동
V.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① 기관 이용 경험 ②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한 인지,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동일성 여부 인지, 동일 보육료(운영비, 보육료) 동일 여부 인지, 서비스 질 유사 여부 인지 ③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전반적 만족도, 어린이집 위반 사실 조회 경험, 어린이집 정보 포털 이용 여부, 포털 제공 정보 도움 정도, 도움이 된 정보 종류(3가지) 운영위원회 ④ 부모 운영위원회, 참여활동 참여여부, 도움 정도, 참여의향 ⑤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대한 인지, 평가제도 개편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 정도 ⑥ CCTV 설치 의무화와 열람범위 확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 정도, CCTV 열람 신청 절차, 방법, 요건 인지, 열람 신청 경험, 열람 신청 시 사유, 신청 후 열람시기, 열람 거부 시 사유 ⑦ 어린이집, 유치원 충분성,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 문항 삭제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설문 삭제(일부 문항은 아동 설문으로 이동) -부모급여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선호 문항 추가 -기타 최근 정책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 수정

구분	2024년 조사 내용	2024년 변경 시 고려 사항
	한 인지,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 이용 사유, 만족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시간제 보육 제도에 대한 정보 얻은 경로, 시간제 보육 이용 계획,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만족도 ⑧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참여 기관(온라인 포함), 부모교육 필요성, 받고 싶은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선호 참여 방식, 부모교육 선호 실시 장소,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의무 실시에 대한 참여 의향	
VI. 기타	① 추가출산: 추가출산계획, 시기, 추가출산 자녀 수, 미계획 시 이유 ②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③ 오픈 문항(자녀 양육 시 어려움 및 국가에 바라는 점)	

3) 아동 설문지의 주요 내용

아동 설문지는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 대상 가구 내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별로 각 1부의 아동 설문을 조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 설문에 응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육교육서비스 종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기관, 특기 학원, 개인그룹지도, 학습지와 같은 시간제 사교육,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정 내 돌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의 생활시간 조사, 장애 아동의 장애 관련 사항,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계획 등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었다.

〈표 I-3-2〉 아동 설문 주요 내용과 변경 고려 사항

구분	2024년 조사 내용	2024년 변경 시 고려 사항
I. 보육·교육 이용과 지원 개요	① 아동 식별 문항 및 평일 낮 시간 동안의 주 양육자 ② 아동이 처음 이용한 기관 및 이용 시작 시기, 사유, 각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각 연령별 부/모의 취업상태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및 사유 ③ 각 비용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연령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응답자 편의성 제고 -정부지원금 가구용 설문과 통합 조정(지원 액수는 일부 문항에서만 질문) -가정 양육수당 수혜 시 비용 만족도 문항 삭제
II. 미취학 아동 부모 돌봄시간 및 서비스 이용	① 평일, 주말에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 ②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품질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생활시간조사 문항 삭제 -부모직접돌봄 항목 추가
III. 보육·교육 이용 실태	① 보육·교육기관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현재 다니는 기관 이름, 아동 거주지와 관계, 아동 거주지와 다른 소재지 기관 이용 이유 ③ 현재 이용기관 이용 사유, 집에 돌보는 사람 있을 시 기관 이용	-이용비용 설문 경량화 필요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별도 조사 수행 시 해당 설문 조정

구분		2024년 조사 내용	2024년 변경 시 고려 사항
이용 아동		여부, 기관 이용 시작 시기, 기관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2순위) ④ 기관 정기적 이용 요일, 토요일 이용이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 ⑤ 기관 시작과 끝나는 시각, 기관 실제 이용 시간, 이용시간 선택 가능 시 원하는 시간대 ⑤ 입학 시 지불한 별도의 비용, 이용기관별 별도로 지불한 비용 현황, 기관 이용 비용 부담 정도, 정부 지원 시 가장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추가 지불 의향 ⑥ 기관 등·하원 방법, 등·하원 시 교직원과 교류 정도, 기관 차량 이용 시 교직원 차량 동승 여부, 등·하원 걸리는 시간 ⑦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 서비스별 제공 횟수 및 만족도 ⑧ 특별활동 운영여부, 프로그램 개수, 부모 선택권 여부, 월평균 비용, 일주일 이용 횟수, 만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지 ⑨ 어린이집 개선 요구(2순위)	및 변경 필요
	2.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①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사전 안내를 받은 경험	-부모급여 도입으로 가정양육 의향 설문은 삭제 검토
	3. 어린이집 이용자	①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및 선택 시 고려 여부 ② 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 여부,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경험, 긴급하게 사용 시 애로사항 여부 및 내용, 연장보육 이용 이유,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 급·간식 비용 부담 방법, 한달 급·간식 비용, 기본보육 만족도, 연장보육 만족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문항은 시의성을 고려하여 삭제 -기본보육, 연장보육 만족도는 아동설문에 추가
IV. 미취학 아동 전체		① 입소대기 경험, 대기 기간, 대기한 경험이 있는 기관 종류, 입소대기 신청 방법,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만족 이유, 관리시스템 개선 사항 ② 초등학교 입학 전 출생연도별 이용 희망 기관(보육수요) ③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선호 사유 ④ 시간연장형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필요성 및 이용빈도, 이용요일 및 시간, 만족도 ⑤ 긴급돌봄 상황 시 돌보는 기관 및 사람 ⑥ 시간제 보육 이용주가, 평균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교통 수단 및 소요시간,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V. 기교육학원 등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 VI. 개별·그룹 지도 및 학습지 이용		① 특기교육을 위해 다니는 사설 교육기관 이용 실태(프로그램 수, 이용 시간, 비용, 만족도) ② 개인·그룹지도 및 학습지, 교재교구 활동 등 이용 실태 (이용개수, 이용 시간, 비용, 만족도)	-통신교육 삭제(항목 배타적으로 정리, 가이드 추가)
VII. 장애아동 양육		① 등록장애유형, 장애 정도 ② 보육·교육기관 이용 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 시간, 만족도, 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 현재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2024년 조사 내용	2024년 변경 시 고려 사항
	③ 장애 진단 시기 및 계기	
VIII.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①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 혈연, 비혈연, 혈연+비혈연, 혈연+기관, 비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② 개인 양육서비스 이용 사유, 동시돌봄 인원 ③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의 경우) 돌봄 제공자, 돌봄 장소,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동 집에 돌아오는 방법, 돌봄 평균 일자, 돌봄 받는 하루 중 시기, 비용 지불 여부 ④ (비혈연 돌봄) 돌봄 제공자, 돌봄 장소, 돌보미 채용 경로, 돌봄 받는 하루 중 시기, 돌봄 시간, 돌봄 비용, 돌봄 공백여부 및 대처방법	-비용 지불 방법에 '숙식만 제공' 문항은 삭제함.

다. 표본추출 및 가중치

2024년 가구 조사 목표 표본은 영유아 가구 기준 2,400가구로, 2021년 2,500가구에
서 100가구가 감소하였다.

1) 표본 설계

가) 2024년도 표본 설계의 개요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4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가
구 중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구 및 아동이다. 이 조사의 표본수는 2,400가구
이고,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층화변수는 17개 시도 및 동/
읍면 구분을 사용하였고, 1차추출단위는 읍면동, 2차추출단위는 조사대상 아동이 있는 가
구이다.

나) 모집단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보육비, 유아학
비,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0세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표집틀
은 2024년 5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비,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수급가구 DB이다. 생년월일이 '18.01.01.~'24.05.31.인 아동 중 '24년 5월 말 기준 보육
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수급자(1,754,610명)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정보가
부정확한 2,073명을 제외한 1,752,537명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표 I-3-3〉 지역별 정부지원 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4.5월 말)

단위: 명

구분	정부지원 유형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국	464,319	689,425	494,977	103,816
서울	75,851	106,248	60,004	31,712
부산	25,829	34,192	32,872	6,584
대구	19,472	24,987	28,835	3,833
인천	29,384	41,523	33,681	5,669
광주	12,727	17,999	18,408	2,121
대전	14,651	17,063	17,581	2,375
울산	10,044	14,845	12,744	2,269
세종	5,597	10,124	6,108	1,041
경기	141,619	217,050	138,390	31,991
강원	13,594	21,641	12,659	1,624
충북	14,783	24,727	13,542	1,923
충남	19,304	33,492	20,104	2,402
전북	13,354	20,859	15,889	1,654
전남	15,253	25,111	15,093	1,412
경북	20,215	28,099	27,237	2,325
경남	26,141	38,132	36,411	3,915
제주	6,501	13,333	5,419	966

〈표 I-3-4〉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4.5월 말)

단위: 명

구분	정부지원 유형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국	193,555	340,164	210,233	55,604
대도시	205,067	395,868	218,218	39,591
중소도시	65,697	133,003	66,526	8,621
농어촌	464,319	869,035	494,977	103,816

〈표 I-3-5〉 지역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분포(기준시점: 2024.5월 말)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
전국	219,191	245,048	258,249	271,913	292,384	319,454	146,298	1,752,537
서울	36,485	39,333	40,773	42,635	44,787	48,147	21,655	273,815
부산	12,052	13,768	14,755	15,193	16,613	18,427	8,669	99,477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
대구	9,329	10,132	11,275	11,719	13,286	14,507	6,879	77,127
인천	13,749	15,630	16,548	16,994	18,331	20,161	8,844	110,257
광주	5,740	6,986	7,700	8,091	8,763	9,459	4,516	51,255
대전	6,831	7,818	7,764	7,844	8,221	9,077	4,115	51,670
울산	4,775	5,268	5,734	6,242	6,876	7,520	3,487	39,902
세종	2,561	3,030	3,440	3,650	3,835	4,396	1,958	22,870
경기	66,306	75,308	78,651	82,439	87,641	95,403	43,302	529,050
강원	6,336	7,254	7,325	7,692	8,338	8,635	3,938	49,518
충북	7,104	7,679	8,040	8,516	8,864	10,096	4,676	54,975
충남	9,132	10,186	10,946	11,866	12,843	13,863	6,466	75,302
전북	6,385	6,961	7,361	8,060	8,766	9,707	4,516	51,756
전남	7,397	7,856	8,195	8,824	9,573	10,295	4,729	56,869
경북	9,517	10,687	11,348	11,872	13,190	14,581	6,681	77,876
경남	12,435	13,707	14,647	16,163	17,937	20,098	9,612	104,599
제주	3,057	3,445	3,747	4,113	4,520	5,082	2,255	26,219

다) 모집단 층화기준

이 조사의 표본추출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아동 DB(2024년 5월 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를 1차 추출단위로 정하여 표본추출할 경우 제한된 예산하에서 효율적인 조사관리 및 시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아동 가구 대상 조사와 같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분포하는 가구를 조사할 때 가구를 직접적으로 추출단위로 하는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을 1차추출단위로 하고, 가구를 2차추출단위로 하는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다.

본 표본설계에서는 대규모 조사에 적합한 층화2단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17개 시도에 대해서 표본 읍면동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아동 가구를 추출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1차추출단위인 표본 읍면동 추출을 위해서 17개 시도 구분과 동/읍면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동과 읍면으로 세부 층화하는 것은 동과 읍면 지역의 구분에 따라 아동 양육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본 읍면동 내에서 표본 아동 가구를 추출할 때는 가구 내 아동 수(1명, 2명 이상)와 아동 연령(2세 미만, 2세 이상)을 내재적 층화변수로 이용하였다. 층화변수는 각 시도에

서 동과 읍면 지역의 구분에 따라 가구 소득이나 아동 양육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모집단의 층화에서 다양한 층화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층화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 층별 표본배분과 표본추출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필수적인 층화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층화변수는 내재적 층화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표본 읍면동 내에서 표본 아동 가구를 추출할 때 사용되는 아동 가구 특성변수는 내재적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표 I-3-6〉 시도 및 읍면동 구분별 아동 가구 현황(기준시점: 2024.5월 말)

단위: 개, 가구

구분	읍면동 수			아동 가구 수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전국	3,640	1,446	5,086	1,285,043	241,954	1,526,997
서울	404	0	404	243,241	0	243,241
부산	168	5	173	80,999	6,668	87,667
대구	162	17	179	56,082	11,692	67,774
인천	115	20	135	94,407	1,678	96,085
광주	161	0	161	44,298	0	44,298
대전	147	0	147	44,625	0	44,625
울산	61	12	73	28,672	6,357	35,029
세종	442	52	494	18,288	1,382	19,670
경기	590	137	727	405,408	55,439	460,847
강원	152	113	265	27,729	14,538	42,267
충북	118	102	220	28,595	18,654	47,249
충남	122	161	283	36,190	28,987	65,177
전북	231	159	390	35,012	9,323	44,335
전남	149	229	378	24,110	23,990	48,100
경북	269	231	500	39,374	27,964	67,338
경남	288	196	484	60,755	30,282	91,037
제주	61	12	73	17,258	5,000	22,258

라) 시도 및 세부 층별 표본배분

각 시도별 표본배분은 각 시도별 아동 가구 수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방안과 제곱근비례배분 방안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각 표본배분 방법에 따른 각 시도별 표본 읍면동 수는 〈표 I-3-7〉과 같다. 최종 방안은 시도별 제곱근비례배분법을 기초하되, 세종시와 제주도의 표본크기를 10개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별 추정치의 안정성을 높였다.

최종 방안에 대한 주요 조사항목 추정의 시도별 상대표준오차(예상)는 〈표 I-3-8〉과

같다. 각 시도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한 세부 층에 대한 표본배분은 아동 가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I-3-9>는 각 시도의 동 및 읍면 지역 구분에 따른 표본 읍면동 수이다.

<표 I-3-7> 각 시도별 모집단 및 각 방안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가구

구분	모집단		방안별 표본배분 결과		
	아동 가구 수	율%	비례배분	제급근비례배분	최종 방안
전국	1,526,997	100.0%	240	240	240
서울	243,241	15.9%	38	26	26
부산	87,667	5.7%	14	15	15
대구	67,774	4.4%	11	14	13
인천	96,085	6.3%	15	16	16
광주	44,298	2.9%	7	11	10
대전	44,625	2.9%	7	11	10
울산	35,029	2.3%	6	10	10
세종	19,670	1.3%	3	7	10
경기	460,847	30.2%	72	35	35
강원	42,267	2.8%	7	11	11
충북	47,249	3.1%	7	11	11
충남	65,177	4.3%	10	13	13
전북	44,335	2.9%	7	11	11
전남	48,100	3.1%	8	11	11
경북	67,338	4.4%	11	14	13
경남	91,037	6.0%	14	16	15
제주	22,258	1.5%	3	8	10

<표 I-3-8>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구분	2021년도 조사(현행)			2024년도 조사		
	표본크기	평균 지출액 rse	평균 양육비 rse	표본크기	평균 지출액 rse(예상)	평균 양육비 rse(예상)
전국	2,500	1.3%	2.1%	2,400	1.4%	2.1%
서울	265	3.1%	5.9%	260	3.1%	6.0%
부산	163	4.5%	7.1%	150	4.7%	7.4%
대구	142	3.9%	9.0%	130	4.1%	9.4%
인천	161	6.4%	7.7%	160	6.4%	7.7%
광주	116	6.2%	6.9%	100	6.6%	7.5%
대전	114	6.5%	8.4%	100	6.9%	9.0%
울산	105	8.6%	7.6%	100	8.8%	7.8%
세종	75	6.8%	15.7%	100	5.9%	13.6%

구분	2021년도 조사(현행)			2024년도 조사		
	표본크기	평균 지출액 rse	평균 양육비 rse	표본크기	평균 지출액 rse(예상)	평균 양육비 rse(예상)
경기	361	3.1%	4.4%	350	3.2%	4.4%
강원	108	5.0%	8.8%	110	4.9%	8.7%
충북	117	5.9%	5.7%	110	6.1%	5.9%
충남	139	6.2%	9.4%	130	6.4%	9.8%
전북	118	2.3%	8.7%	110	2.4%	9.1%
전남	120	5.4%	6.1%	110	5.7%	6.4%
경북	146	4.3%	5.8%	130	4.6%	6.1%
경남	171	4.9%	8.9%	150	5.2%	9.5%
제주	79	3.8%	3.4%	100	3.4%	3.0%

〈표 I-3-9〉 새로운 표본설계의 시도별 표본 읍면동 수

구분	모집단 아동 가구 수(단위: 가구)			표본 읍면동 수(단위: 개)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전국	1,288,103	238,894	1,526,997	197	43	240
서울	243,241	0	243,241	26	0	26
부산	80,999	6,668	87,667	13	2	15
대구	56,082	11,692	67,774	11	2	13
인천 ⁹⁾	96,085	0	96,085	16	0	16
광주	44,298	0	44,298	10	0	10
대전	44,625	0	44,625	10	0	10
울산	28,672	6,357	35,029	8	2	10
세종 ¹⁰⁾	19,670	0	19,670	10	0	10
경기	405,408	55,439	460,847	31	4	35
강원	27,729	14,538	42,267	7	4	11
충북	28,595	18,654	47,249	7	4	11
충남	36,190	28,987	65,177	7	6	13
전북	35,012	9,323	44,335	9	2	11
전남	24,110	23,990	48,100	6	5	11
경북	39,374	27,964	67,338	8	5	13
경남	60,755	30,282	91,037	10	5	15
제주	17,258	5,000	22,258	8	2	10

9) 인천의 읍면 지역은 모집단 아동 가구 수가 과소하여 세부 층화하지 않고, 동 지역과 병합하여 층화하였음.

10) 세종의 읍면 지역은 모집단 아동 가구 수가 과소하여 세부 층화하지 않고, 동 지역과 병합하여 층화하였음.

마) 표본추출

표본배분 과정을 통해서 시도 내 각 세부 지역 층에 대하여 표본 읍면동 수를 결정하였고, 각 지역층에서 1차추출단위인 읍면동은 아동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읍면동이 표본으로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1,535개 읍면동¹¹⁾은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시도 내 표본 읍면동에서는 아동 가구 10가구를 추출 시, 아동 가구의 특성 분포가 표본에 반영하여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표본 읍면동에서는 아동 가구에 대한 내재적 층화변수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 10가구의 표본을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여 제공하였다.

본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아동 가구 특성의 내재적 층화변수는 가구 내 아동 수(1명, 2명 이상)와 아동 연령 구분(2세 미만, 이상)이며, 가구 내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최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I-3-10>은 2024년 조사의 시도 및 정부지원 유형별 조사 아동 수(예상)이다. 전국에서 아동 가구 2,400가구를 조사할 때 가구 내 아동 수는 약 2,870명으로 예상된다.

<표 I-3-10>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도 및 정부지원 유형별 조사 아동 수(예상)

단위: 명, 개

구분	정부지원 유형별 표본수					읍면동수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전국	767	1,197	769	144	2,877	240
서울	94	120	63	40	317	26
부산	52	50	64	11	177	15
대구	37	64	53	5	159	13
인천	50	72	50	17	189	16
광주	28	44	44	4	120	10
대전	38	36	40	5	119	10
울산	24	44	41	4	113	10
세종	26	63	27	4	120	10
경기	106	192	90	23	411	35
강원	41	62	36	4	143	11
충북	38	56	35	6	135	11
충남	39	78	33	6	156	13
전북	33	49	44	4	130	11

11)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1,535개 읍면동 내 아동 가구는 4,847가구로 전체 아동 가구의 0.3%에 불과함.

구분	정부지원 유형별 표본수					읍면동수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전남	37	61	31	2	131	11
경북	43	65	44	2	154	13
경남	51	77	49	3	180	15
제주	30	64	25	4	123	10

바) 대체

실사 과정에서는 응답불응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능일 경우, 당초 설계된 표본 수만큼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일 층(읍면동, 아동 수, 아동 연령대) 내에서 예비 표본으로 본 표본의 3배수를 추출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체하도록 하였다.

사) 조사 완료 표본수

2024년 조사의 세부 정부지원유형(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별 조사완료 아동 수는 각각 <표 I-3-11>, <표 I-3-12>, <표 I-3-13>, <표 I-3-14>과 같다.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와 세부 정부지원유형(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별 조사완료 아동 수는 각각 <표 I-3-15>와 <표 I-3-16>과 같다.

<표 I-3-11> 조사완료 부모급여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연령		계
	0세	1세	
전국	664	134	798
서울	74	14	88
부산	38	12	50
대구	43	6	49
인천	47	14	61
광주	20	6	26
대전	42	5	47
울산	24	6	30
세종	21	4	25
경기	100	16	116
강원	28	4	32
충북	34	7	41
충남	35	7	42
전북	23	3	26
전남	31	9	40

구분	보육연령		계
	0세	1세	
경북	47	6	53
경남	35	9	44
제주	22	6	28

〈표 I-3-12〉 조사완료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연령					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96	454	241	169	163	1,323
서울	32	44	31	18	17	142
부산	12	26	11	8	7	64
대구	18	22	15	4	4	63
인천	14	32	15	16	10	87
광주	10	26	6	5	3	50
대전	12	21	5	2	1	41
울산	11	21	4	7	5	48
세종	17	20	7	9	10	63
경기	50	67	33	26	30	206
강원	10	14	17	9	7	57
충북	14	14	10	9	6	53
충남	17	31	13	8	15	84
전북	15	24	10	5	5	59
전남	14	15	13	7	12	61
경북	15	29	13	11	10	78
경남	23	28	21	8	16	96
제주	12	20	17	17	5	71

〈표 I-3-13〉 조사완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연령			계
	3세	4세	5세	
전국	234	277	281	792
서울	25	24	24	73
부산	22	30	16	68
대구	16	17	27	60
인천	13	17	16	46
광주	17	17	11	45
대전	8	15	21	44
울산	17	16	18	51
세종	12	8	11	31

구분	보육연령			계
	3세	4세	5세	
경기	25	30	30	85
강원	10	8	17	35
충북	11	12	15	38
충남	8	10	9	27
전북	15	18	10	43
전남	14	8	9	31
경북	9	20	14	43
경남	10	21	16	47
제주	2	6	17	25

〈표 I-3-14〉 조사완료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연령					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19	14	19	18	24	94
서울	5	3	5	7	11	31
부산	1	1	4	3	0	9
대구	3	1	1	1	1	7
인천	1	2	1	1	1	6
광주	0	0	1	1	1	3
대전	0	0	0	0	1	1
울산	1	0	0	0	0	1
세종	0	2	0	0	0	2
경기	3	4	4	1	3	15
강원	0	0	1	1	0	2
충북	2	0	0	0	1	3
충남	2	1	0	0	1	4
전북	0	0	0	0	1	1
전남	0	0	0	0	0	0
경북	0	0	0	0	1	1
경남	1	0	1	1	2	5
제주	0	0	1	2	0	3

〈표 I-3-15〉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연령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664	449	468	494	464	468	3,007
서울	74	51	47	61	49	52	334

구분	보육연령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부산	38	25	27	37	41	23	191
대구	43	27	23	32	22	32	179
인천	47	29	34	29	34	27	200
광주	20	16	26	24	23	15	124
대전	42	17	21	13	17	23	133
울산	24	18	21	21	23	23	130
세종	21	21	22	19	17	21	121
경기	100	69	71	62	57	63	422
강원	28	14	14	28	18	24	126
충북	34	23	14	21	21	22	135
충남	35	26	32	21	18	25	157
전북	23	18	24	25	23	16	129
전남	31	23	15	27	15	21	132
경북	47	21	29	22	31	25	175
경남	35	33	28	32	30	34	192
제주	22	18	20	20	25	22	127

〈표 I-3-16〉 조사완료 아동의 정부지원 유형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전국	798	1,323	792	94	3,007
서울	88	142	73	31	334
부산	50	64	68	9	191
대구	49	63	60	7	179
인천	61	87	46	6	200
광주	26	50	45	3	124
대전	47	41	44	1	133
울산	30	48	51	1	130
세종	25	63	31	2	121
경기	116	206	85	15	422
강원	32	57	35	2	126
충북	41	53	38	3	135
충남	42	84	27	4	157
전북	26	59	43	1	129
전남	40	61	31	0	132
경북	53	78	43	1	175
경남	44	96	47	5	192
제주	28	71	25	3	127

2) 가중치

가) 가구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된다.

본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읍면동 내의 아동 가구별 추출확률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 읍면동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각 표본 읍면동에서 아동 가구 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읍면동별로 진행되었다.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벤치마킹 조정은 시도별(17) 아동 가구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벤치마킹 과정은 레이킹 비 접근법(Raking Ratio Method)¹²⁾에 의해서 모집단 정보와 일치시켰으며,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text{최종 가구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I-3-17〉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변동계수
전국	2,494	612.3	388.2	505.8	349.1	798.2	63.4
서울	278	875.0	320.0	798.2	798.2	878.0	36.6
부산	154	569.3	220.3	634.8	314.1	634.8	38.7
대구	137	494.7	262.2	517.6	273.5	517.6	53.0
인천	173	555.4	109.2	505.8	505.8	556.4	19.7
광주	103	430.1	70.7	433.4	394.0	433.4	16.4
대전	103	433.3	148.8	481.2	239.5	481.2	34.3

12) 레이킹 비 방법은 모집단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Deming과 Stephan(1940)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다차원 분류표 상의 각 셀 값을 반복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모집단 분포 정보와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레이킹 비 방법은 설계가중치를 하나의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조정한 후, 두 번째 주변분포를 재차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특정한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중치 보정 단계에서 고려한 보조정보의 모집단 주변분포와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변동계수
울산	103	340.1	177.3	310.4	275.3	341.5	52.1
세종	104	189.1	94.9	167.2	152.0	167.2	50.2
경기	368	1,252.3	381.7	1,112.0	1,049.3	1,154.2	30.5
강원	109	387.8	118.1	357.0	356.3	396.7	30.4
충북	113	418.1	88.6	384.0	369.0	438.4	21.2
충남	134	486.4	59.8	457.7	445.9	489.8	12.3
전북	112	395.9	167.4	323.0	323.0	387.1	42.3
전남	118	407.6	139.0	361.6	333.1	410.5	34.1
경북	131	514.0	191.8	581.2	259.8	660.4	37.3
경남	152	598.9	256.3	596.0	540.2	596.0	42.8
제주	102	218.2	53.1	221.4	221.4	240.3	24.3

나) 아동 가중치

이 조사에서 아동 대상 조사는 표본 아동 가구 내 6세 이하 전체 아동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동 개인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설계가중치는 아동 가구의 최종 가중치와 동일하다. 아동 개인 가중치 작성을 위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아동 가구 내 전체 6세 이하 아동 수와 응답자 수에 따라 무응답 조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각 표본 아동 가구에서 전체 아동 수와 응답 아동 수의 비(比)로 계산하였다.

벤치마킹 조정은 시도(17)×성(2) 분포와 시도(17)×연령대(3) 분포 정보를 이용하였다. 벤치마킹 조정은 레이킹 비 접근법(Raking Ratio Method)을 이용하여 벤치마킹 정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의 2024년 5월 말 기준 등록아동 DB를 이용하였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text{최종 개인 가중치} = \text{가구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I-3-18〉 지역별 아동 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변동계수
전국	3,007	582.8	380.3	478.4	326.7	723.6	65.3
서울	334	819.8	273.6	838.4	558.9	1035.9	33.4
부산	191	520.8	202.8	475.4	336.2	691.8	38.9
대구	179	430.9	217.0	360.2	247.1	626.1	50.4
인천	200	551.3	147.3	555.6	458.4	632.6	26.7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변동계수
광주	124	413.4	82.4	411.2	361.8	487.6	19.9
대전	133	388.5	166.4	336.7	276.8	567.4	42.8
울산	130	306.9	134.1	322.7	191.1	382.1	43.7
세종	121	189.0	100.2	170.7	133.4	223.7	53.0
경기	422	1253.7	388.9	1280.0	937.7	1540.1	31.0
강원	126	393.0	138.5	359.3	356.1	397.6	35.2
충북	135	407.2	96.9	422.0	368.6	472.4	23.8
충남	157	479.6	116.0	436.7	380.0	588.1	24.2
전북	129	401.2	116.9	382.1	315.6	457.9	29.1
전남	132	430.8	149.7	398.7	329.1	516.0	34.7
경북	175	445.0	216.8	435.6	251.1	673.6	48.7
경남	192	544.8	209.1	588.9	355.4	718.0	38.4
제주	127	206.5	54.9	235.0	141.1	252.4	26.6

라. 조사 설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8년과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이후 조사 설계에서 있어서의 큰 변동은 없이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는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여, 가구 표본은 이전 조사 대비 100개 감소한 2,4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틀은 2018년 조사 이후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DB를 활용하여, 조사 당해년도 6월 기준 (부모)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다. 2024년 조사 또한 2018년 및 2021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정보원의 DB 자료를 통해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에 기초하여 표본 추출틀을 구성하였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는 2023년 이후 도입된 부모급여 수급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2024년에는 1세(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급여로 일원화된 지원을 받으며,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부모급여의 경우 기관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여부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전액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와 보육료(바우처)+현금, 보육료(바우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므로, 부모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 정보까지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틀을 구성하였다.

한편, 표본 배분과 추출 방식 등은 2021년의 방식을 준용하되, 2024년 표본 수는 감소

하였으나 표본 추출 지역의 수는 250여 개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2021년 표본 추출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읍면동당 10명의 가구가 배정될 수 있도록 250여 개 읍면동을 추출하였으며, 읍면동의 추출은 확률비례계통 추출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추출된 표본 읍면동별로 내재적 층화 변수(아동 연령)로 정렬한 후 표본 아동을 계통추출하여 아동이 속한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김은설 외, 2021: 42~43). 2024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다만,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속하는 지역이 다수 증가하여, 읍면동 내 10개의 표본 가구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조사구의 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특히 읍면(농어촌) 지역 조사구의 경우에 한해, 조사구당 배정된 영유아 가구 표본의 수는 5개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표 표본의 수가 100개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표 I-3-19〉 조사 설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8년 조사	2021년 조사	2024년 조사(계획안)
조사 대상	0~5세 영유아의 부/모	작동	작동
표본 수	2,533가구 (아동: 3,775명)	2,500가구 (아동: 3,471명)	(목표) 2,400가구 (아동: 3,200명)
표본 추출 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 중 보육료,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유아	작동	작동 • 단, 1세(24개월) 미만은 부모급여 수급자 정보 추가
표본 배분 및 추출 방식 등	• 1차층화: 정부지원유형 • 2차층화: 17사도 • 추출방법: 2단 집락추출 • 표본배분: 지역규모별 제공금 비례배분 후 시도별 비례배분 • 표본추출: 250여 개의 읍면동을 랜덤하게 추출 (읍면동별 평균 10명의 아동 배정)	작동 • 단, 표본추출: 읍면동당 10명의 가구가 배정될 수 있도록 250여 개 PPS 방식 으로 읍면동을 추출하고, 내재적층화변수(아동연령)로 정렬한 후, 표본아동을 계통추출	작동 • 단, 영유아 가구가 10가구가 되지 않은 읍면 지역이 다수 있을 수 있어, 샘플 지역(읍면동)은 250여 개 유지함.
조사 방법	면접원 방문 조사 (대면 면접 조사)	작동	작동
조사 도구	종이 설문	종이 설문	종이 설문
조사 기준 시점	2018. 9. 1.	2021. 9. 1.	2024. 9. 1.
조사 시작일	-	-	2024. 8. 15.

주: 1) 조사 대상 영유아 연령은 보육연령 기준.

2) 2024년은 목표 표본 수.

자료: 1)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1~47.

2)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3~51.

4. 응답자 특성

가. 조사 완료 현황

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 결과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동일 층 내에서 예비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조사 완료 현황은 다음 <표 I-4-1>과 같다. 각 수치는 시·도별 조사완료율, 가구조사의 응답가구 수 및 가구 내 포함된 아동 수(아동조사대상)를 나타낸다. 최종 조사된 총 영유아 가구 수는 2,494가구였고, 조사된 영유아 수는 3,007명이었다. 목표 표본은 2,400가구였으나, 다자녀 가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 표본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적정 수준의 아동 조사 표본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구조사 표본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총 2,494가구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영유아 수는 3,007명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I-4-1>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단위: 가구, 명, %

구분	조사완료 현황			응답 가구 및 아동							
	조사대상 (A)	조사완료 (B)	조사완료율 (B/A*100)	가구조사				아동조사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4,443	2,494	17.3	2,494	1,051	1,060	383	3,007	1,291	1,264	452
서울	1,559	278	17.8	278	278	-	-	334	334	-	-
부산	940	154	16.4	154	154	-	-	191	191	-	-
대구	777	137	17.6	137	137	-	-	179	179	-	-
인천	960	173	18.0	173	173	-	-	200	200	-	-
광주	599	103	17.2	103	103	-	-	124	124	-	-
대전	600	103	17.2	103	103	-	-	133	133	-	-
울산	600	103	17.2	103	103	-	-	130	130	-	-
세종	617	104	16.9	104	-	104	-	121	-	121	-
경기	2,082	368	17.7	368	-	326	42	422	-	375	47
강원	649	109	16.8	109	-	69	40	126	-	78	48
충북	659	113	17.1	113	-	72	41	135	-	89	46
충남	766	134	17.5	134	-	73	61	157	-	86	71
전북	665	112	16.8	112	-	92	20	129	-	108	21
전남	658	118	17.9	118	-	63	55	132	-	70	62
경북	800	131	16.4	131	-	80	51	175	-	106	69
경남	912	152	16.7	152	-	100	52	192	-	130	62
제주	600	102	17.0	102	-	81	21	127	-	101	26

나. 응답자 특성

가구조사 응답자는 전체 2,494명으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I-4-2>와 같다. 지역 규모에 따른 가구조사 응답자는 대도시 40.5%, 중소도시 45.6%로 비슷하였으며, 읍·면 지역 13.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51.1%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미취업모 35.0%, 휴직 중 13.1%, 모 부재 0.8%이다. 가구의 이용기관은 어린이집 52.9% 이상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유치원은 20.4%, 반일제이상 학원과 미이용을 합한 수치(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는 19.3%이었다. 가구의 지원받는 형태 중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받는 ‘복합지원’ 가구 7.4%로 분류되었다.

<표 I-4-2> 가구 조사 응답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2,494)	가구소득	
지역규모		299만원 이하	4.7(125)
대도시	40.5(1,051)	300~349만원	6.4(164)
중소도시	45.6(1,060)	350~399만원	5.3(145)
읍·면	13.9(383)	400~499만원	16.8(421)
모 취업 여부		500~599만원	18.7(474)
취업	51.1(1,296)	600~699만원	15.3(376)
휴직 중	13.1(294)	700만원 이상	30.5(750)
미취업	35.0(883)	모름/무응답	2.1(39)
모 부재 등	0.8(21)		
이용기관			
어린이집	52.9(1,271)		
유치원	20.4(581)		
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 (반일제이상+미이용)	19.3(376)		
복합지원	7.4(26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복합지원: 조사 대상 표본 가구에 영유아가 지원받는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예: 영유아가 2명인 가구 중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동시에 있는 경우)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표 응답 대상의 영유아로 아동조사표의 대상이 된 영유아¹³⁾는 총 3,007명이었으며, 특징은 다음 <표 I-4-3>과 같다. 생활연령 기준 영아가 37.7%, 유

13) 동일한 가구에 있는 아동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조사와 수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음.

아가 62.3%였다. 보육연령 기준으로는 영아(0~2세) 49.5%, 유아(3~5세 이상)는 50.5%이었다. 아동 기준으로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51.9%, 휴직 중 11.8%, 미취업 35.5%, 모 부재 0.8%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40.1%, 중소도시 46.1%, 읍·면은 13.8%이었다. 이용 기관은 어린이집 이용 55.3%, 유치원 이용 26.5%, 반일제 이상 학원은 2.5%이며, 미이용의 경우가 15.7%에 해당하였다. 가구소득은 700만원 이상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500~599만원 19.8%, 400~499만원 17.2%, 600~699만원은 14.0%였다.

〈표 I-4-3〉 아동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3,007)		
영유아구분(생활연령)		영유아구분(보육연령)	
영아	37.7(1,203)	영아	49.5(1,581)
유아	62.3(1,804)	유아	50.5(1,426)
생활연령		보육연령	
0세	9.3(303)	0세	19.8(664)
1세	13.9(456)	1세	15.4(449)
2세	14.6(444)	2세	14.4(468)
3세	15.0(482)	3세	16.0(494)
4세	16.7(507)	4세	16.6(464)
5세 이상	30.5(815)	5세	17.8(468)
지역규모		가구소득	
대도시	40.1(1,291)	299만원 이하	5.0(158)
중소도시	46.1(1,264)	300~349만원	6.1(193)
읍·면	13.8(452)	350~399만원	5.7(202)
모 취업 여부		400~499만원	17.2(531)
취업	51.9(1,526)	500~599만원	19.8(587)
휴직 중	11.8(373)	600~699만원	14.0(430)
미취업	35.5(1,087)	700만원 이상	30.1(860)
모 부재 등	0.8(21)	모름/무응답	2.1(46)
이용 기관			
어린이집	55.3(1,666)		
유치원	26.5(792)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등)	2.5(54)		
미이용	15.7(49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아동조사 응답 대상자 기준 산출 결과임.

5. 용어 정의 및 유의사항

보고서 및 분석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본 보고서의 영유아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 환경이나 가정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령을 고려한 연령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령을 기재하였다. 이전의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의 경우 ‘보육연령’과 ‘생활연령¹⁴⁾’을 사용하는 경우가 섞여 있어 혼선이 있어왔다. 특히 2023년 6월부터 법정 연령을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변경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2024년 보고서부터는 기존 표기 방식의 연령 구분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관련된 설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 연령인 만 나이보다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기준이다. ‘보육연령’은 기준연도 1월 1일의 만 나이를 의미하며, 연령반(班)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육연령’ 0세는 출생당해년도와 차년도까지 2개의 출생코호트를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은 2024년 1월 1일 기준의 만 나이이므로, 2024년생뿐 아니라 2023년생 전부가 0세에 해당한다¹⁵⁾. 이는 어린이집 0세반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한편, 기존 보고서에서는 가정 양육이나 기관 이용한 무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분석 표에 따라 ‘보육연령’과 ‘생활연령’으로 연령 구분 기준이 달리 사용됨에 따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2024년 보고서에서는 법정 연령(만 나이)의 개정 상황을 고려하고, 영유아기 가정 양육 및 기관 이용과 무관한 문항, 그리고 정책 지원 대상 기준이 월령으로 명시된 사업(예: 부모급여 등) 등의 경우에는 제도에서 명시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생활연령’이 아닌 월령(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구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용어사용에서 연 단위로 구분되는 연령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생활연령 등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영아와 유아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보육연령 기준 0~2세, 즉 생활연령 0~3세(출생코호트 기준 2021~2024년생)를 영아로 구분하였고, 유아는 보육연령 기준 3~5세

14) 기준연도 12월 31일에 영유아가 도달하게 되는 연령으로 이해될 수 있음.

15) 반면 이전의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연령’과 함께 활용된 ‘생활연령’은 2024년 12월 31일에 아이들이 도달하게 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생은 모두 1세에 해당함.

(생활연령 4~6세, 출생코호트 기준 2018~2020년생)이 해당함을 밝혀둔다¹⁶⁾.

둘째,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관측치는 실제 사례 수를 기준으로 하되, 비중은 가중치를 적용한 비중을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표집에 따른 편포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가중치를 적용한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제시된 사례 수는 실제 관측치 개수를 의미하므로, 사례 수에 비중을 곱해서 각 비중별 사례 수를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각 독립 변수, 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의 실제 사례수가 몇 개인지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은 이전의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기준이다. 즉, 2024년에도 전년도와 기준을 일치시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셋째, 본 보고서 III장 이하 모든 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분석표는 모두 이번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에서 실제로 진행한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설문 문항이 변동되지 않은 문항의 경우에는 시계열 변동을 함께 고찰할 수 있도록, 이전 조사 결과를 전체 기준¹⁷⁾에서 동일한 표 내에 병기하였다. 이전 조사 결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구 및 영유아 특성별 분석 결과를 표기하지 않고 전체 기준 결과만 해당연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므로¹⁸⁾, 표에서 별도의 연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모두 2024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이전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당해 조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제시된 연도가 일부 상이하긴 하나, 자료의 출처는 가장 최근연도 보고서인 김은설 외(2021)을 인용한 결과이다. 즉, 표에 제시된 이전조사 결과가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총 5개라 하더라도, 이는 가장 최근에 집필된 보고서인 김은설 외(2021)에 제시되어 있던 2018년 결과값 등을 재인용한 것으로, 자료의 출처 표기는 김은설 외(2021)만 제시하였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일부분에서 ‘반일제 학원’으로 표 등에 표기된 것은 ‘기타 반일제이상 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반일제이상 학원(특히 영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표의 셀크기 때문에 문자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므로, 다른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16) 이전조사의 경우 영유아의 구분 연령이 보육연령 기준 0~2세일 때와 생활연령 기준 0~2세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전조사 결과와 영유아 구분별 수치를 비교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준점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바람.

17) 가구특성별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2024년 분석 결과를 의미함.

18) 연도가 표기된 분석 결과는 전체라는 별도표기가 없더라도 전체 결과(비중 혹은 평균 등)를 의미함.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존 보고서에서 ‘반일제 이상’으로 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반일제이상 ‘기관’¹⁹⁾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왔다. 따라서 문자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되, 해당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일제 학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19) 반일제이상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을 모두 포괄한 개념임.

II.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본 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주요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보육 인프라의 공급 및 이용(특수보육 포함)과 비용 지원 현황을 다루었다.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와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조 3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설치 시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2조 1항).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언급되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촘촘한 양육·보육지원 체계 구축’, ‘미래 대응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부모의 신뢰도 제고’,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동등한 출발’이다(보건복지부, 2022: 12). 4대 중점전략과 1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각 전략별 4개의 주요 과제, 총 16개를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11).

현재까지의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유치원 이용률, 지역별 공급과 이용률의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인프라 공급과 이용

1)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어린이집 수는 영아 무상보육 실시와 누리과정 도입 연령을 점차 확대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 규모가 확대되어 2023년에는 28,954개로 나타났다.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은 2018년 조사 이후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6,187개로 전체 설립유형 중 21.4%를 차지하였다. 설립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고 아동 수가 많은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어린이집 수와 아동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감소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에 전체 어린이집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합친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64.9%(17,767개소)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용아동 수는 전체 아동의 54.5%(512,696명)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표 II-1-1〉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24)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24	어린이집 수 (비율)	27,387 (100.0)	6,521 (23.8)	1,171 (4.3)	507 (1.9)	8,181 (29.9)	9,586 (35.0)	116 (0.4)	1,305 (4.8)
	아동 수 (비율)	941,303 (100.0)	293,049 (31.1)	50,377 (5.4)	20,778 (2.2)	373,524 (39.7)	139,172 (14.8)	2,662 (0.3)	61,741 (6.6)
2023	어린이집 수 (비율)	28,954 (100.0)	6,187 (21.4)	1,206 (4.2)	551 (1.9)	8,886 (30.7)	10,692 (36.9)	124 (0.4)	1,308 (4.5)
	아동 수 (비율)	1,011,813 (100.0)	286,487 (28.3)	56,812 (5.6)	24,010 (2.4)	420,219 (41.5)	159,864 (15.8)	2,851 (0.3)	61,570 (6.1)
2022	어린이집 수 (비율)	30,923 (100.0)	5,801 (18.8)	1,254 (4.1)	610 (2.0)	9,726 (31.5)	12,109 (39.2)	132 (0.4)	1,291 (4.2)
	아동 수 (비율)	1,095,450 (100.0)	276,670 (25.3)	64,503 (5.9)	27,743 (2.5)	477,628 (43.6)	184,053 (16.8)	3,203 (0.3)	61,650 (5.6)
2021	어린이집 수 (비율)	33,246 (100.0)	5,437 (16.4)	1,285 (3.9)	640 (1.9)	10,603 (31.9)	13,891 (41.8)	142 (0.4)	1,248 (3.8)
	아동 수 (비율)	1,184,716 (100.0)	268,967 (22.7)	72,085 (6.1)	30,998 (2.6)	535,428 (45.2)	208,842 (17.6)	3,465 (0.3)	64,931 (5.5)
2020	어린이집 수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비율)	(100.0)	(14.0)	(3.7)	(1.9)	(32.6)	(43.9)	(0.4)	(3.4)
	아동 수	1,244,396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비율)	(100.0)	(20.4)	(6.3)	(2.7)	(46.5)	(18.5)	(0.3)	(5.3)
2019	어린이집 수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비율)	(100.0)	(11.6)	(3.6)	(1.9)	(33.6)	(45.8)	(0.4)	(3.1)
	아동 수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비율)	(100.0)	(17.0)	(6.4)	(2.8)	(48.6)	(20.0)	(0.3)	(4.8)
2018	어린이집 수	39,171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비율)	(100.0)	(9.2)	(3.5)	(1.9)	(34.5)	(47.6)	(0.4)	(2.8)
	아동 수	1,415,742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비율)	(100.0)	(14.2)	(6.6)	(2.9)	(50.2)	(21.4)	(0.3)	(4.4)
2017	어린이집 수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비율)	(100.0)	(7.8)	(3.5)	(1.9)	(34.9)	(48.8)	(0.4)	(2.6)
	아동 수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비율)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2016	어린이집 수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비율)	(100.0)	(7.0)	(3.4)	(2.0)	(34.8)	(50.1)	(0.4)	(2.3)
	아동 수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비율)	(100.0)	(12.1)	(6.8)	(3.1)	(51.4)	(22.6)	(0.3)	(3.6)
2015	어린이집 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비율)	(100.0)	(6.2)	(3.3)	(2.0)	(34.4)	(51.9)	(0.4)	(1.8)
	아동 수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비율)	(100.0)	(11.4)	(6.9)	(3.2)	(51.5)	(23.7)	(0.3)	(3.1)
2014	어린이집 수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비율)	(100.0)	(5.7)	(3.2)	(1.9)	(33.9)	(54.3)	(0.3)	(1.6)
	아동 수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비율)	(100.0)	(10.6)	(7.0)	(3.3)	(51.8)	(24.4)	(0.3)	(2.6)
2013	어린이집 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비율)	(100.0)	(5.3)	(3.3)	(2.0)	(33.7)	(54.0)	(0.3)	(1.4)
	아동 수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비율)	(100.0)	(10.4)	(7.3)	(3.5)	(51.8)	(24.5)	(0.2)	(2.3)
2012	어린이집 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비율)	(100.0)	(5.2)	(3.4)	(2.0)	(34.0)	(53.9)	(0.3)	(1.2)
	아동 수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비율)	(100.0)	(10.1)	(7.6)	(3.5)	(51.7)	(25.0)	(0.2)	(2.0)
2009	어린이집 수	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비율)	(100.0)	(5.4)	(4.1)	(2.6)	(37.8)	(43.8)	(0.2)	(1.0)
	아동 수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655	18,794
	(비율)	(100.0)	(11.0)	(9.6)	(4.5)	(53.0)	(20.2)	(0.1)	(1.6)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60~6. <표 II-1-1>.

2023년 기준 보육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아동 수는 2세가 26.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1세가 23.5%로 비슷하였고, 취학을 유예한 6세 이상 아동들을 제외하면 0세가 12.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증가와 감소의 반복을 보이다가, 2021년 56.9%, 2022년 59.5%, 2023년에는 조금 상승하여 61.7%로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다. 3~5세 연령 아동의 비율은 2012년 이후부터 소폭 감소한 상태가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그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기준 941,303명이다.

〈표 II-1-2〉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1~2024)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계(아동 수)
전체(2024년)	12.7	24.3	27.0	13.5	11.2	10.8	0.5	100.0(941,303)
시설유형								
국공립	10.4	23.9	27.5	14.9	11.7	11.2	0.3	100.0(293,049)
사회복지법인	7.2	16.4	22.2	18.8	16.0	15.6	3.8	100.0(50,377)
법인·단체 등	6.9	16.9	21.6	19.1	17.2	16.1	2.1	100.0(20,778)
민간	10.5	21.4	26.2	15.4	13.2	13.0	0.2	100.0(373,524)
가정	29.6	38.1	31.7	0.3	0.2	0.1	0.0	100.0(139,172)
협동	3.9	11.9	22.1	20.7	21.5	19.8	0.1	100.0(2,662)
직장	6.1	21.8	24.2	19.2	15.1	13.5	0.1	100.0(61,741)
2023	12.2	23.5	26.0	14.6	11.7	11.5	0.4	100.0(1,011,813)
2022	11.6	21.8	26.1	15.1	12.4	12.6	0.4	100.0(1,095,450)
2021	10.1	21.3	25.5	16.1	13.6	13.0	0.4	100.0(1,184,716)
2020	9.4	21.1	25.8	17.3	14.0	12.0	0.4	100.0(1,244,396)
2019	9.2	21.6	27.5	17.6	12.7	10.9	0.4	100.0(1,365,085)
2018	9.0	22.5	28.1	16.5	12.0	11.5	0.4	100.0(1,415,742)
2017	9.6	22.8	27.0	16.3	13.0	10.8	0.5	100.0(1,450,243)
2016	9.7	21.9	26.6	18.2	12.4	10.6	0.5	100.0(1,451,215)
2015	9.4	21.2	28.9	17.4	12.4	10.1	0.5	100.0(1,452,813)
2014	9.3	22.9	27.4	17.7	11.8	10.4	0.6	100.0(1,496,671)
2013	10.0	21.9	27.0	17.2	12.4	10.9	0.7	100.0(1,486,980)
2012	12.0	21.6	25.1	17.4	13.1	10.1	0.8	100.0(1,487,361)
2011	10.9	18.5	25.4	20.2	13.6	10.2	1.3	100.0(1,348,729)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62. 〈표 II-1-2〉.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기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49.8%, 유치원 이용률은 21.9%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유아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의 60.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고, 유아는 어린이집 38.4%, 유치원은 42.7%로 유치원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였다. 2021년과 비교하여 2024년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영아는 2.9%p 증가하였고, 유아는 5.1%p 감소하였다. '21년 대비 '24년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3, 2015, 2017, 2018~2024)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2024	전체	1,915,909	941,303	49.1	498,604	26.0	1,439,907	75.2
	영아	991,852	602,395	60.7	-	-	602,395	60.7
	유아	924,057	338,908	36.7	498,604	54.0	837,512	90.6
2023	전체	2,033,033	1,011,813	49.8	521,794	21.9	1,533,607	75.4
	영아	1,025,306	624,463	60.9	-	-	624,463	60.9
	유아	1,007,727	387,350	38.4	521,794	42.7	909,144	90.2
2022	전체	2,204,950	1,095,450	49.7	552,812	23.2	1,648,262	74.8
	영아	1,094,542	651,700	59.5	-	-	651,700	59.5
	유아	1,110,408	443,750	40.0	552,812	45.3	996,562	89.7
2021	전체	2,387,763	1,184,716	49.6	582,572	24.4	1,767,288	74.0
	영아	1,166,856	674,077	57.8	-	-	674,077	57.8
	유아	1,220,907	510,639	41.8	582,572	47.7	1,093,211	89.5
2020	전체	2,562,100	1,244,396	48.6	612,538	23.9	1,856,934	72.5
	영아	1,264,594	700,890	55.4	-	-	700,890	55.4
	유아	1,297,506	543,506	41.9	612,538	47.2	1,156,044	89.1
2019	전체	2,726,967	1,365,085	50.1	633,913	23.2	1,998,998	73.3
	영아	1,401,020	796,499	56.9	-	-	796,499	56.9
	유아	1,325,947	568,586	42.9	633,913	47.8	1,202,499	90.7
2018	전체	2,904,953	1,415,742	48.7	675,998	23.3	2,091,740	72.0
	영아	1,534,121	843,764	55.0	-	-	843,764	55.0
	유아	1,370,832	571,978	41.7	675,998	49.3	1,247,976	91.0
2017	전체	3,044,577	1,450,243	47.6	694,631	22.8	2,144,874	70.4
	영아	1,638,243	862,237	52.6	-	-	862,237	52.6
	유아	1,406,334	588,006	41.8	694,631	49.4	1,282,637	91.2

구분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2015	전체	3,187,718	1,452,813	45.6	682,553	21.4	2,135,366	67.0
	영아	1,791,262	864,596	48.3	-	-	864,596	48.3
	유아	1,396,456	588,217	42.1	682,553	48.9	1,270,770	91.0
2013	전체	3,264,476	1,486,980	45.6	658,188	20.2	2,145,168	65.7
	영아	1,854,265	874,975	47.2	-	-	874,975	47.2
	유아	1,410,211	612,005	43.4	658,188	46.7	1,270,193	90.1

주: 1) 전체아동 수(주민등록 0~6세 인구통계),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KESS 교육통계서비스(유치원)
<https://kess.kedi.re.kr/index>(인출일: 2024년 11월 21일).
 2) 영아와 유아 구분은 반 기준임. 단 보육통계에서 만 6세이상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므로 유아로 포함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63. <표 II-1-3>.

3) 특수보육 현황

특수보육에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0~5세 보육 지원 외에 대상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이 포함된다. 본 항에서는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의 현황을 다루었다.

가)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며, 단,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 345).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24: 345).

둘째,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연령임에도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24: 345).

셋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24: 345).

장애아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나뉘어진다(보건복지부, 2024: 379).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

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24: 379).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으로 반을 편성해야 하며, 장애아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24: 379).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인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 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4: 379).

2024년 기준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0.6%(21년 0.5%)에 해당하는 178개소에서 5,895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6.2%(21년 4.0%)에 해당하는 1,718개소에서 6,857명의 아동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추이(2012~2024)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전체)
2024	기관 수	178	52	104	22	0
	(비율)	(100.0)	(29.2)	(58.4)	(12.4)	(0.0)
아동현원	5,895	1,579	3,739	577	0	
	(비율)	(100.0)	(26.8)	(63.4)	(9.8)	(0.0)
2023	기관 수	173	49	103	21	0
	(비율)	(100.0)	(28.3)	(59.5)	(12.1)	(0.0)
아동현원	5,997	1,558	3,838	601	0	
	(비율)	(100.0)	(26.0)	(64.0)	(10.0)	(0.0)
2022	기관 수	177	48	105	23	1
	(비율)	(100.0)	(27.1)	(59.3)	(13.0)	(0.6)
아동현원	6,170	1,572	3,930	657	11	
	(비율)	(100.0)	(25.5)	(63.7)	(10.6)	(0.2)
2021	기관 수	178	47	106	24	1
	(비율)	(100.0)	(26.4)	(59.6)	(13.5)	(0.6)
아동현원	6,264	1,523	4,031	700	10	
	(비율)	(100.0)	(24.5)	(64.0)	(11.3)	(0.2)
2020	기관 수	177	46	106	24	1
	(비율)	(100.0)	(26.0)	(59.9)	(13.6)	(0.6)
아동현원	6,206	1,442	4,056	692	16	
	(비율)	(100.0)	(23.2)	(65.4)	(11.2)	(0.3)
2019	기관 수	176	45	106	24	1
	(비율)	(100.0)	(25.6)	(60.2)	(13.6)	(0.6)
아동현원	6,301	1,396	4,173	716	16	
	(비율)	(100.0)	(22.2)	(66.2)	(11.4)	(0.3)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전체)
2018	기관 수	177	44	108	24	1	
	(비율)	(100.0)	(24.9)	(61.0)	(13.6)	(0.6)	(0.5)
아동현원		6,239	1,340	4,156	727	16	
	(비율)	(100.0)	(21.5)	(66.6)	(11.7)	(0.3)	(0.4)
2017	기관 수	178	43	110	24	1	
	(비율)	(100.0)	(24.2)	(61.8)	(13.5)	(0.6)	(0.4)
아동현원		6,161	1,783	4,127	724	18	
	(비율)	(100.0)	(28.9)	(67.0)	(11.8)	(0.3)	(0.4)
2016	기관 수	177	42	109	25	1	
	(비율)	(100.0)	(23.7)	(61.6)	(14.1)	(0.6)	(0.4)
아동현원		6,158	1,249	4,125	767	17	
	(비율)	(100.0)	(20.3)	(67.0)	(12.5)	(0.3)	(0.4)
2015	기관 수	175	40	109	25	1	
	(비율)	(100.0)	(22.9)	(62.3)	(14.3)	(0.6)	(0.4)
아동현원		5,895	1,156	4,020	701	18	
	(비율)	(100.0)	(19.6)	(68.2)	(11.9)	(0.3)	(0.4)
2014	기관 수	174	37	109	27	1	
	(비율)	(100.0)	(21.3)	(62.6)	(15.5)	(0.6)	(0.4)
아동현원		5,860	1,070	3,996	776	18	
	(비율)	(100.0)	(18.3)	(68.2)	(13.2)	(0.3)	(0.4)
2013	기관 수	172	36	107	28	1	
	(비율)	(100.0)	(20.9)	(62.2)	(16.3)	(0.6)	(0.4)
아동현원		5,883	1,048	4,010	810	15	
	(비율)	(100.0)	(17.8)	(68.1)	(13.8)	(0.3)	(0.4)
2012	기관 수	171	34	107	28	2	
	(비율)	(100.0)	(19.9)	(62.6)	(16.4)	(1.2)	(0.4)
아동현원		5,994	1,040	4,105	813	36	
	(비율)	(100.0)	(17.4)	(68.4)	(13.6)	(0.6)	(0.4)

주: 1) 전체 비율은 해당 년도의 장애아전문 기관 수 대비 전체 어린이집 수, 장애아전문 아동 수 대비 아동현원비율임.

2)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표에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65~66. <표 II-1-4>.

〈표 II-1-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이(2012~2024)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2024	기관 수	1,718	1,364	105	224	7	3	15	
	(비율)	(100.0)	(79.4)	(6.1)	(13.0)	(0.4)	(0.2)	(0.9)	(6.2)
아동현원		6,857	5,078	518	1,202	6	7	46	
	(비율)	(100.0)	(74.1)	(7.6)	(17.5)	(0.1)	(0.1)	(0.7)	(0.7)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2023	기관 수 (비율)	1,464 (100.0)	1,185 (80.9)	88 (6.0)	167 (11.4)	8 (0.5)	3 (0.2)	13 (0.9)	(5.1)
	아동현원 (비율)	6,678 (100.0)	5,057 (75.7)	489 (7.3)	1,078 (16.1)	8 (0.1)	7 (0.1)	39 (0.6)	(0.7)
2022	기관 수 (비율)	1,393 (100.0)	1,139 (81.8)	87 (6.2)	142 (10.2)	9 (0.6)	3 (0.2)	13 (0.9)	(4.5)
	아동현원 (비율)	6,143 (100.0)	4,681 (76.2)	473 (7.7)	927 (15.1)	13 (0.2)	7 (0.1)	42 (0.7)	(0.6)
2021	기관 수 (비율)	1,317 (100.0)	1,072 (81.4)	81 (6.2)	140 (10.6)	10 (0.8)	2 (0.2)	12 (0.9)	(4.0)
	아동현원 (비율)	5,578 (100.0)	4,206 (75.4)	458 (8.2)	870 (15.6)	17 (0.3)	4 (0.1)	23 (0.4)	(0.5)
2020	기관 수 (비율)	1,211 (100.0)	980 (80.9)	73 (6.0)	135 (11.1)	11 (0.9)	2 (0.2)	10 (0.8)	(3.4)
	아동현원 (비율)	4,959 (100.0)	3,823 (77.1)	404 (8.1)	696 (14.0)	18 (0.4)	4 (0.1)	14 (0.3)	(0.4)
2019	기관 수 (비율)	1,100 (100.0)	876 (79.6)	69 (6.3)	134 (12.2)	11 (1.0)	2 (0.2)	8 (0.7)	(2.9)
	아동현원 (비율)	4,568 (100.0)	3,470 (76.0)	394 (8.6)	656 (14.4)	22 (0.5)	4 (0.1)	22 (0.5)	(0.3)
2018	기관 수 (비율)	1,000 (100.0)	768 (76.8)	71 (7.1)	139 (13.9)	12 (1.2)	2 (0.2)	8 (0.8)	(2.6)
	아동현원 (비율)	4,189 (100.0)	3,138 (74.9)	362 (8.6)	645 (15.4)	18 (0.4)	4 (0.1)	22 (0.5)	(0.3)
2017	기관 수 (비율)	946 (100.0)	709 (74.9)	71 (7.5)	143 (15.1)	14 (1.5)	2 (0.2)	7 (0.7)	(2.4)
	아동현원 (비율)	4,066 (100.0)	3,007 (74.0)	360 (8.9)	653 (16.1)	22 (0.5)	4 (0.1)	20 (0.5)	(0.3)
2016	기관 수 (비율)	911 (100.0)	667 (73.2)	71 (7.8)	150 (16.5)	15 (1.6)	1 (0.1)	7 (0.8)	(2.2)
	아동현원 (비율)	4,079 (100.0)	2,997 (73.5)	369 (9.0)	668 (16.4)	20 (0.5)	-	25 (0.6)	(0.3)
2015	기관 수 (비율)	899 (100.0)	641 (71.3)	74 (8.2)	159 (17.7)	17 (1.9)	7 (0.8)	1 (0.1)	(2.1)
	아동현원 (비율)	3,929 (100.0)	2,854 (72.6)	367 (9.3)	667 (17.0)	23 (0.6)	17 (0.4)	-	(0.3)
2014	기관 수 (비율)	872 (100.0)	605 (69.4)	77 (8.8)	167 (19.2)	18 (2.1)	1 (0.1)	4 (0.5)	(2.0)
	아동현원 (비율)	3,835 (100.0)	2,781 (72.5)	369 (9.6)	643 (16.8)	23 (0.6)	-	18 (0.5)	(0.2)
2013	기관 수 (비율)	867 (100.0)	571 (65.9)	82 (9.5)	186 (21.5)	25 (2.9)	1 (0.1)	2 (0.2)	(2.0)
	아동현원 (비율)	3,689 (100.0)	2,643 (71.6)	363 (9.9)	620 (16.8)	50 (1.4)	-	12 (0.3)	(0.2)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2012	기관 수	836	527	85	195	26	1	2
	(비율)	(100.0)	(63.0)	(10.1)	(23.3)	(3.1)	(0.1)	(0.2)
	아동현원	3,565	2,470	366	672	46	3	8
	(비율)	(100.0)	(69.3)	(10.2)	(18.8)	(1.3)	(0.1)	(0.2)

주: 전체 비율은 해당 년도의 장애아통합 기관 수 대비 전체 어린이집 수, 장애통합아동 수 대비 아동현원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66~67. <표 II-1-5>.

나) 시간연장형 보육

2023년 기준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것이며, 매월 60시간에 한하여 일반아동은 지원단가 4,000원에 지원 한도액은 240,000원, 장애아동은 지원단가 5,000원에 지원 한도액은 300,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4: 355).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보건복지부, 2024: 355). 휴일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적용되며, 휴일보육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월 기준으로 150%를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24: 357).

2024년 기준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은 전체 어린이집의 28.2%에 해당하는 7,739개소 어린이집에서 전체 아동의 2.2%의 비율을 차지하는 21,05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였다.

<표 II-1-6>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6~2024)

단위: 명(%), 개소

구분	계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전체 대비 비율)
2024년					
아동 수	21,058	20,460	261	337	(2.2)
어린이집 수	7,739	7,345	267	127	(28.2)
2023년					
아동 수	20,433	19,930	140	363	(2.0)
어린이집 수	7,706	7,309	271	126	(26.6)
2022년					
아동 수	19,550	19,071	111	368	(1.8)
어린이집 수	7,913	7,499	279	135	(25.6)
2021년					
아동 수	20,462	19,949	112	401	(1.7)
어린이집 수	8,099	7,671	283	145	(24.4)

구분	계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전체 대비 비율)
2020년					
아동 수	20,264	19,662	124	478	(1.6)
어린이집 수	8,219	7,769	298	152	(23.2)
2019년					
아동 수	30,600	29,908	143	549	(2.2)
어린이집 수	8,480	8,015	312	153	(22.7)
2018년					
아동 수	31,852	31,069	200	583	(2.2)
어린이집 수	8,647	8,104	309	234	(22.1)
2017년					
아동 수	35,747	34,772	280	695	(2.5)
어린이집 수	8,803	8,245	306	252	(21.9)
2016년					
아동 수	37,379	36,367	311	701	(2.6)
어린이집 수	8,854	8,296	300	258	(21.6)

주: 전체 대비 비율은 각 연도별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계를 당해연도 전체 어린이집, 아동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68, <표 II-1-6>.

나.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의 지역적 격차

1) 시·도별 격차

유치원 이용률은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2024년에는 51.1%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2021년 46.4% 대비 4.7%p 증가하였다. 보육 공급률은 전체 69.9%, 이용률은 49.1%이었다.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1.1%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85.9%였다. 지역별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42.7%,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61.3%이었다. 정원 충족률은 전체 70.2%로 산출되었다.

<표 II-1-7>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2011~2024)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 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유치원 이용률
2024년(전체)	1,915,909	1,340,087	941,303	69.9	49.1	70.2	51.1

구분	영유아인구 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유치원 이용률
서울	300,338	202,722	143,413	67.5	47.8	70.7	41.3
부산	108,461	66,235	46,589	61.1	43.0	70.3	57.7
대구	84,728	53,946	36,176	63.7	42.7	67.1	65.2
인천	121,577	76,831	57,610	63.2	47.4	75.0	57.2
광주	55,610	41,021	26,584	73.8	47.8	64.8	64.6
대전	56,447	34,983	24,602	62.0	43.6	70.3	64.6
울산	43,202	27,615	20,186	63.9	46.7	73.1	55.6
세종	24,967	18,357	13,192	73.5	52.8	71.9	44.4
경기	580,056	397,632	295,983	68.6	51.0	74.4	47.6
강원	53,743	41,213	28,058	76.7	52.2	68.1	46.6
충북	60,182	50,014	33,171	83.1	55.1	66.3	45.5
충남	82,015	67,154	45,204	81.9	55.1	67.3	48.3
전북	56,333	45,507	28,902	80.8	51.3	63.5	53.7
전남	62,216	50,620	32,470	81.4	52.2	64.1	46.6
경북	84,067	60,676	38,642	72.2	46.0	63.7	61.3
경남	113,591	81,177	53,139	71.5	46.8	65.5	59.7
제주	28,376	24,384	17,382	85.9	61.3	71.3	35.1
2023	2,033,033	1,401,440	1,011,813	68.9	49.8	72.2	48.7
2022	2,204,950	1,476,686	1,095,450	67.0	49.7	74.2	46.7
2021	2,387,763	1,557,496	1,184,716	63.8	46.6	73.1	46.4
2020	2,562,100	1,628,260	1,244,396	63.6	48.6	76.4	47.2
2019	2,726,967	1,686,873	1,365,085	61.9	50.1	80.9	47.8
2018	2,904,953	1,732,324	1,415,742	59.6	48.7	81.7	49.3
2017	3,044,577	1,756,603	1,450,243	57.7	47.6	82.6	49.4
2016	3,153,489	1,767,224	1,451,215	56.0	46.0	82.1	49.0
2015	3,187,718	1,790,821	1,452,813	56.2	45.6	81.1	48.9
2014	3,210,156	1,800,659	1,496,671	56.1	46.6	83.1	-
2013	3,264,476	1,782,459	1,486,980	54.6	45.6	83.4	-
2012	3,265,160	1,721,917	1,487,361	52.7	45.6	86.4	-
2011	3,212,933	1,621,948	1,348,729	50.5	42.0	83.2	-

주: 1) 보육 정원 및 보육 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2) 유치원 이용률은 '유치원 현황의 아동 수/코스-주제별 통계-행정구역별(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서 4-6세 유아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인출일: 2024년 11월 2일)

2)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3) 교육부 홈페이지-영유아교육보육 정책-유치원 통계(2024. 12. 31. 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128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인출일: 2024년 11월 2일)

4)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5)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69, <표 II-1-7>.

2) 시·군·구별 격차

2024년 시·군·구의 어린이집 공급률 평균은 77.4%이나, 각 지역별 차이는 큰 편이다. 특히 대전은 65.0%로 60%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충북은 96.9%, 제주 90.2%로 매우 높고, 전남 87.5%, 충남 87.4%, 강원 84.5%로 공급률이 80%가 넘게 나타났다. 지역 내 편차도 큰 편인데, 부산은 최소가 51.1%, 최대가 168.0%이다. 국공립 공급률은 전체 23.8%로 집계되었고, 서울이 36.6%, 세종이 28.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국공립 이용률은 전체 17.1%, 서울이 26.9%, 세종이 23.0%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II-1-8〉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2024)

단위: %

구분	보육 공급률			보육 이용률			국공립 공급률			국공립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77.4	30.2	168.0	49.6	18.1	100.5	23.8	-	80.0	17.1	-	42.5
서울	72.6	52.6	125.0	50.1	35.7	73.2	36.6	26.1	55.6	26.9	21.1	35.9
부산	69.6	51.1	168.0	47.7	40.6	100.5	21.4	9.3	37.3	16.1	7.7	28.5
대구	65.3	35.8	83.7	43.7	31.6	63.6	19.2	14.7	28.3	16.3	11.3	26.6
인천	71.2	51.3	114.5	47.9	32.7	58.2	27.4	13.1	80.0	17.9	11.2	34.4
광주	71.1	61.8	81.3	47.0	45.2	51.9	15.2	14.0	16.8	12.6	10.7	15.5
대전	65.0	57.3	74.9	44.8	40.8	49.5	16.1	8.7	24.6	13.0	7.3	19.1
울산	65.2	62.2	74.4	47.4	44.3	52.6	11.9	7.2	14.3	10.1	5.6	12.4
세종	73.5	73.5	73.5	52.8	52.8	52.8	28.1	28.1	28.1	23.0	23.0	23.0
경기	74.4	56.0	110.4	54.1	43.6	70.6	20.6	10.2	29.6	16.5	8.7	26.4
강원	84.5	63.7	138.9	53.4	43.4	66.3	26.4	9.3	57.6	18.6	7.1	42.5
충북	96.9	77.0	161.1	54.5	48.2	66.9	22.9	11.9	45.5	17.8	8.7	25.6
충남	87.4	59.6	116.0	53.8	39.3	72.3	17.1	5.3	30.0	11.6	1.3	17.0
전북	82.4	60.7	116.1	48.1	38.2	68.0	22.3	-	56.2	14.3	-	26.9
전남	87.5	51.1	130.5	47.9	21.8	66.7	23.1	3.2	52.8	15.3	2.4	30.8
경북	72.8	30.2	110.2	43.9	18.1	60.8	25.0	5.9	68.0	15.4	4.8	40.6
경남	75.5	56.6	105.9	48.1	38.4	66.5	27.3	10.7	46.3	18.4	8.1	31.7
제주	90.2	82.1	98.3	62.0	60.5	63.5	12.4	7.1	17.8	10.3	5.8	14.8

주: 1) 시·도의 각 시·군·구의 평균, 최소, 최대값이며, 대상 연령은 0~6세임.
2) 통계 산출 단위의 통일성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각 시의 구별 통계를 시별 통계로 재산출하여 사용하였음.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024. 12. 31. 기준).
2)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2. 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이 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고지원 보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영아수당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순이었다. 보육비용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국고 지원 보육 예산의 변화,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예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1항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 무상 보육을 제공받는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와, 공통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영유아에 해당된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1항).

국고지원 보육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예산은 영아수당지원,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비용의 경우 2021년도에는 27.1%이었으나, 2024년도²⁰⁾에는 24.6%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2021년도에는 12.8%, 2024년도에는 1.4%로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은 2022년 373,132백만원(6.3%)이었으며, 2023년 이후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부모급여는 2,888,694백만원(37.7%)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부모급여 지원 수준의 상승뿐 아니라 0~1세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로 분류되어 집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비율은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으로 이관되어 산출이 어려우며, 보육 인프라 구축은 2021년 0.4%에서 2024년 1.1%로 소폭 상승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의 예산은 2021년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예산은 2019~202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감소하여 전체의 0.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2024년에도 동일한 비중을 보였다.

20) 2024년 예산은 2023년 기준 편성예산임.

〈표 II-2-1〉 국고 지원 보육예산(2012~202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어린이집 운영지원 ¹⁾	423,152 (14.0)	444,463	467,111	496,945 (10.1)	816,618	901,852	987,744 (17.9)	1,186,829	1,424,169	1,614,123 (27.1)	1,688,041	1,750,362	1,886,306 (24.6)
보육료 지원	2,391,291 (79.0)	2,594,419	3,329,228	3,049,373 (61.7)	3,106,581	3,129,242	3,257,470 (59.2)	3,405,282	3,416,221	3,395,239 (57.0)	3,202,771	3,025,145	2,673,100 (34.9)
어린이집 기능 보강	11,867 (0.4)	7,595	7,144	6,787 (0.1)	6,447	6,447	5,802 (0.1)	10,527	19,777	6,866 (0.1)	3,859	3,473	7,640 (0.1)
보육 인프라 구축 ²⁾	15,377 (0.5)	38,490	18,268	16,661 (0.3)	23,202	16,902	17,745 (0.3)	20,199	25,491	21,695 (0.4)	15,410	9,710	80,858 (1.1)
어린이집 평가인증 ³⁾	6,026 (0.2)	6,668	8,600	9,800 (0.2)	7,653	7,856	8,226 (0.1)	11,786	17,021	18,183 (0.3)	19,290	21,772	21,729 (0.3)
어린이집 지원 ⁴⁾ (공공형 등)	78,207 (2.6)	153,775	189,061	221,707 (4.5)	48,730	55,827	60,999 (1.1)	62,915	62,955	60,624 (1.0)	659	664	-
가정양육수당	102,646 (3.4)	880,950	1,215,319	1,101,768 (22.3)	1,219,200	1,224,184	1,089,137 (19.8)	892,330	815,717	760,779 (12.8)	508,163	175,854	108,075 (1.4)
영아수당지원 · 부모급여	-	-	-	-	-	-	-	-	-	-	373,132 (6.3)	1,621,454	2,888,694 (37.7)
기타 ⁵⁾	-	20,265	39,088	40,953 (0.8)	42,393	31,141	78,108 (1.4)	79,846	91,430	82,194 (1.4)	81,785	69,583	69,583 (0.9)
전체	3,028,567 (100.0)	4,146,625	5,273,819	4,943,994 (100.0)	5,270,824	5,373,451	5,505,231 (100.0)	5,669,714	5,872,783	5,959,703 (100.0)	5,893,110	6,678,017	7,658,839 (100.0)

주: 1)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임.

2) 보육인프라 구축은 별도 예산이 없어 전체 총액에서 남은 잔액임.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으로 책정함.

4)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임. 2024년도에는 '보육진흥원 운영지원'으로 이관됨.

5) 기타 항목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충 비용임.

6) '23~24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영아수당)'인 '24년 0.1세 부모보육료는 부모급여 예산에 편성.

7) '23~24년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예산비목이 변경됨.

8) 2024년 예산은 2023년 기준 편성예산임.

9) 2023년 예산은 2023년 보육통계 기준 편성예산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2)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실 외(2021), p. 72. 〈표 II-2-1〉.

나.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종일반과 야간 기준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만 2세는 394,000원, 만 3~5세는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나누어 지지만 비용은 모두 280,000원이다.

24시간 기준 지원 단가는 만 1세는 712,500원, 만 2세는 591,000원, 만 3~5세는 월령과 관계없이 420,000원이다.

〈표 II-2-2〉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 단가(2024)

단위: 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 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 (‘24.3.1.~)	280,000	280,000	420,000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 보육사업 안내. p. 337.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총 916,057명으로 나타났으며,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581,131명, 누리과정 지원 아동 수는 306,581명이다.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무상보육 이후 여전히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원 아동 수는 감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다문화아동 지원 수는 2016~2017년에는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기준 12,735명이다.

〈표 II-2-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9/2012~2024)

단위: 명

구분	합계	0~4세 보육료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영아 (만 0~2세)	누리 (만 3~5세)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다문화 아동	방과후
2024	916,057	-	-	581,131	306,581	13,657	-	12,735	170
2023	986,604	-	-	603,538	352,315	13,606	-	16,925	220
2022	1,071,798	-	-	629,764	406,330	13,315	-	22,098	291
2021	1,163,047	-	-	650,504	470,905	12,979	-	28,276	383
2020	1,223,945	-	-	674,566	502,227	12,229	-	34,415	508
2019	1,343,679	-	-	762,754	526,748	12,116	-	41,424	637
2018	1,395,933	-	-	810,932	531,097	11,773	-	41,294	837
2017	1,431,940	-	-	828,638	548,441	11,689	-	42,009	1,163
2016	1,433,789	-	-	811,505	567,401	11,872	-	41,476	1,535
2015	1,438,167	-	-	841,233	550,848	11,540	-	32,593	1,953
2014	1,482,767	-	-	865,267	568,542	11,709	-	34,569	2,680
2013	1,474,645	-	-	847,885	575,704	11,967	-	35,521	3,568
2012	1,351,232	1,160,214	142,772	-	-	13,022	-	35,224	-
2009	794,755	671,721	107,951	-	-	15,083	60,704	-	-

주: 1) 2009~2010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아동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과 중복되므로 합계에서 제외하고, 2012년 방과 후 보육지원 아동을 제외함.

2) 2009~2011년은 방과후 보육 지원 아동 수를 별도 제시하지 않고 0~4세 보육료에 포함함.

3) 2013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아동 구분을 달리 제시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74. 〈표 II-2-3〉.

보육료의 수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2024년 기준 전국 지역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만 3세아를 기준으로 최저 280,000원(울산)에서 최대 562,000원(충남)으로 나타났으며, 282,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만 4~5세아는 최저 280,000원(울산)에서 최대 522,000원(충남)으로 242,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결정한 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을 해야 하므로 보육료 상한액의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2-4〉 전국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24)

단위: 원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²¹⁾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서울	488,300	467,300	488,300	467,300	0세 (‘24.1.1.~)	540,000
부산	차액 89,500	74,500	89,500	74,500		
	수납한도액 369,500	354,500	369,500	354,500		
대구	373,000	357,000	379,000	367,000		
인천	418,000	403,000	418,000	403,000		
광주	370,000	358,000	386,000	374,000	1세 (‘24.1.1.~)	475,000
대전	383,000	364,000	383,000	364,000		
울산	차액 79,000	63,000	95,000	76,000		
	수납한도액 280,000	280,000	280,000	280,000		
세종	차액 94,000	76,000	93,000	80,000		
	수납한도액 374,000	356,000	373,000	360,000		
경기	405,000	382,000	408,000	408,000	3~5세 (‘24.1.1.~ 2.29.)	280,000
강원	369,000	349,000	380,000	369,000		
충북	393,000	4세 373,000	400,000	4세 393,000	3~5세 (‘24.3.1.~)	280,000
		5세 363,000		5세 383,000		
충남	562,000	522,000	562,000	522,000		
전북	381,000	366,000	393,000	368,000		
전남	374,000	355,000	385,000	373,000		
경북	380,000	362,000	385,000	367,000		
경남	357,000	340,000	373,000	365,000		
제주	356,000	344,000	356,000	344,000		

주: 1) 경남의 경우, 20인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분리함. 이에 20인 초과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20인 미만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2) 서울, 인천, 대전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동일하게 산출함.

자료: 1) 서울특별시(2024). 2024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p. 9.

2)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busan.childcare.go.kr/lbusan/d3_30000/d3_20032.jsp. (2024. 12. 16. 인출).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 (2024. 12. 16. 인출).

4)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childcare.go.kr/lincheon/d5_20000/d5_20035/d5_200351.jsp. (2024. 12. 16. 인출).

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2024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제2024-393호]. <https://si.do.gwangj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30715&gosiGbn=A>. (2024. 12. 16. 인출).

6)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5>. (2024. 12. 16. 인출).

7)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lsan.childcare.go.kr/lulsan/d8_20000/d8_20023/d8_30027.jsp. (2024. 12. 16. 인출).

8)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4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제 2024-202호].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1/C1_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56370. (2024. 12. 16. 인출).

21) 정부지원시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p. 337.

- 9) 경기도 홈페이지. 2024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결정 [공고 제2024-221호].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ldx=107172291&menuId=1547>. (2024. 12. 16. 인출).
- 10)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제2024 - 250호 <https://gangw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96009>]. (2024. 12. 16. 인출)
- 11) 충청북도 홈페이지.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194호].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GosiPblancView.do?key=422&no=51152&pageUnit=10&pageIndex=89&searchCnd=all>. (2024. 12. 16. 인출).
- 12) 충청남도 홈페이지. 2024년도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제2024-223호]. <https://www.chungnam.go.kr/cnportal/province/province/view.do?nttlId=461765&menuNo=500487&pageIndex=1>. (2024. 12. 16. 인출).
- 13)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한도액 등)[공고 제2024-211호].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2002005000&boardId=BBS_0000129&dataSid=539373. (2024. 12. 16. 인출).
- 14) 전라남도 홈페이지. 2024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195호].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21451&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44&boardId=J0203&displayHeader=->. (2024. 12. 16. 인출).
- 15)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357호]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95991>. (2024. 12. 16. 인출).
- 16) 경상남도 홈페이지. 2024년도 경상남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제2024-173].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EC%88%98%EB%82%A9%ED%95%9C%EB%8F%84&conGosiGbn=&conlfrmStd=2023-11-01&conlfrmEnddt=2024-07-05&pageLine=10&page=1&mode=view&sno=44670&gosiGbn=A&searchCnt=15. (2024. 12. 16. 인출).
- 17)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수납한도액) [공고 제2024-45호]. <https://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95623>. (2024. 12. 16. 인출).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행사비 등에 사용되는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보건복지부, 2024: 93),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한도 및 주기를 결정한 후 공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4: 95).

아래 <표 II-2-5>의 2024년 기준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 종류와 수납한도액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경비와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액 한도 및 주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보육료 이외 부모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본인 부담 금액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시도특성화비를 모두 합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5>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 한도액(2024)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원)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서울	100,000	110,000	(반기)	55,000	100,000	44,000	40,000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원)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170,000/ 340,000				
부산	110,000	국공립 80,000 국공립 외 90,000	50,000/ 200,000	35,000	120,000	40,000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월 40% 이내 활용 가능
대구	국공립 100,000 국공립 외 110,000	국공립 55,000 국공립 외 65,000	37,500/ 150,000	30,000	140,000	40,000	35,000
인천	100,000	정부지원 60,000 민간, 가정 66,000	0~1세 (월)55,000 2~5세 (월)32,000	33,000	0~1세 (월)39,000 (연)468,000 2~5세 (월)13,000 (연)156,000	40,000	40,000
광주	75,000	국공립 50,000 국공립 외 55,000	50,000/ 200,000	25,000	90,000	38,000	35,000
대전	95,000	60,000	70,000/ 280,000	30,000	95,000	38,000	30,000
울산	100,000	65,000	60,000/ 240,000	25,000	100,000	38,000	20,000
세종	90,000/ 15,000	80,000	90,000/ 360,000	35,000	120,000	36,900	개인별 교재교구비 45,000
경기	100,000	국공립 65,000 국공립 외 80,000	국공립 105,000/ 420,000 국공립 외 135,000/ 540,000 (반기)	35,000	국공립 200,000 국공립 외 312,000	국공립 40,000 국공립 외 50,000	국공립 34,500 국공립 외 60,000
강원	105,000	80,000	120,000/ 240,000	30,000	100,000	40,000	40,000
충북	100,000	정부지원시설 80,000 정부미지원시설 90,000	50,000/ 200,000	30,000	100,000	34,000	정부지원시설 40,000 정부미지원시설 45,000
충남	50,000	30,000	150,000	30,000	100,000	아침 20,000 저녁	20,000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40,000	
전북	67,000	51,000	39,000/ 156,000	30,000	117,000	30,000	29,000
전남	100,000	국공립 70,000 국공립 제외 80,000	50,000/ 200,000	30,000	100,000/ 70,000	25,000	(원)250,000/ 360,000
경북	100,000	80,000	45,000/ 180,000	25,000	100,000	30,000	30,000
경남	95,000	국공립 60,000 민간·가정 60,000 기타 65,000	40,000/ 160,000	30,000	100,000	38,000	국공립 30,000 민간·가정 37,000 기타 30,000
제주	85,000	80,000	50,000/ 200,000	30,000	120,000/ 50,000	40,000	30,000

- 주: 1) 월 기준급식비는 지자체에서 1식 기준으로 제시한 경우, 충북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20일치로 환산하여 입력하였음.
 2) 전남 지역의 경우, 행사비 목이 일반 행사비(100,000원)와 앨범비(70,000원)로 분리되어 있음. 시도특성화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곳은 연 360,000원임.
 3) 제주지역의 경우, 행사비목이 일반 행사비(120,000원)와 앨범비(50,000원)로 분리되어 있음.
 4) 세종의 경우, 입학준비금이 피복류 구입(90,000원)과 전자출결태그(15,000원)로 분리되어 있음. 시도특성화비가 아닌 개인별교재교구비로 되어 있음.

자료: 1) 서울특별시(2024). 2024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p 9.

- 2)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busan.childcare.go.kr/lbusan/d3_30000/d3_20032.jsp. (2024. 12. 16. 인출).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 (2024. 12. 16. 인출).
 4)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childcare.go.kr/lincheon/d5_20000/d5_20035/d5_200351.jsp. (2024. 12. 16. 인출).
 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2024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제2024-393호]. <https://si.do.gwangj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30715&gosiGbn=A>. (2024. 12. 16. 인출).
 6)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5>. (2024. 12. 16. 인출).
 7)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lsan.childcare.go.kr/lulsan/d8_20000/d8_20023/d8_30027.jsp. (2024. 12. 16. 인출).
 8)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4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제 2024-202호].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1/C1_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56370. (2024. 12. 16. 인출).
 9) 경기도 홈페이지. 2024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결정 [공고 제2024-221호].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ldx=469&bldx=107172291&menuld=1547>. (2024. 12. 16. 인출).
 10)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제2024 - 250호]. <https://gangwon.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96009>. (2024. 12. 16. 인출).
 11) 충청북도 홈페이지.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194호].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GosiPblancView.do?key=422&no=51152&pageUnit=10&pageIndex=89&searchCnd=all>. (2024. 12. 16. 인출).

- 12) 충청남도 홈페이지. 2024년도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제2024-223호]. <https://www.chungnam.go.kr/cnportal/province/province/view.do?nttId=461765&menuNo=500487&pageIndex=1>. (2024. 12. 16. 인출).
- 13)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한도액 등)[공고 제2024-211호].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2002005000&boardId=BBS_0000129&dataSid=539373. (2024. 12. 16. 인출).
- 14) 전라남도 홈페이지. 2024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195호].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21451&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44&boardId=J0203&displayHeader=>. (2024. 12. 16. 인출).
- 15)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357호]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95991>. (2024. 12. 16. 인출).
- 16) 경상남도 홈페이지. 2024년도 경상남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제2024-173].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EC%88%98%EB%82%A9%ED%95%9C%EB%8F%84&conGosiGbn=&conlrmStdT=2023-11-01&conlrmEnddt=2024-07-05&pageLine=10&page=1&mode=view&sno=44670&gosiGbn=A&searchCnt=15. (2024. 12. 16. 인출).
- 17)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수납한도액) [공고 제2024-45호]. <https://jeju.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I&BBSGB=47&BID=195623>. (2024. 12. 16. 인출).

2)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4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4: 358).

2024년도 기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월령별로 100,000~200,000원이다. 급여액은 대상별로 격차를 보였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에는 156,000원, 36~47개월에는 129,000원, 48~86개월은 100,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24~35개월은 200,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이 지급된다.

〈표 II-2-6〉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지원 금액(2024)

연령	가정양육수당	연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24~35개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100천원	36~47개월	129천원	36개월 이상	10천원
~	100천원	48개월	100천원	~	
86개월 미만	100천원	~	100천원	86개월 미만	
	100천원	86개월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 보육사업 안내. p. 358.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는 전 계층 확대에 따라 2013년 이후 30%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2016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여 2023년도에는 113,55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0세아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영아수당이 도입되어 해당 월령의 영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23년 이후로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0세와 1세아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세아는 1.4%, 3세아부터는 각 연령별로 1~2%대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영유아 대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비중은 6.7%로, 2023년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2년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이 높은 0세와 1세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II-2-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2024)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계
2024 (전체아동 대비비율)	-	-	24,314 (1.3)	11,507 (0.6)	15,623 (0.8)	21,131 (1.1)	24,243 (1.3)	96,818 (6.7)
2023 (전체아동 대비비율)	-	-	28,921 (1.4)	14,796 (0.7)	18,718 (0.9)	23,793 (1.2)	27,328 (1.3)	113,556 (5.6)
2022 (전체아동 대비비율)	-	139,699 (6.3)	39,738 (1.8)	20,862 (0.9)	21,411 (0.9)	26,606 (1.2)	31,951 (1.4)	280,267 (12.7)
2021 (전체아동 대비비율)	228,217 (9.3)	134,287 (5.5)	41,916 (1.7)	23,133 (0.9)	24,584 (1.0)	30,577 (1.2)	20,843 (0.8)	503,557 (20.5)
2020 (전체아동 대비비율)	243,132 (9.5)	187,316 (7.3)	64,249 (2.5)	34,313 (1.3)	32,688 (1.3)	37,356 (1.5)	43,041 (1.7)	642,095 (25.1)
2019 (전체아동 대비비율)	269,362 (9.9)	203,769 (7.5)	66,223 (2.4)	31,442 (1.2)	27,913 (1.0)	29,534 (1.1)	30,207 (1.1)	658,450 (24.1)
2018 (전체아동 대비비율)	291,106 (10.0)	236,328 (8.1)	88,440 (3.0)	39,719 (1.4)	28,089 (1.0)	28,401 (1.0)	33,594 (1.2)	745,677 (25.7)
2017 (전체아동 대비비율)	317,981 (10.4)	274,578 (9.0)	106,954 (3.5)	43,300 (1.4)	29,134 (1.0)	32,163 (1.1)	32,180 (1.1)	836,290 (27.5)
2016 (전체아동)	363,178 (11.5)	305,911 (9.7)	117,302 (3.7)	47,840 (1.5)	34,711 (1.1)	30,609 (1.0)	33,602 (1.1)	933,153 (29.6)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계
대비비율)								
2015 (전체아동 대비비율)	386,361 (12.1)	310,212 (9.7)	132,195 (4.2)	66,546 (2.1)	40,139 (1.3)	37,894 (1.2)	35,999 (1.1)	1,009,346 (31.7)
2014 (전체아동 대비비율)	383,389 (11.9)	309,908 (9.7)	145,075 (4.5)	60,126 (1.9)	39,152 (1.2)	34,803 (1.1)	39,883 (1.2)	1,012,336 (31.5)
2013 (전체아동 대비비율)	385,585 (11.8)	346,952 (10.6)	145,049 (4.4)	63,164 (1.9)	38,360 (1.2)	40,445 (1.2)	40,929 (1.3)	1,060,484 (32.5)
2012 (전체아동 대비비율)	37,727 (8.1)	44,128 (9.3)	18,486 (3.9)	1,178 (0.3)	573 (0.1)	381 (0.1)	180 (0.1)	102,653 (3.1)
2010 (전체아동 대비비율)	24,447 (5.5)	27,391 (6.2)	- -	- -	- -	- -	- -	51,838 (1.6)

주: 1) 2022년 영아수당 도입, 2023년 이후 부모급여 도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월령은 제외.

2)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월령별 지원이나, 이전연도와와 자료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으로 표기. 2024년 기준 2세아는 24~35개월인 경우를 의미하며, 6세 이상은 72개월~취학전 아동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3) 2020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79~80, <표 II-2-7>.

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 부모, 아동 특성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가구규모, 가구형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이주민가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가구소득과 근로소득 및 취업 계획, 육아지원제도 이용 현황, 거주 주택 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가. 가구 특성

1) 가구 규모

2024년 조사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 가구는 가구원 수 평균 3.5명으로, 2018년 3.9명, 2021년 3.8명에 이어 가구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가구원 수 3명 53.6%, 4명 34.1%로 이전연도와 달리(김은설 외, 2021: 84) 가구원 3명 규모가 과반을 넘는 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 수 평균은 1.5명으로, 자녀 1명인 가구가 57.5%, 2명 가구 35.0%, 3명 이상 7.5%로 1인 자녀를 둔 가구가 과반으로 증가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3명 이상,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가구원 수 2명은 2024년 2.4%로 이전의 1.2~1.3%에 비해 증가하여 한부모가정이 늘어났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평균 가구원 수는 3.5~3.6명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도시에서 1인 자녀를 둔 가구와 가구원 3명의 비중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단위: %, (가구),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21 년	2018 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가구원 수														
2명	2.3	0.8	5.5	2.1	1.7	3.0	2.9	2.4	2.1	2.1	4.4	2.4	1.2	1.3
3명	64.7	57.5	59.4	60.6	42.9	38.7	40.8	40.7	56.6	51.5	52.0	53.6	41.7	36.1
4명	24.0	33.4	27.0	28.8	45.1	46.1	39.5	44.8	32.5	36.4	31.3	34.1	41.1	41.0
5명	7.9	7.2	6.9	7.4	8.7	10.5	14.1	10.3	7.4	8.7	10.5	8.4	12.6	15.1
6명 이상	1.1	1.1	1.2	1.1	1.6	1.7	2.7	1.8	1.4	1.4	1.7	1.4	3.4	6.4
평균	3.4	3.5	3.4	3.5	3.7	3.7	3.7	3.7	3.5	3.6	3.5	3.5	3.8	3.9
(표준편차)	(0.7)	(0.7)	(0.8)	(0.7)	(0.7)	(0.8)	(0.9)	(0.8)	(0.7)	(0.8)	(0.8)	(0.8)	(0.9)	(1.0)
자녀 수														
1명	69.9	61.6	66.6	65.6	44.6	41.8	41.6	42.9	60.2	55.5	56.1	57.5	46.6	41.1
2명	23.8	32.6	27.8	28.5	46.6	48.2	45.3	47.1	33.0	36.9	34.7	35.0	42.0	44.3
3명 이상	6.3	5.7	5.6	5.9	8.8	10.1	13.1	10.0	6.8	7.6	9.2	7.5	11.4	14.6
평균	1.4	1.4	1.4	1.4	1.7	1.7	1.7	1.7	1.5	1.5	1.5	1.5	-	-
(표준편차)	(0.6)	(0.6)	(0.6)	(0.6)	(0.7)	(0.7)	(0.7)	(0.7)	(0.7)	(0.6)	(0.7)	(0.7)	-	-
영아														
없음	-	-	-	-	87.9	85.4	91.6	87.3	50.7	47.9	49.6	49.3	54.1	52.5
1명	95.6	94.4	94.4	94.9	11.7	14.6	8.4	12.5	47.2	49.1	47.6	48.1	42.2	43.5
2명 이상	4.4	5.6	5.6	5.1	0.4	-	-	0.2	2.2	2.9	2.8	2.6	3.8	4.0
유아														
없음	85.9	84.3	91.0	85.8	-	-	-	-	42.4	43.9	45.9	43.5	33.9	31.6
1명	12.6	14.7	8.6	13.0	91.5	91.4	89.9	91.2	52.7	51.3	48.6	51.5	57.0	59.2
2명 이상	1.5	1.0	0.4	1.1	8.5	8.6	10.1	8.8	4.9	4.8	5.5	5.0	9.2	9.2
초등학생														
없음	88.1	84.6	81.4	85.6	64.9	65.0	59.9	64.3	74.3	72.5	69.2	72.8	76.2	68.4
1명	9.6	13.0	16.1	12.1	31.5	30.4	34.6	31.4	22.6	23.7	26.5	23.6	20.3	26.1
2명 이상	2.2	2.4	2.6	2.4	3.7	4.6	5.6	4.3	3.2	3.8	4.3	3.6	3.5	5.5
중학생 이상														
없음	98.4	96.4	97.5	97.3	96.4	96.1	96.0	96.2	97.1	96.2	96.8	96.7	96.5	93.4
1명	0.6	3.5	2.0	2.1	2.9	2.6	3.0	2.8	2.0	3.0	2.4	2.5	2.5	4.1
2명 이상	1.0	0.1	0.6	0.5	0.7	1.3	1.0	1.0	0.9	0.8	0.8	0.8	1.0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500)	(2,5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84. 〈표 Ⅲ-1-1〉.

2) 가구 형태

가구 형태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90.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부모+부모+자녀로 이루어지는 가구가 2024년 1.3%로 2015~2021년의 4%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다른 형태의 조부모 동거 가구도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부모+자녀 가구는 모 한부모 3.7%, 부 한부모 0.8%로 2021년(1.8%, 0.3%)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조부모+한부모+자녀 가구는 0.5%, (한)조부모+자녀 가구는 대도시지역에 0.1%, 친인척+자녀 가구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각 0.2%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이, 읍·면지역의 경우 모 한부모+자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아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한부모/(한)조부모/친인척 가구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사각지대 없는 육아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조부모+부모+자녀	1.7	1.6	1.9	1.7	0.6	1.1	1.3	0.9	1.2	1.3	1.6	1.3	4.0	4.8	4.1
조부모+한부모+자녀	0.2	0.9	0.4	0.5	0.7	0.7	1.1	0.7	0.5	0.7	0.8	0.6	1.4	1.4	1.3
한조부모+부모+자녀	1.5	2.9	-	2.0	1.9	2.4	2.2	2.1	1.7	2.9	1.2	2.2	3.1	5.6	6.3
한조부모+한부모+자녀	0.2	-	-	0.1	1.1	0.9	-	0.8	0.6	0.5	-	0.5	0.2	1.2	0.7
부부+자녀	92.4	92.4	91.8	92.3	91.3	88.8	89.3	89.9	91.6	90.3	90.2	90.8	89.1	83.4	86.1
어머니 한부모+자녀	3.3	1.9	5.1	2.9	4.1	4.2	4.7	4.2	3.8	3.1	5.1	3.7	1.8	2.6	1.0
아버지 한부모+자녀	0.7	0.3	0.8	0.5	0.2	1.6	1.0	1.0	0.5	1.1	1.0	0.8	0.3	0.4	0.2
(한)조부모+자녀	-	-	-	-	0.1	-	-	0.1	0.1	-	-	0.0	0.1	0.4	0.4
친인척+자녀	-	-	-	-	-	0.4	0.4	0.2	-	0.2	0.2	0.1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500)	(2,593)	(2,5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85. 〈표 Ⅲ-1-2〉.

3) 동거 가구원 특성

동거 가구원은 모 98.7%, 부 95.4%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에 비해 모 동거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비동거는 부 비동거 4.6%, 모 비동거 1.3%로 나타났다. 조부모 동거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2024년에 그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 외조모 동거가 2.3%로 다른 조부모에 비해 동거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형제자매/자녀와의 동거는 1% 미만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비혈연인과의 동거 여부는 2024년에 조사하지 않았다. 동거 가구원 특성은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부	96.3	97.3	94.5	96.5	94.6	94.5	93.8	94.5	95.3	95.9	93.9	95.4	96.4	94.9	97.4
모	99.3	99.7	99.2	99.5	99.1	97.4	98.6	98.2	99.1	98.4	98.8	98.7	99.2	98.3	98.7
친조부	0.9	1.2	0.9	1.0	1.1	2.2	0.8	1.5	1.0	1.7	0.9	1.3	1.9	4.6	4.1
친조모	2.2	1.9	0.9	1.9	2.0	1.8	1.1	1.8	2.1	1.8	1.0	1.8	3.3	7.7	7.1
외조부	1.1	2.1	1.4	1.6	0.5	1.3	2.0	1.0	0.8	1.7	1.7	1.3	2.6	2.9	2.6
외조모	1.3	3.0	1.4	2.1	2.2	2.2	3.9	2.4	1.8	2.7	2.7	2.3	4.6	4.6	4.7
부모형제자매	1.3	1.2	0.9	1.2	0.8	0.5	0.7	0.6	1.0	0.9	0.6	0.9	0.9	1.1	1.0
부모형제자매자녀	0.5	0.1	-	0.3	0.3	0.0	0.3	0.2	0.4	0.1	0.2	0.2	0.3	0.2	0.3
조부모형제자매	-	-	-	-	-	0.6	0.4	0.3	-	0.3	0.2	0.2	0.1	-	0.1
기타친족	0.5	-	-	0.2	-	-	-	-	0.3	-	-	0.1	-	0.4	0.2
비혈연	-	-	-	-	-	-	-	-	-	-	-	-	0.1	0.2	0.2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500)	(2,533)	(2,533)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86. 〈표 III-1-3〉.

나. 부모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 가구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 38.8세, 36.3세로,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배우자 비율이 부모 각각 96.9%, 96.4%였으며, 사별·별거·이혼 비율은 부 3.1%,

모 3.2%로 조사되었다. 미혼은 부의 경우 중소도시 지역에서 0.1% 나타났으며, 미혼 모의 경우는 전체 0.4%로 대도시지역에서 0.8%, 중소도시 0.3%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부는 45세 이상 고연령이 읍·면지역에 좀 더 많았으며, 대도시지역의 유배우자 비율이 소폭 높았다.

〈표 III-1-4〉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세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2.0	3.1	4.7	2.9	4.6	6.3	8.2	5.9
30~34세	15.3	16.8	15.2	16.0	28.0	29.2	29.7	28.8
35~39세	38.1	39.6	31.5	37.9	39.3	40.8	32.9	39.1
40~44세	30.8	25.9	28.5	28.2	23.2	17.4	22.9	20.5
45세 이상	11.8	11.4	15.8	12.2	3.3	3.5	3.7	3.4
모름/무응답	2.0	3.2	4.2	2.9	1.7	2.8	2.7	2.3
평균(표준편차)	39.0(4.7)	38.6(5.4)	39.2(6.2)	38.8(5.3)	36.6(4.4)	36.2(4.5)	36.0(4.9)	36.3(4.6)
2021년	38.8(4.9)	38.5(5.0)	38.9(5.3)	38.7(5.0)	36.3(4.5)	35.9(4.8)	36.0(5.0)	36.1(4.7)
2018년	39.0(4.7)	39.5(5.5)	40.5(6.2)	39.6(5.5)	36.6(4.3)	36.8(4.8)	36.4(5.2)	36.6(4.7)
2015년	38.5(4.6)	38.9(5.1)	39.1(5.0)	38.8(4.9)	36.5(4.2)	36.3(4.4)	36.2(4.7)	36.4(4.4)
2012년	37.6(5.3)	36.5(4.9)	37.0(5.8)	37.1(5.3)	34.7(4.4)	34.0(4.5)	33.2(4.8)	34.2(4.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87~88. 〈표 III-1-5〉.

부모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대학 졸업이 부 55.5%, 모 53.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년제 이하대학 졸업(부 19.5%, 모 22.8%), 고졸(부 15.0%, 모 14.5%)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은 부 9.6%, 모 8.9%로 2021년(7.3%, 7.0%)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4년제 대학 졸업도 2021년(51.1%, 48.3%)에 비해 상승하였다(김은설 외, 2021: 88). 고졸은 2021년(21.1%, 19.4%)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중졸 이하는 각 0.5%, 0.9%로 2021년(1.2%, 1.6%) 대비 감소하여(김은설 외, 2021: 87),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 가구 부모의 고학력 추세를 보여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부모가 고졸 학력인 경우 읍·면지역에서, 4년제대학 졸업과 대학원 이상 고학력은 대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영유아 부모의 혼인상태 및 학력 특성

단위: %,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결혼상태								
유배우	98.1	96.2	96.0	96.9	97.2	95.7	96.4	96.4
미혼	-	0.1	-	0.0	0.8	0.3	-	0.4
사별·별거·이혼	1.9	3.8	4.0	3.1	2.0	4.1	3.6	3.2
학력								
무	-	-	-	-	-	-	0.3	0.0
초	-	-	-	-	0.0	0.2	0.2	0.2
중	0.6	0.1	1.2	0.5	0.7	0.6	0.8	0.7
고	11.8	16.0	20.7	15.0	10.2	16.0	22.1	14.5
3년제 대학	17.3	20.9	21.1	19.5	20.2	25.5	21.1	22.8
4년제 대학	59.3	53.3	52.1	55.5	57.1	49.7	51.8	53.0
대학원 이상	11.0	9.8	4.9	9.6	11.7	7.9	3.6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42)	(1,052)	(383)	(2,477)	(1,050)	(1,057)	(381)	(2,488)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pp. 87~88. 〈표 Ⅲ-1-5〉.

2) 건강 특성

조사 대상 가구 부모의 건강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건강이 양호한 가구는 96.9%였으며, 장애가 있는 가구 0.8%, 질병이 있는 가구 1.3%,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구 0.2%로 나타났다. 모의 건강이 양호한 가구는 97.6%였으며, 장애가 있는 가구 0.6%, 질병이 있는 가구 1.1%,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구는 0.2%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부모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모의 건강 양호 응답이 2015년 이후 1.4%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단위: %,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장애	1.4	0.6	0.3	0.9	0.9	0.4	1.0	0.7	1.1	0.6	0.5	0.8	0.7	1.2	0.6
질병	0.9	1.4	0.3	1.0	1.4	1.2	2.5	1.4	1.2	1.4	1.5	1.3	1.2	1.3	0.8
장애 및 질병	0.5	0.3	-	0.3	0.5	0.0	-	0.2	0.4	0.2	-	0.2	0.1	0.1	0.1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양호	96.2	97.5	95.5	96.7	96.7	97.8	96.2	97.1	96.4	97.5	95.9	96.9	97.9	97.5	97.9
모름	1.1	0.2	3.8	1.1	0.5	0.5	0.3	0.5	0.9	0.4	2.1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0)	(471)	(182)	(1,123)	(693)	(674)	(226)	(1,593)	(1,042)	(1,052)	(383)	(2,477)	(2,426)	(2,421)	(2,523)
모															
장애	1.0	0.0	-	0.4	1.0	0.3	1.1	0.7	1.0	0.2	0.6	0.6	0.5	0.4	0.3
질병	0.8	0.8	1.0	0.8	1.0	0.8	2.9	1.2	1.0	0.8	2.1	1.1	0.7	0.8	0.5
장애 및 질병	0.5	0.3	-	0.3	0.5	-	-	0.2	0.4	0.2	-	0.2	0.3	-	0.2
양호	97.1	98.8	96.7	97.8	97.0	98.4	96.0	97.5	97.0	98.5	96.2	97.6	98.4	98.8	99.0
모름	0.7	-	2.3	0.6	0.4	0.5	-	0.4	0.6	0.3	1.2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699)	(677)	(224)	(1,600)	(1,050)	(1,057)	(381)	(2,488)	(2,484)	(2,495)	(2,553)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88. <표 III-1-6>.

3) 이주민가족 부모 특성

조사 대상 가구의 이주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이주민인 가구 4.3%, 아버지가 이주민인 가구 1.3%로 2021년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모두에서 모가 이주민인 가구 비율이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많았으며, 부가 이주민인 가구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0.8	1.6	0.7	1.1	0.9	1.8	0.9	1.3	0.9	1.8	0.6	1.3	1.0	1.0	0.5
모	3.1	4.2	7.3	4.2	3.2	3.7	14.6	4.9	3.0	3.6	10.6	4.3	4.3	6.5	2.6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3,504)	(2,533)	(2,593)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89. <표 III-1-7>.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총 42.5%로, 2021년 26.5%(중국 15.8%, 중국 한국계 10.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 이주민인 부가

7.1%p 감소한 반면 중국 이주민 부는 23.1%p 증가하였다. 다만 이는 적은 사례수(n=24)에 기초한 비율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미주/유럽/대양주에서 온 이주민 부가 21.9%로 2021년(31.3%)에 비해 9.4%p 감소하였으며, 베트남 이주민 부는 13.0%로 2021년(18.6%)에 비해 5.6%p 감소하였다.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부는 5.4%로 2021년(8.4%)에 비해 3.0%p 감소하였다. 그 밖에 기타 국적이 14.1%로 2021년(4.4%)에 비해 9.7%p 증가하였다.

지역규모별로 이주민 부의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계 중국 이주민 부는 대도시지역에, 중국 이주민 부는 중소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부는 읍면·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미주/유럽/대양주 이주민 부는 대도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사례수에 기초한 결과이나, 영유아 가구의 이주민가정 출신국에 변화가 있으며 지역규모별로 지역에 따른 거주 분포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육아지원 및 보육·교육 정책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Ⅲ-1-8〉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

단위: %, (가구)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베트남	그 외 동남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계(수)
전체	38.9	3.6	13.0	3.0	5.4	21.9	14.1	100.0 (24)
지역규모								
대도시	14.9	13.2	9.4	-	-	53.9	8.5	100.0 (7)
중소도시	52.9	-	9.0	4.6	4.6	10.9	17.9	100.0 (14)
읍·면·지역	-	-	66.0	-	34.0	-	-	100.0 (3)
2021년	15.8	10.7	18.6	4.6	8.4	31.3	10.6	100.0 (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일본 출신 아버지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2021년 기타에는 일본 출신 아버지가 포함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89. 〈표 Ⅲ-1-8〉.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는 베트남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1년(48.9%)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출신국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8.1%, 그 외 동남아시아 11.4%로, 동남아시아 출신(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아시아) 이주민 모의 비중이 전체 63.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1년 59.0%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비율이다.

그다음으로 중국이 총 14.7%로, 2021년 22.6%(중국 22.1%, 중국 한국계 0.5%)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9.5%,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6.8%, 대만 1.4%로, 이주민 일본 모의 경우 2021년(5.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주민 부와 달리 미주/유럽/대양주에서 온 이주민 모는 2024년 조사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대체로 이주민 모는 지역규모별로 고르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 이주민 모는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동남아시아 모는 읍·면지역, 중국 이주민 모는 도시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

단위: %, (가구)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 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계(수)
전체	12.3	2.4	9.5	1.4	44.0	8.1	11.4	6.8	4.2	100.0 (110)
지역규모										
대도시	17.1	-	21.0	5.1	27.6	12.4	7.3	7.0	2.5	100.0 (31)
중소도시	17.9	6.2	-	-	49.1	-	8.4	10.9	7.5	100.0 (37)
읍·면지역	2.0	-	10.5	-	51.9	13.5	18.1	2.0	1.8	100.0 (42)
2021년	22.1	0.5	5.0	3.4	48.9	6.1	4.0	7.7	2.3	100.0 (1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미주/유럽/대양주 출신 모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2021년 기타에는 미주 등이 포함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90. 〈표 III-1-9〉.

다. 아동 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남아와 여아는 각각 1,515명(50.4%), 1,492명(49.6%)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유아 가구에 비해 영아 가구에서 남아의 비율이 좀 더 많았다. 2024년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는 3,007개 표본으로, 이전연도 조사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다. 이는 보육실태조사의 표집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영유아 가구 내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점차 들어들고 한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1년 조사 참여 아동의 성비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2015년과 2018년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으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III-1-10〉 지역별 영유아의 성별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남자	324	316	112	752	457	426	140	1,023	644	641	230	1,515	1,711	1,960	1,861
여자	309	292	109	710	457	426	142	1,025	647	623	222	1,492	1,793	1,918	1,776
계	100.0 (633)	100.0 (608)	100.0 (221)	100.0 (1,462)	100.0 (914)	100.0 (852)	100.0 (282)	100.0 (2,048)	100.0 (1,291)	100.0 (1,264)	100.0 (452)	100.0 (3,007)	- (3,504)	- (3,878)	- (3,637)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90. 〈표 III-1-10〉.

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아가 61.2%였으며, 둘째아 32.2%, 셋째아 6.1%, 넷째아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첫째아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지역에는 첫째아가, 읍·면지역에는 셋째아의 비율이 좀 더 많았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첫째아 비율이 취업모/휴직 중모 가구에, 둘째아는 미취업모 가구에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11〉 출생순위

단위: %,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수)
전체	61.2	32.2	6.1	0.4	0.1	100.0(3,007)
영유아구분						
영아	66.2	28.1	5.2	0.3	0.1	100.0(1,959)
유아	50.7	40.6	7.9	0.6	0.2	100.0(1,048)
생활연령						
0세	67.7	28.3	3.9	-	0.1	100.0(424)
1세	71.7	24.5	3.9	-	-	100.0(573)
2세	67.8	24.7	6.7	0.5	0.3	100.0(465)
3세	54.8	37.4	6.9	1.0	-	100.0(497)
4세	58.0	37.0	4.8	-	0.2	100.0(459)
5세	45.2	43.3	10.0	1.6	-	100.0(320)
6세	46.1	43.1	10.1	0.3	0.4	100.0(269)
지역규모						
대도시	63.3	30.5	5.4	0.6	0.2	100.0(1,291)
중소도시	60.2	33.3	6.2	0.2	0.1	100.0(1,264)
읍·면	58.7	33.2	7.6	0.4	0.1	100.0(452)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61.3	31.6	6.6	0.4	0.1	100.0(1,526)
휴직 중	71.7	26.4	1.9	-	-	100.0(373)
미취업	56.9	35.3	6.9	0.6	0.2	100.0(1,087)
부재 등	67.4	25.9	6.8	-	-	100.0(21)
2021년	59.2	33.2	6.8	0.8	-	100.0(3,504)
2018년	77.3	21.3	1.4	0.1	-	100.0(3,878)
2015년	51.6	38.5	8.5	1.3	-	100.0(3,560)
2012년	51.4	39.4	8.4	0.8	-	100.0(3,343)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91. <표 Ⅲ-1-11>.

2) 아동의 건강 특성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장애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0.6%, 질병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1.0%,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0.1%로 조사되었다. 건강이 양호한 비율은 전체 96.1%로 2021년(98.6%)에 비해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름/무응답 비율의 증가(0.1→2.1%)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김은설 외, 2023: 92). 대도시지역에서 영유아 자녀가 질병이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부모 인식과 진단이 도시지역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병의원 인프라 접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1-12〉 영유아의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장애	0.4	0.1	-	0.2	0.9	1.1	0.8	1.0	0.7	0.7	0.5	0.6
질병	2.0	0.8	1.7	1.4	1.6	0.8	0.4	1.1	1.3	0.8	1.1	1.0
장애 및 질병	0.1	-	-	0.0	0.2	0.3	0.3	0.2	0.1	0.2	0.2	0.1
양호	96.3	98.2	98.0	97.4	93.6	95.7	96.7	95.0	95.0	96.7	97.1	96.1
모름/무응답	1.2	0.9	0.3	0.9	3.7	2.1	1.8	2.7	2.9	1.7	1.2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33)	(608)	(221)	(1,462)	(914)	(852)	(282)	(2,048)	(1,291)	(1,264)	(452)	(3,007)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사회·경제적 특성

가.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1) 부와 모의 취업 상태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의 부모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의 취업률(휴직포함)은 97.0%, 모의 취업률(휴직포함)은 64.2%로 나타났다. 2021년 취업률(부 95.2%, 모 54.1%)과 비교하여 부모 모두 상승하였으며, 휴직을 제외한 2024년 취업률은 부 94.5%, 모 51.1%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취업률(휴직제외)이 10.1%p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아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휴직제외)이 17.5%p 상승하여, 유아자녀 9.0%p에 비해 큰 상승폭을 보였다. 부의 경우 취업률과 함께 휴직 비율도 0.8%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자녀를 둔 부의 휴직이 2021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1.9→3.3%).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아진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활발해진 취업 환경 및 이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의 취업률은 자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의 취업률은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22.1%로 가장 낮다가 3세 이후 56%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의 취업률(휴직제외)은 2021년과 비교하여 0세의 경우 14.5→22.1%, 1세의 경우 29.9→47.6%로 상승하였으며, 모의 0세 휴직률도 35.1→40.1%로 증가하였다.

〈표 III-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부					모				
	취업 (근로)	휴직 중	미취업 (미취학)	부재, 모름	전체 (수)	취업 (근로)	휴직 중	미취업 (미취학)	부재, 모름	전체 (수)
전체	94.5	2.5	0.9	2.1	100.0 (2,494)	51.1	13.1	35.0	0.8	100.0 (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4.0	3.3	1.0	1.7	100.0 (1,519)	45.8	16.9	37.1	0.2	100.0 (1,519)
유아	95.5	1.0	0.7	2.8	100.0 (975)	60.9	6.1	31.0	2.0	100.0 (975)
생활연령										
0세	94.1	4.6	0.6	0.7	100.0 (301)	22.1	40.1	37.5	0.3	100.0 (301)
1세	92.0	4.3	1.5	2.3	100.0 (441)	47.6	16.2	36.2	-	100.0 (441)

구분	부					모				
	취업 (근로)	휴직 중	미취업 (미취학)	부재, 모름	전체 (수)	취업 (근로)	휴직 중	미취업 (미취학)	부재, 모름	전체 (수)
2세	93.5	3.5	0.9	2.2	100.0 (385)	53.3	9.3	37.2	0.2	100.0 (385)
3세	97.4	0.6	0.9	1.1	100.0 (392)	56.4	5.2	38.1	0.3	100.0 (392)
4세	94.8	1.5	0.4	3.3	100.0 (401)	62.2	6.9	29.4	1.5	100.0 (401)
5세	96.2	1.2	1.0	1.6	100.0 (309)	58.5	5.4	32.9	3.1	100.0 (309)
6세	95.7	-	0.8	3.5	100.0 (265)	61.7	5.8	31.2	1.4	100.0 (265)
2021년	93.5	1.7	1.4	3.4	100.0 (2,500)	41.0	13.1	44.9	1.0	100.0 (2,500)
2018년	94.8	0.7	1.3	3.2	100.0 (2,533)	44.2	7.1	47.2	1.4	100.0 (2,533)

주: 가구조사표 응답 대상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93. <표 III-2-1>.

2) 부모의 직업

영유아 가구의 부모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2%, 서비스 종사자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부의 경우 대도시에서 사무종사자가 많았으며, 읍·면지역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군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여 부의 직종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 경우도 사무종사자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1%, 서비스 종사자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모 취업률(휴직제외)이 51.1%로 2021년 대비 약 10%p 증가했는데, 특정 직종에 쏠림이 있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직종에서 증가된 비율을 보였다. 2021년과 비교하여 사무종사자 21.6%p, 서비스종사자 8.6%p, 전문가종사자 7.7%p 증가하였다. 부에 비해 모의 사무종사자와 서비스직, 전문직 비율이 각 9.7%p, 5.9%p, 1.9%p 많았으며, 관리자는 부에 비해 5.9%p 적었다. 부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지역에 모 사무종사자가 좀 더 많았다.

〈표 III-2-2〉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1년	'18년	'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1년	'18년	'15년
영유아 가구														
관리자	9.8	6.9	6.8	8.1	7.7	6.9	5.7	2.4	2.3	1.3	2.2	1.4	1.5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6	20.1	14.9	19.2	18.8	14.4	11.6	22.0	21.1	18.6	21.1	13.4	10.1	7.6
사무 종사자	38.8	34.1	27.9	35.1	34.9	32.7	36.3	48.5	43.5	37.4	44.8	23.2	22.0	15.2
서비스 종사자	11.9	13.7	7.5	12.1	10.6	10.8	11.4	17.1	18.6	18.5	18.0	9.4	9.4	8.9
판매 종사자	5.0	5.6	7.5	5.6	5.8	5.5	7.0	3.7	5.6	6.5	4.9	2.8	4.0	3.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7	3.0	0.8	1.3	5.0	1.6	-	0.1	1.1	0.2	0.6	2.0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6	7.2	6.5	6.1	6.4	12.3	12.6	1.0	2.4	0.8	1.6	0.4	0.8	1.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5.2	6.7	10.4	6.6	8.2	5.8	8.0	0.3	1.0	1.6	0.8	0.5	0.4	0.8
단순노무 종사자	2.3	2.5	2.4	2.4	2.9	2.2	2.2	1.6	2.0	4.4	2.1	1.5	1.6	1.5
군인	1.6	1.6	11.3	3.0	1.1	3.1	0.9	0.6	0.4	2.7	0.8	-	0.2	0.4
미취업	-	-	-	-	1.5	1.2	2.0	-	-	-	-	45.4	48.0	59.1
모름, 무응답	0.9	0.9	1.7	1.0	0.9	-	0.7	2.7	2.9	7.1	3.4	1.5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20)	(1,025)	(378)	(2,423)	(2,426)	(2,523)	(2,472)	(693)	(671)	(226)	(1,590)	(2,474)	(2,556)	(2,503)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94. 〈표 III-2-2〉.

기관이용 여부 및 유형, 즉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영유아 가구가 받는 지원과 취업 부모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원유형과 기관이용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직종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모 사무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기관 미이용(양육수당 지원)이 좀 더 많고, 유치원 이용(유아학비 지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유치원 이용이 좀 더 많고, 기관 미이용과 복합지원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기능종사자’의 경우 복합지원이 좀 더 많았으며, ‘부 장치기계조립종사자’의 경우 복합지원이 상대적으로 다소 적었다.

〈표 III-2-3〉 지원유형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 (명)

구분	부					모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복합 지원	전체	어린이 집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복합 지원	전체
영유아 가구										
관리자	8.0	8.9	7.4	7.9	8.1	1.7	2.5	3.8	1.5	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5	18.1	22.0	19.1	19.2	20.8	21.9	20.7	23.3	21.1

구분	부					모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복합 지원	전체	어린이 집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복합 지원	전체
사무 종사자	35.5	34.8	34.0	36.6	35.1	44.5	40.8	50.3	46.5	44.8
서비스 종사자	11.8	11.1	13.6	12.8	12.1	17.9	21.7	15.7	12.0	18.0
판매 종사자	5.6	7.8	3.0	6.7	5.6	4.9	6.9	2.2	5.9	4.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	1.5	0.7	0.3	0.8	0.1	0.5	-	0.5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5.7	5.9	6.6	7.5	6.1	1.6	1.5	1.0	3.9	1.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6.4	7.0	8.4	2.5	6.6	1.0	-	1.3	0.4	0.8
단순노무 종사자	2.8	2.2	1.4	3.0	2.4	2.9	1.1	0.8	2.4	2.1
군인	3.7	1.8	2.3	2.6	3.0	1.1	-	1.2	-	0.8
미취업	-	-	-	-	-	-	-	-	-	-
모름, 무응답	1.3	1.0	0.5	1.1	1.0	3.5	3.1	3.0	3.7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28)	(567)	(367)	(261)	(2,423)	(857)	(378)	(205)	(150)	(1,59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반일제이상기관 미이용도 포함.
 4) 복합지원: 조사 대상 표본 가구에 영유아가 지원 받는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예: 영유아가 2명인 가구 중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영아가 동시에 있는 경우)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각 75.8%, 67.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의 경우 자영업자 총 17.6%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7.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10.1%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5.6%였다. 모의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5.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자영업자는 총 12.0%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3.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8.6%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2.9%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모의 대도시 거주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부의 경우 읍·면지역에, 모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가 좀 더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모의 경우 읍·면지역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부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가 좀 더 많았다.

다음으로 근무형태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비율이 각 87.3%, 64.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의 경우 불규칙 출퇴근이 8.6%로 많았으며 부 휴직 중 2.6%, 출퇴근 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1.1%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는 휴직

중이 20.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서 불규칙 출퇴근 10.5%, 출퇴근 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2.7%로 나타났다. 부에 비해 모의 휴직 중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며 많은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모의 휴직 중 응답이 중소도시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4〉 취업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78.0	75.7	69.8	75.8	74.0	63.2	60.3	67.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4.3	6.1	7.9	5.6	10.9	19.5	15.9	15.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4	7.5	7.7	7.5	2.4	3.4	6.8	3.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4	9.9	13.0	10.1	7.8	10.3	5.5	8.6
무급가족 종사자	0.3	0.4	0.2	0.3	2.9	1.7	7.0	2.9
비해당(부재, 미취업)	-	-	-	-	-	-	-	-
무응답, 모름	0.5	0.4	1.4	0.6	2.0	1.9	4.5	2.3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88.2	88.1	82.3	87.3	63.6	68.1	58.3	64.9
불규칙하게 출퇴근	7.8	8.8	10.5	8.6	9.1	11.6	11.6	10.5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0.6	1.1	2.6	1.1	2.4	2.8	3.0	2.7
휴직 중	2.9	2.0	3.7	2.6	23.3	16.0	25.3	20.4
무응답, 모름	0.7	0.1	1.0	0.5	1.6	1.5	1.8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20)	(1,025)	(378)	(2,423)	(693)	(671)	(226)	(1,590)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4)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전후로 확대된 시간지원과 근무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 중인 부모의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부 38.2%, 모 45.3%로 나타나, 과반의 취업 부모가 유연근무제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자에게 실제 사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부 35.6%, 모 41.1%로, 60% 내외의 부모가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경험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른 유연근로제 활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으나, 모의 경우 대도시에서 유연근로제 사용 가능성이 좀 더 크고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실제 경험도 부모 모두 대도시에서 좀 더 많았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음의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취업 영유아 부모의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활용가능여부								
가능	37.4	38.9	38.2	38.2	47.1	44.2	42.9	45.3
불가능	58.1	57.4	58.9	57.9	49.9	52.7	51.0	51.2
무응답, 모름	4.5	3.7	2.9	3.9	3.1	3.1	6.1	3.5
(‘가능’ 응답자 중) 사용여부								
사용 중	37.8	34.8	31.6	35.6	43.4	41.9	28.8	41.1
사용하지 않음	62.2	65.2	68.4	64.4	56.6	58.1	71.2	5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32)	(843)	(298)	(1,973)	(585)	(555)	(175)	(1,315)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취업 부모 중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포함,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를 고려하여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부모(임금근로자)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의 순으로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가능하다는 응답이 아버지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 가능성이 모 70% 이상, 부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시간지원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잘 모른다는 비율이 시간지원 제도별로 일정 비율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와 모 간 격차를 보였다. 시간지원에 대한 제도별 인지도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과 실행력의 제고, 격차 해소가 숙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6〉 영유아 부모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명)

제도명	부				모			
	가능	불가능	모르겠음	계(수)	가능	불가능	모르겠음	계(수)
출산휴가	68.9	25.3	5.8	100.0 (1,895)	78.5	17.0	4.5	100.0 (1,273)
육아휴직	60.7	31.8	7.5	100.0 (1,895)	75.8	18.9	5.3	100.0 (1,27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36.5	46.3	17.3	100.0 (1,895)	56.6	33.2	10.2	100.0 (1,273)

제도명	부				모			
	가능	불가능	모르겠음	계(수)	가능	불가능	모르겠음	계(수)
가족돌봄휴직	32.1	46.1	21.9	100.0 (1,895)	40.5	40.6	18.9	100.0 (1,273)
가족돌봄휴가	33.3	45.9	20.8	100.0 (1,895)	41.9	40.3	17.7	100.0 (1,27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29.4	47.0	23.6	100.0 (1,895)	38.4	40.8	20.8	100.0 (1,273)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육아시간 지원	23.4	50.3	26.3	100.0 (1,895)	30.4	46.2	23.4	100.0 (1,273)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내 (2023.9~2024.8) 해당 제도를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실제 사용은 (모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특히 모에 비해 부의 시간지원 제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모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57.9%로 미사용 비율이 42.1%로 높았으며, 모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미사용 비율이 각 59.0%, 61.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휴직 사용률이 7.9%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제도와 자체 추가 육아시간지원의 경우 2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부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42.3%로 가장 높았으나 미사용 비율이 57.7%로 과반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었다고 하나, 2024년 조사 결과 이용률은 10.0%로, 90%의 아버지가 지난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률이 21.3%로 육아휴직에 비해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모와 비슷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3.6%로 가장 낮은 가운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제도와 자체 추가 육아시간지원은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제시된 육아시간지원이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개별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1년 이내 이용 경험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전체 시간지원제도의 이용 가능성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제고와 필요 시 실제 사용 가능성의 확대 및 이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2-7〉 영유아 부모의 육아시간지원제도 사용 경험

단위: %, (명)

제도명	부			모		
	사용	미사용	계(수)	사용	미사용	계(수)
출산휴가	42.3	57.7	100.0 (1,319)	57.9	42.1	100.0 (1,004)
육아휴직	10.0	90.0	100.0 (1,180)	41.0	59.0	100.0 (96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21.3	78.7	100.0 (737)	38.5	61.5	100.0 (726)
가족돌봄휴직	3.6	96.4	100.0 (664)	7.9	92.1	100.0 (541)
가족돌봄휴가	22.9	77.1	100.0 (695)	27.6	72.4	100.0 (56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3.7	86.3	100.0 (614)	20.2	79.8	100.0 (514)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하는 육아시간 지원	14.8	85.2	100.0 (509)	22.5	77.5	100.0 (400)

주: 직장에서 자체 추가 제공하는 육아시간 지원(법적보장 기간 이상의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직/휴가 등)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취업부모에게 직장의 정기휴일이 며칠인지 조사한 결과, 1주일에 2일 휴무 즉 주 5일제 근무라는 응답이 부 69.5%, 모 6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의 경우 1주일에 1일 정기휴일(12.3%) > 일정한 휴일없이 수시(7.8%) > 1주일에 1일과 토요일 격주(5.5%)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모의 경우 비해당(휴직 중)(20.4%) > 일정한 휴일없이 수시(8.9%) > 1주일에 1일(5.2%) 순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휴무한다는 응답(부 7.8%, 모 8.9%)이 적지 않으며, ‘2주에 1일’과 ‘모름’ 응답까지 고려하면 1주일 기준 정기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비율은 부 10.2%, 모 11.4%로 나타났다. 부모의 근로시간(대) 등 직업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하는 부모에게 정기 휴일의 편차가 크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비정형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주중 평일 및 주말/휴일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맞춤형의 형태로 다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시간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Ⅲ-2-8〉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직장 정기 휴일

단위: %, (명)

구분	부								모							
	1주일 에 1일 1일 토요일 격주	1주일 에 1일 2일	2주일 에 1일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비 해당 (휴직)	모름	전체 (수)		1주일 에 1일 1일 토요일 격주	1주일 에 1일 2일	2주일 에 1일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비 해당 (휴직)	모름	전체 (수)	
전체	12.3	5.5	69.5	0.9	7.8	2.6	1.5	(2,423)	5.2	3.0	60.0	0.6	8.9	20.4	1.9	(1,590)
최연소자녀 구분																
영아	11.5	5.8	69.6	0.7	8.0	3.4	1.0	(1,480)	4.8	2.6	55.4	0.5	8.2	27.0	1.5	(933)
유아	13.6	5.0	69.2	1.3	7.4	1.0	2.4	(943)	6.0	3.5	67.8	0.8	10.1	9.1	2.6	(657)
$\chi^2(df)$	23.5(6)***								74.2(6)***							
지역규모																
대도시	10.9	6.6	70.6	1.4	6.0	2.9	1.6	(1,020)	3.8	3.4	60.3	0.7	7.0	23.3	1.5	(693)
중소도시	12.7	5.0	70.6	0.5	8.3	2.0	0.9	(1,025)	5.8	2.0	64.2	0.5	9.4	16.0	2.1	(671)
읍·면	14.8	4.0	62.5	0.6	11.1	3.7	3.3	(378)	8.3	4.5	45.3	0.7	13.2	25.3	2.7	(226)
$\chi^2(df)$	37.0(12)**								43.9(12)**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5)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부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44시간 38분, 평일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 19분이었다. 모의 경우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37시간 10분이었으며 평일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37분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영유아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모의 경우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길었으며, 유아 모에 비해 영아 모의 근로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표 Ⅲ-2-9〉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및 주당 근로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부			모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전체	10시간 19분	44시간 38분	(2,423)	8시간 37분	37시간 10분	(1,59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0시간 16분	44시간 22분	(1,480)	8시간 46분	37시간 31분	(933)
유아	10시간 25분	45시간 6분	(943)	8시간 23분	36시간 40분	(657)

구분	부			모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지역규모						
대도시	10시간 16분	44시간 24분	(1,020)	8시간 53분	37시간 35분	(693)
중소도시	10시간 23분	44시간 27분	(1,025)	8시간 28분	36시간 49분	(671)
읍·면	10시간 14분	45시간 55분	(378)	8시간 15분	36시간 56분	(226)
2021년	10시간 48분	46시간 24분	(2,270)	8시간 36분	38시간 0분	(945)
2018년	11시간 12분	48시간 6분	(2,434)	8시간 54분	39시간 18분	(1,272)
2015년	11시간 48분	50시간 42분	(2,494)	9시간 24분	40시간 36분	(905)
2012년	12시간 6분	50시간 50분	(2,418)	9시간 12분	40시간 0분	(837)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97. <표 III-2-5>.

6) 미취업 부모의 취업 계획

현재 미취업 상태인 부모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 계획을 질문한 결과, 모의 경우 취업 계획이 없다 31.2%, 모름 7.2%로, 총 38.4%의 미취업 모가 취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 계획이 있는 경우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구직 중 또는 취업교육·학업·훈련 중이라는 응답은 합하여 10.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이전연도에 비해 미취업 모의 일하고자 하는 계획과 취업 준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대도시지역에서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없음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2-10>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단위: %, (명)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계(수)	$\chi^2(df)$
전체	7.5	3.1	51.0	0.1	31.2	7.2	100.0(88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5	2.5	53.2	-	31.1	5.7	100.0(582)	10.4(5)
유아	7.4	4.3	46.1	0.2	31.6	10.5	100.0(301)	
지역규모								
대도시	5.9	4.0	45.5	-	35.4	9.2	100.0(351)	12.9(10)
중소도시	8.9	2.7	53.0	0.1	29.3	6.0	100.0(379)	
읍·면	6.7	2.1	57.3	-	27.6	6.3	100.0(153)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계(수)	$\chi^2(df)$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6	11.7	49.0	-	23.8	10.0	100.0(73)	40.5(35)
300~349만원	10.8	3.3	42.4	-	33.3	10.1	100.0(106)	
350~399만원	5.7	2.3	47.7	-	38.0	6.3	100.0(106)	
400~499만원	6.6	2.4	50.5	0.2	32.9	7.4	100.0(236)	
500~599만원	10.0	1.3	54.5	-	29.0	5.2	100.0(165)	
600~699만원	3.6	2.1	65.3	-	24.7	4.3	100.0(78)	
700만원 이상	9.3	3.2	49.3	-	30.4	7.9	100.0(101)	
모름/무응답	2.0	2.9	45.8	-	39.8	9.5	100.0(18)	
2021년	3.9	2.7	35.2	0.4	44.0	13.8	100.0(1,184)	
2018년	4.5	2.0	33.8	-	59.7	-	100.0(1,230)	
2015년	5.8	2.0	55.3	-	36.3	0.7	100.0(1,567)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99~100. <표 III-2-8>.

다음으로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임 16.9%로 응답되었다. 계획없음 7.2%, 모름 12.3%로 총 19.5%의 미취업 부가 취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교육·학업·훈련 중은 4.5%였다. 미취업 부는 적은 사례수로 하위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1>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단위: %, (명)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계(수)	$\chi^2(df)$
전체	52.3	4.5	16.9	6.7	7.2	12.3	100.0(2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7.9	6.2	23.3	9.3	4.5	8.7	100.0(20)	4.0(5)
유아	63.9	-	-	-	14.3	21.8	100.0(7)	
지역규모								
대도시	39.6	6.0	21.8	7.2	7.6	17.7	100.0(11)	8.3(10)
중소도시	64.7	-	15.7	7.5	2.3	9.8	100.0(13)	
읍·면	47.3	21.2	-	-	31.5	-	100.0(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5.9	7.1	5.7	8.8	6.8	5.7	100.0(17)	18.0(20)
300~349만원	100.0	-	-	-	-	-	100.0(1)	
350~399만원	58.0	-	-	-	42.0	-	100.0(2)	
400~499만원	17.1	-	39.2	-	-	43.7	100.0(4)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계(수)	$\chi^2(df)$
500~599만원	-	-	68.8	10.0	-	21.2	100.0(3)	
600~699만원	-	-	-	-	-	-	-	
700만원 이상	-	-	-	-	-	-	-	
2021년	48.7	15.7	15.5	-	13.2	6.8	100.0(28)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00. <표 III-2-9>.

미취업 모 중 향후 취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개월~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총 32.4%로 많았으며, ‘2~5년 이내’ 응답은 각 20% 이상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가까운 시기에 취업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나, 영아 가구에서 ‘1~3년 이내’ 취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유아 가구에 비해 좀 더 많아 영아 모의 초기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3개월 이내’ 취업 계획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1~2년 이내’ 이른 시기에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한편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도 ‘3개월 이내’ 취업 계획과 600~699만원 가구의 ‘1~2년 이내’ 응답이 많아 고소득가구 영유아 모의 취업 계획도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III-2-12>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 (명)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계(수)	$\chi^2(df)$
전체	6.3	5.7	20.4	22.5	20.6	20.2	4.3	100.0(531)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1	5.4	21.7	22.8	21.7	17.6	4.7	100.0(358)	7.0(6)
유아	6.8	6.3	17.5	21.8	17.9	26.5	3.2	100.0(173)	
지역규모									
대도시	5.3	5.5	22.0	17.9	20.8	22.6	5.9	100.0(206)	
중소도시	7.5	6.5	18.9	26.6	19.4	17.8	3.3	100.0(230)	11.6(12)
읍·면	4.4	3.6	22.2	18.5	24.0	23.1	4.2	100.0(9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0.8	3.3	29.3	29.4	15.6	11.6	-	100.0(47)	
300~349만원	6.1	14.8	21.6	15.5	23.6	17.5	1.0	100.0(54)	
350~399만원	1.7	10.8	23.8	30.3	16.7	14.1	2.6	100.0(59)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계(수)	$\chi^2(df)$
400~499만원	4.6	5.6	24.4	22.7	18.4	21.0	3.3	100.0(137)	72.5(42)**
500~599만원	8.2	3.7	16.2	16.9	23.0	26.7	5.3	100.0(110)	
600~699만원	4.7	3.9	21.2	32.5	16.2	20.4	1.1	100.0(51)	
700만원 이상	10.5	1.1	7.7	15.6	29.1	23.4	12.7	100.0(62)	
모름/무응답	-	-	21.0	32.9	23.0	7.0	16.0	100.0(11)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2년 이내' 응답이 총 29.3%로 많았다. 대체로 단기간 내 다시 일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13〉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 (명)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계(수)	$\chi^2(df)$
전체	56.7	6.9	12.3	17.0	-	7.1	-	100.0(2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7.8	8.8	2.5	21.8	-	9.1	-	100.0(17)	8.1(4)
유아	53.0	-	47.0	-	-	-	-	100.0(3)	
지역규모									
대도시	70.8	-	-	11.3	-	17.9	-	100.0(8)	
중소도시	44.1	8.5	23.5	23.8	-	-	-	100.0(10)	5.2(8)
읍·면	69.0	31.0	-	-	-	-	-	100.0(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7.9	3.4	17.7	11.0	-	-	-	100.0(14)	
300~349만원	100.0	-	-	-	-	-	-	100.0(1)	
350~399만원	100.0	-	-	-	-	-	-	100.0(1)	29.8(16)*
400~499만원	-	30.4	-	-	-	69.6	-	100.0(2)	
500~599만원	-	12.7	-	87.3	-	-	-	100.0(2)	
600~699만원	-	-	-	-	-	-	-	-	
700만원 이상	-	-	-	-	-	-	-	-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7)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5%, 아버지가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3.6%,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음 6.1%로, 아버지만 한 경우보다 좀 더 높게 응답되었다.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모, 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없음' 영유아 가구는 전체 55.9%로, 2021년 대비 7.1%p, 2018년 대비 16.2%p 감소하였다.

모의 육아휴직 경험은 영아 가구에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경우는 유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제도 도입 시기에 따른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별로는 모의 육아휴직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경험이 대도시지역에서 높았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14〉 자녀 양육을 위해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경험

단위: %, (명)

구분	어머니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있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없음	계(수)
전체	34.5	3.6	6.1	55.9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6.9	3.7	6.5	52.9	100.0(1,519)
유아	30.1	3.3	5.3	61.3	100.0(975)
$\chi^2(df)$	16.9(3)**				
지역규모					
대도시	38.7	4.1	8.5	48.7	100.0(1,051)
중소도시	32.8	2.8	4.3	60.1	100.0(1,060)
읍·면	27.8	4.7	4.8	62.7	100.0(383)
$\chi^2(df)$	46.5(6)***				
2021년	32.6	2.1	2.4	63.0	100.0(2,500)
2018년	26.0	1.1	0.9	72.1	100.0(2,533)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06. 〈표 III-2-16〉.

*** $p < .001$.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별로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최연소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평균 6개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자녀2와 자녀3에 대해서는(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례수는 적었으나) 각각 평균 7개월, 9개월 동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경우는 최연소자녀에 대해 평균 9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

며, 마찬가지로 자녀2와 자녀3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례수는 적었으나) 각각 평균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최연소자녀 외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험이 부와 비교하여 사용기간이 더 길고 사용률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15〉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부					모				
	최연소 자녀	자녀2	자녀3	자녀4	자녀5	최연소 자녀	자녀2	자녀3	자녀4	자녀5
총 육아휴직 기간	6개월	7개월	9개월			9개월	10개월	10개월		
(수)	(213)	(39)	(2)	-	-	(881)	(158)	(7)	-	-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한편,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살펴보면, 출산 이후 생후 6개월 미만의 시기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모 80.5%, 부 62.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자녀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부 22.3%, 모 13.3%로, 모에 비해 부의 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써 자녀 연령이 만 1세 이상부터 취학 전 시기의 육아휴직 경험은 부 37.2%, 모 18.3%로, 부의 육아휴직자 수는 모에 비해 적었으나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6〉 최연소 자녀의 부모 육아휴직시기

단위: %, (명)

구분	부	모	부모 동시 사용
출산 이후~생후 6개월 미만	62.8	80.5	100.0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미만	-	1.2	-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	22.3	13.3	-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	4.6	1.6	-
만 3세 이상~취학 전	10.3	3.4	-
계	100.0	100.0	100.0
(수)	(198)	(871)	(16)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총 휴직 기간을 산출한 결과, 모 약 12개월, 부 7개월로 차이를 보였다. 모의 경우 유아 자녀를 둔 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길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7〉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단위: 개월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7.0	(259)		11.9	(96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8	(172)	-1.0	11.3	(615)	-4.7***
유아	7.5	(87)		13.4	(347)	
지역규모						
대도시	7.1	(127)	0.0(a)	11.4	(460)	2.4
중소도시	6.9	(92)		12.3	(382)	
읍·면	7.0	(40)		12.3	(120)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2021년 조사 결과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은 모 평균 17.8개월, 부 평균 9.5개월로(김은설 외, 2021: 107),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는 저변의 확대 속에서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시간지원 등의 시간지원 제도의 다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취업부모의 양육 관련 애로사항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긴급상황’과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 그리고 보육·교육기관에 ‘부모참여 부담’에서 5점 척도 평균 3.0점 이상으로 나타나 일정수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근로시간’과 ‘휴일출근’으로 인한 어려움은 적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직업특성별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른 데에서 오는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높은 비율의 어려움 응답은 아니나,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긴급한 상황’과 ‘출/퇴근시간’으로 인한 취업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특성별로는 영아 부모에 비해 유아 부모의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컸으며,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늦은 퇴근시간과 불규칙한 근로시간의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상황의 어려움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좀 더 많이 응답되었다.

〈표 III-2-18〉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	불규칙한 근로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수)
전체	3.2	3.2	2.7	2.8	3.3	3.0	(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2	3.2	2.6	2.7	3.3	2.9	(1,519)
유아	3.1	3.1	2.8	2.8	3.3	3.0	(975)
<i>t</i>	0.8	0.5	-2*	-1.1	-0.2	-1.2	
지역규모							
대도시	3.2	3.2	2.7	2.7	3.2	2.9	(1,051)
중소도시	3.2	3.2	2.8	2.8	3.4	3.0	(1,060)
읍·면	3.0	2.9	2.4	2.8	3.3	2.9	(383)
<i>F</i>	2.0	3.2*	5.6**	2.2	4.4*	3.0	
2021(취업모)	3.2	3.1	2.8	2.7	3.3	2.9	(2,500)
2018(취업모)	3.2	3.2	-	2.8	3.2	3.1	(1,295)
2015(취업모)	3.1	3.1	-	2.9	3.2	3.2	(989)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은 '어렵지 않음' 1점~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의미를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08. 〈표 III-2-19〉.

* $p < .05$, ** $p < .01$.

9) 이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이주민 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응답이 5점 척도 평균 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평균 3.0점 미만으로 응답되어 2021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이주민 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던 자녀교육에 대한 지도(2021년 3.2점), 돌봄지원의 부재(3.0점),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3.1점)에 대한 응답이 모두 감소하여 보통 이하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아이와의 의사소통, 양육방식 갈등과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등 대부분 항목에서 2.5~2.6점으로 평균 보통 이하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하위특성별로 살펴보면 미취업 이주민 모에서 양육 방식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른 그룹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21년 조사에서 아이와의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 문제,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려움으로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이 높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 이주민 가구에서 부모의 어려움 응답이 대체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III-2-19〉 이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점, (명)

구분	아이와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	양육방식 갈등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지원 부재	자녀지도 교육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수)
전체	2.6	3.0	2.5	2.6	2.5	2.8	2.9	2.5	(12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5	3.0	2.4	2.5	2.4	2.8	2.8	2.5	(76)
유아	2.6	3.0	2.7	2.7	2.6	2.8	3.0	2.5	(46)
<i>t</i>	-0.5	-0.1	-1.2	-1.2	-1.0	-	-0.8	-0.3	
지역규모									
대도시	2.5	3.1	2.6	2.7	2.6	2.8	2.8	2.4	(36)
중소도시	2.7	2.9	2.3	2.6	2.4	2.8	2.8	2.5	(43)
읍·면	2.5	3.1	2.7	2.4	2.4	2.8	3.0	2.5	(43)
<i>F</i>	0.4	0.4	1.2	0.6	0.5	0	0.6	0.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0	2.8	2.0	2.4	2.3	2.5	2.3	2.2	(12)
300~349만원	3.2	3.7	2.8	2.8	2.8	3.7	3.2	3.0	(16)
350~399만원	2.7	3.2	3.0	2.8	2.7	3.0	2.9	2.9	(14)
400~499만원	2.4	2.9	2.2	2.7	2.5	2.6	2.8	2.6	(32)
500~599만원	2.7	3.2	3.1	2.7	2.5	3.2	3.4	2.5	(22)
600~699만원	2.8	3.0	2.2	2.8	2.4	2.7	3.1	2.6	(10)
700만원 이상	2.1	2.5	2.1	1.6	1.7	1.7	2.1	1.9	(13)
모름/무응답	2.8	1.7	2.1	2.1	2.3	2.2	2.3	1.9	(3)
<i>F</i>	1.7	3.1**(a)	3.8***	2(a)	1.5(a)	4.6***(a)	3.2**(a)	2.1(a)	
2021년	2.6	3.1	2.6	2.6	2.6	3.0	3.2	2.7	(130)

주: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09. 〈표 III-2-20〉.

** $p < .01$, *** $p < .001$.

나.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조사 대상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1.5%로 나타났다. 영아 가구 1.4%, 유아 가구 1.6%, 대도시지역 1.9%, 중소도시 1.2%, 읍·면지역

1.0%로 조사되었다. 2021년 기초생활급여 대상 영유아 가구는 1.3%였다. 기초생활급여 대상 영유아 가구는 매년 1%대의 비중을 보여 큰 변동은 없었다.

〈표 Ⅲ-2-20〉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21년	'18년	'15년	'12년
급여 대상	1.4	1.3	1.5	1.4	2.1	1.3	0.8	1.6	1.9	1.2	1.0	1.5	1.3	1.6	1.0	1.4
비급여	98.6	98.7	98.5	98.6	97.9	98.7	99.2	98.4	98.1	98.8	99.0	98.5	98.7	98.4	99.0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500)	(2,533)	(2,593)	(2,528)
$\chi^2(df)$	0.1(2)				2.7(2)				2.5(2)				-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0. 〈표 Ⅲ-2-21〉.

2) 영유아 가구 소득

가) 소득 분위별 평균²²⁾

202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참여 가구의 월소득 평균은 625만4,000원으로, 2024년 가계동향조사 2/4, 3/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각 496만1,000원(통계청 보도자료, 2024.8.29.), 525만5,000원(통계청 보도자료, 2024.11.28.)과 비교하여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1~3분위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국 일반가구의 분위별 평균보다 높았으며, 4~5분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국 일반가구분위별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1년 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505만5,000원과 비교하여 3년간 119만9,000원(23.7%)이 증가하였다. 2024년 영유아 가구의 분위별 평균 소득은 1~5분위 모두 2021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2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별 평균이 2018년 2인 이상 일반가구 소득 10분위에서 2021년 1인 이상 일반가구 소득 5분위로 변화함.

〈표 III-2-21〉 소득 분위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름/무응답				평균	
2024년 보육실태조사											
	298.3	425.0	521.3	660.7	1,104.3	-				625.4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4분기	115.9	275.3	422.2	601.7	1,065.2	-				496.1	
3/4분기	118.2	282.3	436.2	636.0	1,154.3	-				525.5	
2021년 보육실태 조사											
	247.3	356.5	449.6	542.5	887.3	-				505.5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8년 보육실태 조사											
	179.1	281.8	316.5	346.0	394.1	434.6	494.3	566.5	674.1	964.4	454.1
2015년 보육실태 조사											
	170.5	235.2	273.1	302.8	338.4	373.7	408.4	484.1	578.1	853.5	403.0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통계청 보도자료(2024.8.29.).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인출일: 2024. 12. 30.)

3) 통계청 보도자료(2024.8.29.).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인출일: 2024. 12. 30.)

4)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1. 〈표 III-2-22〉.

나) 지역별 소득수준

2024년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의 소득은 2021년 영유아 가구 소득 평균 505만5천원과 비교하여 약 119만9천원이 증가한 평균 625만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가구 소득 평균은 2012년 조사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이전연도에 비해 크고, 가구 간 소득편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이전연도와 달리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영유아 가구의 비율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조사와 비교하여 700만원 이상과 600~599만원의 고소득가구분포가 각 13.3%p, 5.7%p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600만원 미만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코로나 종식 이후 결혼과 출산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증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서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높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소득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아 가구 평균 589만2천원, 유아 가구 평균 657만7천원으로 자녀 연령에 따른 가구 소득의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의 순으로 가구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가 대도시지역에 많았으며, 대체

로 499만원 이하 소득 가구는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에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9만원 이하 가구는 읍·면지역 영아 가구에 10.6%로 많았으며, 다른 한편 600~699만원 이하 가구가 읍·면지역 영아 가구와 중소도시 유아 가구에서 많은 특성도 보여,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 분포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22〉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7	4.4	10.6	4.6	5.1	4.9	4.2	4.9	4.1	4.5	7.4	4.7
300~349만원	6.2	8.0	6.1	7.0	4.4	5.7	7.1	5.4	5.4	7.3	6.6	6.4
350~399만원	5.3	6.4	5.5	5.8	4.8	3.5	8.8	4.7	5.0	5.2	6.8	5.3
400~499만원	13.4	21.6	24.1	18.7	11.8	17.7	21.4	15.8	12.1	19.3	22.6	16.8
500~599만원	20.5	18.8	15.3	19.0	16.3	20.9	23.7	19.3	17.6	19.5	19.5	18.7
600~699만원	15.9	15.4	18.0	16.0	14.2	16.0	10.6	14.5	15.2	15.7	14.3	15.3
700만원 이상	32.9	23.7	20.3	26.8	42.4	28.7	21.4	33.4	38.6	26.3	21.2	30.5
모름/무응답	3.1	1.8	-	2.1	1.0	2.5	2.9	2.0	2.1	2.3	1.6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024년 평균 (표준편차)	626.7 (305.3)	578.2 (287.3)	522.6 (207.3)	589.2 (286.8)	706.7 (504.7)	637.5 (503.3)	571.4 (404.2)	657.7 (493.9)	673.5 (434.7)	605.8 (420.8)	549.6 (328.3)	625.4 (417.1)
F	9.4**				6.2*				13.6*(a)			
2021년 평균 (표준편차)	485.7 (241.4)	485.5 (292.2)	429.4 (200.8)	476.8 (260.0)	548.1 (275.5)	530.3 (327.8)	457.9 (221.1)	526.5 (293.4)	525.1 (263.5)	508.4 (299.8)	444.3 (221.9)	505.5 (275.3)
2018년 평균 (표준편차)	481.4 (235.0)	418.0 (205.3)	389.1 (175.6)	436.5 (214.4)	518.1 (261.7)	464.6 (230.1)	401.9 (182.5)	467.6 (235.9)	502.1 (252.2)	443.0 (213.8)	397.1 (177.7)	454.1 (225.6)
2015년 평균 (표준편차)	396.0 (189.2)	400.5 (245.3)	336.1 (166.5)	388.2 (211.5)	428.9 (185.8)	399.5 (194.8)	392.5 (180.7)	410.5 (189.4)	416.8 (188.9)	400.8 (219.1)	372.3 (182.5)	403.0 (201.6)
2012년 평균 (표준편차)	385.4 (208.3)	33.65 (191.0)	393.5 (204.4)	367.6 (202.4)	403.6 (229.6)	376.6 (207.3)	417.9 (213.6)	391.3 (218.2)	399.3 (222.0)	353.3 (198.6)	408.1 (214.0)	382.1 (212.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2. 〈표 III-2-23〉.

** $p < .01$, *** $p < .001$.

다) 모 취업 여부별 소득수준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취업 가구소득 평균 726만원, 모 휴직 중 가구소득 평균 640만5천원, 모 미취업 가구 477만5천원, 모 부재 가구의 경우 340만4천원으로 모 취업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 가구 및 모 휴직 중, 미취업 모 가구 모두에서 유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영아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7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도 유아 가구에서 더 많았다.

〈표 III-2-23〉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3	2.6	8.3	-	4.6	3.3	0.5	7.2	37.6	4.9	3.0	2.0	7.6	34.5	4.7
300~349만원	3.3	5.0	12.5	-	7.0	2.0	5.9	10.0	25.3	5.4	2.6	5.7	11.8	23.2	6.4
350~399만원	2.7	2.8	11.2	-	5.8	1.2	5.2	10.5	3.0	4.7	1.9	3.7	11.1	2.7	5.3
400~499만원	9.2	18.3	29.8	44.2	18.7	9.8	15.6	25.7	16.8	15.8	9.7	16.3	27.3	19.1	16.8
500~599만원	18.6	22.2	17.7	-	19.0	17.7	29.8	20.1	17.2	19.3	17.3	24.3	18.8	15.8	18.7
600~699만원	22.0	16.9	8.4	55.8	16.0	17.7	12.8	10.1	-	14.5	19.5	16.0	9.2	4.6	15.3
700만원 이상	41.0	27.5	10.1	-	26.8	46.9	27.8	13.5	-	33.4	44.8	27.6	11.6	-	30.5
모름/무응답	0.9	4.7	2.1	-	2.1	1.3	2.3	3.0	-	2.0	1.2	4.4	2.7	-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220)	(433)	(2)	(1,127)	(916)	(118)	(553)	(19)	(1,606)	(1,296)	(294)	(883)	(21)	(2,494)
2024년 평균	689.9	586.1	467.2	546.9	589.2	751.1	737.6	497.1	321.7	657.7	726.0	640.5	477.5	340.4	625.4
(표준편차)	(339.2)	(221.1)	(187.1)	(93.3)	(286.8)	(510.6)	(936.6)	(225.1)	(128.9)	(493.9)	(455.6)	(555.1)	(200.3)	(139.7)	(286.8)
2021년 평균	641.3	472.9	387.7	327.1	476.8	621.1	509.8	429.5	341.5	527.9	624.1	481.7	407.1	345.0	505.5
(표준편차)	(269.6)	(208.2)	(228.0)	(165.1)	(260.0)	(325.0)	(280.1)	(229.1)	(158.5)	(298.0)	(310.3)	(227.6)	(204.5)	(156.6)	(275.3)
2018년 평균	556.9	482.2	355.1	313.5	436.5	538.4	467.4	392.7	318.5	467.6	540.2	475.3	374.4	317.7	454.1
(표준편차)	(245.1)	(206.2)	(151.3)	(21.1)	(214.4)	(242.2)	(235.1)	(204.4)	(124.9)	(235.9)	(238.0)	(204.6)	(184.7)	(120.4)	(225.6)
2015년 평균	526.1	450.5	325.5	-	388.2	495.8	502.5	348.8	-	411.1	505.3	461.1	337.3	-	403.0
(표준편차)	(278.4)	(186.4)	(143.4)	-	(211.5)	(224.7)	(169.0)	(148.2)	-	(197.6)	(237.1)	(186.9)	(142.6)	-	(201.6)
2012년 평균	475.5	464.1	315.3	-	367.6	459.4	467.3	345.9	-	391.6	469.6	464.0	329.1	-	382.1
(표준편차)	(227.6)	(264.1)	(160.1)	-	(202.4)	(237.7)	(276.1)	(188.8)	-	(218.6)	(239.2)	(258.4)	(172.1)	-	(212.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3. 〈표 III-2-24〉.

라)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2인 가구(n=57)의 월평균 소득이 월 388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299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비율이 38.4%로 높게 나타나 2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1년 2인 가구(n=25)의 174만 8천원보다 가구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3~5인 가구 규모의 경우 월평균 630~640만원의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6인 이상 가구

(n=41)에서는 평균 523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졌다. 모든 가구 규모에서 2012년 이후 가구소득이 증가하였으며, 2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7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의 비율이 3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4〉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8.4	4.0	3.3	3.2	17.5	4.7
300~349만원	15.0	6.6	5.5	5.2	10.0	6.4
350~399만원	1.1	6.3	3.6	5.1	8.7	5.3
400~499만원	8.7	17.9	15.8	16.3	10.1	16.8
500~599만원	16.9	16.8	22.8	18.9	15.1	18.7
600~699만원	5.9	16.4	16.0	9.6	5.4	15.3
700만원 이상	10.8	29.7	31.6	37.9	32.1	30.5
모름/무응답	3.1	2.2	1.4	3.8	1.1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	(1324)	(840)	(232)	(41)	(2494)
2024년 평균	388.3	631.5	630.1	650.2	523.0	625.4
(표준편차)	(196.0)	(477.8)	(315.2)	(317.9)	(251.1)	(417.1)
2021년	174.8	481.3	534.3	513.0	545.8	505.5
(표준편차)	(119.5)	(238.9)	(305.4)	(261.2)	(295.0)	(275.3)
2018년	240.6	438.9	469.7	470.3	447.0	454.1
(표준편차)	(132.6)	(212.2)	(235.0)	(230.2)	(214.8)	(225.6)
2015년	186.9	390.2	400.9	439.1	409.2	403.0
(표준편차)	(112.3)	(187.0)	(175.0)	(286.2)	(190.5)	(201.6)
2012년	186.9	390.2	400.9	439.1	409.2	403.0
(표준편차)	(71.9)	(202.1)	(197.6)	(238.8)	(286.1)	(212.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4. 〈표 Ⅲ-2-25〉.

마) 부모 근로소득

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부 448만9천원, 모 266만6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와 모의 취업률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휴직포함: 부 97.0%, 모 64.2%)과 시간제일자리 등의 고용·노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근로소득이 이전연도에 비해 2021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감소한 모의 근로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영아 부모에 비해 유아 부모의 근로소득이, 그리고 (대)도시지역의 부와 모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5〉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448.9	(2,477)		266.6	(2,48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42.1	(1,511)	-1.6	260.2	(1,518)	-1.4
유아	461.5	(966)		276.9	(970)	
지역규모						
대도시	485.0	(1,042)		282.5	(1,050)	
중소도시	429.2	(1,052)	13.6*** (a)	267.6	(1,057)	7.4***
읍·면	408.1	(383)		209.3	(381)	
2021년	385.4	(2,374)		106.5	(2,426)	
2018년	353.5	(2,406)		206.4	(1,177)	
2015년	321.9	(2,494)		186.1	(905)	
2012년	314.7	(2,419)		161.5	(837)	

주: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5. 〈표 III-2-26〉.
 3)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99~100. 〈표 III-2-9〉.
 *** $p < .001$.

3) 영유아 가구 지출

가) 지역별 지출수준

조사 참여 가구의 전체 월평균 지출은 379만7천원으로, 영유아 가구 소득 평균 625만 4천원 대비 약 60.7%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월평균 지출 300~399만원 응답이 총 32.7%로 가장 많았으며, 299만원 이하와 400~499만원 지출이 각 20% 이상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영유아 가구 지출이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에 2021년 대비 약 15.9%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의 2015년, 2018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가구 평균 지출 357만2천원, 유아 가구 398만4천원으로 유아 가구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 가구의 경우 299만원 이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유아 가구에서는 500만원 이상 지출 가구의 비중이 좀 더 많았다. 가구 소득 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아 가구(60.6%)와 유아 가구(60.6%)에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의 순으로 가구 지출이 많았다.

〈표 Ⅲ-2-26〉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월평균 지출												
299만원 이하	23.3	26.6	40.3	27.1	14.8	17.0	26.3	17.3	18.5	21.5	32.7	21.9
300~349만원	22.9	24.1	20.7	23.1	19.3	23.2	28.1	22.3	20.7	23.5	25.1	22.6
350~399만원	8.5	11.8	11.3	10.4	9.3	11.3	8.6	10.1	8.8	11.4	9.8	10.1
400~499만원	22.5	17.4	10.9	18.5	23.2	23.7	16.6	22.6	23.0	20.8	14.1	20.8
500~599만원	13.0	8.1	9.8	10.3	16.6	12.5	8.4	13.6	15.2	10.4	8.7	12.1
600~699만원	4.7	3.1	2.5	3.6	7.8	4.2	5.7	5.9	6.5	3.8	4.1	4.9
700만원 이상	3.9	4.6	4.3	4.3	8.3	5.2	2.9	6.2	6.3	5.0	3.6	5.4
모름/무응답	1.3	4.4	0.2	2.6	0.6	3.0	3.3	2.0	0.9	3.5	1.9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024년 평균	371.9	354.0	325.8	357.2	423.8	387.2	355.3	398.4	401.4	372.1	340.0	379.7
(표준편차)	(155.5)	(148.3)	(143.8)	(151.3)	(186.8)	(147)	(144.1)	(166.2)	(176.7)	(149.3)	(144.5)	(161.8)
2021년 평균	302.4	313.4	274.8	302.9	361.9	349.7	304.3	347.9	336.1	331.8	292.9	327.6
(표준편차)	(151.8)	(193.3)	(106.5)	(166.1)	(157.7)	(179.5)	(118.9)	(163.4)	(159.0)	(170.8)	(117.3)	(159.4)
2018년 평균	418.0	385.6	357.1	391.2	439.4	417.3	367.4	411.4	429.0	402.6	363.3	402.1
(표준편차)	(160.1)	(141.3)	(123.5)	(147.1)	(180.7)	(155.2)	(130.4)	(162.2)	(172.2)	(145.7)	(126.7)	(154.6)
2015년 평균	390.9	396.0	332.6	383.5	419.8	393.6	387.5	403.4	409.5	394.8	368.3	396.8
(표준편차)	(190.2)	(241.8)	(166.4)	(210.1)	(181.2)	(193.8)	(182.7)	(187.2)	(186.6)	(216.9)	(182.9)	(199.6)
2012년 평균	296.0	278.1	307.7	291.1	319.7	305.6	330.9	315.9	308.4	290.7	322.3	303.7
(표준편차)	(139.8)	(142.5)	(149.0)	(142.7)	(155.2)	(134.6)	(140.3)	(144.2)	(148.9)	(139.5)	(148.7)	(145.5)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6. 〈표 Ⅲ-2-27〉.

나) 모 취업 여부별 지출수준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취업가구 지출 평균 415만8천원으로, 모 휴직 중 가구 지출 364만2천원, 모 미취업 가구 지출 334만3천원, 모 부재 가구(n=21)의 경우 307만2천원으로 모 취업 여부에 따른 가구 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도 모 미취업(70.7%), 모 부재(90.2%) 가구에서 소득 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 취업(57.3%), 모 휴직 중(56.9%) 가구와 비교하여 많아 가계지출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지출규모의 차이와 가계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었다. 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평균 지출(427만6천원)이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지출(427만6천원)보다 많았다. 모 부재 가구를 제외하고는 휴직 중인 경우나 미취업모인 경우 영아 가구에 비해 유아 가구에서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7〉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월평균 지출															
299만원 이하	19.0	29.2	35.6	-	27.1	12.6	16.5	23.6	60.3	17.3	14.9	26.8	29.5	55.2	21.9
300~349만원	20.3	20.4	27.9	44.2	23.1	20.2	22.5	25.8	19.0	22.3	20.2	20.1	27.0	21.1	22.6
350~399만원	9.0	10.9	11.8	-	10.4	8.2	14.4	12.8	-	10.1	8.8	10.9	12.0	-	10.1
400~499만원	22.6	15.6	15.4	-	18.5	24.4	26.7	19.4	6.9	22.6	23.7	18.5	17.7	6.3	20.8
500~599만원	14.5	13.0	3.8	-	10.3	16.4	7.8	10.6	3.8	13.6	15.8	11.6	7.2	3.5	12.1
600~699만원	5.1	3.5	1.8	55.8	3.6	7.4	5.9	3.5	-	5.9	6.7	4.4	2.6	4.6	4.9
700만원 이상	6.5	3.9	2.0	-	4.3	8.7	4.5	2.3	10.1	6.2	7.8	4.4	2.0	9.2	5.4
모름/무응답	2.9	3.5	1.8	-	2.6	2.1	1.7	2.0	-	2.0	2.1	3.2	2.1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220)	(433)	(2)	(1,127)	(916)	(118)	(553)	(19)	(1,606)	(1,296)	(294)	(883)	(21)	(2,494)
2024년 평균 (표준편차)	395.7 (168.7)	355.1 (146.2)	313.6 (117.1)	467.3 (233.2)	357.2 (151.3)	427.6 (177.2)	385.0 (153.1)	356.7 (136.5)	292.7 (169.4)	398.4 (166.2)	415.8 (175.1)	364.2 (152.8)	334.3 (128.4)	307.2 (174.8)	379.7 (161.8)
2021년 평균 (표준편차)	351.8 (165.7)	297.5 (132.0)	278.0 (173.4)	261.8 (98.0)	302.9 (166.1)	378.8 (156.1)	374.3 (203.2)	310.1 (155.2)	253.3 (119.0)	347.9 (163.4)	371.0 (159.5)	319.4 (155.5)	291.9 (151.3)	259.1 (113.4)	327.6 (159.4)
2018년 평균 (표준편차)	464.4 (167.6)	429.5 (139.4)	339.4 (110.5)	317.9 (31.6)	391.2 (147.1)	452.9 (168.6)	434.6 (152.0)	365.9 (142.3)	315.0 (122.3)	411.4 (162.2)	452.6 (163.9)	431.2 (137.1)	353.2 (130.9)	314.4 (117.8)	402.1 (154.6)
2015년 평균 (표준편차)	520.6 (277.8)	446.9 (182.8)	321.3 (141.1)	-	383.5 (210.1)	488.1 (225.4)	496.6 (163.6)	342.3 (144.6)	-	403.9 (196.3)	498.1 (237.3)	458.1 (184.0)	331.4 (138.0)	-	396.8 (199.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15). p. 117. 〈표 Ⅲ-2-28〉.

다) 가구규모별 지출수준

가구규모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가구규모가 클수록 가구 지출 평균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지출이 273만4천원으로, 2인 가구에서 월 299만원이하 지출이 59.0%로 높게 나타났다. 2인 가구의 가계지출 평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전연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가구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이던 영유아 가구 지출이 2021년 코로나 19 등으로 줄어들었다가 2024년 다시 증가하였으나, 전체 지출 평균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8〉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월평균 지출						
299만원 이하	59.0	24.8	16.4	9.8	23.0	21.9
300~349만원	13.4	24.0	22.2	19.3	6.3	22.6
350~399만원	8.9	10.4	8.4	13.5	14.5	10.1
400~499만원	7.6	19.3	23.3	25.6	24.2	20.8
500~599만원	7.0	10.4	16.7	11.0	5.0	12.1
600~699만원	4.2	4.3	5.8	6.5	5.0	4.9
700만원 이상	-	4.7	5.1	10.3	16.8	5.4
모름/무응답	-	2.1	2.1	3.9	5.2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	(1,324)	(840)	(232)	(41)	(2,494)
2024년 평균	273.4	365.6	400.6	426.7	432.9	379.7
(표준편차)	(129.8)	(160.6)	(154)	(173.3)	(198.0)	(161.8)
2021년 평균	154.0	295.3	351.6	353.5	402.9	327.6
(표준편차)	(84.6)	(117.6)	(180.3)	(160.2)	(220.5)	(159.4)
2018년 평균	236.7	391.9	411.9	415.9	398.7	402.1
(표준편차)	(125.4)	(149.9)	(156.8)	(155.7)	(147.0)	(154.6)
2015년 평균	187.7	383.6	394.0	435.3	403.2	396.8
(표준편차)	(112.1)	(182.8)	(172.4)	(287.7)	(188.9)	(199.6)
2012년 평균	145.8	276.7	308.9	335.2	377.1	303.7
(표준편차)	(68.6)	(128.3)	(137.3)	(164.7)	(199.7)	(144.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18. 〈표 Ⅲ-2-39〉.

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수준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전체 평균 111만6천원으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17.8%, 가구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다. 2024년 양육비는 2021년 대비 14만원이 증가하여 14.3%p 상승하였으며, 2018년 이후 양육비 지출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월 50~99만원 이하 양육비 지출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00~149만원 이하가 26.4%로 많았다. 이어서 0~49만원 이하 13.2%로²³⁾, 149만원 이하 양육비 지출이 전체 70.9%로 나타났다. 월 양육비 200만원 이상은 16.8%로 나타났다. 영아 가구 평균 양육비 109만1천원, 유아 가구 116만5천원으로, 유아 가구에서 양육비 지출이 좀 더 많았으며,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의 순으로

23) 양육비 49만원 이하에서는 0원 응답 16건(0.6%)이 포함되어 있음.

지출 규모가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29〉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양육비												
49만원 이하	14.9	14.9	8.5	14.0	14.2	11.3	9.3	12.2	14.9	13.1	8.8	13.2
50~99만원	24.6	33.3	39.1	30.7	26.1	31.3	39.4	30.2	26.1	33.3	40.0	31.3
100~149만원	29.4	24.6	28.3	27.0	25.3	26.6	26.6	26.1	27.0	25.4	27.5	26.4
150~199만원	9.5	10.0	13.4	10.3	11.3	11.9	7.3	11.0	9.9	10.8	10.1	10.3
200~249만원	12.6	8.5	7.6	10.0	10.5	9.2	9.3	9.8	11.2	8.7	8.2	9.7
250~299만원	1.5	0.8	1.1	1.1	3.0	1.0	2.8	2.1	2.2	1.0	1.5	1.6
300~399만원	4.7	2.9	1.4	3.4	6.2	4.0	0.6	4.5	5.4	3.3	1.1	3.9
400~499만원	1.5	0.3	0.6	0.8	1.3	0.8	1.2	1.1	1.4	0.5	0.9	0.9
500만원 이상	1.0	0.5	-	0.6	1.2	0.4	0.2	0.7	1.2	0.5	0.1	0.7
모름/무응답	0.3	4.0	-	2.0	0.8	3.4	3.3	2.3	0.6	3.5	1.8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024년 평균 (표준편차)	119.4 (91.6)	102.5 (73.3)	101.4 (62.8)	109.1 (80.3)	125.9 (94.1)	111.5 (78.6)	103.2 (73.5)	116.5 (85.2)	121.7 (93.6)	105.5 (74.0)	101.4 (68.1)	111.6 (82.3)
F	20.9**(a)				20.1*** (a)				38.6**(a)			
2021년 평균 (표준편차)	92.0 (71.9)	93.3 (68.3)	86.9 (53)	91.8 (67.7)	110.6 (88.9)	106.8 (72.0)	95.6 (64.3)	106.7 (78.8)	100.3 (82.0)	97.6 (68.6)	89.9 (59.7)	97.6 (73.4)
2018년 평균 (표준편차)	95.3 (72.7)	87.8 (58.9)	79.6 (54.2)	88.6 (64.1)	101.4 (70.5)	94.8 (64.2)	74.4 (55.0)	91.4 (65.3)	95.2 (70.3)	88.9 (60.9)	72.8 (53.7)	86.9 (63.7)

주: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19~120. 〈표 III-2-30〉.

*** $p < .001$.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취업 가구의 양육비가 평균 119만원3천원, 모 휴직 중 가구 121만2천원으로, 영유아 가구 전체 지출 평균(111만6천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모 미취업가구 양육비 97만2천원, 모 부재가구(n=21) 92만5천원으로,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모 휴직 중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는 모 취업(15.4%) < 모 휴직 중(18.9%) < 모 미취업(20.4%) < 모 부재(27.2%) 가구의 순으로 높아, 모 취업 가구의

양육비 지출 비중이 모 미취업과 모 부재 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공통적으로 모 미취업과 모 부재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준다.

〈표 Ⅲ-2-30〉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양육비															
49만원 이하	10.9	11.9	18.8	-	14.0	10.2	9.1	15.2	39.0	12.2	10.7	11.7	17.1	35.7	13.2
50~99만원	28.3	26.5	35.8	-	30.7	28.9	21.9	34.2	28.5	30.2	29.5	26.1	36.2	26.2	31.3
100~149만원	27.3	30.0	24.9	44.2	27.0	26.5	32.2	24.3	18.6	26.1	27.0	29.7	24.3	20.7	26.4
150~199만원	11.9	9.8	8.8	-	10.3	11.8	12.8	9.8	-	11.0	11.5	9.7	9.1	-	10.3
200~249만원	12.1	10.5	7.2	55.8	10.0	10.3	16.1	7.8	3.8	9.8	10.8	11.8	7.1	8.1	9.7
250~299만원	1.7	1.0	0.5	-	1.1	2.0	3.8	2.0	-	2.1	1.8	2.0	1.1	-	1.6
300~399만원	4.1	4.5	2.1	-	3.4	5.2	1.1	3.6	10.1	4.5	4.7	3.7	2.5	9.2	3.9
400~499만원	1.2	1.2	0.2	-	0.8	1.3	0.8	0.8	-	1.1	1.2	1.0	0.5	-	0.9
500만원 이상	0.4	1.6	0.4	-	0.6	1.1	0.5	0.2	-	0.7	0.8	1.4	0.3	-	0.7
모름/무응답	2.0	3.1	1.4	-	2.0	2.6	1.7	2.0	-	2.3	2.0	3.0	1.9	-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220)	(433)	(2)	(1,127)	(916)	(118)	(553)	(19)	(1,606)	(1,296)	(294)	(883)	(21)	(2,494)
2024년 평균	117.9	120.0	92.9	164.6	109.1	122.7	125.5	105.5	86.0	116.5	119.3	121.2	97.2	92.5	111.6
(표준편차)	(81.7)	(94.7)	(66.5)	(62.2)	(80.3)	(91.0)	(75.1)	(75.6)	(85.1)	(85.2)	(86.4)	(91.5)	(69.7)	(85.1)	(82.3)
2021년 평균	112.1	89.6	81.5	72.0	91.8	114.9	122.1	95.5	65.8	106.7	111.0	98.2	85.8	68.1	97.6
(표준편차)	(77.0)	(68.2)	(59.1)	(55.5)	(67.7)	(80.4)	(112.6)	(67.3)	(42.2)	(78.8)	(77.4)	(87.5)	(62.8)	(45.7)	(73.4)
2018년 평균	110.4	90.3	75.3	97.8	88.6	99.5	115.8	81.4	59.6	91.4	99.0	93.2	75.3	61.0	86.9
(표준편차)	(77.6)	(70.4)	(48.3)	(73.4)	(64.1)	(72.6)	(85.5)	(52.2)	(34.5)	(65.3)	(73.4)	(72.3)	(49.4)	(34.0)	63.7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20~121. 〈표 Ⅲ-2-31〉.

가구규모별 자녀양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 평균이 각 117만9천원, 116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인 혹은 3인 가구와 6인 이상 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약 107~11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가구규모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는 일관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차이도 아니었다.

〈표 III-2-31〉 가구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양육비						
49만원 이하	14.6	13.6	13.1	11.0	14.8	13.2
50~99만원	30.0	34.8	26.8	28.1	30.9	31.3
100~149만원	27.3	26.0	27.1	26.4	20.6	26.4
150~199만원	13.9	9.3	11.5	11.4	10.1	10.3
200~249만원	10.1	8.4	11.3	10.8	9.5	9.7
250~299만원	1.7	1.3	1.8	2.0	1.9	1.6
300~399만원	0.6	3.0	5.0	5.4	6.0	3.9
400~499만원	1.7	0.9	1.1	-	1.3	0.9
500만원 이상	-	1.0	0.4	0.4	-	0.7
모름/무응답	-	1.8	1.9	4.6	4.9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	(1,224)	(938)	(233)	(42)	(2,494)
2024년 평균	110.9	106.9	117.9	116.6	110.6	111.6
(표준편차)	(74.7)	(82.2)	(82.9)	(81.7)	(84.3)	(82.3)
2021년 평균	65.5	86.0	110.4	94.5	108.2	97.6
(표준편차)	(38.0)	(62.0)	(78.1)	(85.6)	(77.0)	(73.4)
2018년 평균	54.5	78.8	96.9	84.2	81.3	86.9
(표준편차)	(27.3)	(54.6)	(69.8)	(67.0)	(58.7)	(63.7)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21~122. 〈표 III-2-32〉.

4) 거주 주택 특성

가)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83.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9.9%, 단독주택 4.7%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2.8%p 증가하고,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는 2.6%p 감소하였다. 영유아 가구 간에 주택유형 분포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에는 아파트 거주가, 중소도시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읍·면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2〉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12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단독주택	3.4	3.1	7.3	3.8	4.8	5.7	9.9	5.9	4.1	4.1	8.7	4.7	6.6	19.1	14.3	21.3
아파트	86.6	83.8	80.2	84.4	85.5	83.1	76.4	83.2	86.1	83.6	78.7	83.9	81.2	62.6	63.7	66.1
연립/다세대주택	7.9	12.3	8.8	10.1	8.9	10.1	11.0	9.7	8.3	11.4	9.9	9.9	10.6	16.2	21.8	11.0
영업용 건물 내	1.0	0.1	2.9	0.8	0.7	0.5	2.6	0.8	0.9	0.3	2.3	0.8	0.9	1.3	0.3	1.5
기타	1.1	0.7	0.8	0.9	0.1	0.6	-	0.3	0.6	0.7	0.4	0.6	0.8	0.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500)	(2,533)	(2,593)	(2,528)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22. 〈표 Ⅲ-2-33〉.

나) 영유아 가구의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는 전체 응답 가구에서 자가 56.8%, 전세 26.6%, 전월세 10.4%로, 2021년 대비 영유아 가구의 자가 소유 비율이 약 2.9%p 감소하고 ‘기타’가 약 2.1%p 증가하는 등 2012~2021년 기간에 있었던 자가 비율의 완만한 증가세가 변화하였다. 자가 소유는 영아 가구(52.0%)에 비해 유아 가구(60.2%)에서, 전세는 유아 가구(22.7%)에 비해 영아 가구(31.8%)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3〉 영유아 가구의 주택소유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1년	'18년	'15년	'12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거주주택 형태																
자가	51.7	50.6	57.9	52.0	61.4	59.2	60.0	60.2	56.6	56.1	59.7	56.8	59.7	59.5	55.0	49.2
전세	35.8	33.7	13.7	31.8	23.2	24.7	14.2	22.7	29.1	28.3	13.9	26.6	26.2	24.2	32.5	30.6
전월세	8.1	11.9	8.2	9.9	11.6	10.3	9.2	10.7	10.2	11.0	8.6	10.4	9.9	9.5	9.9	13.6
사글세	1.0	0.5	1.3	0.8	1.1	0.8	0.3	0.8	1.0	0.6	0.7	0.8	1.0	1.9	1.1	0.8
기타	3.5	3.2	19.0	5.5	2.7	5.0	16.5	5.6	3.1	3.9	17.2	5.4	3.3	4.8	1.5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2)	(473)	(182)	(1,127)	(700)	(680)	(226)	(1,606)	(1,051)	(1,060)	(383)	(2,494)	(2,500)	(2,533)	(2,593)	(2,528)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23. 〈표 Ⅲ-2-34〉.

3.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영유아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 평균 3.5명, 자녀 수 평균 1.5명으로, 자녀 수 1명 가구 57.5%, 부부+자녀 가구 90.8%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으로 인한 가구규모의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가구원 수 2명은 2.4%로 이전의 1.2~1.3%에 비해 증가하여 한부모가정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조부모 동거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혈연 동거는 2024년 조사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 가구의 핵가족 중심 소규모화 등 변화된 가구특성과 돌봄제공의 혈연·비혈연 관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 평균 연령은 각 38.8세, 36.3세로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학력은 4년제대졸이 부 55.5%, 모 53.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부 9.6%, 모 8.9%로 2021년 대비 상승하고 고졸 이하는 감소하여, 영유아 부모의 고학력 추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주민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이주민 4.3%, 아버지가 이주민 1.3%로 2021년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유아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의 변동이 실제 영유아 가구의 양육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2024년 부모 취업률(휴직포함)이 부 97.0%, 모 64.2%로 2021년(부 95.2%, 모 54.1%)과 비교하여 부모 모두 상승하였다(휴직제외 취업률 부 94.5%, 모 51.1%). 휴직을 포함한 모의 취업률이 2021년 대비 13.1%p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모두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각 75.8%, 67.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취업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부의 경우 주당 44시간 38분(평일 10시간 10분), 모는 주당 37시간 10분(평일 8시간 37분)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영유아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가 부 69.5%, 모 60%로 가장 많았으나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 휴무 응답(부 7.8%, 모 8.9%)이 적지 않으며, '2주에 1일 휴무'와 '모름' 응답까지 고려하면 1주일 기준 정기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비율은 부 10.2%, 모 11.4%로 나타났다. 일하는 부모의 정기 휴일 사용에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비정형 근로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주중 평일 및 주말/휴일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맞춤형의 형태로 다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부

모의 자녀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시간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전체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은 모 34.5%, 부 3.6%, 부모 모두 6.1%로, 아버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보다 부모가 함께 사용한 비율이 좀 더 높게 응답되었다.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모, 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취업 부모 중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부 38.2%, 모 45.3%로 나타나, 과반의 취업 부모가 유연근무제 사용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부모 중 실제 사용은 부 35.6%, 모 41.1%로, 60% 내외의 부모가 제도적 기반하에서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 부모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육아시간지원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잘 모른다는 비율이 시간지원 제도별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에 비해 모의 활용가능성과 인지도가 일관되게 높아 부와 모 간 격차를 보였다. 단, 개별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경험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전체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 가능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지원에 대한 제도별 인지도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과 제반 실행력의 제고, 격차 해소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 준다.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은 2024년 조사 결과 모 평균 약 12개월, 부 평균 7개월로 차이를 보였다. 2021년 조사결과 모 17.8개월, 부 9.5개월에 비해 줄어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증가 속에서 영유아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시간지원 등의 지원 제도의 다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은 1.5%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625만4천원으로 2024년 가계동향조사 2/4, 3/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평균소득(496만1천원, 525만5천원)과 비교하여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소득이 2012년 조사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이전연도에 비해 크고, 가구 간 소득 편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소득 증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서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2024년 조사에서 모 취업률의 상승 등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소득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부 448만9천원, 모 266만6천원으로 차이를 보인 가운데, 부모의 근로소득이 이전연도에 비해 2021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감소한 모의 근로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저출생 시대 결혼과 출산으로의 진입과 자녀 양육비용 사이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전체 월평균 가구 지출은 379만7천원으로 가구소득 625만4천원 대비 약 60.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영유아 가구 지출이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에 2021년 대비 약 15.9%p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과 2018년의 영유아 가구 지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지출은 전체 평균 111만6천원으로, 2024년 가구소득 대비 17.8%, 가구지출 대비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양육비 지출은 2021년 대비 평균 14만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양육비 지출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취업모와 모 휴직 중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는 모 취업가구(15.4%) < 모 휴직 중(18.9%) < 모 미취업(20.4%) < 모 부재(27.2%) 가구의 순으로 높아, 모 취업 가구에서 자녀양육비 지출 비중이 모 미취업 및 모 부재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수준은 상승한 데 반해 양육비용은 그보다는 낮은 상승폭을 보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육비용 지원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좀 더 면밀히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일곱째,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83.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9.9%, 단독주택 4.7%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여 아파트 거주 비율이 2.8%p 증가하고,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는 2.6%p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영유아 가구가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육아 인프라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의 이주가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육아인프라의 확충이 결국은 영유아 가구의 정주를 유인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일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택 소유 여부는 자가 56.8%, 전세 26.6%, 전월세 10.4%로, 2021년 대비 자가 비율이 약 2.9%p 감소하고 '기타'가 2.1%p 증가하는 등 2012~2021년 기간에 있었던 자가 비율의 완만한 증가세가 2024년에는 주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주택구매의 어려움 등이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형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지점이다.

IV. 영유아 양육 특성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양육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은 하루 중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2절은 부모의 양육 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3절에서는 장애 영유아 보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절은 영유아 가구의 추가 출산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가.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가 돌본다 37.3%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총 4.4%로 외조부모 2.9%, 친조부모 1.5%로 나타났으며, 부의 돌봄 2.1%, 그 외에 육아전문인력(공공아이돌보미) 돌봄이 0.2%였다. 2021년과 비교하여 기관이용과 부의 돌봄이 증가하고 모와 조부모 돌봄, 공공아이돌보미 이용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연소자녀 영아 가구의 경우 모가 돌보는 비율이 46.1%로 높았으며, 유아 가구는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64.7%로 큰 수치로 나타났다. 2021년의 영아 모 돌봄(52.6%), 유아 모 돌봄(32.1%), 영아 기관다님(39.0%), 유아 기관다님(60.9%)과 비교하여(김은설 외, 2021: 130) 2024년에 모 돌봄은 감소하고, 기관 이용은 증가한 현상이 영유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0세의 경우 69.2%가 모가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아기의 경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모가 돌보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낮 시간에 모가 돌본다는 응답이 30% 미만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기관이용의 경우 0세 19.7%로 이전연도(2021년 12.3%)에 비해 증가된 기관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1세 58.0%, 2~5세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의 돌봄은 0세 자녀 4.1% 외에 1~5세에서도 1~2% 내외로 나타나 2021년 1% 미만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된 경향을 보여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 취업과 모 부재 등 가구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67.5%, 56.2%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미취업 모의 경우 기관이용이 45.3%, 휴직 중 모의 경우 30.6%로 나타났다. 모 부재 등에서 조부모 13.3%, 기타 친인척 돌봄이 1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 기타 친인척과 민간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이용을 합하여 0.9%로 나타났다. 모 휴직 중 가구의 모 돌봄이 65.7%로 높은 가운데, 아이돌보미 이용도 0.9%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7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에서 기관이용률이 높고 모 돌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가구소득 600~699만원과 700만원 이상에서 외조부모의 돌봄이 5% 내외로 좀 더 많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 부의 돌봄이 5.3%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부모의 돌봄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IV-1-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 척	이웃, 지인, 민간 육아도 우미 등	공공 아이 돌보미	기관에 맡김	없음	계 (수)	$\chi^2(df)$
전체	2.1	37.3	0.2	1.5	2.9	0.2	0.3	0.2	55.2	0.1	100.0(3,007)	
영유아구분												
영아	2.5	46.1	0.3	1.3	3.3	0.1	0.3	0.4	45.5	0.2	100.0(1,581)	125.9
유아	1.6	28.7	0.1	1.6	2.6	0.3	0.2	0.1	64.7	0.0	100.0(1,426)	(9)***
보육연령												
0세	4.1	69.2	0.2	1.7	3.3	0.2	0.3	0.8	19.7	0.4	100.0(664)	
1세	2.3	34.2	0.4	1.2	3.4	0.0	0.3	0.3	58.0	0.0	100.0(449)	
2세	0.7	27.0	0.3	0.8	3.2	0.2	0.4	0.0	67.4	0.0	100.0(468)	442.2
3세	1.3	28.5	0.0	1.3	2.9	0.1	0.3	0.1	65.3	0.0	100.0(494)	(45)***
4세	2.4	29.1	0.0	2.6	1.3	0.6	0.4	0.0	63.7	0.0	100.0(464)	
5세	1.3	28.6	0.3	1.0	3.5	0.2	0.0	0.1	65.0	0.0	100.0(468)	
지역규모												
대도시	2.4	38.2	0.4	1.9	4.7	0.2	0.4	0.5	51.2	0.2	100.0(1,291)	54.3
중소도시	1.9	37.8	0.0	1.3	2.0	0.3	0.3	-	56.4	-	100.0(1,264)	(18)***
읍·면	1.8	33.1	0.1	0.8	1.3	-	-	0.3	62.6	-	100.0(452)	
모 취업 여부												
취업	3.1	20.5	0.3	2.4	5.4	0.3	0.5	0.1	67.5	-	100.0(1,526)	
휴직 중	1.6	65.7	0.1	0.6	-	-	-	0.9	30.6	0.5	100.0(373)	686.1
미취업	0.8	53.0	-	0.2	0.5	-	-	0.2	45.3	0.1	100.0(1,087)	(27)***
부재 등	-	15.7	2.8	13.3	-	12.0	-	-	56.2	-	100.0(21)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 척	이웃, 지인, 민간 육아도 우미 등	공공 아이 돌보미	기관에 맡김	없음	계 (수)	$\chi^2(df)$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3	38.9	-	1.9	0.7	-	-	-	53.2	-	100.0	(158)
300~349만원	2.2	46.2	-	-	-	1.7	-	-	49.9	-	100.0	(193)
350~399만원	2.3	44.0	-	-	1.6	-	-	0.9	51.2	-	100.0	(202)
400~499만원	2.1	46.8	-	0.8	0.6	-	-	0.1	49.5	0.2	100.0	(531)
500~599만원	1.1	39.9	0.1	1.6	2.5	-	0.3	-	54.4	-	100.0	(587)
600~699만원	2.0	35.6	0.4	1.6	5.2	-	0.4	-	54.9	-	100.0	(430)
700만원 이상	2.1	27.4	0.4	2.3	4.9	0.4	0.5	0.6	61.1	0.2	100.0	(860)
모름/무응답	3.0	40.8	-	-	-	-	-	-	56.1	-	100.0	(46)
2021년	0.9	41.4	0.3	1.6	3.4	0.1	0.6	0.6	51.0	0.1	100.0	(3,471)
2018년	0.7	41.6	0.1	2.2	3.3	0.1	0.3	1.7	50.0	-	100.0	(3,775)
2015년	0.6	41.3	0.3	2.9	3.1	-	0.4	1.6	49.0	0.7	100.0	(3,560)
2012년	0.1	37.5	0.1	1.9	3.5	0.1	0.5	0.1	56.0	0.1	100.0	(3,343)
2009년	1.9	60.0	0.6	8.1	4.8	0.2	0.9	-	11.8	4.8	100.0	(7,4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1년까지 '이웃, 지인/민간육아도우미' 등은 '비혈연'으로 표기하였으며, '공공아이돌보미'는 '육아전문인력'으로 표기함.

2024년 조사표에 맞추어 문구 수정.

3) 모 취업 여부에 '모름'도 포함되어 부재 등에도 모 돌봄 수치가 산출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30~131. <표 IV-1-1>.

*** $p < .001$.

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

1) 평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평균 7.1시간으로 2021년 평균 7.9시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4~6시간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7~9시간 23.5%, 10시간 이상 19.0%, 3시간 미만 6.7%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여 4~6시간 동안 함께 지냄이 14.9%p 증가하고, 7~9시간 8.2%p 감소, 10시간 이상 7.4%p 감소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2021년 대비 상당히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4년 조사에서 취업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 보육연령이 0세인 경우 하루 9.7시간 어머니와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시간 이상 어머니와 보내는 비율은 26.7%로 나타났다. 그 외 1~5세에

서는 하루 평균 6~7시간가량 어머니와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교하여 모 휴직 중과 미취업모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2〉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6.7	50.7	23.5	8.7	10.3	100.0(3,001)	7.1(3.6)
영유아구분								
영아	0.2	6.5	42.8	21.3	14.1	15.1	100.0(1,581)	7.9(4.0)
유아	0.1	7.0	58.5	25.6	3.3	5.6	100.0(1,420)	6.4(2.9)
$\chi^2(df)/t$	210.2(5)**							11.8**
보육연령								
0세	0.4	4.5	26.1	15.2	27.1	26.7	100.0(664)	9.7(4.3)
1세	-	8.5	51.6	27.3	3.8	8.7	100.0(449)	6.7(3.2)
2세	0.1	7.1	56.4	23.3	7.3	5.9	100.0(468)	6.5(3.1)
3세	0.3	6.1	60.1	22.4	4.1	7.1	100.0(493)	6.5(3.2)
4세	-	6.8	59.2	25.9	2.3	5.8	100.0(462)	6.4(2.9)
5세	-	7.9	56.4	28.2	3.4	4.1	100.0(465)	6.2(2.7)
$\chi^2(df)/F$	632.1(25)**							96*** (a)
지역규모								
대도시	0.3	7.0	49.1	23.5	9.6	10.5	100.0(1,290)	7.1(3.6)
중소도시	0.0	7.0	51.0	23.5	8.2	10.3	100.0(1,261)	7.1(3.6)
읍·면	-	5.1	54.3	23.1	7.6	10.0	100.0(450)	7.1(3.4)
$\chi^2(df)/F$	10.6(10)							0.1
모 취업 여부								
취업	0.2	11.8	63.2	16.8	3.0	5.0	100.0(1,526)	5.8(3.0)
휴직 중	-	1.1	28.9	27.2	20.7	22.0	100.0(373)	9.4(3.9)
미취업	-	1.3	39.2	32.1	13.1	14.3	100.0(1,087)	8.2(3.5)
부재 등	6.6	-	74.2	15.5	-	3.7	100.0(15)	6.2(2.9)
$\chi^2(df)/F$	601.7(15)**							173.6*** (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0.8	2.2	48.1	22.9	9.9	16.2	100.0(157)	7.9(3.9)
300~349만원	-	5.1	43.5	25.4	13.0	13.0	100.0(191)	7.8(3.7)
350~399만원	-	0.7	39.7	33.1	15.7	10.8	100.0(202)	8.1(3.2)
400~499만원	-	3.6	46.1	26.4	11.7	12.1	100.0(528)	7.7(3.4)
500~599만원	-	6.6	49.3	27.0	7.9	9.2	100.0(587)	7.0(3.5)
600~699만원	0.5	6.6	53.7	26.6	5.6	6.9	100.0(430)	6.7(3.1)
700만원 이상	0.0	11.3	57.1	16.5	6.5	8.6	100.0(860)	6.4(3.5)
모름/무응답	-	-	45.5	14.7	8.8	31.0	100.0(46)	8.9(4.6)
$\chi^2(df)/F$	192.2(35)**							14*** (a)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2021년	0.1	6.0	35.8	31.7	13.3	13.1	100.0(3,450)	7.9(3.5)
2018년	0.6	5.3	32.9	28.4	14.9	18.0	100.0(3,738)	8.4(3.85)
2015년	0.5	5.7	30.1	26.6	16.8	20.3	100.0(3,528)	8.7(4.2)
2012년	1.1	11.6	37.9	26.2	12.5	10.7	100.0(3,343)	7.1(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모가 부재한 케이스 6건은 제외함. 모 취업 여부 '모름'인 케이스 15건은 포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42~143. <표 IV-1-11>.

*** $p < .001$.

평일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전체 평균 3.7시간으로 2021년 평균 4.0시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시간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4~6시간 37.5%, 7시간 이상 7.8%로 나타났다. 2021년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0.8%에서 2024년 3.7%로 증가하였다. 모와 마찬가지로 부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유아보다 영아 자녀, 특히 0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모 부재와 모 취업 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긴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1-3>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	50.9	37.5	4.3	1.8	1.7	100.0(2,988)	3.7(2.4)
영유아구분								
영아	3.6	51.2	35.8	4.7	2.8	1.9	100.0(1,572)	3.9(2.6)
유아	3.8	50.6	39.2	3.9	0.8	1.6	100.0(1,416)	3.6(2.2)
$\chi^2(df)/t$	21.0(5)***							2.6*
보육연령								
0세	3.7	49.4	35.2	4.6	4.3	2.8	100.0(660)	4.0(2.9)
1세	3.6	53.4	34.6	5.4	1.9	1.2	100.0(448)	3.8(2.3)
2세	3.3	51.5	37.9	4.3	1.7	1.3	100.0(464)	3.7(2.3)
3세	2.6	52.4	37.4	4.4	1.0	2.1	100.0(489)	3.7(2.5)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4세	4.4	46.0	43.4	3.6	0.4	2.3	100.0(463)	3.7(2.3)
5세	4.5	53.3	36.9	3.7	1.0	0.6	100.0(464)	3.5(1.9)
$\chi^2(df)/F$	55.0(25)***							3.2** (a)
지역규모								
대도시	4.1	51.1	36.5	4.4	2.2	1.8	100.0(1,282)	3.7(2.5)
중소도시	3.5	50.4	38.8	4.6	1.3	1.3	100.0(1,254)	3.7(2.3)
읍·면	3.3	52.3	36.3	3.0	2.1	3.0	100.0(452)	3.9(2.7)
$\chi^2(df)/F$	13.9(10)							0.6
모 취업 여부								
취업	3.6	45.7	42.1	4.8	1.7	2.0	100.0(1,518)	3.9(2.5)
휴직 중	2.5	56.5	33.8	3.8	2.2	1.2	100.0(373)	3.7(2.3)
미취업	4.3	56.9	31.8	3.6	1.8	1.5	100.0(1,076)	3.5(2.3)
부재 등	3.5	39.5	46.1	10.9	-	-	100.0(21)	4.1(2.0)
$\chi^2(df)/F$	49.3(15)***							6.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4	55.8	25.3	7.9	3.9	4.6	100.0(143)	4.4(3.3)
300~349만원	2.8	58.4	32.1	4.9	1.5	0.3	100.0(190)	3.5(2.0)
350~399만원	2.3	47.0	42.7	3.8	2.8	1.5	100.0(202)	3.9(2.4)
400~499만원	2.6	53.8	37.3	3.6	1.3	1.4	100.0(531)	3.7(2.2)
500~599만원	3.7	56.0	33.6	4.3	1.7	0.6	100.0(586)	3.5(2.2)
600~699만원	3.7	45.2	43.8	3.7	1.5	2.1	100.0(430)	3.8(2.4)
700만원 이상	5.0	46.3	40.6	4.5	1.5	2.1	100.0(860)	3.8(2.5)
모름/무응답	3.4	63.1	18.6	3.5	5.9	5.7	100.0(46)	4.2(3.4)
$\chi^2(df)/F$	84.2(35)***							3.2** (a)
2021년	0.8	49.3	39.7	5.6	2.5	2.0	100.0(3,370)	4.0(2.6)
2018년	5.6	54.3	29.4	5.8	3.1	1.9	100.0(3,689)	3.6(2.76)
2015년	11.0	59.1	22.5	2.6	3.4	1.3	100.0(3,475)	3.0(2.7)
2012년	15.3	67.5	12.9	1.0	0.6	2.7	100.0(3,343)	2.0(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가 부재한 케이스 19건은 제외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43~144. <표 IV-1-12>.

** $p < .01$, *** $p < .001$.

2) 주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모 평균 12.7시간, 부 평균 10.9시간으로, 2021년 모 13.2시간, 부 11.6시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기간에 늘어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다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8.9시간)과 비교해서는 증가하였다.

자녀가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12.7시간으로, 13시간 이상 어머니와 보낸다는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0~12시간 33.1%, 9시간 이하(없음 포함)가 11.9%로 적은 시간을 함께 하는 비율이 일정 비중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자녀연령과 지역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주말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육연령 0세 자녀의 경우, 주말에 모와 13시간 이상 함께 한다는 응답이 1~5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10~12시간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주말에 모와 보내는 시간이 모 휴직 중(13.0시간) > 미취업모(12.7시간) > 취업모(12.5시간) > 모 부재 등(12.0시간)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299만원 이하와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모와 13시간 이상 함께 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표 IV-1-4〉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0.5	4.8	6.4	33.1	55.0	100.0(3,001)	12.7(3.0)
영유아구분								
영아	-	0.3	5.1	6.3	37.5	50.8	100.0(1,581)	12.6(3.0)
유아	0.3	0.7	4.5	6.5	28.8	59.2	100.0(1,420)	12.7(3.1)
$\chi^2(df)/t$	33.4(5)**							-1.5
보육연령								
0세	-	0.3	3.0	7.2	43.6	45.9	100.0(664)	12.5(2.9)
1세	-	0.6	7.1	4.1	31.5	56.7	100.0(449)	12.6(3.0)
2세	-	-	5.9	7.4	35.3	51.3	100.0(468)	12.6(3.1)
3세	0.6	0.2	5.0	4.9	30.8	58.5	100.0(493)	12.7(3.1)
4세	0.4	0.4	4.5	6.5	25.4	62.9	100.0(462)	12.9(3.1)
5세	-	1.3	4.0	7.9	30.3	56.5	100.0(465)	12.6(3.1)
$\chi^2(df)/F$	89.6(25)**							1.3
지역규모								
대도시	0.2	0.7	5.3	6.8	32.6	54.4	100.0(1,290)	12.6(3.1)
중소도시	-	0.4	4.1	5.6	33.8	56.1	100.0(1,261)	12.8(2.9)
읍·면	0.4	0.4	5.6	7.8	32.2	53.5	100.0(450)	12.5(3.3)
$\chi^2(df)/F$	13.3(10)							2.2(a)
모 취업 여부								
취업	0.2	0.5	5.7	7.2	32.0	54.3	100.0(1,526)	12.5(3.2)
휴직 중	-	-	3.1	6.9	31.8	58.2	100.0(373)	13.0(2.9)
미취업	-	0.7	3.9	5.1	35.4	54.9	100.0(1,087)	12.7(2.9)
부재 등	6.6	-	9.9	-	15.5	68.0	100.0(15)	12.0(4.3)
$\chi^2(df)/F$	55.7(15)**							2.8(a)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0.8	-	6.4	6.9	28.2	57.7	100.0(157)	12.7(3.4)
300~349만원	-	0.3	1.8	10.7	40.8	46.4	100.0(191)	12.4(3.0)
350~399만원	-	-	4.5	3.0	38.9	53.6	100.0(202)	12.6(2.6)
400~499만원	-	0.5	3.3	7.2	36.2	52.8	100.0(528)	12.5(2.8)
500~599만원	-	0.0	5.6	6.2	33.0	55.1	100.0(587)	12.7(3.0)
600~699만원	-	1.1	6.0	7.0	32.0	53.8	100.0(430)	12.4(3.1)
700만원 이상	0.4	0.7	4.7	5.9	30.7	57.6	100.0(860)	12.8(3.2)
모름/무응답	-	-	7.0	0.9	25.7	66.4	100.0(46)	13.4(2.9)
$\chi^2(df)/F$	58.8(35)**							1.9(a)
2021년	-	1.1	2.2	3.4	25.5	67.8	100.0(3,450)	13.2(2.6)
2018년	0.2	1.0	4.8	6.1	33.3	54.6	100.0(3,738)	12.6(3.12)
2015년	0.2	1.5	7.9	6.9	28.3	55.2	100.0(3,528)	12.5(3.6)
2012년	0.8	1.1	3.2	6.9	38.4	49.6	100.0(3,343)	12.1(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모가 부재한 케이스 6건은 제외함. 모 취업 여부 '모름'인 케이스 15건은 포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45~146. <표 IV-1-13>.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10.9시간으로, 2021년(11.6시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2~2018년(8.9~9.3시간)과 비교하여 증가한 시간을 보여주었다. 13시간 이상 주말에 부와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0~12시간 29.5%, 9시간 이하(없음 포함)가 29.3%로 나타나 적은 시간을 함께 하는 비율이 모(11.9%)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였다. 부의 경우 자녀연령과 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주말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보육연령 3, 4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다른 연령에 비해 좀 더 많았으며, 모 취업과 휴직 중인 경우가 모 미취업 혹은 부재 등인 경우에 비해 주말에 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1.3	4.9	13.0	10.1	29.5	41.2	100.0(2,988)	10.9(4.2)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영유아구분								
영아	1.5	4.3	13.0	10.3	32.8	38.0	100.0(1,572)	10.8(4.1)
유아	1.1	5.5	12.9	9.9	26.2	44.3	100.0(1,416)	11.0(4.3)
$\chi^2(df)/t$	21.7(5)**							-1.0
보육연령								
0세	0.6	3.7	15.3	10.4	37.5	32.5	100.0(660)	10.6(3.9)
1세	2.9	4.6	12.5	10.1	26.0	44.0	100.0(448)	10.9(4.4)
2세	1.3	4.8	10.5	10.5	33.7	39.2	100.0(464)	11.0(4.2)
3세	0.8	4.5	12.8	8.6	26.0	47.2	100.0(489)	11.3(4.2)
4세	0.1	5.0	13.0	10.8	26.2	44.9	100.0(463)	11.2(4.2)
5세	2.2	7.0	13.0	10.4	26.3	41.1	100.0(464)	10.5(4.4)
$\chi^2(df)/F$	71.1(25)**							2.9(a)
지역규모								
대도시	1.1	4.8	12.9	10.0	30.3	41.1	100.0(1,282)	11.0(4.2)
중소도시	1.5	5.1	12.9	10.3	28.2	41.9	100.0(1,254)	10.9(4.2)
읍·면	1.2	4.7	13.7	10.1	31.3	39.0	100.0(452)	10.7(4.2)
$\chi^2(df)/F$	3.3(10)							0.7
모 취업 여부								
취업	1.0	4.6	11.8	9.7	29.1	43.7	100.0(1,518)	11.1(4.1)
휴직 중	-	2.8	12.0	7.7	29.7	47.8	100.0(373)	11.7(3.9)
미취업	2.1	6.2	15.0	11.3	29.3	36.1	100.0(1,076)	10.3(4.4)
부재 등	-	-	13.3	22.2	54.5	10.1	100.0(21)	9.9(2.5)
$\chi^2(df)/F$	55.9(15)**							12.5** (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4	10.7	14.3	9.5	21.8	41.3	100.0(143)	10.1(4.7)
300~349만원	0.8	9.1	13.0	13.8	32.2	31.2	100.0(190)	10.1(4.3)
350~399만원	1.4	4.3	17.0	7.6	33.7	35.9	100.0(202)	10.5(4.2)
400~499만원	1.5	2.9	17.2	11.6	31.0	35.8	100.0(531)	10.5(4.0)
500~599만원	1.7	5.7	13.9	10.9	27.0	40.8	100.0(586)	10.7(4.3)
600~699만원	0.8	2.7	13.3	10.8	30.2	42.2	100.0(430)	11.1(3.9)
700만원 이상	0.7	4.9	9.7	8.7	30.3	45.7	100.0(860)	11.5(4.2)
모름/무응답	6.2	6.5	1.4	4.3	21.7	59.9	100.0(46)	11.8(4.7)
$\chi^2(df)/F$	104.2(35)**							6.4** (a)
2021년	0.2	6.6	9.0	6.7	25.0	52.5	100.0(3,370)	11.6(4.0)
2018년	1.2	15.9	20.0	9.8	26.2	26.8	100.0(3,689)	8.9(4.7)
2015년	1.6	17.1	21.4	9.9	23.2	26.8	100.0(3,475)	8.8(5.0)
2012년	2.7	11.4	13.1	13.6	28.9	30.3	100.0(3,343)	9.3(4.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가 부재한 케이스 19건은 제외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46~147. <표 IV-1-14>.

* $p < .05$, ** $p < .001$.

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가. 부모의 양육 정서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V-2-1>과 <표 IV-2-2>에 제시하였다.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에 대해 5점 기준 평균 3.1점으로 2021년 3.3점에 비해 혼란스러움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이 2021년 52.1%에서 2024년 46.0%로 감소하였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에 대해서는 5점 기준 평균 2.4점으로 2021년과 동일한 가운데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이 18.6%에서 19.5%로 다소 증가하였다.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에 대해서는 5점 기준 평균 3.0점으로 2021년 3.2점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이 44.8%에서 41.0%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해당하던 2021년과 비교하여 부모가 체감하는 부정적 양육정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 돌봄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1> 영유아 부모별 부정적 양육 정서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24	'21	'18	'24	'21	'18	'24	'21	'18	'24	'21	'18	'24	'21	'18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움	10.5	13.5	10.2	35.5	38.6	43.9	23.8	25.3	21.4	18.4	14.0	17.4	11.9	8.6	7.1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움	2.7	2.4	3.3	16.8	16.2	31.1	25.0	27.9	25.1	31.4	30.7	26.9	24.2	22.8	13.6
자기계발 포기할 때 많음	11.8	13.8	10.8	29.2	31.0	39.3	21.5	24.0	20.7	21.6	19.6	20.8	15.9	11.7	8.4

주: 설문지에는 부/모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 분석은 부/모를 합쳐서 산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48. <표 IV-2-1>.

하위특성별로는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휴직 중인 어머니 그룹에서 혼란스러움과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을 포기하였다는 부정적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돌봄 시간을 지원받는 휴직 기간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녀양육 과정의 혼란스러움과 귀찮음, 자기계발 포기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부모가 약 20~40%로 일정 비율이 있음에 정책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자녀 연령과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는 아동의 연령보다는 돌봄시간과 좀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IV-2-2〉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양육 방법 선택에서의 혼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 있음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포기	(수)
전체	3.1	2.4	3.0	(2,49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2	2.4	3.0	(1,519)
유아	3.1	2.4	3.0	(971)
<i>t</i>	0.6	0.9	-0.5	
지역규모				
대도시	3.1	2.4	3.0	(1,050)
중소도시	3.1	2.4	3.0	(1,058)
읍·면	3.1	2.4	2.9	(382)
<i>F</i>	0.3	0.9(a)	1.2	
모 취업 여부				
취업	3.1	2.4	3.1	(1,295)
휴직 중	3.3	2.5	3.2	(294)
미취업	3.1	2.4	2.8	(883)
부재 등	3.0	2.4	3.0	(18)
<i>F</i>	4.5**	0.5	9.7**	
2021년	3.3	2.4	3.2	(2,500)
2018년	3.3	2.8	3.2	(2,533)
2015년	3.0	2.5	3.0	(2,556)

주: 1) 설문지에는 부/모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 분석은 부/모를 합쳐서 산출함.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48~149. 〈표 IV-2-2〉.

** $p < .01$, *** $p < .001$.

나. 부모의 양육 특성

1) 부모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조사한 결과, 5점 평균 4.0점으로 2021년 3.8점에 비해 부의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대체로+적극 참여한다는 긍정응답이 2021년 60.6%에서 2024년 68.8%로 증가하였으며, 거의+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은 9.2%에서 6.0%로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부의 자녀돌봄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가구에서 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도가 더 높았으며, 모 취업과 휴직 중인 가구에서 모 미취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699만원과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와 300~349만원 이하 가구에서 부의 '적극' 참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부의 '대체로 참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써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에서 부의 자녀돌봄 참여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3〉 부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단위: %, (명), 점

구분	적극 참여	대체로 참여	보통 참여	거의 참여하지 않음	전혀 참여하지 않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34.0	34.8	25.2	5.5	0.5	100.0(2,404)	4.0(0.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6.6	35.1	23.9	4.3	0.1	100.0(1,488)	4.0(0.9)
유아	29.2	34.2	27.6	7.7	1.4	100.0(916)	3.8(1.0)
$\chi^2(df)/t$	42.6(4)***						5.3**
지역규모							
대도시	34.2	34.1	23.9	7.1	0.7	100.0(1,019)	3.9(1.0)
중소도시	35.2	34.9	25.3	4.2	0.3	100.0(1,012)	4.0(0.9)
읍·면	29.7	36.3	28.5	4.7	0.8	100.0(373)	3.9(0.9)
$\chi^2(df)/F$	14.1(8)						2.4(a)
모 취업 여부							
취업	40.0	32.8	22.2	4.6	0.4	100.0(1,251)	4.1(0.9)
휴직 중	33.8	33.0	28.1	4.9	0.2	100.0(291)	4.0(0.9)
미취업	25.4	38.4	28.4	6.9	0.9	100.0(861)	3.8(0.9)
부재 등	100.0	-	-	-	-	100.0(1)	5.0(-)
$\chi^2(df)/F$	56.2(12)***						15.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6.3	47.2	21.8	4.7	-	100.0(76)	4.0(0.8)
300~349만원	35.0	31.5	25.8	6.6	1.1	100.0(147)	3.9(1.0)
350~399만원	27.1	40.2	26.9	4.2	1.5	100.0(142)	3.9(0.9)
400~499만원	31.0	38.9	25.9	4.0	0.2	100.0(412)	4.0(0.9)
500~599만원	27.7	38.4	26.1	6.4	1.3	100.0(467)	3.8(0.9)
600~699만원	35.9	35.9	22.5	5.2	0.5	100.0(373)	4.0(0.9)
700만원 이상	39.7	29.2	25.6	5.4	0.1	100.0(748)	4.0(0.9)
모름/무응답	41.5	24.1	22.1	12.3	-	100.0(39)	3.9(1.1)
$\chi^2(df)/F$	56.4(28)**						2(a)

구분	적극 참여	대체로 참여	보통 참여	거의 참여하지 않음	전혀 참여하지 않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2021년	27.8	32.8	30.2	8.0	1.2	100.0(2,416)	3.8(1.0)
2018년	20.7	34.4	33.7	8.0	3.2	100.0(2,464)	3.6(1.00)
2015년	15.7	28.9	42.8	9.9	2.7	100.0(2,500)	3.5(0.96)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0. <표 IV-2-3>.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도는 5점 기준 평균 4.8점으로 아버지의 참여도 4.0점에 비해 높았으며, 2018년과 2021년 조사 결과 모의 참여도 4.7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대체로+적극 참여한다는 긍정응답이 2021년 95.3%에서 2024년 97.2%로 증가하였으며, 거의+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은 1.3%에서 0.2%로 감소하였다. 거의 모든 어머니가 자녀돌봄에 적극+대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전연도와 비교하여서도 모의 높은 자녀돌봄 참여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가정에서 어머니의 참여도가 좀 더 높았으며, 모 취업 가구에 비해 모 휴직 중과 미취업 가구에서 모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의 ‘적극 참여’ 응답률이 모 휴직 중과 미취업 가구에서 약 90%였다면, 모 취업 가구는 7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350~399만원 이하와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모의 ‘적극 참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모의 참여도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4> 모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5점 척도

단위: %, (명), 점

구분	적극 참여	대체로 참여	보통 참여	거의 참여하지 않음	전혀 참여하지 않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82.6	14.6	2.6	0.1	0.1	100.0(2,404)	4.8(0.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5.4	12.2	2.1	0.2	0.1	100.0(1,488)	4.8(0.5)
유아	77.2	19.1	3.6	0.1	-	100.0(916)	4.7(0.5)
$\chi^2(df)/t$	28.4(4)***						4.3***
지역규모							
대도시	81.1	15.8	2.9	0.1	0.2	100.0(1,019)	4.8(0.5)
중소도시	84.4	13.3	2.1	0.2	-	100.0(1,012)	4.8(0.4)
읍·면	81.4	15.0	3.4	0.2	-	100.0(373)	4.8(0.5)
$\chi^2(df)/F$	8.3(8)						2.7(a)

구분	적극 참여	대체로 참여	보통 참여	거의 참여하지 않음	전혀 참여하지 않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6.0	20.0	3.7	0.3	-	100.0(1,251)	4.7(0.5)
휴직 중	90.1	9.4	0.4	-	-	100.0(291)	4.9(0.3)
미취업	89.4	8.6	1.8	-	0.2	100.0(861)	4.9(0.4)
부재 등	100.0	-	-	-	-	100.0(1)	5.0(-)
$\chi^2(df)/F$	87.6(12)**						22.7**(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8.3	6.6	5.1	-	-	100.0(76)	4.8(0.5)
300~349만원	81.3	16.0	2.8	-	-	100.0(147)	4.8(0.5)
350~399만원	90.8	8.7	0.5	-	-	100.0(142)	4.9(0.3)
400~499만원	84.2	13.5	1.6	0.2	0.5	100.0(412)	4.8(0.5)
500~599만원	83.5	13.1	3.0	0.4	-	100.0(467)	4.8(0.5)
600~699만원	84.0	13.0	3.0	-	-	100.0(373)	4.8(0.5)
700만원 이상	79.2	18.3	2.4	0.1	-	100.0(748)	4.8(0.5)
모름/무응답	78.1	14.0	7.9	-	-	100.0(39)	4.7(0.6)
$\chi^2(df)/F$	42.2(28)						1.8(a)
2021년	78.6	16.7	3.4	0.9	0.4	100.0(2,416)	4.7(0.6)
2018년	76.2	17.8	5.2	0.6	0.2	100.0(2,501)	4.7(0.6)

주: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1. <표 IV-2-4> 참조

2) 2018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 151. <표 IV-2-4> 참조

* $p < .05$, *** $p < .001$.

부와 모 간에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양육’에 있어 10점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평균 7.0, 아버지가 3.0을 담당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가사분담’에서도 동일하게 어머니 7.0, 아버지 3.0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여 모의 자녀양육 분담은 7.1점에서 7.0점으로 0.1점 감소하였으며, 모의 가사분담은 7.2점에서 7.0점으로 0.2점 감소하였다. 반면에 부의 자녀양육 분담은 2.9점에서 3.0점으로 0.1점 증가하였으며, 부의 가사분담은 2.8점에서 3.0점으로 0.2점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모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률은 완만한 감소세를, 부의 분담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의 분담이 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 스스로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분담과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는 스스로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을 어머니 인식보다 크게 보고 있었다. 여성 응답자(모)의 부의 자녀양육 분담이 2.9점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응답자(부)의 부 자신의 자녀양육 분담은 3.4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 부의 가사 분담이 유아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최연소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모의 가사 분담이 영아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지역에서 모의 가사분담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모의 자녀양육 분담이 미취업모(7.5점) > 휴직 중(7.3점) > 취업모(6.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면, 부의 자녀양육 분담은 역으로 취업모(3.5점) > 휴직 중(2.7점) > 미취업모(2.5점)의 순으로 나타나, 취업모 가구에서 부의 자녀양육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사 분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에서 공통적으로 600~699만원과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부의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모의 분담률이 적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도 부의 분담률이 다소 높고 모의 분담률이 다소 적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다.

〈표 IV-2-5〉 부모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자녀양육				가사				계(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0	1.5	3.0	1.5	7.0	1.8	3.0	1.8	(2,402)
응답자 성별									
남자	6.6	1.5	3.4	1.5	6.4	1.8	3.6	1.8	(552)
여자	7.1	1.4	2.9	1.4	7.1	1.7	2.9	1.7	(1,828)
모름/무응답	7.0	1.6	3.0	1.6	6.8	1.6	3.2	1.6	(22)
<i>F</i>	23***		23.1***		34.2***		34.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9	1.5	3.1	1.5	6.9	1.8	3.1	1.8	(1,488)
유아	7.0	1.5	3.0	1.5	7.1	1.7	2.9	1.7	(914)
<i>t</i>	-0.6		0.6		-3.2**		3.2**		
지역규모									
대도시	6.9	1.5	3.1	1.5	6.9	1.8	3.1	1.8	(1,019)
중소도시	7.0	1.4	3.0	1.4	6.9	1.8	3.1	1.8	(1,010)
읍·면	7.0	1.7	3.0	1.7	7.2	1.8	2.8	1.8	(373)
<i>F</i>	1.9(a)		1.9(a)		2.8		2.8		
모 취업 여부									
취업	6.5	1.6	3.5	1.6	6.5	1.8	3.5	1.8	(1,251)
휴직 중	7.3	1.3	2.7	1.3	7.0	1.7	3.0	1.7	(291)
미취업	7.5	1.2	2.5	1.2	7.5	1.5	2.5	1.5	(859)
부재 등	7.0	-	3.0	-	7.0	-	3.0	-	(1)
<i>F</i>	80.3***(a)		80.1***(a)		55.1***(a)		55.1***(a)		

구분	자녀양육				가사				계(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7.0	1.5	3.0	1.5	7.0	1.9	3.0	1.9	(76)
300~349만원	7.2	1.5	2.8	1.5	7.2	1.9	2.8	1.9	(147)
350~399만원	7.3	1.4	2.7	1.4	7.3	1.6	2.7	1.6	(142)
400~499만원	7.1	1.4	2.9	1.4	7.1	1.7	2.9	1.7	(411)
500~599만원	7.2	1.4	2.8	1.4	7.2	1.8	2.8	1.8	(467)
600~699만원	6.9	1.3	3.1	1.3	6.9	1.6	3.1	1.6	(373)
700만원 이상	6.7	1.6	3.3	1.6	6.7	1.8	3.3	1.8	(747)
모름/무응답	6.7	1.5	3.3	1.5	6.8	1.7	3.2	1.7	(39)
<i>F</i>	8.5*** <i>(a)</i>		8.5*** <i>(a)</i>		4.7*** <i>(a)</i>		4.7*** <i>(a)</i>		
2021년	7.1	1.4	2.9	1.4	7.2	1.7	2.8	1.7	(2,416)
2018년	7.2	1.4	2.8	1.4	7.5	1.7	2.6	1.7	(2,430)

주: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52~153. <표 IV-2-5>.

3) 2018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 153. <표 IV-2-5>.

** $p < .01$, *** $p < .001$.

다.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

자녀 월령별로 선호하는 양육 형태를 조사한 결과, 12개월 미만에서는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7.7%로 높았으며, 12~24개월에서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응답이 53.6%, 어린이집 기관이용에 대한 선호 응답은 46.1%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결과에서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 12개월 이상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는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자녀 24~36개월 미만에서는 가정양육 11.1%, 어린이집 88.6%로 나타났으며, 36개월 이상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설기관에 대한 기관유형별 선호로 이어졌다. 36~48개월 미만에서는 어린이집을, 48개월 이상에서는 유치원을 각각 70%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60개월 이상에서는 사설기관에 대한 선호가 12.9%로 증가하였다. 2021년과 비교하여 60개월 이상 취학전 자녀에 대해 사설기관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1%에서 12.9%로 증가하였다(김은설 외, 2021: 154).

〈표 IV-2-6〉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단위: %,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가정양육	97.7	53.6	11.1	2.0	0.5	0.5
어린이집	2.2	46.1	88.6	72.2	24.0	8.2
유치원	-	-	-	24.2	70.6	74.3
사설기관	-	-	0.1	1.0	3.8	12.9
잘 모르겠음	0.1	0.3	0.1	0.6	1.1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494)	(2,494)	(2,494)	(2,494)	(2,494)	(2,494)
2021년(가정양육)	97.8	71.4	27.0	6.8	1.8	0.3
2018년(가정양육)	98.6	85.9	43.9	11.9	2.8	1.4

주: 2018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연령을 1세 미만, 1~2세 미만, 2~3세 미만, 3~4세 미만, 4~5세 미만, 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4. 〈표 IV-2-6〉.

하위특성별로 살펴보면, 부(남성 응답자)의 가정양육 선호 응답이 모(여성 응답자)에 비해, 그리고 현재 유아 자녀의 부모가 영아 자녀 부모에 비해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아동 월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과 사설기관을 선호하는 응답이 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읍·면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 취업 가구의 경우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모 취업과 휴직 중 가구에서는 자녀 월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과 사설기관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취업 모 가구에서는 60개월 미만까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단, 60개월 이상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유치원 이용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자녀 월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12개월 미만에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대다수인 가운데, 가구소득 349만원 이하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많았으며, 12~24개월 미만에서는 299만원 이하와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4~36개월 미만에서는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많았으며, 36개월 이상에서는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유치원 및 사설학원에 대한 선호가 많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48개월 이상 월령에서 299만원 이하 가구의 사설학원 선호 응답이 많은 경향도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가 선호하는 양육형태 및 기관유형이 자녀의 월령과 지역의 특성, 모 취업 및 가구소득에 따른 복합적인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V-2-7〉 아동연령별 선호하는 양육형태

구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합계 (수)
	가정 양육	어린이 집	원	차 등	가정 양육	어린이 집	원	차 등	가정 양육	어린이 집	원	차 등	가정 양육	어린이 집	원	차 등	가정 양육	어린이 집	원	차 등	가정 양육	어린이 집	원	차 등	
전체	97.7	2.2	-	-	0.1	53.6	46.1	-	-	0.3	11.1	88.6	-	0.1	0.1	2.0	72.2	24.2	1.0	0.6	0.5	24.0	70.6	3.8	1.1
응답자 성별																									
남자	96.3	3.3	-	-	0.4	54.9	44.7	-	-	0.4	12.1	87.0	-	0.6	0.3	2.5	71.3	22.9	2.0	1.2	1.0	29.9	62.7	4.9	1.4
여자	98.1	1.9	-	-	-	53.1	46.7	-	-	0.2	10.7	89.3	-	-	0.1	1.9	72.4	24.5	0.7	0.4	0.4	22.3	72.8	3.5	1.0
모름/무응답	100.0	-	-	-	-	63.4	36.6	-	-	-	20.3	79.7	-	-	-	-	71.5	26.3	-	2.2	-	18.5	78.5	0.9	2.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7.9	1.9	-	-	0.2	50.2	49.4	-	-	0.4	8.7	91.0	-	0.1	0.2	1.4	72.9	23.8	0.9	1.0	0.4	21.8	72.4	4.0	1.3
유아	97.2	2.8	-	-	-	59.8	40.2	-	-	-	15.5	84.2	-	0.2	0.1	3.0	70.8	24.9	1.2	-	0.8	28.0	67.2	3.3	0.7
지역구분																									
대도시	97.5	2.4	-	-	0.1	51.2	48.5	-	-	0.3	11.0	88.8	-	0.1	0.2	1.7	70.7	25.4	1.6	0.5	0.4	23.1	71.2	4.7	0.6
중소도시	98.0	1.8	-	-	0.1	56.0	43.8	-	-	0.1	12.0	87.7	-	0.2	0.1	2.6	71.1	24.8	0.6	0.9	0.8	22.4	71.6	3.5	1.6
읍·면	97.0	3.0	-	-	-	52.8	46.6	-	-	0.5	8.5	91.3	-	-	0.2	0.9	79.8	18.4	0.8	-	0.2	31.6	65.3	1.9	1.0
모 취업 여부																									
취업	97.1	2.8	-	-	0.1	46.7	53.3	-	-	0.1	9.3	90.5	-	0.1	0.1	1.7	71.0	25.1	1.5	0.7	0.4	23.4	71.0	4.1	1.2
휴직 중	98.5	1.2	-	-	0.3	52.0	46.6	-	-	1.4	9.6	89.9	-	-	0.5	1.5	70.5	26.9	0.4	0.7	0.2	20.7	75.3	2.6	1.3
미취업	98.3	1.6	-	-	0.1	64.4	35.4	-	-	0.2	14.3	85.4	-	0.1	0.1	2.5	74.7	21.7	0.6	0.5	0.9	25.9	68.4	3.7	1.1
부채 등	90.6	9.4	-	-	-	50.7	49.3	-	-	-	9.8	90.2	-	-	-	3.2	63.0	33.8	-	-	-	34.8	61.7	3.5	-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96.2	3.8	-	-	-	50.3	49.7	-	-	-	11.6	88.4	-	-	-	3.1	68.7	27.4	0.8	-	2.5	21.2	70.8	5.2	0.4
300~349만원	96.1	3.7	-	-	0.2	54.8	43.9	-	-	1.2	11.9	87.9	-	-	0.2	2.4	81.2	16.2	-	0.2	-	30.0	67.7	0.9	1.4
350~399만원	98.9	0.4	-	-	0.6	58.7	40.1	-	-	1.3	18.9	79.8	-	-	1.3	2.3	69.7	25.4	-	2.7	1.0	25.3	70.6	1.1	1.9
400~499만원	98.6	1.4	-	-	-	63.2	36.5	-	-	0.3	10.9	88.5	-	0.4	0.2	1.7	76.9	19.0	0.6	1.8	0.6	27.0	66.5	3.5	2.3
500~599만원	97.3	2.7	-	-	-	55.1	44.9	-	-	-	12.4	87.6	-	-	-	3.0	73.8	22.1	0.7	0.3	0.6	28.3	67.6	2.7	0.8
600~699만원	98.6	1.2	-	-	0.1	54.8	44.9	-	-	0.3	9.9	90.1	-	-	-	1.8	74.7	22.7	0.8	-	0.4	22.3	74.4	2.2	0.7
700만원 이상	97.3	2.7	-	-	-	46.4	53.6	-	-	-	8.9	90.9	-	0.2	-	1.2	67.4	29.2	1.8	0.3	0.4	19.3	73.6	6.2	0.6
모름/무응답	98.0	0.7	-	-	1.3	51.3	47.4	-	-	1.3	18.5	80.2	-	-	1.3	3.2	55.9	36.3	3.2	1.3	-	26.2	65.7	3.2	4.9
2021년	97.8	1.6	-	-	0.6	71.4	27.8	0.1	0.1	0.7	27.0	71.3	0.8	0.3	0.6	6.8	70.8	20.7	1.0	0.7	1.8	32.2	61.4	3.5	1.1

단위: %, (명)

주: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2021년 자료: 김은실 외(2018), pp. 154~155. 〈표 IV-2-7〉 참조.

2) 양육지원자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였다. 우선 자녀를 직접 돌보는 양육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6.0%로, 2021년의 41.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지원은 아이의 외조부모 30.5%, 친조부모 15.8의 순으로 많았으며, 엄마의 형제자매 3.1%, 기타 응답은 2.6%로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조부모와 친인척/이웃 등의 양육지원도 2021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과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은 지원율을 보인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인 경우보다 외조부모와 엄마의 형제자매가 돌봐주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양육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유아인 경우에 영아보다 많았다. 읍·면 지역보다 도시에서 외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많았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친조부모의 돌봄이 더 많았다. 양육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많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와 휴직 중인 모의 경우 도와주는 사람 없음이 각 37.8%, 38.8%로 낮아 미취업모 61.2%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의 도움이 많았으며, 특히 휴직 중인 모는 외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모 부재 가구(n=21)에서는 친조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아이 직접 돌보기

단위: %,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엄마· 아빠친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5.8	30.5	0.9	3.1	1.1	2.6	46.0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0~3세)	15.4	31.8	1.2	3.5	0.6	3.0	44.4	100.0(1,519)	25.7
유아(4~6세)	16.7	28.1	0.3	2.1	1.9	1.9	48.9	100.0(975)	(6)***
지역규모									
대도시	16.0	35.4	1.1	3.1	1.1	2.3	41.0	100.0(1,051)	34.0 (12)***
중소도시	14.7	28.3	0.7	2.5	1.0	3.0	49.7	100.0(1,060)	
읍·면	19.1	23.7	1.0	4.7	1.0	2.1	48.4	100.0(383)	
모 취업 여부									
취업	18.3	35.5	0.6	2.9	1.3	3.6	37.8	100.0(1,296)	193.9 (18)***
휴직 중	14.0	39.8	0.2	4.4	1.0	1.8	38.8	100.0(294)	
미취업	11.8	20.5	1.5	2.8	0.8	1.2	61.2	100.0(883)	
부재 등	62.7	-	4.6	-	-	9.2	23.4	100.0(21)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엄마- 아빠친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2021년	16.0	32.8	1.0	5.3	1.9	1.7	41.2	100.0(2,500)	
2018년	15.7	22.1	0.7	3.2	1.4	1.7	55.2	100.0(2,533)	
2015년	15.3	21.9	3.8	3.7	2.5	1.2	51.7	100.0(2,500)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6. <표 IV-2-8>.

*** $p < .001$.

경제적 지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74.9%로 2021년 70.3%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5년 81.1%, 2018년 83.9%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가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5년이나 2018년과 비교하여서는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도움이 각 12.3%, 11.4%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형제자매 지원은 총 0.9%로 나타났다. 모두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2015년과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는 증가한 비율이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에 비해 외조부모의 도움이 더 많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친조부모와 아빠 형제자매의 경제적 도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육지원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어머니가 부재한 한 경우(n=21)에는 친조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단위: %,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2.3	11.4	0.5	0.4	0.3	0.1	74.9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2.4	12.6	0.7	0.2	0.5	0.2	73.5	100.0(1,519)	20.5(6)**
유아	12.2	9.2	0.3	0.8	0.1	-	77.5	100.0(975)	
지역규모									
대도시	14.1	11.6	0.9	0.4	0.6	0.2	72.2	100.0(1,051)	21.7(12)*
중소도시	11.3	11.1	0.3	0.3	0.0	-	77.0	100.0(1,060)	
읍·면	10.2	11.8	0.4	0.8	0.6	0.3	76.0	100.0(383)	
모 취업 여부									
취업	11.9	12.3	0.6	0.5	0.3	0.0	74.4	100.0(1,296)	43.3(18)***
휴직 중	14.5	15.3	0.2	0.2	0.8	-	69.0	100.0(294)	
미취업	11.3	8.8	0.7	0.4	0.2	0.3	78.3	100.0(883)	
부재 등	45.0	-	-	-	-	-	55.0	100.0(21)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2021년	14.6	13.2	0.6	0.8	0.3	0.2	70.3	100.0(2,500)	
2018년	8.7	5.9	0.2	0.7	0.4	0.2	83.9	100.0(2,533)	
2015년	8.5	4.1	5.0	1.1	0.1	0.1	81.1	100.0(2,50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7. <표 IV-2-9>.

* $p < .05$, ** $p < .01$, *** $p < .001$.

가사 지원 등 육아 외 집안일의 도움을 받는지 질문한 결과 75.1%는 없다고 응답하여, 2021년 64.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지원 역시 도움을 받는 비율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5년과 2018년과 비교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외조부모의 도움 15.6%, 친조부모 6.6%의 순으로 많았으며, 부모의 형제자매 도움은 총 1.1%로 나타났다. 특히 외조부모의 집안일 도움이 2021년 23.4%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5.6%로 감소하였다.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보다 외조부모의 가사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도시에서는 외조부모의 가사 지원이, 읍·면지역에서는 엄마 형제자매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가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와 휴직 중 모에 대한 조부모의 가사 지원이 많았으며, 취업모의 경우 기타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가사 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82.8%로 높았다.

<표 IV-2-10>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사 지원(집안일) 등

단위: %,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6.6	15.6	0.2	0.9	0.3	1.3	75.1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5	16.5	0.3	0.9	0.3	1.6	73.8	100.0(1,519)	9.6(6)
유아	6.8	13.9	-	0.9	0.2	0.8	77.4	100.0(975)	
지역규모									
대도시	6.6	17.9	0.3	0.7	0.4	2.1	72.0	100.0(1,051)	39.7(12)***
중소도시	6.2	14.1	0.1	0.6	0.0	0.8	78.1	100.0(1,060)	
읍·면	8.2	13.4	-	2.6	0.8	0.9	74.1	100.0(383)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모 취업 여부									
취업	7.4	18.2	0.2	0.9	0.3	2.0	70.9	100.0(1,296)	
휴직 중	6.7	18.0	-	1.8	0.3	0.7	72.6	100.0(294)	128.2(18)***
미취업	4.2	11.2	0.2	0.6	0.3	0.6	82.8	100.0(883)	
부재 등	53.5	-	-	-	-	-	46.5	100.0(21)	
2021년	8.4	23.4	0.5	2.0	0.7	0.5	64.5	100.0(2,500)	
2018년	9.2	13.6	0.3	1.1	0.4	0.8	74.6	100.0(2,533)	
2015년	8.2	12.2	3.5	1.5	0.3	0.6	73.7	100.0(2,500)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8. <표 IV-2-10>.

*** $p < .001$.

3) 육아 관련 지식·조언 취득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시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는 경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육아관련 사이트/어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21년 32.8%와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였다. 그다음으로 친구나 동료가 25.6%였으며, 집안어른 12.5%, 육아전문가 7.7%, 형제자매 6.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2021년 3.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는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해 높지 않았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육아 사이트/어플을 이용하는 비율이 유아보다 높게 나왔으며, 유아인 경우 친구/동료에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영아 가구에 비해 좀 더 많았다. 휴직 중 모의 경우 육아관련 사이트/어플의 이용률이 43.6%로 매우 높았다. 2021년 미취업모의 온라인 사이트 이용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육아관련 사이트/어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집안 어른을 통해 육아 지식과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또한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는 응답도 12.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2-11>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단위: %, (명)

구분	집안 어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어플	육아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2.5	6.8	25.6	37.5	7.7	4.2	0.4	0.5	4.9	100.0(2,494)	

구분	집안 어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어플	육아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3.0	6.7	23.7	39.8	7.4	4.2	0.3	0.3	4.8	100.0(1,519)	21.8
유아	11.4	7.2	29.2	33.3	8.2	4.2	0.5	0.9	5.1	100.0(975)	(8)**
지역규모											
대도시	11.3	6.7	24.4	37.8	8.8	5.1	0.5	0.8	4.5	100.0(1,051)	18.9 (16)
중소도시	13.8	6.7	26.4	37.5	7.0	3.4	0.2	0.3	4.7	100.0(1,060)	
읍·면	11.4	7.8	26.8	36.2	6.6	3.9	0.6	0.3	6.4	100.0(383)	
모 취업 여부											
취업	12.5	6.5	27.2	36.5	7.7	4.5	0.3	0.3	4.5	100.0(1,296)	57.4 (24)***
휴직 중	12.9	6.4	19.8	43.6	6.5	5.6	1.1	0.3	3.7	100.0(294)	
미취업	11.7	7.5	25.5	37.2	8.4	3.2	0.2	0.8	5.6	100.0(883)	
부재 등	38.1	4.6	27.1	9.9	-	-	-	4.1	16.2	100.0(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2.4	4.5	18.7	31.1	7.4	2.3	-	1.0	12.4	100.0(125)	127.2 (56)***
300~349만원	10.6	6.1	19.7	42.9	7.7	2.8	0.4	1.3	8.5	100.0(164)	
350~399만원	15.0	5.0	23.5	42.9	4.2	5.0	1.2	-	3.2	100.0(145)	
400~499만원	10.0	5.4	27.0	41.5	6.7	2.5	0.4	1.3	5.2	100.0(421)	
500~599만원	11.6	9.3	27.3	33.9	7.7	3.9	0.3	0.8	5.2	100.0(474)	
600~699만원	13.7	7.9	27.4	34.0	10.1	4.2	0.2	-	2.6	100.0(376)	
700만원 이상	11.6	5.4	26.1	39.5	7.4	5.7	0.4	-	3.8	100.0(750)	
모름/무응답	19.6	20.6	20.3	15.9	12.9	3.2	-	-	7.6	100.0(39)	
2021년	13.9	9.6	26.9	32.8	4.8	7.0	0.2	1.6	3.3	100.0(2,500)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59. <표 IV-2-11>.

** $p < .01$, *** $p < .001$.

4)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개별 서비스/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지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있음 58.7%, 모름 41.3%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연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가구에서 유아 가구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 취업에 따라서는 미취업모(60.0%) > 취업모(58.8%) > 휴

직 중(5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 부재 등 가구(n=21)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8.7%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모 부재 등 취약 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기관이용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2-12〉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chi^2(df)$
전체	58.7	41.3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0.1	39.9	100.0(1,519)	3.9(1)*
유아	56.1	43.9	100.0(975)	
지역규모				
대도시	59.6	40.4	100.0(1,051)	4.5(2)
중소도시	59.5	40.5	100.0(1,060)	
읍·면지역	53.5	46.5	100.0(383)	
모 취업 여부				
취업	58.8	41.2	100.0(1,296)	13.2(3)**
휴직 중	57.4	42.6	100.0(294)	
미취업	60.0	40.0	100.0(883)	
부재 등	21.3	78.7	100.0(21)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60.3	39.7	100.0(1,255)	5.9(3)
유치원만 이용	49.8	50.2	100.0(31)	
둘 다 이용	58.7	41.3	100.0(911)	
이용경험 없음	54.0	46.0	100.0(297)	
2021년	38.4	61.6	100.0(2,500)	
2018년	43.4	56.6	100.0(2,533)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60. 〈표 IV-2-12〉.

* $p < .05$, ** $p < .0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7개 유형)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선 인지도에서 장난감·도서 대여에 대한 인지도가 89.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놀이·체험 프로그램 84.0%, 육아정보제공 8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도 각 70% 이상으로 높았으며, 영유아발달검사·상담과 부

모 상담 및 검사에 대해서는 각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한편, 개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 경험은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장난감·도서 대여(45.5%) > 놀이체험프로그램(44.2%) > 육아정보제공(33.7%)의 순으로 높았으며, 영유아발달검사 및 상담(31.9%)과 부모교육(25.0%)에 대한 이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 대상의 상담·검사는 16.8%, 시간제보육 10.2%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모두 4.0점 이상으로 전체 평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3.8~4.1점)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다(김은설 외, 2021:161).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와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도움 정도가 4.3점,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21년 각 4.1점에 비해 상승하였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도움 정도도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과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뿐 아니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속함과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프라의 유지와 운영을 제고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IV-2-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단위: %, (명), 점

구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24 (수)	'21	'18	'15	주 1회 이상	월 1~3회	분기 1~3회	연 1~3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5점 평균	(수)	
육아정보제공	81.4 (1,430)	84.5	83.0	85.2	2.3	5.1	10.3	16.0	33.7	66.3	100.0(1,167)	4.0	(405)	
영유아발달검사·상담	63.4 (1,430)	-	-	-	0.6	1.3	5.9	24.1	31.9	68.1	100.0(914)	4.0	(283)	
부모상담 및 검사	62.6 (1,430)	61.7	59.4	63.2	0.3	1.4	1.5	13.7	16.8	83.2	100.0(898)	4.0	(155)	
부모교육	72.3 (1,430)	71.6	66.7	65.2	0.4	1.4	4.9	18.3	25.0	75.0	100.0(1,035)	4.0	(256)	
놀이·체험 프로그램	84.0 (1,430)	82.4	76.0	84.6	3.1	8.1	10.0	23.1	44.2	55.8	100.0(1,205)	4.2	(535)	
장난감·도서 대여	89.5 (1,430)	89.9	87.5	92.8	2.2	14.4	10.2	18.8	45.5	54.5	100.0(1,284)	4.3	(594)	
시간제 보육	71.8 (1,430)	-	-	-	2.0	2.4	1.2	4.7	10.2	89.8	100.0(1,021)	4.2	(108)	

주: 1) 2024년 설문에 '영유아발달검사 및 상담', '시간제 보육', '기타'를 포함하고, '육아카페' 항목은 삭제함. 단, 조사 결과 기타 응답자는 0명으로 표에서 기타 항목을 제시하지 않음.

2)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3) 2024년 인지율은 1,430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하여 산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61. 〈표 IV-2-13〉.

*** $p < .00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이용 시 자녀 양육에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먼저 ‘인지도’의 경우 장난감·도서 대여(89.5%)와 놀이·체험 프로그램(84.0%), 육아정보 제공(81.4%)에 대한 인지도가 8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는 71.8%였으며, 영유아발달검사·상담(63.4%)과 부모 상담·검사(62.6%)는 각 60%이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주기와 빈도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약 55~90%로 나타난 가운데, 시간제보육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다’ 응답이 89.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모 상담·검사 83.2%, 부모교육 75.0%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주기 응답을 합친 결과, 장난감·도서 대여(45.5%) > 놀이·체험 프로그램(44.2%) > 육아정보 제공(33.7%) > 영유아발달검사·상담(31.9%)의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주기/빈도는 대체로 연 1~3회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분기별 1~3회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 자녀양육에 도움 정도는 5점 기준 평균 4.0~4.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난감·도서 대여(4.3점)과 놀이·체험 프로그램(4.2점), 시간제보육(4.2점)에 대한 도움 정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 서비스별 하위특성을 살펴보면, ‘육아정보제공’의 경우 영아 가구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유아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영유아발달검사·상담’은 도시지역에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시의 경우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 수요 대비 제공이 읍·면지역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놀이체험프로그램’은 유아보다 영아 가구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가구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장난감·도서 대여’도 영아 가구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유아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장난감·도서 대여에 대한 잦은 이용주기 응답도 영아 가구에서 좀 더 많고,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은 영아 가구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유아 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인지도가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주 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3개월에) 연 1~3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육아정보제공	81.4	2.3	5.1	10.3	16.0	33.7	66.3	100.0(1,167)	4.0	(405)
영유아발달검사·상담	63.4	0.6	1.3	5.9	24.1	31.9	68.1	100.0(914)	4.0	(283)
부모상담 및 검사	62.6	0.3	1.4	1.5	13.7	16.8	83.2	100.0(888)	4.0	(155)
부모교육	72.3	0.4	1.4	4.9	18.3	25.0	75.0	100.0(1,035)	4.0	(256)
놀이·체험 프로그램	84.0	3.1	8.1	10.0	23.1	44.2	55.8	100.0(1,205)	4.2	(535)
장난감·도서 대여	89.5	2.2	14.4	10.2	18.8	45.5	54.5	100.0(1,284)	4.3	(594)
시간제 보육	71.8	2.0	2.4	1.2	4.7	10.2	89.8	100.0(1,021)	4.2	(10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1,43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인지율을 산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사업으로 ‘육아쉽표²⁴⁾’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질문하였다. 육아쉽표에 대해 잘 알고 있음 2.4%, 들어본 적 있음 18.7%로 나타나, 전체 21.1%의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육아쉽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7.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은 전체 2.4%로, 97.6%의 다수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시작된 육아쉽표 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인지 및 이용 경험이 낮은 상황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2-15〉육아쉽표(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제도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경험 여부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음	모름	계(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전체	2.4	18.7	78.9	100.0(2,494)	2.4	97.6	100.0(48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4	18.5	79.1	100.0(1,519)	2.1	97.9	100.0(286)
유아	2.2	19.1	78.7	100.0(975)	3.0	97.0	100.0(202)
$\chi^2(df)$	0.2(2)				0.6(1)		

24) 육아쉽표 제도는 2023년 5월부터 시행하는 양육지원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상호 협력, 연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임. 평일 야간(1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어린이집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형 부모교육, 부모상담, 주말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구분	인지 여부				경험 여부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음	모름	계(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9	18.3	78.8	100.0(1,051)	2.6	97.4	100.0(205)
중소도시	2.2	18.2	79.6	100.0(1,060)	2.0	98.0	100.0(206)
읍·면	1.3	21.8	76.9	100.0(383)	2.9	97.1	100.0(77)
$\chi^2(df)$	5.6(4)				0.2(2)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2	18.8	78.1	100.0(1,255)	3.2	96.8	100.0(252)
유치원만 이용	5.5	15.0	79.6	100.0(31)	-	100.0	100.0(6)
둘 다 이용	1.9	19.5	78.6	100.0(911)	1.4	98.6	100.0(181)
이용경험 없음	0.5	17.1	82.4	100.0(297)	1.7	98.3	100.0(49)
$\chi^2(df)$	12.1(6)				2.3(3)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²⁵⁾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포털에 대한 인지도는 84.5%로, 2021년 73.0%에 비해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인지자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88.6%로 나타났다(이용경험 없음 11.4%). 월 1~3회 이용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용 만족도는 5점 평균 3.6점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이 56.0%의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단, 이는 만족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이전연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특성별로는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에 비해 포털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이용주기/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포털 인지도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고 잦은 이용주기를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인지도와 이용주기 및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5) www.childcare.go.kr

〈표 IV-2-1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주 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경험 없음	계(수)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84.5	2.8	42.9	10.6	32.3	11.4	100.0 (2,090)	56.0	3.6	0.7	(1,87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5.2	2.9	47.7	12.0	27.0	10.4	100.0 (1,291)	55.3	3.6	0.7	(1,171)
유아	83.0	2.8	33.8	7.9	42.1	13.3	100.0 (799)	57.5	3.6	0.7	(699)
$\chi^2(df)/t$	2.1(1)	66.4(4)**						-1.4			
지역규모											
대도시	85.9	2.2	40.0	10.9	35.7	11.2	100.0 (904)	54.0	3.6	0.7	(806)
중소도시	83.9	2.6	47.2	10.5	28.2	11.5	100.0 (870)	57.9	3.6	0.7	(782)
읍·면	81.9	5.6	37.0	9.8	35.6	12.0	100.0 (316)	56.1	3.6	0.7	(282)
$\chi^2(df)/F$	3.8(2)	26.8(8)**						1.2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87.1	3.2	55.5	9.2	22.9	9.2	100.0 (1,084)	58.4	3.7	0.7	(995)
유치원만 이용	81.2	13.3	36.2	-	31.1	19.3	100.0 (25)	58.2	3.7	0.8	(20)
둘 다 이용	85.1	1.9	28.9	10.9	45.6	12.7	100.0 (772)	57.1	3.6	0.7	(682)
이용경험 없음	74.7	2.9	27.4	15.9	37.6	16.3	100.0 (209)	43.3	3.4	0.7	(173)
$\chi^2(df)/F$	35.7(3)**	198.4(12)**						8.8**			
2021년	73.0	2.1	31.5	9.9	39.0	17.4	100.0 (1,821)	46.4	3.5	0.7	(1,486)
2018년	-	1.9	22.8	14.3	31.9	29.2	-	51.5	3.5	0.62	(1,380)
2015년	-				-			45.1	3.4	0.65	(1,171)

주: 인지율은 전체 대상자인 2,494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하여 산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62. 〈표 IV-2-14〉.

*** $p < .0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자에게 주로 이용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찾기/정보 등과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보 및 보육료 결제에 대해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임신·출

산·육아 정보 이용이 16.3%로 나타났으며, 시간제보육 신청 3.8%, 다른 부문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아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 관련 비용지원 정보와 보육료 결제 이용이 영아 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시간제보육 신청과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상담은 영아 가구의 이용이 더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임신·출산·육아 정보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비용지원 정보와 보육료 결제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이용 가구에서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보 및 보육료 결제를 제외한 제 서비스(임신·출산·육아 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찾기/정보, 시간제보육 신청,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상담)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이용한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어린이집 찾기/정보를 이용한 비율이 81.9%로 가장 높았다.

〈표 IV-2-17〉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정보(복수문항)

단위: %, (명)

구분	임신·출산·육아 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기관찾기 등	비용지원 정보 및 보육료결제	시간제보육 신청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상담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기타	(수)
전체	16.3	73.2	74.1	3.8	1.9	0.6	0.1	(1,87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6.5	72.5	71.5	4.4	2.6	0.5	-	(1,171)
유아	15.9	74.6	79.1	2.6	0.5	0.6	0.3	(699)
지역규모								
대도시	13.2	77.1	73.7	3.0	1.2	1.0	0.3	(806)
중소도시	18.0	68.8	74.7	4.0	2.7	0.2	-	(782)
읍·면	20.2	76.0	73.3	5.7	1.6	0.4	-	(282)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13.7	66.9	81.6	3.7	1.5	0.7	-	(995)
유치원만 이용	26.5	56.6	72.4	-	-	-	-	(20)
둘 다 이용	14.5	81.9	76.9	3.1	1.0	0.5	0.3	(682)
이용경험 없음	30.9	79.7	36.3	6.5	5.6	-	-	(173)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1$, *** $p < .001$.

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현황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중 대표적인 시간제 돌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현재 이용+과거 이용+알고 있음)이 총 66.0%로,

2021년 60.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현재+과거) 이용 경험은 9.8%로 2021년 8.1%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시간제돌봄 이용 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의 경우 인지도 55.9%, 이용률 1.9%, 이용 만족도 4.3점으로 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인지도 45.1%, 이용률 1.3%, 만족도 4.1점)와 긴급/단시간서비스(인지도 45.8%, 이용률 1.1%, 만족도 4.2점)도 인지도 대비 매우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2-18〉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현재 이용	과거 이용경험 있음	알지만 이용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계(수)
시간제돌봄	3.7	6.1	56.2	34.1	100.0(2,494)	79.1	4.2	1.0	(272)
영아종일제돌봄	0.6	1.3	54.0	44.1	100.0(2,494)	91.5	4.3	0.6	(57)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0.2	1.1	43.8	55.0	100.0(2,494)	82.3	4.1	1.0	(39)
긴급/단시간 서비스	0.2	0.9	44.7	54.3	100.0(2,494)	86.8	4.2	1.1	(33)
2021년									
시간제돌봄	2.8	5.3	52.8	39.1	100.0(2,500)	69.2	3.9	1.1	(222)
영아종일제돌봄	1.9	2.8	53.9	41.4	100.0(2,500)	83.2	4.3	0.8	(133)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0.2	0.6	43.4	55.8	100.0(2,500)	71.7	4.1	1.0	(21)
2018년						/			
시간제돌봄	2.0	5.1	59.9	33.0	100.0(2,533)				
영아종일제돌봄	3.6	2.4	58.2	35.7	100.0(2,533)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0.3	1.1	40.8	57.8	100.0(2,533)				
2015년						/			
시간제돌봄	1.7	4.6	52.3	41.4	100.0(2,593)				
영아종일제돌봄	2.5	1.9	53.7	41.9	100.0(2,593)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	0.7	40.6	58.7	100.0(2,593)				

주: 2024년에는 가족센터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수정/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64. 〈표 IV-2-16〉.

3. 장애 영유아 양육

본 절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이용기관과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 장애영유아의 특성

가구원 특성에서 각 가구원에 대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한 질문에 ‘장애있음’에 응답한 영유아 수를 통해 장애영유아 수를 파악한 결과, 본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 내 총 장애영유아 수는 22명이었다(유아 21명, 영아 1명). 장애유형은 지적 장애가 20.8%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 장애가 19.2%, 자폐성 장애 18.0%, 언어장애 12.7%, 지체장애와 심장장애가 9.8%, 기타가 5.6%, 특수교육진단평가가 4.1%로 나타났다. 단, 보육실태조사는 임의 추출된 가구에 대한 조사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 표집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조사된 사례수도 22명에 불과하므로, 장애 유형별 비중은 응답자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한편,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 영유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성 장애 혹은 실제 장애가 있으나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 설문에 응답하지 않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장애영유아의 모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인 경우가 10명, 미취업인 경우가 9명, 휴직 중인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나 취업, 미취업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22명 중 20명은 4세 이상이었다. 기관유형은 12명이 어린이집, 8명이 유치원을 이용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는 지적장애인 비율이 높았고, 유치원에는 자폐성 장애 비율이 높았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 유형은 응답자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대표성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3-1〉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심장 장애	안면 장애	기타	특수교육 진단평가	(수)
전체	9.8	19.2	-	-	12.7	20.8	18.0	9.8	-	5.6	4.1	(22)
영유아구분												
영아	-	100.0	-	-	-	-	-	-	-	-	-	(1)
유아	10.2	15.8	13.3	21.7	18.7	10.2	5.8	4.3	-	6.0	4.4	(21)
생활연령												
2세	-	100.0	-	-	-	-	-	-	-	-	-	(1)
3세	-	-	100.0	-	-	-	-	-	-	-	-	(1)
4세	-	23.5	13.2	31.5	31.8	-	-	-	-	25.1	18.5	(9)
5세 이상	14.5	13.6	9.4	18.9	14.6	14.5	8.3	6.1	-	-	-	(11)
모 취업 여부												
취업	20.2	30.9	-	-	4.8	20.3	12.3	-	-	11.5	-	(10)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심장 장애	안면 장애	기타	특수교육 진단평가	(수)
휴직 중	-	80.0	-	-	20.0	-	-	-	-	-	-	(2)
미취업	-	-	-	-	25.7	30.1	6.0	26.9	-	-	11.3	(9)
부재 등	-	-	-	-	-	-	100.0	-	-	-	-	(1)
기관유형												
어린이집	18.5	15.9	-	-	13.7	39.4	1.9	-	-	10.6	-	(12)
유치원	-	17.5	-	-	2.7	-	43.8	25.2	-	-	10.7	(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	-	-	-	30.8	28.3	40.9	-	-	-	-	(5)
300~349만원	70.1	-	-	-	-	29.9	-	-	-	-	-	(2)
350~399만원	-	58.0	-	-	42.0	-	-	-	-	-	-	(3)
400~499만원	-	42.9	-	-	-	-	16.0	-	-	41.1	-	(4)
500~599만원	-	33.8	-	-	-	66.2	-	-	-	-	-	(2)
600~699만원	-	-	-	-	14.4	-	-	60.2	-	-	25.4	(3)
700만원 이상	-	41.6	-	-	-	-	58.4	-	-	-	-	(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생활연령 0세, 1세는 응답자가 없어 별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등록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중증이 54.7%, 경증이 41.2%, 비해당인 4.1%로 중증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중증 장애아 비중이 80.1%로 높고,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경증 장애 비중이 79.2%로 높았다.

〈표 IV-3-2〉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정도

단위: %, (명)

구분	경증	중증	비해당	계(수)
전체	41.2	54.7	4.1	100.0(22)
영유아구분				
영아	-	100.0	-	100.0(1)
유아	42.9	52.8	4.3	100.0(21)
생활연령				
2세	-	100.0	-	100.0(1)
3세	100.0	-	-	100.0(1)
4세	23.5	76.5	-	100.0(9)
5세 이상	47.7	46.1	6.1	100.0(11)
모 취업 여부				
취업	32.1	67.9	-	100.0(10)
휴직 중	20.0	80.0	-	100.0(2)
미취업	40.4	48.2	11.3	100.0(9)
부재 등	100.0	-	-	100.0(1)
기관유형				

구분	경증	중증	비해당	계(수)
어린이집	19.9	80.1	-	100.0(12)
유치원	79.2	10.2	10.7	100.0(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생활연령 0세 1세는 응답자가 없어 별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장애 진단 시기 및 진단 계기

장애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장애 진단 시기를 물어본 결과, 만 1개월 이상~만 12개월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고, 만 36개월 이상~만 48개월 미만인 20.9%로 다음으로 높았다. 출생 이전을 포함하여 12개월 미만의 시기에 발견된 경우가 52.2%로 반 이상이였다. 생애 초기 장애를 진단 받은 경우 대체로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장애인 경우가 많으며, 발달 장애로 볼 수 있는 언어 장애나 지적 장애 등의 경우 좀 더 성장이 진행된 이후(즉, 만 24개월 이후) 진단이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IV-3-3〉 장애 진단 시기

단위: %, (명)

구분	출생 이전	출생~ 만 1개월	만 1개월 이상~만 12개월 미만	만 12개월 이상~만 24개월 미만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미만	만 36개월 이상~만 48개월 미만	만 48개월 이상~만 60개월 미만	(수)
전체	9.8	11.5	30.9	6.2	17.9	20.9	2.8	(22)
장애 유형								
지체 장애	-	-	100.0	-	-	-	-	(1)
뇌병변장애	-	47.6	22.1	21.1	-	-	9.1	(5)
언어 장애	-	18.3	-	-	38.7	43.0	-	(5)
지적 장애	-	-	34.0	-	18.8	47.3	-	(4)
자폐성 장애	-	-	54.6	12.1	27.6	-	5.6	(4)
심장 장애	100.0	-	-	-	-	-	-	(1)
기타	-	-	-	-	-	100.0	-	(1)
특수교육진단평가	-	-	-	-	100.0	-	-	(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장애 유형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안면장애는 응답자가 없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영유아건강검진’이 36.5%, ‘부모의 판단’이 36.1%로 유사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 및 기타

가족 권유'(14.7%), 기타(10.6%), '원장 및 교사 권유'(2.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판단과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장애를 진단하게 되는 비율이 높는데, 부모의 이른 판단과 함께 영유아건강검진의 참여가 장애 진단을 늦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표 IV-3-4〉 장애 진단 계기

단위: %, (명)

구분	부모의 판단	조부모 및 기타 가족 권유	원장 및 교사 권유	영유아 건강검진	기타	(수)
전체	36.1	14.7	2.1	36.5	10.6	(22)
영유아구분						
영아	57.6	-	-	42.4	-	(2)
유아	34.4	15.9	2.2	36.0	11.5	(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지인 권유는 응답자가 없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장애아의 기관이용

장애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 시간 및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 영유아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23.2%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2.3%, 유치원 일반학급 20.0%, 유치원 특수학급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일반 어린이집이 48.8%,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3.3%이었던 것에 반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높고, 다니지 않는다는 비율이 23.3%에서 8.5%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영유아 가구가 이용 기관에 만족한다는 비율 또한 89.8%로 2021년의 78.0%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관 이용시간은 1일 평균 6.9시간으로 2021년의 7.1시간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표 IV-3-5〉 이용기관, 이용 시간 및 만족도

단위: %, (명), 시간, 점

구분	이용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	만족도		(수)
	일반 어린이 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	유치원 일반 학급	유치원 특수 학급	기타	다니지 않음	계 (수)		만족 한다는 비율	만족도	
전체	7.2	22.3	23.2	20.0	18.7	-	8.5	100.0(22)	6.9	89.8	4.3	(20)

구분	이용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	만족도		(수)
	일반 어린이 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	유치원 일반 학급	유치원 특수 학급	기타	다니지 않음	계 (수)		만족 한다는 비율	만족도	
2021년	48.8	12.9	3.3	8.5	3.2	-	-	100.0(24)	7.1	78.0	4.4	(18)
2018년	11.1	11.9	-	1.5	26.8	-	-	100.0(32)	6.3	89.7	4.2	(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치원 특수학급은 유아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부)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비율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70. <표 IV-3-5>.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현재 다니는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사 부족이 22.4%, 편의시설 부족 13.9%, 다른 부모의 편견이 9.8%로 순이었다. 2021년 결과에서는 등·하원 시 불편이 20.4%, 다른 부모의 편견이 1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 조사결과에서는 등·하원 불편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부모의 편견도 9.8%로 비율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장애 전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특수학급 등으로 변동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재원의 경우 51.0%가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20.5%가 특수교사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유치원 재원의 경우 35.9%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29.9%가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특수교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3-6>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교사의 편견	다른 부모의 편견	편의시설 부족	보육· 교육내용 부적합	특수교사 부족	등· 하원 불편	기타	어려움 없음	비해당	(수)
전체	5.3	9.8	13.9	-	22.4	-	5.0	35.2	8.5	100.0(22)
영유아구분										
영아	-	-	-	-	-	-	-	42.4	57.6	100.0(2)
유아	5.7	10.6	15.0	-	24.1	-	5.3	34.6	4.8	100.0(20)
기관유형										
어린이집	10.0	18.6	-	-	20.5	-	-	51.0	-	100.0(12)
유치원	-	-	35.9	-	29.9	-	12.8	21.3	-	100.0(8)

구분	교사의 편견	다른 부모의 편견	편의시설 부족	보육· 교육내용 부적합	특수교사 부족	등· 하원 불편	기타	어려움 없음	비해당	(수)
2021년	2.1	16.5	5.8	6.9	14.0	20.4	-	34.3	-	100.0(18)
2018년	-	-	8.8	5.1	15.2	21.7	-	49.1	-	100.0(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72~173. <표 IV-3-7>.

4. 추가 출산 의향

가. 자녀 추가 출산계획

자녀 추가 출산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추가 출산계획에서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71.4%로 많았으며, ‘있음’ 15.4%, ‘생각 중’ 13.2%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2015년 77.9%, 2018년 75.5%, 2021년 74.5%, 2024년 71.4%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추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첫째를 출산한 영아 가구의 후속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총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2.6%로 비교적 높으나, 총 자녀 수가 2명인 경우에는 6.2%,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로 추가 출산 의향이 높지 않았다. 조사 대상 영유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총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둘째 후속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2.6%이므로, 이들이 한 자녀 출산에서 멈추지 않고 후속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 지역에 다자녀 가구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취업 중인 부모가 부모 부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은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13.7% 이상인 반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와 400만원대(400~499만원 이하)에서 추가 출산 의향이 각

19.5%, 18.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 구간에 따라 특별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IV-4-1〉 추가 출산 관련 의견 비율

단위: %, (명)

구분	추가 출산계획			
	있음	생각 중	없음	(수)
전체	15.4	13.2	71.4	(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0.5	16.1	63.4	(1,519)
유아	6.2	7.9	85.9	(975)
$\chi^2(df)$	144.6(2)***			
총 자녀 수				
1명	22.6	59.2	18.1	(1,290)
2명	6.2	86.6	7.2	(985)
3명 이상	3.0	93.4	3.6	(219)
$\chi^2(df)$	248.5(4)***			
지역규모				
대도시	17.0	11.9	71.1	(1,051)
중소도시	12.8	14.6	72.7	(1,060)
읍·면	19.5	12.7	67.8	(383)
$\chi^2(df)$	14.8(4)**			
모 취업 여부				
취업	13.3	11.5	75.2	(1,296)
휴직 중	25.1	16.4	58.6	(294)
미취업	15.3	14.3	70.4	(883)
부재	-	21.7	78.3	(21)
$\chi^2(df)$	44.3(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9.5	17.3	63.2	(125)
300~349만원	13.3	17.2	69.5	(164)
350~399만원	14.9	20.5	64.6	(145)
400~499만원	18.0	16.5	65.5	(421)
500~599만원	15.7	12.6	71.7	(474)
600~699만원	13.8	9.4	76.7	(376)
700만원 이상	13.7	10.6	75.7	(750)
모름/무응답	26.4	18.9	54.7	(39)
$\chi^2(df)$	40.8(14)***			
2021년	12.9	12.6	74.5	(2,500)
2018년	14.4	10.1	75.5	(2,533)
2015년	14.7	7.4	77.9	(2,500)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74. 〈표 IV-4-1〉.

3)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70~172. 〈표 IV-4-1〉.

*** $p < .001$.

추가 출산계획에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그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년 이내'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임신 중'이 25.4%, '1년 이내'가 20.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 이내의 출산계획이 74.9%로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할 때에는 가까운 미래로 계획하는 경우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V-4-2〉 추가 출산계획 시기

단위: %, (명)

구분	현재 임신 중	1년 이내	1~2년 이내	2~3년 이내	3년 이후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25.4	20.3	29.2	14.2	3.5	7.5	100.0(35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4.1	19.9	30.1	15.4	3.5	7.0	100.0(294)	5.4(5)
유아	33.4	22.8	23.5	6.8	3.3	10.2	100.0(61)	
2021년	26.0	14.8	31.1	15.4	3.5	9.1	100.0(291)	
2018년	29.0	16.6	31.8	10.0	3.1	9.6	100.0(302)	
2015년	29.9	26.4	24.3	9.2	3.9	6.3	100.0(435)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75. 〈표 IV-4-2〉.

추가 출산계획 자녀 수를 묻은 결과, 평균 1.1명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자녀 연령이나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가구특성에 따라서 추가 출산계획 자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4-3〉 추가 출산계획 자녀 수

단위: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계(수)
전체	1.1(0.4)	(35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1(0.4)	(294)
유아	1.1(0.3)	(61)
t	0.4	
지역규모		
대도시	1.1(0.4)	(148)
중소도시	1.1(0.4)	(136)
읍·면	1.2(0.6)	(71)
F	1.5(a)	

구분	평균(표준편차)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1.1(0.4)	(158)
휴직 중	1.2(0.5)	(70)
미취업	1.2(0.5)	(127)
<i>F</i>	1.9(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4(0.8)	(24)
300~349만원	1.2(0.4)	(22)
350~399만원	1.1(0.2)	(20)
400~499만원	1.1(0.4)	(70)
500~599만원	1.2(0.4)	(66)
600~699만원	1.1(0.2)	(50)
700만원 이상	1.1(0.5)	(94)
모름/무응답	1.0(-)	(9)
<i>F</i>	1.6(a)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자녀 추가 출산계획 없는 이유

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이 15.7%,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가 1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4년에 ‘직장생활과 병행이 어려움’이라는 보기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 수치가 15.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자녀 추가 출산에 일·가정 양립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V-4-4〉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후 생활비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과 병행 어려움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 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1.7	5.8	9.8	15.7	2.0	39.3	7.1	6.9	1.6	100.0(2,139)	
초·연소자녀구분											
영아	12.7	5.0	10.6	17.1	2.3	36.9	5.6	7.9	1.8	100.0(1,225)	34.3
유아	10.1	7.1	8.6	13.4	1.4	43.0	9.5	5.5	1.4	100.0(914)	(8)***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생활비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과 병행 어려움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 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9.4	5.7	8.7	18.5	2.0	36.7	9.6	7.6	1.7	100.0(903)	33.2 (16)**
중소도시	13.5	5.5	10.9	13.8	2.0	41.4	5.0	6.3	1.6	100.0(924)	
읍·면	12.0	7.3	9.2	13.9	1.9	39.6	7.1	7.3	1.7	100.0(3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4	4.8	9.0	23.0	1.7	37.1	6.4	6.8	0.9	100.0(1,323)	224.9 (16)***
외벌이	14.2	7.7	11.3	3.7	1.9	43.0	8.5	6.9	2.7	100.0(791)	
둘 다 무직	2.1	1.0	5.6	3.6	23.6	40.7	3.8	11.9	7.8	100.0(25)	
2021년	14.2	9.7	-	6.4	1.7	45.5	9.4	11.1	2.1	100.0(2,209)	
2018년	16.4	7.6	-	5.7	1.7	52.6	6.4	8.2	1.4	100.0(2,231)	
2015년	18.4	13.3	-	5.7	1.5	55.4	5.1	-	0.7	100.0(2,065)	

주: 2024년에 '생활비 부담'에 항목 추가.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75~176. <표 IV-4-3>.

** $p < .01$, *** $p < .001$.

5.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 시간 동안 영유아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및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기관 이용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 37.3%, 조부모 4.4%(외조부모 2.9%, 친조부모 1.5%), 부 2.1%, 육아전문인력(공공아이돌보미) 0.2%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여 기관 이용과 부의 돌봄이 증가하고 모와 조부모 돌봄, 공공아이돌보미의 이용은 소폭 감소하였다. 평일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부 3.7시간, 모 7.1시간으로 부모 모두 2021년(4.0시간, 7.9시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주말의 경우 부 10.9시간, 모 12.7시간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2021년(11.6시간, 13.2시간)에 비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다시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다만 주말에 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8.9시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된 수준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정서는 팬데믹 기간의 2021년과 비교하여 대체로 감소하였다.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응답이 2021년 3.3점에서 3.1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

가 있다'는 2.4점으로 동일,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에 대해서는 3.2점에서 3.0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체감하는 부정적 양육 정서의 감소는 앞서 살펴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모 돌봄시간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돌봄 시간을 지원받는 휴직 기간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녀양육 과정의 혼란스러움과 귀찮음, 자기계발 포기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부모가 약 20~40%로 일정 비율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는 아동의 연령보다는 부모 돌봄시간 및 양육의 부담과 좀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통상 육아 지원은 통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위험이 높은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가정양육)에게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정서 지원 등 양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와 모의 돌봄 참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돌봄(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 참여가 5점 기준 평균 4.0점으로 2021년 3.8점에 비해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도는 4.8점으로 아버지의 참여도 4.0점에 비해 높았으며, 2018년과 2021년 모의 참여도 4.7점에 비해 증가하였다. 부와 모 간에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은 동일하게 어머니 대 아버지 7:3으로 응답되었다. 2021년과 비교하여 모의 자녀양육 분담은 7.1점에서 7.0점으로, 모의 가사 분담은 7.2점에서 7.0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부의 자녀양육 분담은 2.9점에서 3.0점으로, 그리고 가사 분담은 2.8점에서 3.0점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모의 자녀 양육과 가사분담률은 완만한 감소세를, 부의 분담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의 분담이 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취업모 가구에서 부의 자녀양육 및 가사 참여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였고, 영유아 부모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계획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와 모 간 자녀돌봄 및 가사 분담의 격차를 줄이고 부모 공동양육과 참여를 위한 육아지원의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자녀 월령별로 선호하는 양육 형태는 12개월 미만에서는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7.7%로 높았으며, 12~24개월에서는 가정양육 선호 53.6%, 어린이집 기관 이용에 대한 선호 응답이 46.1%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결과에서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 2024년 조사 결과 12개월 이상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는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자녀 월령 24~36개월 미만에서는 가정양육 11.1%, 어린이집 88.6%로 나타났으며, 36개월 이상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설기관에 대한 기관유형별 선호로 이어졌다. 36~48개월 미만에서는 어린이집을, 48개월 이상에서는 유치를 각각 70%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60개월 이상에서는 사설기관에 대한 선호가 12.9%로 증가하였다. 부모가 선호하는 양육형태 및 기관유형이 자녀의 월령과 지역의 특성, 모 취업 및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 복합적인 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양육지원의 사회적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자녀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 등에 있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돌봄 46.0%, 경제적 지원 74.9%, 가사(집안일) 지원 75.1%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은 육아 사이트/어플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21년 32.8%와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그다음으로 친구/동료 25.6%, 집안어른 12.5%, 육아전문가 7.7%, 형제자매 6.8%, 육아종합지원센터 0.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2021년 3.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으로, 자녀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외에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 생애주기양육 정보의 제공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면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 다변화 된 요구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인프라 접근성 또한 제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음 58.7%, 모름 41.3%로, 인지도가 이전연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자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7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인지도에서 장난감·도서 대여(89.5%) > 놀이·체험 프로그램(84.0%) > 육아정보 제공(8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도 각 70% 이상으로 높았다. 영유아발달검사·상담과 부모 상담·검사에 대해서는 각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개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경험을 살

퍼본 결과,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장난감·도서 대여(45.5%) > 놀이체험프로그램(44.2%) > 육아정보제공(33.7%)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영유아발달검사상담(31.9%) > 부모교육(25.0%) > 부모 상담·검사(16.8%) > 시간제보육(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모두 평균 4.0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3.8~4.1점)에 비해 상승한 결과이다. 한편, 2023년 5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사업 ‘육아쉽표²⁶⁾’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2.4%, 들어본 적 있음 18.7%로 전체 21.1%의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이용 경험은 전체 2.4%로 다수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육아쉽표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 도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증가세의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속함과 동시에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프라 유지 및 운영의 지속성을 내실화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한 인지도는 84.5%로 2021년 73.0%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용경험 88.6%, 이용 만족도 3.6점으로 이전연도에 비해 긍정응답률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점수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점대에 머물고 있으므로, 디지털플랫폼으로서의 종합 포털이 수요자의 생애주기 요구에 대응하는 온라인 환경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과 맞춤형 설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개편 및 환류기능의 강화를 사업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2024년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 중 장애영유아 수는 22명으로(유아 21명, 영아 1명),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진단 시기는 신체적 장애(뇌병변장애, 심장 장애 등)는 출생 전후(12개월 미만)에서 발견되는 비중이 높고, 발달 장애(언어 장애 등)는 좀 더 늦은 시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보인다. 단,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장애 설문은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 대상 대표성 있는 표집이 이뤄지지 않아 관측치가 매우 작은 상황으로, 해당 자료의 특성

26) 육아쉽표 제도는 2023년 5월부터 시행하는 양육지원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상호 협력, 연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임.

- 평일 야간(1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어린이집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형 부모교육, 부모상담, 주말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은 응답자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장애 영유아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장애 진단 계기는 부모의 판단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유형 및 발달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지속해서 필요하고, 영유아검진의 중요성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홉째, 영유아 부모의 추가 출산계획을 질문한 결과, ‘없다’ 71.4%, ‘있다’ 15.4%, ‘생각 중’ 13.2%로 나타났는데,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 ‘이미 자녀가 충분하다’(39.3%)를 제외하고는 ‘직장생활과 병행이 어렵다’(15.7%)는 응답이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11.7%)보다도 높게 응답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육아지원 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본 장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 지출 비용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영유아의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2절에서는 연령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3절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4절은 지출 비용, 5절은 기관의 서비스, 6절은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제시하고, 7절에서는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살펴보았으며, 8절에서는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가. 최초 이용 기관

최초 이용 기관을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이 97.3%로 우세하게 많았으며, 유치원 1.9%, 반일제이상 학원 0.5%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최초의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최초의 이용기관이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인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이용연령이 0세부터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보육연령 기준 3세 이전 어린 연령에 기관이용을 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 최초 이용기관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계(수)
전체	97.3	1.9	0.5	0.3	100.0(2,526)
영유아구분					
영아	98.9	-	0.5	0.5	100.0(1,107)
유아	96.2	3.2	0.5	0.1	100.0(1,419)
$\chi^2(df)$	40.2(3)***				
보육연령					
0세	98.6	-	-	1.4	100.0(230)
1세	98.9	-	0.5	0.6	100.0(419)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계(수)
2세	99.2	-	0.8	-	100.0(458)
3세	97.4	1.8	0.6	0.2	100.0(490)
4세	96.2	3.2	0.6	-	100.0(463)
5세	95.2	4.4	0.3	-	100.0(466)
$\chi^2(df)$	63.4(15)**				
2021년 조사	94.7	3.3	1.8	0.1	100.0(2,640)
2018년 조사	90.9	7.4	1.4	0.2	100.0(2,871)
2015년 조사	94.1	4.7	0.6	0.6	100.0(2,579)
2012년 조사	88.1	8.5	3.0	0.5	100.0(2,441)
2009년 조사	83.4	12.8	3.6	1.6	100.0(2,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82 <표 V-1-1>.

*** $p < .001$.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을 살펴보면, 2024년 조사에서 평균 월령 19.8개월로 2009년 30.0개월이었던 것에서 2012년 26.7개월, 2015년 24.1개월, 2018년 22.7개월로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모가 취업 중(18.2개월)이거나 휴직 중(18.6개월)인 경우 미취업(22.6개월)인 경우보다 최초 이용 월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돌봄의 수단으로 기관이용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1-2>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7	52.4	21.7	8.0	2.0	0.2	100.0(2,526)	19.8	9.7	
영유아구분										
영아	22.4	63.2	13.0	1.4	-	-	100.0(1,107)	16.0	6.3	-18.9***
유아	11.0	44.9	27.7	12.6	3.4	0.3	100.0(1,419)	22.4	10.7	
보육연령										
0세	48.0	52.0	-	-	-	-	100.0(230)	10.9	3.5	
1세	17.8	72.0	10.2	-	-	-	100.0(419)	16.1	5.1	
2세	15.4	59.2	22.0	3.4	-	-	100.0(458)	18.2	7.0	94.8*** (a)
3세	15.4	51.5	23.5	9.3	0.3	-	100.0(490)	19.7	9.0	
4세	9.7	42.6	30.1	13.3	4.3	-	100.0(463)	23.1	10.5	
5세	8.4	41.3	29.3	14.8	5.3	1.0	100.0(466)	24.0	11.8	
지역규모										
대도시	15.3	53.4	22.0	7.8	1.2	0.3	100.0(1,078)	19.5	9.2	
중소도시	15.9	51.8	21.7	7.7	2.7	0.2	100.0(1,071)	20.0	10.0	0.7
읍·면	16.0	51.4	21.0	9.5	2.1	-	100.0(377)	19.9	10.0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모 취업 여부										
취업	20.6	52.9	18.8	6.1	1.4	0.1	100.0(1,442)	18.2	9.0	
휴직 중	15.0	57.8	21.2	4.9	1.2	-	100.0(214)	18.6	8.1	41.1*** (a)
미취업	7.5	51.2	25.8	12.0	3.1	0.4	100.0(850)	22.6	10.4	
부재 등	7.1	18.2	59.1	10.5	5.1	-	100.0(20)	24.5	9.2	
2021년 조사	13.2	46.3	24.6	12.4	3.1	0.4	100.0(2,640)	21.8	10.8	
2018년 조사	11.4	44.3	26.7	13.4	3.7	0.6	100.0(2,871)	22.7	11.0	
2015년 조사	11.9	35.4	30.1	18.1	3.5	0.8	100.0(2,579)	24.1	11.6	
2012년 조사	6.3	18.3	21.7	24.8	17.0	11.8	100.0(2,392)	26.7	12.4	
2009년 조사	8.0	23.0	33.0	26.7	8.0	1.3	100.0(2,112)	30.0	1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82~183. <표 V-1-2>.

*** $p < .001$.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 33.2%로 가장 높고,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움이 30.9%, 양육부담 경감 16.2%, 사회성 발달이 14.4% 순이었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 이후 경향성을 살펴보면, 부모가 돌보기 사회성 발달을 위해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한 반면,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전인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취업모인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기관이용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많았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취업모의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표 V-1-3>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볼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바쁨	기타	계(수)
전체	33.2	0.7	0.2	30.9	14.4	1.8	1.0	16.2	1.0	0.6	100.0(2,526)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봄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바쁨	기타	계(수)
영유아구분											
영아	28.5	0.2	0.4	34.9	11.8	2.5	1.0	18.5	1.3	0.9	100.0(1,107)
유아	36.5	1.0	0.0	28.1	16.2	1.3	1.1	14.6	0.8	0.4	100.0(1,419)
$\chi^2(df)$	53.4(9)***										
보육연령											
0세	22.8	-	0.7	45.0	5.4	3.7	0.6	17.8	2.7	1.4	100.0(230)
1세	27.6	0.1	0.7	31.9	12.7	2.9	1.3	19.8	1.7	1.1	100.0(419)
2세	31.9	0.4	-	33.3	13.8	1.4	0.8	17.6	0.3	0.5	100.0(458)
3세	35.0	0.4	0.1	33.2	13.0	1.1	0.7	15.9	0.3	0.4	100.0(490)
4세	36.0	1.0	-	26.5	21.0	1.2	0.9	10.9	1.7	0.9	100.0(463)
5세	38.3	1.5	-	25.2	14.5	1.6	1.5	17.0	0.4	-	100.0(466)
$\chi^2(df)$	139.0(45)***										
지역규모											
대도시	32.1	0.6	0.1	32.1	14.0	2.3	1.1	16.2	0.7	0.8	100.0(1,078)
중소도시	32.7	0.5	0.2	30.2	15.1	1.4	1.0	17.1	1.2	0.6	100.0(1,071)
읍·면	38.0	1.6	0.4	29.7	13.1	1.6	0.6	13.5	1.2	0.4	100.0(377)
$\chi^2(df)$	19.5(18)										
모 취업 여부											
취업	26.3	0.2	-	46.0	13.4	1.1	0.4	11.5	0.8	0.3	100.0(1,442)
휴직 중	28.4	-	2.0	27.8	14.1	4.4	1.5	20.9	0.6	0.4	100.0(214)
미취업	47.0	1.7	0.1	5.6	15.6	2.3	1.9	23.4	1.2	1.2	100.0(850)
부재 등	16.2	-	-	22.6	30.5	3.6	-	14.7	12.3	-	100.0(20)
$\chi^2(df)$	532.0(2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4.5	0.6	-	17.6	19.2	1.6	1.8	18.1	5.2	1.4	100.0(121)
300~349만원	33.9	2.7	1.6	15.8	15.9	3.7	1.6	19.4	3.1	2.3	100.0(149)
350~399만원	48.4	0.7	-	11.9	16.2	1.3	1.4	17.3	2.6	0.2	100.0(151)
400~499만원	43.4	1.0	-	13.8	17.2	2.8	1.5	18.2	1.0	1.1	100.0(414)
500~599만원	38.0	0.2	-	27.6	15.6	2.0	1.0	15.0	0.4	0.3	100.0(499)
600~699만원	30.9	0.4	0.4	36.5	12.9	1.2	1.0	16.6	-	0.2	100.0(370)
700만원 이상	24.0	0.1	0.2	47.2	11.4	1.1	0.3	14.6	0.7	0.5	100.0(786)
모름/무응답	25.3	8.0	-	18.2	19.6	2.0	5.3	21.5	-	-	100.0(36)
$\chi^2(df)$	362.0(63)***										
2021년	34.9	0.7	0.2	31.0	12.9	2.4	1.2	13.6	0.9	2.3	100.0(2,635)
2018년	22.1	1.0	0.4	28.4	23.4	4.1	1.8	16.7	1.8	0.3	100.0(2,871)
2015년	24.6	0.4	0.4	24.3	23.0	5.2	2.7	13.6	2.3	3.6	100.0(2,579)
2012년	16.9	1.4	0.7	24.6	26.9	8.8	2.9	17.6	-	-	100.0(2,441)
2009년	20.4	1.3	0.5	35.4	24.3	9.1	-	-	-	-	100.0(2,1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84. <표 V-1-3>.

3) 2018년~2012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 189. <표 V-1-3>.

4) 2009년 자료: 서문희 외(2012). p. 154. <표 V-2-6>.

*** $p < .001$.

다음은 기관을 이용하는 사유별로 최초 이용월령을 살펴본 결과, 기관 이용 사유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인 경우에는 최초 이용 월령이 평균 39.4개월로 비교적 낮은 월령에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기관 이용 사유가 사회성 발달이나 전인적 발달인 경우에도 각각 23.7개월, 23.2개월로 낮은 월령에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15.0개월로 가장 이른 시기에 기관 이용을 시작했으며, 특기교육 및 미취업이지만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의 경우 각각 16.2개월, 16.5개월로 최초 이용 월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거나 기관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이용연령이 낮고, 자녀의 발달 및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이유일 때는 비교적 늦게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1-4〉 사유별 최초 이용 월령

단위: %,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	52.4	21.7	8.0	2.0	0.2	100.0(2,526)	19.8	9.7
전인적 발달	6.0	48.7	27.6	13.9	3.5	0.2	100.0(846)	23.2	10.0
초등학교 준비	-	43.1	-	27.9	10.1	18.9	100.0(17)	39.4	21.4
특기 교육	32.9	52.9	14.2	-	-	-	100.0(4)	16.2	8.2
부모가 돌봄 어려움	32.3	54.6	10.6	2.3	0.2	-	100.0(803)	15.0	7.1
사회성 발달	4.1	43.7	36.4	11.2	4.5	0.1	100.0(328)	23.7	9.8
놀이상대 없음	10.7	62.5	21.8	4.9	-	-	100.0(49)	19.6	8.1
전액 지원	9.2	45.0	28.7	17.1	-	-	100.0(23)	21.9	10.2
양육 부담 경감	13.7	64.7	18.0	3.7	-	-	100.0(416)	17.8	7.0
미취업 다른 일로 바쁨	31.0	38.5	30.5	-	-	-	100.0(23)	16.5	8.2
기타	39.5	40.0	13.6	-	6.9	-	100.0(17)	16.3	11.5
$\chi^2(df)/F$	785.4(45)***							61.3***	(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가.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자녀 연령별 이용했던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 돌봄 서비스 유형을 중복응답으로 질

문한 결과, 출생당해의 경우 부모돌봄(98.2%), 조부모(43.6%), 어린이집(9.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육연령 0세인 경우 부모돌봄(94.9%), 조부모(44.0%), 어린이집(28.8%)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연령 1세가 되면서, 부모 돌봄이 89.4%로 다소 낮아졌지만 가장 높고, 어린이집이 63.8%로 급격히 높아졌다. 보육연령 2세는 부모돌봄 85.8%, 어린이집 85.3%로 대등해졌으며, 조부모 돌봄이 35.7%로 다소 낮아졌다. 3세는 부모돌봄 82.9%, 조부모 돌봄 32.8%, 어린이집 이용이 64.7%, 각각 다소 줄어들면서 유치원 28.9%, 반일제이상 학원이 2.5%로 증가하였다. 4세 5세로 가면서 부모 돌봄, 조부모 돌봄은 더욱 줄어들며, 유치원 이용률이 각각 48.2%, 55.4%로 늘어났다. 특히 5세가 되면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6.7%,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8.1%로 증가하여, 취학 직전 연령인 5세에는 사교육기관 이용률이 총 14.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1〉 자녀 연령대별 이용했던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출생당해 (12개월 미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어린이집	9.2	28.8	63.8	85.3	64.7	47.8	38.1
유치원	-	-	-	-	28.9	48.2	55.4
반일제이상 기관	0.1	0.2	0.3	0.5	2.5	3.9	6.7
시간제 사교육 기관	1.8	1.7	1.2	1.7	3.5	5.5	8.1
육아종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1.2	1.3	1.0	0.6	0.5	0.5	0.5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0.2	0.1	0.0	0.1	0.2	0.3	0.2
조부모	43.6	44.0	40.9	35.7	32.8	32.1	33.6
기타 친인척	8.0	7.1	4.7	2.7	2.2	2.0	0.6
비혈연 육아인력(이웃자임, 민간 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7.0	4.6	3.5	2.5	2.1	2.5	3.0
부모가 돌봄	98.2	94.9	89.4	85.8	82.9	80.4	75.8
(수)	(3,007)	(2,813)	(2,343)	(1,894)	(1,426)	(932)	(4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임. 2~3순위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합계 비중이 일치하지 않음.

3) 보육연령 기준. 단 0세는 출생당해와 0세를 구분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음' 22.8%로 나타났으며, 중단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n=637) 중단 사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

과, 자녀를 다른 기관에 보내기 위해 이용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어린이집 관련 불만 14.2%,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11.3%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폐원과 이사로 인한 이용 중단 응답도 6.2%로 나타났다. 보육연령으로 보았을 때, 3세, 4세, 5세에 62.7%, 59.8%, 71.7%가 다른 기관을 보내려고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 이동을 위한 중단이 높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모 취업 여부는 중단 사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대부분 다른 기관 보내기 위해서나 어린이집 관련 불만이 많아서인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련 불만이 많아서’가 44.3%로 높게 나타나고,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가 41.8%로 높았다. 단,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우는 관측치가 4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 맞음’의 비율이 33.2%로 높게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 (명)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계 (수)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 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해 의구심	기타	
전체	22.8	(3,007)	14.2	4.1	11.3	0.5	6.2	59.7	1.4	1.1	1.6	100.0(637)
영유아구분												
영아	9.0	(1581)	23.0	6.4	20.5	-	5.6	39.0	2.7	1.3	1.6	100.0(135)
유아	36.3	(1426)	12.0	3.5	9.0	0.6	6.3	64.8	1.0	1.1	1.6	100.0(502)
$\chi^2(df)$	316.5	(1)***	40.9(8)***									
보육연령												
0세	1.3	(664)	27.2	12.6	11.5	-	-	48.7	-	-	-	100.0(8)
1세	8.6	(449)	31.9	9.0	20.2	-	-	27.4	9.0	-	2.4	100.0(41)
2세	20.2	(468)	18.6	4.7	21.4	-	8.7	43.4	-	1.9	1.3	100.0(86)
3세	33.3	(494)	7.2	3.0	14.1	1.8	6.2	62.7	0.7	1.9	2.5	100.0(164)
4세	39.9	(464)	16.5	2.8	8.8	-	6.7	59.8	1.5	1.6	2.3	100.0(175)
5세	35.7	(468)	11.5	4.6	5.0	0.3	6.0	71.7	0.8	-	-	100.0(163)
$\chi^2(df)$	375.6	(5)***	102.3(40)***									
모 취업 여부												
취업	26.3	(1,526)	13.6	4.4	9.9	0.1	6.3	61.3	1.5	1.7	1.2	100.0(377)
휴직 중	13.7	(373)	28.7	4.5	12.5	-	7.1	44.3	2.0	-	0.7	100.0(50)
미취업	20.9	(1,087)	12.4	3.4	11.6	1.3	6.0	61.4	0.9	0.5	2.5	100.0(207)
부재 등	17.9	(21)	-	-	100.0	-	-	-	-	-	-	100.0(3)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 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하려고	집에서 양육 대안 의구심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 (수)
$\chi^2(df)$	29.4(3)***		59.3(24)***									
아동집 유형												
국공립	21.8	(586)	18.3	3.4	16.8	-	6.6	51.2	0.8	1.4	1.5	100.0(115)
사회복지법인	19.6	(94)	19.8	-	33.2	-	12.6	26.5	-	-	7.9	100.0(20)
법인단체 등	7.5	(49)	25.8	41.8	-	-	-	32.4	-	-	-	100.0(4)
민간	17.8	(619)	13.3	5.5	18.7	2.6	10.8	45.1	2.4	-	1.6	100.0(106)
가정	7.4	(209)	44.3	3.3	16.3	-	6.6	16.6	6.3	6.6	-	100.0(15)
직장	27.3	(105)	18.5	4.8	27.8	-	1.7	39.8	4.4	3.0	-	100.0(30)
협동	8.5	(4)	-	-	-	-	-	100.0	-	-	-	100.0(1)
$\chi^2(df)$	29.3(6)**		45.1(48)									
2021년	24.4	(3,471)	14.5	7.3	12.4	0.7	8.2	40.4	2.7	1.5	12.3	100.0(756)
2018년	30.1	(3,775)	5.5	4.3	6.3	0.3	2.0	78.7	1.2	0.6	1.1	100.0(1,04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87. <표 V-2-2>.
 *** $p < .001$.

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현재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을 다니는 아동 2,512명의 이용기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65.6%, 유치원 이용 31.4%, 반일제이상 학원 3.0%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은 2021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가 소폭 증가하고,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기관이용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아의 경우 99.4%가 어린이집 이용이며, 3세부터는 어린이집 이용률(51.5%)이 감소하고, 유치원 이용률이 점차 늘어 5세에는 유치원 이용이 55.9%로 늘어나고, 어린이집 이용이 38.4%로 줄어들었으며,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도 5.7%로 증가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유치원 이용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이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높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기관 이용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3-1〉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계(수)	$\chi^2(df)$
전체	65.6	31.4	3.0	100.0(2,512)	
영유아구분					
영아	99.4	-	0.6	100.0(1,098)	881.7(2)***
유아	42.4	53.0	4.6	100.0(1,414)	
보육연령					
0세	100.0	-	-	100.0(226)	911.9(10)***
1세	99.3	-	0.7	100.0(415)	
2세	99.2	-	0.8	100.0(457)	
3세	51.5	45.2	3.3	100.0(487)	
4세	37.9	57.4	4.7	100.0(463)	
5세	38.4	55.9	5.7	100.0(464)	
지역규모					
대도시	59.8	34.5	5.7	100.0(1,071)	55.8(4)***
중소도시	69.3	29.3	1.4	100.0(1,067)	
읍·면	70.1	29.4	0.4	100.0(374)	
모 취업 여부					
취업	65.2	31.0	3.8	100.0(1,435)	10.6(6)
휴직 중	69.5	28.0	2.5	100.0(212)	
미취업	65.2	33.0	1.8	100.0(845)	
부재 등	65.8	34.2	-	100.0(2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6.8	33.2	-	100.0(121)	76.1(14)***
300~349만원	68.3	31.4	0.3	100.0(149)	
350~399만원	64.1	35.3	0.6	100.0(148)	
400~499만원	71.9	28.1	-	100.0(411)	
500~599만원	66.7	31.2	2.1	100.0(495)	
600~699만원	65.5	33.2	1.3	100.0(370)	
700만원 이상	61.4	31.7	6.9	100.0(783)	
모름/무응답	65.7	28.5	5.8	100.0(35)	
2021년	63.2	33.3	3.6	100.0(2,591)	
2018년	60.8	35.4	3.8	100.0(2,830)	
2015년	65.8	31.9	1.4	99.1(2,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이용률 합이 100%가 안 되는 이유는 기타 유형을 이용한 경우가 0.9% 있기 때문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88~189. 〈표 V-3-1〉.

*** $p < .001$.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가구의 모 취업·맞벌이 특성과 이용 이유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모 취업 및 맞벌이 여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가 취업 중인 경우는 57.5%였으며, 맞벌이 가구 비중은 63.9%였다. 이는 2021년 모 취업률 47.6%,

맞벌이 비율 54.3%인 것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다.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취업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 취업 및 맞벌이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 취업				맞벌이 여부			계(수)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 다 무직	
전체	57.5	8.6	32.9	1.0	63.9	35.0	1.1	100.0(1,666)
보육연령								
0세	61.8	14.7	23.5	-	73.4	25.7	0.9	100.0(226)
1세	50.9	12.5	36.4	0.2	61.2	38.2	0.6	100.0(413)
2세	59.6	5.4	34.8	0.2	64.4	34.1	1.5	100.0(454)
3세	60.1	6.9	32.0	1.0	64.9	33.2	2.0	100.0(241)
4세	57.1	7.2	32.3	3.4	60.9	38.2	0.9	100.0(169)
5세	60.3	4.3	32.4	3.0	61.4	38.0	0.6	100.0(163)
기관유형								
국공립어린이집	60.4	9.3	29.7	0.6	67.6	31.5	0.9	100.0(586)
법인어린이집	46.6	6.8	46.7	-	53.3	46.7	-	100.0(94)
법인·단체등어린이집	68.3	1.4	30.3	-	67.5	32.5	-	100.0(49)
민간어린이집	55.4	7.0	35.7	1.9	60.2	38.3	1.5	100.0(619)
가정어린이집	51.7	13.5	34.4	0.4	61.5	37.3	1.2	100.0(209)
직장어린이집	73.2	8.0	18.8	-	81.2	18.8	-	100.0(105)
협동어린이집	31.5	-	68.5	-	31.5	68.5	-	100.0(4)
2021년	47.6	9.1	42.4	0.8	54.3	43.9	1.8	100.0(1,464)
2018년	-	-	-	-	54.2	42.5	3.3 ¹⁾	100.0(1,753)
2015년	-	-	-	-	43.6	53.5	2.9 ¹⁾	100.0(1,7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모름/비해당 포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89~190. 〈표 V-3-2〉.

다음은 유치원 이용 가구의 모 취업 및 맞벌이 여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가 취업 중인 경우는 57.0%, 맞벌이는 62.9%였다. 이 비율은 2021년에 모 취업률 46.8%, 맞벌이 비율 52.2%인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기관 종류별 모 취업 및 맞벌이 비율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이용자 중 모 취업인 경우가, 국공립유치원 이용 가구 중 모 취업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3-3〉 유치원 이용 아동 모 취업 및 맞벌이 특성

단위: %, (명)

구분	모 취업				맞벌이 여부			전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 다 무직	
전체	57.0	7.2	34.7	1.1	62.9	36.1	1.1	100.0(792)

구분	모 취업				맞벌이 여부			전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 다 무직	
보육연령								
3세	55.2	9.4	34.6	0.8	62.7	37.0	0.3	100.0(234)
4세	55.2	8.3	36.0	0.4	62.8	37.0	0.2	100.0(277)
5세	59.9	4.6	33.6	1.9	63.1	34.5	2.5	100.0(281)
기관유형								
국공립	55.6	2.5	40.4	1.5	56.9	40.2	2.9	100.0(252)
사립	57.6	9.2	32.3	0.9	65.4	34.3	0.3	100.0(540)
2021년	46.8	8.4	43.9	1.0	52.2	46.6	1.1	100.0(1,04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0. <표 V-3-3>.

2) 기관 소재지와 아동 거주지

기관 소재지와 아동 거주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관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경우 77.7%,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에 거주’가 17.5%, ‘기관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가 4.8%를 차지하였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기관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경우가 83.1%로 유아인 경우 그 비율(74.0%)보다 더 높았고, 지역규모별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기관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비율이 81.8%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자녀 연령과 거주지역의 규모가 다니는 기관의 위치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4> 기관 소재지와 아동 거주지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기관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에 거주	기관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	계(수)
전체	77.7	17.5	4.8	100.0(2,512)
영유아구분				
영아	83.1	12.3	4.6	100.0(1,098)
유아	74.0	21.0	5.0	100.0(1,414)
$\chi^2(df)$	33.3(2)***			
지역규모				
대도시	76.8	17.1	6.1	100.0(1,071)
중소도시	77.2	19.7	3.1	100.0(1,067)
읍·면	81.8	11.3	6.9	100.0(374)
$\chi^2(df)$	25.1(4)**			
모 취업 여부				

구분	기관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에 거주	기관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	계(수)
취업	76.6	17.8	5.6	100.0(1,435)
휴직 중	73.8	21.6	4.6	100.0(212)
미취업	80.6	15.9	3.5	100.0(845)
부재 등	75.6	17.4	7.0	100.0(20)
$\chi^2(df)$	10.5(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78.8	15.9	5.3	100.0(121)
300~349만원	74.8	21.2	4.0	100.0(149)
350~399만원	80.9	17.3	1.8	100.0(148)
400~499만원	80.0	16.3	3.7	100.0(411)
500~599만원	78.7	16.8	4.5	100.0(495)
600~699만원	76.6	17.1	6.3	100.0(370)
700만원 이상	76.2	18.0	5.8	100.0(783)
모름/무응답	78.7	21.3	-	100.0(35)
$\chi^2(df)$	12.6(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기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125명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25.5%로 가장 높았고, ‘집 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서’가 18.8%,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가 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27.7%와 ‘집 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서’가 26.8%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25.4%,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22.0%로 높게 나타나, 영유아 간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집 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서’가 26.0%,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가 20.4%, ‘차량 운행을 해주어서’가 14.5%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거나’, ‘차량운행을 해주어서’의 이유는 읍·면지역 특성상 아동 수가 적어 기관으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인프라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집 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서’의 경우는 행정구역상 구분되나 집 근처의 기관에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표 V-3-5〉 기관 소재지와 아동 거주지가 다른 이유

단위: %, (명)

구분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차량 운행을 해주어서	집 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기타	계(수)
전체	16.2	25.5	4.7	18.8	17.0	17.8	100.0(125)
영유아구분							
영아	15.4	22.0	7.4	6.1	25.4	23.7	100.0(50)
유아	16.7	27.7	3.0	26.8	11.7	14.2	100.0(75)
$\chi^2(df)$	12.3(5)*						
지역규모							
대도시	18.1	22.7	-	19.5	18.9	20.8	100.0(70)
중소도시	10.0	28.6	6.0	12.9	20.1	22.4	100.0(29)
읍·면	20.4	28.1	14.5	26.0	7.4	3.6	100.0(26)
$\chi^2(df)$	16.4(10)						
모 취업 여부							
취업	17.1	23.2	1.1	14.2	20.0	24.3	100.0(83)
휴직 중	-	43.7	-	52.9	-	3.4	100.0(7)
미취업	19.7	21.7	16.4	21.8	15.0	5.5	100.0(34)
부재 등	-	100.0	-	-	-	-	100.0(1)
$\chi^2(df)$	35.9(1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4.5	44.7	-	8.9	-	31.9	100.0(6)
300~349만원	53.7	16.9	-	16.3	13.0	-	100.0(4)
350~399만원	-	76.4	-	23.6	-	-	100.0(4)
400~499만원	13.9	28.0	17.4	12.0	4.5	24.1	100.0(16)
500~599만원	26.1	36.1	1.8	8.5	8.3	19.2	100.0(24)
600~699만원	15.2	24.9	11.8	24.1	2.4	21.6	100.0(23)
700만원 이상	8.9	16.0	-	24.8	35.8	14.5	100.0(48)
$\chi^2(df)$	49.0(3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 이유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가 45.9%로 가장 높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15.8%,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가 10.5%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은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보다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18.4%),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14.6%)를 선택한 비율이 높고,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특기교육을 위하여’가 10.0%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2021년의 이용기관 이용 이유와는 비교하여 경향성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6〉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021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1.6	54.3	54.6	45.9	43.6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2.3	15.8	17.6	7.0	9.5
특기교육을 위하여	1.0	1.4	10.0	1.4	1.7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8.4	8.1	2.4	14.7	16.0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7.5	13.0	8.4	15.8	14.4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2	0.7	-	1.0	1.5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4.6	3.0	-	10.5	10.0
비용 부담이 적어서	0.8	1.8	-	1.1	1.9
기타	2.6	1.9	7.0	2.5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792)	(54)	(2,512)	(2,59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1. 〈표 V-3-4〉.

3)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표 V-3-6〉에서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응답자(355명)를 대상으로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한 결과 아무 데도 안 보내겠다고 한 경우가 12.3%,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고 한 경우가 87.7%로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양육 의향은 영유아 전체 기준 12.3%에 불과했다. 영아의 경우 ‘아무 데도 안 보낸다’는 의견이 14.8%, 유아의 경우 8.2%로 유아의 가정양육 의향이 더 낮게 나타나, 돌볼 사람이 있더라도 기관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훨씬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경우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유치원 이용 가구에서 집에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아무 데도 안 보낸다는 응답이 11.3%로 어린이집 이용가구(5.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7〉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아무 데도 안 보냄	12.5	11.3	12.3	14.8	14.8	5.6	11.3	8.2
기관에 계속 보냄	87.5	88.7	87.7	85.2	85.2	94.4	88.7	91.8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304)	(51)	(355)	(228)	(228)	(76)	(51)	(12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이용 지속기간 및 선택 이유

현재 이용기관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이용기관별로 최초 이용시기(자녀 평균 월령)을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22.6개월, 유치원 48.3개월, 반일제이상 학원 50.6개월로 전체 평균 31.5개월로 나타났다.

유아와 영아 간 최초 이용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영아는 최초 이용시기가 17.1개월인 반면 유아는 31.5개월이며,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모두 유아로 최초 이용 시기는 48.3개월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현재 영아인 경우도 최초 이용시기는 32.0개월이었고 유아인 경우는 52.3개월로 유치원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케이스가 많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규모와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이용기관의 최초 이용시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8〉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단위: 개월,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편 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22.6	12.9	(1,666)	48.3	9.8	(792)	50.6	11.0	(54)	31.5	17.2	(2,512)
영유아구분												
영아	17.1	7.5	(1,093)	-	-	-	32.0	5.7	(5)	17.2	7.5	(1,098)
유아	31.5	14.8	(573)	48.3	9.8	(792)	52.3	9.7	(49)	41.3	14.9	(1,414)
t	-22.8***			-			-5.3***					
지역규모												
대도시	21.8	12.4	(642)	48.0	9.1	(387)	48.9	11.1	(42)	32.4	17.2	(1,071)
중소도시	23.5	13.4	(753)	48.2	10.0	(305)	57.1	8.1	(9)	31.2	17.0	(1,067)
읍·면	21.5	12.7	(271)	49.2	11.4	(100)	44.8	6.0	(3)	29.8	17.6	(374)
F	4.1*			0.6			4.1*					
모 취업 여부												
취업	21.8	13.5	(951)	48.2	10.0	(443)	50.7	11.3	(41)	31.1	17.8	(1,435)
휴직 중	21.4	11.2	(145)	47.8	7.6	(63)	48.4	8.9	(4)	29.5	15.9	(212)
미취업	23.9	12.0	(556)	48.4	9.9	(280)	50.8	11.0	(9)	32.4	16.3	(845)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편 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부재 등 <i>F</i>	33.1	14.7	(14)	52.3	10.1	(6)	-	-	-	39.7	16.0	(20)
	7*** (a)			0.6			0.1					
2021년	25.2	13.6	(1,464)	47.6	11.7	(1,041)	48.7	12.9	(86)	33.5	16.9	(2,591)
2018년	22.3	11.3	(1,753)	48.0	10.4	(1,009)	43.7	13.0	(68)	32.2	16.6	(2,830)
2015년	26.5	13.2	(1,745)	50.1	9.1	(749)	49.2	17.2	(25)	34.5	16.4	(2,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기타' 유형 응답자가 16명 있었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2. <표 V-3-6>.

* $p < .05$, *** $p < .001$.

현재 이용기관 이용 지속기간은 어린이집 19.5개월, 유치원 15.8개월, 반일제이상 학원 12.4개월로, 전체 기관별 평균 18.1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평균 이용 지속기간이 30.7개월로 이용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편차도 16.0개월로 큰 편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지속 이용기간이 약간 긴 편에 속했으며, 취업모의 경우에도 동일 기간을 좀 더 장기간 이용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3-9〉 현재 이용기관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9.5	14.8	(1,666)	15.8	10.4	(792)	12.4	8.3	(54)	18.1	13.5	(2,512)
영유아구분												
영아	12.6	8.4	(1,093)	-	-	-	4.8	2.1	(5)	12.5	8.3	(1,098)
유아	30.7	16.0	(573)	15.8	10.4	(792)	13.1	8.4	(49)	22.0	15.0	(1,414)
<i>t</i>	-26.4***			-			-6.4***					
지역규모												
대도시	18.4	13.9	(642)	15.6	10.3	(387)	11.8	8.3	(42)	17.0	12.6	(1,071)
중소도시	19.5	14.6	(753)	16.1	10.7	(305)	14.3	8.8	(9)	18.4	13.6	(1,067)
읍·면	22.2	17.0	(271)	15.5	9.6	(100)	12.3	7.4	(3)	20.2	15.5	(374)
<i>F</i>	5.9** (a)			0.3			0.5					
모 취업 여부												
취업	20.6	15.1	(951)	16.3	10.9	(443)	10.5	6.7	(41)	18.9	13.9	(1,435)
휴직 중	14.4	12.5	(145)	14.5	8.3	(63)	18.4	13.0	(4)	14.5	11.5	(212)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미취업	18.7	14.3	(556)	15.3	10.0	(280)	17.4	9.6	(9)	17.5	13.1	(845)
부채 등	28.4	16.2	(14)	13.5	8.7	(6)	-	-	-	23.3	15.6	(20)
<i>F</i>	10.1*** <i>(a)</i>			1			6.1** <i>(a)</i>					
2021년	19.1	14.2	(1,464)	15.6	11.0	(1,041)	15.3	10.7	(86)	17.8	13.3	(2,591)
2018년	21.8	15.6	(1,753)	16.9	10.8	(1,009)	16.9	11.0	(68)	19.9	14.1	(2,830)
2015년	17.3	13.4	(1,745)	13.4	8.7	(749)	13.0	13.5	(25)	15.9	12.2	(2,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기타' 유형 응답자가 16명 있었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3. <표 V-3-7>.

p* < .01, *p* < .001.

현재 이용기관별로 선택 이유를 1~2순위로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기준) 집과의 거리(32.8%), 주변 평판(12.2%), 프로그램(11.7%), 교사 (8.2%), 원장(7.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기준) 프로그램(26.8%), 집과의 거리(23.8%), 주변 평판(13.1%), 실내외환경(6.7%), 교사 (5.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응답이 72.5%로 우세하게 높았다. 전체적으로 1순위 응답의 경우, 집과의 거리(29.0%), 프로그램(18.2%), 주변 평판(12.3%)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프로그램(14.2%), 집과의 거리(14.0%), 주변의 평판(13.4%), 실내외 환경(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등을 공통적으로 우선시하며, 주변의 평판이 높은 것은 기관 이용 전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평판을 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와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원장이나 교사가 선택의 이유인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매 조사마다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가장 주된 요인은 집과의 거리, 즉 접근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10〉 기관별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24년	'21년	'18년	'15년	'24년	'21년	'18년	
원장	7.0	4.5	4.1	2.1	1.7	2.1	6.0	6.8	8.5	9.8	3.7	3.7	4.9	
교사	8.2	10.1	5.0	8.2	3.3	4.9	7.1	9.2	9.5	9.8	9.3	10.0	9.7	
운영시간	3.6	6.2	2.9	5.4	2.1	4.6	3.3	2.6	3.0	3.1	5.9	4.1	4.4	
비용	1.3	1.5	2.0	3.9	6.1	2.7	1.6	2.0	3.2	3.8	2.3	2.7	3.9	
프로그램	11.7	12.9	26.8	17.1	72.5	13.0	18.2	17.9	14.1	15.4	14.2	11.1	13.3	
건강·영양	1.1	3.7	1.3	3.9	-	0.8	1.2	1.6	1.4	2.1	3.7	6.4	3.2	
기관 학급 규모	1.9	2.7	1.7	1.7	-	6.6	1.8	1.0	1.6	2.1	2.5	2.3	1.5	
실내외환경	6.9	9.7	6.7	10.9	5.4	15.4	6.8	5.2	2.5	3.82	10.2	9.3	4.0	
안전한 보호	1.6	3.5	0.7	2.0	-	-	1.2	1.6	1.4	1.6	2.9	3.8	3.3	
집과의 거리	32.8	14.7	23.8	12.6	0.7	12.3	29.0	28.3	26.8	25.9	14.0	13.5	16.2	
기관 시설·설비	1.5	3.2	1.4	3.5	1.4	18.8	1.5	0.9	2.9	2.1	3.8	2.6	5.5	
국공립 여부	5.3	5.9	6.4	3.6	-	-	5.5	5.7	6.4	3.3	5.0	5.3	3.6	
주변의 평판	12.2	12.9	13.1	15.2	6.3	5.0	12.3	12.3	12.8	11.3	13.4	13.6	17.0	
주변환경	1.0	1.8	0.2	1.4	-	1.6	0.7	0.4	1.5	1.5	1.6	2.6	2.8	
평가 결과	0.7	1.1	-	-	-	-	0.5	0.7	0.6	0.7	0.7	1.7	1.6	
차량 운행 여부	0.3	1.4	0.7	2.5	-	3.6	0.4	0.5	0.5	0.7	1.8	2.3	1.3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0.0	0.3	0.6	2.0	-	0.6	0.2	-	0.2	0.3	0.8	0.9	0.7	
형제자매 자원 여부	1.2	1.9	1.8	1.9	-	5.4	1.4	1.9	2.1	1.3	2.0	3.1	1.6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0.4	0.3	-	-	-	-	0.3	0.5	0.3	0.3	0.2	0.6	0.3	
기타	1.2	0.6	0.9	0.4	0.6	-	1.1	0.9	0.8	0.9	0.5	0.4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1,666)	(792)	(792)	(54)	(54)	(2,512)	(2,591)	(2,830)	(2,535)	(2,512)	(2,591)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내부분위기'
3) 2015년: '평가인증 여부'
4) 2024년: 명확한 응답을 위해 '평가결과(평가결과 내용 등'으로 수정, 국공립여부에 '※ 어린이집, 유치원만 응답' 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제자매'로 수정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4. 〈표 V-3-8〉.

5) 현재 이용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현재 이용기관별로 주간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를 조사한 결과, 월-금 주중 5일 이용이 거의 100%로 주당 정기적 이용일 수의 평균이 5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 보육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토요일 0.4%, 일요일 0.1%,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토요일 0.4%, 일요일은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11〉 주당 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단위: %, (명), 일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24년	'21년
월요일 이용률	99.8	100.0	100.0	-	99.9	99.7
화요일 이용률	99.8	100.0	100.0	-	99.9	99.9
수요일 이용률	99.8	100.0	100.0	-	99.9	99.6
목요일 이용률	99.9	100.0	100.0	-	99.9	99.8
금요일 이용률	99.8	100.0	100.0	-	99.8	99.5
토요일 이용률	0.4	0.4	-	-	0.4	0.3
일요일 이용률	0.1	-	-	-	0.1	0.1
주당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	5.0	5.0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수)	(1,666)	(792)	(54)	-	(2,512)	(2,59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5. 〈표 V-3-9〉.

6) 토요일 보육 미이용 경험-어린이집 이용자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토요일 보육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음' 89.1%로 대부분인 가운데 '자주 있음' 3.8%, '가끔 있음' 7.1%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약 10.9%가 토요일 보육이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에서 토요일 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자주 있음' 6.4%, '가끔 있음' 9.6%로 높게 나타나,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부모 직업특성 파악과 토요일 보육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표 V-3-12〉 토요일 보육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어린이집 이용자)

단위: %, (명)

구분	자주 있음 (6개월간 3회 이상)	가끔 있음 (6개월간 3회 미만)	없음	(수)
전체	3.8	7.1	89.1	100.0(1,65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8	7.0	89.2	100.0(1,087)
유아	3.8	7.3	88.9	100.0(571)
$\chi^2(df)$	0.0(2)			
지역규모				
대도시	3.4	7.7	88.9	100.0(642)
중소도시	3.3	5.9	90.8	100.0(746)
읍·면	6.4	9.6	84.0	100.0(270)

구분	자주 있음 (6개월간 3회 이상)	가끔 있음 (6개월간 3회 미만)	없음	(수)
$\chi^2(df)$	10.9(4)*			
모 취업 여부				
취업	3.7	8.8	87.5	100.0(946)
휴직 중	9.5	6.2	84.3	100.0(145)
미취업	2.4	4.6	93.0	100.0(553)
부재 등	4.8	3.4	91.8	100.0(14)
$\chi^2(df)$	26.7(6)***			
2021년	4.6	6.2	89.2	100.0(1,45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95~196. <표 V-3-10>.
 * $p < .05$, *** $p < .001$.

7) 기관 등·하원 시각 및 이용 시간

이용 기관별 등원 시각은 모든 기관에서 8:31~9:00 사이 등원하는 비중이 과반(51.8%)으로 가장 높고, 9:01~9:30에 등원하는 비율이 21.1%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기관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57.8%, 9:01~9:30 등원 비율이 18.3%였으나, 어린이집은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48.7%이고 9:01~9:30 등원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57.6%로 가장 높고, 9:01~9:30 등원 비율이 33.0%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어 8:30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없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등원 시각의 경향성을 2015년부터의 조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사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9:01~9:30에 등원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9시 전에 기관에 등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표 V-3-13>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7:30까지	0.7	0.4	-	0.6	0.5	1.2	1.1
7:31~8:00	6.2	5.1	-	5.7	3.4	3.3	4.2
8:01~8:30	13.3	10.6	-	12.1	11.3	15.6	16.7
8:31~9:00	48.7	57.8	57.6	51.8	44.7	42.0	37.1
9:01~9:30	21.9	18.3	33.0	21.1	27.6	28.5	30.3
9:31~10:00	9.0	7.8	9.4	8.6	12.0	9.1	9.9
10:01 이후	0.2	-	-	0.1	0.5	0.4	0.7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792)	(54)	(2,512)	(2,591)	(2,830)	(2,53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96~197. <표 V-3-11>.

이용 기관별 하원 시각은 15:01~16:00 사이 하원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49.3%, 유치원 48.3%이며, 16:01~17:00에 하원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25.0%, 유치원 33.6%로, 대체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14:01~15:00에 하원하는 비율이 43.5%로 가장 높고, 15:01~16:00 사이 하원하는 비율이 28.7%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하원 시각이 좀 더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전체 하원시간을 2015년 결과부터 살펴볼 때, 15:01~16:00 사이에 하원을 하는 영유아가 가장 많고, 16:01~17:00 사이가 다음으로 많은 전반적인 경향성이 유지되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성이 발견되고,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이 시각에 하원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도입된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점차 보육현장에 안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14>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하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4:00까지	1.2	1.4	1.2	1.2	3.1	3.9	3.9
14:01~15:00	2.2	4.4	43.5	4.1	7.2	9.6	10.2
15:01~16:00	49.3	48.3	28.7	48.4	44.7	35.0	34.1
16:01~17:00	25.0	33.6	18.6	27.5	29.0	34.3	31.8
17:01~17:30	5.9	4.8	8.0	5.6	6.2	6.8	8.3
17:31~18:00	9.6	4.3	-	7.6	5.5	5.0	5.8
18:01~19:00	5.7	3.1	-	4.7	3.6	4.7	4.6
19:01 이후	1.2	0.2	-	0.9	0.7	0.7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792)	(54)	(2,512)	(2,591)	(2,830)	(2,53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197~198. <표 V-3-12>.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6~7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7~8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20.7%, 8~9시간 이용자가 13.7%였다. 유치원

의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0분으로 6~7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45.5%, 7~8시간 이용자 비중이 28.3%로 어린이집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비해 8~10시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낮아 전체 이용 시간 평균은 10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6시간 26분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는 이용 시간이 1시간가량 짧았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하원 시각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이 평균적으로 한 시간 정도 빨랐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세 기관 모두 이용시간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15〉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5시간까지	1.8	1.4	1.2	1.7
5~6시간	9.3	9.8	51.8	10.7
6~7시간	42.8	45.5	24.6	43.1
7~8시간	20.7	28.3	16.9	23.0
8~9시간	13.7	9.7	5.6	12.2
9~10시간	8.5	3.0	-	6.5
10시간 초과	3.2	2.2	-	2.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792)	(54)	(2,512)
평균	7시간 31분	7시간 20분	6시간 26분	7시간 25분
표준편차	1시간 19분	1시간 3분	1시간 0분	1시간 15분
F		30.9** (a)		
2021년 조사	7시간 12분	7시간 4분	6시간 32분	7시간 8분
2018년 조사	7시간 24분	7시간 12분	6시간 12분	7시간 12분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8. 〈표 V-3-13〉.

*** $p < .001$.

다음은 기관 이용 운영시간에 대해 시작시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는데, 전체 기준 만족한다는 비율이 94.5%로 높게 나타났고, 이용 시작 시간이 늦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이용 시작 시간이 늦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일제이상 학원(8.2%), 유치원(6.7%)으로, 어린이집(2.2%)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취업모의 경우 반일제이상 학원(11.2%)과 유치원(8.1%)의 시작 시간이 늦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시작시간의 조정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3-16〉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시작 시각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전체	96.2	1.5	2.2	0.1	(1,666)	91.1	1.4	6.7	0.7	(792)	91.8	-	8.2	-	(54)	94.5	1.4	3.8	0.3	(2,512)
영유아구분																				
영아	95.5	1.6	2.7	0.2	(1,033)	-	-	-	-	-	100.0	-	-	-	(5)	95.5	1.6	2.7	0.2	(1,033)
유아	97.4	1.3	1.3	-	(573)	91.1	1.4	6.7	0.7	(792)	91.0	-	9.0	-	(49)	93.8	1.3	4.5	0.4	(1,414)
$\chi^2(df)$	5.5(3)					-					0.7(1)					6.7(3)				
지역규모																				
대도시	97.0	1.0	1.9	0.1	(642)	91.1	1.4	7.3	0.2	(387)	94.1	-	5.9	-	(42)	94.8	1.1	4.0	0.1	(1,071)
중소도시	96.4	1.3	2.2	0.1	(753)	90.8	1.3	6.4	1.5	(305)	82.4	-	17.6	-	(9)	94.5	1.3	3.7	0.5	(1,067)
읍·면	93.9	3.3	2.7	-	(271)	92.5	1.5	6.0	-	(100)	100.0	-	-	-	(3)	93.5	2.8	3.7	-	(374)
$\chi^2(df)$	8.0(6)					4.9(6)					3.4(2)					10.6(6)				
모 취업 여부																				
취업	95.5	1.9	2.6	-	(951)	89.9	1.3	8.1	0.7	(443)	88.8	-	11.2	-	(41)	93.5	1.6	4.6	0.2	(1,435)
휴직 중	95.9	1.1	2.1	0.8	(145)	98.8	-	1.2	-	(63)	100.0	-	-	-	(4)	96.8	0.8	1.8	0.6	(212)
미취업	97.5	1.0	1.4	0.1	(556)	91.9	1.8	5.2	1.0	(280)	100.0	-	-	-	(9)	95.7	1.2	2.7	0.4	(845)
부재 등	100.0	-	-	-	(14)	79.5	-	20.5	-	(6)	-	-	-	-	-	93.0	-	7.0	-	(20)
$\chi^2(df)$	10.5(9)					10.7(9)					2.4(2)					12.1(9)				
2021년	93.6	1.7	4.2	0.4	(1,464)	92.2	3.0	4.8	-	(1,041)	81.9	2.3	13.7	2.2	(86)	92.7	2.2	4.8	0.4	(2,591)
2018년	92.3	3.4	4.4	-	(1,753)	91.1	3.3	5.5	-	(1,005)	97.3	-	2.7	-	(68)	-	-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0. 〈표 V-3-15〉.

다음은 기관 이용이 끝나는 시각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는데, 만족한다는 비율이 90.1%로 높게 나타났고, 끝나는 시각이 이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9.3%로 나타났다. 이용이 끝나는 시각이 이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일제이상 학원(27.0%), 유치원(10.1%), 어린이집(8.1%)로, 특히 반일제이상 학원에 대한 끝나는 시간이 이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이용 기관에 따라 하원 시각이 이르다고 응답한 비중이 반일제이상 학원 30.3%, 유치원 10.4%, 어린이집 8.2%로 차이를 보였다. 단, 동일한 유형의 이용 기관 안에서는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하원 시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21년 대비 4.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하원 시각이 소폭 조정되면서 기관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20분가량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V-3-17〉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끝나는 시각에 대한 인식

단위: 개월,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만족	이름	낮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낮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낮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낮음	기타	(수)
전체	91.4	8.1	0.2	0.2	(1,666)	89.0	10.1	0.6	0.3	(792)	73.0	27.0	-	-	(54)	90.1	9.3	0.3	0.3	(2,512)
영유아구분																				
영아	90.1	9.4	0.3	0.2	(1,093)	-	-	-	-	-	86.7	13.3	-	-	(5)	90.0	9.4	0.3	0.2	(1,098)
유아	93.6	6.1	-	0.3	(573)	89.0	10.1	0.6	0.3	(792)	71.8	28.2	-	-	(49)	90.1	9.3	0.3	0.3	(1,414)
<i>t</i>	8.3(3)*					-					0.7(1)					0.5(3)				
지역규모																				
대도시	90.8	8.1	0.5	0.7	(642)	90.0	9.4	0.7	-	(387)	75.8	24.2	-	-	(42)	89.6	9.4	0.5	0.4	(1,071)
중소도시	92.8	7.2	-	-	(753)	88.3	10.6	0.3	0.8	(305)	63.6	36.4	-	-	(9)	91.0	8.6	0.1	0.2	(1,067)
읍·면	88.6	11.2	0.2	-	(271)	87.8	11.2	0.9	-	(100)	69.5	30.5	-	-	(3)	88.3	11.3	0.4	-	(374)
<i>F</i>	15.0(6)*					5.3(6)					1.5(2)					7.5(6)				
모 취업 여부																				
취업	91.2	8.2	0.3	0.2	(951)	88.6	10.4	0.4	0.6	(443)	69.7	30.3	-	-	(41)	89.6	9.8	0.3	0.3	(1,435)
휴직 중	90.2	8.9	-	0.9	(145)	87.8	12.2	-	-	(63)	90.5	9.5	-	-	(4)	89.5	9.8	-	0.6	(212)
미취업	91.9	7.9	0.1	0.1	(556)	89.4	9.5	1.1	-	(280)	79.7	20.3	-	-	(9)	90.9	8.6	0.4	0.1	(845)
부재 등	95.6	4.4	-	-	(14)	100.0	-	-	-	(6)	-	-	-	-	-	97.1	2.9	-	-	(20)
<i>F</i>	2.5(9)					5.3(9)					2.6(2)					4.1(9)				
2021년	87.2	10.9	1.1	0.9	(1,464)	83.4	14.0	2.6	-	(1,041)	71.1	19.8	7.0	2.2	(86)	85.3	12.2	1.8	0.6	(2,591)
2018년	84.7	14.9	0.4	-	(1,753)	80.5	18.3	1.2	-	(1,005)	81.2	18.8	-	-	(68)	-	-	-	-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1. 〈표 V-3-16〉.

* $p < .05$.

8) 보육·교육기관 이용 희망 시간

희망 등원 시각은 8:31~9:00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55.2%로 가장 높고, 희망 하원 시각은 15:01~16:00 사이 등원하는 비율이 31.5%, 16:31~17:00가 29.7%로 높았다. 앞서 실제 등·하원 시각과 비교해 볼 때 등원 시각의 경우 8:30 이전 등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28.2%로 실제 이 시각 등원 비율 18.4%보다 9.8%p 높고, 하원 시각의 경우 17:31 이후에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31.9%로 실제 이 시각에 하원하는 비율인 13.2%보다 18.7%p 높게 나타나, 현재 이용시간보다 더 이른 등원과 늦은 하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등원 시각이 7:31~8:00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14.9%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12.1%) 혹은 반일제이상 학원(5.9%)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하원 시각의 경우에도 17시 31분 이후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유치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보다 장시간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V-3-18〉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 시간

단위: %, (명)

희망 등원 시간						희망 하원 시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1년	'18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7:30까지	4.1	3.3	-	3.7	3.3	8.7	14:00까지	0.5	0.5	1.2	0.5
7:31~8:00	14.9	12.1	5.9	13.7	12.8	10.2	14:01~15:00	1.8	2.8	8.9	2.3
8:01~8:30	10.7	10.9	10.4	10.8	8.8	16.7	15:01~16:00	30.3	33.4	37.8	31.5
8:31~9:00	52.4	60.9	57.1	55.2	54.4	43.3	16:01~16:30	-	-	-	-
9:01~9:30	10.7	7.6	16.7	9.9	12.2	15.3	16:31~17:00	28.4	31.7	36.5	29.7
9:31~10:00	7.1	5.2	9.8	6.6	8.1	5.6	17:01~17:30	4.4	3.3	6.8	4.1
10:01 이후	0.1	-	-	0.1	0.5	0.1	17:31~18:00	17.5	16.1	7.6	16.8
							18:00~19:00	12.1	10.5	1.2	11.3
							19:00~19:30	2.1	0.7	-	1.6
							19:31 이후	2.9	1.1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792)	(54)	(2,512)	(2,591)	(1,818)	(수)	(1,666)	(792)	(54)	(2,5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199. 〈표 V-3-14〉.

희망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19분,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8시간 7분, 반일제이상 학원 7시간 22분으로, 전체 기관 평균 8시간 13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이용 시간인 7시간 25분보다 약 48분가량 긴 시간이었다. 이는 2021년 하루 평균 7시간 59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서 약 14분가량이 증가한 것이지만, 2018년 조사 결과인 8시간 18분과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V-3-19〉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 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전체
5시간까지	1.0	1.0	1.2	1.0
5~6시간	4.4	4.9	14.0	4.9
6~7시간	28.8	30.2	28.2	29.2
7~8시간	23.4	27.0	44.4	25.2
8~9시간	17.6	18.7	8.3	17.7
9~10시간	13.1	9.3	3.9	11.6
10~11시간	6.8	6.2	-	6.4
11시간 이상	4.8	2.8	-	4.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전체
계 (수)	100.0 (1,666)	100.0 (792)	100.0 (54)	100.0 (2,512)
평균	8시간 19분	8시간 7분	7시간 22분	8시간 13분
표준편차	1시간 37분	1시간 26분	1시간 2분	1시간 34분
F		16.6*** (a)		
2021년	8시간 6분	7시간 51분	7시간 11분	7시간 59분
2018년	8시간 30분	8시간 6분	7시간 6분	8시간 18분
2015년	8시간 18분	7시간 48분	7시간 44분	-
2012년	8시간 21분	7시간 45분	7시간 7분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01~202. <표 V-3-17>.

*** $p < .001$.

나.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특성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을 살펴보면,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하는 비율이 37.0%, 하원하는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비율은 35.9%, 하원하는 경우는 35.7%이며,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등원 26.3%, 하원 23.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보호자와 걸어서 등·하원 하는 비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등원 44.8%, 하원 45.3%)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등원 23.4%, 하원 24.6%)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관 차량 이용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등원 51.4%, 하원 52.4%)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등원 26.4%, 하원 25.8%)보다 높게 나타나 기관별로 등·하원 방법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전체 기준으로 2009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과 보호자와 걸어서 이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관 선택 사유에서 집과의 근접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성이 증가한 것과 기관 차량 이동 시 안전 문제 등에 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가 강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부모가 좀 더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등·하원 시키려는 경향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V-3-20〉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35.9	26.3	0.7	37.0	0.1	(2,512)
어린이집	26.4	27.9	0.9	44.8	0.0	(1,666)
유치원	51.4	24.6	0.3	23.4	0.3	(792)
반일제이상	81.2	8.1	-	10.7	-	(54)
기타	-	-	-	-	-	-
하원						
전체	35.7	23.8	0.7	37.8	2.0	(2,512)
어린이집	25.8	26.8	0.9	45.3	1.2	(1,666)
유치원	52.4	18.8	0.4	24.6	3.8	(792)
반일제이상	76.4	10.8	-	10.7	2.1	(54)
기타	-	-	-	-	-	-
2021년						
등원	41.1	25.0	0.6	32.7	0.7	(2,591)
하원	43.4	21.4	0.6	33.0	1.7	(2,591)
2018년						
등원	48.6	20.4	0.6	30.0	0.5	(2,830)
하원	54.9	18.1	0.5	30.3	1.7	(2,830)
2015년						
등원	53.6	10.4	1.1	33.6	1.3	(2,535)
하원	54.9	9.1	0.8	33.6	1.5	(2,535)
2012년						
등원	54.6	10.7	0.4	33.3	1.1	(2,392)
하원	55.7	9.5	0.7	32.4	1.7	(2,39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혼자 걸어서' 문항을 삭제함. 2021년 이전 조사에서 '혼자 걸어서'에 응답된 비중은 '기타'로 합산하여 제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3. 〈표 V-3-18〉.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이용 관련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교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일 한다는 응답이 45.9%, 주1~2회가 31.9%, 월 1~2회 15.8%, 전혀 안 한다는 응답도 6.5%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가 매일 한다는 응답 비중이 53.8%로 매우 높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주 1~2회(32.3%)와 매일 (31.4%) 교류 응답이 비슷하게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2021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기관별 차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걸어서 등·하원을 하는 비중이 높고 유치원의 경우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교사 및 원장과의 직접교류 기회의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V-3-21〉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나눔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 1~2회	월 1~2회	전혀 안 함	계(수)
전체	45.9	31.9	15.8	6.5	(2,512)
어린이집	53.8	31.3	11.2	3.7	(1,666)
유치원	31.4	32.3	25.0	11.3	(792)
반일제이상	23.1	40.9	19.3	16.8	(54)
2021년	45.8	28.8	15.6	9.7	(2,583)
2018년	48.3	30.5	12.5	8.7	(2,821)
2015년	44.7	34.5	13.3	7.5	(2,51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4. 〈표 V-3-19〉.

기관차량 이용 시 교직원 동승을 질문한 결과, 등·하원 차량에 교직원이 등원과 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5.7%로 대부분 동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 있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3-22〉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 시 모두 동승	등원 시 동승	하원 시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름	계(수)
전체	95.7	0.9	0.5	1.5	1.3	(1,002)
어린이집	95.4	1.0	0.6	1.4	1.6	(510)
유치원	96.2	1.0	0.2	1.5	1.1	(448)
반일제이상	95.0	-	2.2	2.9	-	(44)
2021년	98.1	0.7	0.6	0.5	0.1	(1,287)
2018년	98.0	0.4	0.5	-	1.2	(1,537)
2015년	97.0	0.6	1.0	0.2	1.3	(1,56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교직원(자원봉사자 등 성인포함)으로 문항을 명확히 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4. 〈표 V-3-20〉.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분으로, 10분 이하라는 응답이 72.0%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31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2.2%였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10분 이하가 77.0%에 달하는 데 반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64.3%, 반일제이상 학원은 41.4%로 어린이집의 근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평균 등원 시간은 평균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10분 이하 소요된다는 비율은 2021년 대비 1.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23〉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 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72.0	20.5	5.3	2.2	(2,512)	11.0	8.0	51.3*** (a)
어린이집	77.0	16.9	4.2	1.8	(1,666)	10.0	7.6	
유치원	64.3	26.7	6.2	2.8	(792)	12.3	8.1	
반일제이상	41.4	34.8	19.0	4.8	(54)	17.7	10.6	
2021년	70.3	22.2	6.5	1.0	(2,591)	11.3	7.5	51.7*** (a)
2018년	70.6	23.0	5.3	1.1	(2,830)	11.0	7.4	
2015년	76.0	18.5	4.7	0.9	(2,535)	10.5	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5. 〈표 V-3-21〉.

*** $p < .001$.

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등원 시 소요시간보다는 약간 길어서 11.2분으로, 10분 이하라는 응답이 69.6%였다. 등원 시 소요시간과 마찬가지로 하원 소요 시간이 10분 이하라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자 75.7%, 유치원 60.2%, 반일제이상 학원 33.8%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하원시간 또한 평균에는 큰 차이가 없이 미묘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0분 이하로 소요되는 비율이 3%p가량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V-3-24〉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69.6	23.2	5.3	2.0	(2,512)	11.2	8.1	51.7*** (a)
어린이집	75.7	18.4	4.4	1.5	(1,666)	10.2	7.5	
유치원	60.2	30.9	5.8	3.1	(792)	12.8	8.7	
반일제이상	33.8	46.5	18.7	1.0	(54)	17.1	8.2	
2021년	66.7	24.3	7.6	1.3	(2,591)	11.9	7.8	51.7*** (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5. 〈표 V-3-22〉.

*** $p < .001$.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가. 월평균 보육·교육비 지불액

전체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4만5,800원이며,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9만2,100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4만1,000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9만2,800원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보육료 상한제 및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아학비 추가지원과 같은 정부지원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전체 영유아 대상 월 보육·교육비, 비용 지불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 모두 가구특성에 따른 지불 비용의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미취업모에 비해서 취업모인 경우에 월 보육·교육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월 보육·교육비용은 소득구간에 따라 약간의 추세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월 보육·교육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V-4-1〉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전체	145.8	288.9	(2,512)	2.3	192.1	317.9	(1,772)	3.1
보육연령								
0세	18.0	32.9	(226)	0.4	44.0	38.9	(83)	1.0
1세	74.0	153.9	(415)	1.3	96.5	169.4	(297)	1.7
2세	93.7	156.3	(457)	1.6	111.4	164.5	(370)	1.9
3세	179.2	306.6	(487)	2.9	227.3	329.1	(364)	3.7
4세	208.2	368.3	(463)	3.3	259.7	394.8	(348)	4.1
5세	201.3	359.7	(464)	3.1	270.1	393.8	(310)	4.1
<i>F</i>	26.5*** (a)				24.5*** (a)			
지역규모								
대도시	203.9	391.6	(1,071)	3.0	252.1	421.3	(836)	3.7
중소도시	120.8	193.1	(1,067)	2.1	158.8	207.3	(721)	2.8
읍·면	60.4	122.6	(374)	1.3	99.1	144.4	(215)	2.0
<i>F</i>	41.7*** (a)				29.6*** (a)			
모 취업 여부								
취업	160.9	316.1	(1,435)	2.2	209.1	346.1	(1,033)	2.9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휴직 중	144.6	270.8	(212)	2.6	190.6	296.5	(150)	3.4
미취업	120.5	241.8	(845)	2.5	163.2	268.7	(574)	3.3
부재 등	117.8	108.5	(20)	4.4	140.9	103.9	(15)	5.3
<i>F</i>	3.6*(a)				3*(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6.9	73.3	(121)	3.0	91.9	73.9	(73)	4.8
300~349만원	93.3	102.9	(149)	3.0	128.7	100.2	(102)	4.1
350~399만원	84.2	110.2	(148)	2.3	115.0	114.2	(100)	3.2
400~499만원	96.5	121.6	(411)	2.3	131.8	124.7	(272)	3.1
500~599만원	133.5	242.3	(495)	2.6	177.6	265.1	(345)	3.4
600~699만원	122.2	193.3	(370)	2.0	159.5	207.1	(263)	2.6
700만원 이상	216.7	422.3	(783)	2.2	269.5	455.7	(590)	2.7
모름/무응답	199.2	327.2	(35)	-	259.7	352.6	(27)	-
<i>F</i>	13*** (a)				10.6*** (a)			
2021년	141.0	279.8	(2,591)	2.7	192.8	311.6	(1,843)	3.8
2018년	149.6	198.1	(2,830)	3.4	170.2	202.9	(2,481)	3.8
2015년	96.4	114.2	(2,284)	2.7	117.0	115.9	(1,796)	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07~208. <표 V-4-1>.

* $p < .05$, *** $p < .001$.

이용기관별 보육료·교육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비용 기준 이용 기관별 전체 24.1%가 비용을 내지 않았고, 순보육·교육비용 기준 이용기관별 전체의 81.3%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총비용 기준 어린이집의 경우는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25.5%로 가장 많았고, 5~10만원 23.9%, 10~15만원 19.8%, 1~5만원 17.2%의 순으로 많게 나타나, 전체 86.4%가 15만원 이하(안내는 경우 포함)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이용의 경우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23.4%인 가운데 4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13.0%로 다음으로 높았고, 5~10만원인 경우가 11.1%, 10~15만원 10.6%, 1~5만원 8.2%의 순으로 나타나, 15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비중이 53.3%(안내는 경우 포함)로, 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용 지출액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24년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급함에 따라, 순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을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으며, 표에는 전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순보육·교육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 반 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1.0%만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정부지원금 제외, 입학금 포함)는 안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만원이 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5~20만원이 8.1%로 기관에 따라 큰 교육비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 총비용 기준 보육료·교육비를 내지 않는 비율이 2021년 26.9%에 비해 다소 낮아진 반면, 순보육·교육비용 기준 보육료·교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2021년의 72.2%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어린이집이 모두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게 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V-4-2〉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단위: %, (명)

구분	총 비용					순보육·교육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21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21년
안 념	25.5	23.4	-	24.1	26.9	100.0	49.9	1.0	81.3	72.2
1~5만원	17.2	8.2	2.9	14.0	17.3	-	8.2	2.9	2.7	3.1
5~10만원	23.9	11.1	-	19.2	17.9	-	7.7	-	2.4	4.6
10~15만원	19.8	10.6	1.8	16.4	13.0	-	7.5	3.9	2.5	5.0
15~20만원	9.2	9.2	-	8.9	7.4	-	8.1	7.4	2.8	3.0
20~25만원	3.2	8.0	-	4.6	3.9	-	4.8	-	1.5	3.1
25~30만원	0.6	7.7	1.4	2.8	3.3	-	4.2	0.7	1.3	2.6
30~35만원	0.2	5.4	1.2	1.9	2.4	-	4.8	1.9	1.6	1.1
35~40만원	0.5	3.4	4.6	1.5	0.8	-	1.0	3.4	0.4	0.7
40만원 이상	-	13.0	88.1	6.7	7.1	-	3.7	78.6	3.5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66)	(792)	(54)	(2,512)	(2,591)	(1,666)	(792)	(54)	(2,512)	(2,59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기관 이용 비용 관련 설문은 전체적으로 경량화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차액보육료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순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을 질문하지 않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09. 〈표 V-4-2〉.

나. 월평균 보육·교육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어린이집 7만300원, 유치원 17만7,000원, 반일제이상 학원 147만7,400원이며, 순보육·교육비는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치원 8만6,500원, 반일제이상 학원 108만8천원이었다. 추가비용은 어린이집 7만300원, 유치원 9만600원, 반일제이상 학원 38만9,300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어린이집이

1.3%, 유치원이 3.2%인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2012년부터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2년 5.0%, 2018년 3.4%, 2021년 2.7%, 2024년 2.3%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실제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지출액은 2012년 16만1,700원에서 2018년 14만9,6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더욱 감소하여 14만1,000원까지 감소하였다. 2012년 대비 2018년에 감소한 것은 무상보육 정책 도입 전후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2021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의 감소는 기관 이용률 자체가 낮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2021년에 비해서는 평균 4,800원가량 상승하긴 하였으나, 가구소득 대비 총 비용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가구소득의 증가에 비해 보육료·교육비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료 상한제 및 유아학비 상한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차액보육료 및 유아학비 추가 지원과 같은 정부지원금이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이 실제 영유아 가구의 기관 이용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는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4-3〉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비용 (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45.8	59.6	86.2	(2,512)	2.3
어린이집	70.3	-	70.3	(1,666)	1.3
유치원	177.0	86.5	90.6	(792)	3.2
반일제이상 학원	1,477.4	1,088.0	389.3	(54)	16.2
<i>F</i>	2,718.3*** (a)	2,801.7*** (a)	290.8*** (a)		1,020.5*** (a)
2021년(전체)	141.0	75.9	65.1	(2,591)	2.7
2018년(전체)	149.6	74.2	75.4	(2,830)	3.4
2015년(전체)	96.4	32.7	63.7	(2,284)	2.7
2012년(전체)	161.7	78.9	82.7	(2,392)	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설문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09~210. 〈표 V-4-3〉.

*** $p < .001$.

다.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은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가 17만3,300원으로 가장 많으며, 방과후특성화비(특별활동비)가 4만6,200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이 2만 5,600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4만 1,1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은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가 8만6,500원, 방과후 특성화비가 5만700원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가 108만8,000원, 방과후특성화비가 10만9,500원으로 모든 항목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비용 지불 아동 기준으로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 22만400원, 방과후특성화비(특별활동비) 6만900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은 3만3,800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현장학습비 등 기타 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시도 특성화비로 매우 제한적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수납받을 수 있는 예산 항목 기준으로 현장학습비 등 기타 비용은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오히려 약간 높고, 방과후 특성화비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2024년 기준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2021년 대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비용과 방과후 특성화비는 상승한 반면, 급간식비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학습이나 대면 행사가 위축되었던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4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학습 등이 크게 증가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유치원 이용자의 급간식비는 2021년 기준 월평균 8만1,000원이었는데(김은설 외, 2021: 210), 2024년에는 4만5천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부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시도가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2021년 대비 2024년에는 기관 이용비용은 월평균 4,8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추가 비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4-4〉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월평균 보육료·교육비 제외)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시도 특성화비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	급간식비	방과후 교육돌봄비	교재비
전체 아동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시도 특성화비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	급간식비	방과후 교육돌봄비	교재비
전체	25.6	46.2	3.8	173.3	10.4	12.4	11.6
어린이집	25.3	41.1	3.8	-	-	-	-
유치원	21.3	50.7	-	86.5	4.5	8.9	5.2
반일제이상 학원	78.9	109.5	-	1088.0	72.9	49.0	79.0
<i>F</i>	61.6 ^{***} (a)	41.7 ^{***} (a)		1543.4 ^{***} (a)	314.9 ^{***} (a)	41.3 ^{***} (a)	347.1 ^{***} (a)
(수)	(2,512)	(2,512)	(1,666)	(846)	(846)	(846)	(846)
2021년(전체)	5.9	37.0	2.2	-	12.2	13.7	10.5
2018년(전체)	6.6	50.1	0.5	-	4.9	2.4	6.0
2015년(전체)	7.4	36.7	2.2	-	5.5	2.0	4.4
비용지불 아동							
전체	33.8	60.9	5.1	220.4	13.3	15.7	14.7
어린이집	34.0	55.2	5.1	-	-	-	-
유치원	27.8	66.2	-	112.9	5.9	11.6	6.8
반일제이상	78.9	109.5	-	1088.0	72.9	49.0	79.0
<i>F</i>	39.8 ^{***} (a)	24.1 ^{***} (a)		1173.6 ^{***} (a)	232.5 ^{***} (a)	27.7 ^{***} (a)	255.9 ^{***} (a)
(수)	(1,772)	(1,772)	(1,173)	(599)	(599)	(599)	(599)
2021년(전체)	30.9	69.9	29.7	-	60.8	89.1	75.2
2018년(전체)	19.6	69.6	28.1	-	29.8	56.8	36.8
2015년(전체)	20.4	63.5	33.7	-	30.3	42.3	29.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설문지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10~211. <표 V-4-4>.

^{***} $p < .001$.

영유아 연령별 기관이용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가구소득 대비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5세의 경우에는 4세에 비해 월평균 보육료·교육비와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약간 낮았는데, 이는 2024년에 5세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강화된 것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아의 경우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전체 비용이 7만1,700원인데 반해, 유아의 경우에는 19만6,7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순보육·교육비뿐 아니라, 추가 비용 또한 영아에 비해 유아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함에 반해, 유아는 유치원 또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에 영유아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표 V-4-5〉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전체	145.8	59.6	86.2	(2,512)	2.3
영유아구분					
영아	71.7	9.0	62.7	(1,098)	1.2
유아	196.7	94.4	102.3	(1,414)	3.1
<i>t</i>	5.6**	-11***	-9***		-14.2***
보육연령					
0세	18.0	-	18.0	(226)	0.4
1세	74.0	11.6	62.4	(415)	1.3
2세	93.7	10.5	83.2	(457)	1.6
3세	179.2	76.9	102.3	(487)	2.9
4세	208.2	101.5	106.8	(463)	3.3
5세	201.3	103.2	98.1	(464)	3.1
<i>F</i>	4.7***(a)	19.6***(a)	20.4***(a)		33.9***(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2024년 조사에서는 순보육료를 조사하지 않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를 살펴보면, 3세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4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과 비교하여 다른 연령의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5세의 월평균 보육료·교육비가 감소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보육료·교육비가 조금씩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3세의 경우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19만300원인데 비해, 5세의 경우에는 16만1,900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의 경우 순교육비도 3세 9만9,600원, 5세 7만700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는데, 이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용 수준을 보이며, 3~5세의 경우 142만원에서 151만원 사이 수준의 총 비용을 나타냈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는 워낙 관측치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4-6〉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F
어린이집								
총비용 ¹⁾	18.0	62.1	80.8	90.3	85.3	76.6	70.3	36.7*** ^(a)
2021년	10.5	38.5	55.5	66.7	64.5	79.9	56.0	40.4***
순보육비	-	-	-	-	-	-	-	-
2021년	1.3	5.3	6.6	11.6	6.7	9.4	7.3	2.7*
(수)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유치원								
총비용	-	-	-	190.3	182.8	161.9	177.0	1.7
2021년	-	-	-	211.0	194.5	171.6	188.7	2.9
순교육비	-	-	-	99.6	93.1	70.7	86.5	4.1* ^(a)
2021년	-	-	-	133.4	121.4	106.0	117.7	2.8
(수)	-	-	-	(234)	(277)	(281)	(792)	
반일제이상 학원								
총비용	-	1,725.4	1,638.0	1,423.4	1,514.9	1,432.3	1,477.4	0.2
2021년	-	1,664.0	1,292.2	839.2	1,295.4	1,220.1	1,198.6	1.6
순교육비	-	1,618.7	1,265.2	972.8	1,026.0	1,120.8	1,088.0	0.9 ^(a)
2021년	-	1,100.0	938.6	572.8	1,021.7	901.2	900.0	2.5
(수)	-	(2)	(3)	(12)	(17)	(20)	(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2024년 조사에서는 순보육료를 조사하지 않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12. 〈표 V-4-6〉.

* $p < .05$, *** $p < .001$.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보육료·교육비를 살펴보면, 전체 비용 기준 대도시(20만 3,900원), 중소도시(12만800원), 읍면 지역(6만400원) 순이었으며, 이는 순보육·교육비와 추가비용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또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추가비용에서 취업모인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높게 났으나 순보육·교육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비용, 순보육·교육비, 추가비용 모두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 평균 전체비용이 5만6,900원인데 반해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 평균 21만6,7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4-7〉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비용	순보육·교육비	추가비용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45.8	59.6	86.2	(2,512)	2.3
지역규모					
대도시	203.9	102.6	101.3	(1,071)	3.0
중소도시	120.8	36.0	84.8	(1,067)	2.1
읍·면	60.4	13.3	47.1	(374)	1.3
<i>F</i>	41.7*** (a)	34.1*** (a)	25.3*** (a)		32*** (a)
모 취업 여부					
취업	160.9	67.7	93.2	(1,435)	2.2
휴직 중	144.6	62.8	81.8	(212)	2.6
미취업	120.5	45.4	75.1	(845)	2.5
부재 등	117.8	36.3	81.5	(20)	4.4
<i>F</i>	3.6* (a)	1.9(a)	3.8** (a)		3.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6.9	12.9	44.0	(121)	3.0
300~349만원	93.3	26.2	67.1	(149)	3.0
350~399만원	84.2	14.2	70.0	(148)	2.3
400~499만원	96.5	20.2	76.3	(411)	2.3
500~599만원	133.5	52.8	80.6	(495)	2.6
600~699만원	122.2	41.7	80.4	(370)	2.0
700만원 이상	216.7	108.5	108.2	(783)	2.2
모름/무응답	199.2	99.1	100.1	(35)	-
<i>F</i>	13*** (a)	10.3*** (a)	7.2*** (a)		2.4* (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2024년 조사에서는 순보육료를 조사하지 않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입소비용(입학준비금, 입학금)은 없는 경우가 39.4%이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10~15만원 미만을 지불했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이 11.9%였다. 평균 입소비용은 8만800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입소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또한 구간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입소비용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2021년 27.8%에 비해 입소비용이 없는 비율이 더 많아졌으며, 평균비용도 2만원가량 줄어들었다.

〈표 V-4-8〉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입소비(입학준비금, 입학금)

단위: %, 천원, (명)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4	11.5	11.9	21.8	4.2	11.1	(2,512)	80.8(153.6)
지역규모								
대도시	36.5	11.1	12.2	20.0	4.3	15.8	(1,071)	104.1(205.3)
중소도시	37.0	12.8	11.5	26.0	3.8	8.9	(1,067)	70.2(104.3)
읍·면	55.7	8.1	12.4	13.6	5.6	4.7	(374)	48.4(94.7)
F	22.8*** (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8.6	8.0	12.2	13.0	1.1	7.0	(121)	47.2(101.5)
300~349만원	44.7	14.3	7.7	20.8	3.0	9.6	(149)	58.1(87.7)
350~399만원	41.3	10.2	20.4	18.6	2.8	6.6	(148)	66.3(119.4)
400~499만원	41.9	10.1	12.8	23.1	4.5	7.5	(411)	62.6(93.2)
500~599만원	35.5	12.4	12.3	23.8	5.1	10.9	(495)	84.6(150.9)
600~699만원	41.1	11.2	10.2	21.3	4.0	12.2	(370)	73.5(106.7)
700만원 이상	35.4	12.6	11.9	21.2	4.6	14.3	(783)	102.1(207.5)
모름/무응답	45.0	1.4	3.9	38.6	4.1	7.0	(35)	74.1(98.3)
F	4.7*** (a)							
2021년	27.8	9.7	17.7	27.3	5.5	12.0	(2,587)	100.7(190.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13. 〈표 V-4-8〉.

*** $p < .001$.

라. 보육료·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비용 부담 의사

1) 보육료·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현재 매월 기관에 내는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21년 25.2%, 2018년 30.3%와 2015년 35.2%에 비교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비용 부담 정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2.6점으로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연령으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비용부담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용기관 유형별로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부담 점수가 5점 만점 기준 3.9점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각 2.7점과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 정도를 보였다.

〈표 V-4-9〉 총 보육·교육 비용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적절함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전체	23.3	16.5	40.0	17.8	2.4	100.0(2,512)	2.6
영유아구분							
영아	26.7	19.4	39.6	13.0	1.2	100.0(1,098)	2.3
유아	20.9	14.5	40.2	21.1	3.3	100.0(1,414)	2.7
$\chi^2(df)/t$	51.1(4)***						-6.5***
보육연령							
0세	44.7	22.3	30.0	3.0	-	100.0(226)	2.2
1세	25.6	20.2	38.8	15.4	0.1	100.0(415)	2.1
2세	19.8	17.5	44.7	15.0	3.0	100.0(457)	2.4
3세	20.0	15.4	40.2	21.0	3.4	100.0(487)	2.7
4세	22.6	10.7	41.6	21.7	3.4	100.0(463)	2.7
5세	20.2	17.2	38.9	20.7	3.0	100.0(464)	2.7
$\chi^2(df)/F$	127.2(20)***						20.6***
지역규모							
대도시	19.6	14.8	41.3	21.2	3.1	100.0(1,071)	2.7
중소도시	21.9	16.9	41.5	17.3	2.4	100.0(1,067)	2.6
읍·면	38.7	20.2	31.0	9.6	0.6	100.0(374)	2.1
$\chi^2(df)/F$	83.2(8)***						41.1***
모 취업 여부							
취업	24.5	16.9	37.5	18.1	3.0	100.0(1,435)	2.6
휴직 중	20.6	15.3	40.6	22.9	0.6	100.0(212)	2.7
미취업	22.3	15.8	43.7	16.4	1.9	100.0(845)	2.6
부재 등	9.3	26.6	52.2	8.3	3.5	100.0(20)	2.7
$\chi^2(df)/F$	25.1(12)*						0.5(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3.9	19.4	40.3	15.5	0.9	100.0(121)	2.5
300~349만원	17.7	16.1	43.3	22.2	0.6	100.0(149)	2.7
350~399만원	22.7	14.8	41.6	17.9	3.0	100.0(148)	2.6
400~499만원	23.7	18.9	37.2	16.4	3.9	100.0(411)	2.6
500~599만원	21.2	14.8	43.3	18.5	2.3	100.0(495)	2.7
600~699만원	23.1	18.1	37.6	20.3	0.9	100.0(370)	2.6
700만원 이상	26.3	15.5	38.7	16.4	3.1	100.0(783)	2.5
모름/무응답	9.2	18.8	53.3	18.6	-	100.0(35)	2.8
$\chi^2(df)/F$	39.4(28)						1.2(a)
이용 기관 유형(전연령)							
어린이집	24.6	18.4	41.6	14.0	1.4	100.0(1,666)	2.5
유치원	22.8	14.1	37.9	22.2	3.0	100.0(792)	2.7
반일제이상 학원	-	-	26.0	54.9	19.1	100.0(54)	3.9
$\chi^2(df)/F$	210.4(8)***						69.1*** (a)
이용 기관 유형(유아)							
어린이집	20.9	16.4	44.6	16.2	1.9	100.0(573)	2.6
유치원	22.8	14.1	37.9	22.2	3.0	100.0(792)	2.7
반일제이상 학원	-	-	26.6	54.4	19.0	100.0(49)	3.9
$\chi^2(df)/F$	135.6(8)***						45.9*** (a)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적절함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2021년 조사	17.2	13.3	44.3	22.2	3.0	100.0(2,591)	
2018년 조사	16.6	14.6	38.5	25.9	4.4	100.0(2,830)	
2015년 조사	9.7	13.8	41.3	30.3	4.9	100.0(2,535)	
2012년 조사	10.3	22.9	22.9	35.9	8.1	100.0(2,138)	
2009년 조사	6.0	9.7	20.1	46.5	17.7	100.0(1,9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14. <표 V-4-9>.

* $p < .05$, *** $p < .001$.

다음은 정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매월 부모가 기관에 내는 비용 중 추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활동비’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급간식비 16.0%, 현장학습비 15.7%, 기타비용 15.3%로 세 항목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특별활동비(50.9%), 현장학습비(18.1%)가 높게 나타났고,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특별활동비(48.5%) 다음으로 기타비용(20.5%), 급간식비 지원(17.3%)을 원했고,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는 기타비용(32.6%), 급간식비(28.8%) 지원을 더 높은 비율로 원하고 특별활동비 지원이 24.4%로 낮게 나타났다.

〈표 V-4-10〉 매월 기관에 내는 비용 우선지원

단위: %, (명)

구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특별활동비	기타비용	계(수)
전체	15.7	3.6	16.0	49.4	15.3	100.0(2,512)
기관유형						
어린이집	18.1	4.3	14.8	50.9	12.0	100.0(1,666)
유치원	11.8	1.9	17.3	48.5	20.5	100.0(792)
반일제이상	6.6	7.6	28.8	24.4	32.6	100.0(54)
$\chi^2(df)$	91.7(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보육·교육비 부담 의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3.6%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8년 40.5%, 2015년 29.6%에 비해 더욱 높아진 수치이나, 2021년 수치와는 유사했다. 한편,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평균 7만 5,700원으로, 2018년 11만4,400원, 2021년 9만6,800원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부담할 의사는 보육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고, 어린이집 재원, 유치원 재원, 반일제이상 학원 재원 순으로 낮아져 현재 많은 비용을 내고 있을수록 추가 부담 의사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불 가능한 추가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취업모의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1〉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추가 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추가 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3.6	46.4	(2,512)	75.7	73.4	1.0	900.0	(1,353)
영유아구분								
영아	55.1	44.9	(1,098)	74.7	72.7	3.0	700.0	(618)
유아	52.6	47.4	(1,414)	76.5	73.9	1.0	900.0	(735)
$\chi^2(df)/t$	1.6(1)			-0.4				
보육연령								
0세	60.6	39.4	(226)	73.9	54.4	10.0	300.0	(132)
1세	55.6	44.4	(415)	75.9	77.9	3.0	700.0	(236)
2세	52.0	48.0	(457)	73.9	75.6	5.0	500.0	(250)
3세	57.6	42.4	(487)	84.8	89.0	2.0	900.0	(265)
4세	54.8	45.2	(463)	65.4	49.9	1.0	300.0	(245)
5세	46.0	54.0	(464)	79.6	76.6	2.0	900.0	(225)
$\chi^2(df)/F$	20.6(5)**			2.1(a)				
지역규모								
대도시	54.2	45.8	(1,071)	81.3	77.1	1.0	700.0	(574)
중소도시	52.9	47.1	(1,067)	74.6	71.0	2.0	900.0	(575)
읍·면	53.8	46.2	(374)	63.4	68.3	2.0	900.0	(204)
$\chi^2(df)/F$	0.4(2)			4.4*				
모 취업 여부								
취업	57.0	43.0	(1,435)	83.2	82.1	2.0	900.0	(822)
휴직 중	62.7	37.3	(212)	64.3	57.1	1.0	500.0	(132)
미취업	45.7	54.3	(845)	63.8	54.6	2.0	500.0	(391)
부재 등	41.5	58.5	(20)	60.0	23.4	30.0	100.0	(8)
$\chi^2(df)/F$	36.2(3)**			7.5**(a)				

구분	추가 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3.8	56.2	(121)	52.0	41.2	2.0	200.0	(53)
300~349만원	39.7	60.3	(149)	55.1	47.9	2.0	210.0	(60)
350~399만원	47.3	52.7	(148)	50.5	45.4	2.0	200.0	(72)
400~499만원	49.5	50.5	(411)	74.6	87.5	5.0	900.0	(211)
500~599만원	52.5	47.5	(495)	70.8	46.2	5.0	300.0	(248)
600~699만원	59.5	40.5	(370)	72.9	76.3	2.0	900.0	(213)
700만원 이상	59.5	40.5	(783)	87.2	75.0	1.0	900.0	(481)
모름/무응답	36.3	63.7	(35)	103.9	208.4	10.0	700.0	(15)
$\chi^2(df)/F$		42.7(7)***				4.8***(a)		
이용 기관 유형(전 연령)								
어린이집	55.9	44.1	(1,666)	75.9	74.3	2.0	900.0	(944)
유치원	51.1	48.9	(792)	71.9	66.1	2.0	900.0	(390)
반일제이상 학원	29.2	70.8	(54)	138.4	121.4	1.0	400.0	(19)
$\chi^2(df)/F$		23.3(2)**				8.7*** (a)		
이용 기관 유형(유아)								
어린이집	57.0	43.0	(573)	78.5	77.8	2.0	900.0	(328)
유치원	51.1	48.9	(792)	71.9	66.1	2.0	900.0	(390)
반일제이상 학원	28.8	71.2	(49)	132.5	118.6	1.0	400.0	(17)
$\chi^2(df)/F$		21.3(2)***				6.7** (a)		
2021년 조사	53.5	46.5	(2,591)	96.8	96.2	10.0	1,500.0	(1,344)
2018년 조사	40.5	59.5	(2,830)	114.4	98.2	10.0	500.0	(1,144)
2015년 조사	29.6	70.4	(2,535)	118.5	105.9	5.0	600.0	(712)
2012년 조사	23.5	76.5	(2,392)	165.3	116.4	30.0	700.0	(556)
2009년 조사	26.6	73.4	(2,050)	109.6	96.6	10.0	900.0	(5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15~216. <표 V-4~10>.

* $p < .05$, ** $p < .01$, *** $p < .001$.

5.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가.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를 물었는데, 보육·교육계획, 급간식식단, 가정통신문, 부모상담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세 기관에서 모두 92% 이상의 비율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 어린이집에서는 양방향 알림장은 93.5%로 높게 제공하고 있는 반면 발달평가가 69.3%로 제공비율이 낮으나, 유치원은 부모참여프로그램을 90.4%로 타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로 제공하는 반면 양방향 알림장이 78.8%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반일제이상 학원은 발달평가를 92.6%로 높은 비율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부모교육자료가 60.5%로 낮은 비율로 제공하고 있어,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발달평가 65.8%, 부모교육자료 77.8%, 부모참여프로그램 63.7%, 양방향 알림장을 84.9% 제공하는 것에 비해 2024년에는 발달평가 70.9%(2021년 대비 5.1%p 증가), 부모교육자료 83.7%(2021년 대비 5.9%p 증가), 부모참여프로그램 87.7%(2021년 대비 24.0%p 증가), 양방향 알림장을 88.7%(2021년 대비 3.8%p 증가)로 대부분의 부모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부모참여프로그램의 제공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수요나 필요에 따라서 부모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5-1〉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1년
보육·교육계획	98.2	99.0	94.6	98.3	98.5
급간식 식단	98.8	98.8	100.0	98.8	99.2
가정통신문	98.4	99.1	100.0	98.7	99.1
발달평가	69.3	72.3	92.6	70.9	65.8
부모상담	92.8	94.4	97.3	93.4	91.3
부모교육자료	83.8	85.8	60.5	83.7	77.8
부모참여프로그램	86.8	90.4	81.4	87.7	63.7
양방향 알림장	93.5	78.8	86.2	88.7	84.9
(수)	(1,666)	(792)	(54)	(2,512)	(2,59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16~217. 〈표 V-5-1〉.

보육·교육계획을 제공받은 경우 매주 1회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48.5%로 가장 많았는데, 어린이집(47.8%), 유치원(50.9%)은 매주 1회 제공이 가장 높았으나, 반일제이상 학원은 월 1회 보육·교육계획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간식 식단의 경우에는 월 1회 제공받는다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가 58.3%로 가장 높고,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제공받는다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았다. 부모상담의 경우에는 연 1~2회 제공받는다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분기 1회가 31.0%로 그다음으로 높았는데, 발달평가의 경우에도 연 1~2회

(26.2%), 분기 1회(25.3%)가 유사한 비율로 높은 편이었다. 단, 발달평가의 경우 제공을 안 하거나(14.6%), 모른다는 경우(14.5%)도 높은 편으로 부모들의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모교육자료 제공은 월 1회(28.8%), 분기 1회(21.0%)의 빈도로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부모참여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연 1~2회 제공된다는 비율이 35.5%, 분기 1회가 29.6%로 비교적 긴 주기를 보였다.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는 연도별 추이에 따라 부모 서비스의 빈도에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나, 보육·교육계획의 경우는 매주 1회 제공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월 1회 제공하는 비율이 점차 늘었다. 또한 급간식 식단의 경우도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V-5-2〉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빈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1년	'18년	'15년
보육·교육계획							
매일	10.0	8.1	7.8	9.4	6.1	4.4	5.0
매주 1회	47.8	50.9	37.5	48.5	59.5	68.2	64.9
월 1회	38.3	37.3	47.0	38.2	31.0	23.8	27.0
분기 1회	0.9	1.3	-	1.0	-	1.9	-
연 1~2회	1.2	1.5	2.4	1.3	-	1.1	-
기타	-	-	-	-	1.9	-	1.8
제공 안 함	0.4	-	5.4	0.4	0.5	0.2	0.6
모름	1.4	1.0	-	1.2	1.0	0.4	0.7
급간식 식단							
매일	35.0	27.4	27.1	32.4	20.0	7.8	6.3
매주 1회	14.2	16.5	11.2	14.8	22.9	34.4	35.4
월 1회	49.4	54.6	61.7	51.4	56.2	57.0	55.4
분기 1회	0.1	0.3	-	0.2	-	0.1	-
연 1~2회	0.0	0.0	-	0.0	-	0.3	-
기타	-	-	-	-	0.1	-	1.0
제공 안 함	0.2	-	-	0.1	0.2	0.2	1.0
모름	1.0	1.2	-	1.1	0.6	0.2	0.9
가정통신문							
매일	15.0	13.2	17.7	14.5	12.1	10.1	9.7
매주 1회	55.5	66.2	37.9	58.3	66.4	73.1	70.1
월 1회	26.6	19.0	43.2	24.7	19.6	15.1	17.1
분기 1회	1.1	0.6	-	0.9	-	1.0	-
연 1~2회	0.3	0.1	1.1	0.3	-	0.4	-
기타	-	-	-	-	1.1	-	1.6
제공 안 함	0.2	-	-	0.1	-	0.2	0.5
모름	1.4	0.9	-	1.2	0.8	0.1	0.9
발달평가							
매일	5.7	2.6	1.7	4.6	3.3	2.5	3.5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21년	'18년	'15년
매주 1회	4.0	3.7	11.2	4.1	3.8	5.4	6.8
월 1회	9.5	10.8	35.2	10.7	11.2	13.1	16.4
분기 1회	24.6	26.5	29.0	25.3	24.0	27.8	25.3
연 1~2회	25.5	28.8	15.5	26.2	23.5	25.2	26.0
제공 안 함	13.7	17.1	7.4	14.6	18.7	15.5	13.5
모름	17.1	10.6	-	14.5	15.5	10.3	8.5
부모상담							
매일	2.9	1.4	1.4	2.4	3.0	1.9	2.0
매주 1회	2.4	2.2	22.1	2.9	3.6	2.1	2.8
월 1회	7.3	6.2	31.0	7.6	7.9	6.6	7.9
분기 1회	30.7	32.8	19.7	31.0	30.1	32.2	26.0
연 1~2회	49.5	51.9	23.0	49.5	46.7	50.7	53.0
제공 안 함	1.9	1.8	-	1.8	3.2	4.0	4.1
모름	5.3	3.9	2.7	4.8	5.6	2.6	4.4
부모교육 자료							
매일	2.9	2.2	-	2.6	2.3	1.2	1.2
매주 1회	16.1	13.1	7.9	14.9	16.3	13.2	13.3
월 1회	30.0	26.4	26.5	28.8	30.5	22.5	20.4
분기 1회	19.9	23.4	17.9	21.0	15.2	20.8	18.0
연 1~2회	14.8	20.7	8.1	16.4	13.5	24.9	27.4
제공 안 함	4.3	6.3	39.5	6.0	9.3	9.7	11.2
모름	11.9	7.9	-	10.3	12.9	7.7	8.5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2.7	2.2	-	2.5	2.1	0.8	0.7
매주 1회	3.9	3.8	-	3.8	4.1	2.4	2.8
월 1회	18.6	12.6	8.4	16.4	15.6	9.3	10.7
분기 1회	30.5	28.0	25.9	29.6	18.4	29.2	24.1
연 1~2회	30.9	43.8	47.1	35.5	23.6	46.3	45.6
제공 안 함	3.5	2.5	17.0	3.6	17.9	6.2	8.9
모름	9.7	7.1	1.6	8.7	18.4	5.8	7.2
양방향 알림장							
매일	67.1	38.5	57.7	57.8	59.3	61.2	-
매주 1회	19.9	27.3	21.9	22.3	18.8	15.0	-
월 1회	4.0	9.8	4.3	5.8	5.0	2.8	-
분기 1회	1.7	1.8	2.4	1.7	1.0	3.1	-
연 1~2회	0.9	1.4	-	1.0	0.8	1.3	-
제공 안 함	1.8	14.6	13.8	6.2	10.1	12.1	-
모름	4.7	6.6	-	5.1	5.0	4.5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17~218. <표 V-5-2>.

나.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에서 제공하는 부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과 ‘매우 만족’ 한다는 응답이 90% 내외로 높아 모든 서비스에서 5점 중 평균 4.3점 또는 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모든 서비스에서 0.2~0.3점 상승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2021년 조사 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서비스 제공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2024년에는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V-5-3〉 기관 제공 부모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2021년	
									평균	표준편차
보육·교육계획	50.6	43.3	5.6	0.3	0.1	100.0(2,469)	4.4	0.6	4.2	0.7
급간식 식단	50.4	43.0	6.0	0.5	0.1	100.0(2,484)	4.4	0.6	4.2	0.7
가정통신문	50.6	43.4	5.2	0.8	0.1	100.0(2,476)	4.4	0.6	4.2	0.7
발달평가	45.6	42.0	11.0	1.0	0.4	100.0(1,760)	4.3	0.7	4.1	0.8
부모상담	43.6	43.5	11.2	1.3	0.4	100.0(2,353)	4.3	0.7	4.0	0.8
부모교육 자료	43.6	43.4	12.0	0.7	0.3	100.0(2,108)	4.3	0.7	4.0	0.8
부모참여 프로그램	42.5	43.8	12.3	0.9	0.5	100.0(2,196)	4.3	0.7	4.0	0.8
양방향 알림장	50.4	40.6	7.5	1.2	0.3	100.0(2,222)	4.4	0.7	4.2	0.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19. 〈표 V-5-3〉.

이용 기관 유형별로 기관 제공 부모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다. 부모서비스 종류로 살펴보면, 보육·교육계획, 가정통신문은 모든 기관이 대부분 90% 이상이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급간식식단은 반일제이상 학원(89.4%)이 약간 낮았으며, 발달평가, 부모교육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이 각각 77.5%, 77.0%, 68.0%로 만족도가 타 기관보다 낮았다. 양방향 알림장의 경우는 어린이집 영아가 94.1%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이 9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영아의 경우 교사와 가정이 아이의 상황을 보다 원활한 소통하기 위해 양방향 알림장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V-5-4〉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별 만족(매우 만족+만족)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계(수)
		전체	영아	유아			
보육·교육계획	94.0	94.5	95.1	93.6	93.1	91.7	100.0(2,469)
급간식 식단	93.4	94.1	94.6	93.3	92.4	89.4	100.0(2,484)
가정통신문	93.9	94.7	95.5	93.3	92.6	91.4	100.0(2,476)
발달평가	87.6	89.1	88.9	89.3	85.8	77.5	100.0(1,760)
부모상담	87.1	87.6	88.0	87.0	86.3	84.7	100.0(2,353)
부모교육 자료	87.0	88.5	89.9	86.4	84.5	77.0	100.0(2,108)
부모참여 프로그램	86.3	87.3	88.2	85.9	86.0	68.0	100.0(2,196)
양방향 알림장	90.9	92.7	94.1	90.3	86.9	88.3	100.0(2,222)
2024년	90.0	91.1	91.8	89.9	88.5	83.5	-
2021년	80.7	82.7	83.8	81.4	77.2	76.5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0. 〈표 V-5-4〉.

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가. 이용기관별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특성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 경험 확장 등을 위해 학부모·유아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 이 장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V장에서는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이용현황을 개관하고 있으며, VI~VIII장에서는 기관별 이용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과목별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78.5%로 가장 높았고, 예능(미술, 음악) 75.0%, 영어 67.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8.3%, 수학/과학 관련 46.3%의 순서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는 2021년 조사에 비해서도 언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5%p 이상 증가하여, 특별활동 운영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관 유형에 따라 특별활동을 운영한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은 체

육 74.0% 예능 70.2%로 예체능 과목에서 높은 운영비율을 보였고, 영어 59.2%, 수학/과학 및 언어 과목은 50%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예능 85.0%, 체육 88.2%, 수학/과학 64.4%, 영어 83.4%, 언어 63.5%로 전반적으로 높은 운영비율을 보였다. 반면, 반일제학원의 경우 예능(미술, 음악)은 75.8%, 체육관련 76.1%로 유치원에 비해 낮은 운영 비율을 보인 데 반해, 수학/과학관련 71.8%로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 비율을 보였다.

〈표 V-6-1〉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75.0	78.5	46.3	67.0	48.3	18.4
어린이집	70.2	74.0	36.5	59.2	40.9	19.8
유치원	85.0	88.2	64.4	83.4	63.5	15.1
반일제이상	75.8	76.1	71.8	65.5	50.2	21.6
2021년	56.7	55.5	31.3	34.2	47.7	10.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1. 〈표 V-6-1〉.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비율은 과목별로 예능(미술, 음악) 64.3%, 체육관련 67.1%, 영어 55.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4.4%, 수학/과학관련 33.7%, 기타 13.6% 순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체육(62.8%), 예능(59.3%), 영어(46.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26.0%) 순으로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었고,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체육(78.4%), 예능(76.4%), 영어(75.0%), 수학/과학(53.8%),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52.4%)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과목이 5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는 예능(46.9%), 체육(42.2%), 수학/과학(42.3%), 영어(38.8%) 순으로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특별활동(27.3%)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2021년 조사에 비해서 영유아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예능 15.3%p, 체육 18.6%p, 수학 9.5%p, 영어 12.5%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21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축소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유인된 반등 효과로 보여진다.

〈표 V-6-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64.3	67.1	33.7	55.2	34.4	13.6
어린이집	59.3	62.8	23.6	46.5	26.0	15.1
유치원	76.4	78.4	53.8	75.0	52.4	11.1
반일제이상 학원	46.9	42.2	42.3	38.8	27.3	8.9
2021년	49.0	48.5	24.2	42.7	25.7	7.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1. 〈표 V-6-2〉.

특별활동 이용개수를 살펴보면, 5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27.3%에 달했으며, 이용이 없는 경우가 22.2%, 3개가 16.3%, 4개인 경우가 13.7%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 특별활동 2.9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평균 3.6개로 영아 1.8개보다 이용 개수가 많았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평균 이용 갯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5개 이상 이용하는 비중이 30.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로는 평균 어린이집 이용자 2.5개, 유치원 이용자 3.7개,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 2.4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 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2년 평균 3개 이후 2015년 2.4개, 2018년 2.5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균 2.1개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에는 2.9개로 다시 이용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6-3〉 이용 특별활동 개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2.2	7.5	13.0	16.3	13.7	27.3	(2,512)	2.9
영유아구분								
영아	34.1	9.8	19.2	20.0	9.1	7.7	(1,098)	1.8
유아	14.0	5.9	8.7	13.7	16.8	40.9	(1,414)	3.6
$\chi^2(df)/t$	464.0(5)**							-22.9**
보육연령								
0세	73.2	8.4	7.1	5.9	2.2	3.1	(226)	0.7
1세	33.2	11.0	23.5	16.7	9.2	6.4	(415)	1.8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2세	17.4	9.3	20.3	29.8	12.2	11.0	(457)	2.5
3세	14.9	5.8	9.0	16.9	16.8	36.5	(487)	3.4
4세	13.8	5.9	8.7	12.5	18.7	40.5	(463)	3.6
5세	13.3	6.0	8.6	12.0	15.1	45.0	(464)	3.7
$\chi^2(df)/F$	758.3(25)***							125.8*** (a)
지역규모								
대도시	20.8	8.1	12.3	16.4	12.4	30.0	(1,071)	3.0
중소도시	23.3	6.8	12.6	17.7	13.5	26.0	(1,067)	2.8
읍·면	22.8	8.0	16.3	11.1	17.9	23.9	(374)	2.7
$\chi^2(df)/F$	24.8(10)**							1.8
기관유형								
어린이집	27.0	8.2	15.0	17.9	12.4	19.4	(1,666)	2.5
유치원	10.9	5.9	9.2	13.2	16.1	44.6	(792)	3.7
반일제이상 학원	36.0	7.8	9.2	13.1	15.3	18.6	(54)	2.4
$\chi^2(df)/F$	228.3(10)***							103.7*** (a)
2021년	38.6	8.1	10.8	14.6	9.8	18.1	(2,591)	2.1
2018년	27.3	7.0	13.2	19.8	13.7	19.1	(2,830)	2.5
2015년	30.7	7.9	13.2	19.5	13.0	15.9	(2,535)	2.4
2012년	34.5	10.3	17.0	17.9	10.6	9.9	(2,392)	3.0
2009년	41.5	16.7	16.6	12.8	6.4	6.0	(2,048)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 아동조사.

2) 200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2. <표 V-6-3>.

** $p < .01$, *** $p < .001$.

특별활동 과목별 이용비용은 기타를 제외하고 월평균 영어가 2만9,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체육 2만6,500원, 예능(미술, 음악)이 2만5,900원, 수학/과학 2만2,400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과목별로 표준편차가 매우 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치원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보다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그 차이는 최소 2,300원(예능)에서 최대 1만원 정도(영어)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다. 하지만,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월등히 높았는데, 영어 10만900원, 예능(미술, 음악) 9만1,000원 등 유치원과 비교하여 과목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의 3~4배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

2018년에 비해서는 2021년이 이용비용이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줄어 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모든 과목에서의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활동 평균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조사된 결과이

므로,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용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포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1년 전반적으로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이 2018년에 비해 낮아졌다가 2024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별활동 이용 갯수가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V-6-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

구분	전체				기관별				(수)	'21년 평균	'18년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F			
예능(미술, 음악)	25.9	25.0	1.0	400.0	23.7	26.0	91.0	103.3*** ^(a)	(1,011)	19.7	23.0
체육관련	26.5	22.7	2.0	270.0	24.0	29.4	84.0	77.1*** ^(a)	(1,033)	15.9	20.0
수학/과학 관련	22.4	22.8	1.0	250.0	18.3	23.3	89.1	89.1*** ^(a)	(446)	16.0	19.7
영어	29.2	34.8	1.0	350.0	24.2	34.4	100.9	51.5*** ^(a)	(843)	30.3	24.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21.6	20.7	1.0	250.0	17.9	23.9	69.5	47.2*** ^(a)	(460)	17.1	19.9
기타	34.0	35.3	1.0	320.0	32.3	34.6	80.9	6.4**	(251)	22.4	24.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23~224. 〈표 V-6-5〉.

** $p < .01$, *** $p < .001$.

가구특성별 특별활동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5~10만원 미만이 32.9%로 가장 높았고, 무료가 28.3%로 다음으로 높았다. 특별활동 지불시 평균 금액은 8만3,800원이나 표준편차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평균 6만4,000원, 유아는 평균 9만 6,500원으로 유아가 영아보다 지불하는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높게 나타났고, 보육연령이 높아지면서 최저 0세 2만1,300원에서 최고 4세 평균 10만 400원으로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특별활동 이용갯수와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도시(9만4,800원)와 중소도시(8만300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읍·면지역(5만6,800원)보다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반일제이상 학원이 25만 4,700으로 월등히 높은 비용을 내고 있었고, 유치원 10만1,500원, 어린이집 7만600원으로 기관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5년 특별활동 월평균 총 이용비용은 7만4,100원, 2018년은 6만8,900원으로, 2021년도에는 6만5,600원인데 반해 2024년은 8만3,800원으로 평균 1만8,200원가량

늘었다. 2021년에 비해 무료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비율은 다소 늘었지만, 특별활동 이용개수가 늘면서 비용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6-6〉 제 특성별 특별활동 이용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수)	지불 시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8.3	0.6	2.1	4.6	12.0	32.9	11.8	3.6	4.0	(1,930)	83.8	76.9
영유아구분												
영아	19.1	0.7	3.1	7.9	19.6	34.0	12.4	2.4	0.8	(710)	64.0	39.9
유아	33.2	0.5	1.6	2.8	8.1	32.3	11.6	4.2	5.6	(1,220)	96.5	90.8
<i>t</i>											-9.2***	
보육연령												
0세	44.5	1.9	10.0	5.0	11.9	26.7	-	-	-	(58)	41.2	21.3
1세	19.8	0.5	3.8	7.9	26.4	27.4	10.9	2.3	0.9	(277)	60.0	38.8
2세	14.8	0.7	1.6	8.3	15.1	40.4	15.4	2.9	0.9	(375)	69.2	41.1
3세	28.8	0.9	0.6	2.7	7.2	34.1	15.2	3.8	6.8	(410)	99.2	86.4
4세	32.7	0.7	2.8	1.2	9.5	33.3	10.3	4.0	5.3	(404)	97.4	100.4
5세	37.4	-	1.5	4.4	7.4	29.9	9.6	4.8	4.9	(406)	92.9	85.0
<i>F</i>											13.7***(a)	
지역규모												
대도시	26.5	0.2	2.1	3.4	12.0	31.2	14.8	4.0	5.7	(843)	94.8	88.3
중소도시	25.4	1.0	1.8	4.3	12.5	35.4	11.8	4.2	3.5	(805)	80.3	64.9
읍·면	43.2	0.4	3.4	8.8	10.6	29.8	3.0	0.6	0.2	(282)	56.8	69.2
<i>F</i>											16.7***(a)	
기관유형												
어린이집	20.2	0.5	3.0	5.9	14.4	37.8	13.2	3.7	1.2	(1,196)	70.6	43.3
유치원	42.0	0.8	0.8	2.5	8.2	26.5	9.3	3.2	6.7	(701)	101.5	96.2
반일제이상	32.8	-	-	1.5	7.2	5.2	13.5	6.7	33.2	(33)	254.7	216.9
<i>F</i>											123.9***(a)	
2021년	27.6	1.9	2.8	5.6	12.8	28.0	11.9	4.7	4.6	(1,674)	65.6	121.5
2018년	1.0	0.1	3.6	10.0	24.0	41.5	13.5	3.3	3.1	(2,077)	68.9	58.5
2015년	3.2	0.5	1.7	6.3	20.4	44.6	15.2	5.1	1.7	(1,798)	74.1	48.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5. 〈표 V-6-6〉.

*** $p < .001$.

특별활동 과목별 주당 이용 횟수는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가 1.5회, 수학/과학이 각 1.3회 예능, 체육은 1.2회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어린이집 주 1.4회, 유치원 주 1.7회, 반일제이상 학원 2.5회로 기관별 이용횟수에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표 V-6-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이용 비율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에서의 영어 특별활동 이용비율은 타 기관에 비해 낮았는데, 일단 이용하는 경우 빈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이용비용이 높아지게 된 요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전반적으로 특별활동 이용횟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활동 이용 갯수 등은 증가한 상황으로, 2021년 대비 2024년에 특별활동의 과목별 종류가 좀 더 다양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6-7> 특별활동 과목별 주당 이용 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기관별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21년 평균	어린이 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F	
예능(미술, 음악)	1.2	0.6	1.0	5.0	1.4	1.2	1.4	1.2	16.4*** (a)	(1,619)
체육관련	1.2	0.6	1.0	5.0	1.3	1.1	1.3	1.2	10.4*** (a)	(1,681)
수학/과학 관련	1.3	0.8	1.0	5.0	1.4	1.2	1.4	1.1	3.0* (a)	(779)
영어	1.5	1.0	1.0	5.0	1.8	1.4	1.7	2.5	23.0*** (a)	(1,30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5	1.1	1.0	5.0	1.6	1.4	1.6	1.2	4.2* (a)	(843)
기타	1.1	0.5	1.0	6.0	1.6	1.1	1.2	1.1	0.7	(3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6. <표 V-6-7>.

* $p < .05$, *** $p < .001$.

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모든 과목이 평균 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반일제이상 학원이 4.0점 전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는 2021년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2021년보다는 2024년에 특별활동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영유아 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수요자 부모의 인식과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6-8>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4.3	4.3	4.3	4.3	4.3	4.2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어린이집	4.4	4.4	4.3	4.3	4.4	4.3
유치원	4.2	4.3	4.3	4.2	4.3	4.1
반일제이상	4.0	4.0	4.1	3.9	4.0	4.6
<i>F</i>	12.0***	9.7***(a)	2.0	6.4**(a)	3.5*	3.2*
(수)	(1,619)	(1,681)	(779)	(1,306)	(843)	(320)
2021년	4.1	4.2	4.1	4.1	4.1	4.2
2018년	4.0	4.0	3.9	3.9	3.9	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6. <표 V-6-8>.

* $p < .05$, ** $p < .01$, *** $p < .001$.

특별활동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질문한 결과, 체육이 23.9%, 예능(미술, 음악)이 23.4%로 비슷한 비율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언어(12.9%)와 영어(12.6%)가 그다음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주로 영아는 체육(26.0%)과 예능(21.2%), 유아는 영어(16.9%), 언어(16.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용 기관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은 체육, 유치원은 영어, 반일제이상 학원은 수학/과학 과목을 타 기관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V-6-9> 제 특성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비해당	계(수)
전체	23.4	23.9	2.0	12.6	12.9	3.1	22.2	100.0(2,512)
영유아구분								
영아	21.2	26.0	0.8	6.5	7.1	4.3	34.1	100.0(1,098)
유아	24.9	22.4	2.9	16.9	16.8	2.2	14.0	100.0(1,414)
$\chi^2(df)$	238.0(6)**							
보육연령								
0세	8.1	8.2	-	-	4.9	5.5	73.2	100.0(226)
1세	19.9	28.7	0.6	7.0	6.5	4.0	33.2	100.0(415)
2세	28.3	31.4	1.3	8.9	8.7	4.0	17.4	100.0(457)
3세	24.4	25.5	1.6	14.5	17.6	1.6	14.9	100.0(487)
4세	23.7	19.4	3.9	20.7	16.7	1.8	13.8	100.0(463)
5세	26.4	22.4	3.1	15.3	16.2	3.2	13.3	100.0(464)
$\chi^2(df)$	512.7(30)***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비해당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3.4	21.9	2.5	14.5	13.6	3.3	20.7	100.0(1,071)
중소도시	23.5	25.7	1.7	11.4	11.5	2.8	23.3	100.0(1,067)
읍·면	22.8	23.6	1.5	11.2	15.0	3.2	22.8	100.0(374)
$\chi^2(df)$	16.4(12)							
기관유형								
어린이집	21.9	25.8	1.2	9.0	11.0	4.1	27.0	100.0(1,666)
유치원	27.1	20.5	3.1	20.2	17.0	1.2	10.8	100.0(792)
반일제이상	16.2	15.9	9.6	11.1	10.0	1.2	36.0	100.0(54)
$\chi^2(df)$	199.5(12)***							
2021년	30.2	27.3	2.9	20.7	16.5	2.3		100.0(1,674)
2018년	32.3	26.2	2.9	21.6	12.8	2.7		100.0(2,07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7. <표 V-6-9>.

*** $p < .001$.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른다’ 26.5%, ‘비해당’ 18.8%, ‘잘 안다’ 16.1%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유아자녀의 부모가 영아자녀 부모보다 잘 안다는 비율이 높았고, 보육연령으로는 3세의 경우 잘 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341%)이나 협동어린이집(33.3%) 다니는 자녀의 부모가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협동어린이집은 이용자가 4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6-10〉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잘 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비해당	계(수)
전체	16.1	38.6	26.5	18.8	100.0(1,666)
영유아구분					
영아	12.0	36.4	26.4	25.2	100.0(1,093)
유아	22.8	42.1	26.6	8.5	100.0(573)
$\chi^2(df)$	89.8(3)***				
보육연령					
0세	6.3	23.3	14.2	56.2	100.0(226)
1세	9.5	34.2	32.3	24.1	100.0(413)
2세	17.2	44.5	26.0	12.3	100.0(454)

구분	잘 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비해당	계(수)
3세	26.5	43.5	23.2	6.9	100.0(241)
4세	18.4	41.6	26.6	13.5	100.0(169)
5세	22.4	40.9	30.7	6.0	100.0(163)
$\chi^2(df)$	276.4(15)**				
지역규모					
대도시	17.0	37.8	27.7	17.5	100.0(642)
중소도시	15.3	41.1	25.3	18.2	100.0(753)
읍·면	16.5	32.1	27.1	24.2	100.0(271)
$\chi^2(df)$	9.9(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6.1	39.7	23.2	21.0	100.0(586)
사회복지법인	15.2	40.0	19.1	25.7	100.0(94)
법인·단체등	7.4	38.4	35.7	18.5	100.0(49)
민간	15.0	42.3	31.8	10.8	100.0(619)
가정	13.6	29.9	25.6	30.9	100.0(209)
직장	34.1	26.5	18.6	20.8	100.0(105)
협동	33.3	0.0	0.0	66.7	100.0(4)
$\chi^2(df)$	105.7(1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가. 이용기관별 만족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로, 2018년(80.9%), 2021년(77.7%) 조사에 비해서는 각각 11.0%p, 14.2%p 가량 높아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92.4%, 유치원 91.7%가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한데 반해, 반일제이상 학원 83.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 평균으로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90.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등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90% 이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뿐 아니라 비용, 급간식 관리가 90%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은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뿐 아니라 원장, 급간식 관리, 생활지도 등이 80%~90%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고, 건강관리,

부모참여 및 교육은 70~80%의 만족도, 비용은 45.8%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여, 반일제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온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7-1〉 이용기관별 교직원, 시설, 서비스 질, 비용 등 만족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수)
원장	93.7	95.1	91.7	83.6	(2,512)
교사	96.0	96.0	95.9	96.3	(2,512)
주변환경	86.4	86.6	86.4	81.1	(2,512)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87.5	87.0	88.6	85.6	(2,512)
교재교구 및 장비	90.0	89.6	90.7	91.5	(2,512)
내부분위기	95.1	95.3	94.9	92.6	(2,512)
비용	86.3	88.9	84.9	45.8	(2,512)
건강관리	92.3	92.9	92.7	74.8	(2,512)
급간식 관리	91.0	92.2	89.2	84.6	(2,512)
안전관리	95.4	96.0	95.0	85.9	(2,512)
교육내용	94.9	94.7	95.3	94.8	(2,512)
생활지도	95.4	95.6	95.8	87.9	(2,512)
부모참여 및 교육	90.2	90.7	90.7	75.5	(2,512)
전체 평균	91.9	92.4	91.7	83.1	(2,512)
2021년	77.7	79.0	76.7	63.6	(2,591)
2018년	80.9	80.9	81.2	79.7	(2,830)
2015년	78.3	78.1	78.7	77.7	(2,535)
2012년	73.6	75.1	70.0	76.9	(2,391)
2009년	63.8	63.1	66.5	57.4	(2,0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외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내부 분위기 추가'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28~229. 〈표 V-7-1〉.

기관별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 평균점수로 나타내면, 평균 4.3점으로 모든 항목이 4.2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았다. 2009년부터의 만족점수를 보았을 때, 2009년, 2012년 각 3.7점, 2015년, 2018, 2021년 각 4.0점, 2024년 4.3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항목이 4.3점 이상으로 높았고, 유치원은 모든 항목이 4.2점 이상으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에서는 비용(3.4점), 건강관리(4.0점), 부모참여 및 교육(4.0점)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V-7-2〉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수)	F
원장	4.4	4.4	4.3	4.2	(2,512)	16.1*** (a)
교사	4.5	4.5	4.4	4.4	(2,512)	9.1***
주변환경	4.2	4.3	4.2	4.2	(2,512)	2.3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4.2	4.3	4.2	4.3	(2,512)	0.4(a)
교재교구 및 장비	4.3	4.3	4.3	4.3	(2,512)	0.5
내부분위기	4.4	4.4	4.3	4.4	(2,512)	1.7
비용	4.2	4.3	4.2	3.4	(2,512)	58.9*** (a)
건강관리	4.3	4.4	4.3	4.0	(2,512)	15.0*** (a)
급간식 관리	4.3	4.4	4.3	4.2	(2,512)	9.1***
안전관리	4.4	4.4	4.4	4.3	(2,512)	4.8** (a)
교육내용	4.4	4.4	4.4	4.4	(2,512)	-
생활지도	4.4	4.4	4.4	4.2	(2,512)	5.5**
부모참여 및 교육	4.3	4.3	4.2	4.0	(2,512)	6.5**
전체 평균	4.3	4.4	4.3	4.2	(2,512)	
2021년	4.1	4.1	4.0	3.8	(2,591)	-
2018년	4.0	4.0	4.1	4.0	(2,830)	-
2015년	4.0	4.0	3.7	3.6	(2,391)	-
2012년	3.7	3.7	3.7	3.6	(2,391)	-
2009년	3.7	3.7	3.7	3.6	(2,042)	-

주: 1) 비용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내부 분위기 추가'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29. 〈표 V-7-2〉.

** $p < .01$, *** $p < .001$.

나. 이용기관별 개선요구사항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1순위 응답에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증원'이 17.0%, '노후시설 정비' 14.9%, '인력의 질 제고' 10.3% 순으로 개선할 점이 나타났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내용 다양화'에 각 18.0%와 19.5%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반일제이상 학원은 '비용 절감'을 34.3%로 가장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17.5%, 16.8%였으며, '노후시설 정비'가 각 14.3%, 17.1% 순이었다. 반면 반일제학원은 '안전관리 강화(14.7%)' 및 '인력

의 질 제고(12.3%)’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순위 응답에서도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5.9%로 가장 높았고, 인력의 질 제고가 13.7%, 내부환경개선이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기관 간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비용 절감이 여전히 14.7%로 높게 나타나며, 영양 및 급식 수준이 12.5%로 상대적으로 개선요구가 높았고, 반면, 내부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표 V-7-3〉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인력증원	17.0	17.5	16.8	5.8	6.2	6.6	5.0	8.2
인력의 질 제고	10.3	10.5	9.7	12.3	13.7	14.1	12.9	13.5
노후시설 정비	14.9	14.3	17.1	2.9	8.7	8.5	8.8	11.1
내부환경 개선	7.6	9.1	5.0	4.3	10.6	10.8	10.8	4.1
비용 절감	5.4	2.9	8.0	34.3	4.3	3.8	4.3	14.7
회계 투명성	1.9	2.1	1.6	3.3	2.8	2.6	2.9	4.6
안전관리 강화	7.5	7.9	6.0	14.7	10.7	10.4	11.4	9.2
교육내용 다양화	18.3	18.0	19.5	11.9	15.9	15.5	17.5	9.1
영양 및 급식 수준	5.7	5.4	6.2	8.9	8.5	7.9	9.4	12.5
아동학대 예방	2.9	3.3	2.4	-	5.9	6.1	5.5	5.3
기타	8.5	9.1	7.9	1.6	0.7	0.5	1.0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12)	(1,666)	(792)	(54)	(2,512)	(1,666)	(792)	(5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가. 향후 기관 이용 계획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6.8%, 사립유치원 29.5% 순이었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5%였으며,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10.4%였다. 해당 설문은 2021년도 조사와 설문 응답 대상 범위가 조정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다만 경향성을 비교하자면, 가정양육 의향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의사가 감소한 것으

로 볼 수 있다(김은설 외, 2021: 232).

2024년 조사 결과에서는 영아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1.5%,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1.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아 자녀의 경우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비중은 16.6%로, 2021년 영아 41.4%(김은설 외, 2021: 232)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7.9%로,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30.7%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응답은 1.0%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0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이 38.6% 응답되어, 0세반의 경우 기관 이용률이 높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0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사가 63.4%, 국공립유치원 이용 의사가 58.2%로, 국공립 기관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이용의사가 점차 높아지는 데 반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사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이용의사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의사가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대都市는 7.1%, 중소도시 3.2%, 읍·면지역 0.8%로, 지역규모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표 V-8-1〉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수)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전체	36.8	2.6	1.3	20.1	8.0	3.5	0.3	43.3	29.5	4.5	10.4	(2,539)
영유아구분												
영아	51.3	3.1	1.3	25.6	12.4	4.1	0.3	51.5	23.9	4.0	16.6	(1,581)
유아	14.7	1.9	1.3	11.9	1.2	2.7	0.3	30.7	37.9	5.2	1.0	(958)
보육연령												
0세	63.4	3.0	0.8	21.8	17.3	4.4	0.1	58.2	18.6	3.1	38.6	(664)
1세	52.5	3.6	1.9	32.1	14.0	3.9	0.6	53.0	24.2	4.7	3.1	(449)
2세	33.4	2.5	1.4	23.9	4.0	3.8	0.2	40.8	30.9	4.5	0.8	(468)
3세	17.4	1.2	2.4	13.1	1.4	3.9	-	34.0	37.7	5.2	1.8	(494)
4세	12.1	2.6	0.3	10.7	1.0	1.6	0.6	27.5	38.1	5.2	0.2	(464)
지역규모												
대도시	39.6	2.4	0.9	14.3	5.6	4.0	0.2	39.2	34.7	7.1	8.3	(1,096)
중소도시	34.6	1.5	1.8	25.0	10.4	2.9	0.5	45.5	27.4	3.2	12.4	(1,067)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수)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읍·면	35.7	7.1	1.2	21.3	6.9	4.2	-	47.9	20.7	0.8	10.1	(37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한번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16명으로, 가장 주된 이유는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3.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집에서 가까워서’가 17.1%, ‘비용이 저렴해서’ 16.6% 순이었다. 2021년 이전 조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였다. 이에 반해 2024년에는 비용보다는 접근성을 이유로 꼽은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에는 ‘신뢰가 가서’와 ‘집에서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유아는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비중이 영아에 비해 높았으며, ‘보육내용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15.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연령별로는 영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영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육내용이 좋아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사가 우수해서(8.4%)’와 ‘보육내용이 좋아서(10.9%)’ 응답 비중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집에서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20.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8-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가장 주된 이유 1가지)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보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전체	16.6	53.2	17.1	3.5	7.4	2.2	100.0(916)
영유아구분							
영아	16.0	55.8	17.5	3.4	6.0	1.3	100.0(779)
유아	19.9	38.9	15.1	3.5	15.4	7.1	100.0(137)
$\chi^2(df)$	40.1(5)***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보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생활연령							
0세	19.2	61.1	13.6	1.5	2.6	2.0	100.0(119)
1세	17.4	56.5	17.9	3.5	3.9	0.8	100.0(277)
2세	15.1	56.0	16.3	3.9	8.1	0.6	100.0(230)
3세	12.4	50.7	21.3	4.0	8.6	3.0	100.0(153)
4세	19.4	44.4	14.1	3.3	11.7	7.1	100.0(84)
5세	20.7	31.4	16.4	3.8	20.5	7.1	100.0(53)
$\chi^2(df)$	61.6(25)***						
지역규모							
대도시	13.9	55.0	16.9	3.5	8.7	2.1	100.0(418)
중소도시	19.3	53.1	17.6	2.0	5.1	2.9	100.0(354)
읍·면	16.8	47.4	15.9	8.4	10.9	0.6	100.0(144)
$\chi^2(df)$	22.9(10)*						
모 취업 여부							
취업	14.6	50.1	20.9	4.1	6.7	3.6	100.0(401)
휴직 중	15.2	61.0	15.0	2.2	5.2	1.4	100.0(168)
미취업	19.9	53.5	13.8	3.1	8.5	1.1	100.0(343)
부재 등	-	14.6	-	15.0	70.3	-	100.0(4)
$\chi^2(df)$	45.6(15)***						
2021년	23.5	57.3	11.5	1.4	5.3	1.0	100.0(969)
2018년	27.3	53.5	3.2	10.6	5.4	-	100.0(1,337)
2015년	26.6	52.9	6.0	5.9	7.6	0.8	100.0(1,09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에는 단일 응답 문항으로 질문(설문 구조가 2018년 이후 변경)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함.

2015년 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 0.3%이 있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초등 입학 이전까지 남아있는 연령 만큼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각 연령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한 번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33-234. <표 V-8-2>.

* $p < .05$, *** $p < .001$.

국공립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서’가 54.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서(20.1%)’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교육내용이 좋아서(11.0%)’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21년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공립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향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에는 ‘교사가 우수해서(9.7%)’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15년에는 ‘교육내용이 좋아서(8.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경향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는 않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영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지역규모와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8-3〉 국·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가장 주된 이유 1가지)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교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전체	20.1	54.9	8.7	3.9	11.0	1.3	100.0(1,133)
영유아구분							
영아	19.8	57.8	8.0	3.5	10.0	1.0	100.0(811)
유아	21.1	47.4	10.7	5.0	13.6	2.2	100.0(322)
$\chi^2(df)$			12.5(5)*				
생활연령							
0세	13.2	62.8	10.0	2.6	11.3	-	100.0(118)
1세	17.4	63.7	7.0	4.4	6.6	0.9	100.0(264)
2세	25.7	53.4	5.5	2.2	11.2	2.0	100.0(234)
3세	18.2	52.8	11.6	4.5	12.6	0.2	100.0(195)
4세	19.9	47.0	11.5	4.3	13.5	3.7	100.0(182)
5세	22.5	47.9	9.8	5.8	13.6	0.3	100.0(140)
$\chi^2(df)$			49.7(25)**				
지역규모							
대도시	21.1	55.7	8.5	3.5	10.1	1.1	100.0(435)
중소도시	19.2	55.3	9.7	3.7	10.7	1.4	100.0(511)
읍·면	20.7	51.3	6.2	5.5	14.3	1.8	100.0(187)
$\chi^2(df)$			6.6(10)				
모 취업 여부							
취업	19.0	56.0	9.1	4.6	10.5	0.8	100.0(488)
휴직 중	14.9	58.4	9.8	4.4	12.5	-	100.0(167)
미취업	23.3	52.4	8.0	3.1	10.9	2.3	100.0(475)
부재 등	-	69.6	-	-	30.4	-	100.0(3)
$\chi^2(df)$			17.3(15)				
2021년	27.5	51.9	6.7	3.8	9.0	1.2	100.0(1,333)
2018년	25.1	55.3	2.6	9.7	6.7	0.7	100.0(1,763)
2015년	31.0	49.4	6.6	3.6	8.2	1.1	100.0(1,58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초등 입학 이전까지 남아있는 연령 만큼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각 연령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한 번이라도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34~235. 〈표 V-8-3〉.

* $p < .05$, ** $p < .01$.

다. 출생코호트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출생코호트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연도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표 V-8-4>와 같다. 2018년생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2025년에는 2018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먼저 2024년생은 194명으로, 보육연령 기준 0세인 2025년에 26.8%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2026년(1세반)에는 이용 의향이 크게 증가하여, 73.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027년(2세반)은 96.6%, 2028년(3세반)은 65.3%, 2029년(4세반)은 39.3%, 2030년(5세반)은 28.9%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2023년생은 2025년에 보육연령 기준 1세(1세반)에 다니게 되는 코호트로, 2025년 53.1%, 2026년(2세반) 88.5%, 2027년(3세반) 73.3%, 2028년(4세반) 46.5%, 2029년(5세반) 24.4%가 어린이집을 다니겠다고 응답하였다.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이 1세인 2022년생은 88.4%가 2025년에 어린이집(2세반)에 보낼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26년(3세반) 77.2%, 2027년(4세반) 46.6%, 2028년(5세반) 25.7%가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2021년생은 2025년(3세반) 74.3%, 2026년(4세반) 51.3%, 2027년(5세반) 22.1%가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2020년생은 2025년(4세반)은 43.0%, 2026년(5세반)은 23.9%가 어린이집 이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생은 2025년(5세반) 18.9%가 이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표 V-8-4>에서 2019년생 2025년도의 수치를 기준으로 우상향 대각선의 값이 각 출생코호트별 보육연령 5세 때의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있는 비중인데, 이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생의 이용 비중이 18.9%로 가장 낮은 하나 나머지 코호트에서는 5세가 되어도 20% 중반의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기관 선택이 가능해지는 연령인 보육연령 3세 때의 수요는 2021년생의 2025년 수치를 기준으로 우상향하는 수치(굵은 글씨)를 보면 되는데, 2021년생~2023년생까지는 70% 이상의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2024년은 약간 낮아지긴 하지만 65.3%의 이용 의향을 보였다. 반면, 4세 때에는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모든 코호트에서 낮아져 40~50% 전후 수준의 의향을 보였다.

〈표 V-8-4〉 출생코호트 및 연도별 향후 어린이집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수)
출생년도							
2024년생 (0세)	26.8	73.0	96.6	65.3	39.3	28.9	(194)
2023년생 (0세)	53.1	88.5	73.3	46.5	24.4	-	(470)
2022년생 (1세)	88.4	77.2	46.6	25.7	-	-	(449)
2021년생 (2세)	74.3	51.3	22.1	-	-	-	(468)
2020년생 (3세)	43.0	23.9	-	-	-	-	(494)
2019년생 (4세)	18.9	-	-	-	-	-	(46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3) 괄호안 연령은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출생코호트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유치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표 V-8-5〉와 같다. 2025년에 5세반에 다니게 되는 2019년생의 경우 2025년에 유치원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8.2%에 달했으며, 2020년생은 5세가 되는 2026년에 73.3%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생도 2027년(5세반)에 73.4%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2022년생은 2028년(5세반)에 69.8%, 2023년생은 2029년(5세반)에 69.7%, 2024년생은 2030년(5세반) 65.7%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즉, 보육연령 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린 연령의 영유아일수록 유치원 이용 의향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보육연령 기준 3세가 되는 시점에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2021년생은 24.5% (2025년 이용 계획) 2022년생 20.8% (2026년), 2023년생 24.6% (2027년), 2024년생 31.6% (2028년)으로, 5세 때 이용 계획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즉, 보육연령 3세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고, 4세와 5세가 되면서 유치원으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V-8-5〉 출생코호트 및 연도별 향후 유치원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출생년도							
2024년생 (0세)	-	-	-	31.6	54.9	65.7	(194)
2023년생 (0세)	-	-	24.6	49.6	69.7	-	(470)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2022년생 (1세)	-	20.8	50.9	69.8	-	-	(449)
2021년생 (2세)	24.5	47.2	73.4	-	-	-	(468)
2020년생 (3세)	55.8	73.3	-	-	-	-	(494)
2019년생 (4세)	78.2	-	-	-	-	-	(46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3) 괄호안 연령은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30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계획이 파악되는 2024년생 기준으로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수요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025년(0세반) 33.2%, 2026년(1세반) 77.2%, 2027년(2세반) 96.3%, 2028년(3세반) 63.9%, 2029년(4세반) 30.6%, 2030년(5세반) 23.9%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25년(0세반) 24.5%, 2026년(1세반) 66.7%, 2027년(2세반) 96.7%, 2028년(3세반) 63.3%, 2029년(4세반) 45.6%, 2030년(5세반) 32.9%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0세반과 1세반은 어린이집 의향이 낮는데 반해, 4세반은 15%p, 5세반의 경우 9%p나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25년(0세반) 16.5%, 2026년(1세반) 79.2%, 2027년(2세반) 97.2%, 2028년(3세반) 75.1%, 2029년(4세반) 46.3%, 2030년(5세반) 31.1%로, 0세반 이용 의사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특히 3세반의 어린이집 이용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보육연령 5세가 되는 시점의 어린이집 이용 의사를 지역규모별로 비교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7.3~23.9%,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8.8~32.9%,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3.9~38.2%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5세반 기준 이용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8-6〉 지역규모별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도의 어린이집 수요

단위: %,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대도시							
2024년생 (0세)	33.2	77.2	96.3	63.9	30.6	23.9	(82)
2023년생 (0세)	61.1	90.8	75.1	44.1	17.3	-	(206)
2022년생 (1세)	93.3	75.4	48.4	27.1	-	-	(183)
2021년생 (2세)	70.9	47.0	23.5	-	-	-	(199)
2020년생 (3세)	35.0	20.3	-	-	-	-	(217)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2019년생 (4세)	17.5	-	-	-	-	-	(209)
중소도시							
2024년생 (0세)	24.5	66.7	96.7	63.3	45.6	32.9	(85)
2023년생 (0세)	50.1	84.8	71.1	43.7	29.6	-	(179)
2022년생 (1세)	87.9	77.3	44.6	20.1	-	-	(203)
2021년생 (2세)	77.6	53.5	20.5	-	-	-	(193)
2020년생 (3세)	48.6	22.3	-	-	-	-	(214)
2019년생 (4세)	18.8	-	-	-	-	-	(193)
읍·면							
2024년생 (0세)	16.5	79.2	97.2	75.1	46.3	31.1	(27)
2023년생 (0세)	40.9	92.3	76.5	61.3	29.4	-	(85)
2022년생 (1세)	74.7	81.1	49.1	38.2	-	-	(63)
2021년생 (2세)	70.0	56.2	24.2	-	-	-	(76)
2020년생 (3세)	42.8	36.5	-	-	-	-	(63)
2019년생 (4세)	23.9	-	-	-	-	-	(62)

주: 괄호안 연령은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향후 유치원 이용 의사는 보육연령 3세가 되는 시점 기준 대도시 20.9%~33.1%, 중소도시 20.1%~32.8%, 읍·면지역 16.3%~30.0%로, 지역규모별로 큰 편차가 없었으며 최대값이 30%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육연령 기준 5세가 되는 시점 기준 유치원 이용 의사는 대도시 66.9%~76.9%, 중소도시 64.0%~79.6%, 읍·면지역 60.2%~76.1%로,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5세가 되면 유치원 이용 의사가 3세에 비해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8-7〉 지역규모별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도의 유치원 수요

단위: %,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대도시							
2024년생 (0세)	-	-	-	33.1	62.6	66.9	(82)
2023년생 (0세)	-	-	20.9	51.6	75.7	-	(206)
2022년생 (1세)	-	23.4	46.5	66.9	-	-	(183)
2021년생 (2세)	29.1	50.6	71.0	-	-	-	(199)
2020년생 (3세)	64.0	73.8	-	-	-	-	(217)
2019년생 (4세)	76.9	-	-	-	-	-	(209)
중소도시							
2024년생 (0세)	-	-	-	32.8	48.8	64.0	(85)
2023년생 (0세)	-	-	28.2	52.0	64.5	-	(179)
2022년생 (1세)	-	20.1	54.4	75.6	-	-	(203)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2021년생 (2세)	20.2	45.4	74.7	-	-	-	(193)
2020년생 (3세)	49.8	76.6	-	-	-	-	(214)
2019년생 (4세)	79.6	-	-	-	-	-	(193)
읍·면							
2024년생 (0세)	-	-	-	23.8	51.7	67.3	(27)
2023년생 (0세)	-	-	22.3	37.1	68.5	-	(85)
2022년생 (1세)	-	16.3	50.9	60.2	-	-	(63)
2021년생 (2세)	30.0	43.8	75.8	-	-	-	(76)
2020년생 (3세)	57.2	63.5	-	-	-	-	(63)
2019년생 (4세)	76.1	-	-	-	-	-	(62)

주: 괄호 안 연령은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기타 시설 이용의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이용 의사가 높아지는 보육연령 5세 때의 이용 의사의 경우에는 2.0~5.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단, 현재 연령이 어릴수록(최근 출생한 영유아일수록) 5세 때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8〉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도의 기타 시설 수요

단위: %, (명)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
2024년생 (0세)	0.8	0.2	0.5	2.3	3.9	5.2	(194)
2023년생 (0세)	-	0.3	1.3	3.5	4.7	-	(470)
2022년생 (1세)	-	0.3	2.3	4.5	-	-	(449)
2021년생 (2세)	-	1.0	4.3	-	-	-	(468)
2020년생 (3세)	0.3	2.6	-	-	-	-	(494)
2019년생 (4세)	2.0	-	-	-	-	-	(464)

주: 괄호 안 연령은 2024년 기준 보육연령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출생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이용 희망 기관 및 가정양육 수요를 살펴본 결과는 〈표 V-8-9〉부터 〈표 V-8-12〉로 제시하였다. 먼저 2024년생의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를 살펴보면, 2025년 보육연령 기준 0세일 때 26.8%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반일제 학원은 0.8%가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며, 72.4%는 가정양육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세가 되는 2026년에는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비율은 26.8%로 현격히 줄어들고, 73.0%가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2세가 되는 2027년에는 가정양육 희망 비율이 더욱 줄어들어 2.9%만이 가정양육을 할 계획이며, 96.6%는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이 가능해지는 3세 때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65.3%, 유치원 31.6%, 반일제 학원 2.3%로,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세가 되는 2029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39.3%로 줄어든 반면,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54.9%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5세가 되는 2030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28.9%,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65.7%, 반일제 이상 학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5.2%였으며, 가정양육하겠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보육연령 기준 1세가 되는 시점부터 어린이집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며,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용 의향이 변화해감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8-9〉 2024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 (명)

연도 (보육연령)		2025년 (0세)	2026년 (1세)	2027년 (2세)	2028년 (3세)	2029년 (4세)	2030년 (5세)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26.8	73.0	96.6	65.3	39.3	28.9
	유치원	-	-	-	31.6	54.9	65.7
	반일제학원	0.8	0.2	0.5	2.3	3.9	5.2
가정양육		72.4	26.8	2.9	0.8	1.9	0.2
(수)		(194)	(194)	(194)	(194)	(194)	(19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23년생의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를 살펴보면, 1세가 되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53.1%였으며,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응답은 46.9%였다. 2세가 되는 시기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여 88.5%였으며, 가정양육 희망 비중은 11.2%로 줄어들었다. 3세 때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73.3%,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24.6%였으며, 4세 때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46.5%,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49.6%였다. 5세 때에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더욱 분명해져 69.7%가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며, 24.4%만이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2024년생의 연령별 이용 수요와 비교해보면, 2023년생의 1세일 때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2024년생 73.0%에 비해 20%p가량 낮은 53.1%에 그쳐, 2023년생 부모들은 1세 시기 가정양육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2세 때의 어린이집 수요 또한

2024년생은 96.6%에 달한 반면, 2023년생은 88.5%에 그쳤다. 다만, 3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가정양육 희망 비중이 2024년생이나 2023년생이나 모두 2% 미만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23년생은 2024년생에 비해 3세와 4세 때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10〉 2023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 (명)

연도 (보육연령)	2025년 (1세)	2026년 (2세)	2027년 (3세)	2028년 (4세)	2029년 (5세)
이용희망 어린이집	53.1	88.5	73.3	46.5	24.4
기관 유치원	-	-	24.6	49.6	69.7
반일제학원	-	0.3	1.3	3.5	4.7
가정양육	46.9	11.2	0.8	0.4	1.2
(수)	(470)	(470)	(470)	(470)	(47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22년생의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는 2세 때에는 88.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세 때는 77.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20.8%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4세 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46.6%,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50.9%로 변화하였으며, 5세 때에는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가 25.7%, 유치원 이용 희망자가 69.8%였다. 2022년생의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는 2023년생의 연령별 이용 수요와 흡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V-8-11〉 2022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 (명)

연도 (보육연령)	2025년 (2세)	2026년 (3세)	2027년 (4세)	2028년 (5세)
이용희망 어린이집	88.4	77.2	46.6	25.7
기관 유치원	-	20.8	50.9	69.8
반일제학원	-	0.3	2.3	4.5
가정양육	11.6	1.7	0.2	0.0
(수)	(449)	(449)	(449)	(44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21년생은 2024년 조사 시점 기준 보육연령이 3세인 아이들로, 2021년생의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는 3세가 되는 때에는 어린이집 이용 의사가 74.3%, 유치원 이용 의사가 24.5%로 조사됐다. 4세일 때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51.3%,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5세가 되는 시점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22.1%로 크게 감소하고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73.4%까지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2021년생은 다른 코호트와는 달리 4세 때에도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 비중(51.3%)이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47.2%)에 비해 약간이지만 높다는 점이었다.

한편, 2020년생의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는 4세 때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의견이 43.0%,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55.8%였으며, 5세 때에는 어린이집을 23.9%, 유치원을 73.3%가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19년생의 2025년도(5세 시기) 보육·교육기관 이용 의사는 어린이집 18.9%, 유치원 78.2%로,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V-8-12〉 2019년생~2021년생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 (명)

출생코호트		2021년생			2020년생		2019년생
연도 (보육연령)		2025년 (3세)	2026년 (4세)	2027년 (5세)	2025년 (4세)	2026년 (5세)	2025년 (4세)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74.3	51.3	22.1	43.0	23.9	18.9
	유치원	24.5	47.2	73.4	55.8	73.3	78.2
	반일제학원	-	1.0	4.3	0.3	2.6	2.0
	가정양육	1.2	0.5	0.2	0.9	0.2	0.9
(수)		(468)	(468)	(468)	(494)	(494)	(46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출생코호트별로 0~6세 때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이용 계획을 종합하면 〈표 V-8-13〉과 같다. 표에서 회색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해당 코호트의 영유아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연령으로 향후 이용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백색 면의 내용은 이미 해당 연령이 지난 코호트로 해당 연령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8년생의 경우 2024년 기준 생활연령 6세로, 2025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으로 더 이상의 이용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는 출생코호트이며, 2018년(0세)~

2024년(6세) 동안 해당 연령에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영유아의 비중을 기입하였다.

0세의 어린이집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생은 8.9%, 2019년생 7.4% 등이며, 2024년생은 3.7%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조사 시점 기준 다른 출생코호트는 해당 연령 총 12개월간의 이용 경험이 전부 관찰되는 데 반해, 2024년생은 월령이 어린 아동만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어 발생하는 착시현상으로 보여진다.

1세 때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생은 21.8%가 1세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데 반해, 2023년생은 42.9%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여 비중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24년생은 1세가 되는 2025년에 26.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2022년생과 2023년생을 제외한 다른 코호트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2세 때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2018년생 47.9%, 2019년생 52.0%, 2020년생 61.4%, 2021년생 71.1%, 2022년생 90.8%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2023년생은 2세 때 53.1%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024년생은 76.0%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3세 때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2018년생 78.1%, 2019년생 80.9%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 계획 또한 2022년생은 88.4%, 2023년생 88.5%, 2024년생 96.6%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생활연령 3세(보육연령 2세)가 되면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함을 엿볼 수 있었다.

4세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 비율은 2018년생 7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2019년생은 68.1%, 2020년생은 50.6%의 이용률을 보였다. 2021년생~2023년생은 70%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2024년생은 65.3%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5세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 비율을 4세에 비해 낮아져 2018년생 56.8%, 2019년생 38.0%,이었는데, 이는 유치원으로의 분산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2020년생은 5세가 되는 2025년에 43.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021년생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서 51.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취학 직전 해인 6세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 비중은 2018년생만 관찰이 되는데, 38.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2019년생~2024년생의 6세 때 어린이집 이용의향은 실제 2018년생의 어린이집 이용 비중보다는 한참 낮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

로 분석됐다. 즉, 6세가 되면 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중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8-13〉 출생코호트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구분	생활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8년생	8.9	21.8	47.9	78.1	74.2	56.8	38.1
2019년생	7.4	20.8	52.0	80.9	68.1	38.0	18.9
2020년생	10.3	23.9	61.4	88.0	50.6	43.0	23.9
2021년생	9.9	28.9	71.1	96.2	74.3	51.3	22.1
2022년생	9.0	36.9	90.8	88.4	77.2	46.6	25.7
2023년생	12.0	42.9	53.1	88.5	73.3	46.5	24.4
2024년생	3.7	26.8	73.0	96.6	65.3	39.3	28.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백지에 적힌 부분은 기존에 이용 경험(현황)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의미함.

3)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출생코호트별 유치원 이용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생이 4세 때 유치원을 이용한 비중은 19.5%, 2019년생은 24.0%, 2020년생은 44.6%로, 2020년생의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2021년생~2023년생은 25% 이하만이 유치원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24년생은 약간 높아서 31.6%가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5세 때 유치원을 이용한 비중은 2018년생 39.8%, 2019년생 57.3%로, 2019년생의 유치원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생들은 6세 때에도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향이 78.2%에 달해, 2018년생과 비교해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2020년생 이후 출생아의 경우에도 대체로 70% 전후의 유치원 이용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지만 유치원 공급량의 부족이나 유치원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20%가량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현재 유보통합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통합 기관이 발족할 경우 5세 시기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V-8-14〉 출생코호트별 유치원 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구분	생활연령		
	4세	5세	6세
2018년생	19.5	39.8	55.4
2019년생	24.0	57.3	78.2
2020년생	44.6	55.8	73.3
2021년생	24.5	47.2	73.4
2022년생	20.8	50.9	69.8
2023년생	24.6	49.6	69.7
2024년생	31.6	54.9	65.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서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경험,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실태,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부모 대상 제공서비스, 특별활동 프로그램, 기관 만족도 및 요구 및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의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최초 이용 경험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용시작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최초 이용 기관은 어린이집인 경우가 97% 이상이며 이러한 수치는 최초 이용 월령과도 관련이 있는데, 2009년 조사 당시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이 평균 30개월이었던 것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며 2024년에는 평균 19.8개월에 최초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영아기에 처음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아기에 처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회성 발달, 전인적 발달 등의 이유로 시작하는 비중이 높아 기관 이용 목적에 따라 최초 이용 시작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아기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유아기에는 돌봄의 목적 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보육·교육활동의 제공이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둘째, 자녀 연령대별로 이용했던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서비스도 연령별로 차이를 크게 보였는데, 연령별 추세를 살펴보면 출생당해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면서 조부모가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고, 보육연령 0세에는 이에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1세에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63.8%로 높아지면서 부모와 조부모가 직접돌보는 비율이 점차 줄고, 3세가 되면서는 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늘고 유치원에 가는 비율이 증가하여, 4세 혹은 5세에는 유치원 이용 비율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전반적 추세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으로 옮기기 위해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비율은 보육연령 3~5세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3세 이후 유치원으로의 이동 사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이 이후 영유아 부모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하루 평균 기관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분가량 증가한 7시간 25분이었다. 등원은 8:31~9:30이 가장 많고, 하원은 15:01~16:00가 가장 많은데, 이는 2021년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개편(기본보육시간 9:00~16:00)의 현장 안착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영유아 부모들은 대체로 기관의 등·하원 시각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3.8%가 등원 시각이 늦다고 응답했으며, 9.3%가 하원 시각이 이르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의 기관 이용 희망시간은 실제 이용시간보다 48분가량 긴 8시간 18분이었다. 즉, 현행 기본보육시간 이내의 기관 이용이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좀 더 긴 시간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주변의 평판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반일제는 프로그램, 실내외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계열 추세를 살펴보면, 접근성을 중시하는 경향, 기관의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경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진 반면, 교사나 원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이전에 비해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내포하는 결과로,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균질적인 보육·교육기관의 제공과 함께 기관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토요일 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어린이집 이용자는 전체 기준 10% 정도였으나, 읍·면지역 거주자의 응답 비율은 16.0%로 대도시(11.1%), 중소도시(9.2%)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토요일 보육, 일요일 보육을 위한 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암시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농어촌 지역의 토요일 보육, 일요일 보육과 같이 매우 특수한 형태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마을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이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 인력뿐 아니라 돌봄 인프라 자체가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의 공간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직할 것이다.

여섯째,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4만5,800원이며,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9만2,100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4만1,000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9만2,800원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보육료 상한제 및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아학비 추가지원과 같은 정부지원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기관 이용비용의 감소는 순교육·보육비의 감소에 기인한 영향이 큰데, 이는 2024년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가 모두 보육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구소득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비율은 2021년 대비 0.4%p(2.7→2.3%)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정부의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이 실제 영유아 가구의 기관 이용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는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일곱째, 순보육·교육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월 보육·교육비는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현장학습비·행사비 등 기타 비용, 특별활동비(방과후 특성화비) 등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학습 등 대면 행사가 위축되고 특별활동(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이 감소한 것의 반작용으로 2024년 이와 관련된 활동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적정 수준의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보육실태조사 결과만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1년 크게 위축되었던 현장학습과 대면행사, 특별활동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차액보육료 및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의 정책 효과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현재 매월 기관에 내는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21년 25.2%, 2018년 30.3%와 2015년 35.2%에 비교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비용 부담 정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2.6점으로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매월 부모가 기관에 내는 비용 중 추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활동비’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급간식비 16.0%, 현장학습비 15.7% 순이었다.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3.6%였으며,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평균 7만5,700원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정부가 기관 이용 가구의 보육·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면, 수요자 요구 및 기관별 비용 지불 구조 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추가 지원은 반드시 적정 수준의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 등에 관한 기준 마련과 함께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홉째, 기관이 제공하는 부모서비스는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제공율을 보였으나, 발달평가(70.9%), 부모교육자료(83.7%), 부모참여프로그램(87.7%), 양방향 알림장(88.7%)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공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과 비교하여 비교적 제공률이 낮은 서비스의 제공율이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제공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항목들(보육·교육계획, 급간식 식단 등)은 2021년 대비 제공률이 미묘하게 낮아진 경우도 있으나 워낙 제공률이 10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으로 부모서비스 제공은 2021년 대비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 제공 부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모든 항목에서 2021년에 비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기관 제공 부모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제공률이 낮았던 발달평가 등을 좀 더 확대, 강화해 나가는 정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열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은 2021년 조사에 비해 운영 비중과 이용률이 모두 늘었으며, 이용 횟수와 비용 등도 모두 증가하였다. 영아 대상으로는

예능, 체육관련 과목 이용이 높고, 유아 대상으로는 예능, 체육 관련 과목을 지속해서 하면서도 영어, 언어, 수학/과학 관련 과목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별활동 이용개수는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가장 많고, 이용비용은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가 가장 높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 > 유치원 > 반일제이상 학원 순으로 나타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개수가 2021년도에 비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이용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한째,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주변환경이나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비용에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건강관리, 부모참여 및 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용기관별 개선사항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내용 다양화’ 요구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인력증원’ 및 ‘노후시설 정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일제이상 학원에서는 ‘비용 절감’,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정부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자 사이에서 요구가 높았던 사항 ‘교육내용 다양화’, ‘인력증원’, ‘노후시설 정비’ 등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열두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2024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이 4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36.8%)이었다. 이처럼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혹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국공립 기관이 주는 신뢰감 때문이었다. 출생코호트별 향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녀가 보육연령 기준 1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여, 2~3세 시기에는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높은 데 반해, 4~5세의 경우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 이용비용, 제공 서비스, 특별활동 이용 현황, 연장보육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가.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1)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38.3%), 민간(37.4%), 가정어린이집(12.4%) 등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은 2015년(14.4%), 2018년(21.7%), 2021년(29.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유아 가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영아의 경우 민간(36.0%), 국공립(35.2%), 가정어린이집(18.6%) 순으로, 민간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유아는 국공립(43.3%), 민간(39.7%), 직장어린이집(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이용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반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47.7%로, 중소도시(31.0%), 읍·면지역(3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1-1〉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chi^2(df)$
전체	38.3	4.1	2.2	37.4	12.4	4.9	0.6	100.0(1,666)	

구분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법안단 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chi^2(df)$
영유아구분									
영아	35.2	3.9	1.9	36.0	18.6	4.1	0.3	100.0(1,093)	98.0(6)***
유아	43.3	4.4	2.7	39.7	2.5	6.3	1.0	100.0(573)	
보육연령									
0세	30.8	4.7	1.7	26.6	33.0	3.3	-	100.0(226)	185.7(30)***
1세	34.4	3.5	2.3	36.3	19.5	3.4	0.6	100.0(413)	
2세	38.0	4.0	1.7	39.9	11.1	5.2	0.2	100.0(454)	
3세	40.1	3.3	4.2	40.5	2.7	9.3	-	100.0(241)	
4세	44.7	7.2	0.6	37.1	4.1	4.6	1.6	100.0(169)	
5세	45.8	3.2	2.8	41.2	0.9	4.5	1.6	100.0(163)	
지역규모									
대도시	47.7	4.0	1.3	30.7	9.9	6.2	0.1	100.0(642)	97.1(12)***
중소도시	31.0	2.4	2.1	45.2	14.2	4.3	0.7	100.0(753)	
읍·면	38.8	9.9	4.6	28.5	12.8	4.0	1.3	100.0(271)	
모 취업 여부									
취업	40.2	3.3	2.6	36.0	11.2	6.3	0.3	100.0(951)	45.8(18)***
휴직 중	41.7	3.3	0.4	30.5	19.6	4.6	-	100.0(145)	
미취업	34.5	5.9	2.0	40.6	13.0	2.8	1.2	100.0(556)	
부재 등	24.8	-	-	70.9	4.4	-	-	100.0(1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7.8	2.5	-	35.1	24.6	-	-	100.0(81)	112.0(42)***
300~349만원	35.5	4.7	4.1	43.1	9.9	-	2.7	100.0(101)	
350~399만원	35.6	2.7	3.5	48.1	8.8	1.3	-	100.0(98)	
400~499만원	36.2	5.2	2.6	41.6	12.5	1.9	-	100.0(289)	
500~599만원	37.6	5.3	2.1	35.6	13.1	4.5	1.9	100.0(332)	
600~699만원	36.0	2.3	3.5	38.2	14.5	5.4	-	100.0(248)	
700만원 이상	43.3	3.4	1.4	32.3	10.3	9.2	0.2	100.0(493)	
모름/무응답	19.2	12.5	-	54.1	10.5	3.8	-	100.0(24)	
2021년	29.1	5.4	3.8	44.8	13.1	3.4	0.4	100.0(1,464)	
2018년	21.7	4.3	4.3	51.9	14.7	3.1	-	100.0(1,753)	
2015년	14.4	5.2	3.5	58.6	15.7	2.1	0.4	100.0(1,74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47. <표 VI-1-1>.

*** $p < .00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모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57.5%), 미취업(32.9%), 휴직 중(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보육 연령별로는 0세 아동의 경우 취업(61.8%), 휴직 중(14.7%)으로 취업 중이거나 휴직 중인 비중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았다. 모의 취업 비중은 아동 1세의 경우 50.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동일 연령에서 휴직 중(12.5%), 미취업(36.4%)으로 이 시기에 모의 취업률(취업+휴직

중)이 가장 낮아지는 특성이 보였다. 이런 특성은 출산 직후 직접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 또는 일을 그만두는 비중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표 VI-1-2〉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모 취업 특성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계(수)
전체	57.5	8.6	32.9	1.0	100.0(1,666)
보육연령					
0세	61.8	14.7	23.5	-	100.0(226)
1세	50.9	12.5	36.4	0.2	100.0(413)
2세	59.6	5.4	34.8	0.2	100.0(454)
3세	60.1	6.9	32.0	1.0	100.0(241)
4세	57.1	7.2	32.3	3.4	100.0(169)
5세	60.3	4.3	32.4	3.0	100.0(16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이용 이유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고, 부모 대리보호(18.4%), 사회성 발달(17.5%), 양육 부담감(14.6%) 등의 순이었다. 전인적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018년(27.6%), 2021년(40.1%)에서 다소 늘어났으며 부모 대리보호는 2018년(23.1%), 2021년(22.0%)에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 구분을 통해 영아는 전인적 발달(36.6%), 부모 대리보호(22.6%), 사회성 발달(17.5%), 양육 부담감(16.8%) 순이었으나, 유아는 전인적 발달(49.6%), 사회성 발달(17.5%), 부모 대리보호(11.7%), 양육 부담감(11.1%) 순으로 이용 이유에 따른 비중과 순위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경우 부모 대리보호와 양육 부담감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이 유아에 비해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부모 대리보호 목적이 27.6%로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 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으며, 휴직 중인 경우와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 18.5%, 18.4%로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미취업 모의 어린이집 이용 목적이 전인적 발달인 경우는 50.6%로 취업모 또는 휴직 중인 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는 모든 어린이집 유형에서 전인적 발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모 대

리보호 이유는 법인·단체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각각 28.3%, 29.2%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1-3〉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친구 없음	양육 부담감	비용부담 적어서 ¹⁾	기타	계(수)	
전체	41.6	2.3	1.0	18.4	17.5	1.2	14.6	0.8	2.6	100.0	(1,666)
영유아 구분											
영아	36.6	0.9	0.9	22.6	17.5	1.3	16.8	0.4	3.0	100.0	(1,093)
유아	49.6	4.5	1.1	11.7	17.5	0.9	11.1	1.5	2.1	100.0	(573)
보육연령											
0세	29.0	0.4	0.7	32.8	10.0	2.6	21.0	0.4	3.0	100.0	(226)
1세	36.6	1.0	0.4	20.9	18.4	1.6	18.4	0.3	2.4	100.0	(413)
2세	40.0	0.9	1.5	19.8	20.1	0.5	13.1	0.5	3.6	100.0	(454)
3세	51.8	1.6	1.5	12.9	14.6	2.1	12.8	2.3	0.5	100.0	(241)
4세	50.1	2.6	1.0	11.3	18.6	-	11.9	1.5	3.0	100.0	(169)
5세	46.6	9.8	0.8	10.5	19.9	0.4	8.3	0.6	3.1	100.0	(163)
지역규모											
대도시	41.4	2.1	1.0	18.1	19.6	0.9	12.8	0.3	3.8	100.0	(642)
중소도시	41.5	2.5	1.2	18.1	14.9	1.2	16.7	1.4	2.4	100.0	(753)
읍·면지역	42.0	1.8	0.2	20.3	21.0	1.5	12.4	0.3	0.6	100.0	(271)
모 취업 여부											
취업	37.0	2.2	0.7	27.6	15.9	0.8	12.1	0.5	3.1	100.0	(951)
휴직	38.9	1.8	0.3	12.4	18.6	2.4	18.5	1.6	5.6	100.0	(145)
미취업	50.6	2.4	1.7	3.8	19.6	1.3	18.4	1.2	1.1	100.0	(556)
모 부재 등	26.3	7.9	-	23.5	36.8	5.4	-	-	-	100.0	(1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1.3	3.0	0.6	18.0	19.2	1.3	13.0	1.2	2.4	100.0	(586)
사회복지법인	54.2	2.2	1.9	10.1	20.3	-	9.6	0.9	0.8	100.0	(94)
법인·단체등	36.8	-	1.5	28.3	14.5	-	12.9	-	5.8	100.0	(49)
민간	44.5	2.4	1.4	15.7	16.4	1.3	15.4	0.6	2.4	100.0	(619)
가정	33.5	-	1.0	25.8	15.3	1.6	20.6	-	2.3	100.0	(209)
직장	29.7	2.5	-	29.2	15.6	-	12.7	2.6	7.7	100.0	(105)
협동	66.7	-	-	-	33.3	-	-	-	-	100.0	(4)
2021년	40.1	2.3	1.1	22.0	16.1	2.0	13.4	1.7	1.4	100.0	(1,464)
2018년	27.6	1.5	1.0	23.1	27.4	2.7	14.1	2.6	0.2	100.0	(1,753)
2015년	33.4	2.3	1.1	20.3	27.1	3.8	2.0	2.4	7.5	100.0	(1,745)
2012년	22.2	4.4	0.5	18.0	32.4	5.2	14.3	2.5	0.4	100.0	(1,536)
2009년	28.5	4.5	0.9	29.0	29.0	7.7	-	-	0.4	100.0	(1,3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이하 조사에서 해당 항목은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이었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48~249. 〈표 VI-1-2〉.

3) 현재 이용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으로는 집과의 거리가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주변의 평판(12.2%), 프로그램(11.7%), 교사(8.2%) 등의 순이었다. 2012년 조사 이후 집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국공립 여부가 13.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어린이집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10%를 초과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기관 실내외환경에 대한 비중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변의 평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5.3%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지면관계상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1+2순위) 응답의 분석 결과는 1순위 응답과 큰 경향성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1-4〉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1년	'18년	'15년	'12년
원장	2.8	10.0	8.5	8.9	15.2	3.0	-	7.0	8.8	9.6	11.7	9.6
교사	5.7	15.6	10.9	8.6	10.8	11.3	-	8.2	9.6	10.9	10.7	10.9
운영시간	3.2	1.8	5.9	3.7	3.8	5.7	-	3.6	3.2	3.8	4.3	3.8
비용	1.6	-	-	1.5	0.3	1.5	-	1.3	0.8	2.5	2.5	2.5
프로그램	11.5	16.5	3.5	13.2	5.1	14.7	39.9	11.7	10.1	7.8	11.0	7.8
건강·영양	0.8	2.8	-	1.1	0.4	1.8	26.7	1.1	1.8	1.8	2.7	1.8
기관 학급 규모	2.7	3.4	-	1.3	1.3	1.2	-	1.9	1.1	1.4	2.3	1.4
기관 실내외환경	5.5	13.7	11.9	7.6	3.3	10.9	33.3	6.9	4.9	2.5	4.5	2.5
안전한 보호	1.4	0.8	2.1	1.7	1.0	3.9	-	1.6	1.9	1.3	1.9	1.3
집과의 거리	36.6	22.7	30.8	32.3	34.7	15.4	-	32.8	32.9	30.1	27.3	30.1
기관 시설·설비	1.4	-	7.2	1.7	0.4	2.0	-	1.5	0.8	2.4	1.7	2.4
국공립 여부	13.3	-	-	0.2	0.6	1.1	-	5.3	5.7	6.3	3.4	6.3
주변의 평판	10.4	5.3	14.7	13.0	17.4	12.4	-	12.2	12.7	12.7	10.5	12.7
주변환경	0.5	0.6	1.4	0.8	1.2	4.9	-	1.0	0.4	1.5	1.5	1.5
평가 결과	0.4	3.4	-	0.5	1.8	-	-	0.7	1.2	0.9	0.8	0.9
차량 운행 여부	0.1	-	-	0.8	-	-	-	0.3	0.4	0.5	0.6	0.5
특별활동	-	-	-	0.1	-	-	-	0.0	-	-	-	-
형제자매 자원 여부	0.6	2.8	1.9	1.4	1.9	1.7	-	1.2	2.1	2.7	1.3	2.7
공공형 어린이집 여	0.7	-	-	0.4	-	-	-	0.4	0.8	0.4	0.4	0.4

구분	국공립	사회복	법인·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1년	'18년	'15년	'12년
	지법인	단체등										
부												
기타	0.6	0.8	1.3	1.1	0.7	8.7	-	1.2	0.9	0.8	0.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1,666)	(1,464)	(1,753)	(1,745)	(1,5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명확한 응답을 위해 '평가결과(평가결과 내용 등'으로 수정, 국공립 여부에 '※ 어린이집, 유치원만 응답' 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제자매'로 수정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50. <표 VI-1-3>.

아동의 영유아 구분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이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집과의 거리로 영유아 각 35.1%, 29.1%의 비중을 보였다. 집과의 거리를 제외하고 영아의 경우 주변의 평판(11.7%), 프로그램(10.2%), 교사(8.9%) 순이었으며 유아는 프로그램(14.1%), 주변의 평판(12.9%), 교사(7.0%)의 순으로 유아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영아에 비해 높았다.

보육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이유는 모든 연령에서 집과의 거리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집과의 거리를 제외하고 0세의 경우 원장(12.8%), 주변의 평판(9.1%), 교사(8.7%) 순이었으며, 원장에 대한 비중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어린이집 선택 이유에서 주변의 평판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어린이집 선택 이유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VI-1-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원장	8.2	5.2	12.8	7.2	7.1	6.4	3.4	5.4
교사	8.9	7.0	8.7	9.1	8.9	5.5	10.6	5.5
운영시간	3.2	4.2	2.6	3.9	2.7	4.2	4.7	3.8
비용	0.2	3.1	0.3	0.1	0.2	2.6	2.9	3.7
프로그램	10.2	14.1	7.7	7.0	14.6	11.1	12.6	19.1
건강·영양	1.4	0.6	2.1	1.6	0.9	0.6	1.1	0.4
기관 학급 규모	1.5	2.5	3.7	0.7	1.2	3.0	2.7	1.9
기관 실내외환경	7.0	6.8	6.9	6.9	7.0	7.9	7.1	5.2
안전한 보호	1.5	1.7	0.5	0.7	2.7	2.7	1.9	0.4
집과의 거리	35.1	29.1	33.1	38.5	32.6	27.5	27.4	32.5
기관 시설·설비	1.7	1.2	1.3	2.1	1.5	1.9	0.7	0.9
국공립 여부	5.1	5.7	4.6	6.0	4.4	7.1	4.4	5.2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주변의 평판	11.7	12.9	9.1	12.3	12.4	11.7	16.3	11.0
주변환경	0.8	1.2	1.2	0.7	0.7	2.8	-	0.5
평가인증 결과	0.9	0.4	1.8	0.9	0.4	0.2	1.2	-
차량 운행 여부	0.1	0.7	-	0.1	0.2	0.3	-	1.8
특별활동	-	0.1	-	-	-	0.3	-	-
형제자매 재원 여부	1.1	1.4	2.1	0.9	0.9	1.8	1.9	0.6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0.4	0.5	-	0.8	0.2	-	-	1.4
기타	1.1	1.5	1.6	0.5	1.4	2.4	1.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chi^2(df)$	57.5(19)**		173.0(9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아동의 지역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이유는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집과의 거리가 대도시(31.2%), 중소도시(34.8%), 읍·면지역(30.4%)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프로그램(13.6%), 주변의 평판(10.2%)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주변의 평판(13.5%), 프로그램(11.1%)의 순이었다. 읍·면지역의 경우 주변의 평판(12.6%), 교사(11.4%)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교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아동의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이유는 모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집과의 거리가 각 취업(33.3%), 휴직 중(38.8%), 미취업(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모가 부재할 경우 56.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취업 모의 경우 프로그램(12.5%), 주변의 평판(11.3%) 순이었으며 휴직 중인 모의 경우 국공립 여부(11.4%), 기관 실내외 환경(10.2%)의 순이었다. 미취업 모의 경우 주변의 평판(14.5%), 프로그램(10.8%)의 순으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선택 이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VI-1-6〉 지역 및 모 취업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원장	5.7	8.4	6.1	6.6	6.5	8.1	-
교사	6.9	8.2	11.4	7.7	4.1	10.4	4.1
운영시간	2.6	4.3	3.7	4.8	2.5	1.5	7.6
비용	0.5	1.9	1.3	1.5	1.0	0.9	-
프로그램	13.6	11.1	8.8	12.5	10.1	10.8	11.1
건강·영양	1.0	1.2	1.2	1.0	0.4	1.6	-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기관 학급 규모	2.4	1.1	2.9	1.8	-	2.6	-
기관 실내외환경	7.4	6.1	8.4	7.3	10.2	5.6	-
안전한 보호	2.6	1.0	1.0	1.5	2.7	1.4	-
집과의 거리	31.2	34.8	30.4	33.3	38.8	29.6	56.4
기관 시설·설비	0.9	1.4	3.2	1.2	1.1	2.3	-
국공립 여부	8.5	2.7	5.8	5.4	11.4	3.7	-
주변의 평판	10.2	13.5	12.6	11.3	8.8	14.5	17.1
주변환경	1.5	0.8	0.2	0.6	1.0	1.4	3.7
평가인증 결과	1.0	0.3	1.1	0.6	-	1.1	-
차량 운행 여부	-	0.7	-	0.5	-	0.2	-
특별활동	-	0.1	-	-	-	0.1	-
형제자매 재원 여부	1.3	1.4	0.6	0.9	1.0	1.9	-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0.8	0.0	0.7	0.1	-	1.1	-
기타	1.7	1.0	0.8	1.3	0.4	1.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2)	(753)	(271)	(951)	(145)	(556)	(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이유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집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국공립 여부(12.5%), 원장(11.1%)으로 상위 가구소득 구간에 비해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프로그램은 5.5%로 상위 가구소득 구간에 비해 응답 비중이 낮았다.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주변의 평판과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선택에서 교사에 대한 응답비중은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8.5%), 300~349만원(11.6%), 350~399만원(11.4%)으로 고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7〉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299만원 이하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원장	11.1	6.4	8.5	10.5	5.7	6.1	6.1	-
교사	8.5	11.6	11.4	7.8	7.8	7.2	8.5	-
운영시간	3.0	0.3	4.0	4.9	1.6	6.5	3.7	-
비용	3.5	4.3	-	1.1	1.8	0.1	0.1	12.9
프로그램	5.5	7.3	9.3	15.0	10.6	11.8	12.3	17.9
건강·영양	1.0	3.8	0.3	1.1	1.1	0.9	1.0	-
기관 학급 규모	1.3	6.3	-	1.1	2.9	1.5	1.4	-
기관 실내외환경	6.3	3.8	2.7	6.2	5.7	11.9	6.5	16.6
안전한 보호	5.1	0.4	-	1.0	2.2	1.5	1.4	1.8

구분	299만원 이하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무응답
집과의 거리	28.9	36.7	36.6	32.4	30.7	32.2	35.0	16.9
기관 시설·설비	0.8	1.6	1.0	2.4	2.1	0.4	1.4	-
국공립 여부	12.5	2.4	2.6	3.3	5.6	4.2	6.2	11.4
주변의 평판	8.3	6.1	17.0	9.2	13.6	12.9	13.0	21.5
주변환경	-	2.7	2.3	0.3	1.8	0.2	0.8	-
평가인증 결과	-	2.9	2.9	0.3	0.7	0.9	0.2	-
차량 운행 여부	-	-	-	1.0	0.8	-	-	-
특별활동	1.0	-	-	-	-	-	-	-
형제자매 재원 여부	2.1	2.9	-	1.1	2.4	0.3	0.8	-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1.0	-	-	-	1.4	0.5	0.1	-
기타	-	0.5	1.4	1.1	1.3	0.8	1.8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1)	(101)	(98)	(289)	(332)	(248)	(493)	(2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및 중단 사유

응답자 중 18.3%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아(12.5%), 유아(27.6%)였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는 2세 이상부터는 20.0% 이상이 어린이집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4세에서는 31.4%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중단 여부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27.3%, 국공립어린이집(21.8%),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19.6%), 민간어린이집(17.8%) 등의 순으로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중단 사유로는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 중단한 경우가 4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외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맞지 않음(18.8%), 어린이집 관련 불만(17.9%), 기관 폐원 및 이사(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중단 사유는 보육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0세의 경우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48.7%), 어린이집 관련 불만(2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5세의 경우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54.3%), 기관 폐원 및 이사(19.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형 안에서도 유아기가 되면서 기관 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중단 사유에 차이가 있었으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중단한 사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외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관련 불만(16.5%),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 맞음(14.8%)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미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 맞음(23.7%), 어린이집 관련 불만(20.5%)으로 휴직 중인 모의 경우 각 20.4%, 22.5%로 미취

업모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VI-1-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 (명)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집 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집 과의 조건 안 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전체	18.3 (1,666)	17.9	4.5	18.8	0.9	7.9	45.3	1.9	1.2	1.6 (291)
영유아구분										
영아	12.5 (1,033)	23.3	4.2	21.5	-	5.9	39.3	2.8	1.3	1.6 (130)
유아	27.6 (573)	13.9	4.6	16.8	1.6	9.4	49.6	1.2	1.1	1.6 (161)
$\chi^2(df)$	60.7(1)***	11.6(8)								
보육연령										
0세	3.9 (226)	27.2	12.6	11.5	-	-	48.7	-	-	- (8)
1세	8.4 (413)	35.9	1.1	22.7	-	-	27.4	10.2	-	2.7 (38)
2세	20.5 (454)	17.7	4.8	21.9	-	8.9	43.4	-	2.0	1.4 (84)
3세	28.2 (241)	8.5	5.7	23.7	4.2	6.9	44.8	1.6	2.8	1.8 (65)
4세	31.4 (169)	17.8	4.4	17.5	-	4.5	51.4	1.7	-	2.7 (52)
5세	23.5 (163)	16.9	3.4	6.3	-	19.1	54.3	-	-	- (44)
$\chi^2(df)$	95.7(5)***	69.4(40)**								
모 취업 여부										
취업	19.9 (951)	16.5	3.3	14.8	-	9.6	50.3	2.5	1.4	1.6 (181)
휴직 중	19.4 (145)	22.5	6.0	20.4	-	6.0	41.6	3.5	-	- (27)
미취업	15.1 (556)	20.5	6.8	23.7	3.5	5.2	36.8	-	1.2	2.3 (81)
부재 등	23.1 (14)	-	-	100.0	-	-	-	-	-	- (2)
$\chi^2(df)$	6.1(3)	39.6(2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1.8 (586)	18.3	3.4	16.8	-	6.6	51.2	0.8	1.4	1.5 (115)
사회복지법인	19.6 (94)	19.8	-	33.2	-	12.6	26.5	-	-	7.9 (20)
법인·단체등	7.5 (49)	25.8	41.8	-	-	-	32.4	-	-	- (4)
민간	17.8 (619)	13.3	5.5	18.7	2.6	10.8	45.1	2.4	-	1.6 (106)
가정	7.4 (209)	44.3	3.3	16.3	-	6.6	16.6	6.3	6.6	- (15)
직장	27.3 (105)	18.5	4.8	27.8	-	1.7	39.8	4.4	3.0	- (30)
협동	8.5 (4)	-	-	-	-	-	100.0	-	-	- (1)
$\chi^2(df)$	29.3(6)***	45.1(4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다. 어린이집 이용 시기 및 기간

1)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평균 22.6개월로, 2021년 25.2개월에 비해 다소 짧아진 경향이 있으나 2018년 22.3개월로 응답되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분에 따라서는 대도시(21.8개월), 중소 도시(23.5개월), 읍·면지역(21.5개월)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취업(21.8개월), 휴직 중(21.4개월), 미취업(23.9개월)으로 미취업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가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24.9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월령을 보였으며,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30.3개월이나 관측치가 4개에 불과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지역규모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시기는 국공립, 민간, 직장, 협동어린이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국공립, 협동어린이집의 이용 시작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표 VI-1-9〉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단위: 개월,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9	14.5	(586)	22.5	12.2	(94)	21.0	10.9	(49)	23.2	12.0	(619)
영유아구분												
영아	17.5	7.8	(363)	17.1	6.0	(54)	16.0	7.7	(27)	18.2	7.6	(398)
유아	34.5	15.7	(223)	30.3	14.6	(40)	26.8	11.3	(22)	30.5	13.5	(221)
<i>t</i>	-16.4***			-4.6***			-3.4**			-13***		
지역규모												
대도시	23.5	13.6	(279)	23.0	10.6	(32)	23.1	11.8	(9)	21.0	11.3	(198)
중소 도시	27.1	16.0	(215)	25.0	14.8	(31)	18.5	10.1	(26)	24.3	11.9	(334)
읍·면	23.2	12.5	(92)	20.1	11.6	(31)	23.2	11.6	(14)	23.4	13.8	(87)
<i>F</i>	4.9**(a)			0.9			0.8			4.9**		
모 취업 여부												
취업	24.0	15.0	(358)	22.5	15.1	(45)	20.6	11.2	(35)	22.4	12.7	(330)
휴직 중	23.7	12.4	(54)	17.6	14.1	(8)	7.0	-	(1)	22.8	11.2	(45)
미취업	26.5	13.6	(171)	23.2	8.4	(41)	22.4	10.2	(13)	24.3	11.2	(234)
모 부재	48.7	19.0	(3)	-	-	-	-	-	-	28.6	8.9	(10)
<i>F</i>	5.2**			0.4(a)			0.5			1.9		
2021년	27.2	14.3	(390)	27.1	14.8	(107)	23.7	11.1	(58)	26.5	13.6	(650)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2018년	23.6	12.0	(417)	24.2	11.7	(90)	25.9	12.9	(96)	22.8	11.2	(874)
2015년	31.2	14.3	(250)	29.9	13.8	(141)	27.1	12.2	(95)	27.2	12.9	(959)

(표 계속)

구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4.1	6.9	(209)	21.1	11.1	(105)	30.3	5.2	(4)	22.6	12.9	(1,666)
영유아구분												
영아	13.7	5.9	(194)	18.0	6.7	(55)	24.4	3.0	(2)	17.1	7.5	(1,093)
유아	19.1	13.4	(15)	24.4	13.6	(50)	33.4	2.7	(2)	31.5	14.8	(573)
<i>t</i>	-1.6			-2.7**			-4.8**			-22.8***		
지역규모												
대도시	14.9	6.7	(77)	22.2	12.6	(46)	29.0	-	(1)	21.8	12.4	(642)
중소 도시	14.4	6.2	(100)	19.7	10.0	(45)	30.0	7.1	(2)	23.5	13.4	(753)
읍·면	11.8	9.0	(32)	21.8	8.6	(14)	31.0	-	(1)	21.5	12.7	(271)
<i>F</i>	2.3			0.4			0.0(a)			4.1*		
모 취업 여부												
취업	12.9	6.4	(106)	20.2	10.6	(76)	36.0	-	(1)	21.8	13.5	(951)
휴직 중	15.4	3.8	(27)	21.1	12.6	(10)	-	-	-	21.4	11.2	(145)
미취업	15.4	8.2	(75)	24.6	12.4	(19)	27.6	4.1	(3)	23.9	12.0	(556)
모 부재	19.0	-	(1)	-	-	-	-	-	-	33.1	14.7	(14)
<i>F</i>	2.4			1.0			10.9(a)			7.0*** (a)		
2021년	16.5	7.5	(200)	22.8	11.4	(55)	35.6	14.6	(4)	25.2	13.6	(1,464)
2018년	16.9	8.1	(221)	21.5	9.2	(55)	-	-	-	22.3	11.3	(1,753)
2015년	17.9	8.9	(268)	28.6	14.3	(30)	-	-	-	26.5	13.2	(1,7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53. <표 VI-1-5>.

* $p < .05$, ** $p < .01$, *** $p < .001$.

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재원기간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재원기간은 평균 19.5개월로 2021년(19.1개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8년(21.8개월)에 비해 다소 짧았다. 어린이집 재원기간은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20.6개월), 휴직 중(14.4개월), 미취업(18.7개월), 모 부재(28.4개월)로 모가 취업을 했거나 부재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기간이 더 길었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는 협동어린이집(27.0개월), 직장어린이집(24.3개월), 법인·단체어린이집(22.2개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각 20개월, 국공립어린이집(19.7개월), 가정어린이집(14.5개월) 순이었다. 협동어린이집은 관측치가 4개에 불과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지역규모에 따른 재원 기간은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재원 기간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취업모의 경우 21.0개월로 미취업모(18.1개월)이나 휴직 중(16.5개월)에 비해 길었으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 부재의 경우 35.0개월에 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1-10〉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7	14.7	(586)	20.0	15.7	(94)	22.2	14.0	(49)	20.0	15.0	(619)
영유아구분												
영아	12.9	8.3	(363)	12.0	8.1	(54)	12.5	6.7	(27)	12.3	8.4	(398)
유아	28.5	16.4	(223)	31.4	16.9	(40)	33.5	11.6	(22)	31.3	15.4	(221)
<i>t</i>	-14.4**			-5.7**			-6.8**			-17.9**		
지역규모												
대도시	19.5	14.2	(279)	21.0	17.0	(32)	18.4	14.4	(9)	17.9	13.7	(198)
중소 도시	18.8	14.0	(215)	17.9	14.6	(31)	21.5	12.8	(26)	20.9	15.1	(334)
읍·면	22.6	17.2	(92)	20.7	15.6	(31)	26.0	15.9	(14)	21.2	17.5	(87)
<i>F</i>	2.5(a)			0.2			0.7			2.8(a)		
모 취업 여부												
취업	21.0	15.2	(358)	21.8	18.0	(45)	22.0	14.0	(35)	20.5	14.9	(330)
휴직 중	16.5	15.7	(54)	6.7	8.9	(8)	-	-	(1)	12.3	9.0	(45)
미취업	18.1	12.7	(171)	20.1	13.1	(41)	23.7	14.3	(13)	20.0	15.7	(234)
모 부재	12.9	19.8	(3)	-	-	-	-	-	-	35.0	10.0	(10)
<i>F</i>	3.0(a)			1.9			0.7			8.0**	(a)	
2021년	19.1	13.9	(390)	22.6	14.9	(107)	21.1	17.9	(58)	19.8	14.3	(650)
2018년	24.5	16.3	(417)	24.2	17.2	(90)	22.4	15.8	(96)	22.5	15.7	(874)
2015년	20.2	15.6	(250)	19.5	14.2	(141)	21.0	12.6	(95)	17.4	13.4	(959)

(표 계속)

구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4.5	12.1	(209)	24.3	16.3	(105)	27.0	19.5	(4)	19.5	14.8	(1,666)
영유아구분												
영아	12.3	8.5	(194)	14.3	9.0	(55)	5.1	6.6	(2)	12.6	8.4	(1,093)
유아	41.4	16.7	(15)	34.7	15.8	(50)	38.8	11.4	(2)	30.7	16.0	(573)
<i>t</i>	-6.9**			-7.2**			-5.9**			-26.4**		
지역규모												
대도시	11.6	9.3	(77)	22.2	13.6	(46)	15.0	-	(1)	18.4	13.9	(642)
중소 도시	14.8	12.0	(100)	26.0	18.7	(45)	16.1	14.3	(2)	19.5	14.6	(753)
읍·면	19.1	15.8	(32)	26.0	17.7	(14)	49.0	-	(1)	22.2	17.0	(271)
<i>F</i>	4.2*(a)			0.5			7.5*(a)			5.9***(a)		
모 취업 여부												
취업	16.1	14.2	(106)	24.9	15.8	(76)	28.0	-	(1)	20.6	15.1	(951)
휴직 중	12.6	8.2	(27)	22.2	12.6	(10)	-	-	-	14.4	12.5	(145)
미취업	12.9	9.6	(75)	22.7	20.2	(19)	26.5	24.1	(3)	18.7	14.3	(556)
모 부재	9.0	-	(1)	-	-	-	-	-	-	28.4	16.2	(14)
<i>F</i>	1.3(a)			0.2			0.0(a)			10.1***(a)		
2021년	12.4	9.1	(200)	27.4	17.3	(55)	18.7	12.0	(4)	19.1	14.2	(1,464)
2018년	13.3	10.3	(221)	25.4	14.4	(55)	-	-	-	21.8	15.6	(1,753)
2015년	12.1	8.9	(268)	24.7	15.2	(30)	-	-	-	17.3	13.4	(1,7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54~255. <표 VI-1-6>.

* $p < .05$, ** $p < .01$, *** $p < .001$

라. 어린이집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요일별 어린이집 이용비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9.0% 이상이며, 주말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비중은 토요일(0.5%), 일요일(0.2%)이었다. 주당 정기적 이용 일수는 평균 5일이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영아의 경우 0.5%로 유아(0.2%)보다 높았고, 일요일에 이용하는 경우도 2세 영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11>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단위: %, (명), 일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월요일	99.8	99.8	99.7	100.0	99.6	100.0	100.0	99.4	99.8
화요일	99.8	99.8	100.0	100.0	99.6	99.5	100.0	100.0	99.8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요일	99.9	99.7	100.0	99.8	100.0	99.8	100.0	99.4	99.8
목요일	99.9	99.8	99.6	100.0	100.0	99.5	100.0	100.0	99.9
금요일	99.7	99.8	99.3	99.8	99.9	100.0	100.0	99.4	99.8
토요일	0.5	0.2	-	0.4	0.9	0.1	-	0.5	0.4
일요일	0.2	-	-	-	0.4	-	-	-	0.1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5.0	5.0	5.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규모나 모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집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가 취업을 한 경우 토요일(0.5%), 일요일(0.2%)로 주말 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취업인 경우에도 토요일(0.3%) 이용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2〉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월요일	99.7	99.8	100.0	99.7	100.0	99.9	100.0
화요일	100.0	99.6	100.0	99.8	99.1	100.0	100.0
수요일	99.8	99.9	99.6	99.8	100.0	99.8	100.0
목요일	100.0	99.8	100.0	100.0	99.1	99.9	100.0
금요일	99.7	99.8	99.6	99.8	100.0	99.6	100.0
토요일	-	0.7	0.5	0.5	-	0.3	-
일요일	-	0.2	-	0.2	-	-	-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5.0
(수)	(642)	(753)	(271)	(951)	(145)	(556)	(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이용 시간

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²⁷⁾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8:31~9:00(48.7%), 9:01~9:30(21.9%), 8:01~8:30(13.3%) 등

27) 2015년도 조사에서는 등원 시각을 ‘기관 이용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하원 시간을 ‘기관이용을 마치고’집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여 2018년 조사에서 등·하원 시각과 직접적 비교가 불가하므로 제시하지 않음.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8:31~9:00(40.4%), 9:01~9:30(29.9%), 9:31~10:00(13.9%)의 분포를 보여 2024년에 어린이집 등원 시각이 다소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등원 시각은 영유아 구분 및 연령에 따라 경향성에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경우 8:31~9:00가 4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01~9:30이 24.9%였다. 유아의 경우 등원 시간이 7:31~8:00에 7.6%, 9:31~10:00에 12.3%로 영아에 비해 등원 시각이 좀 더 넓은 분포를 보였다. 보육연령에 따라서 0세~4세의 영유아는 8:31~9:30 사이에 등원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5세 유아는 8:01~8:30 등원이 21.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1-13〉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21년	'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0.7	0.7	-	0.6	1.2	0.4	1.5	0.2	0.7	0.6	1.6
7:31~8:00	5.4	7.6	6.7	4.5	5.6	8.1	8.7	5.8	6.2	4.0	3.5
8:01~8:30	12.1	15.2	12.5	9.2	14.8	15.0	8.9	21.3	13.3	10.3	13.7
8:31~9:00	49.9	46.7	53.3	50.2	48.1	45.1	43.6	51.6	48.7	40.4	38.5
9:01~9:30	24.9	17.1	19.5	28.6	23.7	17.1	23.8	10.8	21.9	29.9	31.2
9:31~10:00	7.0	12.3	8.1	6.8	6.6	14.0	13.4	9.2	9.0	13.9	11.0
10:01 이후	-	0.5	-	-	-	0.3	-	1.1	0.2	0.8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1,464)	(1,753)
$\chi^2(df)$	35.2(6)**		85.4(3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57. 〈표 VI-1-8〉.

*** $p < .001$.

어린이집 등원시각은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7:31~8:00(14.8%), 8:01~8:30(20.3%), 8:31~9:00(49.4%), 9:01~9:30(13.9%)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등원 시간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9:01~9:30 등원하는 비중이 각각 23.7%, 23.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9:01~9:30에 등원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모인 경우 등원 시각이 미취업모에 비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취업모와 휴직자인 경우 9:01~9:30에 등원하는 비중이 각 36.8%, 25.5%로 취업

모나 모 부재의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1-1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부재
7:30까지	0.5	-	-	1.1	0.9	-	-	0.6	0.7	1.2	1.2	-	0.0	-
7:31~8:00	7.2	4.5	3.3	4.4	5.0	14.8	31.5	4.6	7.9	4.5	8.4	8.2	2.0	4.4
8:01~8:30	13.7	13.0	22.7	11.7	11.4	20.3	33.3	11.5	13.9	15.6	19.7	1.1	5.2	16.5
8:31~9:00	49.8	51.6	50.7	46.1	53.8	49.4	-	48.5	46.0	57.8	45.7	42.6	55.4	49.7
9:01~9:30	21.0	19.8	19.3	23.7	23.1	13.9	35.2	25.8	21.3	14.2	17.7	36.8	25.5	20.5
9:31~10:00	7.7	9.6	4.0	12.7	5.8	1.7	-	8.7	10.0	6.7	7.2	11.3	11.5	8.9
10:01 이후	-	1.6	-	0.3	-	-	-	0.3	0.1	-	0.1	-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951)	(145)	(556)	(14)
$\chi^2(df)$	80.9(36)***							31.4(12)**			147.3(1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15:01~16:00가 4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6:01~17:00가 25.0%로 많았다.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15:01~16:00가 2018년 39.6%, 2021년 48.6%로 비중이 늘고 있으며 15:00 이전에 하원 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영아의 하원시각은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51.1%로 유아(46.4%)보다 높았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하원 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6:01~17:00에 하원하는 비중이 2세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3세와 5세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1-1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21년	'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1.4	0.8	4.1	0.7	0.9	-	1.5	1.0	1.2	1.8	1.5	
14:01~15:00	1.7	2.9	2.8	1.0	1.9	2.8	3.9	2.2	2.2	4.6	5.5	
15:01~16:00	51.1	46.4	53.2	55.9	45.3	43.3	43.4	52.9	49.3	48.6	39.6	
16:01~17:00	24.5	25.6	19.7	23.7	27.6	23.6	32.2	21.9	25.0	25.9	34.0	
17:01~17:30	5.8	6.1	5.4	6.8	5.0	7.8	4.6	5.7	5.9	7.0	7.3	
17:31~18:00	9.5	9.7	9.9	6.4	12.4	10.7	8.9	9.2	9.6	6.1	5.6	
18:01~19:00	4.7	7.2	3.7	4.6	5.4	9.7	4.9	6.5	5.7	5.0	5.7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21년	'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9:01 이후	1.2	1.2	1.1	0.9	1.6	2.1	0.5	0.7	1.2	1.1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1,464)	(1,753)
$\chi^2(df)$	10.6(7)		67.1(35)***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58~259. <표 VI-1-10>.

*** $p < .001$.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15:01~16:00 하원 비중이 50.1%로 상당히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시각에 하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어린이집 유형별로 하원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17:31~18:00 하원 비중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18:01~19:00에 하원 하는 비중도 12.2%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퇴근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47.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17시 이후 하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하원 시각이 17:31~18:00(14.1%)와 18:01~19:00(9.1%)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1-16>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 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14:00까지	0.8	1.1	-	1.4	0.9	-	26.7	1.3	1.1	1.0	0.6	3.1	1.7	-
14:01~15:00	2.0	1.7	-	2.6	3.1	-	-	2.0	2.6	1.1	1.4	1.8	3.5	3.7
15:01~16:00	50.1	56.3	32.8	52.1	47.8	29.6	33.3	51.4	47.2	50.8	38.0	62.8	65.8	38.8
16:01~17:00	25.3	15.5	35.8	25.4	25.2	20.0	39.9	27.4	23.1	25.0	27.2	22.5	22.0	12.0
17:01~17:30	7.2	11.4	7.5	3.5	6.7	7.7	-	4.5	6.8	6.8	8.0	2.5	2.8	18.7
17:31~18:00	9.6	7.8	14.3	7.5	7.3	30.3	-	8.1	10.6	9.6	14.1	5.1	2.4	23.1
18:01~19:00	4.0	4.7	9.6	6.1	6.8	12.2	-	4.4	6.8	5.2	9.1	0.8	1.1	3.7
19:01 이후	1.0	1.6	-	1.3	2.2	0.2	-	0.8	1.7	0.5	1.5	1.4	0.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951)	(145)	(556)	(14)
$\chi^2(df)$	166.8(42)***							19.5(14)			209.9(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영유아 전체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31분(표준편차 1시간 19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2018년 평균 7시간 24분(표준편차 1시간 18분), 2021년 평균 7시간 12분(표준편차 1시간 22분)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다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시간 28분이며, 유아의 이용 시간은 7시간 35분으로 영유아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 보육연령별로는 2세와 3세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1-17〉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21년	'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1.7	2.0	4.1	1.2	1.1	2.4	2.7	1.0	1.8	2.1	2.6	
5~6시간	10.0	8.1	11.2	11.7	7.9	8.3	3.3	12.3	9.3	19.3	15.5	
6~7시간	43.8	41.1	45.5	46.4	40.5	36.7	49.9	38.3	42.8	39.2	33.6	
7~8시간	20.4	21.2	14.8	20.7	22.7	19.3	23.2	21.5	20.7	19.4	25.8	
8~9시간	13.0	14.9	14.8	11.9	13.4	15.8	13.7	14.8	13.7	11.2	13.4	
9~10시간	8.0	9.2	7.5	5.7	10.6	11.7	3.5	11.5	8.5	6.4	6.1	
10시간 이상	3.0	3.5	2.0	2.5	3.8	6.0	3.6	0.6	3.2	2.5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1,464)	(1,753)	
$\chi^2(df)$	4.9(6)		66.1(30)**									
평균(시간:분)	7:28	7:35	7:19	7:22	7:39	7:44	7:28	7:30	7:31	7:12	7:24	
표준편차(시간:분)	1:19	1:18	1:33	1:12	1:19	1:24	1:12	1:15	1:19	1:22	1:18	
F	-1.6		4.4**(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60~261. 〈표 VI-1-12〉.

*** $p < .001$.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평균 이용시간이 8시간 23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1시간 이상 길었으며,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의 경우 7시간 22분으로 중소도시(7시간 36분), 읍·면지역(7시간 35분)에 비해 이용시간이 짧았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각 평균 21분 늘어났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다소 축소된 경향이었으나 2018년 어린이집 이용시간과는 차이가 크지 않음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다시 일상적인 행태로 복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1-18〉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5시간까지	1.3	1.1	-	2.7	0.9	-	26.7	2.1	1.9	1.0	1.3	3.1	2.5	-
5~6시간	7.9	5.5	4.0	12.1	10.2	2.6	-	11.2	9.1	5.1	5.4	17.4	13.9	7.8
6~7시간	44.2	50.0	28.0	44.6	42.4	24.7	8.5	43.1	42.1	44.2	33.1	55.1	56.8	32.7
7~8시간	20.6	23.0	33.1	20.4	20.8	14.8	33.3	21.9	18.6	24.7	23.3	10.5	19.2	10.3
8~9시간	16.8	10.7	18.0	8.3	14.1	28.7	31.5	13.4	13.8	14.5	18.6	9.1	5.7	34.6
9~10시간	7.0	7.7	16.9	7.6	8.5	24.1	-	5.9	10.2	9.1	13.4	2.8	1.1	14.7
10시간 이상	2.3	2.0	-	4.2	3.1	5.2	-	2.4	4.3	1.5	4.9	2.0	0.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951)	(145)	(556)	(14)
$\chi^2(df)$	154.5(36)***							27.1(12)**			243.2(18)***			
평균(시간:분)	7:32	7:28	7:52	7:21	7:34	8:23	7시	7:22	7:36	7:35	7:54	6:58	6:58	7:52
표준편차(시간:분)	1:13	1:11	1:03	1:23	1:21	1:15	2:02	1:16	1:22	1:14	1:20	1:20	59	1:13
F	8.5***							5.3**(a)			76***(a)			
2021년 평균	7:03	7:20	7:14	7:12	7:08	8:32	7:34	7:01	7:15	7:32	7:45	6:19	6:47	8:19
표준편차	1:22	1:02	1:09	1:20	1:28	1:12	1:07	1:26	1:19	1:15	1:20	1:14	1:07	2:20
2018년 평균	7:30	7:42	7:30	7:12	7:12	8:30	-	7:18	7:18	7:42	7:48	6:54	6:54	8:18
표준편차	1:24	1:12	1:24	1:12	1:24	1:24	-	1:24	1:18	1:12	1:24	1:12	1:00	1:0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61~262. 〈표 VI-1-13〉.

** $p < .01$, *** $p < .001$.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취업모 아동의 경우 영아는 7시간 53분(표준편차 1시간 21분)과 유아는 7시간 54분(표준편차 1시간 20분)으로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모에 비해서 이용시간이 약 30분가량 길었다. 취업모와 휴직 중인 경우 보육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2세일 때 보육시간이 8시간 6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휴직 중인 경우 5세일 때 7시간 51분으로 가장 길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9〉 아동 연령 및 모 취업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시간:분,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취업모 아동								
평균	7:53	7:54	7:43	7:44	8:06	8:04	7:48	7:48
표준편차	1:21	1:20	1:29	1:15	1:20	1:26	1:17	1:14
(수)	(603)	(348)	(131)	(215)	(257)	(144)	(102)	(102)
<i>F</i>	-0.1		3*					
모휴직 중 아동								
평균	6:48	7:23	6:02	7:05	6:42	7:32	6:55	7:51
표준편차	1:25	59	1:27	1:24	1:19	1:05	19	1:12
(수)	(111)	(34)	(34)	(50)	(27)	(18)	(11)	(5)
<i>F</i>	-2.4*		3*					
미취업모 아동								
평균	6:57	6:60	6:51	6:56	7:00	7:08	6:57	6:52
표준편차	56	1:04	1:25	49	52	1:12	57	1:02
(수)	(377)	(179)	(61)	(147)	(169)	(76)	(53)	(50)
<i>F</i>	-0.5		0.8					
모 부재 아동								
평균	8:29	7:49	-	9:00	8:00	8:53	7:35	7:38
표준편차	51	1:15	-	-	-	38	1:08	1:27
(수)	(2)	(12)	-	(1)	(1)	(3)	(3)	(6)
<i>F</i>	0.6		0.6					
전체								
평균	7:28	7:35	7:19	7:22	7:39	7:44	7:28	7:30
표준편차	1:19	1:18	1:33	1:12	1:19	1:24	1:12	1:15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i>F</i>	-1.6		4.4*** (a)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다)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시작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6.2%였으며, 끝나는 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91.4%였다.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모두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작 시간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2.2%,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1.5%였으며,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8.1%, 너무 늦다는 의견이 0.2%였다.

어린이집 시작 시간에 대한 응답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끝나는 시

간에 대한 응답은 보육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법인·단체 등에서 9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이 94.9%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은 보육연령이 늘어날수록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끝나는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도시 90.8%, 중소도시 92.8%, 읍·면지역 88.6%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은 미취업(91.9%), 취업(91.2%), 휴직 중(90.2%) 순이었다.

〈표 VI-1-20〉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전체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chi^2(df)$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chi^2(df)$	
전체	96.2	1.5	2.2	0.1		91.4	8.1	0.2	0.2		100.0(1,666)
영유아구분											
영아	95.5	1.6	2.7	0.2	5.5(3)	90.1	9.4	0.3	0.2	8.3(3)*	100.0(1,093)
유아	97.4	1.3	1.3	-		93.6	6.1	-	0.3		100.0(573)
보육연령											
0세	95.6	0.4	3.3	0.6	24.8(15)	89.2	10.1	0.7	-	26.5(15)*	100.0(226)
1세	94.4	2.5	3.1	-		87.2	12.3	0.1	0.3		100.0(413)
2세	96.6	1.2	2.0	0.2		93.4	6.1	0.4	0.2		100.0(454)
3세	98.0	0.9	1.1	-		93.8	6.2	-	-		100.0(241)
4세	96.7	3.1	0.2	-		94.7	5.3	-	-		100.0(169)
5세	97.3	0.2	2.5	-		92.3	6.7	-	1.0		100.0(163)
지역규모											
대도시	97.0	1.0	1.9	0.1	8.0(6)	90.8	8.1	0.5	0.7	15.0(6)*	100.0(642)
중소도시	96.4	1.3	2.2	0.1		92.8	7.2	-	-		100.0(753)
읍·면	93.9	3.3	2.7	-		88.6	11.2	0.2	-		100.0(271)
모 취업 여부											
취업	95.5	1.9	2.6	-	10.5(9)	91.2	8.2	0.3	0.2	2.5(9)	100.0(951)
휴직 중	95.9	1.1	2.1	0.8		90.2	8.9	-	0.9		100.0(145)
미취업	97.5	1.0	1.4	0.1		91.9	7.9	0.1	0.1		100.0(556)
부재 등	100.0	-	-	-		95.6	4.4	-	-		100.0(1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6.5	1.3	2.2	-	8.3(3)*	92.2	7.1	0.4	0.3	8.0(18)	100.0(586)
사회복합인	97.2	1.5	1.2	-		93.9	6.1	-	-		100.0(94)
법인·단체등	97.8	1.5	0.7	-		92.3	7.7	-	-		100.0(49)
민간	95.8	1.9	2.2	0.1		90.2	9.5	0.2	0.1		100.0(619)
가정	94.9	1.6	3.0	0.6		90.1	9.3	-	0.6		100.0(209)
직장	98.6	-	1.4	-		94.6	5.4	-	-		100.0(105)
협동	100.0	-	-	-		100.0	-	-	-		100.0(4)
2021년	93.6	1.7	4.2	0.4		87.2	10.9	1.1	0.9		100.0(1,464)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전체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chi^2(df)$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chi^2(df)$	
2018년	92.3	3.4	4.4	-		84.7	14.9	0.4	-		100.0(1,753)
2015년	94.3	2.1	3.5	0.1		87.8	10.9	1.0	0.3		100.0(1,745)
2012년	83.9	3.9	12.2	-		65.2	32.4	2.5	-		100.0(1,53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3. <표 VI-1-14>.

* $p < .05$.

라)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간

어린이집 희망 등원 시각은 실제 등원 시각과 마찬가지로 8:31~9:00인 경우가 5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8:01~8:30과 9:01~9:30이 각 10.7%를 보였다. 영유아 구분 및 보육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희망 등원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모두에서 희망 등원시간 8:31~9:00가 영아(53.2%), 유아(51.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한편 유아의 경우 희망 등원 시각 9:31~10:00가 10.1%인 반면 영아의 경우 동일 시각에 5.3%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육연령에 따른 희망 등원 시간은 8:31~9:00에서 보육연령 2세인 경우가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4세에서 47.7%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희망등원시간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영아에 비해 유아의 어린이집 등원시각이 더 늦은 시각까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8:31~9:00가 48.7%였는데, 희망 등원 시각은 이 시간대를 희망하는 비중이 52.4%로 좀 더 높았다. 반면, 실제 등원 시각이 9:00~9:30이라는 응답이 21.9%였던데 반해, 이 시각에 등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10.7%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좀 더 등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I-1-21>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등원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3.4	5.2	3.2	3.9	3.0	3.5	6.9	5.7	4.1
7:31~8:00	14.9	14.8	18.9	15.6	12.5	14.3	13.5	16.6	14.9
8:01~8:30	11.7	9.2	11.1	11.7	11.9	9.8	6.0	11.4	10.7
8:31~9:00	53.2	51.0	51.9	51.5	55.6	53.7	47.7	50.8	52.4
9:01~9:30	11.5	9.5	7.5	12.5	12.1	7.6	12.8	8.7	10.7
9:31~10:00	5.3	10.1	7.4	4.8	4.8	11.0	13.1	6.3	7.1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0:01 이후	0.1	0.2	-	-	0.2	-	-	0.5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chi^2(df)$	20.1(6)**		52.6(30)**						
평균(시:분)	8:50	8:51	8:48	8:49	8:51	8:53	8:54	8:46	8:50
2021년	8:57	8:56	8:51	8:55	9:00	8:52	8:58	8:57	8:56
2018년	8:48	8:48	8:36	8:48	8:48	8:48	8:42	8:42	8:4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4. <표 VI-1-15>.

** $p < .01$.

희망 등원 시각은 어린이집 유형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유형의 경우 8:31~9:00에 등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54.6%)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45.8%)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평균 희망 등원 시각은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직장어린이집이 8시 39분으로 가장 일렀으며 법인어린이집이 8시 58분으로 가장 늦은 결과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평균 희망 등원 시각은 8시 42분으로, 휴직 중 8시 55분, 미취업 9시 3분에 비해 다소 일렀으며 취업모의 경우 7:31~8:00의 비중이 19.7%, 8:01~8:30의 비중이 12.9%로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1-22> 제 특성별 희망 등원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 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7:30까지	4.4	1.0	0.0	3.4	6.3	6.8	0.0	4.0	4.5	3.2	6.2	2.2	1.0	-
7:31~8:00	16.1	12.4	17.7	11.8	14.7	20.7	91.5	13.3	15.9	15.3	19.7	15.1	6.3	16.1
8:01~8:30	10.3	9.2	21.6	10.2	12.1	11.7	0.0	10.4	10.2	13.2	12.9	11.9	6.7	7.7
8:31~9:00	51.4	53.6	45.8	54.6	52.0	51.4	8.5	50.5	53.0	54.9	47.7	45.0	61.9	71.4
9:01~9:30	11.7	16.4	3.8	10.8	9.8	4.2	0.0	13.6	9.5	7.4	8.6	16.7	13.2	-
9:31~10:00	6.1	5.9	11.3	9.1	5.2	5.2	0.0	7.9	6.8	6.0	4.7	9.1	10.9	4.8
10:01 이후	0.0	1.6	0.0	0.1	0.0	0.0	0.0	0.3	-	-	0.2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951)	(145)	(556)	(14)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 취업			
	국공 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모 부재
$\chi^2(df)$	93.2(36)***							18.0(12)			132.7(18)***			
평균(시:분)	8:49	8:58	8:51	8:54	8:47	8:39	8:05	8:53	8:49	8:48	8:42	8:55	9:03	8:51
'21년 평균	9:00	8:50	8:57	8:58	8:55	8:22	8:46	8:59	8:53	8:58	8:48	9:02	9:05	8:4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5. <표 VI-1-16>.

*** $p < .001$.

어린이집 희망 하원 시각은 15:01~16:00가 3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31~17:00가 20.6%이었다. 희망 하원 시간 평균은 17시 9분으로 2021년 17시 3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앞서 실제 하원시각이 15:01~16:00가 49.3%로 가장 높고, 16:00~17:00(25.9%), 17:01~17:30(5.9%), 17:31~18:00(9.6%)였던 것과 비교하여, 희망 하원 시각은 17:01~17:30(4.4%), 17:31~18:00가 17.5%로 좀 더 늦게 하원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희망 하원 시간은 영유아 구분 및 보육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의 평균 희망 하원 시각은 17시 5분, 유아는 17시 16분으로 평균 11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보육연령에 따라서는 3세가 17시 25분으로 가장 늦었으며 0세가 16시 58분으로 가장 이른 시각으로 확인되었다.

<표 VI-1-23>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하원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0.7	-	1.9	0.2	0.7	-	-	-	0.5
14:01~15:00	1.0	3.0	1.6	0.6	1.1	3.1	1.1	4.8	1.8
15:01~16:00	31.9	27.7	33.9	30.3	32.6	20.0	31.1	33.8	30.3
16:01~16:30	8.2	7.1	8.1	7.3	9.2	8.8	7.3	5.1	7.8
16:31~17:00	20.7	20.5	16.6	22.9	20.2	21.7	22.6	17.2	20.6
17:01~17:30	4.7	4.1	5.9	5.2	3.5	4.9	3.6	3.6	4.4
17:31~18:00	17.9	17.0	17.5	18.9	16.9	20.8	13.9	15.4	17.5
18:00~19:00	11.8	12.7	13.2	10.3	12.6	11.6	13.3	13.3	12.1
19:00~19:30	1.6	3.0	-	2.2	1.7	2.1	1.5	5.4	2.1
19:31이후	1.6	4.8	1.2	1.9	1.5	7.0	5.8	1.4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chi^2(df)$	35.0(9)**		104.3(45)***						
평균 (시:분)	17:05	17:16	16:58	17:08	17:05	17:25	17:15	17:06	17:09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1년 평균	17:02	17:05	16:59	17:01	17:03	17:08	17:05	17:00	17:0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5. <표 VI-1-16>.

*** $p < .001$.

어린이집 희망 하원시각도 어린이집 유형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어린이집 유형 중 직장어린이집의 희망 하원 시각은 17시 36분으로 가장 늦었으며, 법인어린이집이 16시 57분으로 가장 일렀다. 2021년 조사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18시 7분으로 가장 늦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16시 57분으로 가장 일렀다. 한편 모 취업의 경우 희망 하원 시각이 17시 27분으로 휴직 중(16시 54분), 미취업(16시 41분)에 비해 대략 30분 이상 늦은 결과를 보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모 취업의 경우가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의 경우보다 대략 30~60분 일찍 하원을 희망하였으나 2024년 조사에서 모 취업 여부에 따른 희망 하원 시간에 대한 차이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24>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하원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모 부재
14:00까지	0.5	-	-	0.5	0.8	-	-	0.6	0.2	0.8	0.1	3.0	0.5	-
14:01~15:00	1.0	1.7	1.5	2.7	1.5	1.6	-	1.3	2.2	1.3	0.8	4.4	2.7	3.7
15:01~16:00	30.1	39.2	18.5	34.2	26.4	13.9	-	32.4	28.1	32.3	23.0	33.0	42.8	17.6
16:01~16:30	8.8	8.2	2.8	7.3	6.8	9.2	-	8.9	6.9	8.1	5.8	5.3	12.2	-
16:31~17:00	20.2	17.3	24.0	22.8	16.3	13.2	73.3	21.3	20.6	19.0	20.2	17.8	22.1	20.5
17:01~17:30	4.0	7.1	3.8	3.4	9.0	2.2	-	4.1	4.5	4.8	4.7	7.1	3.3	-
17:31~18:00	18.5	15.0	22.5	13.2	19.9	38.2	-	15.5	19.2	17.1	22.5	15.4	8.8	35.8
18:00~19:00	11.3	9.2	19.8	11.5	14.5	18.0	-	11.9	11.9	13.2	16.1	11.0	5.1	22.4
19:00~19:30	2.4	-	-	1.8	3.0	0.2	26.7	1.1	3.0	1.7	2.8	3.0	0.7	-
19:31 이후	3.2	2.3	6.9	2.6	1.8	3.5	-	2.7	3.3	1.5	3.9	-	1.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951)	(145)	(556)	(14)
$\chi^2(df)$	147.1(54)**							19.6(18)			201.4(27)**			
평균(시:분)	17:10	16:57	17:35	17:01	17:17	17:36	17:40	17:05	17:14	17:06	17:27	16:54	16:41	17:32
'21년 평균	16:57	17:00	17:12	17:01	17:04	18:07	17:21	16:54	17:08	17:09	17:31	16:41	16:35	1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6. <표 VI-1-18>.

*** $p < .001$.

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평균 8시간 19분으로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 7시간 31분에 비해 48분가량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희망 이용 시간은 2018년(8시간 30분), 2021년(8시간 6분)으로 2021년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이용 시간은 9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비중이 2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희망 이용시간의 분포는 영유아 구분과 보육연령에 따라 유아가 좀 더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희망 이용시간에 대한 평균값은 영유아 구분이나 보육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1-25〉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0.7	1.4	2.1	0.4	0.3	2.6	-	1.4	1.0
5~6시간	4.4	4.5	5.5	4.1	4.1	3.5	3.9	6.1	4.4
6~7시간	29.4	27.9	31.6	25.9	31.9	21.2	31.3	32.6	28.8
7~8시간	24.7	21.4	18.8	28.5	23.5	22.6	26.9	14.8	23.4
8~9시간	18.3	16.6	17.3	18.7	18.3	19.3	12.7	16.9	17.6
9~10시간	11.7	15.4	13.7	13.2	9.4	18.1	12.6	14.7	13.1
10~11시간	7.1	6.2	9.4	4.2	9.1	6.1	6.7	6.0	6.8
11시간 초과	3.7	6.6	1.6	5.0	3.4	6.5	5.9	7.4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1,666)
$\chi^2(df)$	16.4(7)		74.3(35)**						
평균	8:15	8:25	8:10	8:19	8:13	8:32	8:21	8:20	8:19
표준편차	1:32	1:45	1:40	1:30	1:31	1:48	1:41	1:45	1:37
F/t	-1.9		1.5(a)						
2021년	8:04	8:08	8:07	8:06	8:02	8:16	8:06	8:03	8:06
2018년	8:30	8:42	9:00	8:24	8:24	8:30	8:54	8:42	8:30
2015년	8:06	8:30	8:30	8:18	7:54	8:30	8:18	8:42	8:18
2012년	8:09	8:35	7:57	8:11	8:11	8:29	8:54	8:22	8:2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7. 〈표 VI-1-19〉.

* $p < .05$, ** $p < .001$.

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평균 8시간 57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8시간 44분, 가정어린이집 8시간 30분 등의 순이었으며, 민간어린이집이 8시간 7분으로 가장 짧았다. 직장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길었으며 9시간 20분~9시간 45분으로 2024년 조사보다 더 장시간 이용을 희망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희망 시간은 축소되었으나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간은 전반적으로 더 늘어났다. 대도시의 경우 이용 희망 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중소도시(8시간 25분), 읍·면지역(8시간 17분)에 비해 짧았으며 모 취업의 경우 8시간 45분으로 휴직 중(8시간), 미취업(7시간 38분)에 비해 적게는 45분에서 많게는 한 시간 이상 희망 이용 시간이 길었다.

〈표 VI-1-26〉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 공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5시간까지	0.5	-	-	1.6	0.8	1.6	-	0.6	1.3	0.8	0.6	1.8	1.4	-
5~6시간	3.8	5.0	5.5	5.5	3.8	1.5	-	6.0	3.8	2.3	2.2	9.5	7.0	3.7
6~7시간	29.7	38.4	20.7	32.2	21.7	13.5	-	30.0	26.8	32.5	21.1	29.9	42.2	17.6
7~8시간	22.4	19.7	13.9	25.9	24.7	18.5	8.5	23.5	24.3	20.6	21.2	20.0	28.3	25.3
8~9시간	18.5	21.0	24.1	12.7	21.1	27.8	64.8	18.8	16.2	19.5	20.5	19.4	12.4	7.2
9~10시간	13.2	10.0	16.5	11.2	16.7	20.5	-	10.5	14.7	14.5	17.6	12.0	4.6	46.1
10~11시간	7.0	5.1	17.1	6.3	5.4	9.8	-	6.9	6.8	6.4	10.2	2.2	2.2	-
11시간 초과	4.8	0.7	2.1	4.5	5.9	6.8	26.7	3.7	6.2	3.3	6.5	5.2	2.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951)	(145)	(556)	(14)
$\chi^2(df)$	96.5(42)***							25.0(14)*			224.3(21)***			
평균	8:21	7:59	8:44	8:07	8:30	8:57	9:35	8:12	8:25	8:17	8:45	8:00	7:38	8:41
표준편차	1:38	1:24	1:34	1:36	1:38	1:36	1:15	1:36	1:40	1:32	1:38	1:40	1:18	1:18
F	6.3***							3*			63.4***(a)			
2021년	7:57	8:10	8:15	8:03	8:09	9:45	8:36	7:55	8:15	8:11	8:43	7:39	7:30	8:56
2018년	9:00	8:24	8:36	8:18	8:36	9:30	-	8:30	8:36	8:24	9:06	9:00	7:48	9:18
2015년	8:54	9:00	8:18	8:00	8:24	9:30	6:18	8:24	8:18	8:00	9:06	8:30	7:42	-
2012년	8:53	8:17	8:53	8:17	8:00	9:20	8:18	8:26	8:21	9:11	9:11	8:15	7:42	9:0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67. 〈표 VI-1-20〉.

* $p < .05$, *** $p < .001$.

마. 어린이집 등·하원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등원 방법은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고,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하는 비중이 27.9%, 기관차량 이용이 26.4%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한다는 응답이 각 55.2%, 60.0%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기관 차량으로 등원하는 비중이 각 53.8%, 37.3%로 높았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한다는 응답이 79.9%로 조사되었다.

하원 방법 또한 등원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와 걸어서(45.3%), 보호자와 자가용(26.8%), 기관차량 이용(25.8%) 순으로 나타났다. 하원 방법은 등원 방법과 약간의 비중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등원의 경우 2021년은 보호자와 걸어서(39.3%), 기관차량 이용(32.5%), 보호자와 자가용(27.2%)로 2024년 조사에서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하원의 경우 2021년은 보호자와 걸어서(40.1%), 기관차량 이용(34.3%), 보호자와 자가용(23.6%)로 등원과 마찬가지로 2024년 조사에서 보호자와 걸어서 하원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VI-1-27〉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26.4	27.9	0.9	44.8	0.0	100.0(1,666)
국공립	17.8	25.7	1.3	55.2	0.1	100.0(586)
사회복지법인	53.8	33.6	0.4	12.2	-	100.0(94)
법인·단체등	27.5	34.7	-	37.9	-	100.0(49)
민간	37.3	24.6	0.3	37.7	-	100.0(619)
가정	19.0	20.1	1.0	60.0	-	100.0(209)
직장	5.7	79.9	2.6	11.8	-	100.0(105)
협동	33.3	39.9	-	26.7	-	100.0(4)
2021년	32.5	27.2	0.6	39.3	0.1	100.0(1,464)
2018년	43.4	21.5	0.5	34.2	-	100.0(1,753)
2015년	49.8	11.0	1.0	37.9	-	100.0(1,745)
2012년	46.4	11.9	0.7	0.1	0.2	100.0(1,536)

구분	기관차량 이용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하원						
전체	25.8	26.8	0.9	45.3	1.2	100.0(1,666)
국공립	17.9	23.6	1.3	55.5	1.7	100.0(586)
사회복지법인	48.0	37.7	-	11.5	2.8	100.0(94)
법인·단체등	30.9	25.1	-	42.0	1.9	100.0(49)
민간	36.7	24.3	0.4	38.2	0.4	100.0(619)
가정	18.0	21.1	0.4	60.5	-	100.0(209)
직장	5.7	75.7	4.8	13.7	-	100.0(105)
협동	-	39.9	-	26.7	33.3	100.0(4)
2021년	34.3	23.6	0.7	40.1	1.0	100.0(1,464)
2018년	43.9	20.1	0.6	34.4	0.5	100.0(1,753)
2015년	50.5	9.9	0.7	38.0	0.1	100.0(1,745)
2012년	47.6	10.8	1.1	0.4	0.3	100.0(1,5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혼자 걸어서' 문항을 삭제함. '21년부터 기타는 자녀혼자 걸어서 + 기타를 합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69~270. <표 VI-1-21>.

2) 등·하원 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교류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등에 관해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한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고, 주 1~2회 31.3%, 월 1~2회 11.2%, 전혀 안 한다는 응답이 3.7%로 확인되었다. 영아의 경우 매일 한다는 응답이 59.3%로 유아(45.0%)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영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매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매일 한다는 응답이 5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소도시에서 4.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매일 교류를 한다는 응답에 직장어린이집(68.3%), 가정어린이집(63.9%), 법인·단체등어린이집(54.6%)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민간어린이집 5.8%, 법인·단체등어린이집 5.5%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55.2%, 주1~2회 29.1%, 월 1~2회 9.8%, 전혀 안 함 5.9%로 2024년 조사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8〉 제 특성별 등·하원 시 정보 교류

단위: %, (명)

구분	매일	주 1~2회	월 1~2회	전혀 안 함	계(수)
전체	53.8	31.3	11.2	3.7	100.0(1,666)
영유아구분					
영아	59.3	28.7	9.4	2.6	100.0(1,093)
유아	45.0	35.6	14.1	5.4	100.0(573)
보육연령					
0세	71.9	17.5	7.5	3.1	100.0(226)
1세	59.5	30.2	9.0	1.4	100.0(413)
2세	53.5	32.2	10.6	3.7	100.0(454)
3세	47.2	36.6	12.2	4.0	100.0(241)
4세	39.0	42.1	11.3	7.6	100.0(169)
5세	47.8	28.3	19.0	4.9	100.0(163)
지역규모					
대도시	54.5	28.2	13.9	3.5	100.0(642)
중소도시	53.5	33.8	8.7	4.0	100.0(753)
읍·면	53.3	31.1	12.4	3.2	100.0(27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2.8	30.5	14.4	2.3	100.0(586)
사회복지법인	53.5	37.5	5.1	3.9	100.0(94)
법인·단체등	54.6	32.6	7.3	5.5	100.0(49)
민간	49.8	33.4	10.9	5.8	100.0(619)
가정	63.9	27.7	7.2	1.1	100.0(209)
직장	68.3	21.7	6.2	3.8	100.0(105)
협동	39.9	60.1	-	-	100.0(4)
2021년	55.2	29.1	9.8	5.9	100.0(1,460)
2018년	53.7	30.0	9.8	6.5	100.0(1,749)
2015년	49.8	32.5	13.1	4.6	100.0(1,74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71. 〈표 VI-1-22〉.

3) 등·하원 차량의 교직원 동승 여부

등·하원 시 차량에 교직원이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등원 시만 동승한다는 응답이 1.0%, 하원 시만 동승한다는 응답이 0.6%, 동승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 있었다. 2021년 조사에서는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8.4%로 2024년 조사에서 비중이 다소 줄었다.

등·하원 시 교직원이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크게 높아 영유아 여부 및 연령, 지역규모,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

시의 경우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89.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어린이집 유형에서는 국공립 89.7%,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89.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1-29〉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단위: %, (명)

구분	등·하원 시 모두	등원 시	하원 시	동승 안 함	모름	계(수)
전체	95.4	1.0	0.6	1.4	1.6	100.0(510)
영유아구분						
영아	93.8	1.6	1.1	1.9	1.6	100.0(291)
유아	97.1	0.4	-	1.0	1.5	100.0(219)
보육연령						
0세	92.0	-	-	4.8	3.2	100.0(47)
1세	95.1	2.1	-	2.8	-	100.0(106)
2세	93.4	1.6	2.3	0.2	2.5	100.0(138)
3세	98.8	1.2	-	-	-	100.0(87)
4세	91.7	-	-	3.3	5.0	100.0(64)
5세	100.0	-	-	-	-	100.0(68)
지역규모						
대도시	89.9	0.7	1.3	5.3	2.8	100.0(151)
중소도시	97.9	1.7	0.4	-	-	100.0(235)
읍·면	96.5	-	-	-	3.5	100.0(12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89.7	1.3	0.8	5.4	2.8	100.0(124)
사회복지법인	89.7	-	-	-	10.3	100.0(55)
법인·단체등	100.0	-	-	-	-	100.0(21)
민간	98.0	1.3	0.7	-	-	100.0(258)
가정	100.0	-	-	-	-	100.0(44)
직장	100.0	-	-	-	-	100.0(7)
협동	100.0	-	-	-	-	100.0(1)
2021년	98.4	0.9	0.5	0.2	-	100.0(573)
2018년	98.8	0.3	0.4	0.1	-	100.0(876)
2015년	99.7	0.3	-	-	-	100.0(95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조사에서는 모름 응답이 0.4% 있었음.

3) 2024년에는 교직원(자원봉사자 등 성인포함)으로 문항을 명확히 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72. 〈표 VI-1-23〉.

2. 어린이집 이용 비용

가. 월평균 1인당 보육 비용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은 전체의 25.5%가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안 낸다는 응답이 41.9%로 높았고, 법인어린이집 38.0%, 가정어린이집 31.2%, 국공립어린이집 26.4% 순이었다. 반면 법인·단체등어린이집(19.1%), 민간어린이집(19.9%) 이용비용은 내지 않는 전체 비중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내는 경우 5~10만원(23.9%), 10~15만원(19.8%), 1~5만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은 5~10만원(21.4%), 10~15만원(21.1%)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보육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는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5~10만원 또는 10~15만원 정도 규모로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2-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비용 분포

단위: %, (명)

구분	총 비용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안 냄	26.4	38.0	19.1	19.9	31.2	41.9	-	25.5
1~5만원	18.4	14.6	27.1	13.5	21.2	22.1	31.5	17.2
5~10만원	26.5	27.7	20.6	21.4	21.5	22.1	68.5	23.9
10~15만원	20.6	13.8	22.4	21.1	19.5	9.9	-	19.8
15~20만원	6.4	5.1	2.2	15.3	5.1	1.8	-	9.2
20~25만원	1.1	0.7	4.6	6.4	0.8	2.3	-	3.2
25~30만원	0.5	-	4.0	0.6	0.4	-	-	0.6
30~35만원	-	-	-	0.4	0.3	-	-	0.2
35~40만원	-	-	-	1.2	-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1,66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은 7만300원으로 세부 항목으로 특별활동비(4만1,100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비용(2만5,300원), 어린이집 시도 특성화비(3,800원)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의 전체 비용 및 세부 항목별 비용은 어린이집 유형 및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이 8만9,5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3만9,400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용은 취업

모의 경우 7만700원으로 휴직 중(6만6,700원), 미취업(6만9,900원)보다 다소 높았다.

〈표 VI-2-2〉 어린이집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비용(A)	세부 항목별			(수)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비용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시도 특성화비)	
전체	70.3	25.3	41.1	3.8	(1,66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3.2	22.3	36.6	4.3	(586)
사회복지법인	49.6	17.2	32.2	0.2	(94)
법인단체 등	71.7	23.2	37.0	11.5	(49)
민간	89.5	30.8	54.8	4.0	(619)
가정	54.1	24.9	26.9	2.3	(209)
직장	39.4	13.4	23.5	2.5	(105)
협동	49.5	41.5	-	8.0	(4)
<i>F</i>	16.9*** (a)	7.3*** (a)	16.7*** (a)	3.3** (a)	
모 취업 여부					
취업	70.7	24.5	42.4	3.9	(951)
휴직 중	66.7	25.8	37.0	3.9	(145)
미취업	69.9	25.7	40.4	3.8	(556)
부재 등	90.9	55.6	32.8	2.4	(14)
<i>F</i>	0.7	5.4** (a)	0.8	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 총비용은 3세의 경우 9만3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0세의 경우 1만8,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3세는 8만2,400원이었으며 0세는 1만 2,200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보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세(7만1,200원), 2세(7만4,000원)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해당 보육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연령이 늘어날수록 보육비용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세(8만900원)로 4세(11만 3,500원)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표 VI-2-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수)	18.0 (226)	62.1 (413)	80.8 (454)	90.3 (241)	85.3 (169)	76.6 (163)	70.3 (1,666)
국공립 총비용 (수)	12.2 (62)	40.3 (140)	75.1 (161)	82.4 (93)	77.4 (67)	77.6 (63)	63.2 (586)
법인 총비용 (수)	14.9 (11)	32.4 (22)	45.6 (21)	98.8 (13)	51.5 (16)	81.6 (11)	49.6 (94)
법인·단체 등 총비용 (수)	4.5 (6)	59.8 (11)	69.5 (10)	85.9 (14)	29.6 (2)	115.1 (6)	71.7 (49)
민간 총비용 (수)	17.7 (74)	82.7 (142)	98.0 (182)	113.0 (86)	113.5 (67)	80.9 (68)	89.5 (619)
가정 총비용 (수)	25.0 (67)	71.2 (76)	74.0 (51)	20.5 (9)	26.2 (4)	12.9 (2)	54.1 (209)
직장 총비용 (수)	15.4 (6)	42.6 (21)	36.5 (28)	44.2 (26)	64.3 (12)	21.9 (12)	39.4 (105)
협동 총비용 (수)	- (-)	60.0 (1)	50.0 (1)	- (-)	40.0 (1)	50.0 (1)	49.5 (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보육료 외 추가 비용

어린이집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인 보육료 외에 부모가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총 7만300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전체 아동 기준으로 특별활동비(4만1,100원), 현장 학습비/행사비(2만5,300원), 시도특성화비(3,800원)이었다. 추가 비용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5만4,8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3만800원)으로 다른 설립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특성화비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에서 1만1,500원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다. 즉, 민간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및 행사 등 실시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수익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등의 실시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보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팽팽한 사안으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기준으로 특별활동비 5만5,2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 3만 4,000원, 시도특성화비 5,100원이었으며 평균 합계는 9만4,400원이었다. 비용 지불 아동 기준의 조사 결과도 경향성에서 전체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2-4〉 어린이집 유형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비행사비 등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도특성화비	합계
전체아동	25.3	41.1	3.8	70.3
전체				
국공립	22.3	36.6	4.3	63.2
사회복지법인	17.2	32.2	0.2	49.6
법인단체 등	23.2	37.0	11.5	71.7
민간	30.8	54.8	4.0	89.5
가정	24.9	26.9	2.3	54.1
직장	13.4	23.5	2.5	39.4
협동	41.5	-	8.0	49.5
F	7.3 ^{***} (a)	16.7 ^{***} (a)	3.3 ^{**} (a)	16.9 ^{***} (a)
(수)	(1,666)	(1,666)	(1,666)	(1,666)
비용지불아동				
전체	34.0	55.2	5.1	94.4
국공립	30.4	49.8	5.8	85.9
사회복지법인	27.8	51.9	0.4	80.1
법인단체 등	28.7	45.8	14.2	88.7
민간	38.5	68.4	5.0	111.8
가정	36.2	39.1	3.3	78.6
직장	23.0	40.4	4.4	67.8
협동	41.5	-	8.0	49.5
F	4.1 ^{***} (a)	13.8 ^{***} (a)	2.7 [*] (a)	13.5 ^{***} (a)
(수)	(1,173)	(1,173)	(1,173)	(1,17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가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영유아 구분과 지역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추가 보육비용은 6만1,500원

으로 유아(8만4,400원)보다 적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 7만6,100원, 중소도시 7만3,100원, 읍·면지역 4만6,800원으로 대도시가 가장 추가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추가 보육비용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2-5〉 제 특성별 보육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비행사비 등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도특성화비	합계
전체	25.3	41.1	3.8	70.3
영유아구분				
영아	24.3	33.9	3.4	61.5
유아	27.0	52.9	4.5	84.4
<i>t</i>	-1.7	-7.6***	-1.6	-6.6***
지역규모				
대도시	27.3	45.1	3.7	76.1
중소도시	26.1	43.1	3.9	73.1
읍·면	18.0	25.1	3.8	46.8
<i>F</i>	8.1*** (a)	17.0*** (a)	0.0	18.7*** (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1	22.7	1.0	44.9
300~349만원	21.4	41.8	5.1	68.2
350~399만원	16.8	29.5	5.2	51.5
400~499만원	25.7	43.1	3.8	72.6
500~599만원	31.1	34.6	3.4	69.1
600~699만원	22.3	47.3	3.6	73.3
700만원 이상	25.3	44.5	4.1	73.8
모름/무응답	27.8	68.2	6.5	102.4
<i>F</i>	3.2** (a)	5.8*** (a)	0.9(a)	4.0 (a)
(수)	(1,173)	(1,173)	(1,173)	(1,173)

주: 1) 비용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입학금 평균 비용은 5만7,500원으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었으며 2021년 6만8,800원에서 1만1,3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 평균 비용은 민간어린이집 6만5,500원과 협동어린이집 6만5,900원으로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3만2,1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2-6〉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2024년	2021년	2018년
전체	57.5	68.8	61.6
국공립	58.5	60.9	57.7
사회복지법인	49.0	58.7	70.0
법인·단체등	48.7	65.6	55.3
민간	65.5	81.4	65.9
가정	44.6	58.9	63.2
직장	32.1	20.9	15.1
협동	65.9	177.8	-
(수)	(1,666)	(658)	(118)
F	5.2 ^{***} (a)	5.4 ^{***}	0.6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입학금 납부 년도별 평균 비용으로, 2017년도 이전은 제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79. 〈표 VI-2-6〉.

^{***} $p < .001$.

다. 비용에 대한 부담 인식

1) 부담 인지 정도 및 비용 추가 부담 의사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도 24.6%에 달하였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5점으로 보통 이하의 부담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조사에서 부담 정도는 2.7점으로, 2024년 조사에서 부담 정도가 더욱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차액보육료 지원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전체 이용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는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지역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경우 부담 정도가 평균 2.4으로, 유아(2.6)보다 낮았으며 보육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담 정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2.5), 중소도시(2.6), 읍·면지역(2.1)로 읍·면지역에서 부담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비용의 수준 자체가 읍·면지역에서 낮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부담 정도가 차이가 있었으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2-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평균
전체	1.4	14.0	41.6	18.4	24.6	100.0(1,666)	2.5
영유아구분							
영아	1.1	12.7	39.7	19.6	26.9	100.0(1,093)	2.4
유아	1.9	16.2	44.6	16.4	20.9	100.0(573)	2.6
$\chi^2(df)/t$			15.4(4)**				-3.8***
보육연령							
0세	-	3.0	30.0	22.3	44.7	100.0(226)	1.9
1세	0.1	14.8	39.1	20.3	25.8	100.0(413)	2.4
2세	2.7	15.0	44.8	17.6	20.0	100.0(454)	2.6
3세	1.9	16.1	42.3	17.5	22.1	100.0(241)	2.6
4세	0.8	16.5	49.9	13.1	19.8	100.0(169)	2.7
5세	3.0	15.9	42.4	18.2	20.4	100.0(163)	2.6
$\chi^2(df)/F$			92.5(20)***				15.7***
지역규모							
대도시	1.1	14.7	43.6	17.6	22.9	100.0(642)	2.5
중소도시	1.8	15.3	43.4	17.3	22.2	100.0(753)	2.6
읍·면	0.8	8.2	30.7	23.7	36.6	100.0(271)	2.1
$\chi^2(df)/F$			39.9(8)***				18***
모 취업 여부							
취업	1.8	13.2	39.6	17.5	27.9	100.0(951)	2.4
휴직 중	0.8	16.5	44.4	16.6	21.7	100.0(145)	2.6
미취업	1.0	14.8	44.4	19.7	20.2	100.0(556)	2.6
부재 등	-	12.6	40.2	40.4	6.8	100.0(14)	2.6
$\chi^2(df)/F$			24.2(12)*				2.3(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3	17.4	38.0	22.8	20.5	100.0(81)	2.6
300~349만원	-	22.1	38.8	21.3	17.8	100.0(101)	2.7
350~399만원	3.1	10.8	39.2	20.7	26.3	100.0(98)	2.4
400~499만원	1.5	17.0	38.8	23.0	19.7	100.0(289)	2.6
500~599만원	1.8	12.5	49.0	14.8	21.8	100.0(332)	2.6
600~699만원	1.3	14.7	42.2	17.5	24.3	100.0(248)	2.5
700만원 이상	1.3	11.4	38.5	16.8	32.0	100.0(493)	2.3
모름/무응답	-	13.4	55.1	19.9	11.6	100.0(24)	2.7
$\chi^2(df)/F$			49.3(28)**				2.8*(a)
2021년	1.6	16.0	49.2	15.1	18.2	100.0(1,464)	2.7
2018년	2.3	18.3	44.7	16.2	18.5	100.0(1,753)	2.7
2015년	3.4	24.6	46.8	16.4	8.8	100.0(1,745)	3.0
2012년	4.7	28.8	23.9	28.9	13.7	100.0(1,314)	3.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비용 부담정도는 '매우 부담됨(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매우 부담됨(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의미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80~281. 〈표 VI-2-7〉.

* $p < .05$, ** $p < .01$, *** $p < .001$.

2) 비용 추가 부담 의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이용비용의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직장어린이집(72.1%), 법인·단체등어린이집(57.9%), 국공립어린이집(56.8%), 민간어린이집(54.7%) 등에서 높은 추가 부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부담 가능 비용은 평균 7만5,900원으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추가 비용 부담은 법인·단체등어린이집(10만3,000원), 민간어린이집(8만1,400원), 직장어린이집(7만6,600원)으로 추가 지불 의사를 보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6.0%였으며 지불 의사 비용은 평균 8만8,100원이었다. 202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변함이 없으나 지불 비용 수준은 평균 1만2,200원가량 오히려 감소한 수치를 보여, 추가보육료에 비해 좀 더 보수적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I-2-8〉 어린이집 유형보육료 지원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5.9	44.1	100.0(1,666)	75.9	74.3	2.0	900.0	(94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6.8	43.2	100.0(586)	72.2	58.1	5.0	500.0	(337)
사회복지법인	51.6	48.4	100.0(94)	64.2	51.9	10.0	200.0	(50)
법인·단체등	57.9	42.1	100.0(49)	103.0	74.5	10.0	300.0	(31)
민간	54.7	45.3	100.0(619)	81.4	96.2	2.0	900.0	(343)
가정	52.1	47.9	100.0(209)	64.8	43.6	3.0	210.0	(107)
직장	72.1	27.9	100.0(105)	76.6	66.1	5.0	500.0	(74)
협동	39.9	60.1	100.0(4)	200.0	-	200.0	200.0	(2)
$\chi^2(df)/F$	12.0(6)			3.4*(a)				
2021년	56.0	44.0	100.0(1,464)	88.1	69.9	10.0	500.0	(784)
2018년	42.5	57.5	100.0(1,753)	106.5	95.4	-	-	(755)
2015년	30.8	69.2	100.0(1,745)	117.1	106.4	-	-	(508)
2012년	25.0	75.0	100.0(1,536)	162.6	115.8	-	-	(3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82. 〈표 VI-2-8〉.

** $p < .01$.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비용 추가 부담 의사는 보육연령과 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추가 부담 의사는 보육연령 3세(64.2%)가 가장 높았으며 5세(47.6%)는 가장 낮았다. 모 취업의 경우 추가 부담 의사는 59.5%였으며 휴직 중인 경우 6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부담 의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비용도 보육연령과 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비용 추가 지불은 보육연령 3세 9만3,100원으로 가장 컸으며 4세 5만9,1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모 취업의 경우 비용 추가 지불은 8만 2,5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의 경우 6만4,900원으로 평균 1만7,6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용 추가 지불의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2-9〉 제 특성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5.9	44.1	100.0(1,666)	75.9	74.3	2.0	900.0	(944)
영유아구분								
영아	55.2	44.8	100.0(1,093)	74.3	72.0	3.0	700.0	(616)
유아	57.0	43.0	100.0(573)	78.5	77.8	2.0	900.0	(328)
$\chi^2(df)/t$	0.6(1)			-0.8				
보육연령								
0세	60.6	39.4	100.0(226)	73.9	54.4	10.0	300.0	(132)
1세	56.0	44.0	100.0(413)	75.9	77.9	3.0	700.0	(236)
2세	51.9	48.1	100.0(454)	72.7	73.9	5.0	500.0	(248)
3세	64.2	35.8	100.0(241)	93.1	103.3	2.0	900.0	(147)
4세	58.0	42.0	100.0(169)	59.1	46.5	5.0	300.0	(100)
5세	47.6	52.4	100.0(163)	77.0	49.2	2.0	200.0	(81)
$\chi^2(df)/F$	16.9(5)**			2.9*(a)				
지역규모								
대도시	59.4	40.6	100.0(642)	81.3	82.8	5.0	700.0	(377)
중소도시	54.2	45.8	100.0(753)	75.3	72.0	2.0	900.0	(416)
읍·면	53.0	47.0	100.0(271)	63.4	53.6	3.0	500.0	(151)
$\chi^2(df)/F$	4.8(2)			2.8				
모 취업 여부								
취업	59.5	40.5	100.0(951)	82.5	82.1	2.0	900.0	(572)
휴직 중	63.3	36.7	100.0(145)	68.4	63.1	3.0	500.0	(94)
미취업	48.0	52.0	100.0(556)	64.9	58.0	5.0	500.0	(272)
부재 등	45.0	55.0	100.0(14)	52.2	16.5	30.0	100.0	(6)
$\chi^2(df)/F$	23.5(3)***			4**(a)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9.7	60.3	100.0(81)	48.8	31.5	10.0	200.0	(33)
300~349만원	44.4	55.6	100.0(101)	54.6	48.7	2.0	210.0	(46)
350~399만원	49.1	50.9	100.0(98)	52.7	50.9	5.0	200.0	(50)
400~499만원	49.2	50.8	100.0(289)	76.3	84.4	5.0	500.0	(151)
500~599만원	53.1	46.9	100.0(332)	68.9	47.6	5.0	300.0	(171)
600~699만원	62.1	37.9	100.0(248)	67.0	55.9	2.0	500.0	(152)
700만원 이상	65.4	34.6	100.0(493)	89.9	80.9	3.0	900.0	(329)
모름/무응답	43.1	56.9	100.0(24)	121.6	234.4	10.0	700.0	(12)
$\chi^2(df)/F$		45.4(7)**				4.8** (a)		
2021년 조사	56.0	44.0	100.0(1,464)	88.1	69.9	10.0	500.0	(78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83. <표 VI-2-9>.

* $p < .05$, ** $p < .01$, *** $p < .001$.

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각종 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 비율은 보육계획표 제공은 매주 1회(47.8%), 월 1회(38.3%)로 제공되었다. 급간식 식단은 월 1회(49.4%), 매일(35.0%)로 제공되었으며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55.5%)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자녀발달평가는 연 1~2회(25.5%), 분기 1회(24.6%)로 나타났으며, 부모상담도 연 1~2회(49.5%), 분기 1회(30.7%)로 비중이 높았다. 부모교육 자료제공은 월 1회(30.0%), 분기 1회(19.9%)의 비중을 보였으며 부모 참여프로그램은 연 1~2회(30.9%), 분기 1회(30.5%)의 비중이었다.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67.1%), 매주 1회(19.9%)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 비율은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대체로 유사한 비중을 보여 급간식 식단이나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단위로 제공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보육계획표나 가정통신문은 매주 단위로 제공되는 비중이 높았다. 이외 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은 대체로 분기 1회나 연 1~2회 정도 제공하고 있었다.

〈표 VI-3-1〉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보육계획표								
매일	10.9	8.5	10.1	9.0	9.1	15.9	-	10.0
매주 1회	50.0	50.1	38.1	47.7	37.1	57.4	73.3	47.8
월 1회	34.6	35.3	47.8	39.7	49.8	26.7	26.7	38.3
분기 1회	1.4	-	-	0.7	0.8	-	-	0.9
연 1~2회	1.0	2.3	4.0	1.3	1.0	-	-	1.2
제공 안 함	0.5	-	-	0.3	0.9	-	-	0.4
모름	1.6	3.8	-	1.3	1.3	-	-	1.4
급간식 식단								
매일	37.6	33.9	30.9	31.6	33.3	52.2	-	35.0
매주 1회	12.7	15.1	14.1	16.7	13.8	8.2	8.5	14.2
월 1회	48.2	47.2	55.0	50.5	51.5	39.6	91.5	49.4
분기 1회	0.4	-	-	-	-	-	-	0.1
연 1~2회	0.1	-	-	-	-	-	-	0.0
제공 안 함	-	-	-	0.2	0.9	-	-	0.2
모름	1.1	3.8	-	1.0	0.6	-	-	1.0
가정통신문								
매일	15.6	16.3	22.2	15.4	10.0	16.2	-	15.0
매주 1회	55.6	56.9	57.1	55.1	49.2	69.6	73.3	55.5
월 1회	26.1	20.6	18.7	27.0	34.9	14.1	26.7	26.6
분기 1회	1.0	1.8	-	0.9	2.7	-	-	1.1
연 1~2회	0.1	-	-	0.4	0.7	-	-	0.3
제공 안 함	0.2	-	-	-	1.0	-	-	0.2
모름	1.4	4.4	2.0	1.2	1.6	-	-	1.4
자녀발달평가								
매일	5.9	4.6	8.3	6.1	5.9	2.0	-	5.7
매주 1회	3.0	6.6	6.8	4.6	4.1	2.6	-	4.0
월 1회	9.7	5.0	8.6	9.9	11.1	6.6	-	9.5
분기 1회	25.5	18.2	28.7	23.6	20.3	37.9	31.5	24.6
연 1~2회	27.5	30.1	23.3	24.5	16.6	34.4	41.8	25.5
제공 안 함	11.7	10.9	9.4	14.9	21.6	5.5	-	13.7
모름	16.6	24.5	14.8	16.4	20.5	10.9	26.7	17.1
부모상담								
매일	2.8	3.2	7.3	3.4	1.2	2.6	-	2.9
매주 1회	2.4	1.6	-	2.7	3.7	-	-	2.4
월 1회	6.7	6.2	5.8	7.7	9.1	2.0	31.5	7.3
분기 1회	32.3	24.0	31.6	32.0	28.6	22.0	-	30.7
연 1~2회	50.5	45.9	52.7	47.3	44.5	71.8	68.5	49.5
제공 안 함	0.5	2.0	-	3.0	3.5	1.6	-	1.9
모름	4.8	17.0	2.5	4.0	9.4	-	-	5.3
부모교육자료제공								
매일	3.0	4.2	6.3	3.1	1.7	2.0	-	2.9
매주 1회	21.7	11.2	10.0	13.1	11.3	12.3	33.3	16.1
월 1회	35.2	18.8	38.9	25.5	27.4	33.7	58.2	30.0
분기 1회	17.0	19.2	22.7	23.3	18.3	22.4	8.5	19.9
연 1~2회	10.5	23.0	14.9	17.9	15.3	16.9	-	14.8
제공 안 함	2.3	1.5	-	5.4	11.0	0.6	-	4.3
모름	10.3	22.1	7.2	11.7	15.2	12.1	-	11.9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2.9	2.6	4.8	2.9	1.4	2.0	-	2.7
매주 1회	5.2	1.7	2.4	3.7	2.9	1.5	-	3.9
월 1회	23.9	7.2	6.4	14.6	20.9	16.4	31.5	18.6
분기 1회	34.5	32.5	35.5	27.7	21.0	36.8	68.5	30.5
연 1~2회	24.7	28.2	41.4	37.6	28.2	36.9	-	30.9
제공 안 함	1.5	4.1	1.5	4.2	9.4	-	-	3.5
모름	7.2	23.6	7.9	9.4	16.2	6.4	-	9.7
양방향 알림장								
매일	68.1	57.6	64.6	64.6	73.0	78.6	8.5	67.1
매주 1회	19.7	21.2	31.2	22.4	12.2	14.9	33.3	19.9
월 1회	5.3	1.3	4.2	2.8	6.0	1.6	-	4.0
분기 1회	1.2	1.8	-	2.4	1.6	0.6	-	1.7
연 1~2회	1.3	-	-	0.8	0.7	-	-	0.9
제공 안 함	1.1	2.6	-	2.1	0.4	1.8	58.2	1.8
모름	3.4	15.5	-	4.9	6.1	2.4	-	4.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만족+매우만족) 응답한 비율이 87.0~95.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방향알림장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양방향알림장의 유용성이 영아기에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21년 조사에서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비율이 보육계획표에서 87.8%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상담에서 76.0%로 나타나 2024년 조사에서 부모들의 만족도 비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3-2〉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단위: %, (명)

구분	보육 계획표	급간식식단	가정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교육 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전체								
국공립	94.5	93.7	95.9	87.8	87.0	87.7	87.3	93.6
법인	94.4	94.7	96.1	89.3	88.6	87.8	86.0	88.5
법인·단체등	98.7	98.7	98.7	96.1	97.0	99.2	96.3	96.4
민간	94.3	93.5	92.7	88.5	87.9	87.8	85.7	91.3
가정	94.5	95.3	95.5	90.9	85.6	87.7	88.4	95.7
직장	94.4	95.1	94.3	94.1	92.2	95.4	91.2	93.0
협동	100.0	100.0	100.0	100.0	73.3	100.0	100.0	20.3
(수)	(1,633)	(1,647)	(1,638)	(1,149)	(1,550)	(1,401)	(1,440)	(1,554)

구분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자료	부모 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2021년	87.8	86.4	86.8	81.7	76.0	79.3	79.2	84.1
2018년	84.3	82.4	83.4	77.4	74.8	73.1	73.1	8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87. <표 VI-3-2>.

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통신문은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에서 각 4.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부모상담의 경우 법인·단체 등과 직장어린이집에서 각 4.6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2021년 조사에서는 보육계획표와 가정통신문이 각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이 각 4.1점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202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3>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전체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전체	4.4	4.5	4.5	4.5	4.4	4.3	4.3	4.3	4.4
국공립	4.4	4.4	4.5	4.5	4.3	4.3	4.3	4.3	4.4
법인	4.3	4.4	4.4	4.4	4.3	4.3	4.3	4.3	4.3
법인·단체등	4.6	4.7	4.7	4.6	4.5	4.6	4.6	4.6	4.5
민간	4.4	4.4	4.4	4.4	4.3	4.3	4.3	4.2	4.4
가정	4.5	4.5	4.5	4.5	4.5	4.3	4.4	4.4	4.6
직장	4.6	4.7	4.7	4.7	4.6	4.6	4.7	4.6	4.7
협동	4.4	4.7	4.7	4.7	4.4	4.0	4.4	4.3	3.4
(수)	(12,012)	(1,633)	(1,647)	(1,638)	(1,149)	(1,550)	(1,401)	(1,440)	(1,554)
F	24.2*** (a)	3.1** (a)	4.4*** (a)	3.9*** (a)	2.2* (a)	3** (a)	4.2*** (a)	3.5** (a)	5.6*** (a)
2021년	-	4.3	4.2	4.3	4.2	4.1	4.1	4.1	4.2
2018년	-	4.0	4.0	4.0	3.9	3.9	3.9	3.9	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87. <표 VI-3-2>.
* $p < .05$, ** $p < .01$, *** $p < .001$.

나. 건강검진 실시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은 비중은 84.4%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법인·단체 등어린이집(89.1%), 국공립어린이집(87.2%), 직장어린이집(86.9%), 가정어린이집(8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83.4%)로 중소도시(85.1%), 읍·면지역(84.9%)에 비해 건강검진 비중이 낮았다. 2021년 조사에서 검진 비중은 84.9%로 2024년 조사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VI-3-4〉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1년	'18년	'15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7.2	80.9	89.1	81.9	82.1	86.9	100.0	83.4	85.1	84.9	84.4	84.9	81.3	82.5
받지 않음	10.5	17.3	10.0	15.8	13.4	11.9	-	13.8	12.4	13.7	13.1	14.0	15.9	14.8
잘 모름	2.3	1.8	0.9	2.3	4.5	1.2	-	2.8	2.5	1.4	2.4	1.1	2.8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1,666)	(1,464)	(1,753)	(1,74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87~288. 〈표 VI-3-3〉.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은 비중은 영아와 유아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보육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검진 수검 비중은 보육연령 5세에서 87.9%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연령 0세에서 8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5세는 초등 취학전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기인한 영향으로 보이며, 0세는 가정 보육상황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VI-3-5〉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83.9	85.3	80.7	83.5	85.8	84.9	82.9	87.9
받지 않음	13.0	13.2	11.6	13.8	13.0	13.0	16.3	10.7
잘 모름	3.0	1.5	7.8	2.7	1.2	2.1	0.8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chi^2(df)$	4.3(2)		31.7(1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받은 비중은 86.8%로 건강검진 사전 안내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 (84.5%)와 읍·면지역(84.7%)에 비해 중소도시가 89.1%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건강검진 사전 안내 비중이 85.1%로 2015년 이후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6〉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1년	'18년	'15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받음	87.1	86.7	85.1	87.4	82.5	92.3	73.3	84.5	89.1	84.7	86.8	85.1	85.2	83.8
받지 않음	7.8	6.8	9.3	6.3	10.1	3.0	-	8.7	5.1	10.6	7.2	9.9	10.1	9.5
잘 모름	5.1	6.5	5.6	6.3	7.4	4.7	26.7	6.7	5.9	4.7	6.0	5.0	4.8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642)	(753)	(271)	(1,666)	(1,464)	(1,753)	(1,745)
$\chi^2(df)$	19.5(12)							12.6(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89. 〈표 VI-3-5〉.

* $p < .05$.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는 영유아구분과 보육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전안내를 받은 영아는 84.3%로 유아(90.7%)에 비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보육연령이 5세에서 91.9%로 가장 높았다.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는 보육연령 0세에서 75.2%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3-7〉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84.3	90.7	75.2	86.0	86.8	90.4	89.8	91.9
받지 않음	8.2	5.7	11.9	6.9	7.9	6.3	5.1	5.5
잘 모름	7.5	3.6	12.9	7.2	5.3	3.3	5.2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chi^2(df)$	15.1(2)***		36.0(1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부모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각 25.3%, 49.7%로, 도움 정도(도움 됨+매우 도움 됨)는 각 41.6%, 54.4%의 비중을 보였다. 추후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37.6%), 부모 참여 활동(58.4%)로 참여율, 도움 정도, 참여의향 모두에서 부모 참여 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는 부모 참여 항목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참여 활동,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로 구성되었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2021년 조사된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운영 문항이 부모 참여 활동으로 통합되어 조사되었다. 2021년 조사에서 보육의 질에 도움 정도(도움 됨+매우 도움 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42.6%로 2024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응답을 수준을 보였다.

〈표 VI-3-8〉 참여율, 도움 정도,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참여율					보육의 질에 도움 정도					향후 참여 의향				
	'24	'21	'18	'15	'12	'24	'21	'18	'15	'12	'24	'21	'18	'15	'1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5.3	14.8	25.7	23.5	8.0	41.6	42.6	34.1	68.0	56.4	37.6	39.3	55.5	33.0	42.7
부모 참여 활동	49.7	-	-	-	-	54.4	-	-	-	-	58.4	-	-	-	-
부모 모니터링단	-	11.7	19.1	17.2	2.4	-	42.4	30.4	69.7	55.2	-	41.3	51.3	30.9	43.0
부모 자원봉사	-	15.7	26.6	20.4	5.0	-	45.0	34.2	71.5	56.3	-	45.7	58.0	30.4	42.6

주: 2024년 조사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문항이 삭제되고 '부모 참여 활동'으로 변경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90. 〈표 VI-3-7〉.

운영위원회와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과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은 최연소자녀 연령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가구소득, 기관이용경험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3-9〉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

단위: %, (명)

구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수)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활동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활동	
전체	25.3	49.7	37.6	58.4	(1,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4.7	49.8	37.9	59.6	(1,115)
유아	26.9	49.4	36.9	54.5	(379)

구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수)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활동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활동	
$\chi^2(df)$	0.6(1)	0.0(1)	0.1(1)	2.7(1)	
지역규모					
대도시	25.4	51.3	36.4	56.9	(584)
중소도시	26.2	49.2	38.1	57.3	(665)
읍면	21.9	47.0	39.2	65.8	(245)
$\chi^2(df)$	1.6(2)	1.3(2)	0.5(2)	4.8(2)	
모 취업					
취업	24.7	51.4	37.7	58.5	(854)
휴직	23.3	50.6	36.9	62.6	(129)
미취업	26.6	46.7	37.6	57.1	(497)
부재 등	30.4	34.7	37.3	50.4	(14)
$\chi^2(df)$	1.1(3)	4.0(3)	0.1(3)	1.6(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9.9	52.1	37.7	62.4	(73)
300~349만원	25.6	46.6	39.7	56.4	(94)
350~399만원	24.5	48.9	32.7	56.7	(81)
400~499만원	27.3	47.5	38.6	57.5	(247)
500~599만원	23.2	43.5	30.6	50.3	(285)
600~699만원	30.4	52.8	41.2	61.0	(236)
700만원 이상	22.9	52.7	39.1	61.9	(458)
모름/무응답	41.7	64.2	53.9	70.5	(20)
$\chi^2(df)$	10.2(7)	10.2(7)	9.3(7)	11.8(7)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24.6	49.2	37.5	59.0	(1,206)
둘 다 이용	28.8	52.4	38.3	55.3	(288)
$\chi^2(df)$	1.9(1)	0.9(1)	0.1(1)	1.1(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부모참여가 실제 보육의 질 향상이 도움이 된다(도움 됨+매우도움 됨)는 비중은 운영위원회(41.6%), 부모참여 활동(54.4%)로 부모참여 활동이 보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높았다. 다만 부모참여의 도움 정도는 최연소자녀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유무, 기관이용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3-10〉 부모참여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활동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전체	41.6	(1,331)	54.4	(1,370)

구분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활동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0.1	(991)	54.4	(1,022)
유아	46.4	(340)	54.3	(348)
지역규모				
대도시	40.9	(531)	57.0	(534)
중소도시	43.4	(595)	51.6	(618)
읍면	37.1	(205)	56.9	(218)
모 취업형태				
취업	41.5	(774)	56.5	(786)
휴직	44.0	(114)	56.0	(115)
미취업	41.3	(431)	50.5	(456)
부재 등	33.6	(12)	40.9	(13)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40.9	(1,065)	54.2	(1,102)
둘 다 이용	45.0	(266)	55.2	(2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4. 어린이집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비율은 체육관련(74.0%), 예능(미술, 음악)이 7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어(59.2%) 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민간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체육관련 특별활동 운영이 비율이 각 81.2%, 77.5%로 매우 높았다.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특별활동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민간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4-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단위: %,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없음	(수)
전체	70.2	74.0	36.5	59.2	40.9	19.8	18.8	(1,666)
전체								
국공립	67.1	71.0	39.5	57.9	40.1	20.4	21.0	(586)
법인	69.9	70.1	31.1	49.8	36.6	11.9	25.7	(94)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없음	(수)
법인·단체등	65.9	73.0	33.3	54.4	31.9	13.7	18.5	(49)
민간	77.6	81.2	40.7	68.9	50.3	22.6	10.8	(619)
가정	57.3	63.5	17.7	37.4	23.8	16.5	30.9	(209)
직장	77.0	77.5	35.6	63.9	31.8	13.5	20.8	(105)
협동	33.3	33.3	33.3	33.3	-	-	66.7	(4)
2021년	50.4	49.0	21.7	42.6	26.7	9.8		(1,46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293. <표 VI-4-1>.

어린이집을 통해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은 체육 관련이 62.8%, 예능(미술, 음악)(59.3%), 영어(46.5%) 순으로 운영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직장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에는 예능(미술, 음악) 과목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69.9%로 가장 높고, 체육 관련 (66.6%), 영어(56.9%) 순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는 약간 다른 이용 행태를 보였다. 특별활동 운영 비율과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에 모든 과목에서 특별활동 이용 비율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2021년 대비 2024년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예능 교과(59.3%), 체육관련 (62.8%), 영어(46.5%)로 각각 14.7%p, 18.5%p, 9.1%p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자체가 줄어든 것이 회복 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VI-4-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59.3	62.8	23.6	46.5	26.0	15.1
국공립	55.7	59.1	26.6	44.7	25.8	14.9
사회복지 법인	55.7	58.1	23.1	43.8	28.4	9.3
법인·단체등	53.2	67.0	22.5	47.5	26.5	13.7
민간	66.9	71.0	25.4	55.2	31.6	18.2
가정	46.7	50.6	7.4	23.3	12.6	11.3
직장	69.9	66.6	26.4	56.9	21.0	9.0
협동	33.3	33.3	33.3	33.3	-	-
(수)	(984)	(1,033)	(353)	(723)	(428)	(229)
2021년	44.6	44.3	16.8	37.4	20.3	7.1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2018년	61.5	60.4	18.2	45.1	27.6	9.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94. <표 VI-4-2>.

영아에 비해 유아들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이 높으며 보육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이용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유아의 경우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영어의 이용 비율이 70.0% 이상을 보였으며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도 45.0% 가까운 이용 비율을 보였다. 영아도 유아와 마찬가지로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에 비해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영어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3세 때에는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의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5세는 영아와 수학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성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든 특별활동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의 경우 지역구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3>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영유아구분						
영아	52.1	54.8	9.8	31.5	14.8	12.9
유아	70.8	75.9	45.8	70.8	44.3	18.6
보육연령						
0세	17.5	17.4	6.8	6.5	8.0	8.4
1세	51.1	55.4	9.0	25.1	15.1	13.8
2세	68.9	71.1	12.0	49.4	17.5	14.0
3세	72.7	80.1	43.4	70.6	42.3	19.7
4세	69.0	73.4	41.7	67.5	41.3	17.7
5세	70.4	73.1	52.4	74.1	49.3	17.9
지역규모						
대도시	61.0	63.8	26.7	46.6	25.9	15.2
중소도시	58.8	63.7	22.2	49.4	26.4	15.0
읍·면	56.5	57.7	20.2	37.1	25.2	14.9
(수)	(984)	(1,033)	(353)	(723)	(428)	(22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2.5개로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0%였다. 특별활동 이용 개수는 가정어린이집이 1.6개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영아의 특별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1%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용 개수도 2.4개로 평균 보다 적었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4%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개수도 2.8개로 가장 많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8%, 평균 이용 개수가 1.6개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이용자가 주로 영아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 특별활동 평균 개수는 1.8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와 비교하여 2024년 조사결과에서 이용 비중과 개수가 크게 늘었다.

〈표 VI-4-4〉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이용 개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평균
전체	27.0	8.2	15.0	17.9	12.4	19.4	100.0(1,666)	2.5
국공립	30.1	8.2	13.8	16.6	10.5	20.8	100.0(586)	2.4
법인	35.0	6.0	14.8	7.3	14.5	22.4	100.0(94)	2.3
법인·단체등	29.3	7.9	14.4	21.3	5.4	21.8	100.0(49)	2.4
민간	17.4	10.1	14.8	19.1	15.8	22.8	100.0(619)	2.8
가정	40.8	6.2	22.5	18.5	8.3	3.6	100.0(209)	1.6
직장	27.9	2.2	9.4	27.3	11.5	21.7	100.0(105)	2.6
협동	66.7	-	-	-	33.3	-	100.0(4)	1.3
$\chi^2(df)/F$	125.3(30)***							11.3*** (a)
2021년	44.9	7.2	10.6	14.8	9.8	12.6	100.0(1,464)	1.8
2018년	29.3	5.5	13.7	22.7	13.5	15.5	100.0(1,753)	-
2015년	32.2	5.4	12.9	22.2	13.1	14.4	100.0(1,745)	-
2012년	33.4	8.5	14.8	20.1	11.4	12.0	100.0(1,536)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295. 〈표 VI-4-4〉.

*** $p < .001$.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는 영아는 평균 1.9개, 유아는 3.5개로 유아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가 2배가량 많았다. 보육연령이 많아질수록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0세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특별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73.2%인 반면 3세는 14.5%만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8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활동 이용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5〉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0	8.2	15.0	17.9	12.4	19.4	100.0(1,666)	2.5
영유아구분								
영아	33.9	9.9	19.2	20.1	9.2	7.7	100.0(1,093)	1.9
유아	15.8	5.6	8.2	14.4	17.7	38.3	100.0(573)	3.5
$\chi^2(df)/t$	308.3(5)***							-16.4***
보육연령								
0세	73.2	8.4	7.1	5.9	2.2	3.1	100.0(226)	0.7
1세	32.8	11.1	23.7	16.8	9.2	6.4	100.0(413)	1.8
2세	17.2	9.3	20.1	29.8	12.3	11.1	100.0(454)	2.5
3세	14.5	4.8	9.4	17.5	16.5	37.2	100.0(241)	3.4
4세	15.8	7.8	8.5	13.3	20.6	34.0	100.0(169)	3.4
5세	17.3	4.6	6.5	11.6	16.4	43.7	100.0(163)	3.6
$\chi^2(df)/F$	560.9(25)***							91.5***(a)
지역규모								
대도시	24.7	10.1	14.2	18.5	12.2	20.4	100.0(642)	2.5
중소도시	28.2	6.3	14.0	19.1	12.6	19.8	100.0(753)	2.5
읍·면	28.8	9.9	20.0	12.7	12.7	15.8	100.0(271)	2.3
$\chi^2(df)/F$	20.1(10)*							1.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나. 특별활동 이용 횟수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별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를 알아본 결과, 언어와 영어가 각 1.4회로 높은 이용 횟수를 보였으며 다음 순으로 예능과 수학/과학은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예능과 영어는 특별활동 이용 횟수에 차이를 보였으나 이외 프로그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6〉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F	
예능(미술, 음악)	1.2	0.5	1.1	1.2	1.0	1.2	1.3	1.2	1.0	2.5 [*] (a)	(984)
체육관련	1.1	0.4	1.1	1.1	1.1	1.2	1.1	1.1	1.0	0.6	(1,033)
수학/과학 관련	1.2	0.7	1.2	1.4	1.0	1.3	1.4	1.1	1.0	1.3(a)	(353)
영어	1.4	0.8	1.4	1.6	1.4	1.5	1.0	1.4	2.0	3.1 ^{**} (a)	(72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4	1.0	1.3	1.6	1.3	1.4	1.3	1.1	-	0.6	(428)
기타	1.1	0.5	1.2	1.0	1.3	1.1	1.0	1.2	-	0.6	(22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 .05, ^{**}p < .01.

다. 특별활동 의무 이용 및 대체 프로그램 제공 인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의무 이용은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는 전체의 49.6%, 수학/과학도 45.1%가 의무로 이용하고 있었다. 예능(미술, 음악), 체육 관련 및 영어 또한 의미 이용 비율이 40.0% 이상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에 대한 비자발적 이용 비율이 각 70.1%, 60.3%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비자발적 이용 비율은 수학/과학 관련(79.6%), 영어(62.3%)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수학/과학, 영어 과목의 특별활동 실시비율이 낮은 것과 영아의 학급당 아동 수가 적은 특징을 감안하면, 이용자 수(관측치)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로 보여진다. 지역규모에 따른 특별활동 비자발적 이용 비율은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4-7〉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비자발적 이용 비율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예능(미술, 음악)	39.8	27.4	34.9	42.3	53.1	43.0	43.0	41.5	38.1	41.6
체육관련	38.8	31.1	30.9	45.1	52.3	47.6	43.1	43.4	39.1	42.7
수학/과학 관련	37.8	27.7	42.8	50.4	79.6	59.9	46.5	47.5	32.1	45.1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어	41.7	31.5	26.3	46.1	62.3	43.8	41.4	45.8	45.4	44.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4.6	39.4	33.6	52.3	60.3	70.1	47.1	52.4	46.2	49.6
기타	30.1	23.4	35.6	27.7	26.0	43.2	26.4	32.9	22.1	29.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활동 미참여 시의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9.9%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0.1%는 대체프로그램 의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6.3%로 2024년 결과에서 인지도가 3.6%p가량 증가하였다.

영유아구분과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지는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가 24.9%로 더 잘 알고 있었으며 보육연령별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세(28.5%)로 가장 높았으며 1세(12.5%)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지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직장(43.0%)이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9.1%)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I-4-8〉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 여부

단위: %, (명)

	전혀 모름	잘 모름	잘 앎	계(수)
전체	32.6	47.5	19.9	100.0(1,349)
영유아구분				
영아	35.3	48.6	16.1	100.0(824)
유아	29.1	46.0	24.9	100.0(525)
$\chi^2(df)$	17.2(2)***			
보육연령				
0세	32.4	53.2	14.4	100.0(107)
1세	42.5	45.0	12.5	100.0(314)
2세	29.6	50.8	19.6	100.0(403)
3세	24.9	46.7	28.5	100.0(220)
4세	30.7	48.0	21.2	100.0(154)
5세	32.7	43.5	23.8	100.0(151)
$\chi^2(df)$	37.3(10)**			

	전혀 모름	잘 모름	잘 앎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33.5	45.8	20.6	100.0(527)
중소도시	31.0	50.2	18.8	100.0(616)
읍·면	35.8	42.4	21.8	100.0(206)
$\chi^2(df)$		4.5(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9.4	50.2	20.3	100.0(467)
사회복지법인	25.6	53.8	20.5	100.0(73)
법인·단체등	43.8	47.1	9.1	100.0(39)
민간	35.7	47.5	16.9	100.0(535)
가정	37.0	43.2	19.7	100.0(148)
직장	23.5	33.5	43.0	100.0(86)
협동	-	-	100.0	100.0(1)
$\chi^2(df)$		46.0(12)***		
2021년	39.6	44.1	16.3	100.0(1,148)
2018년	41.3	38.6	20.1	100.0(1,653)
2015년	43.2	43.3	13.5	100.0(1,48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299~300. <표 VI-4-9>.

*** $p < .001$.

라. 특별활동 비용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대략 68.8%~87.0%의 비율 분포를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뚜렷하게 낮았다.

<표 VI-4-9>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수)
예능(미술, 음악)	76.0	79.9	94.5	79.5	66.4	49.6	75.3	(984)
체육관련	75.8	76.1	95.6	79.3	68.4	48.6	75.3	(1,033)
수학/과학 관련	72.5	80.4	86.9	78.7	54.1	29.8	71.9	(353)
영어	79.6	86.9	100.0	78.8	72.0	45.7	77.1	(72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68.0	71.8	81.2	73.1	68.7	18.3	68.8	(428)
기타	89.3	71.0	78.5	87.1	100.0	33.3	87.0	(22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나, 약 1만2,400원에서부터 2만8,1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영어의 이용비용이 1만8,6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가 만 2,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비용에 기타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용비용은 직장어린이집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낮은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예능(미술, 음악)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은 월평균 비용이 2만1,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어린이집이 1만1,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영어의 경우에도 민간은 2만1,6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어린이집은 9,900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10〉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 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F	
예능(미술, 음악)	17.8	17.2	0.0	100.0	15.5	14.3	14.6	21.3	17.6	11.4	6.5*** ^(a)	(984)
체육관련	18.1	17.2	0.0	100.0	17.3	16.1	21.3	20.0	17.1	10.7	3.7**	(1,033)
수학/과학 관련	13.2	12.8	0.0	90.0	12.3	12.6	8.9	16.0	10.2	5.3	3.8** ^(a)	(353)
영어	18.6	16.3	0.0	100.0	17.0	18.1	17.5	21.6	17.8	9.9	5.6*** ^(a)	(72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2.4	12.9	0.0	88.0	11.1	10.1	9.6	14.4	13.0	3.6	3.2** ^(a)	(428)
기타	28.1	32.1	0.0	200.0	27.0	12.1	15.2	31.3	30.9	6.8	1.4	(22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영아와 유아의 경우 영어와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영아는 2만300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유아는 1만 7,400원을 지불하여 대략 2,9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는 기타를 제외한 모든 특별활동 프로그램에서 이용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0세가 가장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2세의 이용비용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별로 이용비용에 차이가 뚜렷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주로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11〉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17.8	18.1	13.2	18.6	12.4	28.1
영유아구분						
영아	18.7	18.4	14.9	20.3	14.5	31.4
유아	16.8	17.7	12.6	17.4	11.2	24.4
<i>t</i>	1.7	0.7	1.6	2.5	2.5	1.7
보육연령						
0세	7.6	6.9	7.7	7.0	6.3	25.2
1세	18.1	18.9	14.7	20.7	14.4	28.0
2세	20.4	19.3	16.9	21.0	16.2	36.5
3세	16.8	19.7	15.6	18.8	13.1	26.8
4세	18.3	17.0	12.0	21.6	10.0	25.8
5세	15.4	15.7	10.0	12.4	10.3	20.1
<i>F</i>	4.4*** (a)	4.3***	3.7**	8.1***	3.5**	1.3
지역규모						
대도시	17.5	18.8	15.3	19.5	12.8	38.6
중소도시	19.9	19.0	12.5	19.7	13.1	22.2
읍·면	11.7	12.6	8.6	11.1	8.8	21.2
<i>F</i>	12.8*** (a)	8.4*** (a)	6.1** (a)	11.7*** (a)	2.9(a)	8.3*** (a)
(수)	(984)	(1,033)	(353)	(723)	(428)	(229)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별로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은 전체 평균 7만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구분에 따라 이용비용은 영아 6만3,400원, 유아 7만9,900원으로 유아가 더 많이 지불하고 있었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도 이용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비용도 더 많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7만3,500원, 중소도시 7만4,100원, 읍·면지역 4만9,000원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이용비용은 차이가 있었으며 민간어린이집 8만100원으로 가장 높은 이용비용을 보였으며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 5만2,3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4-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지불 시		'21년	'18년	'15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0.2	0.5	3.0	5.9	14.4	37.8	13.2	3.7	1.2	100.0	70.6	43.3	53.3	56.1	71.1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지불 시		'21년	'18년	'15년
											평균	표준 편차			
(1,196)															
영유아구분															
영아	19.2	0.7	3.1	7.9	19.7	34.1	12.2	2.4	0.7	100.0 (708)	63.4	38.7	47.4	49.0	53.8
유아	21.4	0.3	2.8	3.4	7.9	42.5	14.6	5.4	1.8	100.0 (488)	79.9	47.0	57.6	58.9	76.7
$\chi^2(df)/t$ 57.5(8)***											-5.8***		-3.3**		
보육연령															
0세	44.5	1.9	10.0	5.0	11.9	26.7	-	-	-	100.0 (58)	41.2	21.3	7.9	44.4	-
1세	19.8	0.5	3.8	7.9	26.4	27.4	10.9	2.3	0.9	100.0 (277)	60.0	38.8	37.3	39.2	-
2세	14.9	0.7	1.6	8.3	15.2	40.6	15.1	2.9	0.6	100.0 (373)	68.3	39.0	53.9	51.3	-
3세	16.9	0.8	0.9	3.3	9.0	42.0	21.1	3.4	2.6	100.0 (203)	82.8	45.7	54.2	56.9	-
4세	19.1	-	6.7	1.3	7.6	45.7	11.3	6.5	1.8	100.0 (148)	78.4	52.5	55.6	58.3	-
5세	29.0	-	1.6	5.4	6.7	40.0	9.6	6.7	1.0	100.0 (137)	77.5	42.5	63.8	61.6	-
$\chi^2(df)/F$ 162.9(40)***											10.1*** (a)		5.3***		
지역규모															
대도시	18.5	0.1	3.1	4.5	14.6	37.5	17.5	3.3	0.9	100.0 (476)	73.5	39.8	53.0	59.5	71.0
중소도시	19.0	0.8	2.5	4.7	14.8	38.2	13.0	5.3	1.8	100.0 (531)	74.1	48.0	56.6	58.6	71.5
읍·면	28.2	0.6	4.5	13.6	12.8	37.1	3.1	-	-	100.0 (89)	49.0	25.0	45.4	44.7	70.6
$\chi^2(df)/F$ 65.2(16)***											18.8*** (a)		2.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8.2	0.7	4.0	7.8	15.0	41.2	10.2	2.6	0.4	100.0 (411)	64.0	36.4	44.7	45.1	65.4
법인	19.0	-	5.6	1.4	13.6	47.5	12.9	-	-	100.0 (64)	61.0	26.5	38.4	47.8	73.7
법인단체등	-	-	7.4	6.6	36.3	44.1	5.6	-	-	100.0 (34)	52.3	26.6	65.3	50.7	56.2
민간	17.3	0.7	1.9	5.3	13.1	35.6	17.4	6.3	2.5	100.0 (486)	80.1	50.9	61.5	63.3	75.4
가정	28.1	-	3.9	4.4	15.1	35.5	11.7	1.3	-	100.0 (122)	63.2	32.8	41.4	51.0	61.4
직장	49.1	-	-	3.0	12.9	27.5	7.5	-	-	100.0 (78)	64.0	28.2	31.2	39.4	57.4
협동	100.0	-	-	-	-	-	-	-	-	100.0 (1)			37.0	-	160.0
$\chi^2(df)/F$ 119.5(48)***											8.0*** (a)		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3. <표 VI-4-13>.

** $p < .01$, *** $p < .001$.

마. 특별활동 이용 만족도 및 선호 프로그램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특별활동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8~4.38점 범위에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 만족도가 4.0~4.2에 비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VI-4-13〉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F	(수)	2021년	
											전체	(수)
예능(미술, 음악 등)	4.4	4.4	4.5	4.3	4.4	4.5	3.00	4.4	3.4**	(984)	4.1	(672)
체육 관련	4.4	4.5	4.4	4.3	4.5	4.5	3.00	4.4	4.9***	(1,033)	4.2	(671)
수학/과학 관련	4.4	4.5	4.4	4.3	4.1	4.4	4.00	4.3	0.8(a)	(353)	4.0	(250)
영어	4.4	4.3	4.6	4.3	4.1	4.5	3.00	4.3	5.3***	(723)	4.0	(54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4.4	4.3	4.4	4.4	4.3	4.4	-	4.4	0.2	(428)	4.2	(300)
기타	4.4	4.2	4.4	4.2	4.4	4.5	-	4.3	2.4*	(229)	4.2	(116)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4. 〈표 VI-4-14〉.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특별활동의 선호도는 체육관련(35.4%), 예능(미술, 음악)(30.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15.1%), 영어(12.4%)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나 언어는 특히 유아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예능과 체육은 영아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보육연령에 따라 예능과 체육은 모든 연령에서 선호도가 높았으며 영어와 언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호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예능과 체육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체육관련 선호도가 54.4%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VI-4-1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계(수)
전체	30.0	35.4	1.6	12.4	15.1	5.6	100.0(1,196)
영유아구분							
영아	32.0	39.6	1.2	9.9	10.8	6.5	100.0(708)
유아	27.4	30.1	2.1	15.6	20.5	4.3	100.0(488)
$\chi^2(df)$	40.9(5)**						
보육연령							
0세	30.2	30.7	-	-	18.4	20.7	100.0(58)
1세	29.8	43.0	0.9	10.5	9.7	6.1	100.0(277)
2세	34.2	38.0	1.6	10.8	10.6	4.8	100.0(373)
3세	28.5	34.9	1.0	11.6	21.0	2.9	100.0(203)
4세	27.5	25.5	2.8	19.7	19.6	4.8	100.0(148)
5세	25.9	28.4	2.9	16.4	20.8	5.6	100.0(137)
$\chi^2(df)$	80.6(25)**						
지역규모							
대도시	30.2	32.1	1.6	13.0	16.5	6.6	100.0(476)
중소도시	30.2	38.2	1.5	12.2	13.4	4.5	100.0(531)
읍·면	29.1	34.5	1.9	11.2	17.0	6.3	100.0(189)
$\chi^2(df)$	7.6(1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9.6	32.9	2.6	13.3	16.3	5.5	100.0(411)
사회복지법인	34.2	29.3	1.2	10.7	23.1	1.5	100.0(64)
법인·단체 등	27.7	40.0	-	12.8	18.4	1.1	100.0(34)
민간	31.0	33.2	1.5	12.4	15.7	6.3	100.0(486)
가정	23.0	54.4	-	6.5	8.3	7.8	100.0(122)
직장	38.6	32.5	-	19.9	9.0	-	100.0(78)
협동	-	100.0	-	-	-	-	100.0(1)
$\chi^2(df)$	52.4(3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가.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보육실태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구성요소별로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4.50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4.42점, 생활지도 4.41점 순이었다. 반면, 시설 설비 및 실내외

환경이 4.2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주변환경 4.26점,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부모참여 및 교육이 각 4.29점으로 다음을 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2015년 4.02점이었으며, 2018년 약간 높아져 4.03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2021년에는 4.10점으로 도리어 높아졌다. 김은설 외(2021: 341)의 결과와 비교할 때, 2024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모든 구성요소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육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2년 동안에 별도 조사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서도, 2024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5-1〉 어린이집 구성요소별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원장	0.1	1.1	3.7	46.5	48.6	100.0	(1,666)	4.42 0.63
교사	0.0	0.6	3.4	41.8	54.2	100.0	(1,666)	4.50 0.59
주변환경	0.2	2.2	11.0	44.2	42.4	100.0	(1,666)	4.26 0.75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	0.3	2.1	10.5	46.3	40.7	100.0	(1,666)	4.25 0.75
교재교구 및 장비	0.1	1.1	9.2	49.0	40.6	100.0	(1,666)	4.29 0.68
내부분위기	0.0	0.5	4.2	50.5	44.8	100.0	(1,666)	4.40 0.60
비용	0.1	1.8	9.2	46.7	42.3	100.0	(1,666)	4.29 0.71
건강관리	0.0	0.3	6.8	48.5	44.5	100.0	(1,666)	4.37 0.62
급간식 관리	0.1	0.6	7.2	45.8	46.3	100.0	(1,666)	4.38 0.65
안전관리	0.0	0.3	3.7	50.1	45.9	100.0	(1,666)	4.42 0.58
교육내용	0.0	0.8	4.6	48.8	45.8	100.0	(1,666)	4.40 0.61
생활지도	0.0	0.3	4.1	49.8	45.8	100.0	(1,666)	4.41 0.59
부모참여 및 교육	0.2	0.5	8.6	51.5	39.2	100.0	(1,666)	4.29 0.66
전체 평균	0.1	0.9	6.6	47.7	44.7	100.0	(1,666)	4.36 0.65
2021년	0.2	2.3	18.5	46.1	32.9	100.0	(1,464)	4.10 (0.65)
2018년	0.3	2.0	16.8	56.2	24.7	100.0	(1,753)	4.03 (0.72)
2015년	0.3	2.0	19.5	52.0	26.2	100.0	(1,745)	4.02 (0.74)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항목에 '내부 분위기 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5. 〈표 VI-5-1〉.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평균 4.62점이었으며, 다음으로 협동어린이집 4.47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4.45점 순이었다. 2021년에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4.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협동어린이집(4.30

점), 법인·단체등어린이집(4.23점) 순이었다. 즉, 직장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항상 높았던 상황으로, 2024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지되었다.

구성요소별로 모든 요소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안전관리(4.75점), 급간식 관리(4.7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협동어린이집 또한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 교육내용, 생활지도, 부모참여 및 교육 등이 4.6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협동어린이집은 응답 수가 4개에 불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비용(4.16점),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4.19점), 부모참여 및 교육(4.21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VI-5-2〉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 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F	(수)
원장	4.39	4.44	4.55	4.40	4.50	4.57	4.40	1.9	(1,666)
교사	4.50	4.61	4.54	4.45	4.53	4.63	4.31	2.0(a)	(1,666)
주변환경	4.29	4.18	4.17	4.22	4.29	4.48	4.07	2.0(a)	(1,666)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	4.27	4.20	4.37	4.19	4.25	4.54	4.40	3.2**	(1,666)
교재교구 및 장비	4.32	4.12	4.47	4.23	4.27	4.61	4.31	5.4*** (a)	(1,666)
내부분위기	4.40	4.35	4.46	4.34	4.44	4.61	4.40	2.9**	(1,666)
비용	4.35	4.32	4.43	4.16	4.34	4.63	4.31	8.1*** (a)	(1,666)
건강관리	4.39	4.32	4.47	4.31	4.38	4.62	4.67	3.8*** (a)	(1,666)
급간식 관리	4.39	4.28	4.43	4.29	4.45	4.74	4.67	7.3*** (a)	(1,666)
안전관리	4.43	4.32	4.60	4.33	4.48	4.75	4.58	8.9*** (a)	(1,666)
교육내용	4.41	4.37	4.48	4.34	4.44	4.62	4.67	3.4**	(1,666)
생활지도	4.42	4.43	4.51	4.34	4.44	4.67	4.67	4.8*** (a)	(1,666)
부모참여 및 교육	4.33	4.29	4.31	4.21	4.26	4.55	4.67	4.8*** (a)	(1,666)
전체 평균	4.38	4.33	4.45	4.29	4.39	4.62	4.47	46.2*** (a)	(1,666)
(수)	(586)	(94)	(49)	(619)	(209)	(105)	(4)	-	-
2021년	4.15	3.93	4.23	4.02	4.12	4.62	4.30	-	(1,464)
2018년	4.11	4.07	4.09	3.97	4.01	4.37	-	-	(1,753)
2015년	4.08	4.15	3.80	3.97	4.09	4.39	4.78	-	(1,745)
2012년	3.85	3.69	3.86	3.65	3.67	4.13	4.08	-	(1,536)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항목에 '내부 분위기 추가'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6. 〈표 VI-5-2〉.

** $p < .01$, *** $p < .001$.

영유아 구분에 따라서는 유아의 만족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영아의 만족도에 비해 높게 응답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의 경우 특히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4.21점), 부모참여 및 교육(4.27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런데, 보육연령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0세의 이용자 만족도는 전체 평균 4.45점으로 다른 모든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연령은 1세로 4.30점에 그쳤으며, 다음으로 2세(4.33점), 3세(4.34점) 순이었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1세를 기준으로 구성요소별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4.17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교재교구 및 장비(4.20점), 주변환경(4.21) 순이었다. 반대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0세의 경우에는 교사(4.58점), 내부분위기(4.55점), 안전관리(4.53점), 생활지도(4.53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VI-5-3〉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원장	4.41	4.45	-1.2	4.52	4.37	4.40	4.39	4.51	4.45	2.4*
교사	4.49	4.51	-0.5	4.58	4.47	4.47	4.47	4.58	4.48	2.1(a)
주변환경	4.23	4.32	-2.3*	4.26	4.21	4.24	4.25	4.46	4.26	3.3**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	4.21	4.32	-3.1**	4.24	4.17	4.23	4.26	4.44	4.29	3.7**(a)
교재교구 및 장비	4.26	4.34	-2.6*	4.34	4.20	4.28	4.28	4.42	4.35	3.6**
내부분위기	4.39	4.41	-0.6	4.55	4.33	4.37	4.35	4.49	4.39	4.7***
비용	4.29	4.30	-0.2	4.47	4.27	4.23	4.26	4.35	4.29	3.4**
건강관리	4.35	4.40	-1.4	4.43	4.33	4.34	4.37	4.42	4.40	1.1(a)
급간식 관리	4.36	4.40	-1.2	4.49	4.33	4.33	4.36	4.44	4.41	2.5*
안전관리	4.39	4.45	-2.0*	4.53	4.37	4.36	4.42	4.50	4.45	3.7**
교육내용	4.38	4.42	-1.4	4.49	4.31	4.40	4.37	4.50	4.42	3.7**
생활지도	4.41	4.41	-0.1	4.53	4.36	4.41	4.38	4.42	4.44	2.6*
부모참여 및 교육	4.27	4.32	-1.6	4.39	4.22	4.27	4.29	4.35	4.33	2.6*
전체 평균	4.34	4.39	-5.2***	4.45	4.30	4.33	4.34	4.45	4.38	302.7***(a)
(수)	(1,093)	(573)		(226)	(413)	(454)	(241)	(169)	(163)	
2021년	4.10	4.08	2.2*	4.09	4.08	4.11	4.06	4.11	4.08	1.2
2018년	4.02	4.04	-0.6	4.04	4.04	4.01	4.00	4.04	4.09	0.9
2015년	4.03	4.01	-0.7	4.09	4.00	4.05	4.03	4.05	4.04	0.9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항목에 '내부 분위기 추가'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7. 〈표 VI-5-3〉.

* $p < .05$, ** $p < .01$, *** $p < .001$.

지역규모별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읍·면 지역의 경우 4.41점으로 대도시(4.36점)나 중소도시(4.35점)에 비해 높게 응답된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구성요소별로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정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에서 4.58점으로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4.45점으로 약간 낮았다. 2018년과 2021년에도 지역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유지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부재를 제외하면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 부재인 경우는 관측치가 14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구성요소별로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미취업인 경우 4.24점으로 가장 낮고, 부모가 부재인 경우에는 오히려 4.68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나 추가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표 VI-5-4〉 지역규모별 및 모 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등	F
원장	4.42	4.41	4.48	1.2	4.43	4.38	4.42	4.64	0.9
교사	4.53	4.45	4.58	5.8**(a)	4.53	4.48	4.45	4.67	2.6(a)
주변환경	4.24	4.27	4.29	0.4	4.28	4.28	4.22	4.48	1.1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	4.22	4.26	4.32	1.5	4.24	4.25	4.26	4.52	0.8
교재교구 및 장비	4.26	4.29	4.36	1.8	4.30	4.28	4.27	4.52	0.9
내부분위기	4.39	4.38	4.45	1.2	4.40	4.48	4.36	4.60	2.4
비용	4.29	4.27	4.38	2.3	4.30	4.36	4.24	4.68	3.0*
건강관리	4.36	4.36	4.42	0.8	4.39	4.40	4.33	4.56	1.6
급간식 관리	4.35	4.38	4.43	1.5	4.39	4.39	4.35	4.48	0.6
안전관리	4.44	4.40	4.41	0.6	4.43	4.45	4.37	4.52	1.7
교육내용	4.39	4.39	4.44	0.6(a)	4.40	4.40	4.39	4.56	0.4(a)
생활지도	4.43	4.39	4.42	0.7	4.43	4.41	4.38	4.60	1.3(a)
부모참여 및 교육	4.30	4.28	4.30	0.3	4.30	4.35	4.25	4.47	1.5
전체 평균	4.36	4.35	4.41		4.37	4.38	4.33	4.56	
(수)	(642)	(753)	(271)	9.5*** (a)	(951)	(145)	(556)	(14)	13.1*** (a)
2021년	4.11	4.05	4.18	3.6*	4.10	4.24	4.07	3.79	1.3
2018년	3.99	4.04	4.09	3.4**	4.06	4.16	3.98	4.37	5.5***
2015년	4.02	4.02	4.03	-	3.98	4.08	4.04	-	-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항목에 '내부 분위기 추가'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8. 〈표 VI-5-4〉.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를 구분하여 모 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를 산출해 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영아(4.36점), 유아(4.38점)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휴직자의 경우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4.45점)에 만족도가 좀 더 높았으며, 미취업모의 경우에도 유아 자녀의 만족도(4.38점)가 좀 더 높았다. 한편, 모가 휴직 중이면서 유아 자녀가 있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4.77점으로 가장 높고, 미취업모이면서 유아 자녀가 있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46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모 이면서 영아 자녀가 있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2021년과 2024년의 만족도가 4.43점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아 자녀가 있는 휴직자의 경우에는 2021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4.2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4.23점으로 이례적으로 2021년 조사보다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이었다.

〈표 VI-5-5〉 영유아구분 및 지역규모별,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취업			휴직 중			미취업			전체			2024년 (수)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영아	4.36	4.11	4.04	4.35	4.19	4.09	4.30	4.03	4.00	4.34	4.08	4.03	
대도시	4.33	4.07	3.96	4.39	4.13	4.13	4.26	4.05	3.98	4.31	4.07	3.99	(447)
중소도시	4.37	4.05	4.13	4.23	4.24	4.03	4.35	3.94	4.01	4.35	4.01	4.06	(469)
읍·면지역	4.43	4.43	4.02	4.50	4.31	4.08	4.25	4.19	4.03	4.38	4.30	4.03	(175)
유아	4.38	4.08	4.06	4.45	4.25	4.22	4.38	4.09	3.96	4.38	4.09	4.03	
대도시	4.48	4.11	4.03	4.43	4.26	4.16	4.36	4.12	3.93	4.44	4.13	4.00	(191)
중소도시	4.31	4.03	4.04	4.36	4.23	4.26	4.35	4.06	3.98	4.33	4.06	4.02	(277)
읍·면지역	4.43	4.13	4.20	4.77	4.28	4.24	4.46	4.08	4.01	4.46	4.12	4.12	(93)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3)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항목에 '내부 분위기 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09. 〈표 VI-5-5〉.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4.53점으로 매우 높고, 일반 어린이집 4.31점, 공공형 어린이집 4.29점 순이었다. 민간어린이집 중 서울형 어린이집의 이용 만족도는 4.47점으로 높았으며,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4.29

점,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은 4.24점이었다.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의 이용 만족도는 4.59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과는 달리 공공형 가정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4.42점으로 일반 가정어린이집 만족도 4.38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만족도가 일반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교육내용(4.73점), 건강관리(4.72점), 비용(4.6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VI-5-6〉 어린이집 유형별(공공형, 서울형, 일반)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전체(민간+가정)			민간			가정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원장	4.41	4.42	4.43	4.36	4.32	4.41	4.55	4.55	4.51
교사	4.45	4.50	4.50	4.32	4.67	4.49	4.78	4.29	4.51
주변환경	4.16	4.52	4.20	4.24	4.50	4.18	3.94	4.54	4.27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	4.20	4.35	4.15	4.18	4.26	4.14	4.25	4.46	4.17
교재교구 및 장비	4.27	4.38	4.21	4.28	4.51	4.19	4.24	4.22	4.27
내부분위기	4.32	4.57	4.36	4.24	4.67	4.34	4.53	4.45	4.45
비용	4.17	4.64	4.16	4.09	4.54	4.13	4.37	4.76	4.27
건강관리	4.27	4.72	4.32	4.24	4.68	4.31	4.35	4.76	4.36
급간식 관리	4.29	4.49	4.33	4.21	4.19	4.29	4.51	4.86	4.47
안전관리	4.29	4.54	4.38	4.21	4.43	4.34	4.51	4.69	4.51
교육내용	4.36	4.73	4.36	4.27	4.77	4.34	4.60	4.69	4.43
생활지도	4.35	4.48	4.36	4.30	4.32	4.34	4.48	4.69	4.45
부모참여 및 교육	4.27	4.53	4.22	4.23	4.32	4.22	4.36	4.78	4.23
전체 평균	4.29	4.53	4.31	4.24	4.47	4.29	4.42	4.59	4.38
(수)	(65)	(15)	(431)	(49)	(8)	(330)	(16)	(7)	(101)
2021년	4.16	3.87	4.06	4.14	3.74	4.04	4.25	4.16	4.10
2018년	4.10	4.03	3.96	4.08	3.95	3.96	4.21	4.21	3.98
2015년	4.14	4.11	3.96	4.16	4.00	3.92	4.03	4.56	4.07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이용 사례 중 해당 어린이집을 공공형, 서울형,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항목에 '내부 분위기 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18). pp. 309~310. 〈표 VI-5-6〉.

나. 개선 요구

어린이집 개선 사항은 1순위 응답 기준 '교육내용 다양화'가 1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력 증원' 17.5%, '노후시설 정비' 14.3% 순이었다. 반면, '회계

투명성'은 2.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비용 절감' 2.9%, '아동학대 예방'이 3.3%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인력 증원'이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이었으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노후 시설 정비(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법인·단체등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안전관리 강화(21.6%)',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인력 증원(15.9%)'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이었다.

〈표 VI-5-7〉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인력 증원	22.0	13.6	14.4	13.9	15.9	17.3	35.2	17.5
인력의 질 제고	10.0	9.5	5.7	12.4	7.3	11.8	-	10.5
노후 시설 정비	10.7	28.9	19.1	13.5	20.6	16.9	31.5	14.3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5.7	17.4	4.2	11.2	12.5	6.3	-	9.1
비용 절감	2.2	-	-	4.3	3.1	0.6	-	2.9
회계 투명성	1.8	0.6	-	2.3	3.8	-	-	2.1
안전관리 강화	8.6	3.7	21.6	7.3	6.4	9.1	-	7.9
교육내용 다양화	20.2	13.9	11.8	17.1	15.2	23.9	-	18.0
영양 및 급식 수준	6.1	3.1	10.5	5.7	3.2	2.8	-	5.4
아동학대 예방	2.0	-	8.7	4.0	4.5	2.0	33.3	3.3
기타	10.7	9.3	3.9	8.4	7.7	9.2	-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94)	(49)	(619)	(209)	(105)	(4)	(1,66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회계투명성', '영양 및 급식수준', '아동학대 예방', '기타' 문항을 추가함.

자료: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개선 사항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도 '교육내용 다양화'가 33.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인력의 질 제고(24.6%)', '인력 증원(24.2%)' 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노후 시설 정비'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을 뿐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교육내용 다양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

어린이집 개선 사항은 2024년에 설문 항목이 대폭 보강된 문항으로, '교육내용 다양화'는 이전 조사에서는 보기 항목에 없었던 항목이었다. 2021년 조사 기준 어린이집 개선 사항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은 '안전관리 강화(55.8%)'였으며, 2018년 조사에

서도 '안전관리 강화(47.8%)'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이었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 '안전관리 강화'는 18.3%에 그쳐, 중간 정도 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5-8〉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1	'18
인력 증원	30.2	20.5	19.6	19.2	22.6	22.1	35.2	24.2	34.4	35.9
인력의 질 제고	24.1	25.0	13.4	26.9	18.2	30.0	33.3	24.6	36.6	37.4
노후 시설 정비	18.9	34.2	24.1	23.0	29.2	24.8	39.9	22.9	19.1	16.4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16.3	29.0	25.3	21.7	24.0	14.9	-	19.8	18.1	16.8
비용 절감	5.5	1.8	1.9	8.9	7.0	0.6	31.5	6.6	8.8	12.7
회계 투명성	3.8	1.3	-	5.5	8.2	1.2	-	4.6	27.1	25.3
안전관리 강화	17.5	13.6	29.2	18.1	20.4	17.8	26.7	18.3	55.8	47.8
교육내용 다양화	38.2	29.7	37.7	29.1	32.1	39.6	-	33.5	-	-
영양 및 급식 수준	14.1	13.6	19.9	14.2	8.5	9.4	-	13.2	-	-
아동학대 예방	8.1	8.6	16.7	10.3	8.6	9.0	33.3	9.4	-	-
기타	11.2	11.5	8.3	8.4	8.6	9.2	-	9.6	-	-
(수)	(586)	(94)	(49)	(619)	(209)	(105)	(4)	(1,666)	(1,464)	(1,75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순위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비중의 합계는 200%보다 적음.

3)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 2.0이 있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4) 2024년 '회계투명성', '영양 및 급식수준', '아동학대 예방', '기타' 문항을 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11. 〈표 VI-5-8〉.

6. 연장보육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가. 연장보육

1) 연장보육 이용

연장보육 이용여부는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66.3%, 연장보육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33.7%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연장보육까지 이용이 6.9%p가량 늘었다. 연장보육 이용여부는 지역규모와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가 37.0%로 연장보육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29.4%로 가장 낮았다. 모 취업의 경우 연장보육 이용비율은 46.2%로 휴직 중(21.4%), 미취업(15.0%)에 비해 크게 높았다.

〈표 VI-6-1〉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기본보육만 이용	연장보육까지 이용	계(수)
전체	66.3	33.7	100.0(1,666)
보육연령			
0세	70.1	29.9	100.0(226)
1세	68.5	31.5	100.0(413)
2세	64.4	35.6	100.0(454)
3세	65.6	34.4	100.0(241)
4세	67.1	32.9	100.0(169)
5세	62.3	37.7	100.0(163)
$\chi^2(df)$	4.3(5)		
지역규모			
대도시	70.6	29.4	100.0(642)
중소도시	63.0	37.0	100.0(753)
읍·면	66.6	33.4	100.0(271)
$\chi^2(df)$	9.0(2)*		
모 취업 여부			
취업	53.8	46.2	100.0(951)
휴직 중	78.6	21.4	100.0(145)
미취업	85.0	15.0	100.0(556)
부재 등	65.5	34.5	100.0(14)
$\chi^2(df)$	163.0(3)***		
2021년	73.2	26.8	100.0(1,46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14. 〈표 VI-6-1〉.

* $p < .05$, *** $p < .001$.

연장보육 이용이유는 돌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높았으며 연장보육이 가장 안심된다는 응답도 18.3%를 차지하였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는 돌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85.3%로 조사되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당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보육 이외에 대체돌봄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를 돌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돌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돌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86.3%로 휴직 중(63.6%), 미취업(42.9%)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6-2〉 연장보육 이용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돌봄사람 없음	연장보육이 가장 안심됨	프로그램이 마음에 듭	전담교사가 마음에 듭	기타	(수)
전체	78.8	18.3	3.3	2.7	5.8	(575)
보육연령						
0세	83.6	12.0	2.0	-	11.9	(58)
1세	76.4	20.0	1.2	1.1	4.9	(138)
2세	79.8	17.7	3.6	3.0	4.9	(163)
3세	82.2	17.2	0.8	3.1	3.7	(91)
4세	74.1	21.5	8.6	6.0	8.2	(60)
5세	77.8	19.9	5.7	3.8	4.8	(65)
지역규모						
대도시	80.3	17.6	3.5	2.2	5.7	(203)
중소도시	79.0	19.4	3.7	3.6	4.5	(279)
읍·면	74.9	15.8	1.7	0.8	10.6	(93)
모 취업 여부						
취업	86.3	15.6	1.6	3.1	3.3	(448)
휴직 중	63.6	4.4	15.0	-	26.4	(32)
미취업	42.9	39.4	8.4	1.9	11.9	(88)
부재 등	100.0	-	-	-	-	(7)
2021년	85.3	16.7	5.0	2.8	3.8	(38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15. 〈표 VI-6-2〉.

연장보육 이용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2.3%였으며 저녁 간식만 제공하는 경우는 31.6%였다. 저녁 급간식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19.8%, 저녁 급식만 제공하는 경우는 6.3%로 확인되었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는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9.5%로 저녁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급간식 지원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2024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저녁 급간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장보육 이용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45.5%), 대도시(41.7%), 읍·면지역(32.0%)의 순으로 제공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으며 모 취업의 경우 급간식 미제공이 43.4%로 휴직 중(33.7%), 미취업(40.1%)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6-3〉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

단위: %, (명)

구분	저녁 급간식 모두	저녁 간식만	저녁 급식만	미제공	계(수)
전체	19.8	31.6	6.3	42.3	100.0(575)
보육연령					
0세	14.8	38.0	6.4	40.9	100.0(58)
1세	19.9	27.7	1.8	50.6	100.0(138)
2세	14.0	29.4	7.3	49.3	100.0(163)
3세	28.1	28.2	9.3	34.4	100.0(91)
4세	22.1	37.0	11.1	29.7	100.0(60)
5세	23.9	37.2	4.8	34.1	100.0(65)
$\chi^2(df)$	27.6(15)*				
지역규모					
대도시	23.1	29.5	5.7	41.7	100.0(203)
중소도시	18.5	29.3	6.7	45.5	100.0(279)
읍·면	17.5	44.4	6.1	32.0	100.0(93)
$\chi^2(df)$	10.1(6)				
모 취업 여부					
취업	18.7	32.3	5.7	43.4	100.0(448)
휴직 중	23.8	23.0	19.4	33.7	100.0(32)
미취업	26.2	30.8	2.9	40.1	100.0(88)
부재 등	-	31.5	32.0	36.5	100.0(7)
$\chi^2(df)$	23.6(9)**				
2021년	12.2	34.6	3.7	49.5	100.0(38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15~316. 〈표 VI-6-3〉.

* $p < .05$, ** $p < .01$.

연장보육 이용 시 저녁 급간식 비용 부담은 어린이집 제공(75.9%), 부모 부담(15.8%), 기타(5.7%), 집에서 도시락(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간식 비용 부담은 보육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보육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 제공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세의 경우 어린이집 제공이 80.2%에 달하였으며 0세의 경우 68.1%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 급간식 비용 부담은 지역규모나 모 취업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반면, 부모가 부담한다는 응답은 취업모(19.0%)로, 휴직 중(11.1%), 미취업 (2.5%)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6-4〉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비용 부담

단위: %, (명)

구분	부모 부담	어린이집 제공	집에서 도시락	기타	계(수)
전체	15.8	75.9	2.6	5.7	100.0(327)
보육연령					
0세	22.5	68.1	5.6	3.9	100.0(31)
1세	11.9	83.3	0.9	3.8	100.0(74)
2세	11.3	79.8	-	9.0	100.0(86)
3세	28.3	64.2	1.6	5.9	100.0(56)
4세	11.9	80.2	-	7.9	100.0(37)
5세	12.9	74.6	10.1	2.3	100.0(43)
$\chi^2(df)$	28.5(15)*				
지역규모					
대도시	16.9	72.5	5.4	5.1	100.0(115)
중소도시	15.6	75.7	1.1	7.6	100.0(154)
읍·면	14.2	82.7	2.0	1.1	100.0(58)
$\chi^2(df)$	8.2(6)				
모 취업 여부					
취업	19.0	72.8	3.2	4.9	100.0(254)
휴직 중	11.1	72.4	2.5	14.0	100.0(16)
미취업	2.5	91.1	-	6.4	100.0(53)
부재 등	-	100.0	-	-	100.0(4)
$\chi^2(df)$	16.5(9)				
2021년	19.2	77.9	1.5	1.5	100.0(20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16~317. 〈표 VI-6-4〉.

* $p < .05$.

연장보육 이용 시 어린이집에서 저녁 급식이나 간식 제공을 받는 경우 부모 부담 비용은 월 기준 약 3만6,641원으로 2021년 3만2,479원에 비해 대략 4,200원 가량 증가하였다. 저녁 급간식 비용의 최소값은 1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부모부담 급간식 비용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4만359원으로, 대도시(3만8,000원)와 읍·면지역(2만1,880원)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녁 간식비는 수익자부담 경비로 연장보육 이용시간 등에 따라 지불 금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표 VI-6-5〉 연장보육 시 월 기준 저녁 급간식 비용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36,641	17,919	10,000	80,000	(4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보육연령					
0세	32,768	11,622	20,000	50,000	(6)
1세	27,751	13,716	10,000	60,000	(9)
2세	34,546	13,855	13,000	50,000	(9)
3세	46,103	19,478	10,000	80,000	(10)
4세	27,753	22,377	20,000	80,000	(5)
5세	39,107	20,155	20,000	60,000	(5)
<i>F</i>	1.7				
지역규모					
대도시	38,000	13,907	12,000	60,000	(19)
중소도시	40,359	19,807	20,000	80,000	(18)
읍·면	21,880	12,887	10,000	50,000	(7)
<i>F</i>	3.7 ^(a)				
모 취업 여부					
취업	36,636	17,932	10,000	80,000	(41)
휴직 중	50,000	-	50,000	50,000	(1)
미취업	13,000	-	13,000	13,000	(2)
부재 등	-	-	-	-	-
<i>F</i>	1.8(a)				
2021년	32,479	18,503	10,000	90,000	(35)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17. <표 VI-6-5>.

* $p < .05$.

2)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 및 긴급 연장보육 이용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장보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았고,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21.7%를 차지하였다. 이외 학원 등 이용으로 인한 이유가 5.5%, 해당 어린이집이 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음이 3.6%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는 연장보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9.2%로 2024년에 동일 항목의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보육연령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원 등 이용으로 인한 이유는 보육연령이 늘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발달에 좋지 않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휴직 중인 모의 경우 연장보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79.0%로 취업모(67.1%), 미취업(80.2%)에 비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표 VI-6-6〉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연장보육 필요없음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안 좋음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연장보육 미운영	학원 등 이용	기타	(수)
전체	73.8	21.7	1.3	3.6	5.5	3.7	(1,091)
보육연령							
0세	72.1	24.7	2.6	3.3	1.4	5.9	(168)
1세	71.2	27.4	0.5	3.8	1.1	4.6	(275)
2세	79.3	21.4	0.4	2.9	1.6	3.4	(291)
3세	77.8	17.4	1.5	4.6	6.2	3.1	(150)
4세	68.3	18.5	1.3	5.4	13.6	0.4	(109)
5세	70.7	15.2	3.4	2.2	19.3	4.4	(98)
지역규모							
대도시	73.3	22.7	0.8	4.3	4.0	3.5	(439)
중소도시	77.0	18.6	1.8	2.6	5.3	3.2	(474)
읍·면	65.5	29.0	1.0	5.1	10.2	5.7	(178)
모 취업 여부							
취업	67.1	27.0	2.0	4.6	5.7	4.6	(503)
휴직 중	79.0	16.6	2.6	2.0	4.3	4.1	(113)
미취업	80.2	17.7	0.3	2.4	5.6	2.8	(468)
부재 등	63.1	-	-	28.6	8.3	-	(7)
2021년	69.2	21.5	3.5	2.1	6.3	4.0	(1,07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1년 조사의 응답보기 중 '코로나19 감염우려' 비중이 11.5%로 나왔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해당 응답보기를 제외하여 2021년 조사결과 합은 89.5%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18. 〈표 VI-6-6〉.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0.2%로 2021년 조사의 20.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긴급 사유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비중은 보육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규모나 모 취업 여부와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21.7%), 중소도시(19.5%), 읍·면지역(18.4%)의 순으로 나타나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긴급 사유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6-7〉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0.2	79.8	100.0(1,091)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보육연령			
0세	11.4	88.6	100.0(168)
1세	18.8	81.2	100.0(275)
2세	20.2	79.8	100.0(291)
3세	23.9	76.1	100.0(150)
4세	27.0	73.0	100.0(109)
5세	21.1	78.9	100.0(98)
$\chi^2(df)$	11.8(5)*		
지역규모			
대도시	21.7	78.3	100.0(439)
중소도시	19.5	80.5	100.0(474)
읍·면	18.4	81.6	100.0(178)
$\chi^2(df)$	1.1(2)		
모 취업 여부			
취업	20.8	79.2	100.0(503)
휴직 중	17.1	82.9	100.0(113)
미취업	20.0	80.0	100.0(468)
부재 등	28.6	71.4	100.0(7)
$\chi^2(df)$	1.2(3)		
2021년	20.6	79.4	100.0(1,07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19. <표 VI-6-7>.

* $p < .05$.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은 8.0%로 2021년 조사의 9.3%에 비해 감소하였다.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은 보육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취업모의 경우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파악되었다.

〈표 VI-6-8〉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0	92.0	100.0(208)
보육연령			
0세	7.9	92.1	100.0(18)
1세	9.8	90.2	100.0(52)
2세	8.7	91.3	100.0(59)
3세	4.0	96.0	100.0(32)
4세	14.4	85.6	100.0(27)
5세	-	100.0	100.0(20)
$\chi^2(df)$	5.0(5)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10.3	89.7	100.0(90)
중소도시	7.5	92.5	100.0(81)
읍·면	2.3	97.7	100.0(37)
$\chi^2(df)$	2.0(2)		
모 취업 여부			
취업	10.9	89.1	100.0(101)
휴직 중	2.0	98.0	100.0(21)
미취업	6.1	93.9	100.0(85)
부재 등	-	100.0	100.0(1)
$\chi^2(df)$	3.7(3)		
2021년	9.3	90.7	100.0(20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19~320. <표 VI-6-8>.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 어린이집에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2021년 조사의 54.4%에 비해서도 다소 증가하였다. 이 외의 애로사항으로는 아이의 적응 어려움(19.0%), 담임교사의 하원지도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12.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제도에 따라 기본보육시간이 도입되고 현장에 안착되면서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연장보육을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소수인 경우 연장보육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VI-6-9>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담임교사의 하원지도 못받음	아이 적응 어려움	어린이집 눈치	신청방식 불편	기타	계(수)
전체	12.7	19.0	61.0	-	7.3	100.0(15)
보육연령						
0세	32.2	-	67.8	-	-	100.0(2)
1세	-	12.6	77.5	-	9.9	100.0(5)
2세	14.8	40.9	44.3	-	-	100.0(3)
3세	-	49.6	-	-	50.4	100.0(2)
4세	23.6	-	76.4	-	-	100.0(3)
5세	-	-	-	-	-	-
$\chi^2(df)$	11.3(12)					
지역규모						
대도시	16.1	14.8	63.6	-	5.5	100.0(10)

구분	담임교사의 하원지도 못받음	아이 적응 어려움	어린이집 눈치	신청방식 불편	기타	계(수)
중소도시 읍·면	- 100.0	26.2 -	63.4 -	- -	10.4 -	100.0(4) 100.0(1)
$\chi^2(df)$			7.4(6)			
모 취업 여부						
취업	16.0	16.6	63.0	-	4.5	100.0(9)
휴직 중	100.0	-	-	-	-	100.0(1)
미취업	-	25.3	61.2	-	13.6	100.0(5)
부재 등	-	-	-	-	-	-
$\chi^2(df)$			1.3(6)			
2021년	10.8	25.7	54.4	-	9.1	100.0(2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20. <표 VI-6-9>.

3) 연장보육 만족도

어린이집 연장보육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4.24이며, 매우 만족(41.3%), 다소 만족(43.1%), 보통(13.8%), 다소 불만족(1.8%) 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육연령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연장보육 만족도 평균값은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읍·면지역의 만족도 평균값은 4.46으로 대도시(4.30), 중소도시(4.14)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I-6-10〉 연장보육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평균	계(수)
전체	41.3	43.1	13.8	1.8	4.24	100.0(575)
보육연령						
0세	49.0	37.1	14.0	－	4.35	100.0(58)
1세	32.7	49.0	15.7	2.7	4.12	100.0(138)
2세	40.2	44.4	12.8	2.6	4.22	100.0(163)
3세	50.3	36.8	11.5	1.4	4.36	100.0(91)
4세	44.2	43.2	12.6	－	4.32	100.0(60)
5세	40.5	41.6	15.8	2.0	4.21	100.0(65)
$\chi^2(df)/F$			12.5(15)		1.6	
지역규모						
대도시	44.5	43.5	9.9	2.1	4.30	100.0(203)
중소도시	35.2	45.4	17.2	2.1	4.14	100.0(279)
읍·면	56.1	34.2	9.7	－	4.46	100.0(93)
$\chi^2(df)/F$			16.3(6)*		7.2**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평균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41.9	41.8	14.3	1.9	4.24	100.0(448)
휴직 중	41.8	41.6	11.3	5.3	4.20	100.0(32)
미취업	39.2	48.3	12.6	-	4.27	100.0(88)
부재 등	20.4	79.6	-	-	4.20	100.0(7)
$\chi^2(df)/F$	10.8(9)				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매우 불만족은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4) 기본보육 만족도

어린이집 기본보육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4.28이며 매우 만족(39.1%), 다소 만족(50.7%), 보통(9.9%), 다소 불만족(0.4%)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연령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기본보육 만족도 평균값은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읍·면지역의 만족도 평균값은 4.37로 대도시(4.33), 중소도시(4.22)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I-6-11〉 기본보육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평균	계(수)
전체	39.1	50.7	9.9	0.4	4.28	100.0(1,666)
보육연령						
0세	43.9	47.5	8.7	-	4.35	100.0(226)
1세	35.5	53.7	10.4	0.4	4.24	100.0(413)
2세	37.5	52.8	9.7	-	4.28	100.0(454)
3세	38.3	49.8	11.3	0.5	4.26	100.0(241)
4세	44.5	45.5	8.4	1.6	4.33	100.0(169)
5세	41.0	49.1	9.9	-	4.31	100.0(163)
$\chi^2(df)/F$	19.3(15)				1.1	
지역규모						
대도시	42.1	49.3	8.6	0.0	4.33	100.0(642)
중소도시	35.2	52.3	12.0	0.6	4.22	100.0(753)
읍·면	44.2	49.0	6.3	0.5	4.37	100.0(271)
$\chi^2(df)/F$	18.3(6)**				7.8**	
모 취업 여부						
취업	39.6	49.5	10.8	0.2	4.28	100.0(951)
휴직 중	43.3	50.0	3.6	3.1	4.34	100.0(145)
미취업	37.1	52.9	9.9	0.0	4.27	100.0(556)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평균	계(수)
부채 등	37.9	51.8	10.3	-	4.28	100.0(14)
$\chi^2(df)/F$	35.3(9)**				0.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매우 불만족은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나.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았다. 야간 연장 보육과 휴일보육은 월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 1.7%, 1.5%로 야간 12시간 보육(0.6%), 24시간 보육(0.5%)보다 이용하는 빈도는 더 높았다. 야간 연장 보육은 주1~2번 이용하는 비중도 1.1%로 다른 그 밖의 연장형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의 활용은 소폭 늘긴 했으나, 야간12시간보육, 휴일보육 활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표 VI-6-12〉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이용 빈도

단위: %, (명)

구분	없음	월 1~2회	월 3~4회	주 1~2번	주 3회 이상	계(수)
2024년						
야간연장보육	96.1	1.7	0.1	1.1	0.9	100.0(1,666)
야간12시간보육	97.6	0.6	0.6	0.2	1.0	100.0(1,666)
24시간보육	98.7	0.5	0.1	0.1	0.5	100.0(1,666)
휴일보육	97.6	1.5	0.1	0.4	0.3	100.0(1,666)
2021년						
야간연장보육	97.1	1.0	0.4	0.6	0.8	100.0(3,471)
야간12시간보육	97.9	0.7	0.2	0.3	0.8	100.0(3,471)
24시간보육	99.5	0.3	0.0	0.1	0.0	100.0(3,471)
휴일보육	97.6	1.6	0.4	0.2	0.2	100.0(3,47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21. 〈표 VI-6-10〉.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평일(94.8%)이 토요일(10.5%)보다 높았다. 2021년 조사에서 토요일 야간연장보육 이용률은 11.8%로 나타나 2024년 조사에서 토요일 야간연장보육 이용률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 특성별 야간연장보육 이용

요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6-13〉 야간연장보육 주로 이용하는 요일(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평일	토요일	(수)
전체	94.8	10.5	(64)
영유아구분			
영아	90.7	18.6	(36)
유아	100.0	-	(28)
보육연령			
0세	100.0	-	(6)
1세	76.4	34.9	(15)
2세	100.0	10.5	(15)
3세	100.0	-	(11)
4세	100.0	-	(7)
5세	100.0	-	(10)
지역규모			
대도시	91.5	8.5	(27)
중소도시	96.5	12.7	(32)
읍·면	100.0	-	(5)
모 취업 여부			
취업	95.2	4.8	(43)
휴직 중	100.0	25.7	(5)
미취업	91.1	21.0	(15)
부재 등	100.0	-	(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4.4	5.6	(17)
사회복지법인	100.0	-	(3)
법인·단체등	-	-	-
민간	100.0	6.5	(21)
가정	90.7	22.2	(11)
직장	85.7	14.3	(12)
협동	-	-	-
2021년	88.2	11.8	100.0(8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22. 〈표 VI-6-11〉.

* $p < .05$.

야간연장보육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의 경우 19시 31분에 시작하여 20시 33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요일의 경우 16시 1분에 시작하여 17시 38분에 종료되었다. 야간연장보육의 대략적인 이용 시간은 평일(1시간 2분), 토요일(1시 37분)으

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시간이 길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해당 문항에 응답자는 6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6-14〉 야간연장보육 주로 이용하는 시간

단위: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					
평일				토요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
19시 31분	20시 33분	(60)	16시 1분	17시 38분	(6)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야간 연장 보육(3.9%), 야간 12시간 보육(2.1%), 휴일보육(1.8%), 24시간 보육(1.0%) 순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93.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야간 연장 보육 필요에 따른 빈도는 한 달에 1~2번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1년에 1~2번도 5.9%로 상시 운영 필요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6-15〉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야간연장보육	3.9	4.1	6.0	5.9	80.1	100.0(1,666)
야간12시간보육	2.1	1.3	2.6	3.7	90.2	100.0(1,666)
24시간보육	1.0	0.8	1.0	3.8	93.4	100.0(1,666)
휴일보육	1.8	1.3	3.0	6.8	87.2	100.0(1,66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제 특성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야간연장보육에서 5세의 경우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6%로 가장 높았고 1세의 경우 한 달에 1~2번이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휴일 보육의 경우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세에서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서 야간 연장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모가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가 취업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밖의 연장

형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이 필요없다는 응답비중이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I-6-16〉 제 특성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계(수)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1주 한달 1년 에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전체	1.0	1.0	1.5	1.5	20.0	0.5	0.3	0.7	0.9	22.6	0.2	0.2	0.2	0.9	23.4	0.4	0.3	0.7	1.7	21.8	100.0 (1,666)
영유아구분																					
영아	0.9	1.1	1.6	1.5	19.8	0.4	0.4	0.6	1.2	22.4	0.2	0.3	0.3	1.2	23.1	0.3	0.4	0.9	2.1	21.4	100.0 (1,093)
유아	1.1	0.8	1.3	1.4	20.5	0.7	0.3	0.7	0.5	22.8	0.4	0.1	0.2	0.5	23.8	0.7	0.3	0.5	1.1	22.5	100.0 (573)
$\chi^2(df)$	4.1(4)					13.5(4)**					13.1(4)*					19.0(4)***					
보육연령																					
0세	0.9	1.2	0.9	0.8	21.1	0.3	0.3	0.7	0.8	23.0	0.3	0.3	0.5	1.2	22.7	0.6	0.5	1.3	1.9	20.7	100.0 (226)
1세	0.9	1.2	2.4	1.2	19.4	0.6	0.2	0.8	1.4	22.1	0.2	0.1	0.3	1.3	23.1	0.4	0.2	1.1	2.0	21.3	100.0 (413)
2세	1.0	1.1	1.2	2.2	19.6	0.3	0.5	0.4	1.3	22.5	0.0	0.3	0.2	1.1	23.3	0.0	0.5	0.6	2.2	21.7	100.0 (454)
3세	1.2	1.0	1.0	1.5	20.3	0.8	0.1	0.5	0.9	22.7	0.2	-	0.4	0.6	23.8	0.7	0.1	1.1	1.7	21.5	100.0 (241)
4세	0.3	0.7	1.8	1.3	20.9	0.2	0.1	1.4	0.1	23.2	0.0	0.1	-	0.6	24.3	0.1	0.4	0.2	0.8	23.6	100.0 (169)
5세	1.6	0.8	1.1	1.3	20.2	1.2	0.6	0.3	0.4	22.5	0.9	0.3	0.0	0.4	23.4	1.2	0.4	0.1	0.6	22.7	100.0 (163)
$\chi^2(df)$	34.5(20)*					44.3(20)**					37.4(20)*					57.9(20)***					
지역규모																					
대도시	0.7	1.1	1.6	1.7	19.9	0.5	0.4	0.6	1.0	22.5	0.1	0.2	0.2	0.9	23.6	0.3	0.3	0.8	2.0	21.6	100.0 (642)
중소도시	1.2	1.0	1.5	1.0	20.3	0.6	0.3	0.8	0.9	22.5	0.2	0.2	0.3	1.0	23.3	0.5	0.3	0.6	1.6	22.1	100.0 (753)
읍·면	0.9	1.1	1.1	2.6	19.3	0.5	0.3	0.4	0.9	23.0	0.8	0.3	0.1	0.8	23.0	0.7	0.5	1.0	1.5	21.3	100.0 (271)
$\chi^2(df)$	19.1(8)*					2.9(8)					18.5(8)*					9.1(8)					
모 취업 여부																					
취업	1.1	1.3	1.6	1.6	19.4	0.6	0.3	0.7	1.0	22.4	0.3	0.3	0.3	1.2	23.0	0.5	0.4	0.7	1.9	21.5	100.0 (951)
휴직 중	1.9	1.4	0.8	0.7	20.2	1.0	0.3	0.7	0.6	22.4	0.8	-	-	1.1	23.1	1.0	-	0.8	2.0	21.2	100.0 (145)
미취업	0.5	0.5	1.5	1.5	21.1	0.4	0.2	0.5	0.9	23.0	0.1	0.1	0.3	0.6	24.0	0.2	0.2	0.8	1.3	22.4	100.0 (556)

구분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계(수)
	상시 1~2 번	일 1~2 번	한달 1~2 번	1년 에 필요 없음	1년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일 1~2 번	한달 1~2 번	1년 에 필요 없음	1년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일 1~2 번	한달 1~2 번	1년 에 필요 없음	1년 필요 없음	상시 1~2 번	일 1~2 번	한달 1~2 번	1년 에 필요 없음	1년 필요 없음	
부재 등	1.9	1.2	0.9	0.8	20.2	-	3.1	-	-	21.9	-	-	-	-	25.0	-	1.2	0.8	-	22.9	100.0 (14)
$\chi^2(df)$	27.9(12)**					22.6(12)*					26.2(12)*					19.2(1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2	1.3	0.3	1.3	21.0	-	0.7	0.3	0.6	23.4	0.8	-	0.3	0.6	23.3	0.8	-	0.8	0.6	22.8	100.0 (81)
300~349만원	1.0	0.7	1.8	1.8	19.7	1.5	-	0.3	1.3	22.0	0.4	-	0.8	0.4	23.4	1.1	-	1.1	1.4	21.4	100.0 (101)
350~399만원	0.5	-	1.5	1.4	21.5	0.9	-	0.3	0.9	22.9	-	-	0.3	0.7	24.0	0.3	0.2	0.9	1.2	22.4	100.0 (98)
400~499만원	0.9	1.1	0.7	1.0	21.3	0.1	0.4	0.5	0.6	23.3	0.3	0.2	0.1	0.5	23.9	0.2	0.2	1.0	0.8	22.7	100.0 (289)
500~599만원	1.2	1.1	1.4	1.3	20.1	0.7	0.2	0.5	1.1	22.6	0.4	0.3	0.1	0.8	23.4	0.4	0.5	0.6	2.0	21.4	100.0 (332)
600~699만원	1.1	1.1	1.5	1.5	19.7	0.4	0.1	0.5	0.8	23.2	0.2	0.1	0.1	1.3	23.3	0.3	0.2	0.8	2.2	21.4	100.0 (248)
700만원 이상	0.7	1.1	2.1	1.9	19.2	0.5	0.5	1.0	1.1	22.0	0.1	0.2	0.4	1.4	22.8	0.3	0.5	0.6	2.1	21.6	100.0 (493)
모름/무응답	3.2	0.3	2.5	1.0	18.0	3.2	-	2.5	1.0	18.3	-	-	-	-	25.0	3.2	-	-	0.7	21.1	100.0 (24)
$\chi^2(df)$	34.9(28)					57.7(28)***					37.4(28)					52.1(28)**					
2021년	2.4	3.0	2.9	2.5	89.2	1.6	2.0	2.1	1.9	92.5	0.5	0.6	1.1	1.6	96.1	1.0	0.9	3.0	3.0	92.1	100.0 (3,47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24~326. <표 VI-6-13~14>.

* $p < .05$, ** $p < .01$, *** $p < .001$.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의 5점 척도 기준의 만족도 평균값은 야간연장보육(4.29점), 야간12시간보육(3.78점), 휴일보육(3.49점), 24시간보육(3.1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4시간보육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3.4%, 보통(68.3%)로 높게 나타났으나, 관측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6-17〉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수)	평균
야간연장보육	47.6	35.6	15.0	1.8	100.0(64)	4.29
야간2시간보육	27.8	22.7	49.5	-	100.0(20)	3.78
24시간보육	14.5	3.8	68.3	13.4	100.0(13)	3.19
휴일보육	13.8	21.6	64.6	-	100.0(31)	3.4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매우 불만족은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긴급 상황 시 자녀 돌봄 기관 또는 인력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부모'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부모로 응답한 비중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75.5%, 아이가 아플 때는 80.3%로 나타났으며 '부모' 이외에는 혈연관계의 사람이 긴급 상황 시(23.6%), 아이가 아플 때(19.0%)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비혈연'이나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은 1% 이하의 낮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영유아 구분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혈연관계인 경우 영아(24.9%), 유아(21.5%)로 영아의 경우가 높았다. 보육연령에 따라서도 긴급한 상황 시에 부모나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3세 이상부터는 비혈연,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는 비중도 다소 늘었다. 한편, 모가 취업 중인 경우 부모가 아닌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긴급상황 발생 시(34.2%), 아이가 아플 때(27.7%)로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 모보다 현격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모가 부재하는 가정에서도 부모 외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긴급상황 발생시(61.9%), 아이가 아플 시(54.3%)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아픈 경우에 타인보다는 '부모' 혹은 '조부모 및 친인척'의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부모 및 친인척'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VI-6-18〉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 (명)

구분	긴급 시					아플 때					계(수)
	부모	혈연	비 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부모	혈연	비 혈연	시간제 보육	아이 돌보미	
전체	75.5	23.6	0.4	0.1	0.3	80.3	19.0	0.2	0.3	0.2	100.0(1,666)
영유아구분											
영아	74.7	24.9	-	-	0.4	79.2	20.3	-	0.2	0.3	100.0(1,093)
유아	76.8	21.5	1.2	0.3	0.2	82.1	17.0	0.5	0.3	0.1	100.0(573)
$\chi^2(df)$	17.4(4)**					8.0(4)					
보육연령											
0세	77.8	21.0	-	-	1.2	84.5	14.2	-	0.5	0.8	100.0(226)
1세	74.8	25.2	-	-	-	79.1	20.9	-	-	-	100.0(413)
2세	73.2	26.4	-	-	0.3	77.0	22.4	-	0.3	0.3	100.0(454)
3세	71.2	26.0	2.2	0.3	0.3	80.5	18.5	0.3	0.6	-	100.0(241)
4세	82.0	16.4	1.1	0.5	-	82.7	16.2	1.1	-	-	100.0(169)
5세	78.5	21.0	-	0.2	0.3	83.5	16.0	-	0.2	0.3	100.0(163)
$\chi^2(df)$	43.4(20)**					28.2(20)					
지역규모											
대도시	73.5	25.7	0.4	0.2	0.2	78.5	20.8	0.3	-	0.4	100.0(642)
중소도시	77.4	21.6	0.6	0.1	0.3	80.6	18.7	0.2	0.5	-	100.0(753)
읍·면	74.3	25.0	-	0.3	0.4	84.0	15.6	-	-	0.4	100.0(271)
$\chi^2(df)$	6.9(8)					11.6(8)					
모 취업 여부											
취업	64.8	34.2	0.5	0.1	0.4	71.4	27.7	0.2	0.4	0.3	100.0(951)
휴직 중	86.8	13.2	-	-	-	88.3	11.7	-	-	-	100.0(145)
미취업	92.3	6.7	0.5	0.3	0.3	95.0	4.6	0.2	0.1	0.1	100.0(556)
부재 등	38.1	61.9	-	-	-	45.7	54.3	-	-	-	100.0(14)
$\chi^2(df)$	171.7(12)***					141.7(1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7.3	10.5	-	1.1	1.0	92.5	6.4	1.1	-	-	100.0(81)
300~349만원	81.0	19.0	-	-	-	83.8	16.2	-	-	-	100.0(101)
350~399만원	88.9	11.1	-	-	-	94.3	5.7	-	-	-	100.0(98)
400~499만원	85.7	14.0	-	-	0.4	89.9	9.8	-	-	0.4	100.0(289)
500~599만원	75.0	23.4	0.8	-	0.8	80.6	18.8	-	0.4	0.2	100.0(332)
600~699만원	72.0	27.4	0.4	-	0.3	77.6	22.1	-	-	0.3	100.0(248)
700만원 이상	65.4	33.8	0.7	0.1	-	70.3	28.7	0.4	0.5	0.1	100.0(493)
모름/무응답	94.4	4.0	-	1.6	-	94.4	4.0	-	1.6	-	100.0(24)
$\chi^2(df)$	103.7(28)**					93.3(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기타는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이 절에서는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이용 시간,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이용만족도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후 6~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일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아 자녀의 시간제보육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5.4%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대상 영유아 중 시간제보육을 ‘매일’ 이용하는다는 응답은 1.0%, ‘1주일에 2~3번’은 0.6%, ‘1주일에 1번’은 0.3%, ‘한 달에 1~2번’은 1.5%, ‘1년에 1~2번 이용한다’는 1.2%이며,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건당 평균 126.9분으로 약 2시간 정도였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자가 매우 적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나, 건당 이용시간은 0세 영아가 141.2시간으로 가장 길고, 읍·면지역이 76.1분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짧고, 취업모인 경우 이용시간이 153.3분으로 휴직 중인 모나 미취업모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표 VI-7-1〉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주기 및 이용 건당 이용 시간

단위: %, 분, (명)

구분	이용 주기							이용 건당 이용 시간		
	매일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이용경험 없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계(수)
전체	1.0	0.6	0.3	1.5	1.2	95.4	100.0(1,091)	126.9	110.0	(53)
영유아구분										
영아	1.0	0.6	0.3	1.5	1.2	95.4	100.0(1,091)	126.9	110.0	(53)
보육연령										
0세	0.9	2.2	0.9	0.4	-	95.6	100.0(224)	141.2	104.5	(13)
1세	0.7	0.5	0.1	2.8	1.8	94.2	100.0(413)	120.4	84.8	(24)
2세	1.4	-	0.3	0.6	1.1	96.7	100.0(454)	129.7	152.9	(16)
지역규모										
대도시	1.3	0.7	0.3	1.0	2.1	94.6	100.0(447)	133.9	135.1	(28)
중소도시	0.8	0.3	0.1	1.9	0.3	96.6	100.0(468)	144.6	92.2	(17)
읍·면	1.0	1.1	1.1	1.1	1.6	94.1	100.0(176)	76.1	45.4	(8)
모 취업 여부										
취업	1.7	0.0	0.2	0.8	1.2	96.1	100.0(603)	153.3	139.5	(27)
휴직 중	0.5	0.4	2.2	1.0	-	95.9	100.0(110)	73.1	51.7	(6)
미취업	-	1.6	-	2.7	1.5	94.2	100.0(376)	107.9	67.8	(20)
부재 등	-	-	-	-	-	100.0	100.0(2)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아, 3~5세는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51.5%로 가장 많았고, ‘도보’는 41.3%, ‘대중교통’은 3.6%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 시 교통수단별 평균 소요시간은 ‘대중교통’ 이용이 23.7분, ‘자가용’이 10.2분, ‘도보’는 7.6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시간이 많이 걸림을 알 수 있었다. 교통수단별 소요 시간은 영유아 연령,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보육 기관이 이용을 원하는 부모와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024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이 확대되어 향후 시간제보육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7-2〉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단위: %, (명), 점

구분	교통수단 (중복응답)				방문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분)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수)
전체	41.3	3.6	51.5	6.0	7.6	23.7	10.2	12.7	(53)
영유아구분									
영아	41.3	3.6	51.5	6.0	7.6	23.7	10.2	12.7	(53)
<i>t</i>					-	-	-	-	-
보육연령									
0세	36.2	4.7	55.4	9.3	7.1	3.0	7.9	20.0	(13)
1세	22.6	5.2	69.4	5.5	6.0	30.0	11.3	5.0	(24)
2세	77.5	-	17.7	4.8	8.6	-	7.3	20.0	(16)
<i>F</i>					0.5	-	1	-	
지역규모									
대도시	43.0	7.6	43.1	9.4	7.4	23.7	7.9	10.0	(28)
중소도시	40.8	-	57.3	4.7	9.6	-	12.0	20.0	(17)
읍·면	38.3	-	61.7	-	4.2	-	11.1	-	(8)
<i>F</i>					1.4(a)	-	1.4	-	
모 취업 여부									
취업	52.9	-	47.1	-	8.8	-	9.5	-	(27)
휴직 중	26.7	9.3	64.0	-	7.6	3.0	4.6	-	(6)
미취업	31.2	6.4	54.0	14.1	5.3	30.0	12.4	12.7	(20)
<i>F</i>					1.1	-	2.6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아, 3~5세, 부재 등은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73.5%,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6.5%로 나타났다.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비율이 2015년 86.1%, 2018년 42.2%, 2021년 13.7%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2024년에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의 공급을 크게 확대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5점 기준에 평균 4.3점으로 2021년 3.9점에 비해 상당히 상승하였고, ‘만족비율(매우 만족+만족)’도 2021년 79.4%에서 2024년 88.9%로 높아졌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4.4점으로 2021년 4.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표 VI-7-3〉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시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도움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3.5	26.5	-	88.9	4.3	0.7	(53)	93.0	4.4	0.6	(53)
영유아구분											
영아	73.5	26.5	-	88.9	4.3	0.7	(53)	93.0	4.4	0.6	(53)
$\chi^2(df)/t$	-			-				-			
보육연령											
0세	65.1	34.9	-	100.0	4.5	0.5	(13)	95.3	4.3	0.6	(13)
1세	68.5	31.5	-	87.6	4.2	0.7	(24)	93.5	4.3	0.6	(24)
2세	87.2	12.8	-	84.7	4.2	0.7	(16)	91.0	4.6	0.7	(16)
$\chi^2(df)/F$	1.9(2)			0.7				1.0			
지역규모											
대도시	72.5	27.5	-	76.2	4.0	0.8	(28)	85.1	4.2	0.7	(28)
중소도시	89.9	10.1	-	100.0	4.4	0.5	(17)	100.0	4.6	0.5	(17)
읍·면	45.2	54.8	-	100.0	4.5	0.5	(8)	100.0	4.5	0.5	(8)
$\chi^2(df)/F$	5.7(2)			2.0				2.0			
모 취업 여부											
취업	86.4	13.6	-	84.3	4.3	0.8	(27)	96.4	4.5	0.6	(27)
휴직 중	36.4	63.6	-	100.0	4.7	0.5	(6)	90.7	4.2	0.7	(6)
미취업	66.4	33.6	-	92.0	4.1	0.5	(20)	89.7	4.3	0.7	(20)
$\chi^2(df)/F$	5.7(2)			1.1				0.5			
2021년	86.3	13.7	-	79.4	3.9	1.0	(30)	88.7	4.3	0.8	(30)
2018년	57.8	42.2	-	68.7	3.7	1.0	(43)	77.5	4.0	1.0	(43)
2015년	13.9	86.1	-	71.4	3.85	0.66	(9)	84.2	4.06	0.6	(9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유아, 3~5세, 부재 등은 응답이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30. 〈표 VI-7-3〉.

8.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가. 입소 대기 실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기 전 대기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5%였고, 대기 기간은 평균 7.2개월이었다. 먼저 대기경험을 영유아 여부별로 보면, 영아가 유아에 비해 입소 전 대기 경험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세와 1세가 각각 52.5%, 53.0%로 다소 높고, 2세 이상은 영유아의 대기경험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54.0%, 중소도시 48.8%, 읍·면지역 33.9%로 규모가 큰 지역의 영유아일수록 기관 입소 전 대기경험이 많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휴직 중인 경우가 58.5%로 대기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기 기간은 ‘5~10개월 미만’이 21.8%로 가장 많았고, ‘10~15개월 미만’ 19.4%, ‘3개월’ 17.3%, ‘1개월’ 13.8%, ‘2개월’ 11.9%, ‘15개월 이상’이 10.9%, ‘4개월’ 4.9% 순이었다.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7.2개월로 2021년 6.9개월에 비해 0.3개월 정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대기 기간은 4세가 8.8개월로 가장 길었고, 2세가 8.1개월, 1세 7.0개월, 3세 6.8개월, 5세 6.2개월, 0세가 6.1개월로 연령에 따른 대기 기간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 평균 대기 기간은 대도시 거주자는 7.0개월, 중소도시 거주자는 7.8개월, 읍·면지역 거주자는 5.5개월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부재’인 경우 대기 기간이 22.6개월로 모가 ‘취업’, ‘휴직 중’, ‘미취업’인 경우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 부재는 관측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입소 전 대기 경험자 중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입소대기 방식은 영아는 93.1%, 유아는 88.9%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 2세의 경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중이 94.6%로 가장 높았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비율은 2015년 68.4%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현재 거의 대부분 입소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신청방식, 대기 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대기경험		대기 신청방식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다	(수)	수기	관리 시스템	(수)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10 개월 미만	10~15 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전체	48.5	(1,666)	8.3	91.7	(733)	13.8	11.9	17.3	4.9	21.8	19.4	10.9	(748)	7.2
영유아구분														
영아	51.2	(1,088)	6.9	93.1	(514)	13.2	11.5	15.7	6.1	23.3	19.4	10.8	(516)	7.3
유아	44.1	(573)	11.1	88.9	(219)	15.0	12.7	20.3	2.5	19.1	19.4	11.0	(232)	7.2
$\chi^2(df)/t$	8.0(1)**		4.1(1)*								9.5(6)			0.0
보육연령														
0세	52.5	(226)	6.3	93.7	(110)	11.5	13.5	19.8	5.0	26.7	18.0	5.5	(110)	6.1
1세	53.0	(413)	8.5	91.5	(198)	14.2	10.4	13.7	7.1	23.9	20.8	9.8	(199)	7.0
2세	48.8	(454)	5.4	94.6	(206)	12.8	11.8	15.8	5.6	21.0	18.5	14.5	(207)	8.1
3세	45.4	(241)	7.1	92.9	(96)	13.6	14.2	19.1	3.2	22.1	19.3	8.6	(98)	6.8
4세	46.5	(169)	16.2	83.8	(65)	15.2	9.5	16.4	0.4	23.4	18.9	16.2	(74)	8.8
5세	40.3	(163)	11.4	88.6	(58)	16.7	14.1	26.2	3.7	10.3	20.2	8.7	(60)	6.2
$\chi^2(df)/F$	11.0(5)		11.2(5)*							33.4(30)				2.5*(a)
지역규모														
대도시	54.0	(642)	8.1	91.9	(323)	14.1	9.9	17.4	6.0	26.1	15.4	11.2	(330)	7.0
중소도시	48.8	(753)	9.6	90.4	(325)	11.4	12.9	17.4	4.0	19.3	23.4	11.7	(332)	7.8
읍·면	33.9	(271)	2.8	97.2	(85)	24.2	15.4	16.2	4.8	17.1	16.6	5.8	(86)	5.5
$\chi^2(df)/F$	28.7(2)***		4.8(2)							25.0(12)*				3.7*(a)
모 취업 여부														
취업	49.0	(951)	7.9	92.1	(426)	13.6	12.6	17.7	4.4	22.0	17.0	12.7	(434)	7.3
휴직 중	58.5	(145)	5.1	94.9	(81)	13.5	2.5	21.9	4.9	23.0	28.2	6.0	(82)	7.2
미취업	45.5	(556)	10.3	89.7	(221)	14.4	13.9	15.1	5.9	21.6	21.1	8.2	(227)	6.8
모 부재	33.7	(14)	-	100.0	(5)	10.1	12.2	14.3	-	-	12.7	50.8	(5)	22.6
$\chi^2(df)/F$	8.8(3)*		3.2(3)							28.4(18)				9.2*** (a)
2021년	44.7	(3,471)	6.1	93.9	(1,192)	18.2	9.6	16.0	5.3	23.1	18.3	9.4	(1,328)	6.9
2018년	33.5	(3,775)	14.6	85.4	(1,002)	17.6	13.1	14.2	4.4	22.3	15.3	13.1	(1,123)	7.6
2015년	27.7	(3,560)	31.6	68.4	(728)	23.0	12.7	13.2	4.4	22.6	12.5	11.5	(820)	7.0
2012년	22.6	(3,343)	-	-	-	20.8	15.3	11.2	7.0	22.2	14.9	8.7	(713)	6.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입소대기 신청방식에 구체적인 사이트명 제시

3) 2021년 무응답 비율은 0.1%임. 다른 연도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표에서 삭제함.

4)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332. 〈표 VI-8-1〉.

3) 2018년 이전자료: 이정원 외(2018). p. 370. 〈표 VI-9-1〉, p. 372 〈표 VI-9-2〉.

* $p < .05$, *** $p < .001$.

입소대기 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8.9%, 민간어린이집 24.0%, 가정어린이집 8.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2.2%, 사립유치원 2.0% 순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은 2021년 43.1%에서 2024년 58.9%로 크게 증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은 2021년 29.2%에서 2024년 24.0%로, 가정어린이집은 2021년 13.6%에서 2024년 8.5%로, 사립유치원은 2021년 6.0%에서 2024년 2.0%로 다소 크게 감소하였다.

〈표 VI-8-2〉 입소 대기신청 기관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법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58.9	2.2	1.4	-	24.0	8.5	0.4	2.2	0.3	2.0	0.1	100.0(748)
영유아구분												
영아	61.0	2.4	1.4	-	21.1	10.7	0.7	2.3	0.0	-	0.2	100.0(516)
유아	54.7	1.8	1.4	-	29.4	4.3	-	1.9	0.8	5.6	-	100.0(232)
보육연령												
0세	62.9	1.3	1.3	-	15.4	16.5	-	2.6	-	-	-	100.0(110)
1세	61.7	2.5	1.6	-	20.5	9.7	1.2	2.7	0.1	-	-	100.0(199)
2세	59.4	3.0	1.3	-	24.6	9.0	0.4	1.8	-	-	0.5	100.0(207)
3세	58.3	2.0	1.3	-	29.1	3.1	-	1.0	-	5.1	-	100.0(98)
4세	43.4	2.8	-	-	33.7	5.7	-	2.2	0.7	11.5	-	100.0(74)
5세	62.1	0.5	3.1	-	25.3	4.3	-	2.6	2.1	-	-	100.0(60)
지역규모												
대도시	63.0	1.3	1.2	-	21.7	7.7	0.3	2.8	0.3	1.8	-	100.0(330)
중소도시	54.8	3.0	1.0	-	26.7	9.6	0.7	1.3	0.2	2.5	0.3	100.0(332)
읍·면	61.6	2.2	4.4	-	20.7	5.9	-	3.8	1.3	-	-	100.0(86)
2021년	43.1	-	-	4.4	29.2	13.6	-	0.8	2.7	6.0	0.1	100.0(1,328)
2018년	43.9	-	-	2.1	25.1	13.2	-	1.8	4.6	6.9	11.9	100.0(1,131)
2015년	41.0	-	-	3.3	29.8	11.1	0.2	1.2	5.4	5.0	5.2	100.0(8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법인·단체등 2.4%, 2015년 법인단체등 2.9%가 있었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33. 〈표 VI-8-2〉.

나.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4.4%였으며, 5점 만점에 3.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 3.7점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에 그 이유로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5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기기간 단축'이 22.6%,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가 20.5%, '맞벌이자녀 입소거부 차단' 2.0% 순이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보다는 유아인

경우 더 높았고 영유아 연령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족도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정 및 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는 3.5점으로 만족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투명한 입소자 관리'는 유아 57.2%, 영아는 49.5%가 응답하였고,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는 영아(24.0%), 유아(14.3%)가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4세와 5세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에 60% 이상 응답한 반면, 0세의 경우는 43.5%만 응답하여 연령에 따라서도 입소관리 시스템 만족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은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64.6%인 반면, 중소도시는 47.5%로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어린이집은 '투명한 입소자 관리' 응답이 매우 높은 반면,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만족하는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표 VI-8-3〉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만족 이유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				이유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대기기간 단축	투명한 입소자 관리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기타	계(수)
전체	64.4	3.7	0.9	(679)	22.6	52.2	20.5	2.0	2.7	100.0(457)
영유아구분										
영아	61.4	3.7	0.9	(479)	20.6	49.5	24.0	1.7	4.2	100.0(309)
유아	70.6	3.9	0.8	(200)	26.2	57.2	14.3	2.4	-	100.0(148)
$\chi^2(df)/F$	-2.8**				14.6(4)**					
보육연령										
0세	65.5	3.8	1.0	(102)	17.0	43.5	23.8	-	15.6	100.0(68)
1세	60.9	3.6	0.9	(182)	17.7	52.5	25.3	2.6	1.9	100.0(122)
2세	59.8	3.7	0.8	(195)	25.6	49.4	22.6	1.7	0.7	100.0(119)
3세	72.7	3.9	0.8	(89)	28.4	49.5	16.5	5.5	-	100.0(65)
4세	71.7	3.9	0.8	(59)	18.9	64.9	16.3	-	-	100.0(47)
5세	66.7	3.8	0.9	(52)	29.9	61.0	9.1	-	-	100.0(36)
$\chi^2(df)/F$	2.1(a)				68.6(20)***					
지역규모										
대도시	69.8	3.8	0.9	(296)	15.7	54.1	25.1	2.5	2.6	100.0(208)
중소도시	60.8	3.7	0.9	(302)	29.4	47.5	18.4	1.9	2.9	100.0(197)
읍·면	59.8	3.7	0.8	(81)	22.1	64.6	10.7	-	2.6	100.0(52)
$\chi^2(df)/F$	0.3				18.0(8)*					

구분	만족도				이유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대기기간 단축	투명한 입소자 관리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기타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3.7	3.9	0.8	(290)	24.8	50.9	19.5	3.2	1.5
법인	63.8	3.7	1.0	(38)	7.5	89.7	2.8	-	-
법안단체등	64.8	3.7	0.8	(16)	13.7	71.2	15.1	-	-
민간	58.2	3.6	0.8	(226)	20.7	55.6	20.8	0.9	2.0
가정	50.1	3.5	0.9	(80)	23.7	28.4	35.0	-	13.0
직장	54.3	3.5	0.9	(29)	21.5	72.0	6.4	-	-
$\chi^2(df)/F$	5*** (a)				49.0(20)***				
2021년	64.7	3.7	0.8	(1,104)	18.8	54.5	25.1	0.2	1.3
2018년	80.0	2.9	0.6	(836)	16.4	46.2	32.2	2.0	3.2
2015년	81.6	2.9	0.6	(474)	15.2	55.4	26.3	2.5	0.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2018년은 만족도는 4점 만점이며, 2021년은 5점 만점임.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34~335. <표 VI-8-3>.

* $p < .05$, *** $p < .001$.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사항으로는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로 가장 많았고,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1.9%,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3.2%였다. 특히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이 41.3%이었는데, 문자로 입력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이나 앱 사용의 불편함’, ‘전화 안내 등 대기 순번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필요’, ‘정확한 현황(순번) 공개’ 등의 개선 의견이 있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대기 방식 자체에 대한 불만족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활용시 겪는 불편함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족이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도 조사에서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32.1%,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나타나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4년 결과에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 비율에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2021년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사항에 응답한 경우(불만족한 경우)의 관측치가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영유아구분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5%인데 반해, 유아는 68.4%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세와 5세의 경우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86.3%, 67.6%로 높은 데 반해, 1세, 2세는 각각 20.4%, 5.8%의 비율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는 ‘기타’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읍·면지역 거주자는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7%,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를 보였으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세 항목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단,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불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지 않아 제 특성별로 관측치가 매우 작은 상황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8-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단위: %,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기타	계(수)
전체	13.2	21.9	23.5	41.3	100.0(49)
영유아구분					
영아	15.1	10.5	26.4	48.0	100.0(39)
유아	5.5	68.4	11.7	14.4	100.0(10)
$\chi^2(df)$		17.1(3)***			
보육연령					
0세	24.8	-	34.4	40.8	100.0(13)
1세	3.8	20.4	17.4	58.5	100.0(14)
2세	23.7	5.8	32.7	37.8	100.0(12)
3세	9.8	86.3	3.9	-	100.0(5)
4세	-	-	-	100.0	100.0(2)
5세	-	67.6	32.4	-	100.0(3)
$\chi^2(df)$		36.2(15)**			
지역규모					
대도시	24.3	21.6	28.8	25.3	100.0(25)
중소도시	4.7	19.2	14.8	61.3	100.0(17)
읍·면	-	40.7	45.1	14.2	100.0(7)
$\chi^2(df)$		12.3(6)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기타	계(수)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2.2	19.9	33.5	24.4	100.0(18)
법인	-	10.3	69.9	19.8	100.0(4)
법인·단체등	-	-	100.0	-	100.0(1)
민간	9.5	41.5	7.4	41.5	100.0(16)
가정	6.4	-	29.5	64.1	100.0(8)
직장	29.1	-	-	70.9	100.0(2)
$\chi^2(df)$	26.2(15)*				
2021년	32.1	30.8	27.2	9.8	100.0(392)
2018년	28.3	27.7	35.5	8.4	100.0(166)
2015년	42.9	28.9	24.2	4.1	100.0(9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37. <표 VI-8-4>.

* $p < .05$, ** $p < .01$.

9.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가.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1) 제도 인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을 일컫는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제도에 대해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봤고 어떤 제도인지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해 명칭정도만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9%,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8.0%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분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인지 여부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봤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동일한 공보육 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비율이 49.8%로 절반 정도였고, ‘약간 다르다’가 45.2%, ‘전혀 다르다’가 5.0%를 보였다. 영유아구분이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동일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9-1〉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동일성 인식				
	들어봤고, 내용도 알	명칭만 들어봄	잘 모름	계(수)	$\chi^2(df)$	거의 비슷	약간 다름	전혀 다름	계(수)	$\chi^2(df)$
전체	22.1	39.9	38.0	100.0(1,494)		49.8	45.2	5.0	100.0(308)	
영유아구분										
영아	21.5	40.5	37.9	100.0(1,071)	1.3(2)	50.8	43.4	5.8	100.0(209)	1.7(2)
유아	23.9	37.9	38.2	100.0(423)		47.5	49.5	3.0	100.0(99)	
지역규모										
대도시	23.4	38.1	38.5	100.0(584)	2.0(4)	52.2	42.8	5.0	100.0(134)	2.2(4)
중소도시	21.7	41.4	36.9	100.0(665)		45.8	48.9	5.2	100.0(131)	
읍·면	20.5	39.3	40.2	100.0(245)		56.8	39.1	4.1	100.0(43)	
2021년	15.6	37.0	47.3	100.0(1,160)		-	-	-	-	-
2018년	26.5	37.3	36.1	100.0(1,400)		-	-	-	-	-
2015년	26.9	33.4	39.7	100.0(1,480)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24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동일성 인식 문항 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38-339. 〈표 VI-9-1〉.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봤고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42.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46.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는 비율은 30.9%,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2.6%로 나타났다.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다는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등에 대한 인지는 아직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외 영유아 구분과 지역규모에 따른 인지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9-2〉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관련 정보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받음				국공립과 보육료 동일함			
	잘 알고 있음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잘 알고 있음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전체	42.1	33.7	24.2	100.0(308)	46.5	30.9	22.6	100.0(308)

구분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받음				국공립과 보육료 동일함			
	잘 알고 있음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잘 알고 있음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영유아구분								
영아	41.8	33.9	24.2	100.0(209)	45.7	31.7	22.6	100.0(209)
유아	42.8	33.0	24.3	100.0(99)	48.6	28.7	22.7	100.0(99)
$\chi^2(df)$	0.0(2)				0.2(2)			
지역규모								
대도시	37.2	38.9	23.9	100.0(134)	42.1	36.0	21.9	100.0(134)
중소도시	49.2	27.8	23.1	100.0(131)	51.0	28.2	20.8	100.0(131)
읍·면	32.0	38.7	29.2	100.0(43)	44.3	25.0	30.7	100.0(43)
$\chi^2(df)$	7.3(4)				5.3(4)			
2021년	39.8	38.0	22.2	100.0(175)	43.6	33.7	22.6	100.0(175)
2018년	34.3	35.9	29.8	100.0(372)	35.6	34.0	30.4	100.0(372)
2015년	40.9	35.3	23.9	100.0(352)	40.6	33.5	25.9	100.0(35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40. <표 VI-9-2>.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에게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사하다(많이 유사 + 약간 유사)고 응답한 비율은 57.7%, 다르다(약간 다름 + 매우 다름)고 응답한 비율은 30.6%,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치로 과반 이상이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영유아구분이 나 지역규모에 따른 유사성 인식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9-3> 공공형(서울형 포함)어린이집의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유사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많이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잘 모름	계(수)
전체	19.4	38.3	26.1	4.5	11.8	100.0(308)
영유아구분						
영아	17.7	38.2	26.2	5.6	12.3	100.0(209)
유아	23.6	38.6	25.8	1.6	10.4	100.0(99)
$\chi^2(df)$	4.6(4)					
지역규모						
대도시	12.8	45.2	28.4	5.0	8.6	100.0(134)
중소도시	24.4	33.0	23.6	3.8	15.1	100.0(131)
읍·면	21.1	36.1	27.9	5.4	9.5	100.0(43)
$\chi^2(df)$	10.9(8)					

구분	많이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잘 모름	계(수)
2021년	21.9	37.1	20.0	5.7	15.2	100.0(175)
2018년	11.3	45.0	24.5	6.2	13.0	100.0(372)
2015년	9.7	48.1	25.8	7.1	9.3	100.0(35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24년에는 매우 유사를 많이 유사로 변경하여 질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40. <표 VI-9-3>.

2)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의 기관 선택 시 영향

자녀가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인 어린이집 여부가 해당 기관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려함'으로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려함+매우 그려함)이 73.6%에 달하여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가 기관 선택 시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선택 시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는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3.4점)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3.0점)에 선택영향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외 영유아구분, 연령별, 지역규모별 선택영향 응답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9-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의 영향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평균
전체	11.1	15.3	42.3	31.3	100.0(324)	2.9
영유아구분						
영아	10.7	16.5	46.0	26.8	100.0(201)	2.9
유아	11.6	13.8	37.4	37.2	100.0(123)	3.0
$\chi^2(df)$			5.2(3)			
보육연령						
0세	18.6	12.7	43.5	25.2	100.0(43)	2.8
1세	6.4	20.5	49.8	23.4	100.0(71)	2.9
2세	11.0	14.7	43.9	30.4	100.0(87)	2.9
3세	17.9	8.8	38.2	35.0	100.0(47)	2.9
4세	6.3	12.5	34.7	46.5	100.0(38)	3.2
5세	10.3	18.7	38.7	32.4	100.0(38)	2.9
$\chi^2(df)$			17.9(15)			
지역규모						
대도시	12.4	12.8	47.7	27.2	100.0(154)	2.9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함	매우 그렇함	계(수)	평균
중소도시	8.8	19.6	36.4	35.2	100.0(130)	3.0
읍·면	14.5	9.2	43.4	32.9	100.0(40)	2.9
$\chi^2(df)$	8.9(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1.5	10.6	41.2	36.7	100.0(220)	3.0
사회복지법인	29.6	7.5	36.9	26.0	100.0(10)	2.6
법인단체 등	17.1	-	82.9	-	100.0(6)	2.7
민간	7.3	32.9	44.9	14.9	100.0(57)	2.7
가정	11.9	31.3	36.9	19.9	100.0(23)	2.6
직장	-	-	63.0	37.0	100.0(8)	3.4
협동	-	-	-	-	-	-
$\chi^2(df)$	40.7(15)***					
2021년	5.0	20.1	33.8	41.1	100.0(300)	3.1
2018년	7.9	17.1	52.3	22.6	100.0(231)	2.9
2015년	7.5	14.7	59.9	17.9	100.0(164)	2.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3) 영향 정도 평균은 '매우 그렇함' 1점 ~ '전혀 그렇지 않음' 4점으로 평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렇함' 4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선택 시 영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41~342. <표 VI-9-4>.

*** $p < .001$.

나. 어린이집 정보공개

1)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info.childcare.go.kr)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인지정도, 이용경험,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정부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8.2%가 인지하고 있었고, 31.9%가 모르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42.1%가 모른다고 한 반면, 대도시 거주자는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29.1%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알고 있음/모름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 이용 경험을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37.4%는 포털 이용 경험이 없었고, 연간 1~3회 이용이 46.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55.3%, 2021년 62.3%였는데 반해, 2024년 조사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만족+매우 만

족)은 47.4%였고 평균 점수는 3.5점이었다.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3.7점, 이외 지역은 3.5점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표 VI-9-5〉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경험,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만족 정도		
	잘 알	대충 알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1주일 에 1회 이상	한 달에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없음	계 (수)	만족 한다는 비율	평균	(수)
전체	18.9	29.9	19.4	31.9	100.0(1,494)	0.7	4.9	10.2	46.7	37.4	100.0(1,011)	47.4	3.5	(618)
지역규모														
대도시	20.8	30.7	19.4	29.1	100.0(584)	0.2	5.2	10.4	48.8	35.4	100.0(408)	47.6	3.5	(264)
중소도시	19.7	29.4	20.0	30.9	100.0(665)	0.9	4.6	10.0	46.6	37.9	100.0(453)	45.2	3.5	(268)
읍·면	11.7	29.1	17.0	42.1	100.0(245)	1.7	5.3	10.4	40.8	41.8	100.0(150)	56.3	3.7	(86)
$\chi^2(df)/F$			16.8(6)*					5.5(8)				3.1*		
2021년	16.9	28.4	19.4	35.4	100.0(1,160)	0.9	2.9	5.0	28.9	62.3	100.0(1,160)	44.3	3.4	(413)
2018년	18.7	20.1	24.0	37.3	100.0(1,400)	1.4	5.7	8.3	29.3	55.3	100.0(872)	38.1	3.3	(399)
2015년	16.2	25.3	21.0	37.5	100.0(1,480)	-	-	-	-	-	-	37.8	3.3	(3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44. 〈표 VI-9-6〉.
* $p < .05$.

2)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 인지 및 경험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보조금 수령, 허위아동 등록, 운영기준 위반 등)을 공표하여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고, 조회해 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이 5.2%,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회해본 적은 없음’은 14.6%, ‘조회 경험 있음’은 80.2%로 조사되었다. 조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소도시 거주자는 83.4%, 읍·면지역 거주자는 71.4%,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비율이 중소도시 거주자는 2.6%, 읍·면지역 거주자는 10.1%로 지역규모에 따라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전혀 모름’이 32.7%, ‘조회 경험 있음’이 26.6%였던데 반해,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전혀 모름’이 5.2%, ‘조회 경험 있음’이 80.2%로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표 VI-9-6〉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단위: %, (명), 점

구분	조회 경험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조회 경험 없음	전혀 모름	계(수)
전체	80.2	14.6	5.2	100.0(618)
지역규모				
대도시	79.0	14.2	6.8	100.0(264)
중소도시	83.4	14.0	2.6	100.0(268)
읍·면	71.4	18.5	10.1	100.0(86)
$\chi^2(df)$		10.0(4)*		
2021년	26.6	40.7	32.7	100.0(413)
2018년	8.4	40.9	45.5	100.0(1,400)
2015년	22.3	44.8	32.9	100.0(3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조사에 무응답 5.2%이 있으나 표기하지 않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45. 〈표 VI-9-7〉.

* $p < .05$.

3) 어린이집 정보 조회 경험 및 도움 정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서 찾아본 경험과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먼저 조회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조사되었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40.4%)가 유아인 경우(34.1%)보다, 대도시 거주자(41.8%)가 읍·면지역 거주자(28.4%)보다 조회 경험비율이 더 높았다. 어린이집 정보 조회 경험비율은 2015년 22.9%, 2018년 25.3%, 2021년 31.7%, 2024년 38.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움 됨+매우 도움 됨)은 66.5%,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별로 도움 안 됨+전혀 도움 안 됨)은 7.8%로 대체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도움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8점으로 2018년(3.5점), 2021년(3.7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표 VI-9-7〉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찾아본 적 있음	찾아본 적 없음	잘 모름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평균(t/F)
전체	38.7	49.0	12.3	100.0(1,494)	22.7	43.8	25.7	6.3	1.5	100.0(561) 3.8

구분	이용 경험				도움 정도						평균 (t/f)
	찾아 본 적 있음	찾아본 적 없음	잘 모름	계(수)	매우 도움 됨	도움 됨	보통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계(수)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0.4	48.7	10.9	100.0(1,071)	22.8	43.0	26.5	6.3	1.4	100.0(417)	3.8
유아	34.1	49.7	16.2	100.0(423)	22.2	46.6	23.3	6.0	1.9	100.0(144)	3.8
$\chi^2(df)$	9.8(2)**										-0.2
자녀수											
1명	38.5	50.5	11.0	100.0(732)	21.8	45.1	27.0	4.3	1.8	100.0(275)	3.8
2명	38.9	46.4	14.7	100.0(624)	20.7	44.6	24.9	8.3	1.5	100.0(237)	3.7
3명 이상	39.5	50.4	10.1	100.0(138)	37.2	32.3	21.0	9.6	-	100.0(49)	4.0
$\chi^2(df)$	5.6(4)										1.2
모 연령											
29세 이하	28.7	56.7	14.6	100.0(94)	25.9	38.0	36.1	-	-	100.0(27)	3.9
30~34세	40.5	46.3	13.2	100.0(438)	27.3	34.3	29.5	6.8	2.1	100.0(170)	3.8
35~39세	38.4	51.7	9.9	100.0(569)	21.3	47.9	24.7	4.5	1.6	100.0(219)	3.8
40~44세	41.4	44.3	14.4	100.0(308)	18.3	49.1	21.3	9.9	1.4	100.0(120)	3.7
45세 이상	29.5	55.5	15.0	100.0(46)	21.7	25.9	38.5	14.0	-	100.0(11)	3.6
모름/무응답	35.9	49.1	15.0	100.0(39)	16.5	78.9	4.6	-	-	100.0(14)	4.1
$\chi^2(df)$	13.7(10)										0.8(a)
모 취업 여부											
취업	37.5	50.3	12.2	100.0(854)	19.6	45.5	27.4	6.3	1.2	100.0(316)	3.8
휴직 중	41.1	47.4	11.5	100.0(129)	17.5	44.8	26.1	8.6	3.0	100.0(53)	3.7
미취업	40.4	47.0	12.6	100.0(497)	29.6	40.4	22.6	5.6	1.8	100.0(187)	3.9
부재 등	31.1	54.1	14.9	100.0(14)	-	62.2	37.8	-	-	100.0(5)	3.6
$\chi^2(df)$	2.1(6)										1.6
지역규모											
대도시	41.8	45.3	12.9	100.0(584)	24.1	47.4	21.7	5.8	0.9	100.0(240)	3.9
중소도시	39.5	49.2	11.3	100.0(665)	20.4	41.6	27.9	7.8	2.3	100.0(245)	3.7
읍·면	28.4	57.6	14.0	100.0(245)	27.1	40.6	31.0	1.0	0.4	100.0(76)	3.9
$\chi^2(df)$	13.5(4)**										3.2(a)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만 이용	39.2	49.1	11.8	100.0(1,206)	22.4	44.6	25.2	6.2	1.7	100.0(461)	3.8
유치원만 이용	-	-	-	-	-	-	-	-	-	-	-
둘 다 이용	36.6	48.4	15.0	100.0(288)	23.9	39.8	28.9	6.5	0.9	100.0(100)	3.8
이용경험 없음	-	-	-	-	-	-	-	-	-	-	-
$\chi^2(df)$	2.0(2)										0
2021년	31.7	-	-	(1,160)	17.9	43.6	26.8	10.4	1.4	100.0(350)	3.7
2018년	25.3	-	-	(1,400)	9.9	50.0	25.1	13.2	1.8	100.0(357)	3.5
2015년	22.9	-	-	(1,745)	10.1	47.3	26.1	13.4	3.1	100.0(391)	3.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이용여부가 아닌 이용 경험으로 조사되었음.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46. <표 VI-9-8>.

* $p < .05$, ** $p < .01$.

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도움이 된 정보 요구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우선순위 3개), 교직원 관련 정보가 61.3%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평가등급 관련 정보 52.4%, 보육과정 관련 46.1%, 보육공간 현황 29.4%, 환경안전 관련 28.0%, 특별활동 관련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9-8〉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도움이 된 정보(1+2+3순위)

단위: %, (명)

구분	교직원 관련	특별 활동 관련	급식 관련	환경 안전 관련	보육 과정 관련	경비 관련	회계 관련	어린이집 평가 등급	보육 공간 현황	건물 현황	위반 내역	기타	(수)
전체	61.3	24.9	16.9	28.0	46.1	6.8	2.8	52.4	29.4	9.0	16.3	0.8	(52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9.8	24.8	18.3	30.0	46.6	4.9	2.7	51.5	30.3	9.2	17.0	1.0	(404)
유아	66.4	25.4	12.2	21.3	44.1	13.2	3.3	55.5	26.3	8.4	14.1	-	(121)
자녀수													
1명	67.1	21.9	12.5	26.8	45.5	6.9	3.1	51.8	34.9	8.0	15.2	1.3	(290)
2명	55.7	30.2	22.2	28.5	41.4	5.6	2.4	53.2	23.3	11.8	19.7	0.2	(193)
3명 이상	48.0	21.7	22.2	33.4	70.3	11.2	2.5	53.3	19.6	2.9	9.0	-	(43)
모 연령													
29세 이하	59.2	26.3	19.6	40.4	53.8	2.8	-	55.1	8.5	14.8	10.7	3.3	(24)
30~34세	60.8	24.6	18.8	27.8	43.4	7.9	5.4	47.2	29.5	7.8	21.7	1.6	(163)
35~39세	64.6	24.5	13.2	30.2	42.8	4.8	2.0	55.9	30.4	9.7	14.7	0.4	(205)
40~44세	60.9	28.0	18.0	22.4	52.0	9.9	0.5	52.7	32.5	9.3	9.6	-	(106)
45세 이상	26.0	18.4	18.8	38.2	69.1	-	-	58.6	31.6	11.8	27.5	-	(12)
모름/무응답	56.2	15.4	31.8	12.1	46.5	10.9	7.9	51.7	25.3	-	27.4	-	(16)
모 취업 여부													
취업	63.3	23.4	14.6	27.5	43.6	7.2	1.5	54.3	31.5	9.5	16.5	1.3	(293)
휴직 중	64.9	20.3	8.0	25.6	42.4	3.1	5.3	59.0	39.5	11.6	18.0	-	(51)
미취업	58.0	29.3	23.3	29.0	50.9	7.3	4.3	47.1	22.5	7.7	16.0	0.2	(178)
부재 등	19.2	-	13.7	51.6	62.2	-	-	71.3	52.1	-	-	-	(4)
지역규모													
대도시	61.8	25.4	13.1	20.2	42.9	8.7	2.8	55.3	35.2	10.1	16.2	1.8	(215)
중소도시	59.8	24.4	20.8	32.1	46.8	5.8	3.1	51.3	25.8	8.8	16.2	0.1	(250)
읍·면	65.9	25.6	14.3	38.8	54.1	4.5	1.8	47.1	23.7	5.9	17.3	-	(61)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만 이용	61.3	24.9	15.6	27.4	45.7	6.9	3.2	51.7	30.5	9.2	16.6	0.8	(444)
유치원만 이용	-	-	-	-	-	-	-	-	-	-	-	-	-
둘 다 이용	61.6	25.1	24.1	31.1	47.9	6.1	0.7	56.2	23.4	8.1	14.7	0.5	(81)
이용경험 없음	-	-	-	-	-	-	-	-	-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질문을 도움이 된 경우로 수정하고 '회계 관련', '어린이집 평가 등급', '보육공간 현황', '건물 현황', '위반내역' 보기 항목을 추가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어린이집 평가

1) 제도인지

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알고 있다는(잘 알고 있음+대충 알) 비율이 56.6%로,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7.6%였다. 평가인증에서 2019년 평가제로 변경된 이후 2021년 실태조사에서 평가제도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30.2%로 상당하였으나,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상당부분 부모들의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인지 여부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9-9〉 어린이집 평가제도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전체	17.9	38.7	25.8	17.6	100.0(1,494)
모 연령					
29세 이하	12.1	33.2	29.2	25.4	100.0(94)
30~34세	20.0	35.6	25.1	19.3	100.0(438)
35~39세	18.1	42.7	23.4	15.8	100.0(569)
40~44세	15.5	40.2	27.4	16.9	100.0(308)
45세 이상	22.9	33.6	36.0	7.4	100.0(46)
모름/무응답	16.9	24.8	35.1	23.3	100.0(39)
$\chi^2(df)$		23.8(15)			
지역규모					
대도시	15.0	38.1	27.6	19.3	100.0(584)
중소도시	20.3	40.1	23.3	16.3	100.0(665)
읍·면	18.0	35.9	29.0	17.1	100.0(245)
$\chi^2(df)$		10.6(6)			
모 취업 여부					
취업	17.0	40.5	23.3	19.1	100.0(854)
휴직 중	9.9	43.5	28.0	18.6	100.0(129)
미취업	22.3	33.8	29.7	14.3	100.0(497)
부재 등	4.4	53.9	15.3	26.4	100.0(14)
$\chi^2(df)$		26.2(9)**			
2021년	15.0	32.4	22.3	30.2	100.0(1,160)
2018년	29.9	35.7	18.3	16.1	100.0(1,40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응답자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충 알'에서 '어느 정도 알'으로 보기 문항 수정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50. 〈표 VI-9-13〉.

** $p < .01$.

2024년 7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되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서를 공표하는 방식으로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매우 도움 됨+어느 정도 도움 됨) 82.1%로 매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10〉 어린이집 평가제도 등급제 폐지 후 서술형 평가 결과서 공표 정도의 도움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 됨	어느 정도 도움 됨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계(수)
전체	13.0	69.1	15.9	1.9	100.0(1,494)
모 연령					
29세 이하	21.5	63.8	13.5	1.2	100.0(94)
30~34세	12.6	67.8	18.0	1.6	100.0(438)
35~39세	12.1	71.6	13.9	2.3	100.0(569)
40~44세	14.0	66.9	16.8	2.3	100.0(308)
45세 이상	15.5	71.3	11.8	1.4	100.0(46)
모름/무응답	3.0	73.4	23.7	-	100.0(39)
$\chi^2(df)$	18.2(15)				
지역규모					
대도시	13.7	65.6	18.3	2.5	100.0(584)
중소도시	12.4	71.5	14.4	1.7	100.0(665)
읍·면	13.3	70.4	14.9	1.4	100.0(245)
$\chi^2(df)$	6.9(6)				
모 취업 여부					
취업	11.8	70.3	15.9	1.9	100.0(854)
휴직 중	14.2	66.1	18.5	1.2	100.0(129)
미취업	14.6	67.9	15.3	2.2	100.0(497)
부재 등	15.0	74.3	10.7	-	100.0(14)
$\chi^2(df)$	4.4(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라. 어린이집 CCTV 설치

1)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열람범위가 확대된 점이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매우 도움 됨+어느 정도 도움 됨) 92.8%로 CCTV의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의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외 영유아 구분이나 모의 연령에 따른 응답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9-11〉 CCTV 의무화와 확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도움 됨	어느 정도 도움 됨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계(수)
전체	47.1	45.7	6.5	0.6	100.0(1,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6.3	46.8	6.5	0.4	100.0(1,071)
유아	49.6	42.5	6.7	1.2	100.0(423)
$\chi^2(df)$		3.3(3)			
지역규모					
대도시	51.1	42.5	5.8	0.7	100.0(584)
중소도시	42.2	49.6	7.5	0.7	100.0(665)
읍·면	52.9	41.4	5.5	0.3	100.0(245)
$\chi^2(df)$		13.0(6)*			
모연령					
29세 이하	56.1	35.4	7.5	0.9	100.0(94)
30~34세	43.9	47.7	7.9	0.5	100.0(438)
35~39세	48.6	45.6	5.0	0.8	100.0(569)
40~44세	45.6	46.3	7.5	0.6	100.0(308)
45세 이상	64.4	32.6	3.0	-	100.0(46)
모름/무응답	35.7	56.1	8.2	-	100.0(39)
$\chi^2(df)$		19.0(1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2)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요건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먼저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음’이 40.1%, ‘모름’이 59.9%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의 ‘알고 있음’ 비율이 각각 43.3%, 32.8%로 지역규모에 따라 열람 신청 방법 인지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3%가 열람 신청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CCTV 영상정보 열람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2018년(5.1%), 2021년(3.5%) 등 과거에 비해 최근 상승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의 연령이

30~34세, 45세 이상인 경우 열람 신청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9-12〉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여부 및 열람 경험

단위: %, (명)

구분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수)
전체	40.1	59.9	100.0(1,494)	8.3	91.7	(591)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8.9	61.1	100.0(1,071)	7.1	92.9	(415)
유아	43.3	56.7	100.0(423)	11.5	88.5	(176)
$\chi^2(df)$		2.4(1)			2.9(1)	
지역규모						
대도시	38.9	61.1	100.0(584)	10.2	89.8	(228)
중소도시	43.3	56.7	100.0(665)	5.9	94.1	(275)
읍·면	32.8	67.2	100.0(245)	12.9	87.1	(88)
$\chi^2(df)$		8.2(2)			5.1(2)	
모연령						
29세 이하	39.1	60.9	100.0(94)	5.9	94.1	(36)
30~34세	39.2	60.8	100.0(438)	11.3	88.7	(182)
35~39세	41.8	58.2	100.0(569)	6.2	93.8	(222)
40~44세	39.1	60.9	100.0(308)	7.6	92.4	(122)
45세 이상	43.5	56.5	100.0(46)	22.9	77.1	(17)
모름/무응답	31.1	68.9	100.0(39)	-	100.0	(12)
$\chi^2(df)$		2.4(5)			12.0(5)*	
2021년	30.7	69.3	100.0(1,160)	3.5	96.5	100.0(1,160)
2018년	43.9	56.1	100.0(1,753)	5.1	94.9	100.0(1,75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 (2021). p. 353. 〈표 VI-9-16〉.

* $p < .05$.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 열람 신청 사유를 질문한 결과, ‘안전사고 의심’이 63.2%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의심’은 22.6%, ‘단순 의심’은 14.2%였다. 모의 연령대에 따라 CCTV 열람 신청 사유에 차이가 있었고, 2021년과 비교하여 ‘안전사고 의심’은 다소 줄어든 반면, ‘단순 의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13〉 CCTV 열람 신청 사유

단위: %, 점, (명)

구분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의심	단순 의심	계(수)
전체	22.6	63.2	14.2	100.0(4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4	56.3	16.4	100.0(31)

구분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의심	단순 의심	계(수)
유아	15.2	74.1	10.7	100.0(18)
$\chi^2(df)$	1.5(2)			
지역규모				
대도시	31.0	55.5	13.6	100.0(23)
중소도시	10.6	70.3	19.1	100.0(17)
읍·면	26.2	68.0	5.8	100.0(9)
$\chi^2(df)$	2.5(4)			
모연령				
29세 이하	49.3	50.7	-	100.0(2)
30~34세	8.8	65.5	25.6	100.0(18)
35~39세	31.1	59.1	9.8	100.0(15)
40~44세	-	93.8	6.2	100.0(11)
45세 이상	85.8	14.2	-	100.0(3)
$\chi^2(df)$	17.6(8)*			
2021년	22.2	67.8	9.9	100.0(42)
2018년	32.5	46.9	20.6	100.0(4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54. <표 VI-9-17>.

* $p < .05$.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는 ‘즉시 열람함’이 34.2%, ‘신청 당일 열람함’이 30.1%,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함’이 17.4%, ‘신청후 10일 이후 열람함’이 4.7%였고, ‘열람을 거부당함’도 13.6%로 나타났다. 2021년 즉시 또는 신청당일 열람 비율이 69.4%에서 2024년에 64.3%로 다소 감소하였고, 열람을 거부당한 비율은 202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14> CCTV 열람 시기

단위: %, 점, (명)

구분	즉시 열람	신청 당일 열람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	열람 거부당함	계(수)
전체	34.2	30.1	17.4	4.7	13.6	100.0(4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1	39.0	17.2	-	6.6	100.0(31)
유아	29.7	16.3	17.6	12.0	24.3	100.0(18)
$\chi^2(df)$	8.6(4)					
지역규모						
대도시	23.2	34.2	26.0	-	16.5	100.0(23)
중소도시	45.6	32.7	6.8	1.8	13.1	100.0(17)
읍·면	38.2	15.2	17.5	21.7	7.4	100.0(9)
$\chi^2(df)$	14.3(8)					

구분	즉시 열람	신청 당일 열람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	열람 거부당함	계(수)
모연령						
29세 이하	50.7	-	49.3	-	-	100.0(2)
30~34세	41.5	19.6	22.0	10.2	6.7	100.0(18)
35~39세	12.4	41.1	20.8	2.2	23.5	100.0(15)
40~44세	54.1	27.6	3.2	-	15.1	100.0(11)
45세 이상	28.6	57.1	-	-	14.2	100.0(3)
$\chi^2(df)$	16.5(16)					
2021년	31.0	38.4	19.8	-	10.8	100.0(42)
2018년	42.9	36.4	-	14.6	6.1	100.0(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CCTV 열람이 거부된 사례는 6건으로, 사생활 침해 2건, 영상자료 훼손 1건, 신청사유 부적합 2건, 단순 거부 1건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54. <표 VI-9-17>.

10. 시사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 이용비용, 제공 서비스, 특별활동 이용 현황, 연장보육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 결과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자 비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유아 가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영아기 부모대리보호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점차 아동의 발달(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을 목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앞서 IV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기관 이용이 점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현상 또한 관측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중단은 보육연령, 어린이집 유형, 그리고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중단 사유로는 다른 기관으로 전환(45.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도 이러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시간 30분가량으로 오전 8:30~9:00에 등원하여 오후

15:00~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하원의 경우 대체로 17시 이전에 이뤄지는데, 이는 2021년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된 기본보육시간의 하원 시간에 맞춰진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희망하원 시간은 좀 더 늦은 시각대로, 영아나 취업모 등이 보다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중은 2021년에 비해 6.9%p 증가하였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33.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연장보육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연장보육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73.8%, 장시간 보육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21.7%로, 대부분 자발적 이유로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보육 미운영의 경우는 3.6%에 불과하여, 202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하였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은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이용비용 수준 자체가 낮아진 것과 연관된 결과로 풀이된다. 차액보육료 지원 및 5세 추가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4년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감소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부담이 완화된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금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비용 경감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등의 실시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보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팽팽한 사안으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비중과 사전 안내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보육연령,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0세아의 건강검진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출산 전후 기관 이용 시작 전에 가정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안내받아 실시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5세아의 경우에는 초등취학 이전 건강검진이 어린이집을 통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가정내 양육을 하는 유아가 건강검진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안내 및 제도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어린이집으로 제공받는 부모서비스(보육계획표, 가정통신문, 양방향 알림장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2021년 대비 만족도가 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과 부모 사이의 소통 채널이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제고된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일곱째,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보육실태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구성요소별로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원장, 생활지도, 순이었다. 반면 시설 설비 및 실내외환경, 주변 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부모참여 및 교육 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는 2018년과 2021년 4점 초반대로, 2024년 모든 구성 요소에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해마다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이 유형의 어린이집은 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건강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만족도 점수가 낮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용, 시설 설비 및 실내외 환경, 부모참여 및 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쾌적한 조건과 부모참여의 보장 등이 잘 이루어질 때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비해 만족도가 0.22점가량 높으나, 서울형을 제외한 다른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만족도 높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비용(0.48점 높음), 건강관리(0.4점 높음), 교육내용(0.37점 높음), 주변환경(0.32점 높음)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아홉째, 어린이집 개선 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교육내용 다양화’가 1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력 증원’(17.5%), ‘노후시설 정비’(14.3%)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도 ‘교육내용 다양화’가 33.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인력의 질 제고(24.6%)’, ‘인력 증원(24.2%)’ 순으로 응답되었다. 영유아 부모가 요구하는 어린이집 개선 사항의 상당 내용은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²⁸⁾의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보통합 원활한 추진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상당 부분 개선 효과를 가질

28) 교육부(2024.6).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담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와 수준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며, 시의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열 번째,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율이 낮기 때문에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 혈연 순으로, 시간제 보육이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즉,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우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서비스 활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 가구에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하면서도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열한 번째,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의 다양화와 이용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시간제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이용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이용만족도는 5점 기준에 평균 4.3점으로 2015년 3.85점, 2018년 3.7점, 2021년 3.9점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 비율이 매우 낮고 소요시간이 최대 30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제보육 기관이 이용을 원하는 부모와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 상대적으로 근접성이 좋은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을 향후에도 확대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열두 번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대기가 부모들에게 투명성과 대기기간 단축 등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여 안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은 48.5%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7.2개월이었고, 대기신청 경험이 있는 부모의 91.7%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64.4%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하였고, 특히 ‘투명한 입소자 관리’(52.2%), ‘대기기간 단축’(22.6%),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20.5%)에 순으로 만족하였다. 전반적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하거나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도 일부 있어 향후 입소관리시스템 개선 시 반영이 요구된다.

열세 번째,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는 62.0% 수준이며, 자녀가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기관 선택 시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가 73.6%에 달하여 그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다는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등에 대한 인지는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안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열네 번째,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의 경우는 68.2% 정도의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알고 있었고, 실제 이용한 비율은 62.6%, 만족도는 5점 척도로 3.5점이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움 됨+매우 도움 됨)은 66.5%로 다소 높았고, 교직원 관련정보, 어린이집 평가등급 관련정보, 보육과정 관련 정보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이 높아 향후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집평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56.6%였고, 2024년 7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되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서를 공표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82.1%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평가제 개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열여섯 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92.8%로 대다수였으나, CCTV 영상정보 열람경험이 2018년 5.1%, 2021년 3.5%에서 2024년 8.3%로 과거에 비해 최근 상승하였다. 즉, 부모들의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에 우려와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CCTV 열람 방식 등에 대한 인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40.1%)에 머물러 있으므로, CCTV 열람 절차에 대한 안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고무적인 지점은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관련 인식(공공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 평가 등)은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어, 그간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일정 정도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VII장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만 3~5세)의 기관 이용 특성, 이용비용, 제공 서비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유치원 이용 특성

가. 유형별 유치원 이용률

본 조사에 응답한 유치원 이용 아동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3세 26.6%, 4세 36.0%, 5세 37.4%로 5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 이전 조사 결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은 국·공립유치원은 30.4%, 사립유치원은 69.6%였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VII-1-1〉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2024년		2021년		2018년		2015년	
	비율	계(수)	비율	계(수)	비율	계(수)	비율	계(수)
전체	100.0	100.0(792)	100.0	100.0(1,041)	100.0	100.0(1,005)	100.0	100.0(742)
보육연령								
3세	26.6	100.0(234)	21.2	100.0(213)	24.7	100.0(271)	22.2	100.0(159)
4세	36.0	100.0(277)	38.0	100.0(386)	32.2	100.0(318)	37.0	100.0(294)
5세	37.4	100.0(281)	40.8	100.0(442)	43.0	100.0(416)	40.8	100.0(289)
유치원 유형								
국·공립	30.4	100.0(252)	29.6	100.0(339)	29.8	100.0(365)	24.9	100.0(240)
사립	69.6	100.0(540)	70.4	100.0(702)	70.2	100.0(640)	75.1	100.0(50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68~369. 〈표 VII-1-1〉.

나. 유치원 유형별 이용 아동 특성

유치원 이용 아동 가구의 특성을 모의 취업 여부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57.0%이며, 휴직 중은 7.2%, 미취업은 34.7%로, 취업모 가구 비율은 64.2%였다. 유아 연령별로 보면,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5세가 59.9%로 가장 높았고, 휴직 중인 비율은 3세가 9.4%, 미취업은 4세가 36.0%로 높게 나타났다. 휴직 중을 포함한 유아 어머니의 취업 비율은 2015년 41.4%, 2018년 50.4%, 2021년 55.2%, 2024년 64.2%로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중인 비율은 55.6%,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 취업 중인 비율은 57.6%였고,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가 미취업 중인 비율은 40.4%, 사립유치원은 32.3%로 국·공립유치원 재원 유아 어머니의 경우 미취업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듯 취업 중인 어머니들의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음은 사립유치원이 교육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하원 차량 운행, 방과후 과정 운영 등 맞벌이 가구의 요구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김은설 외, 2021: 369).

지역규모별로 유치원 이용특성을 살펴보면, 유치원 이용 유아의 44.2%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42.8%는 중소도시, 13.1%는 읍·면지역에 거주하였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중소도시가 46.8%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는 33.3%, 읍·면지역은 19.9% 순이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대도시가 48.9%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41.0%, 읍·면지역 10.1%로 나타났다.

〈표 VII-1-2〉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특성

단위: %, (명)

구분	해당 비율	모 취업 여부				지역규모			계(수)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00.0	57.0	7.2	34.7	1.1	44.2	42.8	13.1	100.0(792)
보육연령									
3세	26.6	55.2	9.4	34.6	0.8	47.5	42.1	10.4	100.0(234)
4세	36.0	55.2	8.3	36.0	0.4	43.9	40.8	15.3	100.0(277)
5세	37.4	59.9	4.6	33.6	1.9	42.0	45.1	12.8	100.0(281)
유치원 유형									
국·공립	30.4	55.6	2.5	40.4	1.5	33.3	46.8	19.9	100.0(252)
사립	69.6	57.6	9.2	32.3	0.9	48.9	41.0	10.1	100.0(540)

구분	해당 비율	모 취업 여부				지역규모			계(수)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2021년	100.0	46.8	8.4	43.9	1.0	41.9	42.4	15.7	100.0(1,041)
2018년	100.0	47.4	3.0	47.9	1.7	40.5	43.9	15.6	100.0(1,005)
2015년	100.0	39.0	2.4	57.7	-	38.0	44.7	17.3	100.0(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70. <표 VII-1-2>.

다. 유치원 이용 이유 및 선택 시 고려사항

1) 유치원 이용 이유

유치원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가 15.8%,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13.0%,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8.1%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연령별로 보면, 3세, 4세, 5세 모두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 이용 이유로는 3세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가, 4세와 5세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초등학교 연계, 초기 경험 등을 위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VII-1-3〉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52.9	61.7	42.2	57.3	47.1	43.5	52.3	40.4	32.3	54.3	47.5	38.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9.7	7.9	8.0	13.6	19.5	17.1	22.2	32.9	25.6	15.8	22.5	18.5
특기교육을 위하여	0.9	2.3	2.0	2.6	2.4	2.1	0.6	2.0	2.0	1.4	2.2	2.0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0.9	7.8	8.1	6.7	5.9	6.6	7.4	5.1	6.7	8.1	6.0	7.0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4.9	11.8	28.2	11.1	15.0	20.5	13.3	11.0	24.9	13.0	12.7	24.3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	0.7	1.0	1.5	0.6	0.9	0.3	1.2	0.7	0.7	0.9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4.5	4.6	5.7	3.3	5.4	4.6	1.7	4.0	2.9	3.0	4.7	4.1
비용 부담 적어서	1.9	2.4	5.2	2.3	2.7	4.8	1.4	2.5	4.4	1.8	2.6	4.7
기타	4.2	1.6	-	1.9	0.4	-	0.2	1.6	-	1.9	1.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4)	(213)	(271)	(277)	(386)	(318)	(281)	(442)	(416)	(792)	(1,041)	(1,00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71. <표 VII-1-3>.

유치원 이용 이유를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가 가장 많았으나 응답 비율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립유치원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응답 비율이 22.0%로, 사립유치원 13.0%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 재원 중 초등학교의 환경을 미리 접할 수 있고,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학교처럼 체감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김은설 외, 2021 : 37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가, 중소도시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가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가 29.5%로 대도시(15.2%), 중소도시(12.1%)보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치원 유형이나 지역규모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모의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13.2%로 미취업모의 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1-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6.7	57.6	56.0	54.2	48.8	51.3	72.3	55.3	56.8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22.0	13.0	15.2	12.1	29.5	14.8	14.9	18.1	-
특기교육을 위하여	0.7	1.8	1.9	1.2	0.4	1.4	-	1.9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0.5	7.0	5.6	11.6	4.8	13.2	-	0.7	32.9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0.2	14.2	14.1	12.6	10.2	13.2	3.1	15.0	-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2	0.5	-	1.6	-	1.2	-	-	-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4.5	2.4	4.2	2.7	0.5	0.9	6.5	5.6	10.3
비용 부담 적어서	2.5	1.6	1.2	2.9	0.7	1.3	1.1	2.9	-
기타	1.7	2.0	1.7	1.1	5.1	2.7	2.2	0.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1순위 고려사항 응답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프로그램’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집과의 거리’라는 응답이 23.8%, ‘주변의 평판’이 13.1%, ‘실내외 환경’ 6.7%, ‘국공립 여부’ 6.4%, ‘교사’ 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과거 실태조사에서도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변의 평판’이 상위에 있었고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1년 이전 조사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표 VII-1-5〉 연령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24년	'21년	'18년
원장	4.2	4.2	7.4	4.5	2.8	7.0	3.6	4.2	7.0	4.1	3.7	7.1
교사	5.8	7.8	7.6	3.3	7.9	7.6	6.2	10.3	7.0	5.0	8.9	7.3
운영시간	3.2	2.6	1.0	2.6	2.4	1.9	3.1	0.8	2.9	2.9	1.8	2.1
비용	2.0	2.9	4.2	0.7	6.1	4.9	3.2	3.9	4.8	2.0	4.5	4.7
프로그램	30.8	29.5	19.9	29.5	26.8	21.6	21.2	25.4	22.5	26.8	26.8	21.6
건강·영양	-	0.8	0.6	3.2	0.8	0.4	0.5	2.2	0.1	1.3	1.4	0.3
기관 학급 규모	0.9	-	0.7	0.9	0.9	1.8	3.0	0.5	2.1	1.7	0.5	1.7
실내외 환경	6.3	6.8	3.5	8.6	4.0	1.6	5.1	6.9	2.8	6.7	5.8	2.6
안전한 보호	1.6	0.7	1.0	0.3	0.8	0.6	0.4	1.1	0.9	0.7	0.9	0.8
집과의 거리	21.1	24.2	25.4	23.1	22.4	22.1	26.5	21.7	22.5	23.8	22.5	23.1
기관 시설·설비	1.0	1.6	4.0	0.8	1.1	2.6	2.2	0.9	3.6	1.4	1.2	3.4
국공립 여부	5.1	5.0	7.7	7.0	6.0	8.3	6.7	7.4	6.6	6.4	6.3	7.4
주변의 평판	13.4	10.0	14.3	12.4	15.1	14.0	13.5	11.0	12.8	13.1	12.3	13.6
주변환경	0.3	0.5	1.3	-	0.2	2.3	0.4	0.7	1.8	0.2	0.4	1.8
차량 운행 여부	0.5	-	-	0.4	0.4	0.8	1.1	0.5	0.3	0.7	0.3	0.4
특별활동	0.6	-	-	1.0	-	-	0.1	-	-	0.6	-	-
형제자매 자원 여부	1.5	2.7	0.5	1.4	1.3	-	2.4	1.6	0.7	1.8	1.7	0.4
기타	1.7	0.7	0.4	0.3	1.1	1.8	0.8	0.8	1.2	0.9	0.9	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73. 〈표 VII-1-5〉.

유치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에 따라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하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 이유로는 ‘집과의 거리’가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공립 여부’ 19.7%, ‘프로그램’ 16.2%, ‘실내외 환경’ 8.9%, ‘주

변의 평판' 8.7% 순이었다.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집과의 거리' 23.1%, '주변의 평판' 15.0%, '실내외 환경' 5.7%, '원장' 4.9%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자체를 선호하는 경우와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 등 유치원 선택 시 부모들의 선호가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는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국공립 여부'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 거주자는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주변의 평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국공립 여부'가 14.3%로 중소도시 6.7%, 대도시 3.8%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 휴직 중, 미취업모 모두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위의 평판' 순으로 동일하였다.

〈표 VII-1-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원장	2.3	4.9	4.5	4.1	2.6	3.3	0.7	6.2	-
교사	8.1	3.7	3.5	5.8	7.9	5.4	6.5	3.2	32.9
운영시간	2.6	3.1	2.9	3.2	2.3	4.4	0.6	1.1	-
비용	3.1	1.5	2.2	2.4	-	1.1	-	4.0	-
프로그램	16.2	31.4	30.6	22.3	28.2	24.0	37.1	28.9	30.8
건강·영양	0.3	1.8	2.0	1.0	-	1.9	-	0.7	-
기관 학급 규모	0.2	2.3	1.5	1.9	1.6	1.7	1.0	1.4	14.2
실내외 환경	8.9	5.7	6.7	6.6	6.8	7.3	0.6	7.1	-
안전한 보호	0.5	0.8	1.0	0.6	-	0.6	-	1.0	-
집과의 거리	25.7	23.1	21.3	26.3	24.5	23.2	31.9	24.0	-
기관 시설·설비	0.8	1.6	1.0	2.0	0.7	1.7	-	1.2	-
국공립 여부	19.7	0.6	3.8	6.7	14.3	5.8	1.6	8.5	-
주변의 평판	8.7	15.0	14.8	12.2	10.3	14.3	13.9	10.7	22.1
주변환경	0.1	0.3	0.2	0.3	-	0.3	-	0.1	-
차량 운행 여부	0.3	0.8	1.3	-	0.8	0.8	1.7	0.3	-
특별활동	-	0.8	0.4	0.9	-	0.4	-	1.0	-
형제자매 자원 여부	1.7	1.9	1.3	2.9	-	2.7	2.2	0.4	-
기타	0.7	0.9	1.1	0.9	-	1.1	2.2	0.3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유치원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위의 평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구간과 400만

원 이상 구간 사이에 유치원 선택 이유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응답한 비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600~699만원 가구(29.0%), 299만원 이하 가구(28.4%), 400~499만원 가구(28.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은 300~349만원 가구(41.7%), 600~699만원 가구(30.4%), 500~599만원 가구(24.2%)가 다른 소득수준의 가구보다 높았고, ‘주위의 평판’에 응답한 비율은 600~699만원 가구(18.1%), 700만원 이상 가구(14.7%)가 다소 높았다.

〈표 VII-1-7〉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299만원 이하	300~349 만원	350~399 만원	400~499 만원	500~599 만원	600~699 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원장	2.9	0.5	6.2	4.6	6.0	3.1	3.8	-
교사	20.4	1.7	13.2	3.0	7.2	1.7	3.2	-
운영시간	1.1	-	-	2.8	3.1	-	5.7	-
비용	6.9	3.9	9.2	1.6	1.6	1.1	0.6	-
프로그램	28.4	27.6	19.7	28.0	25.3	29.0	27.2	19.9
건강·영양	-	1.5	-	-	0.8	1.0	2.8	-
기관 학급 규모	-	8.0	1.5	1.7	-	1.7	1.9	-
실내외 환경	3.5	0.7	7.0	8.8	7.8	3.6	8.3	-
안전한 보호	-	-	4.0	1.2	-	1.3	0.3	-
집과의 거리	15.0	41.7	19.5	20.8	24.2	30.4	19.4	50.3
기관 시설·설비	-	3.2	-	2.4	3.4	0.3	0.4	-
국공립 여부	9.3	1.3	7.6	8.6	7.1	3.9	6.5	5.2
주위의 평판	11.3	9.7	12.0	12.3	8.2	18.1	14.7	20.5
주변환경	-	-	-	0.8	0.2	0.4	-	-
차량 운행 여부	-	-	-	-	0.6	-	1.7	-
특별활동	1.0	-	-	-	0.8	2.3	-	-
형제자매 재원 여부	-	-	-	3.3	3.3	1.1	1.4	4.1
기타	-	-	-	-	0.3	1.1	2.0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유치원 이용 시기 및 기간

1)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

유치원 이용 유아의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48.3개월이었고,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균 49.6개월,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47.7개월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48.0개월, 중소도시는 48.2개월, 읍·면지역은 49.2개월이었고, 모의 취업 여부 별로 자녀의 유치원 최초 이용시기를 보면, 취업모는 48.2개월, 휴직 중인 모는 47.8개월, 미취업모는 48.4개월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VII-1-8〉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9.6	11.0	(252)	47.7	9.2	(540)	48.3	9.8	(792)
지역규모									
대도시	49.2	8.9	(86)	47.7	9.2	(301)	48.0	9.1	(387)
중소도시	49.7	10.7	(118)	47.5	9.5	(187)	48.2	10.0	(305)
읍·면	49.9	14.4	(48)	48.6	8.1	(52)	49.2	11.4	(100)
<i>F</i>	0.1			0.3			0.6		
모 취업 여부									
취업	49.7	11.1	(139)	47.5	9.5	(304)	48.2	10.0	(443)
휴직 중	45.7	8.4	(10)	48.0	7.6	(53)	47.8	7.6	(63)
미취업	49.4	11.0	(101)	47.9	9.2	(179)	48.4	9.9	(280)
부재 등	56.3	9.3	(2)	49.3	10.6	(4)	52.3	10.1	(6)
<i>F</i>	0.7			0.1			0.6		
2021년	50.1	11.6	(339)	46.6	11.6	(702)	47.6	11.7	(1,041)
2018년	46.4	11.3	(104)	46.1	9.5	(129)	46.2	10.1	(2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77. 〈표 VII-1-8〉.

3)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의 재원기간을 조사하였다.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의 재원기간은 평균 15.8개월이었고, 국·공립유치원은 14.7개월, 사립유치원은 16.2개월로, 사립유치원 재원 기간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1.5개월 더 길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 유아의 유치원 재원기간은 15.6개월, 중소도시 거주 유아는 16.1개월, 읍면 거주 유아는 15.5개월이었고,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유아는 16.3개월, 휴직 중인 모의 유아는 14.5개월, 미취업모의 유아는 15.3개월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I-1-9〉 현재 이용 유치원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4.7	9.2	(252)	16.2	10.8	(540)	15.8	10.4	(792)
지역규모									
대도시	14.3	9.2	(86)	15.9	10.5	(301)	15.6	10.3	(387)
중소도시	14.8	8.6	(118)	16.7	11.6	(187)	16.1	10.7	(305)
읍·면	14.9	10.9	(48)	15.9	8.6	(52)	15.5	9.6	(100)
<i>F</i>	0.1			0.4			0.3		
모 취업 여부									
취업	15.1	8.9	(139)	16.8	11.6	(304)	16.3	10.9	(443)
휴직 중	10.5	8.2	(10)	14.9	8.2	(53)	14.5	8.3	(63)
미취업	14.3	9.8	(101)	15.8	10.0	(179)	15.3	10.0	(280)
부재 등	15.3	5.9	(2)	12.1	10.8	(4)	13.5	8.7	(6)
<i>F</i>	0.6			0.8			1.0		
2021년	13.7	10.3	(339)	16.3	11.3	(702)	15.6	11.0	(1,041)
2018년	15.7	10.4	(365)	17.4	10.9	(640)	16.9	10.8	(1,005)
2015년	13.3	9.0	(240)	13.5	8.6	(502)	13.4	8.7	(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78. 〈표 VII-1-9〉.

마. 유치원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유아가 유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요일과 정기적 이용일수를 조사한 결과, 유아는 주중 5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 유아는 거의 없었지만 읍·면지역에서 토요일에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표 VII-1-10〉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요일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월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토요일	-	-	2.8	0.4	-	0.4	-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5.0
(수)	(387)	(305)	(100)	(443)	(63)	(280)	(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일요일은 이용자가 없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유치원 이용 시간

가) 등원 시각

유치원 등원 시각을 살펴보면, 57.8%의 아동이 오전 8:31~9:00에 등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오전 9:01~9:30 18.3%, 8:01~8:30 10.6%, 9:31~10:00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오전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전 8시 30분 이전 등원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오전 9시 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등원시간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1-11〉 연령별 유치원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7:30까지	0.8	0.6	-	0.4	0.2	0.4	0.7
7:31~8:00	5.3	5.8	4.3	5.1	2.6	3.3	4.1
8:01~8:30	9.1	11.3	11.1	10.6	13.9	19.4	21.0
8:31~9:00	55.7	56.9	60.1	57.8	53.0	48.0	42.6
9:01~9:30	18.9	19.6	16.7	18.3	22.1	23.4	26.8
9:31~10:00	10.2	5.9	7.9	7.8	8.3	5.4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4)	(277)	(281)	(792)	(1,041)	(1,005)	(742)
$\chi^2(df)$	8.2(1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79~380. 〈표 VII-1-11〉.

유치원 등원 시각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살펴 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오전 8:3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72.9%, 사립유치원은 51.2%, 오전 9:01~9:30에 등원하는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은

7.6%, 사립유치원은 23.0%로 차이를 보였고,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사립유치원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등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유치원 등원 시각이 비교적 빨라 오전 8:01~9:00에 등원하는 비율이 79.8%이지만, 대도시 거주 유아는 68.1%, 중소도시 거주 유아는 65.2%로 등원 시각에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모 유아는 오전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77.2%인데 반해, 휴직 중인 모의 유아는 60.6%, 미취업모의 유아는 70.8%로 차이를 보여, 취업모의 경우 출근 등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시각이 좀 더 빠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I-1-12〉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0.7	0.3	1.0	-	-	0.4	-	0.6	-
7:31~8:00	5.2	5.0	3.9	7.7	0.8	8.2	0.6	0.7	14.2
8:01~8:30	13.6	9.3	9.9	9.3	17.7	13.8	11.4	5.6	-
8:31~9:00	72.9	51.2	58.2	55.9	62.1	54.8	48.6	63.9	75.4
9:01~9:30	7.6	23.0	20.2	17.7	14.1	16.9	26.3	19.6	-
9:31~10:00	-	11.2	6.9	9.5	5.2	6.0	13.1	9.6	1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chi^2(df)$	66.3(5)**		22.3(10)*			48.7(1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나) 하원 시각

유치원 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율이 48.3%로 가장 많았고, 16:01~17:00 하원 비율이 33.6%로 다음으로 많아 81.9%의 유아가 15:00~17:00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8.5%, 2018년 65.3%, 2021년 73.1%, 2024년 81.9%로 15:00~17:00에 하원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 17시 이전에 하원하고 있었다.

〈표 VII-1-13〉 연령별 유치원 하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4:00까지	1.0	0.9	2.2	1.4	5.9	8.0	8.4
14:01~15:00	3.5	4.9	4.4	4.4	9.9	12.1	14.3
15:01~16:00	45.4	42.9	55.4	48.3	38.3	27.6	26.3
16:01~17:00	36.1	37.0	28.6	33.6	34.8	37.7	32.2
17:01~17:30	5.4	5.7	3.5	4.8	5.2	6.6	10.9
17:31~18:00	4.5	5.9	2.7	4.3	4.5	4.4	3.8
18:01~19:00	3.9	2.3	3.2	3.1	1.4	3.3	3.6
19:01 이후	0.2	0.4	-	0.2			
계(수)	100.0(234)	100.0(277)	100.0(281)	100.0(792)	100.0(1,041)	100.0(1,005)	100.0(742)
$\chi^2(df)$	19.3(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81. 〈표 VII-1-13〉.

유치원 하원 시각에 대해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로는 15:01~ 16:00 하원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54.0%, 사립유치원은 45.7%였고, 16:01~17:00 하원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은 29.4%, 사립유치원은 35.4%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에 비해 하원 시각이 다소 빠른 경향을 알 수 있다.

모의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 시각을 보면, 17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취업모인 경우는 81.2%, 휴직 중인 모는 100.0%, 미취업모는 95.5%였다. 취업모의 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이 18.3%로, 상대적으로 휴직 중 또는 미취업모의 유아보다 다소 늦게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2.8	0.8	0.7	2.1	1.4	1.5	-	1.5	-
14:01~15:00	3.4	4.8	4.6	4.8	2.2	2.9	7.8	5.5	20.5
15:01~16:00	54.0	45.7	47.8	46.7	54.8	39.2	64.9	60.4	22.9
16:01~17:00	29.4	35.4	36.5	31.3	31.5	37.6	27.3	28.1	42.4
17:01~17:30	2.9	5.6	5.3	4.2	5.1	7.4	-	1.6	-
17:31~18:00	5.4	3.8	2.9	6.5	2.1	6.2	-	2.1	-
18:01~19:00	2.1	3.5	2.0	4.2	2.9	4.7	-	0.6	14.2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19:01 이후	-	0.3	0.3	0.1	-	0.4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chi^2(df)$	15.0(7)*		16.4(14)			76.2(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다) 이용 시간

유아가 유치원에 머무는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유아는 1일 평균 7시간 20분을 유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1일 6~7시간을 보내는 유아가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8시간 28.3%, 5~6시간 9.8%, 8~9시간 9.7% 순이었다. 1일 9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무는 비율도 5.2% 수준이었다. 유아 연령별로 하루에 유치원에 머무는 평균 시간은 3세와 4세는 7시 25분, 5세는 7시 1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VII-1-15〉 연령별 유치원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분, 분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1.1	0.9	2.1	1.4
5~6시간	8.1	7.5	13.3	9.8
6~7시간	43.8	44.3	47.9	45.5
7~8시간	33.2	30.5	22.7	28.3
8~9시간	6.8	12.6	9.1	9.7
9~10시간	4.0	2.0	3.3	3.0
10시간 이상	3.0	2.2	1.6	2.2
계(수)	100.0(234)	100.0(277)	100.0(281)	100.0(792)
평균	7:25	7:25	7:12	7:20
표준편차	1:05	1:01	1:04	7:20
F	3.7*			
2021년	7:13	7:02	7:01	7:04
2018년	7:36	7:36	7:36	7:36
2015년	7:06	7:12	7:12	7:1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83. 〈표 VII-1-15〉.

* $p < .05$.

유치원 이용 시간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7시간 24분, 사립유치원 7시 18분이었고, 유치원 이용시간별로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유아인 경우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36분, 휴직 중인 모의 유아는 6시간 51분, 미취업모의 유아는 7시간으로, 취업모의 유아가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다른 경우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표 VII-1-1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2.2	1.0	1.1	2.1	-	1.6	1.4	1.0	-
5~6시간	4.0	12.4	10.0	10.8	6.0	6.8	18.9	12.2	30.8
6~7시간	53.9	41.9	44.3	45.4	49.9	36.8	51.9	59.5	12.5
7~8시간	23.3	30.5	31.3	23.7	33.1	32.1	27.8	21.7	42.4
8~9시간	12.5	8.6	9.1	11.2	7.1	14.1	-	5.0	-
9~10시간	2.2	3.4	2.5	3.8	2.1	5.3	-	-	-
10시간 이상	2.0	2.3	1.7	2.9	1.8	3.2	-	0.6	1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chi^2(df)$	24.9(6)**		14.1(12)			95.4(18)**			
평균	7:24	7:18	7:19	7:21	7:19	7:36	6:51	7:00	7:24
표준편차	1:02	1:04	0:59	1:10	0:52	1:08	0:39	0:49	1:50
t/F	1.1		0.1(a)			24.6*** (a)			
2021년	6:56	7:07	7:06	5:57	7:19	7:27	7:07	6:39	7:16
2018년	7:18	7:42	7:30	7:24	8:00	8:06	7:36	7:06	8:12
2015년	7:12	7:06	7:06	7:12	7:30	7:48	6:18	6:42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84. 〈표 VII-1-16〉.

** $p < .01$, *** $p < .001$.

3) 이용시간 만족도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수준을 유아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이용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치원 시작 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로 매우 높았고, 이는 이전 실태조사 만족도와 유사하였다. 연령별 만족비율은 3세 88.4%, 4세 92.3%, 5세 92.0%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만족비율은 91.1%, 중소도시 거주자는 90.8%, 읍·면지역 거

주자는 92.5%였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 만족비율은 89.9%, 휴직 중인 모는 98.8%, 미취업모는 91.9%였고,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의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은 93.7%, 사립유치원은 9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연령,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 유치원 유형별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89.0%로 매우 높았으나, 시작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도 10.1%로 나타났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은 2015년 80.7%, 2018년 80.5%, 2021년 83.4%에 비해 증가하였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연령별 만족비율은 3세 85.1%, 4세 90.8%, 5세 89.9%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만족비율은 90.0%, 중소도시 거주자는 88.3%, 읍·면지역 거주자는 87.8%였다. 모 취업 여부별로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은 취업모는 88.6%, 휴직 중인 모는 87.8%, 미취업모는 89.4%였고,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의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은 90.6%, 사립유치원은 88.3%로 나타났다. 시작 시간과 마찬가지로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비율도 유아연령,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 유치원 유형별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I-1-17〉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전체	91.1	1.4	6.7	0.7	89.0	10.1	0.6	0.3	100.0(792)
보육연령									
3세	88.4	2.0	8.4	1.3	85.1	14.5	0.4	-	100.0(234)
4세	92.3	0.1	6.7	1.0	90.8	7.7	0.6	0.9	100.0(277)
5세	92.0	2.2	5.7	0.1	89.9	9.4	0.7	-	100.0(281)
$\chi^2(df)$	11.8(6)				11.9(6)				
지역규모									
대도시	91.1	1.4	7.3	0.2	90.0	9.4	0.7	-	100.0(387)
중소도시	90.8	1.3	6.4	1.5	88.3	10.6	0.3	0.8	100.0(305)
읍·면	92.5	1.5	6.0	-	87.8	11.2	0.9	-	100.0(100)
$\chi^2(df)$	4.9(6)				5.3(6)				
모 취업 여부									
취업	89.9	1.3	8.1	0.7	88.6	10.4	0.4	0.6	100.0(443)
휴직 중	98.8	-	1.2	-	87.8	12.2	-	-	100.0(63)
미취업	91.9	1.8	5.2	1.0	89.4	9.5	1.1	-	100.0(280)
부재 등	79.5	-	20.5	-	100.0	-	-	-	100.0(6)
$\chi^2(df)$	10.7(9)				5.3(9)				
유치원 유형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국·공립 사립	93.7 90.0	0.7 1.7	5.5 7.3	0.1 1.0	90.6 88.3	9.4 10.5	- 0.8	- 0.5	100.0(252) 100.0(540)
$\chi^2(df)$	4.5(3)				3.7(3)				
2021년	92.2	3.0	4.8	-	83.4	14.0	2.6	-	100.0(1,041)
2018년	91.1	3.3	5.5	-	80.5	18.3	1.2	-	100.0(742)
2015년	91.6	4.5	3.9	-	80.7	17.8	1.2	-	100.0(74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86. <표 VII-1-17>.

4)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

가) 희망 등원 시각

부모가 희망하는 유치원 등원 시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8:31~9:00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31~8:00 12.1%, 8:01~8:30 10.9%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8:31~9:00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8:30 이전 등원과 9시 이후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VII-1-18>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7:30까지	2.2	4.3	3.2	3.3	3.3	7.3	3.1
7:31~8:00	8.9	15.5	11.1	12.1	11.7	10.5	10.9
8:01~8:30	11.5	12.2	9.2	10.9	9.7	17.7	15.7
8:31~9:00	62.4	55.2	65.1	60.9	57.9	45.5	45.9
9:01~9:30	9.3	8.2	5.7	7.6	11.1	13.3	20.4
9:31~10:00	5.6	4.6	5.6	5.2	6.3	5.6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4)	(277)	(281)	(792)	(1,041)	(1,005)	(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87. <표 VII-1-18>.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오전 8:31~9:00 사이에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았으나, 국·공립유치원은 71.0%, 사립유치원은 56.4%로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는 8:30 전에 등원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34.4%인데 반해, 미취업모는 12.2%로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직장 출근 등으로 인해 좀 더 이른 시간에 자녀가 등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1-1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2.5	3.7	3.7	3.6	1.1	4.7	1.4	1.1	14.2
7:31~8:00	11.2	12.5	11.6	12.3	13.1	15.7	19.5	5.1	-
8:01~8:30	8.8	11.9	9.2	11.3	15.5	14.0	12.3	6.0	-
8:31~9:00	71.0	56.4	62.7	59.1	60.5	55.2	57.5	70.0	85.8
9:01~9:30	5.1	8.7	7.9	7.4	7.1	5.8	3.9	11.5	-
9:31~10:00	1.5	6.9	4.9	6.4	2.7	4.7	5.4	6.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chi^2(df)$	20.1(5)**		8.0(10)			57.4(1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나) 희망 하원 시각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을 살펴보았다.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15:01~16:00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31~17:00 21.7%, 17:31~18:00 16.1%, 18:01~19:00 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하원 시각은 2021년 조사에서도 15:01~16:00가 33.1%, 16:31~17:00가 21.9%, 17:31~18:00가 13.2%로 2024년에도 유사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15:01~18:00 사이 하원을 원하는 비율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오후 6시 이후의 늦은 하원을 희망하는 요구는 12.3%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9.2% 대비 증가하였다.

〈표 VII-1-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4:00까지	-	0.9	0.4	0.5	1.1	3.0	2.4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4:01~15:00	1.3	2.2	4.5	2.8	7.4	6.9	10.8
15:01~16:00	30.0	33.1	36.0	33.4	33.1	25.4	27.2
16:01~16:30	12.5	10.7	7.5	10.0	10.0	10.6	9.0
16:31~17:00	20.6	20.9	23.2	21.7	21.9	21.8	22.1
17:01~17:30	3.6	4.8	1.6	3.3	4.1	5.6	8.4
17:31~18:00	16.8	17.4	14.2	16.1	13.2	11.3	10.9
18:01~19:00	13.0	9.2	10.0	10.5	7.5	9.7	6.3
19:01~19:30	0.5	-	1.4	0.7	0.4	2.5	0.8
19:31 이후	1.4	0.7	1.3	1.1	1.3	3.3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4)	(277)	(281)	(792)	(1,041)	(1,005)	(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89. <표 VII-1-20>.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특성별로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로는 15:01~16:00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38.2%, 사립유치원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6:31~17:00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16.7%, 사립유치원은 23.9%였고, 17:31~18:00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16.4%로, 사립유치원은 15.9%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희망 하원 시간대는 15:01~16:00시가 대도시 거주자는 31.1%, 중소도시 거주자는 34.7%, 읍·면지역 거주자는 36.9%로 차이를 보였고, 16:01~16:30은 읍·면지역 거주자는 18.2%로, 대도시 10.6%, 중소도시 6.8%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유치원 희망하원 시각 응답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좀더 많았다. 이에 반해 17:31~18:00는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8.7%로 대도시(15.6%), 중소도시(18.8%)에 비해 희망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부모 중 임금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희망 하원시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모인 경우와 미취업모의 경우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각각 15:01~16:00에 28.8%, 40.6%, 16:31~17:00 16.1%, 28.6%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18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을 보면 취업모는 18.2%이나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3.5%로 취업모의 경우 직장 퇴근 시간 등을 이유로 미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하원 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1-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1.6	-	-	1.1	-	0.8	-	-	-
14:01~15:00	3.4	2.6	3.4	2.3	2.2	1.5	5.0	4.6	-
15:01~16:00	38.2	31.3	31.1	34.7	36.9	28.8	36.5	40.6	20.5
16:01~16:30	10.7	9.7	10.6	6.8	18.2	8.7	3.9	13.3	12.5
16:31~17:00	16.7	23.9	22.1	21.3	21.6	16.1	28.3	28.6	52.8
17:01~17:30	3.6	3.2	3.4	3.1	3.4	4.0	-	2.8	-
17:31~18:00	16.4	15.9	15.6	18.8	8.7	21.9	18.0	6.6	-
18:01~19:00	6.2	12.4	11.4	10.4	7.8	15.4	7.5	3.1	14.2
19:01~19:30	1.3	0.4	-	1.3	1.1	1.2	-	-	-
19:31 이후	2.1	0.7	2.4	0.1	-	1.6	0.8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chi^2(df)$	27.5(9)**		37.4(18)**			105.7(2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다) 희망 이용 시간

유치원 평균 희망 이용 시간은 8시간 7분으로, 현재 이용 시간인 7시간 20분에 비해 47분 더 길었고, 2021년 희망 이용시간인 7시간 52분에 비해서도 15분 증가하였다. 희망 이용 시간이 6~7시간인 경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8시간 27.0%, 8~9시간 18.7% 순이었다. 돌봄 등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을 원한다는 비율로 18.3%로 나타나, 2021년 14.5%에 비해 증가하였다.

유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에서는 하루 7~8시간, 6~7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27.9%, 27.5%, 4세는 하루 6~7시간, 7~8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30.7%, 27.1%, 5세는 하루 6~7시간, 7~8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31.6%, 26.2%로 많았다. 연령별 희망이용 시간은 3세가 8시간 10분, 4세가 8시간 9분, 5세가 8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표 VII-1-22〉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5시간까지	0.6	1.3	0.9	1.0	0.5	3.5	4.5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5~6시간	4.4	3.2	7.0	4.9	11.9	9.5	11.2
6~7시간	27.5	30.7	31.6	30.2	29.5	21.5	22.8
7~8시간	27.9	27.1	26.2	27.0	26.6	28.4	28.7
8~9시간	19.8	18.6	18.0	18.7	17.0	16.3	17.1
9~10시간	11.0	9.9	7.5	9.3	7.4	7.0	8.3
10~11시간	6.8	6.3	5.6	6.2	4.9	7.0	4.4
11~12시간	1.8	1.8	2.3	2.0	2.2	4.1	2.5
12시간 초과	0.2	1.2	0.9	0.8	-	2.7	0.6
계(수)	100.0(234)	100.0(277)	100.0(281)	100.0(792)	100.0	100.0	100.0
평균	8시간 10분	8시간 9분	8시간 2분	8시간 7분	7시간 52분	8시간 6분	7시간 48분
표준편차	1시간 23분	1시간 27분	1시간 29분	1시간 26분	1시간 29분	1시간 54분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91. <표 VII-1-22>.

유치원 이용 희망 시간에 대해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등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별 희망 이용시간은 국·공립유치원의 희망 이용 시간이 8시간, 사립유치원 8시간 10분이었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가구가 희망하는 이용 시간이 7시간 57분으로 대도시 8시간 10분, 중소도시 8시간 7분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은 8시간 27분으로 휴직 중인 모의 경우인 8시간 3분, 미취업모인 경우의 7시간 34분에 비해 장시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1-23〉 지역 및 기관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2.1	0.5	0.7	1.5	-	0.8	2.1	0.9	-
5~6시간	3.0	5.8	5.6	4.8	3.3	3.6	7.0	6.8	-
6~7시간	35.5	27.8	27.1	31.7	35.4	24.7	31.3	39.2	20.5
7~8시간	26.8	27.1	28.6	22.9	34.8	21.5	15.7	37.5	55.7
8~9시간	17.6	19.2	19.6	20.5	9.6	23.1	29.1	9.6	9.6
9~10시간	7.7	10.0	9.2	9.3	9.6	13.5	6.4	3.1	-
10~11시간	4.5	6.9	5.9	6.5	6.1	9.0	7.5	1.4	-
11~12시간	2.2	1.9	2.1	2.5	-	2.4	-	1.4	14.2
12시간 초과	0.7	0.9	1.2	0.4	1.1	1.3	0.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443)	(63)	(280)	(6)
$\chi^2(df)$	12.8(8)		20.0(16)			107.3(24)**			
평균	8시간	8시간10분	8시간10분	8시간 7분	7시간57분	8시간27분	8시간 3분	7시간34분	8시간13분
표준편차	1시간24분	1시간27분	1시간28분	1시간28분	1시간16분	1시간31분	1시간27분	1시간6분	1시간25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t/F	-1.5		0.9			23.2*** ^(a)			
2021년	7시간45분	7시간50분	7시간45분	7시간54분	8시간4분	8시간19분	8시간10분	7시간19분	8시간
2018년	8시간 6분	8시간12분	8시간 6분	8시간 6분	8시간 18분	8시간48분	8시간12분	7시간30분	-
2015년	8시간 6분	7시간42분	7시간 42분	7시간48분	7시간54분	8시간36분	7시간42분	7시간18분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392. <표 VII-1-23>.
 * $p < .05$, *** $p < .001$.

바. 유치원 등·하원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을 살펴보았다. 등원 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호자와 걸어서’가 23.4%, ‘보호자와 자가용으로’가 24.6% 순이었다. 기관차량을 이용해 등원하는 비율은 2015년 60.1%, 2018년 54.0%, 2021년 53.6%, 2024년 5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하는 비율인 2015년 8.8%, 2018년 19.8%, 2021년 21.7%, 2024년 24.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5세의 기관차량 및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하는 비율이 3세와 4세보다 높았고,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11.1%로 대도시(23.2%)나 중소도시(27.4%)에 비해 상당히 낮고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읍·면지역에서 집과 유치원 간 거리가 떨어져 이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모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인 경우 보호자 자가용으로 등원한다는 비율이 31.2%로 미취업모의 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등원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하는 비율이 39.1%, ‘보호자와 자가용으로’가 30.2%, 기관차량이 29.8%로 기관 차량 이용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차량’을 통해 등원하는 비율이 60.8%, ‘보호자와 자가용으로’가 22.1%, ‘보호자와 걸어서’가 16.6%로 국·공립유치원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기관차량을 운영하지만, 대다수 국·공립유치원에서 기관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VII-1-24〉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기관 차량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51.4	24.6	0.3	23.4	-	0.3	100.0(792)
보육연령							
3세	51.9	26.6	1.0	19.8	-	0.8	100.0(234)
4세	47.9	29.9	-	22.2	-	-	100.0(277)
5세	54.4	18.0	0.2	27.2	-	0.2	100.0(281)
지역규모							
대도시	55.8	20.1	0.8	23.2	-	0.2	100.0(387)
중소도시	46.9	25.1	-	27.4	-	0.5	100.0(305)
읍·면	51.2	37.7	-	11.1	-	-	100.0(100)
모 취업 여부							
취업	46.9	31.2	0.6	20.9	-	0.5	100.0(443)
휴직 중	55.3	29.7	-	15.0	-	-	100.0(63)
미취업	58.0	12.9	-	29.0	-	-	100.0(280)
부재 등	52.9	14.2	-	32.9	-	-	100.0(6)
유치원 유형							
국·공립	29.8	30.2	-	39.1	-	0.9	100.0(252)
사립	60.8	22.1	0.5	16.6	-	-	100.0(540)
2021년	53.6	21.7	0.6	22.8	0.6	0.7	100.0(1,041)
2018년	54.0	19.8	0.7	24.8	0.7	-	100.0(742)
2015년	60.1	8.8	1.0	26.5	2.9	0.7	100.0(74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주: 2024년에는 자녀 혼자 걸어서 문항 삭제하여, 조사하지 않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93. 〈표 VII-1-24〉.

하원 방법을 살펴보면,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걸어서’는 24.6%, ‘보호자와 자가용으로’는 18.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세는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하원한다는 비율이 54.2%로 4세와 5세에 비해 높은 반면, 보호자와 걸어서 하원하는 비율은 22.4%로 가장 낮았다. 5세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하원한다는 비율이 14.0%로 3세와 4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하원하는 비율이 58.1%, ‘보호자와 걸어서’는 14.4%로 이용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모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 모인 경우 보호자 자가용으로 하원한다는 비율이 23.2%로 미취업모의 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1-25〉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기관 차량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52.4	18.8	0.4	24.6	-	3.8	100.0(792)
보육연령							
3세	54.2	21.3	1.0	22.4	-	1.1	100.0(234)
4세	50.3	21.9	-	25.0	-	2.8	100.0(277)
5세	53.2	14.0	0.4	25.7	-	6.7	100.0(281)
지역규모							
대도시	56.8	15.4	0.8	21.2	-	5.8	100.0(387)
중소도시	46.2	20.9	-	31.1	-	1.8	100.0(305)
읍·면	58.1	23.3	0.6	14.4	-	3.7	100.0(100)
모 취업 여부							
취업	47.5	23.2	0.7	23.6	-	5.0	100.0(443)
휴직 중	59.6	20.4	-	18.7	-	1.3	100.0(63)
미취업	59.0	11.3	-	27.0	-	2.6	100.0(280)
부재 등	52.9	14.2	-	32.9	-	-	100.0(6)
유치원 유형							
국·공립	31.6	25.0	-	39.4	-	3.9	100.0(252)
사립	61.5	16.0	0.6	18.1	-	3.8	100.0(540)
2021년	57.4	17.4	0.6	22.2	0.5	1.9	100.0(1,041)
2018년	55.8	15.7	0.4	25.1	0.9	2.1	100.0(1,005)
2015년	62.7	7.1	0.9	26.3	2.5	0.5	100.0(74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자녀 혼자 걸어서 문항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94~395. 〈표 VII-1-25〉.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3분으로 조사되었고, 10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20분 26.7%, 21~30분 6.2%, 31분 이상이 2.8% 순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등원 시 소요시간은 3세가 13.4분, 4세가 12.2분, 5세가 11.7분이었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1.8분, 중소도시 13.2분, 읍·면지역 11.4분이었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은 11.0분, 사립유치원은 12.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1-26〉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4.3	26.7	6.2	2.8	100.0(792)	12.3	8.1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보육연령							
3세	57.2	31.8	8.0	3.0	100.0(234)	13.4	8.5
4세	65.2	27.0	4.0	3.8	100.0(277)	12.2	8.0
5세	68.5	22.7	7.1	1.7	100.0(281)	11.7	7.9
지역규모							
대도시	65.7	29.6	2.7	2.0	100.0(387)	11.8	7.2
중소도시	60.8	25.9	9.4	4.0	100.0(305)	13.2	9.1
읍·면	70.9	19.3	8.2	1.7	100.0(100)	11.4	7.9
유치원 유형							
국·공립	72.2	22.0	4.3	1.4	100.0(252)	11.0	7.3
사립	60.8	28.7	7.1	3.4	100.0(540)	12.9	8.4
2021년	64.5	27.1	7.7	0.7	100.0(1,041)	12.4	7.3
2018년	65.5	29.0	5.0	0.4	100.0(1,005)	11.5	6.8
2015년	69.6	22.7	6.0	1.8	100.0(742)	11.5	8.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95~396. <표 VII-1-26>.

2) 등·하원 시 부모와 유치원의 정보 교류

유치원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등에 관한 교류 정도를 알아보았다. ‘주 1~2회’ 정보를 교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일’ 31.4%, ‘월 1~2회’ 25.0% 순이었다. 전혀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매일’ 또는 ‘주 1~2회’ 정보교류를 한다는 비율은 2015년 73.0%, 2018년 71.2%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7.1%로 다소 크게 감소한 후 2024년 63.7%로 다시 증가하였다. 취업모인 경우 ‘매일’ 정보교류를 한다는 비율이 35.1%인데 반해 미취업모는 26.7%였고, 전혀 안 한다는 비율도 취업모는 8.8%인데 비해 미취업모는 14.2%로 나타났다.

〈표 VII-1-27〉 유치원 등·하원 시 기관과 정보교류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일	주 1~2회	월 1~2회	전혀 안 함	계(수)
전체	31.4	32.3	25.0	11.3	100.0(792)
보육연령					
3세	31.5	31.2	23.6	13.6	100.0(234)
4세	33.5	30.9	28.1	7.5	100.0(277)
5세	29.3	34.4	23.1	13.2	100.0(281)
지역규모					

구분	매일	주 1~2회	월 1~2회	전혀 안 함	계(수)
대도시	32.4	27.5	28.4	11.7	100.0(387)
중소도시	28.2	39.7	21.6	10.5	100.0(305)
읍·면	38.5	24.2	24.7	12.6	100.0(100)
모 취업 여부					
취업	35.1	29.8	26.3	8.8	100.0(443)
휴직 중	27.3	27.8	33.0	12.0	100.0(63)
미취업	26.7	37.3	21.8	14.2	100.0(280)
부재 등	14.2	30.0	10.3	45.4	100.0(6)
유치원 유형					
국·공립	26.9	31.8	28.7	12.5	100.0(252)
사립	33.3	32.5	23.4	10.8	100.0(540)
2021년	27.7	29.4	26.5	16.3	100.0(1,037)
2018년	39.8	31.4	16.4	12.4	100.0(1,000)
2015년	35.8	37.2	13.3	13.7	100.0(7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97. <표 VII-1-27>.

3) 유치원 차량 이용 시 교직원 동승 여부

등·하원 방법으로 기관차량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교직원(자원봉사자 등 성인 포함)이 동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6.2%로 나타났다. 등원 시에만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하원 시에만 동승한다는 경우가 0.2%로 조사되었고,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로 나타났다.

<표 VII-1-28>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단위: %, (명)

구분	등·하원 시 모두 동승	등원 시만 동승	하원 시만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름	계(수)
전체	96.2	1.0	0.2	1.5	1.1	100.0(448)
보육연령						
3세	95.3	2.5	-	-	2.1	100.0(139)
4세	97.3	0.8	-	1.9	-	100.0(150)
5세	95.9	-	0.6	2.1	1.4	100.0(159)
지역규모						
대도시	93.8	1.3	0.5	2.4	2.1	100.0(235)
중소도시	98.7	0.9	-	-	0.4	100.0(149)
읍·면	97.7	-	-	2.3	-	100.0(64)
모 취업 여부						
취업	95.2	0.9	0.4	1.3	2.1	100.0(227)

구분	등·하원 시 모두 동승	등원 시만 동승	하원 시만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름	계(수)
휴직 중	100.0	-	-	-	-	100.0(42)
미취업	96.7	1.3	-	2.0	-	100.0(175)
부재 등	100.0	-	-	-	-	100.0(4)
유치원 유형						
국·공립	93.7	1.9	-	4.4	-	100.0(88)
사립	96.8	0.8	0.3	0.8	1.4	100.0(360)
2021년	97.9	0.7	0.7	0.6	0.2	100.0(646)
2018년	96.8	0.5	0.7	-	1.9	100.0(605)
2015년	99.2	0.3	0.2	0.3	-	100.0(44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교직원(자원봉사자 등 성인포함)으로 문항을 명확히 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397~398. <표 VII-1-28>.

2. 유치원 이용 비용

가. 유치원 교육비

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17만7,000원이었으며, 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 이용비, 졸업앨범비, 급간식비, 교재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월평균 8만 6,500원, 그 외 추가비용(부대비용)이 9만600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교육비는 2015년 13만500원에서 2018년 23만8,800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1년 18만8,700원, 2024년 17만7,000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5세 방과후 지원금 및 보육료 상향 조정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전체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지역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20만7,300원, 중소도시 17만7,500원, 읍·면지역이 총교육비 7만2,900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교육비 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와 읍·면지역간 유치원 월평균 교육비의 차이가 거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교육비용에서도 대都市는 10만5,800원, 중소도시 8만2,000원, 읍·면지역 3만5,600원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별 전체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휴직 중인 모의 경우에 지출하는 총교육비용이 21만1,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모가 19만5,600원, 미취

업모가 13만9,5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총 교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은 총지출 교육비가 월평균 7만8,000원이었으나,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22만200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순교육 지출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은 2만6,900원, 사립유치원은 11만2,400원, 추가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은 5만1,100원, 사립유치원은 10만7,800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II-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 비용(A)	순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전체	177.0	86.5	90.6	(792)
지역규모				
대도시	207.3	105.8	101.6	(387)
중소도시	177.5	82.0	95.5	(305)
읍·면	72.9	35.6	37.3	(100)
<i>F</i>	22.6*** (a)	13.9*** (a)	13.6*** (a)	
모 취업 여부				
취업	195.6	97.6	98.0	(443)
휴직 중	211.6	105.4	106.2	(63)
미취업	139.5	63.6	76.0	(280)
부재 등	169.7	106.1	63.6	(6)
<i>F</i>	6.2*** (a)	5.1** (a)	2.7*(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81.0	38.9	42.2	(40)
300~349만원	139.7	75.0	64.7	(47)
350~399만원	129.2	28.1	101.2	(49)
400~499만원	157.8	71.9	85.8	(122)
500~599만원	183.0	97.0	86.0	(155)
600~699만원	170.3	77.5	92.8	(119)
700만원 이상	213.1	109.9	103.2	(250)
모름/무응답	196.6	81.4	115.2	(10)
<i>F</i>	4.0*** (a)	4.3*** (a)	2.0*(a)	
유치원 유형				
국·공립	78.0	26.9	51.1	(252)
사립	220.2	112.4	107.8	(540)
<i>t</i>	-12***	-11***	-7.2***	
2021년	188.7	117.7	71.0	(1,041)
2018년	238.8	135.6	103.3	(1,005)
2015년	130.5	56.7	73.8	(742)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399~400. 〈표 VII-2-1〉.

* $p < .05$, *** $p < .001$.

유치원 월평균 총교육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19만300원, 4세 18만2,800원, 5세 16만1,900원으로 3세의 교육비가 가장 높았고, 순교육 지출비용도 3세 9만9,600원, 4세 9만3,100원, 5세 이상 7만700원으로 3세의 지출액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월평균 총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 3세 8만600원, 4세 6만8,400원, 5세 8만4,100원으로 5세의 비용이 높았고, 사립유치원은 3세 23만8,300원, 4세 22만6,700원, 5세 20만원으로 3세 지출비용이 가장 높았다.

〈표 VII-2-2〉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F	2021년	2018년	2015년
전체								
총비용	190.3	182.8	161.9	177.0	1.7	188.7	238.8	130.5
순교육비	99.6	93.1	70.7	86.5	4.1*(a)	117.7	135.6	56.7
(수)	(234)	(277)	(281)	(792)		(1,041)	(1,005)	(742)
국·공립유치원								
총비용	80.6	68.4	84.1	78.0	0.3	42.3	44.2	29.7
순교육비	34.4	23.6	24.6	26.9	0.3	17.2	2.8	6.4
(수)	(71)	(82)	(99)	(252)		(339)	(365)	(240)
사립유치원								
총비용	238.3	226.7	200.0	220.2	2.0	250.1	321.3	164.0
순교육비	128.2	119.7	93.2	112.4	3.8*	159.9	191.8	73.5
(수)	(163)	(195)	(182)	(540)		(702)	(640)	(502)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00. 〈표 VII-2-2〉.

* $p < .05$.

나. 추가 비용

유치원의 현장학습비, 행사비, 방과후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 교육돌봄비, 교재비 등 추가비용을 분석하였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특성화비가 5만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2만1,300원, 방과후 교육돌봄비 8,900원, 교재비 5,200원, 급간식비 4,500원 순이었다. 한편, 유치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비를 살펴보면, 방과후 특성화비가 6만6,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2만7,800원, 방과후 교육돌봄비 1만1,600원, 교재비 6,800원, 급간식비 5,900원 순이었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추가 교육비 항목 모두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에 비해 추가 교육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급간식비와 방과후 교육돌봄비를 제외한 3개 지출항목의 교육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용지불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비는 급간식비와 방과후 교육돌봄비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낮았고, 이외 지출항목은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월평균 지출 비용이 더 높았다. 방과후 특성화비, 급간식비, 교재비 평균지출액 간에는 유치원 유형 간 평균 지출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II-2-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교육 돌봄비	교재비	(수)
전체 아동						
전체	21.3	50.7	4.5	8.9	5.2	(792)
국·공립	12.5	24.5	4.0	8.6	1.5	(252)
사립	25.1	62.1	4.7	9.0	6.8	(540)
<i>t</i>	-4.2***	-8.7***	-0.8	-0.1	-6.0***	
2021년	34.5	2.6	8.1	5.0	9.5	3.5
2018년	66.9	6.5	8.4	5.3	6.8	9.1
2015년	37.2	7.5	10.9	4.8	5.5	7.4
비용지불아동						
전체	27.8	66.2	5.9	11.6	6.8	(545)
국·공립	25.9	50.7	8.2	17.8	3.1	(87)
사립	28.2	69.9	5.3	10.1	7.7	(458)
<i>t</i>	-0.5	-3.5***	2.0*	1.1	-3.9***	
2021년	86.0	30.8	46.0	30.5	64.9	39.8
2018년	83.6	22.0	33.0	24.7	56.8	47.8
2015년	68.5	24.0	33.6	22.3	42.3	32.1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조사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음. 2021년과 2024년 조사 항목은 특성화프로그램비 → 방과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행사비 + 차량운행비 → 현장학습비/행사비 등 기타 비용, 방과후 과정보 → 방과후교육돌봄비로 수정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01. 〈표 VII-2-3〉.

*** $p < .001$.

추가 교육비 지출항목에 대해 지역규모별, 모 취업 여부별,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은 2만 6,100원, 방과후 특성화비는 6만원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각각 1만4,800원, 1만8,700원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추가 교육비 지출액에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인 경우 급간식비를 제외하고는 미취업모인 경우에 비해 월평균 추가 교육비가 더 많았고, 방과후 특성화비 월평균 지출액은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과정 이용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방과후 특성화비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경우 2만7,500원이던 지출금액이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월평균 8만4,100원으로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VII-2-4〉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교육 돌봄비	교재비	(수)
전체	21.3	50.7	4.5	8.9	5.2	(792)
지역규모						
대도시	26.1	60.0	3.8	7.1	4.4	(387)
중소도시	18.2	50.9	6.3	12.9	7.3	(305)
읍·면	14.8	18.7	1.0	1.7	1.0	(100)
<i>F</i>	4.3 (a)	12.5** (a)	7.9** (a)	4.2 (a)	6.5** (a)	
모 취업 여부						
취업	21.8	55.3	4.7	10.1	6.0	(443)
휴직 중	16.7	74.6	5.4	5.2	4.5	(63)
미취업	21.4	38.8	4.0	7.7	4.0	(280)
부재 등	18.9	29.9	4.9	4.9	4.9	(6)
<i>F</i>	0.3	5.2* (a)	0.3	0.5	0.8(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1	27.5	2.7	3.8	2.1	(40)
300~349만원	13.0	39.5	5.5	2.1	4.7	(47)
350~399만원	20.0	60.7	6.7	7.9	5.8	(49)
400~499만원	20.0	44.2	3.2	11.3	7.2	(122)
500~599만원	18.2	49.8	6.1	5.5	6.4	(155)
600~699만원	26.8	42.2	4.5	13.0	6.3	(119)
700만원 이상	24.8	60.1	4.1	10.5	3.8	(250)
모름/무응답	28.0	84.1	-	3.1	-	(10)
<i>F</i>	1.7(a)	2.2(a)	1.2(a)	0.9(a)	1.1(a)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 비용 부담

1) 비용 부담 정도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부담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담된다는 응답(매우 부담+부담되는 편)이 25.2%, 적당 37.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전혀 부담 안됨+부담되지 않음) 36.9%였고, 5점 만점 기준으로 2.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2점, 2018년 3.1점, 2021년 2.9점, 2024년 2.7점으로 부모들의 유치원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세는 2.8점, 4세는 2.7점, 5세는 2.6점,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는 2.9점, 중소도시는 2.7점, 읍·면지역은 2.1점,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 2.7점, 휴직 중인 모 2.8점, 미취업모 2.6점이었고, 모두 부담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제 특성별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에 응답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2-5〉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안됨	계(수)	평균
전체	3.0	22.2	37.9	14.1	22.8	100.0(792)	2.7
보육연령							
3세	2.5	26.6	37.8	14.1	19.0	100.0(234)	2.8
4세	4.8	21.0	37.8	10.0	26.3	100.0(277)	2.7
5세	1.5	20.2	38.0	18.2	22.0	100.0(281)	2.6
$\chi^2(df)/F$			17.8(8)*				1.6
지역규모							
대도시	3.0	27.9	39.7	12.2	17.1	100.0(387)	2.9
중소도시	3.8	19.7	37.7	16.7	22.1	100.0(305)	2.7
읍·면	-	11.5	32.2	12.2	44.1	100.0(100)	2.1
$\chi^2(df)/F$			45.6(8)***				
모 취업 여부							
취업	3.2	24.1	34.7	17.6	20.4	100.0(443)	2.7
휴직 중	-	37.1	29.8	13.5	19.7	100.0(63)	2.8
미취업	3.0	16.8	43.6	9.0	27.6	100.0(280)	2.6
부재 등	10.3	-	75.4	-	14.2	100.0(6)	2.9
$\chi^2(df)/F$			39.3(12)***				1.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	11.7	45.0	12.6	30.7	100.0(40)	2.4
300~349만원	2.0	21.7	53.4	5.1	17.8	100.0(47)	2.8
350~399만원	1.3	31.1	46.7	4.4	16.6	100.0(49)	3.0
400~499만원	10.1	14.9	32.9	8.3	33.8	100.0(122)	2.6
500~599만원	2.1	28.0	33.2	15.6	21.2	100.0(155)	2.7
600~699만원	0.2	28.4	29.8	19.9	21.6	100.0(119)	2.7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안됨	계(수)	평균
700만원 이상	2.8	19.6	40.3	16.3	21.1	100.0(250)	2.7
모름/무응답	-	14.0	60.3	20.1	5.6	100.0(10)	2.8
$\chi^2(df)/F$	70.1(28)**						1.1(a)
2021년	3.6	30.1	37.8	11.4	17.0	100.0(1,041)	2.9
2018년	7.5	34.9	29.0	13.3	15.2	100.0(1,005)	3.1
2015년	7.0	40.7	31.1	9.4	11.8	100.0(742)	3.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평균은 '매우 부담됨' 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504. <표 VII-2-5>.

* $p < .05$, ** $p < .001$.

2) 추가 비용 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수준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51.1%, 없다는 비율은 48.9%로 거의 유사하였다. 추가비용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2015년 26.0%, 2018년 35.8%, 2021년 49.8%, 2024년 5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저출생 현상과 함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서비스 투자 및 질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비 추가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 유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 가구소득 별 응답 비율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 의사는 54.9%, 휴직 중인 모는 61.4%, 미취업모는 43.1%로 어머니가 직장인인 경우에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더 높았다.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현재보다 매월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평균 7만 1,900원으로 조사되었다. 최대 지불 가능액수 평균은 2015년 12만2,600원, 2018년 11만6,400원, 2021년 10만1,500원에 비해 매 조사시기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대 지불 가능액수는 모의 취업 여부와 유치원 유형에 따라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모는 최대 8만500원을 추가부담 가능액수로 응답한 반면, 휴직 중인 모와 미취업모는 각각 5만6,500원, 5만8,5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부모는 추가 지불가능 금액 평균이 6만

2,100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 부모는 7만6,600원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I-2-6〉 제 특성별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1.1	48.9	100.0(792)	71.9	66.1	2.0	900.0	(390)
보육연령								
3세	51.7	48.3	100.0(234)	65.7	46.4	2.0	250.0	(113)
4세	54.3	45.7	100.0(277)	67.7	47.4	5.0	300.0	(139)
5세	47.5	52.5	100.0(281)	81.4	91.3	2.0	900.0	(138)
$\chi^2(df)/F$	2.6(2)			2.3				
지역규모								
대도시	48.0	52.0	100.0(387)	73.9	49.9	2.0	300.0	(178)
중소도시	52.6	47.4	100.0(305)	72.9	68.8	5.0	900.0	(159)
읍·면	56.6	43.4	100.0(100)	63.5	93.7	2.0	900.0	(53)
$\chi^2(df)/F$	2.9(2)			0.6				
모 취업 여부								
취업	54.9	45.1	100.0(443)	80.5	77.4	2.0	900.0	(235)
휴직 중	61.4	38.6	100.0(63)	56.5	37.3	10.0	150.0	(36)
미취업	43.1	56.9	100.0(280)	58.5	39.9	2.0	200.0	(117)
부재 등	34.7	65.3	100.0(6)	79.5	30.1	50.0	100.0	(2)
$\chi^2(df)/F$	13.3(3)**			3.8*				
유치원 유형								
국·공립	53.8	46.2	100.0(252)	62.1	40.3	10.0	300.0	(134)
사립	49.9	50.1	100.0(540)	76.6	74.9	2.0	900.0	(256)
$\chi^2(df)/t$	1.0(1)			-2.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2.2	47.8	100.0(40)	56.9	53.2	2.0	200.0	(20)
300~349만원	29.9	70.1	100.0(47)	56.7	47.3	20.0	200.0	(14)
350~399만원	44.8	55.2	100.0(49)	46.1	32.4	2.0	100.0	(22)
400~499만원	50.2	49.8	100.0(122)	70.4	95.5	9.0	900.0	(60)
500~599만원	54.8	45.2	100.0(155)	74.7	43.1	5.0	200.0	(77)
600~699만원	55.6	44.4	100.0(119)	79.3	98.4	10.0	900.0	(60)
700만원 이상	52.9	47.1	100.0(250)	75.5	49.0	2.0	300.0	(134)
모름/무응답	28.0	72.0	100.0(10)	41.1	25.1	30.0	100.0	(3)
$\chi^2(df)/F$	13.5(7)			1.0				
2021년	49.8	50.2	100.0(1,041)	101.5	92.8	10.0	700.0	(521)
2018년	35.8	64.2	100.0(1,005)	116.4	87.9	15.0	500.0	(354)
2015년	26.0	74.0	100.0(742)	122.6	108.4	5.0	500.0	(18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05-406. 〈표 VII-2-6〉.

* $p < .05$, ** $p < .01$, *** $p < .001$.

3. 유치원 제공 서비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등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서비스의 제공비율²⁹⁾을 살펴보면, 교육계획표는 99.1%, 급간식 식단은 98.8%, 가정통신문 99.1%, 자녀발달 평가 72.4%, 부모상담 94.5%, 부모교육자료 85.8%, 부모참여프로그램 90.4%, 양방향 알림장 78.8%로 나타났다.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은 거의 모든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자녀발달 평가, 양방향 알림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공비율을 보였다. 특히 부모교육자료와 부모참여프로그램 제공비율은 2018년 각각 83.9%, 91.0%에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각 76.2%, 60.8%로 급감하였으나, 2024년에 조사결과 다시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방향 알림장 제공비율도 2021년 70.7%에서 2024년 78.8%로 상승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 주기는 교육계획표는 ‘매주 1회’와 ‘월 1회’가 각각 50.9%, 37.3%로 많았다. 급간식 식단 제공은 ‘월 1회’와 ‘매일’이 각각 54.6%, 27.4%로 많았고,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와 ‘월 1회’가 각각 66.2%, 19.0%로 많았고, 자녀발달평가는 ‘분기 1회’가 61.9%로 가장 많았다. 부모상담의 경우 ‘연 1~2회’와 ‘분기 1회’가 각각 51.9%, 32.8%로 많았고, 부모교육자료 제공주기는 ‘월 1회’, ‘분기 1회’, ‘연 1~2회’가 20% 비율을 보였다. 부모참여프로그램은 ‘연 1~2회’와 ‘분기 1회’가 각각 43.8%, 28.0%로 많았고,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매주 1회’가 각각 38.5%, 27.3%를 보였다.

자녀의 유치원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제공주기가 비교적 짧은 데 비해, 부모 교육, 부모상담 등 유아가 아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비교적 제공 주기가 길었고, 유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별 경향도 대체로 유사하였다.

29) 전체응답 중 제공안 함 비율과 모름의 비율을 제외한 비율임.

〈표 VII-3-1〉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1년	'18년	'15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교육계획표												
매일	6.4	8.4	8.9	9.7	7.4	8.1	7.6	9.5	8.1	6.7	3.6	4.5
매주 1회	43.3	53.7	53.5	45.4	53.2	47.0	53.5	55.2	50.9	60.9	72.6	67.6
월 1회	46.1	33.4	34.7	42.1	35.1	40.9	34.1	35.3	37.3	28.0	20.8	24.4
분기 1회	1.0	2.1	0.7	0.6	1.5	2.0	0.9	-	1.3	1.1	1.7	1.8
연 1~2회	2.3	1.3	1.2	0.9	1.8	1.5	2.0	-	1.5	2.1	0.9	-
제공 안 함	-	-	-	-	-	-	-	-	-	0.1	0.1	0.3
모름	0.9	1.2	1.0	1.3	0.9	0.6	1.8	-	1.0	1.0	0.3	1.4
급·간식식단												
매일	26.8	27.1	28.2	25.6	28.2	29.2	26.8	23.3	27.4	16.2	6.2	4.6
매주 1회	15.2	18.7	15.2	17.3	16.1	17.1	16.3	14.8	16.5	23.7	37.8	38.2
월 1회	55.7	52.5	55.9	55.9	54.1	52.0	55.8	59.6	54.6	59.3	55.0	55.5
분기 1회	-	-	0.7	-	0.4	0.6	-	-	0.3	-	-	-
연 1~2회	0.1	-	-	-	0.0	0.1	-	-	0.0	0.2	0.5	0.2
제공 안 함	-	-	-	-	-	-	-	-	-	-	0.3	-
모름	2.2	1.7	-	1.3	1.2	1.0	1.0	2.4	1.2	0.6	0.1	1.5
가정통신문												
매일	13.6	11.3	14.6	16.6	11.7	14.4	13.3	8.3	13.2	10.7	8.0	7.9
매주 1회	62.4	73.9	61.5	58.7	69.5	62.2	67.4	75.7	66.2	71.3	80.1	76.2
월 1회	22.8	13.6	21.5	23.5	17.0	21.6	17.2	16.0	19.0	16.0	9.8	13.4
분기 1회	0.3	-	1.5	0.3	0.8	0.7	0.8	-	0.6	0.9	1.3	0.6
연 1~2회	0.4	-	-	-	0.1	0.2	-	-	0.1	0.5	0.5	-
제공 안 함	-	-	-	-	-	-	-	-	-	0.1	0.1	0.2
모름	0.6	1.2	0.9	1.0	0.9	0.8	1.3	-	0.9	0.6	0.2	1.7
자녀발달평가												
매일	4.3	1.0	2.8	3.6	2.1	1.3	4.3	1.1	2.6	2.2	1.1	1.3
매주 1회	3.8	2.8	4.6	2.9	4.1	4.1	3.9	1.9	3.7	4.4	5.9	7.3
월 1회	10.1	12.5	9.5	10.3	10.9	11.1	10.4	10.7	10.8	12.1	11.5	14.0
분기 1회	27.0	22.7	29.9	31.6	24.3	22.3	28.6	34.0	26.5	27.2	29.9	61.9
연 1~2회	24.9	30.2	30.2	25.8	30.1	29.6	29.5	23.6	28.8	26.3	31.1	-
제공 안 함	14.7	20.0	16.1	15.7	17.7	20.0	16.0	11.1	17.1	15.3	12.4	10.2
모름	15.2	10.9	6.9	10.1	10.8	11.6	7.3	17.7	10.6	12.4	8.0	5.3
부모상담												
매일	1.3	0.6	2.2	1.9	1.1	1.4	1.1	2.2	1.4	2.0	1.0	1.0
매주 1회	2.5	1.5	2.5	1.2	2.6	2.0	2.6	1.1	2.2	5.0	1.6	2.9
월 1회	5.2	5.6	7.4	4.1	7.1	5.8	5.7	9.2	6.2	7.8	6.4	5.4
분기 1회	31.3	35.7	31.1	40.1	29.6	33.0	30.9	38.3	32.8	29.2	32.1	84.6
연 1~2회	53.0	52.3	50.8	45.3	54.8	52.8	52.9	45.5	51.9	49.4	54.4	-
제공 안 함	0.9	1.6	2.6	2.9	1.2	1.2	2.5	1.3	1.8	2.6	2.3	2.5
모름	5.9	2.7	3.5	4.5	3.6	3.8	4.3	2.5	3.9	4.0	2.2	3.6
부모교육자료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1년	'18년	'15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매일	3.1	0.8	2.9	2.2	2.2	2.5	1.9	2.2	2.2	2.4	0.9	1.9
매주 1회	11.7	10.8	16.3	11.2	13.9	13.4	12.9	12.7	13.1	15.2	14.0	15.6
월 1회	28.2	29.6	22.0	31.8	24.0	26.6	25.6	28.0	26.4	25.7	20.1	18.8
분기 1회	24.6	24.3	21.8	26.5	22.1	23.6	21.9	27.6	23.4	16.5	20.7	49.1
연 1~2회	18.6	18.0	24.8	18.4	21.7	16.8	25.9	17.0	20.7	16.4	28.2	-
제공 안 함	4.8	7.8	6.0	2.8	7.9	8.3	4.9	4.4	6.3	10.0	9.7	7.3
모름	9.0	8.7	6.2	7.1	8.2	8.8	6.8	8.1	7.9	13.7	6.4	7.4
부모참여 프로그램												
매일	3.0	0.9	2.9	1.9	2.3	2.5	2.2	1.1	2.2	2.5	0.6	0.6
매주 1회	2.5	2.9	5.7	4.1	3.7	5.1	2.5	4.2	3.8	3.9	1.9	4.0
월 1회	15.8	13.2	9.6	20.1	9.3	13.2	11.3	14.6	12.6	10.6	7.2	7.7
분기 1회	29.5	28.2	26.8	30.2	27.0	25.5	31.5	24.9	28.0	17.3	30.8	78.0
연 1~2회	36.8	46.2	46.6	36.1	47.2	41.2	45.4	47.7	43.8	26.5	50.5	-
제공 안 함	1.5	3.2	2.5	2.0	2.7	2.8	2.7	0.4	2.5	20.0	5.1	4.5
모름	10.8	5.5	6.0	5.6	7.8	9.6	4.5	7.2	7.1	19.3	3.8	5.1
양방향 알림장												
매일	38.0	36.8	40.4	41.5	37.1	38.1	39.8	35.6	38.5	38.7	43.3	-
매주 1회	28.3	28.5	25.5	26.9	27.5	21.2	30.5	37.6	27.3	22.0	18.6	-
월 1회	10.2	8.9	10.3	11.7	8.9	11.6	8.4	8.2	9.8	7.2	3.6	-
분기 1회	1.6	1.5	2.3	1.2	2.1	2.1	2.1	-	1.8	1.5	3.3	-
연 1~2회	0.7	2.0	1.3	1.6	1.3	1.9	0.7	2.2	1.4	1.3	1.3	-
제공 안 함	14.4	15.0	14.5	13.1	15.3	16.5	13.0	13.4	14.6	21.8	23.7	-
모름	6.8	7.4	5.8	4.1	7.7	8.6	5.7	3.1	6.6	7.5	6.3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08~409. <표 VII-3-1>.

유치원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율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 모두 만족한다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이전 조사에서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만 만족한다는 비율이 80% 이상이었던데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유치원 유형별로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가 4.2점~4.4점으로 높고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제공’과 ‘가정통신문’은 평균 4.4점, ‘양방향 알림장’은 평균 4.3점,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과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4.2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VII-3-2〉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계획 표	급간 식식 단	가정 통신 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 그램	양방 향알 림장	계획 표	급간 식식 단	가정 통신 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 그램	양방 향알 림장
전체	93.1	92.4	92.6	85.8	86.3	84.5	86.0	86.9	4.4	4.4	4.4	4.2	4.2	4.2	4.2	4.3
국·공립	91.4	91.9	89.7	83.1	85.6	83.1	86.1	87.8	4.4	4.4	4.3	4.2	4.2	4.2	4.2	4.3
사립	93.8	92.6	93.9	87.0	86.6	85.1	86.0	86.5	4.4	4.3	4.4	4.2	4.2	4.2	4.2	4.2
(수)	(785)	(783)	(784)	(561)	(750)	(672)	(714)	(620)	(785)	(783)	(784)	(561)	(750)	(672)	(714)	(620)
2021년	84.4	83.6	83.2	76.8	71.8	70.6	70.1	77.2	4.2	4.2	4.1	4.0	3.9	3.9	3.9	4.1
2018년	85.0	81.7	84.7	75.2	70.1	68.2	71.2	76.7	4.1	4.0	4.0	3.9	3.8	3.8	3.9	3.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0. 〈표 VII-3-2〉.

나. 건강검진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0%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77.4%, 2021년 73.7%의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많이 상승한 결과이다. 연령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3세 84.5%, 4세 80.1%, 5세 87.4%로 5세가 가장 많았고,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아동이 83.5%, 사립유치원 아동이 84.3%로 유사하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81.9%, 중소도시 86.2%, 읍·면지역 84.1%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VII-3-3〉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관리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1년	'18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4.5	80.1	87.4	83.5	84.3	81.9	86.2	84.1	84.0	73.7	77.4
받지 않음	14.3	18.1	10.9	14.8	14.3	15.7	13.0	14.7	14.4	24.9	19.6
잘 모름	1.2	1.7	1.7	1.8	1.5	2.4	0.7	1.2	1.6	1.4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4)	(277)	(281)	(252)	(540)	(387)	(305)	(100)	(792)	(1,041)	(1,005)
$\chi^2(df)$	6.5(4)			0.1(2)		6.0(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0. 〈표 VII-3-3〉.

한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치원으로부터 사전 안내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가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도 11.3%나 되었다. 건강검진 안내를 받았다는 비율은 2018년 81.0%, 2021년 81.3%, 2024년 8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은 89.5%, 사립유치원은 81.0%가 건강검진을 안내받아 국·공립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비율이 더 많았고, 국·공립유치원은 8.0%, 사립유치원은 12.7%가 건강검진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응답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VII-3-4〉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1년	‘18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2.2	80.9	87.1	89.5	81.0	79.8	87.0	85.1	83.6	81.3	81.0
받지 않음	13.8	11.8	9.0	8.0	12.7	14.9	8.3	8.8	11.3	13.5	12.5
잘 모름	3.9	7.3	3.9	2.5	6.3	5.2	4.7	6.1	5.1	5.3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4)	(277)	(281)	(252)	(540)	(387)	(305)	(100)	(792)	(1,041)	(1,005)
$\chi^2(df)$	7.3(4)			9.9(2)**		9.2(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1. 〈표 VII-3-4〉.

** $p < .01$.

4.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여부를 살펴본 결과, 예능(미술, 음악 등) 85.0%, 체육관련 88.2%, 수학/과학 관련 64.4%, 영어 83.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63.5%, 기타 15.1% 순이었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운영 비율(93.7%)이 국·공립유치원(91.3%)보다 더 높았고, 예능이나 체육관련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학/과학관련(72.2%), 영어(87.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70.5%) 등 학습위주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4-1〉 유치원 유형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없음	(수)
전체	85.0	88.2	64.4	83.4	63.5	15.1	7.0	(792)
국·공립	83.1	86.6	46.4	74.5	47.6	15.3	8.7	(252)
사립	85.9	88.8	72.2	87.2	70.5	15.0	6.3	(54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이용프로그램 개수 및 종류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3.7개로 2018년 2.9개, 2021년 2.6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5개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개 16.1%, 3개 13.2%, 2개 9.2%, 1개 5.9% 순이었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세는 평균 3.5개, 4세는 3.8개, 5세는 3.8개 참여하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 유치원 이용 유아는 3.8개, 중소도시는 3.6개, 읍·면지역은 3.9개였으나, 연령별, 지역규모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균 3.2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3.9개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보다 특성화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2〉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평균	2021년	2018년
전체	10.9	5.9	9.2	13.2	16.1	44.6	100.0(792)	3.7	2.6	2.9
보육연령										
3세	14.3	7.1	7.3	17.1	17.2	37.1	100.0(234)	3.5	2.8	2.8
4세	11.2	4.4	9.4	12.0	17.0	46.0	100.0(277)	3.8	2.6	2.9
5세	8.1	6.6	10.4	11.7	14.5	48.8	100.0(281)	3.8	2.5	3.0
$\chi^2(df)/F$	14.8(10)							2.3	3.2*	0.4
지역규모										
대도시	10.7	4.3	9.9	14.4	12.4	48.3	100.0(387)	3.8	2.8	3.0
중소도시	11.9	8.3	9.0	13.8	15.7	41.3	100.0(305)	3.6	2.4	2.8
읍·면	8.3	3.7	7.6	7.5	29.9	43.1	100.0(100)	3.9	2.6	2.8
$\chi^2(df)/F$	26.4(10)**							1.3(a)	3.4*	1.1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평균	2021년	2018년
유치원 유형										
국·공립	13.6	6.8	14.3	11.3	23.8	30.1	100.0(252)	3.2	1.9	2.3
사립	9.7	5.5	7.0	14.0	12.7	51.0	100.0(540)	3.9	2.9	3.1
$\chi^2(df)/t$	43.4(5)**							-4.8**	-7.2**	-6.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3. <표 VII-4-2>.

* $p < .05$, ** $p < .00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종류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예능(미술, 음악 등)이 76.4%, 체육관련 프로그램 78.4%, 영어가 75.0%로 다소 높았고,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53.8%,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이 52.4%, 기타가 11.1%로 상대적으로 이용 비율이 낮았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2018년, 2021년 이전조사와 비교하여 대체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예능, 체육, 영어는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이용 비율을 보였고,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3세 45.0%, 4세 56.0%, 5세 58.1%, 언어 프로그램이 3세 47.2%, 4세 52.3%, 5세 56.3%로 연령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참여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유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유아의 학습위주 특성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용비율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I-4-3>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없음
전체	76.4	78.4	53.8	75.0	52.4	11.1	10.9
보육연령							
3세	71.6	73.7	45.0	73.6	47.2	13.1	14.3
4세	77.2	82.5	56.0	75.9	52.3	8.4	11.2
5세	78.9	77.8	58.1	75.0	56.3	12.3	8.1
지역규모							
대도시	78.0	78.5	57.1	78.6	53.8	10.9	10.7
중소도시	72.6	75.4	48.6	70.1	50.0	12.3	11.9
읍·면	83.1	87.9	59.9	78.7	55.6	7.9	8.3
유치원 유형							
국·공립	73.5	78.6	37.1	68.2	35.7	11.3	13.6
사립	77.6	78.3	61.2	77.9	59.7	11.1	9.7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없음
(수)	(611)	(627)	(405)	(562)	(399)	(86)	(91)
2021년	56.8	56.5	35.5	51.3	33.6	8.6	-
2018년	65.9	62.0	37.4	49.0	38.5	10.5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4. <표 VII-4-3>.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1주일 이용횟수를 조사하였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1주일 동안 이용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주일 평균 전체 프로그램의 이용 횟수는 평균 5.6회로 최소 1회에서 최대 25회까지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가 1주일 평균 1.7회로 가장 많았고, 영어가 1.6회, 예능(미술, 음악 등)과 수학/과학 관련이 1.4회, 체육관련이 1.3회 순이었다. 유치원 유형별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이용 횟수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이용횟수보다 더 많았다. 특히 주당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횟수는 2015년 3.5회, 2018년 4.9회로, 2021년 5.2회, 2024년 5.6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VII-4-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단위: 회, (명)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국·공립	사립	t	
전체	5.6	3.8	4.3	6.1	-7.5***	(701)
예능(미술, 음악)	1.4	0.8	1.3	1.4	-2.6**	(611)
체육관련	1.3	0.8	1.2	1.3	-2.4*	(627)
수학/과학 관련	1.4	0.9	1.2	1.4	-2.7**	(40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7	1.2	1.2	1.8	-7.1***	(562)
영어	1.6	1.2	1.2	1.7	-4.2***	(399)
기타	1.2	0.6	1.1	1.2	-0.8	(86)
2021년	5.2	3.6	4.3	5.5	-4.6***	(782)
2018년	4.9	3.1	3.9	5.2	-5.8***	(800)
2015년	3.5	2.0	3.7	3.5	0.9	(664)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4년에는 질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주일에 몇 회 이용합니까?'로 문항을 일부 수정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6. <표 VII-4-5>.
 * $p < .05$, ** $p < .01$, *** $p < .001$.

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절반가량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규모에서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참여시 이용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30% 미만(기타 제외)으로 50% 이상인 대도시와 중소도시 유아에 비해 비용부담 비율이 낮았다.

〈표 VII-4-5〉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 비율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		(수)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사립	
예능(미술, 음악)	53.3	53.0	49.9	54.5	57.8	26.6	36.4	58.3	(611)
체육관련	50.6	52.7	46.6	51.9	56.7	24.9	36.2	55.9	(627)
수학/과학 관련	58.7	54.5	49.6	54.9	60.7	29.6	35.9	58.1	(405)
영어	56.7	59.2	54.5	59.0	63.8	29.0	43.5	61.9	(56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2.9	50.5	45.2	50.6	57.9	17.4	31.4	53.5	(399)
기타	82.4	65.6	65.1	68.4	79.0	39.3	57.6	76.5	(8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은 1만1,700원에서 2만 8,900원까지 다양하였다. 기타를 제외하면 영어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이 월평균 1만 9,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1만4,700원, 예능(미술, 음악 등) 1만 3,500원, 수학/과학 관련 1만2,500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만1,700원 순이었다. 특히 영어 프로그램의 월평균 비용은 2018년 3만500원, 2021년 2만4,200원으로 이용비용이 가장 컸으나, 2024년에는 다소 낮아졌다.

〈표 VII-4-6〉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2024년			2021년			2018년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예능(미술, 음악)	13.5	23.4	270.0	18.1	29.5	240.0	27.1	24.9	4.0	200.0	(611)
체육관련	14.7	25.4	270.0	13.1	20.0	150.0	22.4	18.9	3.0	180.0	(627)
수학/과학 관련	12.5	20.5	130.0	13.5	18.8	150.0	22.1	17.8	3.0	200.0	(405)
영어	19.5	39.7	300.0	24.2	33.3	250.0	30.5	28.3	3.0	250.0	(56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1.7	19.7	135.0	14.8	28.2	310.0	23.9	24.3	2.0	320.0	(399)
기타	28.9	75.8	999.0	23.8	37.6	230.0	26.1	22.3	2.0	150.0	(86)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17. 〈표 VII-4-7〉.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월평균 지불 비용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본다. 연령별로는 예능(미술, 음악)프로그램의 비용에서 3세의 경우 평균 1만7,500원, 4세 1만800원, 5세 1만3,400원으로 4세가 가장 낮았고, 체육관련 프로그램 비용은 3세 1만7,400원, 4세 1만6,700원, 5세 1만600원으로 5세 비용이 가장 낮았다. 또한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프로그램 비용은 3세 1만6,900원, 4세 9,500원, 5세 1만500원으로 3세 비용이 4,5세 비용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모든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이용비용이 높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유사한 반면 읍·면지역 이용비용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치원 유형별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월평균 이용 비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보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으로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7〉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13.5	14.7	12.5	19.5	11.7	28.9
보육연령						
3세	17.5	17.4	15.3	21.0	16.9	35.2
4세	10.8	16.7	10.9	20.0	9.5	23.1
5세	13.4	10.6	12.3	18.0	10.5	27.9
<i>F</i>	3.8 ^{***} (a)	4.7 ^{***} (a)	1.4	0.3	4.8 ^{***} (a)	0.2
지역규모						
대도시	15.5	18.1	15.9	22.6	13.4	22.3
중소도시	14.5	13.0	11.8	20.8	12.9	39.5
읍·면	4.0	8.7	3.1	5.2	2.5	5.4
<i>F</i>	8.6 ^{***} (a)	5.6 ^{***} (a)	9.8 ^{***} (a)	6.4 ^{***} (a)	7.6 ^{***} (a)	0.9
설립유형						
국·공립	7.9	7.6	6.1	8.9	6.4	18.6
사립	15.8	17.7	14.1	23.6	13.1	33.4
<i>t</i>	-5.0 ^{***}	-6.1 ^{***}	-5.0 ^{***}	-6.2 ^{***}	-4.0 ^{***}	-0.8
(수)	(611)	(627)	(405)	(562)	(399)	(86)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에 지불되는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비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총액 기준 무료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5~10만원을 지출한다는 경우가 26.5%에 해당하였고, 10~15만원 미만 지출 9.3%, 3~5만원 미만 지출 8.2%, 20만원 이상 6.7%, 15~20만원 3.2% 순이었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월평균 총 비용은 전체 평균은 10만1,500원이었다. 유치원 이용 아동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은 2015년 7만5,400원, 2018년 8만3,600원으로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등으로 2021년 5만7,700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10만1,5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3세가 11만9,900원, 4세가 9만5,400원, 5세가 9만4,600원이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평균 총 지출액이 대도시 11만5,100원, 중소도시 9만2,100원, 읍·면지역 7만1,500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11만300원으로 국·공립유치원 6만8,300원에 비해 4만2,000원 더 높게 나타나 유치원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VII-4-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수)	지불 시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0	0.8	0.8	2.5	8.2	26.5	9.3	3.2	6.7	(701)	101.5	96.2
보육연령												
3세	41.3	1.2	0.3	1.8	4.8	26.6	9.4	4.4	10.3	(200)	119.9	115.5
4세	40.5	1.3	0.5	1.3	11.3	27.7	9.8	2.6	4.9	(245)	95.4	84.4
5세	43.8	-	1.5	4.1	7.7	25.2	8.9	2.8	6.0	(256)	94.6	91.3
$\chi^2(df)/F$					25.1(16)						2.7(a)	
지역규모												
대도시	38.9	0.3	0.9	2.0	8.3	24.6	11.6	4.4	8.8	(343)	115.1	111.0
중소도시	35.9	1.4	0.5	3.8	8.6	31.6	9.2	2.3	6.7	(267)	92.1	83.8
읍·면	71.4	-	1.4	-	6.7	16.5	2.3	1.6	-	(91)	71.5	34.3
$\chi^2(df)/F$					56.2(16)						4.2(a)	
유치원 유형												
국·공립	58.5	-	0.8	2.5	6.5	28.6	1.4	0.3	1.4	(220)	68.3	34.1
사립	35.1	1.1	0.8	2.5	9.0	25.6	12.6	4.3	8.9	(481)	110.3	105.2
$\chi^2(df)/t$					61.6(8)						-6.1**	
2021년	37.7	2.2	2.3	4.2	9.2	20.1	12.1	7.1	5.1	(782)	57.7	79.3
2018년	-	-	3.2	9.6	18.4	34.9	21.1	6.7	6.1	(800)	83.6	66.5
2015년	6.4	1.4	1.2	7.5	18.8	38.8	19.2	4.8	1.9	(560)	75.4	47.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19-420. 〈표 VII-4-9〉.

* $p < .05$, *** $p < .001$.

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만족도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활동에 따라 4.1점에서 4.3점 사이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조사인 2018년과 2021년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만족도(4.1점)와 비교하면 2024년 만족도는 다소 높아졌다.

〈표 VII-4-9〉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4.2	4.3	4.3	4.2	4.3	4.1
국공립	4.2	4.2	4.3	4.3	4.3	4.1
사립	4.3	4.3	4.3	4.2	4.3	4.2
<i>t</i>	-0.1	-0.5	0.5	0.6	0.2	-0.6
(수)	(611)	(627)	(405)	(562)	(399)	(86)
2021년	4.2	4.2	4.2	4.1	4.1	4.1
2018년	4.0	4.0	3.9	3.9	3.9	4.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24년에는 질문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특별활동에 만족하십니까'로 문항을 일부 수정함.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18). p. 421. 〈표 VII-4-10〉.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예능(미술, 음악 등)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 23.0%, 영어 22.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9.0%, 수학/과학관련 3.5% 순이었다. 연령별, 지역규모별, 유치원 유형에 관계없이 예능(미술, 음악 등)의 선호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육과 영어 비율 또한 비슷한 선호수준을 보였다.

〈표 VII-4-10〉 유치원 이용 유아 특성별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계(수)
전체	30.4	23.0	3.5	22.7	19.0	1.4	100.0(702)
보육연령							
3세	29.8	25.1	1.7	23.7	18.8	0.9	100.0(200)
4세	28.0	21.8	3.8	25.6	20.3	0.4	100.0(246)
5세	33.0	22.8	4.3	19.4	17.9	2.5	100.0(256)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8.0	21.8	4.4	25.7	19.0	0.9	100.0(344)
중소도시	32.9	24.2	2.9	20.2	17.6	2.2	100.0(267)
읍·면	30.2	23.5	2.2	20.7	23.5	-	100.0(91)
유치원 유형							
국·공립	31.9	28.4	2.4	20.8	15.1	1.4	100.0(221)
사립	29.7	20.8	3.9	23.5	20.7	1.4	100.0(48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가. 유치원 만족도

유치원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만족수준은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매우 만족+만족)이 91.7%였고, 5점 척도로 환산하면 4.3점이었다. 세부 항목 중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95.9%)였으며, 다음으로 생활지도(95.8%), 교육내용(95.3%), 안전관리(95.0%), 내부 분위기(94.9%), 건강관리(92.7%), 원장(91.7%), 교재교구 및 장비와 부모참여 및 교육이 90.7%, 급간식 관리(89.2%),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88.6%), 주변환경(86.4%), 비용(84.9%) 순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5년 4.0점, 2018년 4.05점, 2021년 4.0점, 2024년 4.3점으로 만족수준이 크게 상승하였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전반적 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이 4.4점, 사립유치원이 4.3점으로 국·공립유치원 만족도가 더 높았다. 국·공립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중 4.5점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4.0점으로 가장 낮아 유형에 따라 비용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에서도 국·공립유치원 만족도가 사립유치원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II-5-1〉 유치원 만족도 비율 및 평균: 5점 척도

단위: %, (명), 점

구분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전체	국·공립	사립	(수)	전체	국·공립	사립	t
원장	91.7	90.5	92.2	(792)	4.3	4.3	4.3	0.1
교사	95.9	94.4	96.5	(792)	4.4	4.4	4.4	-1.1
주변환경	86.4	90.0	84.9	(792)	4.2	4.3	4.2	1.8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88.6	91.1	87.5	(792)	4.2	4.3	4.2	2.6**
교재교구 및 장비	90.7	93.5	89.5	(792)	4.3	4.4	4.2	3.2**
내부 분위기	94.9	95.6	94.6	(792)	4.3	4.4	4.3	0.6
비용	84.9	96.5	79.8	(792)	4.2	4.5	4.0	7.9***
건강관리	92.7	95.2	91.5	(792)	4.3	4.4	4.2	3.0**
급간식 관리	89.2	91.0	88.5	(792)	4.3	4.3	4.2	2.1*
안전관리	95.0	95.3	94.8	(792)	4.4	4.4	4.3	1.2
교육내용	95.3	94.9	95.5	(792)	4.4	4.4	4.4	0.3
생활지도	95.8	95.3	95.9	(792)	4.4	4.4	4.3	1.9
부모참여 및 교육	90.7	91.6	90.3	(792)	4.2	4.3	4.2	0.8
전체 평균	91.7	93.4	90.9	(792)	4.3	4.4	4.3	7.1***
2021년	76.7	78.4	76.0	(1,041)	4.0	4.0	4.0	-
2018년	81.1	87.7	78.3	(1,005)	4.05	4.21	3.98	-
2015년	78.6	83.2	77.1	(742)	4.00	4.10	4.00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3)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외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내부 분위기' 추가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22. 〈표 VII-5-1〉.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 만족도를 제 특성에 따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 만족도는 연령 및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4.3점 수준이었고,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휴직 중인 모의 경우 4.2점, 이외는 4.3점으로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육연령별로 살펴 보면, 급간식 관리 만족도는 3세와 4세가 4.2점, 5세는 4.4점, 교육내용 만족도는 3세가 4.4점, 4세가 4.3점, 5세가 4.5점으로 급간식 관리, 교육내용 만족도에서 연령별 만족도 차이가 유의하였고, 이외 항목의 연령별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비용 만족도가 대도시가 4.1점, 중소도시가 4.2점, 읍·면지역이 4.4점으로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 차이를 보였고, 이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5-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보육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F
원장	4.2	4.3	4.3	0.5	4.3	4.3	4.3	0.2	4.3	4.3	4.3	4.5	0.3
교사	4.4	4.3	4.4	1.4	4.4	4.4	4.4	0.1	4.4	4.3	4.4	4.1	1.0(a)
주변환경	4.2	4.2	4.2	0.7	4.2	4.2	4.3	1.2	4.2	4.1	4.2	4.3	0.4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4.2	4.2	4.2	0	4.2	4.3	4.3	0.8	4.2	4.2	4.3	4.3	1.5
교재교구 및 장비	4.3	4.2	4.3	0.8	4.2	4.3	4.4	2.5	4.2	4.3	4.3	4.4	0.9
내부 분위기	4.3	4.3	4.4	0.6	4.3	4.4	4.4	0.1	4.3	4.3	4.4	4.3	0.7
비용	4.1	4.1	4.2	3.0	4.1	4.2	4.4	4.8**	4.1	4.1	4.2	4.1	1.4
건강관리	4.3	4.2	4.3	2.6	4.3	4.3	4.3	0.3	4.3	4.2	4.3	4.2	0.3
급간식 관리	4.2	4.2	4.4	4.2*	4.2	4.3	4.3	1.8	4.2	4.2	4.3	4.2	0.6
안전관리	4.3	4.3	4.4	0.5	4.3	4.3	4.4	1.0	4.4	4.3	4.4	4.1	0.6(a)
교육내용	4.4	4.3	4.5	4.4*	4.4	4.4	4.4	0.1	4.4	4.4	4.4	4.3	0.1
생활지도	4.4	4.3	4.4	3.0	4.3	4.4	4.4	1.0(a)	4.4	4.3	4.4	4.6	1.2
부모참여 및 교육	4.3	4.2	4.3	1.7	4.2	4.2	4.3	0.1	4.2	4.2	4.3	3.9	1.4
전체 평균	4.3	4.3	4.3		4.3	4.3	4.3		4.3	4.2	4.3	4.3	
(수)	(234)	(277)	(281)		(387)	(305)	(100)		(443)	(63)	(280)	(6)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3)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내부 분위기' 추가

4)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나. 유치원 개선요구

유치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우선순위 2가지를 조사하였다.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후시설 정비' 17.1%, '인력증원' 16.8%, '인력의 질 제고' 9.7%, '비용 절감'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내용 다양화' 요구 비율이 27.4%로 가장 많은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노후시설 정비' 요구 비율이 22.0%로 가장 많아 요구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은 27.4%, 사립유치원은 16.0%였고, '노후시설 정비' 요구 비율은 국·공립유치원 5.9%, 사립유치원은 22.0%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은 대도시는 '노후시설 정비' 요구 비율이 20.3%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육내용 다양화'가 각각

23.9%,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 ‘비용 절감’에 대해 요구 비율이 대도시는 10.8%로, 중소도시 5.9%, 읍·면지역 5.5%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VII-5-3〉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인력 증원	17.5	16.5	17.7	17.1	12.9	16.8
인력의 질 제고	8.6	10.1	9.9	11.0	4.5	9.7
노후시설 정비	5.9	22.0	20.3	14.2	15.6	17.1
내부환경 개선	5.4	4.9	5.7	4.3	5.2	5.0
비용 절감	4.4	9.6	10.8	5.9	5.5	8.0
회계투명성	0.9	1.8	1.7	1.8	0.5	1.6
안전관리 강화	7.8	5.2	3.9	6.8	10.1	6.0
교육내용 다양화	27.4	16.0	15.0	23.9	20.2	19.5
영양 및 급식 수준	9.3	4.8	7.2	4.4	8.5	6.2
아동학대 예방	4.0	1.6	2.7	1.2	5.4	2.4
기타	8.9	7.4	5.0	9.6	11.9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540)	(387)	(305)	(100)	(79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회계투명성’, ‘영양 및 급식수준’, ‘아동학대 예방’, ‘기타’ 문항을 추가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시사점

본 장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3~5세)의 기관 이용 특성, 이용비용, 제공 서비스,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유치원 이용 및 요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이용률은 여전히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높은 상황이나, 유아교육의 국가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정책 등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확대되면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이용의 주된 이유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외에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비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 재원 중 초등학교의 환경을 미리 접할 수 있고, 국·공립유치원이 사

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학교처럼 체감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이용 부모들의 초등학교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감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유초 이음교육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유치원 이용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이용시간이나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취업모의 경우 자녀를 오전 8시 이전에 유치원에 등원하는 비율이 8.6%였으나,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모인 경우에 8시 이전 등원은 1% 내외로 미미하였고, 하원시간 또한 취업모는 오후 6시 이후가 5.1%인 반면, 미취업모는 0.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유치원에서의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모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유치원 하원을 위해 별도의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 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유아의 유치원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20분이었는데,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7분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시간과 47분 차이가 났고, 부모들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의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27분, 미취업모는 7시간 34분으로 약 1시간가량 차이가 나 취업모의 이용시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유치원 이용에 따른 비용과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유치원 이용에 따른 월평균 총 교육비, 순교육비는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추가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규모별, 모의 취업 여부별로 교육비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의 현장학습비, 행사비, 방과후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 교육돌봄비, 교재비 등 추가비용은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2015년 3.2점, 2018년 3.1점, 2021년 2.9점, 2024년 2.7점으로 비용부담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원비인상률 상한제 등 정부정책 시행과 각종 비용지원정책이 부모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015년 26.0%, 2018년 35.8%, 2021년 49.8%, 2024년 51.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비용지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현상과 함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서비스 투자 및

질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은 93.0%로 매우 높아 거의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예능(미술, 음악 등)(85.0%), 체육관련(88.2%)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이 많긴 하였으나, 영어(83.4%), 수학/과학관련(64.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63.5%)도 상당하였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예능이나 체육관련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학/과학관련(72.2%), 영어(87.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70.5%) 등 학습위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운영 비율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높았고, 프로그램 수, 비용적 측면에서도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더 많았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은 사교육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의 주요 기제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기존의 보육교육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도한 방과후 활동 등이 오히려 아동의 쉼을 방해하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선택 활동으로 부모의 선택이 가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특성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방과후 활동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깊은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학/과학, 영어, 언어 등의 다소 학습 활동 위주로 보이는 교과목이라 할지라도 유아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놀이와 접목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만족도는 유치원 모두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사립유치원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3점으로 높은 수준이나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이 4.3점으로 국·공립유치원 4.4점에 비해 낮았고,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등 다른 항목에서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중 4.5점으로 가장 높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4.0점으로 가장 낮았고,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에서도 만족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사립유치원 원비 부담 등으로 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용 수준에 부합하는 시설 및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VIII.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및 요구

본 장의 논의는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이용 특성, 이용 비용,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특성

가.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특성

현재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기준으로 반일제이상 기관 중 최초로 이용한 기관이 어린이집인 경우가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반일제이상 학원인 경우가 13.1%였으며 유치원인 경우 전혀 없었다. 즉,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대체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에 반일제이상 학원으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이나 2021년 조사를 보면 어린이집이 최초 이용 기관인 경우가 각각 69.7%, 60.3%로,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2024년 조사에서 20%p 이상 상당히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간 어린이집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높아져서 영아기부터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최초 이용 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III-1-1〉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반일제 이상)	계(수)
전체	86.9	-	13.1	100.0 (54)
영유아구분				
영아	59.9	-	40.1	100.0 (5)
유아	89.5	-	10.5	100.0 (49)
$\chi^2(df)$		6.0(1)*		
2021년	60.3	0.7	39.0	100.0 (86)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반일제 이상)	계(수)
2018년	69.7	-	30.3	100.0 (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현재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30~431 <표 VIII-1-1>.
** $p < .01$.

나. 이용 이유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보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준비, 특기교육 순으로 나타난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이 유아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비율이 낮았다.

<표 VIII-1-2>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아이의 전인적 발달	-	100.0	39.6	61.4	57.1	54.6
초등학교 준비	-	-	31.7	14.2	16.9	17.6
특기교육	-	-	8.8	-	20.6	10.0
부모 돌보기 어려워	59.3	-	-	-	-	2.4
사회성 발달	40.7	-	9.4	8.7	5.3	8.4
놀이상대가 없어서	-	-	-	-	-	-
양육 부담 덜기 위해	-	-	-	-	-	-
비용 부담 적어서	-	-	-	-	-	-
기타	-	-	10.5	15.7	-	7.0
(수)	(2)	(3)	(12)	(17)	(20)	(54)
$\chi^2(df)$	69.4(2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인데 비해, 읍면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는 전인적 발달 목적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데 비해 미취업모는 특기교육과 초등 준비를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매우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VIII-1-3〉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47.1	83.9	30.5	59.5	100.0	21.0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21.1	-	69.5	16.3	-	28.5
특기교육을 위하여	8.6	16.1	-	5.4	-	30.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1	-	-	3.2	-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0.9	-	-	7.7	-	13.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	-	-	-	-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	-	-	-	-	-
비용 부담 적어서	-	-	-	-	-	-
기타	9.2	-	-	7.9	-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2)	(9)	(3)	(41)	(4)	(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을 시작한 시기는 49개월이 지난 이후가 6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6개월 이하 연령에서 시작한 경우는 7.4%로 매우 소수임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일제이상 학원은 유아 시기에 대부분 이용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은 1년 이하가 57.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25개월 이상은 10.8%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2년 이하 기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II-1-4〉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시기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시작시기	이용기간
12개월 이하	-	57.5
13~24개월 이하	-	31.7
25~36개월 이하	7.4	10.8
37~48개월 이하	32.1	-
49개월 이상	60.5	-
계(수)	100.0(54)	100.0(5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에는 프로그램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의 응답자의 7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주변의 평판, 비용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6%대에 그쳐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고려 요인인 것으로 조

사됐다. 앞서 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선택 이유는 집과의 거리가 최우선 고려사항(32.8%)이었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이긴 했으나 그 비중이 26.8%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여,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의 이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비율의 선택지로 나타났고 5세의 경우는 비용이 고려 요인이 된다는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았으나 사례수가 적어 의미는 두기는 어렵다. 기존 연도의 결과와 비교하면, '21년 조사 결과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이전 연도들에서 교사를 고려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6.8~13.6%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데 비해, 2024년 조사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선정되지는 않은 차이를 보였다.

〈표 VIII-1-5〉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 고려 요인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21년	'18년	'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원장	-	-	3.1	-	2.6	1.7	1.7	3.9	2.5
교사	-	37.6	-	5.0	-	3.3	6.8	7.7	13.6
운영시간	-	-	-	-	5.3	2.1	-	-	-
비용	-	-	-	-	15.1	6.1	-	-	-
프로그램	59.3	62.4	91.9	65.7	70.2	72.5	71.6	45.1	58.9
기관 학급 규모	-	-	-	-	-	-	3.0	4.0	0.8
실내외환경	40.7	-	-	12.1	-	5.4	5.0	3.5	3.2
안전한 보호	-	-	-	-	-	-	2.5	7.2	-
집과의 거리	-	-	-	2.2	-	0.7	1.0	8.5	7.3
기관 시설·설비	-	-	-	4.6	-	1.4	-	-	-
주변의 평판	-	-	5.0	8.5	6.7	6.3	5.5	7.7	8.2
차량 운행 여부	-	-	-	-	-	-	2.8	-	-
기타	-	-	-	1.9	-	0.6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3)	(12)	(17)	(20)	(54)	(86)	(68)	(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건강영양, 실내환경, 국공립 여부, 주변환경, 특별활동, 형제자매 재원여부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31. 〈표 VIII-1-2〉.

반일제이상 학원을 선택할 때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부모는 비용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 취업 여부별로도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 고려 사항에서는 프로그램을 꼽은 경우가 월등히 높아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나 휴직 중 모의 경우 비용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VIII-1-6〉 지역 및 모 취업 여부에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시 고려 요인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원장	-	4.9	30.5	1.4	9.5	-
교사	4.3	-	-	4.4	-	-
운영시간	2.8	-	-	2.9	-	-
비용	3.4	16.1	-	2.0	18.0	17.3
프로그램	77.3	58.7	36.5	74.1	72.5	66.5
실내외환경	2.1	17.6	-	7.3	-	-
집과의 거리	-	-	33.0	0.9	-	-
기관 시설·설비	1.9	-	-	-	-	7.2
주변의 평판	8.3	-	-	7.0	-	6.0
기타	-	2.8	-	-	-	3.0
계(수)	100.0(42)	100.0(9)	100.0(3)	100.0(41)	100.0(4)	100.0(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건강영양, 기관 학급 규모, 안전한 보호, 국공립 여부, 주변환경, 차량운행여부, 특별활동, 형제자매 자원 여부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요일 및 시각 관련

반일제이상 학원은 모든 연령에서 월~금요일에 100% 이용하고 있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를 통해 반일제이상 학원은 주중에만 운영되는 형태의 사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으며, 토요일 보육, 일요일 보육 등 돌봄의 목적은 거의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주중 이용자가 100%인 상황으로, 아동 및 가구의 제 특성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지역규모 등 가구특성별 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VIII-2-1〉 영유아 구분별 연령별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요일 유형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월요일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영유아구분		보육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화요일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요일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요일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	5.0	5.0	5.0	5.0	5.0	5.0
(수)	(5)	(49)	-	(2)	(3)	(12)	(17)	(20)	(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토요일, 일요일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의 등원 시각을 보면 09:00까지가 57.6%로 과반수를 보이고 09:30까지가 33.0%여서 90% 이상이 9시 30분까지 등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응답자가 3명이었던 2세의 경우에는 09:30까지 등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앞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원시각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더 늦은 시각대에 등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9:00 이전에 등원하는 비중은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여,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등원 시각대는 조금씩 이른 시각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Ⅷ-2-2〉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9:00 이전	100.0	37.6	62.2	47.3	61.3	57.6	50.0	53.5	41.6
9:01~9:30	-	62.4	32.0	33.1	33.3	33.0	37.0	32.4	47.7
9:31 이후	-	-	5.8	19.6	5.3	9.4	13.1	14.1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3)	(12)	(17)	(20)	(54)	(86)	(68)	(4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438 〈표 Ⅷ-2-3〉.

3) 2018년 이전 자료: 이정원 외(2018). p. 490. 〈표 Ⅷ-1-6〉.

반일제이상 학원 등원 시각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오전 9시 이전이 60.5%로 가장 많은 편이었으나 중소도시는 오전 9시 30분이 50.3%로 가장 높은 시간대였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09:30 이전이 취업모는 97.4%로 대부분이었으나 미취업모의 경우는 62.4%

로 등원 시각에 있어 취업-미취업모 간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는 대도시와 취업모 가구에 관측치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계적 차이로 직결시켜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II-2-3〉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등원시각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8:31~9:00	60.5	49.7	33.0	57.1	58.3	59.4
9:01~9:30	28.2	50.3	30.5	40.3	41.7	3.0
9:31~10:00	11.2	-	36.5	2.6	-	3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2)	(9)	(3)	(41)	(4)	(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7:30까지, 7:31~8:00, 8:01~8:30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하원 시각을 보면, 다수인 43.5%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3시부터 4시 사이에 28.7%가 하원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92%가 오후 5시 이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5시 이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연령별로도 전체 하원 시간대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3세의 경우 2~3시보다 3~4시에 하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해석하기에는 사례수가 적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는 오히려 16:01~17:00 하원 비중이 29.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데 반해, 2024년에는 오후 3시 이전 하원 비중이 높아졌으나, 2018년과 비교하여서는 하원 시각이 다소 늦춰진 경향성이 발견된다.

〈표 VIII-2-4〉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하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 이전	-	-	5.8	-	-	1.2	0.9	3.8	-
14:01~15:00	59.3	75.1	24.8	52.9	40.6	43.5	28.4	52.1	17.1
15:01~16:00	40.7	24.9	35.4	23.8	28.4	28.7	36.7	31.4	39.3
16:01~17:00	-	-	34.0	11.3	20.4	18.6	29.6	8.6	20.8

구분	보육연령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17:01 이후	-	-	-	12.1	10.7	8.0	4.4	4.1	2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3)	(12)	(17)	(20)	(54)	(86)	(68)	(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8:01~19:00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실 외(2021). p. 440. <표 VIII-2-5>.

3) 2018년 이전 자료: 이정원 외(2018). p. 490. <표 VIII-1-7>.

대도시의 경우 2~3시 사이에 하원하는 비율이 51.0%로 과반수가 하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중소도시나 읍면의 경우는 오후 3~4시 사이에 하원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하원하는 비율이 61.5%로 같은 구간에서 대도시 경우가 41.9%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0%p가 더 많은 것으로 차이나 하원 시간에 있어 지역에 있어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인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인 경우 51.1%의 가장 높은 비율로 3~4시 사이에 하원하고 100%가 2~4시 사이에 하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39.5%가 2시~3시에 하원하고 이후 오후 5시까지 각 시간대별로 골고루 하원하는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II-2-5〉 지역규모 및 모 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하원시간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14:00 이전	1.5	-	-	1.6	-	-
14:01~15:00	51.0	21.0	-	39.5	72.5	48.9
15:01~16:00	25.2	37.9	63.5	22.8	27.5	51.1
16:01~17:00	16.7	23.6	36.5	25.2	-	-
17:01~17:30	5.6	17.6	-	10.9	-	-
계(수)	100.0(42)	100.0(9)	100.0(3)	100.0(41)	100.0(4)	100.0(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8:01~19:00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 시간은 일일 평균 6시간 24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5~6시간이 51.8%로 가장 많았고, 6~7시간이 24.6%로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7~8시간도 16.9%로 비교적 많았다. 연령별로도 이와 비슷한 이용 시간대 분포를

보였는데, 다만 3세의 경우 8~9시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간에 있어서는 5세와 3세가 6시간 36분으로 평균보다 길었고 4세는 6시간 18분이었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은 전년에 비해 약간 줄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는 한시간 가량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II-2-6〉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보육연령					전체	2021년	2018년	20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	-	5.8	-	-	1.2	0.7	16.5	1.9
5~6시간	59.3	75.1	38.3	58.6	49.9	51.8	39.1	41.9	31.1
6~7시간	40.7	24.9	22.0	26.3	23.0	24.6	39.4	23.1	30.1
7~8시간	-	-	17.2	15.1	21.7	16.9	16.4	15.8	17.6
8시간 이상	-	-	16.8	-	5.3	5.6	4.5	2.6	19.4
계(수)	100.0(2)	100.0(3)	100.0(12)	100.0(17)	100.0(20)	100.0(54)	100.0(86)	100.0(68)	100.0(41)
$\chi^2(df)$	13.1(16)								
평균	5.9	5.8	6.6	6.3	6.6	6.4	6:33	6:12	7:2
표준편차	0.6	0.6	1.3	0.9	1.0	1.0	0:59	1:6	1:12
F	0.9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9~10시간, 10시간 이상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41~442. 〈표 VIII-2-7〉.

3) 2018년 이전 자료 : 이정원 외(2018). p. 491. 〈표 VIII-1-8〉.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평균 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대도시는 6시간 18분으로 평균보다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모의 경우는 6시간 30분을 평균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미취업모나 휴직 중인 모의 경우는 6시간 6분이어서 취업모의 이용 시간이 길었다.

이용 시간대별로 보면 중소도시에서 8~9시간의 장시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16.1%로 대도시 2.8%보다 비교적 긴 것으로 보이고, 취업모의 경우는 30.5%가 7~9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해당 시간만큼 이용하는 미취업모나 휴직 중 모가 전혀 없는 결과(0%)와 비교하면 취업모 자녀가 반일제이상 학원을 훨씬 오래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이면서 취업모인 경우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Ⅷ-2-7〉 지역 및 모 취업 여부에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5시간까지	1.5	-	-	1.6	-	-
5~6시간	56.1	41.3	-	48.3	72.5	57.9
6~7시간	22.4	25.1	100.0	19.7	27.5	42.1
7~8시간	17.1	17.6	-	22.9	-	-
8~9시간	2.8	16.1	-	7.6	-	-
계(수)	100.0(42)	100.0(9)	100.0(3)	100.0(41)	100.0(4)	100.0(9)
$\chi^2(df)$	11.2(8)			9.6(8)		
평균	6.3	7.0	6.7	6.5	6.1	6.1
표준편차	1.0	1.0	0.6	1.1	0.5	0.5
F	3.1			1.5(a)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9~10시간, 10시간 이상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시작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91.8%로, 너무 늦다는 응답에 비해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작시각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연령별로는 5세,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의 경우에 시작 시각이 너무 늦다는 응답이 11~17%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이 73%로 너무 이르다는 응답보다 많이 나왔고 2, 3세보다는 4, 5세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미취업이나 휴직 중 보다는 취업모의 경우에 너무 이르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표 Ⅷ-2-8〉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전체	91.8	8.2	73.0	27.0	(54)
보육연령					
1세	100.0	-	100.0	-	(2)
2세	100.0	-	75.1	24.9	(3)
3세	100.0	-	73.2	26.8	(12)
4세	94.2	5.8	70.7	29.3	(17)
5세	84.0	16.0	71.8	28.2	(20)
지역규모					
대도시	94.1	5.9	75.8	24.2	(42)
중소도시	82.4	17.6	63.6	36.4	(9)
읍·면	100.0	-	69.5	30.5	(3)
모 취업 여부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취업	88.8	11.2	69.7	30.3	(41)
휴직 중	100.0	-	90.5	9.5	(4)
미취업	100.0	-	79.7	20.3	(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시작시간 '너무 이르다', 끝나는 시간 '너무 늦다'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의 희망 등원시각을 보면, 8:31~9:00 사이가 5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9:01~9:30이 16.7%로 2순위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5세의 경우 8시 이전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소수 있었고, 3세 이하 어린 연령에서는 9:31~10:00 사이의 늦은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도 있었다.

〈표 VIII-2-9〉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7:31~8:00	-	-	-	-	14.7	5.9
8:01~8:30	-	-	-	24.9	6.7	10.4
8:31~9:00	40.7	37.6	61.5	50.5	64.0	57.1
9:01~9:30	-	62.4	18.2	20.7	9.3	16.7
9:31~10:00	59.3	-	20.3	3.9	5.3	9.8
계(수)	100.0(2)	100.0(3)	100.0(12)	100.0(17)	100.0(20)	100.0(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7:30까지, 10:01 이후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지역별로는 반일제이상 학원의 희망 등원 시각이 전체 응답 경향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고 중소도시에서 9시 이후 등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정도였다. 모 취업별로도 전체 경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모의 경우 8시 30분 이전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약 6%p 정도 높았으나 9시 30분까지 등원 또한 5%가량 높아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었다.

〈표 VIII-2-10〉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등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7:31~8:00	2.8	17.6	-	8.0	-	-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8:01~8:30	13.6	-	-	14.1	-	-
8:31~9:00	56.8	57.4	69.5	51.2	90.5	68.2
9:01~9:30	14.1	25.1	30.5	21.9	9.5	-
9:31~10:00	12.8	-	-	4.8	-	31.8
계(수)	100.0(42)	100.0(9)	100.0(3)	100.0(41)	100.0(4)	100.0(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7:30까지, 10:01 이후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의 희망 하원 시각은 가장 높은 비율이 구간이 15:01~16:0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16:31~17:00, 16:01~16:30 순이었다. 희망 하원 시각에 있어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3세에서는 4시 이후 하원 희망 비율이 비교적 높고, 4, 5세는 4시 이전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세 연령에서 5시 이후 하원 의향을 가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Ⅷ-2-11〉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하원 시각

단위: %, (명)

구분	보육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	-	5.8	-	-	1.2
14:01~15:00	-	75.1	-	5.0	9.7	8.9
15:01~16:00	59.3	-	-	49.8	49.9	37.8
16:01~16:30	40.7	24.9	22.3	11.7	16.8	17.7
16:31~17:00	-	-	53.0	9.3	12.9	18.8
17:01~17:30	-	-	4.6	12.1	5.3	6.8
17:31~18:00	-	-	14.3	8.3	5.3	7.6
18:00~19:00	-	-	-	3.9	-	1.2
계(수)	100.0(2)	100.0(3)	100.0(12)	100.0(17)	100.0(20)	100.0(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9:00~19:30, 19:31 이후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희망하는 하원 시각을 지역별로 보면 읍면이 도시기역보다 늦게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모는 과반수 이상이 4시 이전 하원을 희망하는 데 비해 취업모의 경우는 4시 이후 하원 희망이 70%를 넘어서서 응답 경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VIII-2-12〉 지역 및 모 취업 여부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하원 시간

단위: %,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14:00까지	1.5	-	-	1.6	-	-
14:01~15:00	10.2	4.9	-	9.2	-	10.8
15:01~16:00	39.2	36.4	-	28.5	90.5	54.6
16:01~16:30	20.2	7.5	30.5	19.5	9.5	13.6
16:31~17:00	14.4	33.6	33.0	21.6	-	14.9
17:01~17:30	4.0	17.6	-	9.3	-	-
17:31~18:00	9.0	-	36.5	10.3	-	-
18:00~19:00	1.6	-	-	-	-	6.0
계(수)	100.0(42)	100.0(9)	100.0(3)	100.0(41)	100.0(4)	100.0(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9:00~9:30, 19:31 이후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의 희망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2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7~8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고, 6~7시간도 28.2%로 높은 편이었다. 8시간 초과만큼을 희망하는 경우는 약 12% 정도였다. 연령별로 보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평균 7시간 24분~7시간 36분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데, 3세의 경우 8~9시간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III-2-13〉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이용 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보육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	-	5.8	-	-	1.2
5~6시간	59.3	75.1	-	13.6	9.7	14.0
6~7시간	-	24.9	25.0	22.1	37.8	28.2
7~8시간	40.7	-	38.1	52.2	47.1	44.4
8~9시간	-	-	31.1	6.3	-	8.3
9~10시간	-	-	-	5.8	5.3	3.9
계(수)	100.0(2)	100.0(3)	100.0(12)	100.0(17)	100.0(20)	100.0(54)
평균	6.6	6.0	7.6	7.5	7.4	7.4
표준편차	0.9	0.8	1.3	0.9	1.0	1.0
F			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0시간 이상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희망하는

이용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응답되었다. 물론 지역별 사례수가 큰 차이가 있어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가 7시간 30분을 희망하고 미취업모는 6시간 56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36분의 차이가 있어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 이용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Ⅷ-2-14〉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반일제이상 학원 희망 이용 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5시간까지	1.5	-	-	1.6	-	-
5~6시간	16.9	4.9	-	16.1	-	10.8
6~7시간	29.5	26.3	-	11.5	90.5	69.6
7~8시간	41.6	52.7	63.5	55.8	9.5	13.6
8~9시간	5.4	16.1	36.5	9.6	-	6.0
9~10시간	5.1	-	-	5.4	-	-
계(수)	100.0(42)	100.0(9)	100.0(3)	100.0(41)	100.0(4)	100.0(9)
평균	7.2	7.7	8.1	7.5	7.0	6.9
표준편차	1.1	0.6	1.3	1.1	0.1	0.7
F		1.5			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0시간 이상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

학원으로 대표되는 반일제이상 학원의 월 이용비용은 평균 147만7,4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는 가구소득 대비 16.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당 비용 중 순교육·보육비는 108만8,000원이고 38만9,300원은 추가비용에 해당한다.

〈표 Ⅷ-3-1〉 반일제이상 학원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477.4	1088.0	389.3	(54)	16.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1세와 2세 등 낮은 연령에서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유아기에는 4세가 151만4,9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였다. 3세와 5세는 전체 평균보다 총비용이 낮았으나 나머지 연령은 평균보다 높았다. 사례수는 적은 경우이나 1세의 경우 총비용에서 순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는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II-3-2〉 연령별 월평균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F
총비용	1,725.4	1,638.0	1,423.4	1,514.9	1,432.3	1,477.4	0.2
순보육비	1,618.7	1,265.2	972.8	1,026.0	1,120.8	1,088.0	0.9(a)
(수)	(2)	(3)	(12)	(17)	(20)	(54)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대도시가 152만7,400원으로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상당히 높은데 이는 순보육·교육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추가비용은 오히려 읍면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도시지역은 15~16% 수준인 데 비해 읍면은 20.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모 가구(142만7,800원)보다는 미취업모(158만7,800원)나 휴직모(162만4,900원) 가구에서 지불하는 이용비용이 높았고,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취업모는 13.4%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모의 경우는 20~24% 이상으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의 비율은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 구분한 집단별 비교를 보면, 400만원 이하 가정에서는 90만원대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130만원 내지 150만원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31%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3.3%에 해당하여 소득 대비 비용 지출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II-3-3〉 제 특성별 월평균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

단위: 천원, (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477.4	1,088.0	389.3	(54)	16.2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1,527.4	1,162.5	365.0	(42)	16.3
중소도시	1,306.5	863.9	442.6	(9)	15.3
읍·면	1,382.9	638.1	744.8	(3)	20.7
<i>F</i>	0.7	2.0	0.7(a)		0.2
모 취업 여부					
취업	1,427.8	987.4	440.4	(41)	13.4
휴직 중	1,587.8	1,356.2	231.7	(4)	20.7
미취업	1,624.9	1,372.6	252.3	(9)	24.4
<i>F</i>	0.6	3.1(a)	1.4(a)		9.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	-	-	-	-
300~349만원	930.0	880.0	50.0	(1)	31.0
350~399만원	900.0	700.0	200.0	(1)	25.7
400~499만원	-	-	-	-	-
500~599만원	1,446.6	1,077.6	369.0	(8)	27.6
600~699만원	1,395.9	1,269.2	126.7	(3)	21.8
700만원 이상	1,511.0	1,071.5	439.5	(40)	13.3
모름/무응답	1,300.0	1,300.0	-	(1)	-
<i>F</i>	0.2	0.2(a)	1.0		7.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항목별로 월평균 추가 비용을 살펴보면, 방과후특성화비가 10만9,500원, 현장학습비가 7만8,900원, 교재비가 7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특성화비나 급간식비, 교재비 등 추가 교육비는 읍·면지역에서 도시에 비해 평균 비용이 높았다.

〈표 Ⅷ-3-4〉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평균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교육 돌봄비	교재비	(수)
전체	78.9	109.5	72.9	49.0	79.0	(54)
지역규모						
대도시	72.1	115.5	70.2	30.6	76.5	(42)
중소도시	102.3	58.3	79.3	119.9	82.7	(9)
읍·면	87.7	415.5	106.2	-	135.4	(3)
<i>F</i>	0.3	2.7(a)	0.1	3.4*(a)	0.3(a)	
모 취업 여부						
취업	94.9	113.3	77.0	66.6	88.6	(41)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비용	방과후 특성화비	급간식비	방과후교육 돌봄비	교재비	(수)
휴직 중	25.6	173.9	-	-	32.2	(4)
미취업	37.2	73.9	82.2	-	59.0	(9)
F	1.3(a)	0.6	1.4(a)	2(a)	1.1(a)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비용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는 부담감을 보면 5점 척도에서 평균 3.9점으로, 보통 이상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여서 다수의 가정에서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6%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연령별로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평균 점수 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4세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3세 연령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와 읍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대도시의 경우는 24.9%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을 하여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모 가구에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5점 척도 기준 4.0점으로 미취업모 3.9점, 휴직 중 3.4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비용이 적당하다고 보는 비율에서 미취업모는 20.8%인데 비해 취업모는 24.5%여서 부담을 더 느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앞서 분석에서, 취업모 가구가 지출하는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은 미취업모 가구보다 낮고 가구소득 대비 비중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는 취업모 가구가 더 많은 결과가 나와서 실제 지출과 이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III-3-5〉 반일제이상 학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함	평균	계(수)
전체	19.1	54.9	26.0	3.9	(54)
보육연령					
1세	-	100.0	-	4.0	(2)
2세	37.6	24.9	37.6	4.0	(3)
3세	38.9	20.4	40.6	4.0	(12)
4세	7.5	71.6	20.9	3.9	(17)
5세	17.8	58.4	23.8	3.9	(20)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함	평균	계(수)
$\chi^2(df)/F$	14.2(8)			0.1(a)	
지역규모					
대도시	24.9	49.1	26.0	4.0	(42)
중소도시	-	71.5	28.5	3.7	(9)
읍·면	-	100.0	-	4.0	(3)
$\chi^2(df)/F$	7.1(4)			1.0	
모 취업 여부					
취업	22.0	53.6	24.5	4.0	(41)
휴직 중	-	41.7	58.3	3.4	(4)
미취업	14.9	64.3	20.8	3.9	(9)
$\chi^2(df)/F$	4.4(4)			1.6	
2015년	20.6	53.5	17.4	-	(41)
2018년	8.8	62.3	27.4	-	(68)
2021년	22.4	57.2	19.0	-	(8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21년에는 '부담되지 않음'이 0.5%, '전혀 부담되지 않음'이 0.9%, '18년에는 '부담되지 않음'이 1.5%, '전혀 부담되지 않음'은 응답자 없음. '15년에는 '부담되지 않음'이 0.8%, '전혀 부담되지 않음'이 7.6%이었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51~452. <표 VIII-3-5>.

반일제이상 학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29.2%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추가 부담할 경우 최대 40만원, 평균 13만8,4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부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서만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8.1% 나왔다. 취업모는 30.9%가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미취업모는 13.3%만이 추가부담 의사를 표명하였다.

추가부담을 하고자 할 경우 연령별로 보면 3세에서 23만2,400원을 제시하여 가장 높은 비용 지불 의사를 나타냈고, 취업모는 14만4,300원 정도의 지불 의사가 있었다.

<표 VIII-3-6>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수)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29.2	70.8	(54)	138.4	121.4	1.0	400.0	(19)
보육연령								
1세	-	100.0	(2)	-	-	-	-	-
2세	62.4	37.6	(3)	192.4	179.9	30.0	300.0	(2)
3세	36.2	63.8	(12)	232.4	135.6	100.0	400.0	(5)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4세	35.2	64.8	(17)	105.5	103.4	1.0	300.0	(6)
5세	20.2	79.8	(20)	78.1	69.8	20.0	200.0	(6)
$\chi^2(df)/F$	5.4(4)			2.3				
지역규모								
대도시	38.1	61.9	(42)	138.4	121.4	1.0	400.0	(19)
중소도시	-	100.0	(9)	-	-	-	-	-
읍·면	-	100.0	(3)	-	-	-	-	-
$\chi^2(df)/F$	9.6(2)**			-				
모 취업 여부								
취업	30.9	69.1	(41)	144.3	122.6	20.0	400.0	(15)
휴직 중	58.3	41.7	(4)	31.5	56.3	1.0	100.0	(2)
미취업	13.3	86.7	(9)	245.5	70.8	200.0	300.0	(2)
$\chi^2(df)/F$	4.2(2)			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등·하원 방법 및 소요 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은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81.2%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호자와 걸어서 10.7%, 자가용 이용 8.1% 수준이었다. 등원 방법은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79.7~82.8%였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63.5%이고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36.5%에 지나지 않았다. 단,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는 대도시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II-4-1〉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보호자와 걸어서	계(수)
전체	81.2	8.1	10.7	100.0(54)
지역규모				
대도시	82.8	3.2	13.9	100.0(42)
중소도시	79.7	20.3	-	100.0(9)
읍·면	36.5	63.5	-	100.0(3)
$\chi^2(df)$	11.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호자와 대중교통',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하원 방법을 보면,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76.4%이고 자가용 이용 10.8%, 보호자와 걸어서 10.7% 수준이었다. 등원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원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었는데,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에서는 76.6~79.7%였으나 읍·면지역은 36.5%로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읍·면지역의 하원 방법으로는 자가용이 등원과 동일하게 63.5%를 나타냈다. 그러나 읍면은 사례수가 극소하여 비교의 의미가 크지 않다.

〈표 Ⅷ-4-2〉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76.4	10.8	10.7	2.1	100.0(54)
지역규모					
대도시	76.6	6.7	13.9	2.8	100.0(42)
중소도시	79.7	20.3	-	-	100.0(9)
읍·면	36.5	63.5	-	-	100.0(3)
$\chi^2(df)$	8.1(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호자와 대중교통'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등원 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7.7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10분 이하가 41.4%로 다수이고 11~20분이 34.8%로 두 번째로 많은 시간대였다. 연령별로는 평균 소요 시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3세의 경우 19.3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Ⅷ-4-3〉 연령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보육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10분 이하	59.3	37.6	31.6	53.5	35.6	41.4
11~20분	-	37.6	40.1	16.6	49.5	34.8
21~30분	40.7	24.9	23.3	29.9	5.6	19.0
31분 이상	-	-	5.0	-	9.3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3)	(12)	(17)	(20)	(54)
평균	18.1	16.9	19.3	16.8	17.6	17.7
(표준편차)	12.0	9.3	9.4	9.7	12.3	10.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만족도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4.2점으로 측정되어 2021년 조사에서 산출된 3.8점에 비해 0.4점 상향된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교사와 내부 분위기, 교육내용으로 각각 4.4점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 이용 부모들은 반일제이상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기관의 분위기, 교사에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비용으로 3.4점에 지나지 않았다. 사교육 시장의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결과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은 건강관리, 부모참여 및 교육으로 각각 4.0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들 점수는 '21년 조사에 비해서는 상향된 결과이다. 이 외에도 원장, 주변환경, 급간식 관리, 생활지도 등도 반일제이상 학원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항목들이다.

〈표 VIII-5-1〉 반일제이상 학원의 만족도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					5점 평균	(수)	'21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원장	39.9	43.6	12.1	2.9	1.4	4.2	(54)	4.1
교사	45.6	50.7	3.7	-	-	4.4	(54)	3.8
주변환경	43.3	37.7	17.4	1.5	-	4.2	(54)	3.6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45.8	39.8	14.4	-	-	4.3	(54)	3.7
교재교구 및 장비	42.4	49.1	8.5	-	-	4.3	(54)	-
내부분위기	46.3	46.3	7.4	-	-	4.4	(54)	-
비용	19.2	26.5	32.8	14.7	6.7	3.4	(54)	3.2
건강관리	29.7	45.1	25.2	-	-	4.0	(54)	3.7
급간식 관리	42.6	42.0	12.0	3.3	-	4.2	(54)	3.7
안전관리	40.7	45.2	14.1	-	-	4.3	(54)	3.9
교육내용	43.8	51.1	5.2	-	-	4.4	(54)	4.0
생활지도	34.1	53.8	10.6	1.4	-	4.2	(54)	3.4
부모참여 및 교육	29.9	45.6	21.5	2.9	-	4.0	(54)	3.8
전체	38.7	44.4	14.2	2.1	0.6	4.2	(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외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안전관리'는 평상시와 위기시를 합쳐서 하나로 정리함. '내부 분위기 추가'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55. 〈표 VIII-5-1〉.

반일제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별, 지역 규모별, 모 취업 여부별로 나눠서 조사해본 결과, 먼저 연령별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세의 경우 만족도가 4.5점(5점 기준)으로 1세 4.1점, 2세 4.3점, 4세 4.1점, 5세 4.1점에 비하면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 만족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만족도가 4.4점으로, 대도시 4.1점, 중소도시 4.3점에 비해 높아 도시보다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높았다.

모 취업 여부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보다 0.1점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례수가 적어 평균 차 검정을 위한 동변량 가정을 만족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Ⅷ-5-2〉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보육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1세	2세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 중	미취업	F
원장	4.0	4.8	4.3	4.1	4.1	0.6	4.1	4.3	4.7	0.6	4.3	4.3	3.8	1.7
교사	4.0	4.8	4.8	4.2	4.4	3.3*(a)	4.4	4.3	4.7	0.5(a)	4.4	4.6	4.4	0.3
주변환경	4.6	3.8	4.5	4.2	4.2	0.9	4.2	4.5	4.4	1.2	4.2	4.5	4.1	0.4(a)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4.0	4.6	4.6	4.3	4.2	1.5(a)	4.3	4.5	4.4	0.6	4.3	4.5	4.3	0.2
교재교구 및 장비	4.0	4.6	4.6	4.2	4.3	1.1(a)	4.3	4.3	4.4	0.0	4.3	4.2	4.4	0.2(a)
내부분위기	4.6	5.0	4.6	4.3	4.3	1.6(a)	4.4	4.3	4.4	0.1	4.4	4.0	4.4	1.1(a)
비용	4.0	2.6	3.9	3.3	3.1	1.8	3.3	3.7	3.7	1.1(a)	3.4	3.6	3.2	0.2
건강관리	4.0	4.4	4.3	3.9	4.0	0.7	3.9	4.5	4.4	3.5*	4.1	4.0	4.0	0(a)
급간식 관리	4.6	4.2	4.5	3.9	4.3	2.0	4.2	4.4	4.4	0.5	4.3	4.5	4.0	0.8(a)
안전관리	4.0	4.0	4.6	4.3	4.2	1.2(a)	4.2	4.5	4.4	0.8	4.3	4.2	4.0	1.2(a)
교육내용	4.0	5.0	4.7	4.3	4.2	3.6*(a)	4.4	4.3	4.7	0.3(a)	4.4	4.1	4.3	0.9(a)
생활지도	4.0	4.6	4.4	4.2	4.1	1.1	4.2	4.3	4.7	0.4	4.2	4.1	4.2	0.1(a)
부모참여 및 교육	4.0	4.0	4.2	4.0	3.9	0.3	4.0	4.3	4.4	1.0	4.0	4.0	3.9	0.1(a)
전체	4.1	4.3	4.5	4.1	4.1	8.9***(a)	4.1	4.3	4.4	4.9***(a)	4.2	4.2	4.1	2.0(a)
(수)	(2)	(3)	(12)	(17)	(20)		(42)	(9)	(3)		(41)	(4)	(9)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원장과 교사 만족도를 분리함. 시설환경과 실내환경의 명확성을 위해 '시설설비 및 실내외 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분리하여 조사, '안전관리'는 평상시와 위기시를 합쳐서 하나로 정리함. '내부 분위기 추가'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서비스 및 특별활동

반일제이상 학원의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보육·교육계획’은 ‘매주 1회’ 제공한다는 경우가 37.5%, ‘월 1회’ 47.0%, ‘매일’ 7.8%로 월1회가 최빈 주기였다. ‘발달평가통지’ 또한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35.2%, ‘분기 1회’가 29.0%, ‘연 1~2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15.5%로 월 1회가 가장 많았다.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매주 1회’가 11.2%, ‘매일’이 27.1%였다, ‘부모상담’ 또한 ‘월1회’가 31.0%로 가장 많았고, ‘가정통신문’도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43.2%, ‘부모교육 자료’ 경우 ‘제공 안 함’ 응답 비율이 39.5%로 가장 많았다. ‘부모참여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경우 ‘연 1~2회’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분기 1회’도 25.9%를 차지하였다.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제공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결과적으로 ‘양방향 알림장’의 제공 주기가 가장 짧았다.

〈표 VIII-6-1〉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보육교육계획		발달평가통지	
매일	7.8	매일	1.7
매주 1회	37.5	매주 1회	11.2
월 1회	47.0	월 1회	35.2
분기 1회	-	분기 1회	29.0
연 1~2회	2.4	연 1~2회	15.5
제공안 함	5.4	제공안 함	7.4
모름	-	모름	-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매일	27.1	매일	1.4
매주 1회	11.2	매주 1회	22.1
월 1회	61.7	월 1회	31.0
분기 1회	-	분기 1회	19.7
연 1~2회	-	연 1~2회	23.0
제공안 함	-	제공 안 함	-
모름	-	모름	2.7
가정통신문		부모교육자료	
매일	17.7	매일	-
매주 1회	37.9	매주 1회	7.9
월 1회	43.2	월 1회	26.5
분기 1회	-	분기 1회	17.9
연 1~2회	1.1	연 1~2회	8.1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제공안 함	-	제공 안 함	39.5
모름	-	모름	-
부모참여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매일	-	매일	57.7
매주 1회	-	매주 1회	21.9
월 1회	8.4	월 1회	4.3
분기 1회	25.9	분기 1회	2.4
연 1~2회	47.1	연 1~2회	-
제공 안 함	17.0	제공 안 함	13.8
모름	1.6	모름	-
계(수)	100.0(54)	계(수)	100.0(5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에서 어떤 특별활동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영어’ 65.5%, ‘예능(미술, 음악)’ 75.8%, ‘체육관련’ 76.1%, ‘수학/과학 관련’ 71.8%,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0.2%, ‘기타’ 21.6%로 나타났다. 예능과 체육 관련이나 수학/과학 관련 특별활동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별활동이 없다는 응답도 12.4%로 나타났다.

〈표 VIII-6-2〉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운영여부

단위: %,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없음	(수)
전체	75.8	76.1	71.8	50.2	65.5	21.6	12.4	100.0
(수)	(39)	(40)	(37)	(28)	(37)	(11)	(8)	(5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없음’)이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개’가 18.6%였다. 2021년 조사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6%였는데 비해 6%p 정도 증가하였지만, 2015년이나 2018년 조사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특별활동 개수는 평균 2.4개로 2021년 조사에서 3.1개였던 것에 비해 0.7개가 줄어든 수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별활동은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40.5%로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다. ‘5개’라는 응답이 읍·면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나 전체 사례수가 적음을

고려해야하고 평균 특별활동 이용 개수는 읍·면지역이 3.1개로 2.4~2.7개인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보다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4세가 평균 개수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2세가 1.5개로 가장 적었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세와 2세에서 가장 높았고 3, 4세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VIII-6-3〉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개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36.0	7.8	9.2	13.1	15.3	18.6	100.0(54)	2.4(2.5)
보육연령								
1세	100.0	-	-	-	-	-	100.0(2)	-
2세	37.6	-	37.6	24.9	-	-	100.0(3)	1.5(1.5)
3세	30.0	4.6	26.2	5.8	14.5	19.0	100.0(12)	2.3(1.9)
4세	29.6	9.7	-	11.7	23.8	25.3	100.0(17)	3.2(3.1)
5세	37.3	9.7	5.3	17.9	12.5	17.3	100.0(20)	2.3(2.3)
지역규모								
대도시	40.5	10.2	7.5	7.7	14.2	19.9	100.0(42)	2.4(2.7)
중소도시	20.3	-	16.1	33.6	17.6	12.4	100.0(9)	2.7(1.6)
읍·면	30.5	-	-	-	33.0	36.5	100.0(3)	3.1(3.5)
2021년	30.6	8.6	8.2	4.0	10.8	37.9	100.0(86)	3.1(2.7)
2018년	62.3	5.5	8.5	5.6	6.7	11.5	100.0(68)	1.4(2.2)
2015년	62.9	19.8	3.7	6.6	2.7	5.0	100.0(41)	1.6(1.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 2018년 조사에서 특별활동 수는 5개, 6개, 9개로 2021년 조사보다 특별활동 수 응답 항목갯수가 많아 특별활동 수 5개는 5개 이상(5개, 6개, 9개) 분포를 합친 비율임. 2015, 2018년 자료 중 소숫점 반올림처리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0을 넘음.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59. 〈표 VIII-6-3〉.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 비율은 예능 73.2%, 체육 65.9%, 수학/과학 66.0%, 영아 60.5%, 언어 42.6%, 기타 13.9% 순이었다. 보육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4세는 수학/과학 특별활동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세는 오히려 4세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낮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능(77.4%), 영어(68.5%), 체육(61.8%)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관측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Ⅷ-6-4〉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예능	체육	수학/과학	영어	언어	기타	(수)
전체	73.2	65.9	66.0	60.5	42.6	13.9	(33)
보육연령							
2세	60.1	39.9	-	39.9	-	100.0	(2)
3세	56.1	80.1	71.8	69.4	47.0	-	(7)
4세	86.2	54.9	86.2	73.1	56.1	12.3	(11)
5세	73.1	70.4	52.6	46.9	33.3	13.3	(13)
지역규모							
대도시	77.4	61.8	60.5	68.5	42.7	19.5	(24)
중소도시	59.7	78.0	78.0	35.8	37.7	-	(7)
읍·면	100.0	52.5	100.0	100.0	100.0	-	(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육연령 1세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을 연령별, 지역 규모별로 조사해본 결과, 2세의 경우 모든 특별활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아를 기준으로 보면 과목에 따라 예능 91.3%, 체육 71.6%, 수학/과학 관련 45.8% 정도로 특별활동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예능 특별활동에 대해서 대도시는 74.9%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비해 중소도시는 47.3%만이 비용을 지불하고 읍면 지역은 100%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6-5〉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

단위: %

구분	보육연령				지역규모		
	2세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예능(미술, 음악)	100.0	63.1	48.7	91.3	74.9	47.3	100.0
체육관련	100.0	44.2	50.7	71.6	68.6	36.2	100.0
수학/과학 관련	-	37.8	48.7	45.8	60.2	7.9	100.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	100.0	45.3	55.3	73.9	16.4	100.0
영어	100.0	70.2	63.0	39.2	64.8	17.3	100.0
기타	100.0	-	100.0	100.0	100.0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육연령 1세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예능 특별활동이 평균 6만 3,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어가 평균 5만9,200원, 체육관련 4만9,600원 순이었다.

〈표 VIII-6-6〉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예능(미술, 음악)	63.5	78.1	0.0	400.0	(24)
체육관련	49.6	55.2	0.0	180.0	(21)
수학/과학 관련	40.3	58.7	0.0	250.0	(21)
영어	59.2	87.9	0.0	350.0	(2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2.9	57.9	0.0	250.0	(16)
기타	80.9	52.4	20.0	150.0	(5)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의 경우에 활동 비용이 높았는데, 영어와 체육 관련이 7만5,000원이었는데 비해 5세의 경우는 영어 3만 6,900원, 체육관련 6만9,10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비용은 4세의 영어 특별활동 비용인 8만9,100원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예능의 경우 읍면은 20만300원에 달했으며, 대도시는 6만6,500원, 중소도시는 3만3,400원의 수준을 보였다. 대도시 거주자 기준으로는 특별활동 중에는 예능의 비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어, 체육관련, 수학/과학의 순이었고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비용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영유아기 예능 관련 활동에 접근성이 낮아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암시하나, 관측치가 2개에 불과하므로 선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VIII-6-7〉 연령 및 지역별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수)
전체	63.5	49.6	40.3	59.2	42.9	80.9	(33)
보육연령							
2세	65.0	75.0	-	75.0	-	98.9	(2)
3세	38.0	27.6	27.3	35.7	47.4	-	(7)
4세	78.7	39.2	51.2	89.1	37.0	20.0	(11)
5세	58.8	69.1	34.7	36.9	48.0	114.3	(13)
F	0.4(a)	1.2	0.4	0.8	0.1	3.5(a)	
지역규모							
대도시	66.5	57.6	49.5	62.7	42.9	80.9	(24)
중소도시	33.4	34.0	11.4	24.9	23.6	-	(7)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수)
읍·면	200.3	20.0	129.1	129.1	129.1	-	(2)
F	2.4(a)	0.7	3.0(a)	1.5(a)	1.5(a)	-	
(수)	(24)	(21)	(21)	(21)	(16)	(5)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육연령 1세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3)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고, ‘무료’라는 응답이 32.8%, ‘10~15만원’ 13.5%의 순이었다. 월평균 총비용은 25만4,700원으로, 2015년도의 월평균 총비용은 12만7,800원, 2018년의 월평균 16만3,300원보다는 높은 비용이었으나, 최근 조사인 2021년의 31만 4,300원에 비해 약 6만원 정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표 VIII-6-8〉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 만원	2~3 만원	3~5 만원	5~10 만원	10~15 만원	15~20 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8	-	-	1.5	7.2	5.2	13.5	6.7	33.2	100.0(33)	254.7	216.9
보육연령												
2세	-	-	-	-	-	-	60.1	-	39.9	100.0(2)	197.8	113.3
3세	44.7	-	-	6.6	13.4	8.3	-	-	27.1	100.0(7)	199.1	200.4
4세	44.2	-	-	-	-	-	8.9	-	46.9	100.0(11)	397.7	273.3
5세	20.0	-	-	-	10.7	8.5	19.7	17.0	24.1	100.0(13)	198.0	166.7
지역규모												
대도시	19.4	-	-	2.0	10.0	7.3	9.0	9.4	42.8	100.0(24)	240.7	176.6
중소도시	71.8	-	-	-	-	-	22.0	-	6.2	100.0(7)	259.2	286.8
읍·면	-	-	-	-	-	-	52.5	-	47.5	100.0(2)	598.2	1889.4
2021년	25.6	-	-	-	5.1	2.3	11.1	4.7	51.2	100.0(61)	314.3	421.8
2018년	31.6	-	-	-	-	20.9	6.4	6.2	34.8	100.0(27)	163.3	209.1
2015년	-	-	-	-	-	50.6	13.5	19.6	16.3	100.0(15)	127.8	10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보육연령 1세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63. 〈표 VIII-6-9〉.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만족도는 5점을 척도로 했을 때, 기타 영역이 4.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수학/과학으로 4.1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예능

(미술, 음악 등), 체육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역에서 모두 4.0점이었고, 영어가 3.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예능이 1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특별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I-6-9〉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 (명), %		
	전체	(수)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
예능(미술, 음악 등)	4.0	(24)	16.2
체육 관련	4.0	(21)	15.9
수학/ 과학	4.1	(21)	9.6
영어	3.9	(21)	11.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0	(16)	10.0
기타	4.6	(5)	1.2
비해당	-	-	36.0
계(수)	-	-	100.0(5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에 대한 1순위 개선 요구 사항을 보면, 비용 절감이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안전관리강화 14.7%, 인력의 질 제고 12.3%, 교육내용다양화 11.9%의 순이었다. 내부환경개선이나 노후시설 정비, 인력증원, 회계투명성 등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별 분석해보면 중소도시에서 안전관리강화를 51.2%가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온 점이 대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고 인력의 질 제고에서도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선택 비율이 높았다,

〈표 VIII-6-10〉 지역별 반일제이상 학원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구분	지역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인력증원	5.8	-	67.0	5.8
인력의 질 제고	11.2	17.6	-	12.3
노후시설 정비	3.8	-	-	2.9
내부환경개선	5.6	-	-	4.3
비용 절감	37.3	23.7	33.0	34.3
회계투명성	4.3	-	-	3.3
안전관리강화	4.9	51.2	-	14.7
교육내용다양화	13.5	7.5	-	11.9

구분	지역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양 및 급식 수준	11.7	-	-	8.9
아동학대 예방	-	-	-	-
기타	2.1	-	-	1.6
계				
(수)	(42)	(9)	(3)	(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회계투명성', '영양 및 급식수준', '아동학대 예방', '기타' 문항을 추가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이상 학원에 대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개선 요구 사항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력의 질 제고, 안전관리강화 등이 선택된 것은 1순위 분석과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영양 및 급식 수준의 개선 요구가 눈에 띄는 것은 1+2순위 분석에서 특이사항이다.

〈표 Ⅷ-6-11〉 지역별 반일제이상 학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2순위)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인력증원	16.5	-	67.0	14.0
인력의 질 제고	27.8	17.6	36.5	25.8
노후시설 정비	13.3	17.6	-	14.0
내부환경개선	5.6	16.1	30.5	8.3
비용 절감	51.5	41.3	33.0	48.9
회계투명성	5.9	16.1	-	7.9
안전관리강화	17.0	51.2	-	23.9
교육내용다양화	23.1	12.4	33.0	21.1
영양 및 급식 수준	21.0	25.1	-	21.4
아동학대 예방	7.0	-	-	5.3
기타	5.9	-	-	4.5
계				
(수)	(42)	(9)	(3)	(5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회계투명성', '영양 및 급식수준', '아동학대 예방', '기타' 문항을 추가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7.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생애 최초로 이용하는 곳이 반일제이상 학원인 경우가 13.1%로, 이전 조사 실시 연도였던 2021년의 39.0%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최초 이용 기관이 어린이집인 비율이 2021년 60.3%였으나 2024년에는 86.9%로 높아져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의존도가 향상된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반일제이상 학원은 어린이집 이용 후 옮겨가는 두 번째 교육기관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가 5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시 ‘프로그램’ 72.5%로 가장 우선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다 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이러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연관이 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사례수 내의 비교이지만,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 부모, 그리고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을 주요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꼽아, 이들 집단 간 소득의 차이가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반일제이상 학원의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6시간 24분이며 평균적으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로 하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료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27%로 나와 돌봄의 측면에서 이용 시간에 대해 불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하원 시각으로는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높았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매우 짧은 특징을 보여, 반일제이상 학원이 영유아기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넷째, 월평균 이용비용은 147만 7,4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6.2%에 달해 이용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고, 2021년 조사에 비해서도 27만원 이상 상향되어 23.3%가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되는’ 경우가 74%로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유아 자녀를 반일제이상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9.2%가 필요하다면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비용도 13만8,400원까지로 응답되어, 반일제이상 학원에 보내는 영유아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녀 교육열을 엿볼 수 있었다.

다섯째,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는 평균 4.2점으로 이전 조사인 2021년 산출된 3.8점에 비해 상향된 점수를 보였다. 특히 교사, 내부분위기, 교육내용은 4.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 돌봄 시간 부족에 대한 불편함 등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제공하는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교사 등에 대해 만족도가 크며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으로부터 유아기에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이동한 선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개선해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 입안자의 시각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을 선택한 부모가 갖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가. 이용 아동 특성

2024년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18.3%인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 6.8%p 높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영유아여부별로는 개인양육지원을 활용하는 비율은 영아는 19.4%, 유아는 17.3%로 영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경우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유아는 기관과 병행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어서 이용 형태에 있어 차이는 있었다. 전체적으로 개인양육지원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3.2%였고,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과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15.2% 수준이었다.

〈표 IX-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

구분	2024년			2021년	2018년	2015년	2012년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보육대상 아동(a)	1,581	1,426	3,007	3,471	3,775	3,560	3,343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c+d)	289	250	539	398	614	387	1,243
비율(b/a)	(19.4)	(17.3)	(18.3)	(11.5)	(16.3)	(10.9)	(37.2)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94	-	94	102	176	86	379
비율(c/a)	(6.4)	-	(3.2)	(2.9)	(4.7)	(2.4)	(11.3)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이용 아동(d)	195	250	445	296	438	301	864
비율(d/a)	(13.0)	(17.3)	(15.2)	(8.5)	(11.6)	(8.5)	(25.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71. 〈표 IX-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의

17.3%이고, 82.7%는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영아/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33.1%가 개인양육 단독이용인 데 비해 유아는 100% 기관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0세는 96.3%가 개인양육 단독이용이고 이는 연령에 따라 급격히 비율이 감소하여 3세에는 2.2%가 그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 5세에는 0%였다. 이에 반해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경우는 0세 3.7%에 불과하다가 1세에 33.9%로 증가하여 2세부터는 90%에 육박하게 증가되었다. 개인양육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021년에 비해 9.8%p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기관 병행이용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X-1-2〉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개인양육 단독이용		33.1	-	96.3	66.1	10.4	2.2	-	-	17.3
기관 병행이용 포함		66.9	100.0	3.7	33.9	89.6	97.8	100.0	100.0	8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9)	(250)	(29)	(96)	(85)	(79)	(90)	(160)	(539)
2021년	개인양육 단독이용	42.9	0.9	85.5	22.6	10.1	-	2.4	-	20.7
	기관 병행이용 포함	57.1	99.1	14.6	77.4	89.9	100.0	97.6	100.0	79.3
	(수)	(190)	(208)	(90)	(54)	(46)	(56)	(75)	(77)	(39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실 외(2021). p. 472. 〈표 IX-1-2〉.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 혈연(93.1%)이 돌보고 있었으며, 비혈연인이 단독으로 돌보는 경우는 11.1%였다. 돌봄제공자가 혈연인 경우 비동거 조부모가 7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거 조부모 10.4%였다. 영아의 경우 비동거 조부모의 돌봄을 단독 이용하는 경우가 78.3%이고, 유아는 80.8%였다. 연령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0세와 5세의 경우는 동거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높았다. 비혈연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의 경우는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5.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4.9%)도 공공아이돌보미 보다는 0.4%p 낮았지만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

〈표 IX-1-3〉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이용 시 돌봄 제공자(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혈연	92.2	94.0	90.5	92.1	91.4	93.8	90.9	95.7	93.1
동거 조부모	9.5	11.4	13.8	5.3	10.0	12.5	6.7	13.9	10.4
비동거 조부모	78.3	80.8	65.3	85.0	76.4	77.0	83.2	79.6	79.5
동거 친인척	0.9	-	2.9	-	1.8	0.3	-	-	0.5
비동거 친인척	3.4	1.8	8.5	1.8	3.2	4.0	1.0	2.2	2.7
비혈연	12.7	9.3	15.3	11.1	13.6	12.5	12.1	7.8	11.1
공공 아이돌보미	5.8	4.7	5.6	6.3	4.6	6.8	3.8	5.2	5.3
민간 육아도우미	6.1	3.6	7.7	4.8	7.2	5.7	8.3	1.1	4.9
아웃.지인	0.8	0.5	2.0	-	1.8	-	-	0.8	0.7
기타 비혈연	-	0.5	-	-	-	-	-	0.7	0.2
(수)	(289)	(250)	(29)	(96)	(85)	(79)	(90)	(160)	(53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관을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혈연 돌봄 제공자와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가 88.5%였고, 비혈연 도우미와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는 6.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경우에는 혈연과 비혈연 도우미가 동시에 돌보는 경우도 1.1%로 나타났는데, 0세아의 경우는 이러한 형태가 61.0%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세 이후에는 혈연과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82% 이상이었다.

〈표 IX-1-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기관 병행이용 시 돌봄 제공자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혈연+비혈연	1.1	-	61.0	2.3	-	-	-	-	0.5
혈연+기관	85.5	90.7	39.0	82.2	86.6	87.2	87.9	92.2	88.5
비혈연+기관	7.3	6.0	-	8.5	7.9	6.3	9.1	4.3	6.5
혈연+비혈연+기관	6.1	3.3	-	7.0	5.6	6.5	3.0	3.4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8)	(250)	(3)	(39)	(78)	(78)	(90)	(160)	(44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개인양육서비스 제공 특성

1) 서비스 제공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을 제공자별로 구분하면 혈연(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비동거 조부모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 79.5%였으며 영아 78.3%, 유아 80.8%에서 모두 높은 비율이었다. 동거 조부모의 경우도 영아 9.5%, 유아 11.4%의 비율로 친인척이나 비혈연보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는 영유아의 조부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X-1-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단위: %,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비혈연	(수)
전체	10.4	79.5	0.5	2.7	5.3	4.9	0.7	0.2	(539)
영유아구분									
영아	9.5	78.3	0.9	3.4	5.8	6.1	0.8	-	(289)
유아	11.4	80.8	-	1.8	4.7	3.6	0.5	0.5	(250)
생활연령									
0세	13.8	65.3	2.9	8.5	5.6	7.7	2.0	-	(29)
1세	5.3	85.0	-	1.8	6.3	4.8	-	-	(96)
2세	10.0	76.4	1.8	3.2	4.6	7.2	1.8	-	(85)
3세	12.5	77.0	0.3	4.0	6.8	5.7	-	-	(79)
4세	6.7	83.2	-	1.0	3.8	8.3	-	-	(90)
5세 이상	13.9	79.6	-	2.2	5.2	1.1	0.8	0.7	(160)
지역규모									
대도시	9.0	80.7	0.6	2.6	4.1	6.5	1.0	0.4	(287)
중소도시	15.1	74.1	0.1	3.1	6.0	3.9	0.4	-	(172)
읍·면	3.3	89.6	1.0	1.4	7.9	1.3	-	-	(80)
모 취업 여부									
취업	10.8	79.4	0.4	2.5	4.9	5.2	0.9	0.3	(396)
휴직	1.5	90.4	1.2	1.4	2.3	5.8	-	-	(58)
미취업	11.3	74.0	0.4	4.3	10.5	3.1	-	-	(72)
모 부재	33.7	61.4	-	4.9	4.1	-	-	-	(13)
2021년	19.9	65.3	2.6	3.6	5.1	6.4	2.7	-	(398)
2018년	22.8	61.8	0.6	3.2	3.9	9.0	1.6	-	(60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서비스 병행 이용인 경우가 있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73. 〈표 IX-1-3〉.

2)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X-1-6>과 같다. 해당 아동을 포함해 한 번에 돌보는 자녀 수는 전체 평균 1.5명으로 응답되었다. 2021년 1.8명과 비교하여 0.3명이 줄어들었다. 1명을 돌보는 비율이 56.3%로 가장 컸고, 1명을 돌볼 경우에 영아는 56.6%, 유아는 56.1%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읍면 모두 1명을 돌보는 비율이 각각 51.9~59.2% 수준으로 가장 높긴 했으나, 돌보는 아동 수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고 대도시가 가장 적었다. 취업모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1명을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취업모 가구가 한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X-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단위: %,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계(수)	평균
전체	56.3	37.6	5.9	0.2	100.0(539)	1.5
영유아구분						
영아	56.6	35.7	7.5	0.3	100.0(289)	1.5
유아	56.1	39.8	4.1	-	100.0(250)	1.5
지역규모						
대도시	59.2	37.2	3.3	0.3	100.0(287)	1.4
중소도시	51.9	39.4	8.7	-	100.0(172)	1.6
읍·면	57.5	34.4	8.1	-	100.0(80)	1.5
모 취업 여부						
취업	57.4	36.9	5.7	-	100.0(396)	1.5
휴직 중	51.3	46.6	2.0	-	100.0(58)	1.5
미취업	51.2	36.5	10.9	1.3	100.0(72)	1.6
부재 등	70.8	25.1	4.1	-	100.0(13)	1.3
2021년	39.4	47.8	10.5	1.7	100.0(398)	1.8
2018년	36.4	49.5	12.2	1.3	100.0(607)	1.8
2015년	-	-	-	-	-	1.6
2012년	-	-	-	-	-	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2018년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가 5명인 대상자는 없었으나, 6명인 경우 0.6% 비율로 나타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74. <표 IX-1-4>.

다. 이용 이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 사유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 이용하는 경우(기관 병행 이용은 제외)에만 질문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경우에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모두가 기관과 병행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 이유는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가 66.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희망 기관에 대기자 많음’ 6.7%,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4.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된 이유는 2021년 및 이전 연도 결과와 동일하며, ‘희망 기관에 대기가 많아서’ 응답은 2021년 9.8%에서 3.1%p 감소하였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하여 변화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매일 데리고 다니기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1세에 비해 월등히 높고 1세는 상대적으로 ‘희망 기관에 대기자 많음’을 많이 선택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희망 기관에 대기자 많음’을 선택한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의 경우 ‘너무 어려 적응 어려움’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미취업모는 취업모나 휴직 중과 달리 ‘비용부담’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표 IX-1-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응 어려움	비용 부담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시설환경 이 열악함	희망 기관에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들	기타	계(수)
전체	66.2	4.2	4.1	4.9	3.7	6.7	2.5	0.9	6.9	(94)
생활연령										
0세	67.0	-	3.8	16.2	1.8	-	8.2	-	3.0	(28)
1세	61.8	6.7	4.9	1.2	5.1	10.8	0.6	1.4	7.4	(58)
2세	84.9	-	-	-	-	-	-	-	15.1	(7)
3세	100.0	-	-	-	-	-	-	-	-	(1)
지역규모										
대도시	59.6	-	9.0	2.2	6.9	9.0	1.4	2.0	9.9	(48)
중소도시	77.6	10.5	-	8.1	-	-	3.8	-	-	(28)
읍·면	55.7	-	-	4.8	3.8	17.3	2.6	-	15.8	(18)
모 취업 여부										
취업	83.7	-	1.3	2.1	4.8	4.8	3.2	-	-	(44)
휴직 중	50.6	-	3.1	9.9	1.8	13.8	1.9	-	19.0	(29)
미취업	53.4	20.5	12.1	3.7	4.0	-	1.9	4.4	-	(20)

구분	너무 어려 적응 어려움	비용 부담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시설환경 이 열악함	희망 기관에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들	기타	계(수)
부재 등	-	-	-	-	-	-	-	-	100.0	(1)
2021년	66.7	1.9	-	1.7	7.8	9.8	1.4	0.6	10.0	(102)
2018년	70.7	3.6	-	1.7	7.3	2.9	2.7	0.9	5.2	(182)
2015년	72.4	1.4	-	2.6	6.8	-	10.2	-	2.9	(121)
2012년	68.5	2.0	-	0.5	4.1	-	5.9	-	1.2	(391)
2009년	30.6	14.7	-	0.7	2.9	-	13.2	-	24.2	(8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보기 문항 중 일부 변경함. 2024년 기준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은 2021년 이전 조사에서는 '등·하원 데려다 주기 어려움'의 비중이며, 2024년 '시설환경이 열악함'은 2021년 이전 조사에서는 '여러명을 한사람이 돌보아 불안 함' 비중임. 2024년 조사에서는 기관병행이용자는 해당 설문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문항이 변경된 것임.

3) 생활연령에서 4세, 5세 이상, 보기 문항 중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시설환경 열악'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75~476. <표 IX-1-5>.

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가. 이용 실태

1) 서비스 제공자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외조부모가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21년 49.8%보다 7%p가량 높아진 결과이다. 비동거 외조부모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중은 비동거 친조부모 28.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며 동거친조부모와 동거외조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높은 비율이다. 2021년 조사의 경우 동거 외조부모 비율이 16.4%로 상당한 비중을 보였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중 영아일 경우 비동거 외조부모에서 58.6%의 이용률을 보여 유아 54.4%보다 조금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비동거 친조부모의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31.6%로 영아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모 취업 여부별 구분을 불문하고 비동거 외조부모 지원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취업모에서는 상대적으로 동거 외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읍·면지역에서는 비동거 친조부모가 비동거 외조부모와 비슷한 비율로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IX-2-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chi^2(df)$
전체	4.2	7.0	28.9	56.5	0.5	2.9	100.0(497)	
영유아구분								
영아	3.2	7.2	26.3	58.6	1.0	3.7	100.0(264)	7.4(5)
유아	5.3	6.8	31.6	54.4	-	1.9	100.0(233)	
지역규모								
대도시	4.5	5.1	25.6	61.2	0.7	2.8	100.0(266)	25.4 (10)**
중소도시	4.6	11.7	26.9	53.3	0.1	3.4	100.0(157)	
읍·면	1.8	1.7	46.7	47.3	1.1	1.4	100.0(74)	
모 취업 여부								
취업	2.9	8.7	28.7	56.6	0.4	2.7	100.0(363)	65.2 (15)***
휴직 중	-	1.6	22.1	73.5	1.3	1.5	100.0(55)	
미취업	9.0	3.6	28.5	53.8	0.4	4.8	100.0(66)	
부재 등	33.7	-	61.4	-	-	4.9	100.0(13)	
2021년	5.4	16.4	21.6	49.8	2.9	3.9	100.0(361)	
2018년	13.5	12.3	21.7	48.2	0.7	3.6	100.0(545)	
2015년	25.8	25.2	20.4	24.3	0.3	4.1	100.0(373)	
2012년	21.3	12.7	22.4	35.2	0.9	7.5	100.0(1,133)	
2009년	31.2	13.5	19.4	25.8	2.4	7.6	100.0(1,44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77. 〈표 IX-2-1〉.

* $p < .05$, *** $p < .001$.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비동거 친조부모가 28.7%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세의 경우가 60.6%로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세는 동거 친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일 61.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에서는 비동거 친조부모가 48.9%를 차지하여 46.5%인 비동거 외조부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도별 비교를 보면, 2015년 이래 연도별로 동거친조부모와 비동거 친조부모의 지원 비율이 줄어들고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X-2-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chi^2(df)$
전체	2.9	8.7	28.7	56.6	0.4	2.7	100.0(363)	
영유아구분								
영아	2.2	9.7	28.1	56.1	0.9	3.0	100.0(181)	7.4(5)
유아	3.6	7.7	29.3	57.0	-	2.4	100.0(182)	
생활연령								
0세	-	22.3	31.9	33.0	-	12.8	100.0(13)	63.3 (30)***
1세	3.8	1.9	33.6	57.3	-	3.5	100.0(50)	
2세	3.5	10.1	21.7	60.6	2.5	1.6	100.0(61)	
3세	-	12.6	30.6	54.5	-	2.4	100.0(57)	
4세	0.7	9.0	29.5	59.4	-	1.4	100.0(64)	
5세	1.3	7.0	38.0	53.6	-	-	100.0(63)	
6세	9.5	7.1	18.5	58.5	-	6.4	100.0(55)	
지역규모								
대도시	3.7	5.4	25.8	61.9	0.8	2.4	100.0(199)	25.4 (10)**
중소도시	2.8	15.8	26.1	52.0	-	3.3	100.0(115)	
읍·면	-	2.5	48.9	46.5	-	2.1	100.0(49)	
2021년	5.1	15.4	19.0	53.1	3.1	4.4	100.0(266)	
2018년	10.4	12.6	20.5	52.1	0.4	4.0	100.0(426)	
2015년	22.1	24.6	24.0	24.5	0.2	4.6	100.0(272)	
2012년	18.9	15.0	22.8	37.1	0.3	5.8	100.0(635)	
2009년	20.9	16.0	22.7	31.5	2.2	6.7	100.0(55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78. 〈표 IX-2-2〉.

** $p < .01$, *** $p < .001$.

2) 기관 병행 이용 실태

혈연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의 병행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혈연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이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15.4%로 혈연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73.5%)보다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아의 경우에도 혈연 단독인 경우가 29.5%로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57.9%)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고, 유아의 경우는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가 90.7%로 다른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과 병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18.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기관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모가 취업 중인 경우 기관과 혈

연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78.8%로 휴직 중(47.7%) 혹은 미취업(61.1)인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350만원 또는 400만원이상인 집단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혈연과 비혈연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의 집단에서는 79.9%가 혈연과 기관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50만원~399만원 집단의 해당 비율 42.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021년 이전에도 혈연+기관 이용이 가장 보편적 형태였으며, 다음으로 혈연 단독, 혈연+비혈연+기관, 혈연+비혈연 순의 이용 비중을 보였다. 다만, 혈연 단독의 경우 2012년 30.3%에 달하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21년 20.5%, 2024년 15.4%까지 감소하여, 가족돌봄의 형태가 종일 돌봄에서 기관과 병행이용하는 시간제 돌봄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X-2-3〉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단위: %, (명)

구분	혈연 단독	혈연+비혈연	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전체	15.4	1.9	73.5	9.1	100.0(539)
영유아구분					
영아	29.5	3.7	57.9	9.0	100.0(289)
유아	-	-	90.7	9.3	100.0(250)
생활연령					
0세	81.0	15.3	3.7	-	100.0(29)
1세	60.3	5.7	28.5	5.4	100.0(96)
2세	8.8	1.6	77.6	12.1	100.0(85)
3세	2.2	-	85.3	12.5	100.0(79)
4세	-	-	87.9	12.1	100.0(90)
5세	-	-	91.3	8.7	100.0(85)
6세	-	-	93.3	6.7	100.0(75)
지역규모					
대도시	13.1	2.1	74.8	10.0	100.0(287)
중소도시	17.5	1.7	72.3	8.6	100.0(172)
읍·면	18.8	1.7	72.0	7.5	100.0(80)
모 취업 여부					
취업	9.9	1.0	78.8	10.3	100.0(396)
휴직 중	44.2	5.5	47.7	2.6	100.0(58)
미취업	25.2	4.7	61.1	8.9	100.0(72)
부재 등	4.9	-	91.1	4.1	100.0(13)
가구소득					

구분	혈연 단독	혈연+비혈연	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299만원 이하	14.2	2.2	74.2	9.4	100.0(31)
300~349만원	25.6	-	74.4	-	100.0(22)
350~399만원	26.8	10.7	42.4	20.0	100.0(22)
400~499만원	30.4	1.0	57.6	11.0	100.0(49)
500~599만원	24.5	1.2	68.3	6.0	100.0(101)
600~699만원	16.6	1.8	74.5	7.1	100.0(87)
700만원 이상	7.5	1.9	79.9	10.7	100.0(223)
모름/무응답	-	-	100.0	-	100.0(4)
(수)					
2021년	20.5	1.4	73.3	4.7	100.0(361)
2018년	26.5	3.5	68.3	1.7	100.0(545)
2015년	23.8	-	72.8	3.4	100.0(373)
2012년	30.3	0.2	68.7	0.8	100.0(1,1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79~480. <표 IX-2-3>.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혈연양육지원서비스의 주된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고, ‘하원 후 퇴근 전’이 23.1%, ‘출근 후~등원 전 / 하원 후~퇴근 전’을 모두 이용하는 빈도가 21.6%의 순이었으며,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경우는 9.4% 정도였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고, ‘하루종일 이용’하는 경우는 5%p가량 감소되었다. 영아의 경우 불규칙한 비율이 가장 컸으나(46.4%), ‘하루 종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1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아의 경우는 ‘하원 후부터 퇴근 전’까지가 27.9%로 유아보다 9%p 정도 비중이 컸다.

한편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27.4%)과 ‘출근 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27.6%) 두 경우가 비슷한 정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미취업이나 휴직 중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불규칙하게 필요시 이용’한다는 경우는 휴직 중(88.9%)이나 미취업(81.2%) 상태인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취업모의 경우는 ‘하원 후~퇴근 전’ 이용 빈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취업모 가정의 경우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미취업모 가구나 휴직 중인 경우 정기적인 대리 돌봄의 필요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시간의 돌봄,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X-2-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이용 빈도							계(수)	$\chi^2(df)$
	하루 종일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퇴근 전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퇴근 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전체	9.4	4.2	23.1	21.6	41.1	0.5	100.0(497)		
영유아구분									
영아	13.6	3.0	18.5	17.4	46.4	1.0	100.0(264)		28.2(5)***
유아	4.9	5.6	27.9	26.1	35.5	-	100.0(283)		
지역규모									
대도시	8.3	5.2	25.1	21.5	39.9	-	100.0(266)		17.7(10)
중소도시	13.2	3.8	19.8	23.5	38.3	1.4	100.0(157)		
읍·면	3.7	1.8	24.2	16.9	53.3	-	100.0(74)		
모 취업 여부									
취업	10.0	5.5	27.4	27.6	28.8	0.7	100.0(363)		136.4(15)***
휴직 중	3.0	-	1.8	6.3	88.9	-	100.0(55)		
미취업	6.9	1.2	9.3	1.4	81.2	-	100.0(66)		
부재 등	29.8	-	50.2	8.0	11.9	-	100.0(13)		
2021년	14.6	3.1	27.9	23.2	26.2	5.0	100.0(361)		
2018년	17.7	1.5	27.2	23.5	28.9	1.3	100.0(54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81. 〈표 IX-2-4〉.

*** $p < .001$.

4)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0%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결과 74.8%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아 74.9%, 영아 79.0%로, 어린 영아의 경우에 더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경우 77.5%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응답하여 미취업모보다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이 다소 컸으며 평균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X-2-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 (명)

구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chi^2(df)$
전체	77.0	23.0	100.0(497)	
영유아구분				
영아	79.0	21.0	100.0(264)	1.2(1)
유아	74.9	25.1	100.0(233)	
지역규모				
대도시	79.1	20.9	100.0(266)	2.3(2)
중소도시	73.1	26.9	100.0(157)	
읍·면	79.5	20.5	100.0(74)	
모 취업 여부				
취업	77.5	22.5	100.0(363)	1.0(3)
휴직 중	79.3	20.7	100.0(55)	
미취업	73.1	26.9	100.0(66)	
부재 등	71.2	28.8	100.0(13)	
2021년	74.8	25.2	100.0(361)	
2018년	76.4	23.6	100.0(545)	
2015년	83.0	17.0	100.0(373)	
2012년	71.1	28.9	100.0(1,1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82 〈표 IX-2-5〉.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를 데려오는 주기는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본다는 비율이 63.5%로 가장 컸으며 가끔 데려온다는 비중은 23.9%였다. 가끔 만나는 경우는 빈도 평균이 11.0일이었고, 읍·면지역에서는 가끔 가서 본다는 경우 9.3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취업모의 경우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보는 경우가 66.9%인데 비해 미취업의 경우는 44.5%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빈도 또한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사례수가 매우 적어 비교에 한계는 있다.

〈표 IX-2-6〉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데려오는 주기

단위: %, (명), 일

구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빈도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봄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t/F
전체	63.5	23.9	12.6	100.0(116)	11.0	13.1	(44)	
영유아구분								
영아	44.8	41.4	13.8	100.0(61)	10.5	13.1	(31)	-0.3
유아	80.3	8.2	11.5	100.0(55)	12.1	13.6	(13)	

구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빈도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볼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볼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t/F
지역규모								
대도시	66.2	25.8	8.0	100.0(57)	11.5	11.6	(21)	0.1
중소도시	63.4	19.4	17.2	100.0(43)	11.0	16.5	(14)	
읍·면	52.9	32.5	14.5	100.0(16)	9.3	5.9	(9)	
모 취업 여부								
취업	66.9	20.1	13.0	100.0(81)	11.0	14.8	(30)	0.9
휴직 중	56.9	24.8	18.2	100.0(13)	5.5	1.8	(5)	
미취업	44.5	50.7	4.8	100.0(18)	12.7	10.3	(8)	
부재 등	83.1	-	16.9	100.0(4)	30.0	-	(1)	
2021년	78.7	13.5	7.8	100.0(95)	5.2	5.8	(23)	
2018년	73.6	22.0	4.4	100.0(117)	4.8	6.4	(31)	
2015년	78.1	12.4	9.5	100.0(80)	8.4	6.0	(25)	
2012년	89.2	7.1	3.7	100.0(339)	11.1	17.5	(44)	
2009년	76.0	19.0	5.0	100.0(400)	8.5	7.5	(9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83. <표 IX-2-6>.

나. 혈연양육지원자 이용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6.7%,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8.9%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거 친인척에게 지불을 안 한다는 비율이 90.7%로 가장 컸으나, 이는 사례수가 적은 경우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비동거 친조부모가 60.1%로 가장 높았다.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경우는 동거 친조부모로 6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1년 조사의 경우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6.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불을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2.9%p 낮아졌다. 혈연개인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의 봉사를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제공자가 대체로 조부모인 상황에서 무급으로 가족돌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기 손자녀 돌봄을 하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건강

한 노후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IX-2-7〉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기적 현금 지불	비정기적 현금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chi^2(df)$
전체	36.7	12.1	2.4	48.9	100.0(497)	
동거 친조부모	67.3	-	-	32.7	100.0(21)	
동거 외조부모	51.5	6.7	-	41.8	100.0(29)	
비동거 친조부모	26.7	10.4	2.8	60.1	100.0(158)	29.0(15)*
비동거 외조부모	37.5	14.6	2.5	45.4	100.0(272)	
동거 친인척	-	9.3	-	90.7	100.0(3)	
비동거 친인척	45.1	12.1	6.0	36.8	100.0(14)	
2021년	39.6	10.1	3.9	46.4	100.0(361)	
2018년	38.5	9.5	3.1	48.9	100.0(545)	
2015년	30.7	5.8	2.2	61.4	100.0(373)	
2012년	24.2	8.9	3.7	63.2	100.0(1,1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84. 〈표 IX-2-7〉.

* $p < .05$.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 여부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X-2-8〉과 같다. 유아의 경우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이 50.7%로 영아보다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73.9%로 가장 높았다. 대도시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중이 40.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의 경우 86.3%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 중인 경우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57.1%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중이 컸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의 경우 85.2%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그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400~499만원 소득 구간에서도 83.5%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기적 지불은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50.3%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정기적 지불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2-8〉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제 특성별 비용 지불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비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chi^2(df)$
전체	36.7	12.1	2.4	48.9	100.0(497)	
영유아구분						
영아	34.5	15.1	3.2	47.2	100.0(264)	6.6(3)
유아	39.0	8.8	1.4	50.7	100.0(233)	
지역규모						
대도시	40.4	12.0	4.2	43.4	100.0(266)	31.8(6)***
중소도시	35.7	16.4	0.6	47.3	100.0(157)	
읍·면	25.0	1.1	-	73.9	100.0(74)	
모 취업 여부						
취업	45.4	11.7	1.9	41.0	100.0(363)	67.9(9)***
휴직 중	15.3	22.5	5.0	57.2	100.0(55)	
미취업	2.9	7.2	3.6	86.3	100.0(66)	
부재 등	30.4	-	-	69.6	100.0(1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1.9	2.8	-	85.2	100.0(27)	79.9(21)***
300~349만원	9.4	10.7	-	79.9	100.0(22)	
350~399만원	24.1	18.5	-	57.4	100.0(19)	
400~499만원	12.9	3.6	-	83.5	100.0(42)	
500~599만원	37.1	7.6	2.8	52.5	100.0(93)	
600~699만원	26.7	14.6	1.6	57.2	100.0(83)	
700만원 이상	50.3	15.7	3.7	30.3	100.0(207)	
모름/무응답	46.8	-	-	53.2	100.0(4)	
2021년	39.6	10.1	3.9	46.4	100.0(361)	
2018년	38.5	9.5	3.1	48.9	100.0(545)	
2015년	30.7	5.8	2.2	61.4	100.0(373)	
2012년	24.2	8.9	3.7	63.2	100.0(1,133)	
2009년	25.5	4.5	2.0	68.0	100.0(1,44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85~486. 〈표 IX-2-8〉.

*** $p < .001$.

2) 비용 수준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 평균 67만4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1년에 72만7천원, 2018년 70만3천원에 비하면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금액을 보면 동거 외조부모에게 83만2천원을 지불하고 있어 사례수가 10명 이하인 비동거 친인척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용을 보였고, 비동거 친조부모가

61만4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비동거 친인척, 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조부모 순으로 10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고 50만원 이하로 지불하는 경우는 비동거 외조부모에서 비교적 높았다.

〈표 IX-2-9〉 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비용 시 금액(월평균)

단위: %, (명), 만원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전체	2021년	2018년
10~19만원 이하	-	-	8.4	3.9	-	-	4.3	13.9	5.8
20~29만원 이하	7.1	-	8.8	13.6	-	28.7	11.6	4.5	7.5
30~39만원 이하	20.2	-	12.5	17.0	-	-	14.2	8.7	14.7
40~49만원 이하	-	-	6.3	8.4	-	-	6.5	3.5	2.2
50~59만원 이하	18.6	21.6	22.8	17.7	-	8.1	18.9	22.7	22.8
60~69만원 이하	11.5	23.5	7.7	1.5	100.0	-	5.3	4.3	3.8
70~79만원 이하	2.7	12.4	6.4	3.3	-	-	4.6	1.6	6.3
80~89만원 이하	-	-	5.9	4.9	-	-	4.3	4.1	5.1
90~99만원 이하	-	-	-	-	-	-	-	0.6	0.2
100만원 이상	39.9	42.5	21.3	29.6	-	63.2	30.5	36.1	31.6
계(수)	100.0 (12)	100.0 (14)	100.0 (57)	100.0 (144)	100.0 (1)	100.0 (8)	100.0 (236)	100.0 (189)	100.0 (253)
평균	69.2	83.2	61.4	65.3	60.0	104.2	67.4	72.7	70.3
표준편차	38.7	38.0	42.7	46.4	-	96.2	47.6	56.5	49.6
최고	160.0	200.0	200.0	250.0	60.0	300.0	300.0	300.0	300.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10만원 미만'은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86~487. 〈표 IX-2-9〉.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은 영아(73만4천원)이 유아(60만5천원)보다 13만원정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가 71만7천원으로 미취업모 42만5천원보다 68.7%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비교에서는 350~399만원 가구에서 평균 지불 비용이 76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600~699만원 소득 구간에서의 72만6천원이었다.

〈표 IX-2-10〉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전체	67.4	47.6	300.0	(236)	가구소득				
영유아구분					250~299만원	33.5	12.2	40.0	(3)
영아	73.4	52.7	300.0	(127)	300~349만원	31.6	11.3	50.0	(4)
유아	60.5	40.0	200.0	(109)	350~399만원	76.8	26.6	100.0	(6)
t	2.2*				400~499만원	57.9	33.4	100.0	(6)
지역규모					500~599만원	61.8	38.8	180.0	(42)
대도시	65.1	45.2	200.0	(146)	600~699만원	72.6	40.3	150.0	(37)
중소도시	69.4	51.8	300.0	(74)	700만원 이상	68.8	52.9	300.0	(137)
읍·면	75.6	43.4	200.0	(16)	모름/무응답	100.0	-	100.0	(1)
F	0.5				F	1.0(a)			
모 취업 여부					2021년	72.7	56.5	300.0	(189)
취업	71.7	48.6	300.0	(204)	2018년	70.3	49.6	300.0	(253)
휴직 중	37.2	21.0	100.0	(18)					
미취업	42.5	34.0	100.0	(10)					
부채 등	67.0	59.6	160.0	(4)					
F	4.9** (a)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87. 〈표 IX-2-10〉.

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가. 이용 실태

1) 서비스 제공자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 아이돌보미가 47.8%로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민간 육아돌보미 44.2%, 이웃과 지인이 6.0%였다. 2021년 조사결과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비율이 36.1%이었던 것에 비하여 11.7%p가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 구분별로는 유아가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50.4%로 영아 이용 비율보다 높았고, 읍면이 86.1%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확연히 높았다. 그러나 해당 사례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공공 아이돌보미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가구소득별 비교에서는 400~499만원 구

간과 600~699만원 구간에서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비율이 높았고, 700만원 이상 가구 소득 구간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이 63.8%로 가장 높았다.

〈표 IX-3-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계(수)
전체	47.8	44.2	6.0	2.0	100.0(65)
영유아구분					
영아	46.1	47.8	6.1	-	100.0(38)
유아	50.4	38.8	5.9	4.9	100.0(27)
지역규모					
대도시	34.1	53.7	8.6	3.5	100.0(35)
중소도시	58.3	38.2	3.6	-	100.0(20)
읍·면	86.1	13.9	-	-	100.0(10)
모 취업 여부					
취업	43.6	45.9	7.9	2.6	100.0(50)
휴직 중	28.4	71.6	-	-	100.0(4)
미취업	77.2	22.8	-	-	100.0(10)
부채 등	100.0	-	-	-	100.0(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00.0	-	-	-	100.0(5)
300~349만원	-	-	-	-	-
350~399만원	38.6	40.2	-	21.2	100.0(7)
400~499만원	100.0	-	-	-	100.0(7)
500~599만원	34.4	47.7	17.9	-	100.0(10)
600~699만원	69.9	20.6	9.5	-	100.0(8)
700만원 이상	30.7	63.8	5.5	-	100.0(28)
2021년	36.1	45.1	18.7	-	100.0(55)
2018년	26.9	62.3	10.8	-	100.0(81)
2015년	22.2	57.0	8.7	12.1	100.0(31)
2012년	26.0	15.1	27.4	11.0	100.0(84)
2009년	7.0	28.2	38.0	12.7	100.0(7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489. 〈표 IX-3-1〉.

3) 2018년 이하 자료 : 이정원(2018) p.536. 〈표 IX-3-1〉.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사이트나 앱’이 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민간업체 사이트나 앱’이 22.8% 순이었다. 이전 연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조사 항목에 변동이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평소 알던 사람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구인을 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경우는 공공기관 사이트나 앱’ 비율이 48.2%로 평균보다 높으나 영아는 민간업

체 사이트나 앱이 3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유아 간 구인 경로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민간업체 사이트나 앱을 통했다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은 공공기관 사이트나 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는 ‘기타’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농어촌의 단체나 특별한 집단을 통한 소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 취업모의 경우는 공공기관 사이트나 앱, 민간업체 사이트나 앱, 그리고 지인의 소개 경로를 고르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미취업모는 공공기관 사이트나 앱을 통해 공공 아이돌보미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X-3-2〉 비혈연 양육지원자 구인 경로

단위: %, (명)

구분	평소 알던 사람	지인의 소개	구인광고/신문	민간업체 사이트/앱	공공기관 사이트/앱	인터넷 커뮤니티	기타	계(수)
전체	4.5	12.3	7.2	22.8	44.0	5.2	4.0	100.0(65)
영유아구분								
영아	3.6	2.1	9.7	30.4	41.2	7.7	5.2	100.0(38)
유아	5.9	27.5	3.4	11.3	48.2	1.4	2.2	100.0(27)
지역규모								
대도시	3.6	14.4	11.1	30.5	33.0	7.4	-	100.0(35)
중소도시	7.6	12.7	3.0	12.8	60.7	3.2	-	100.0(20)
읍·면	-	-	-	13.9	49.3	-	36.8	100.0(10)
모 취업 여부								
취업	5.9	16.1	6.0	26.8	33.8	6.2	5.2	100.0(50)
휴직 중	-	-	32.6	29.1	38.3	-	-	100.0(4)
미취업	-	-	-	-	96.6	3.4	-	100.0(10)
부재 등	-	-	-	-	100.0	-	-	100.0(1)
2021년	17.0	19.2	5.2	17.7	-	31.1	4.0	100.0(55)
2018년	7.4	20.7	6.6	24.2	-	34.6	6.6	100.0(81)
2015년	29.2	15.1	8.4	30.1	-	13.7	3.4	100.0(31)
2012년	25.6	29.3	0.8	29.7	-	8.4	6.2	100.0(84)
2009년	30.6	41.7	-	12.5	-	12.5	2.8	100.0(7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90. 〈표 IX-3-2〉.

2) 기관 병행 이용 실태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 교육기관 중복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X-3-3〉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을 병행한다는 비중이 49.1%로 가장 많았고 혈연과 비혈연 및 기관 이용 등 3가지 유형을 병행 이용한다는 비중 또한 33.6%로 상당한 비중

을 보였다. 2021년과 비교할 때 비혈연 단독 양육 서비스 이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2%p 이하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혈연+비혈연+기관을 병행하는 비율이 3%p 증가한 데 비해 혈연+비혈연 동시 이용이 5.2%p 감소하여, 기관 이용과 개인양육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유아의 경우 64.7%가 기관 이용을 병행하였고 영아의 경우는 비혈연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22.8%로 유아 대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비혈연 단독 이용의 비중이 가장 컸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과 병행이용이 증가하였는데 0세의 기관 이용은 0%로 전무하였다. 4세의 경우 75.4%가 기관 이용과 비혈연 도우미를 조합하여 양육지원을 받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59.7%), 모 취업 가구(55.4%)일 경우 기관 이용과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3-3〉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비혈연 단독	혈연+비혈연	비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전체	13.7	3.6	49.1	33.6	100.0(65)
영유아구분					
영아	22.8	6.0	38.7	32.4	100.0(38)
유아	-	-	64.7	35.3	100.0(27)
생활연령					
0세	62.3	37.7	-	-	100.0(5)
1세	44.5	7.1	26.5	21.9	100.0(12)
2세	11.5	-	51.9	36.6	100.0(13)
3세	-	-	49.5	50.5	100.0(8)
4세	-	-	75.4	24.6	100.0(10)
5세 이상	-	-	55.8	44.2	100.0(17)
지역규모					
대도시	15.0	2.5	44.0	38.5	100.0(35)
중소도시	13.5	3.0	59.7	23.8	100.0(20)
읍·면	7.8	10.8	42.9	38.4	100.0(10)
모 취업 여부					
취업	5.6	3.2	55.4	35.8	100.0(50)
휴직 중	67.4	-	-	32.6	100.0(4)
미취업	26.5	8.0	47.3	18.2	100.0(10)
부재 등	-	-	-	100.0	100.0(1)
2021년	13.2	8.8	47.5	30.6	100.0(55)
2018년	13.7	18.9	57.9	9.4	100.0(92)
2015년	7.0	-	69.0	24.0	100.0(31)

구분	비혈연 단독	혈연+비혈연	비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2012년	28.8	3.7	55.2	12.3	100.0(8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91. <표 IX-3-3>.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이용 시간대는 ‘하원 후 퇴근 전’이 34.6%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출근 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이 18.7%, 불규칙하게 필요시가 13.5% 순이었다. 영아의 경우, 이용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유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유아들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이 53.5%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출근 후~등원전/하원 후~퇴근 전’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33.5%로 유일하게 높은 선택 비중을 보인 반면 중소도시나 읍면에서는 ‘하원 후 퇴근 전’이 52.0~65.6%로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모의 경우 ‘하원 후~퇴근 전’ 이용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취업모는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X-3-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단위: %(명), 시간

구분	하루 종일	출근 후~ 등원 전	출근 후~ 하원 후 퇴근 전	출근 후~ 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계(수)	$\chi^2(df)$	이용시간(주당)		
									전체	'21	'18
전체	8.5	11.4	34.6	18.7	13.5	13.3	100.0(65)		21.1	19.6	21.6
영유아구분											
영아	14.1	13.7	22.1	11.3	16.5	22.2	100.0(38)	16.6(5)**	25.4	27.8	30.2
유아	-	8.0	53.5	29.7	8.9	-	100.0(27)		14.7	15.0	16.0
지역규모											
대도시	12.2	12.9	12.8	33.5	12.0	16.7	100.0(35)	21.0(10)*	23.8	21.9	23.6
중소도시	2.5	8.2	65.6	-	15.2	8.5	100.0(20)		18.3	23.7	15.8
읍·면	7.8	13.9	52.0	-	15.4	10.8	100.0(10)		16.1	7.8	21.0
모 취업 여부											
취업	10.0	10.9	45.5	21.0	6.6	6.0	100.0(50)	44.7(15)***	19.2	19.0	21.8
휴직 중	10.0	-	-	32.6	-	57.4	100.0(4)		32.8	27.9	34.8
미취업	-	14.7	-	-	57.7	27.6	100.0(10)		25.3	9.4	9.8
부재 등	-	100.0	-	-	-	-	100.0(1)		10.0	-	4.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493~494. <표 IX-3-4>.

* $p < .05$, ** $p < .01$, *** $p < .001$.

4) 서비스 장소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의 86.5%가 아이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이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고, 돌보는 사람 집에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21.4%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취업모(88.2%), 미취업모(69.1%)보다 휴직 중(100.0%)인 경우에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아이의 집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3-5〉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전체	'21년	'18년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아이 집	90.2	80.8	86.3	96.4	56.5	88.2	100.0	69.1	100.0	86.5	95.2	97.8
돌보는 사람 집	9.8	8.3	10.2	3.6	21.4	6.1	-	30.9	-	9.2	4.8	2.2
기타	-	10.9	3.5	-	22.0	5.7	-	-	-	4.3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8)	(27)	(35)	(20)	(10)	(50)	(4)	(10)	(1)	(65)	(55)	(81)
$\chi^2(df)$	4.7(2)		5.2(4)			7.8(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 보기 항목에 기타를 추가함.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93. 〈표 IX-3-5〉.

나. 비혈연 양육지원자 이용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를 살펴보았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81.1%로 나타났고, 비정기적 지불이 4.2%였으며 지불을 안한다는 비율은 14.7%를 차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정기적 지불 및 비정기적 지불 경우가 많아졌고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줄어들었다.

영아의 경우 유아보다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높았고 대도시 등 도시지역이 읍면보다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읍·면지역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6.1%였다. 관측치가 작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비혈연 양육

자임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비중이 읍·면지역에서 높은 것은 이웃 등의 돌봄 품앗이 (예: 마을공동체 돌봄 등)의 형태의 돌봄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 또는 77.3%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혈연과 비혈연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형태일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2024년에는 돌봄 대가를 현물로 지불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X-3-6〉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비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전체	81.1	4.2	-	14.7	100.0(65)
영유아구분					
영아	88.2	2.5	-	9.3	100.0(38)
유아	70.4	6.8	-	22.8	100.0(27)
지역규모					
대도시	86.6	7.6	-	5.9	100.0(35)
중소도시	93.7	-	-	6.3	100.0(20)
읍·면	13.9	-	-	86.1	100.0(10)
모 취업 여부					
취업	77.3	4.9	-	17.8	100.0(50)
휴직 중	100.0	-	-	-	100.0(4)
미취업	88.8	3.2	-	8.0	100.0(10)
부채 등	100.0	-	-	-	100.0(1)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93.8	-	-	6.2	100.0(8)
혈연 보완	67.4	-	-	32.6	100.0(3)
기관 보완	85.7	1.0	-	13.4	100.0(34)
비혈연+혈연+기관	70.6	11.1	-	18.2	100.0(20)
2021년	78.5	1.2	0.5	19.8	100.0(55)
2018년	87.2	9.3	-	3.5	100.0(81)
2015년	94.7	4.7	0.5	-	100.0(31)
2012년	75.0	1.4	2.8	20.8	100.0(84)
2009년	90.1	4.2	1.4	4.2	100.0(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1년에는 '숙식만 제공' 응답이 있었으나 조사결과 응답자가 0으로 '21년 보고서에도 수치를 넣지 않음. 이에 '24년 보기 항목에서 삭제함.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94. 〈표 IX-3-6〉.

2) 비용 지불 수준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유형별 비용 지불 수준을 보면, 지불 비용 평균은 97

만2천원이었으며,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금액 84만8천원보다 증가한 결과로 연도가 지날수록 대체로 비혈연 양육지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2021년 260만원에서 2024년 400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지불 최고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공자별로는 민간육아도우미에 평균 142만8천원을 지불하여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공아이돌보미는 46만2,000원으로 민간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 아이돌보미 사용의 경우 30~39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비용이 32.6%로 가장 많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는 80만원 이상이 90.1%로 대부분이었다. 이웃 지인의 경우는 평균 62만7,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X-3-7〉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단위: 명, (%), 만원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지인	기타	전체	'21년	'18년	'15년	'12년
10만원 이하	-	2.3	-	-	1.2	1.5	1.4	-	0.5
10~19만원 이하	20.9	-	-	-	8.9	4.5	13.9	5.9	2.3
20~29만원 이하	6.2	-	24.1	-	4.0	13.8	6.2	1.3	1.4
30~39만원 이하	32.6	4.2	-	-	16.0	-	-	-	-
40~49만원 이하	3.4	3.4	58.3	-	6.5	1.8	2.7	0.2	-
50~59만원 이하	5.9	-	-	-	2.5	11.3	12.7	16.2	3.1
60~69만원 이하	-	-	-	-	-	9.6	2.6	5.2	0.3
70~79만원 이하	8.9	-	-	-	3.8	0.8	4.9	4.3	0.9
80만원 이상	22.1	90.1	17.6	-	57.1	46.0	41.7	59.1	91.0
계(수)	100.0(23)	100.0(26)	100.0(3)	-	100.0(52)	100.0(47)	100.0(77)	100.0(31)	100.0(68)
평균	46.2	142.8	62.7	-	97.2	84.8	79.1	88.9	58.0
표준편차	32.7	88.6	68.0	-	83.1	63.9	66.6	52.6	47.1
최고	100.0	400.0	180.0	-	400.0	260.0	250.0	200.0	18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495. 〈표 IX-3-7〉.

비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월 평균 비용에 대해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경우 평균 114만2,000원으로 유아 67만3,000원보다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15만2,000원으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영아의 경우 종일 돌봄(단독 이용)을 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해, 유아는 기관 병행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돌봄 시간이 짧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취업 중인 경우 평균 90만2,000원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였고 전체적으로 최대값은 월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X-3-8〉 비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t/F	(수)
전체	97.2	83.1	400.0		(52)
영유아구분					
영아	114.2	95.6	400.0		(32)
유아	67.3	42.4	150.0	2.0*	(20)
지역규모					
대도시	115.2	93.7	400.0		(33)
중소도시	69.4	54.3	200.0	2.1	(18)
읍·면	48.0	-	48.0		(1)
모 취업 여부					
취업	90.2	70.8	315.0		(38)
휴직 중	185.0	168.3	400.0	2.4(a)	(4)
미취업	80.9	30.4	100.0		(9)
부재 등	30.0	-	30.0		(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3) 비혈연 인력의 결근 시 대처 방법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방법을 조사한 결과, 결근은 거의 없음이 76.9%였으나 21.9%는 가끔 결근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근이 없는 비율을 보면 영아와 유아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는 결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가끔 결근하는 비율이 32.2%에 이르러 상당한 비율을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비혈연 양육지원자가 가끔 결근을 하는 경우가 25.1%였다.

지원 인력이 결근 시 대처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돌보는 경우(40.2%),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48.6%)가 높은 비중이었고, 시간제나 다른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6%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에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6.8%에 그쳐 긴급한 상황의 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표 IX-3-9〉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단위: %, (명)

구분	결근 빈도				결근 시 대처			
	가끔 있음	거의 없음	비해당	계(수)	부모가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	시간제보육	다른 아이돌보미 이용
전체	21.9	76.9	1.2	(65)	40.2	48.6	5.9	5.3
영유아구분								
영아	21.4	78.6	-	(38)	55.5	35.3	-	9.1
유아	22.8	74.2	3.0	(27)	18.6	67.2	14.2	-
지역규모								
대도시	27.1	72.9	-	(35)	20.8	70.6	8.6	-
중소도시	10.1	86.4	3.6	(20)	100.0	-	-	-
읍·면	32.2	67.8	-	(10)	66.5	-	-	33.5
모 취업 여부								
취업	25.1	73.3	1.6	(50)	37.5	55.8	6.8	-
휴직 중	-	100.0	-	(4)	-	-	-	-
미취업	19.4	80.6	-	(10)	58.6	-	-	41.4
부채 등	-	100.0	-	(1)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결근빈도 중 '자주 있음', 결근 시 대처 중 '아이형제자매', '이웃에 부탁',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표에서 삭제함.

3) 2024년 보기 문항 의미는 동일하나, 문장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윤문함.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시사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의 특성 및 이용 실태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18.3%로 이전 조사 연도인 2021년 결과보다 6.8%p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는 모두 기관 이용과 병행 이용하는 경우였으며, 영아는 종일 돌봄을 하는 경우가 전체 영유아 중 6.4%로 전년(7.0%)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앞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률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양육서비스의 이용은 기관 이용 이후에 이뤄지는 시간제 돌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대부분 혈연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동거와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을 합하면 93.1%의 아동이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영유아 가구에 대해

서는 비혈연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부모가 지불하는 월 비용은 평균 6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혈연양육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절반가량이었다. 즉, 혈연관계의 사람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는 무상 돌봄의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손자녀(가족) 돌봄에 대한 수당 지원 정책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학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최효미 외, 2024). 다만, 점차 혈연관계의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조부모 대상의 양육 관련 교육, 건강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4년 여성가족부는 공공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로 확대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4). 이러한 정책 지원의 확대로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아이돌보미에 비해 고가인 민간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공공아이돌보미의 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기존에는 지인 소개 등으로 이뤄지던 구인 방식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구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온라인 구인의 신뢰도 제고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X.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본 장에서는 시간제 사교육기관과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본 조사에서의 시간제 사교육기관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한 아동의 특기교육을 위한 학원, 보습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학습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제 교육기관과 개별교육을 합쳐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1.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가. 제 특성별 시간제 사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3.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5% 순이었으며, 72.6%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88.8%가, 유아는 56.8%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 간 차이가 있었고,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는 예능을 수강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유아는 체육 관련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아 이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생활연령별로 보면, 0세는 93.6%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단 6.4%만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6세의 경우는 52.6%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9.4%이고 미취업모는 24.9%여서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소득별로는 집단 구간별로 큰 차이없이 대부분 70~80% 내외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에서는 37.6%가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스를 받고 있어 가장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반면 300~349만원 구간에서는 15.5%만이 시간제 교육기관이나 개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X-1-1〉 제 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없음	(수)
전체	13.1	16.3	3.8	5.3	5.5	2.1	72.6	(3,007)
영유아구분								
영아	5.9	5.4	0.6	1.3	1.3	1.8	88.8	(1,581)
유아	20.2	27.0	7.0	9.3	9.6	2.5	56.8	(1,426)
생활연령								
0세	3.4	1.0	-	-	-	1.9	93.6	(194)
1세	6.6	3.2	0.3	0.3	0.6	3.2	89.0	(470)
2세	7.4	8.1	0.3	1.3	0.5	1.8	86.5	(449)
3세	4.4	6.3	1.3	2.8	3.5	0.4	89.2	(468)
4세	12.8	14.6	3.0	7.0	6.8	2.1	71.3	(494)
5세	24.1	30.2	6.6	7.5	11.1	2.8	53.0	(464)
6세	23.2	35.2	10.8	13.0	10.8	2.5	47.4	(468)
지역규모								
대도시	15.9	20.3	4.3	6.6	5.7	2.4	68.2	(1,291)
중소도시	12.6	13.8	3.7	5.4	5.0	2.1	74.8	(1,264)
읍·면	6.7	13.0	2.8	1.6	6.9	1.7	78.3	(452)
모 취업 여부								
취업	14.1	17.7	4.6	6.3	5.9	2.1	70.6	(1,526)
휴직 중	12.3	15.0	1.6	5.2	4.3	2.8	74.6	(373)
미취업	12.0	14.2	3.4	4.1	5.4	2.0	75.1	(1,087)
부재 등	10.9	36.6	-	-	3.5	-	63.4	(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5	13.0	0.3	0.8	2.5	2.6	79.6	(158)
300~349만원	6.6	8.6	0.8	2.7	2.5	2.1	84.5	(193)
350~399만원	8.0	12.3	0.8	2.1	3.3	2.8	78.3	(202)
400~499만원	7.3	12.2	2.6	3.1	4.8	1.3	80.2	(531)
500~599만원	12.6	13.6	3.2	4.7	4.8	2.7	74.6	(587)
600~699만원	10.8	15.6	4.7	3.4	6.4	1.8	73.5	(430)
700만원 이상	21.7	23.3	6.0	9.3	7.2	2.2	62.4	(860)
모름/무응답	13.9	21.0	7.0	13.1	10.8	2.0	66.4	(46)
2021년	10.1	11.0	3.6	3.5	4.9	1.7	-	(3,471)
2018년	10.9	11.5	2.9	2.6	3.3	1.8	-	(3,77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03. 〈표 X-1-1〉.

나.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이 4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37.1%, 가정양육 8.1% 순이었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7.6%로 나왔다. 영유아여부별로, 영아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9.7%였고 가정양육이 38.0%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유아는 59.3%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슷한 정도를 나타냈으나 읍면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대도시에서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차이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의 경우는 유치원 이용이 50.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취업모나 휴직 중인 경우 취업모 가구보다 가정양육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차이였다.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영유아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이전 연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21년 대비 유치원 이용 비율은 0.3%p가 늘어 거의 비슷한 수분을 보이고 어린이집 이용률은 약 6%p 정도가 줄어들었다. 반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은 1.1%p가 증가하였고 가정양육 또한 4.4%p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표 X-1-2〉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수)
전체	8.1	37.1	47.2	7.6	-	100.0(755)
영유아구분						
영아	38.0	59.7	-	2.4	-	100.0(165)
유아	0.4	31.3	59.3	9.0	-	100.0(590)
$\chi^2(df)$	1348.1(3)***					
지역규모						
대도시	7.1	33.6	46.9	12.4	-	100.0(361)
중소도시	9.4	39.3	47.0	4.3	-	100.0(307)
읍·면	7.1	42.9	49.4	0.5	-	100.0(87)
$\chi^2(df)$	56.2(6)***					
모 취업 여부						
취업	2.1	37.8	50.6	9.6	-	100.0(433)
휴직 중	23.4	32.0	39.0	5.6	-	100.0(87)
미취업	13.5	36.8	44.5	5.3	-	100.0(229)
부재 등	-	60.6	39.4	-	-	100.0(6)

구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수)
$\chi^2(df)$			337.6(9)***			
2021년	3.7	43.0	46.9	6.5	-	100.0(692)
2018년	-	32.6	49.8	5.7	-	100.0(741)
2015년	-	35.1	48.6	3.3	-	100.0(522)
2012년	-	45.2	43.3	5.8	-	100.0(6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2년, 2015년,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에서 해당 문항의 구분은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기타/이용안 함'으로 보고됨. 따라서 동일 항목인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 항목만 표기하였음.

3) 2021년에는 '가정양육' 항목이 분석에 포함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04~505. <표 X-1-2>.

*** $p < .001$.

2.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실태

가. 시간제 사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 수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영유아 중 72.6%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할 경우 '1개' 이용 중인 경우가 13.5%로 가장 많았고, 2개는 8.1% 수준이었다. 이용 비율 및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연령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영아는 1개 이용하는 비율이 7%가량이었고, 유아는 1개 이용이 19.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유아(생활연령 기준 4세 이상)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6.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 가구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프로그램을 1개 이용하는 비율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프로그램 2개를 이용하는 경우 300~349만원 구간에서는 1.7%가 이에 해당하였으나, 7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11.8%가 이에 해당하여 확연한 비율 차이를 보였다.

2021년 조사 결과 대비,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률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1개 이용하는 비율은 2.2%p 높아진 결과이고, 프로그램 2개를 이용하는 비율은 3.4%p만큼 높아져,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전 연도들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2018년과 비교하여서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코로나19 세대 영유아의 사교육 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X-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72.6	13.5	8.1	3.6	1.3	0.9	100.0(3,007)
영유아구분							
영아	88.8	7.0	2.9	1.1	0.1	0.1	100.0(1,581)
유아	56.8	19.9	13.3	6.0	2.4	1.6	100.0(1,426)
생활연령							
0세	93.6	6.4	-	-	-	-	100.0(194)
1세	89.0	7.2	3.0	0.8	-	-	100.0(470)
2세	86.5	8.1	4.2	0.8	0.3	-	100.0(449)
3세	89.2	5.9	2.4	2.0	-	0.5	100.0(468)
4세	71.3	14.7	9.0	3.6	0.5	0.8	100.0(494)
5세	53.0	22.7	13.5	6.5	3.1	1.3	100.0(464)
6세	47.4	22.0	16.9	7.7	3.5	2.5	100.0(468)
지역규모							
대도시	68.2	14.8	10.0	4.1	2.1	0.8	100.0(1,291)
중소도시	74.8	12.6	7.2	3.6	0.7	1.1	100.0(1,264)
읍·면	78.3	13.1	5.9	1.8	0.5	0.5	100.0(452)
모 취업 여부							
취업	70.6	13.1	9.6	4.3	1.5	0.9	100.0(1,526)
휴직 중	74.6	14.0	6.9	3.0	1.3	0.2	100.0(373)
미취업	75.1	13.8	6.2	2.8	0.9	1.1	100.0(1,087)
부재 등	63.4	22.2	14.4	-	-	-	100.0(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79.6	16.6	2.2	1.6	-	-	100.0(158)
300~349만원	84.5	10.4	1.7	2.8	-	0.5	100.0(193)
350~399만원	78.3	13.5	5.6	2.5	-	-	100.0(202)
400~499만원	80.2	10.9	6.2	1.6	0.8	0.4	100.0(531)
500~599만원	74.6	12.1	9.3	3.0	0.7	0.4	100.0(587)
600~699만원	73.5	13.9	7.4	3.9	1.1	0.1	100.0(430)
700만원이상	62.4	15.7	11.8	5.3	2.4	2.3	100.0(860)
모름/무응답	66.4	16.6	4.1	8.4	4.5	-	100.0(46)
2021년	78.9	11.3	4.7	3.2	1.3	0.6	100.0(3,471)
2018년	77.7	13.6	5.5	1.7	1.0	0.5	100.0(3,775)
2015년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06. 〈표 X-2-1〉.

나. 이용 프로그램 종류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47.9%,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20.2%, '영어' 19.5% 순이었다. 2021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체육 관련이나 영어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아졌고, 수학/과학 관련이나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아진 경향을 보인다. 영어프로그램 이용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임을 볼 수 있으나, 체육 관련은 2024년 조사에서 7.5%p나 급상향된 항목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구분별로는 영아는 예능(미술, 음악) 프로그램이 52.3%로 가장 많았고 체육이 그다음이었으나, 유아는 체육관련이 62.5%로 가장 많았고 2순위가 예능(미술, 음악)이어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3세 연령이 상당히 특징적인데, 예능 프로그램은 전연령 중 가장 낮아 영아기에 관심이 높던 예능 과목 이용이 좀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58.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며, 수학/과학, 언어, 영어 등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선택 비율이 높은 연령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 중 3세는 대부분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져 특히 6세에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수학 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높은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영어'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보면, 읍면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비율이 높았고, 미취업보다는 취업모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2〉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47.9	59.6	13.9	20.2	19.5	7.8	(755)
영유아구분							
영아	52.3	48.2	5.2	11.6	11.9	16.1	(165)
유아	46.8	62.5	16.1	21.5	22.3	5.7	(590)
생활연령							
0세	53.5	16.0	-	-	-	30.4	(9)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1세	59.8	29.3	3.0	2.5	5.8	29.1	(48)
2세	55.2	60.2	2.6	9.8	3.5	13.1	(54)
3세	40.5	58.5	12.0	25.9	32.0	3.6	(54)
4세	44.6	50.7	10.5	24.5	23.5	7.4	(132)
5세	51.2	64.1	14.0	15.9	23.7	5.9	(208)
6세	44.2	66.9	20.6	24.8	20.5	4.7	(250)
지역규모							
대도시	50.0	63.9	13.4	17.9	20.8	7.4	(361)
중소도시	50.0	54.8	14.7	19.7	21.2	8.1	(307)
읍·면	31.0	59.8	12.7	31.6	7.6	8.0	(87)
모 취업 여부							
취업	48.1	60.3	15.7	20.1	21.5	7.2	(433)
휴직 중	48.4	59.1	6.3	16.7	20.3	10.9	(87)
미취업	48.2	57.0	13.8	21.9	16.5	8.1	(229)
부재 등	29.9	100.0	-	9.5	-	-	(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7.3	63.8	1.3	4.1	12.1	12.9	(24)
300~349만원	42.7	55.8	5.3	16.3	17.2	13.7	(32)
350~399만원	36.9	57.0	3.6	15.2	9.5	13.2	(39)
400~499만원	36.9	61.8	12.9	24.1	15.4	6.6	(97)
500~599만원	49.7	53.6	12.8	18.8	18.5	10.7	(132)
600~699만원	40.7	58.7	17.8	24.0	13.0	6.8	(109)
700만원 이상	57.6	61.9	15.9	19.2	24.8	5.8	(307)
모름/무응답	41.4	62.5	20.8	32.3	39.1	6.1	(15)
2021년	48.0	52.1	17.2	23.2	16.5	7.8	(692)
2018년	49.0	51.7	13.0	14.7	11.7	8.1	-
2015년	41.7	53.0	9.4	12.3	7.5	18.9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07~508. <표 X-2-2>.

다.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시간

시간제 사교육기관의 주당 총 이용 시간은 평균 3시간12분으로, 2021년 3시간42분과 비교했을 때 30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기준 1~2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3~4시간이 20.5%로 나타났다. 9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5.4%였다. 영아는 1~2시간이 79.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유아는 1~2시간부터 5~6시간까지 비교적 비슷한 정도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21년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시간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시간을 보면 유아가 3시간 30분으로 영아 2시간 12분보다 1시간 18분 더 길게

시간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도 4세 이상은 3시간 24분~4시간 6분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1~2시간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3~4시간 또는 5~6시간 이용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규모별로는 평균 시간은 비슷한 정도 였는데 읍·면지역에서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9시간 이상 이용하는 읍면 지역 아동 가구는 10.2%로 도시지역보다 높았고 7~8시간 이용도 읍면 지역에서 높았다. 도시 지역 은 3~4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여부별로 비교하면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평균 이용 시간이 이용 하지 않는 경우의 평균 시간보다 길었고,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자 중에서는 반일제이상 학원 아동의 경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다 주당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간 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자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영아에 비해 유아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시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 비해 한시간가량 짧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나 미취업모 가구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휴직 중인 경우에 가장 적게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이 상에서 이전 소득 구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700만원 이상에서 이용하는 시간 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3〉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2.7	20.5	17.7	3.6	5.4	100.0 (755)	3.2
영유아구분							
영아	79.1	10.7	5.6	0.6	4.0	100.0 (165)	2.2
유아	46.0	23.1	20.8	4.4	5.7	100.0 (590)	3.5
생활연령	100.0	-	-	-	-	(9)	1.0
0세	88.0	7.1	5.0	-	-	100.0 (48)	1.6
1세	83.1	11.9	2.0	1.6	1.4	100.0 (54)	2.0
2세	60.3	15.0	12.3	-	12.5	100.0 (54)	3.3
3세	65.0	17.0	14.8	0.9	2.3	100.0 (132)	2.6
4세	44.1	25.8	23.2	2.5	4.3	100.0 (208)	3.4
5세	38.4	23.7	21.8	7.6	8.6	100.0 (250)	4.1
6세	40.7	24.3	23.0	5.5	6.5	100.0 (404)	3.8
지역규모							
대도시	50.6	22.5	18.4	3.4	5.2	100.0 (361)	3.3
중소도시	54.2	20.1	18.4	3.0	4.3	100.0 (307)	3.2
읍·면지역	56.4	14.3	12.6	6.6	10.2	100.0 (87)	3.4

구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이용	36.9	28.3	15.4	13.5	5.8	100.0 (41)	4.1
미이용	54.1	19.9	17.9	2.8	5.3	100.0 (714)	3.2
반일제 이상 이용 기관							
어린이집	60.2	17.0	15.8	1.8	5.3	100.0 (290)	3.0
유치원	45.0	23.5	21.7	3.5	6.2	100.0 (364)	3.5
반일제 이상 학원	36.9	28.3	15.4	13.5	5.8	100.0 (41)	4.1
미이용	78.9	12.3	5.5	3.3	-	100.0 (60)	1.9
모 취업 여부							
취업	50.5	19.7	19.5	4.0	6.4	100.0 (433)	3.4
휴직 중	57.1	25.8	11.0	4.1	2.0	100.0 (87)	2.6
미취업	54.9	21.0	16.5	2.5	5.0	100.0 (229)	3.2
모 부재	59.8	-	30.7	9.5	-	100.0 (6)	3.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4.3	7.2	34.1	-	4.3	100.0 (24)	3.0
300~349만원	48.3	23.7	26.3	-	1.7	100.0 (32)	2.8
350~399만원	79.6	10.4	4.4	2.2	3.4	100.0 (39)	2.3
400~499만원	45.8	23.7	23.6	2.7	4.2	100.0 (97)	3.3
500~599만원	57.8	19.1	13.8	3.3	6.0	100.0 (132)	3.0
600~699만원	50.3	27.2	15.4	3.7	3.4	100.0 (109)	3.1
700만원이상	51.1	19.1	18.7	4.0	7.0	100.0 (307)	3.5
모름/무응답	45.3	37.1	2.4	15.3	-	100.0 (15)	3.2
2021년	44.5	20.9	22.9	4.3	7.4	100.0 (692)	3.7
2018년	47.3	15.2	24.4	4.7	8.4	100.0 (741)	3.7
2015년	45.8	14.4	28.4	5.0	6.3	100.0 (510)	3.6
2012년	41.8	10.9	33.6	5.1	8.7	100.0 (614)	4.0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09~510. <표 X-2-3>.

라.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비용

시간제 사교육기관의 각 프로그램별 부모의 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영어가 17만3,1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예능(미술, 음악) 11만5,500원, 체육 관련 순이었다. 영아의 경우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가 12만9,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전체 평균 순위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영어’도 비슷한 수준인 12만8,100원 이었다. 유아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가 17만 9,200원으로 비용이 가장 높고, 다음은 예능(미술, 음악) 12만2,900원, 체육 관련 순이었다. 일관성 있는 경향성을 비용에서 찾기는 어려우나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

하면 2세에서 전체적으로 이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5, 6세의 비용이 높았다. 2021년의 프로그램별 비용과 비교하면, 영어 프로그램에서 2만4천원 정도의 비용 상향이 있어 크게 올랐고, 수학/과학도 상향되었다. 예능이나 체육 등에서는 비용이 내려간 경향이 나타났다.

〈표 X-2-4〉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연도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표준편차)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4	예능(미술, 음악)	89.7	122.9	84.1	71.0	110.8	81.6	106.5	110.9	142.5	115.5 (70.6)	(357)
	체육관련	86.3	119.2	40.0	75.8	97.5	79.0	98.0	124.8	122.5	113.8 (69.4)	(437)
	수학/과학 관련	116.3	111.2	-	100.0	59.8	136.5	97.0	109.7	115.5	111.6 (82.3)	(95)
	언어(한글, 한자, 기타외국어 등)	129.0	179.2	-	160.0	139.0	120.8	132.6	226.9	176.2	111.3 (86.3)	(140)
	영어	128.7	108.9	-	68.0	250.8	122.1	115.2	94.4	119.3	173.1 (140.4)	(132)
	기타	108.1	141.9	116.0	107.5	120.8	38.1	141.4	183.0	98.8	127.7 (95.4)	(59)
2021	예능(미술, 음악)	80.5	129.6	42.2	78.5	90.7	110.4	111.4		136.6	126.7 (68.4)	(329)
	체육관련	94.3	126.9	-	126.1	65.1	85.2	113.1		132.5	124.8 (60.3)	(346)
	수학/과학 관련	72.6	101.9	-	100.0	63.6	141.7	101.2		99.7	101.4 (76.5)	(113)
	언어(한글, 한자, 기타외국어 등)	64.6	117.6	-	100.0	62.6	148.6	129.0		110.7	114.3 (83)	(151)
	영어	83.2	152.8	-	-	83.2	144.4	116.4		163.1	149.1 (83)	(108)
	기타	96.6	114.2	79.1	96.9	102.4	48.1	114.0		119.5	110.3 (79.8)	(56)
2018	예능(미술, 음악)	64.8	105.5	68.9	64.9	62.7	77.7	97.0		113.2	100.2 (64.6)	(363)
	체육관련	64.9	108.6	126.7	61.0	58.3	77.3	107.7		113.5	102.5 (64.5)	(375)
	수학/과학 관련	52.7	91.9	-	-	52.7	104.5	102.6		88.9	91.0 (60.5)	(8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3.9	80.6	-	-	53.9	79.5	93.9		77.3	79.3 (49.6)	(101)
	영어	22.5	121.2	-	30.0	15.0	121.6	147.8		114.0	119.0 (74.9)	(80)
	기타	56.4	77.0	35.9	62.4	90.9	38.6	87.1		87.0	70.3 (56.3)	(5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1년 이전 자료에서는 5세 이상으로 통합한 이용비용을 보고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11. 〈표 X-2-4〉.

시간제 사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월평균 20만4,800원이었으며, 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데, 2021년 평균 비용은 20만2,900원으로 2024년보다 2천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금액 구간별에서 '21년은 10~1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던 반면 '24년은 15만원 이상에서 비율이 높아져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영아는 평균 14만2,300원의 비용을 시간제 교육에 사용하고 있었고, 유아 가구에서는 22만800원을 지출하여 영/유아 간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교육 이용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6세 비용은 24만1,400원으로 0세 8만6,700원에 비하면 2.5배 이상 높은 비용이 소요됨을 보여준다. 특히 6세의 경우 30만원 이상이 34.3%여서 연령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고 영아는 다수가 10만원 미만으로, 유아는 다수가 15만원 이상으로 지출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가구가 21만4,200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읍·면지역은 17만6,300원이어서 지역규모별로 이용비용이 차이가 나타났고 모취업별로는 취업모가 22만2,200원으로 19만3,500원을 보고한 미취업모에 비해 비용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향을 찾기 어려운데, 7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24만700원을 월평균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6만~18만원 선에서 지출하고 있었으며, 400~499만원 구간에서 19만4,600원을 지불하여 비교적 높은 비용 수준을 보였다. 이를 보면 가구소득 수준과는 큰 상관없이 대다수의 영유아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X-2-5〉 제 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7	12.8	16.7	18.4	13.9	24.6	100.0(755)	204.8
영유아구분								
영아	22.8	25.3	18.2	7.5	13.5	12.7	100.0(165)	142.3
유아	11.3	9.6	16.3	21.2	13.9	27.6	100.0(590)	220.8
생활연령								
0세	29.1	35.3	26.9	8.8	-	-	100.0(9)	86.7
1세	28.5	37.1	8.6	3.7	12.1	10.2	100.0(48)	106.9
2세	18.4	16.3	25.0	3.7	22.1	14.5	100.0(54)	159.7
3세	21.6	22.9	17.4	16.3	6.3	15.5	100.0(54)	167.5
4세	17.8	9.8	18.1	22.6	15.3	16.3	100.0(132)	177.4
5세	11.0	10.7	16.3	20.1	15.8	26.1	100.0(208)	221.5
6세	8.5	8.5	15.5	21.5	11.7	34.3	100.0(250)	241.4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13.5	10.8	18.4	18.8	14.2	24.3	100.0(361)	214.2
중소도시	14.2	14.9	15.0	16.2	12.4	27.5	100.0(307)	201.9
읍·면	12.5	13.1	16.5	25.6	18.1	14.3	100.0(87)	176.3
모 취업 여부								
취업	8.4	12.1	17.2	20.4	14.9	27.0	100.0(433)	222.2
휴직 중	17.0	23.3	18.8	16.0	7.4	17.5	100.0(87)	160.7
미취업	20.0	10.8	15.4	15.7	14.7	23.4	100.0(229)	193.5
부재	57.8	-	11.4	21.3	-	9.5	100.0(6)	100.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4.5	-	17.0	40.1	17.1	11.3	100.0(24)	161.1
300~349만원	13.0	12.9	26.3	21.7	9.6	16.5	100.0(32)	161.7
350~399만원	22.0	20.6	15.0	18.4	5.8	18.2	100.0(39)	150.2
400~499만원	21.3	8.3	15.7	14.2	13.1	27.5	100.0(97)	194.6
500~599만원	15.3	10.6	12.7	21.3	20.6	19.5	100.0(132)	187.5
600~699만원	17.9	16.1	19.8	12.7	15.0	18.4	100.0(109)	173.0
700만원 이상	8.1	13.8	17.1	18.1	12.3	30.5	100.0(307)	240.7
모름/무응답	17.4	20.8	17.7	17.0	1.9	25.1	100.0(15)	187.2
2021년	6.4	8.7	35.7	12.0	16.2	21.1	100.0(692)	202.9
2018년	19.6	13.2	32.8	9.8	13.8	10.9	100.0(741)	145.2
2015년	20.8	21.6	34.4	10.2	7.4	5.7	100.0(510)	116.8
2012년	25.6	28.8	30.3	7.0	4.8	3.5	100.0(614)	99.7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12. <표 X-2-5>.

시간제 사교육기관의 프로그램별 월 평균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지역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다만 수학/과학이나 영어 프로그램에서 읍면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이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취업 여부별로 비교하면 취업모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2만원 정도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6> 제 특성별 및 프로그램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예능(미술, 음악)	평균 (수)	115.7 (180)	114.7 (144)	119.3 (33)	126.6 (204)	100.0 (40)	103.9 (112)	13.0 (1)	115.5 (357)
체육관련	평균 (수)	115.5 (225)	111.4 (163)	114.2 (49)	120.3 (255)	89.7 (53)	112.6 (123)	76.6 (6)	113.8 (437)
수학/과학 관련	평균 (수)	117.3 (44)	109.0 (41)	97.1 (10)	122.1 (59)	69.3 (4)	97.2 (32)	-	111.6 (95)
영어	평균 (수)	179.0 (66)	170.6 (59)	131.0 (7)	180.7 (83)	162.1 (16)	160.6 (33)	-	173.1 (132)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평균 (수)	112.7 (62)	103.7 (55)	126.0 (23)	106.0 (81)	83.5 (12)	125.3 (46)	210.0 (1)	111.3 (140)
기타	평균 (수)	127.1 (27)	132.4 (26)	111.6 (6)	131.2 (31)	73.7 (11)	147.0 (17)	- (-)	127.7 (59)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 구간 및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700만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소득 가구들은 동일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좀 더 고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하겠다.

〈표 X-2-7〉 가구소득 및 프로그램별 시간제 교육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250~	300~	350~	400~	500~	600~	700만원	모름	전체
		299만원	349만원	399만원	499만원	599만원	699만원	이상	무응답	
예능 (미술, 음악)	평균	162.8	131.2	108.5	108.0	90.6	118.1	125.9	78.2	115.5
	(수)	(3)	(13)	(15)	(41)	(65)	(44)	(170)	(6)	(357)
체육관련	평균	121.8	95.4	118.2	107.9	116.9	96.3	120.9	97.6	113.8
	(수)	(16)	(18)	(22)	(57)	(64)	(65)	(187)	(8)	(437)
수학/과학 관련	평균	80.0	51.6	14.6	138.8	109.2	83.8	120.2	111.1	111.6
	(수)	(1)	(2)	(2)	(12)	(17)	(15)	(42)	(4)	(95)
영어	평균	230.0	140.7	132.4	187.9	139.5	184.6	189.3	101.6	173.1
	(수)	(1)	(4)	(3)	(13)	(24)	(16)	(66)	(5)	(13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평균	83.8	71.6	117.4	130.9	135.2	101.1	103.9	87.9	111.3
	(수)	(4)	(3)	(5)	(21)	(22)	(23)	(57)	(5)	(140)
기타	평균	268.3	101.0	91.1	147.5	136.4	78.3	124.5	40.0	127.7
	(수)	(3)	(5)	(6)	(6)	(11)	(7)	(20)	(1)	(59)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한편,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별 이용 시간당 비용을 산출한 결과, 프로그램 종류 중 이용 시간 대비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영어로 2만2,400원(표준편차 1만6,400원)으로 산출되었다. 월평균 비용으로 보면 영어가 17만3,100원으로 독보적으로 높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예능(미술, 음악)이 11만5,500원, 체육관련이 11만3,800원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주당 이용 시간을 보면 대부분 1시간 24분~2시간 24분 시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어가 2시간 24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체육 관련 2시간 6분, 예능(미술, 음악) 1시간 48분, 언어 1시간 42분의 순이었다.

〈표 X-2-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시간, 전반적 만족도 비교

구분	월평균 이용비용(A)		주당 이용시간(B)		이용시간대비 비용(A/(B*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능(미술, 음악)	115.5	70.6	1시간 48분	1시간 24분	20.3	13.1
체육관련	113.8	69.4	2시간 6분	2시간 56분	18.4	14.3
수학/과학 관련	111.6	82.3	1시간 32분	0시간 54분	20.9	13.5
영어	173.1	140.4	2시간 24분	1시간 56분	22.4	16.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11.3	86.3	1시간 56분	1시간 18분	20.5	16.1
기타	127.7	95.4	1시간 56분	1시간 18분	20.2	12.8

단위: 천원, 시간:분, 점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마. 시간제 교육기관 만족도

시간제 학원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예능 및 체육 관련이 4.3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영어는 4.2점, 언어는 4.1점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용 시간이 많고 투자하는 이용 비율 또한 가장 높은 데 비해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체육 관련’인 것으로 40.9%가 해당 응답에 표기하고 있는데, 체육관련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볼 때 이용비용은 높지 않으나, 이용 시간은 길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수학/과학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9〉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단위: %, (점),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표준편차)	계(수)
예능(미술, 음악)	0.4	0.8	9.4	51.4	38.1	4.3(0.7)	100.0(357)
체육관련	-	0.3	9.3	49.5	40.9	4.3(0.6)	100.0(437)
수학/과학 관련	-	-	25.1	47.4	27.5	4.0(0.7)	100.0(95)
영어	-	-	14.0	51.8	34.1	4.2(0.7)	100.0(13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	-	22.0	46.7	31.4	4.1(0.7)	100.0(140)
기타	0.5	-	13.6	59.1	26.9	4.1(0.7)	100.0(5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영유아 구분이나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체육 관련 프로그램에서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만족도에 비해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수학/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가 예능이나 체육 관련 프로그램에서 미취업모보다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어나 언어에서는 미취업모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았다.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낮아졌고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언어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표 X-2-10〉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전체	4.3	4.3	4.0	4.1	4.2	4.1
영유아구분						
영아	4.2	4.3	4.3	4.2	4.3	3.9
유아	4.3	4.3	4.0	4.2	4.1	4.3
<i>t</i>	-0.4	0	1	-0.2	1.6	-2
생활연령						
0세	4.3	3.0				4.3
1세	4.5	4.1	4.0	5.0	4.3	3.7
2세	4.1	4.3	4.9	4.6	3.8	4.1
3세	4.1	4.5	4.1	3.9	4.4	4.5
4세	4.3	4.3	4.2	4.2	4.0	4.2
5세	4.3	4.2	3.8	4.3	4.1	4.2
6세	4.3	4.4	4.1	4.2	4.1	4.4
<i>F</i>	0.9	2.1(a)	1.1	1.8	0.9	1.5
지역규모						
대도시	4.3	4.3	4.1	4.1	4.3	4.3
중소도시	4.2	4.4	4.0	4.2	4.1	4.1
읍·면	4.4	4.1	3.6	4.0	4.0	3.8
<i>F</i>	1.7(a)	4.6*(a)	2.5(a)	1.1	0.7	1.8
모 취업 여부						
취업	4.3	4.4	4.1	4.0	4.2	4.0
휴직 중	4.5	4.4	3.8	4.3	4.0	4.1
미취업	4.2	4.2	4.0	4.2	4.3	4.3
부재	5.0	4.6	-	3.0	-	-
<i>F</i>	3.4	4.5*	0.6	1.7	1.2	1.3
(수)	(357)	(437)	(95)	(132)	(140)	(59)
2021년	4.3	4.2	4.1	4.1	4.1	4.1

구분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영어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기타
2018년	3.9	4.0	4.1	4.0	3.8	3.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15~516. <표 X-2-10>.

* $p < .05$, ** $p < .01$.

3. 개별교육 이용 실태

가. 개별교육 이용 현황

학습지 등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지 12.4%, 교재교구활용 2.8%, 개별 또는 그룹지도 2.8%, 통신교육 2.0%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지의 경우 2021년 12.7%보다 0.3%p 줄어든 수준이고, 교재교구활용이나 통신교육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개인·그룹 지도는 0.5%p 만큼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개별교육 이용률은 감소되는 경향으로 보였다.

각 교육 유형별 평균 이용 개수는 1.1~1.4개로 대부분 1개 정도 이용하고 있었으며, 개별교육의 월평균 이용 비용은 종류별로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이 17만1,2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재교육활용, 통신교육, 학습지 이용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단가가 높은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 상승한 상황이므로,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의 변화가 전체 개별교육 비용에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X-3-1> 개인·그룹지도 이용 현황

단위: %, (명), 개, 천원

구분	이용비율				이용 평균 개수	월평균 비용	(수)
	'24	'21	'18	'15			
개인·그룹지도(개인과외)	2.8	2.3	12.0	-	1.4	171.2	(93)
학습지(비대면 학습지 포함)	12.4	12.7	83.5	81.0	1.4	92.9	(360)
교재교구활용	2.8	3.1	11.5	12.2	1.3	113.8	(80)
통신교육(전화·인터넷)	2.0	2.3	2.1	1.5	1.1	107.6	(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학습지에 ‘비대면 학습지 포함’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설명 문구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17. <표 X-3-1>.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 학습지 이용률이 각각 3.4%와 21.2%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두 영아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특히 학습지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 유아의 1/5 이상이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지가 영유아기 주로 이용하는 개별교육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그룹지도나 학습지, 통신교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이용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교재교구활용의 경우는 4세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개별 또는 그룹지도,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등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학습지는 읍·면지역에서 이용률이 더 높았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 비율이 높았으나 통신교육에서는 미취업모 가구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2〉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 유무

단위: %, (명)

구분	개인·그룹지도 (개인·과외)	학습지 (비대면 학습지 포함)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전화·인터넷)	(수)
전체	2.8	12.4	2.8	2.0	(3,007)
영유아구분					
영아	1.3	3.4	2.0	0.5	(1,581)
유아	4.3	21.2	3.6	3.4	(1,426)
생활연령					
0세	-	-	0.3	-	(194)
1세	1.0	0.3	1.5	-	(470)
2세	1.2	2.3	3.2	0.3	(449)
3세	2.0	9.0	1.9	1.6	(468)
4세	4.9	16.4	5.3	2.2	(494)
5세	4.4	21.8	3.5	3.3	(464)
6세	3.8	25.0	2.1	4.6	(468)
지역규모					
대도시	4.3	13.1	3.2	2.6	(1,291)
중소도시	1.8	11.1	2.7	1.3	(1,264)
읍·면	1.9	14.8	2.1	2.3	(452)
모 취업 여부					
취업	3.2	13.5	3.2	1.9	(1,526)
휴직 중	1.9	8.8	1.9	1.3	(373)
미취업	2.5	12.2	2.6	2.5	(1,087)
부재 등	3.4	3.5	3.4	-	(2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조사대상 영유아의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살펴본 결과,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2.3%로 다수를 차지하고, 1개 이용이 11.6%로 이용자 중에서는 다수였다. 즉, 영유아들은 대체로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거나 2개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유아의 경우 17.8%가 1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2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7.1%로 집계되었다. 지역규모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개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중소도시나 읍면에 비해 높았고, 이용 개수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에 비해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용 개수에서도 취업모 집단이 더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개별교육 이용 전체 비율에 있어서 일률적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7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99만원 이하 구간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350~399만원 소득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개 이용은 7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연도별 개별교육 이용 개수를 비교해보면, 2015년 조사 이래로 이용 개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X-3-3〉 개별교육 이용 개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82.3	11.6	4.2	1.4	0.3	0.2	100.0(3,007)
영유아구분							
영아	93.2	5.2	1.3	0.3	-	-	100.0(1,581)
유아	71.6	17.8	7.1	2.5	0.5	0.4	100.0(1,426)
생활연령							
0세	99.7	0.3	-	-	-	-	100.0(194)
1세	97.2	2.4	0.2	0.2	-	-	100.0(470)
2세	93.5	4.6	1.8	0.1	-	-	100.0(449)
3세	86.6	10.4	2.4	0.6	-	-	100.0(468)
4세	76.0	14.6	7.4	0.8	0.8	0.5	100.0(494)
5세	71.3	18.6	6.8	2.5	0.5	0.3	100.0(464)
6세	68.1	19.9	7.2	4.1	0.3	0.5	100.0(468)
지역규모							
대도시	79.8	12.3	5.6	1.4	0.4	0.5	100.0(1,291)
중소도시	84.9	10.8	2.8	1.5	0.1	0.0	100.0(1,264)
읍·면	81.3	11.9	5.3	1.2	0.3	-	100.0(452)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13.5	4.5	1.3	0.2	0.0	100.0(1,526)
휴직 중	87.8	7.0	4.2	1.0	-	-	100.0(373)
미취업	83.0	10.6	3.8	1.7	0.4	0.5	100.0(1,087)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부재 등	93.1	-	6.9	-	-	-	100.0(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91.7	5.3	1.9	1.1	-	-	100.0(158)
300~349만원	90.5	4.4	3.2	1.3	0.6	-	100.0(193)
350~399만원	81.7	10.8	2.9	3.9	-	0.8	100.0(202)
400~499만원	84.2	11.1	2.8	1.5	-	0.4	100.0(531)
500~599만원	81.8	11.6	4.6	1.4	0.2	0.4	100.0(587)
600~699만원	86.2	8.4	4.4	0.6	0.3	-	100.0(430)
700만원이상	76.3	16.3	5.6	1.3	0.5	0.0	100.0(860)
모름/무응답	88.8	5.1	4.9	1.1	-	-	100.0(46)
2021년	81.8	12.0	4.1	1.5	0.4	0.2	100.0(3,471)
2018년	80.4	10.6	6.5	1.6	0.6	0.3	100.0(3,775)
2015년	83.4	9.1	5.5	1.4	0.5	0.1	100.0(3,560)
2012년	66.2	15.5	13.5	3.6	0.6	0.4	100.0(3,34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19. <표 X-3-3>.

개별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주당 1시간 5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대값은 10시간, 최소값은 10분이었다. 유아는 평균 1시간 8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영아는 50분으로 유아보다는 18분가량 이용 시간이 짧았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5세가 1시간 19분으로 가장 길게 이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6세 1시간 7분, 4세 57분 순으로 유아 연령 아동들은 4세부터 약 1시간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시간 14분으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에 비해 이용 시간이 길었고, 취업모 가구(55분)보다는 미취업모 가구(1시간21분)의 이용 시간이 훨씬 길었다. 개별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 및 관찰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미취업 가정에서 학습지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소득별로는 300~349만원 소득구간에서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이용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개별교육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표 X-3-4〉 개별그룹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수)
전체	1시간 5분	1시간 13분	10시간 0분	0시간 10분	(516)
영유아구분					
영아	0시간 50분	0시간 38분	3시간 20분	0시간 10분	(112)
유아	1시간 8분	1시간 19분	10시간 0분	0시간 10분	(404)
생활연령					
0세	0시간 40분	0시간 0분	0시간 40분	0시간 40분	(1)
1세	0시간 57분	0시간 49분	3시간 20분	0시간 20분	(14)
2세	0시간 39분	0시간 24분	2시간 0분	0시간 15분	(33)
3세	0시간 54분	0시간 41분	2시간 50분	0시간 10분	(64)
4세	0시간 57분	1시간 4분	6시간 20분	0시간 10분	(116)
5세	1시간 19분	1시간 26분	7시간 30분	0시간 10분	(130)
6세	1시간 7분	1시간 21분	10시간 0분	0시간 10분	(158)
지역규모					
대도시	1시간 14분	1시간 33분	10시간 0분	0시간 10분	(242)
중소도시	0시간 58분	0시간 51분	5시간 0분	0시간 10분	(197)
읍·면	0시간 53분	0시간 45분	5시간 0분	0시간 10분	(77)
모 취업 여부					
취업	0시간 55분	0시간 56분	7시간 30분	0시간 10분	(307)
휴직 중	0시간 55분	0시간 41분	2시간 30분	0시간 10분	(36)
미취업	1시간 21분	1시간 31분	8시간 0분	0시간 10분	(171)
부재 등	5시간 13분	7시간 7분	10시간 0분	0시간 30분	(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시간 0분	0시간 47분	2시간 20분	0시간 15분	(14)
300~349만원	1시간 56분	2시간 38분	10시간 0분	0시간 10분	(18)
350~399만원	1시간 13분	1시간 22분	6시간 30분	0시간 10분	(30)
400~499만원	1시간 19분	1시간 30분	8시간 0분	0시간 10분	(68)
500~599만원	1시간 9분	1시간 22분	7시간 0분	0시간 10분	(110)
600~699만원	0시간 44분	0시간 30분	3시간 20분	0시간 10분	(62)
700만원이상	0시간 57분	0시간 53분	6시간 20분	0시간 10분	(208)
모름/무응답	1시간 19분	1시간 26분	5시간 0분	0시간 20분	(6)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개별교육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의 월평균 17만 1,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교구활용 11만3,800원, 통신교육 10만7,600원 순이었다. 영아보다는 유아의 평균 월평균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학습지는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통신교육의 경우는 영아가 2만원 정도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에는 3세와 4세에서 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의 경우에도 3세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개별교육 종류에서 비용이 상승하였으나 통신교육은 1천원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표 X-3-5〉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4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수)	140.9 (23)	179.8 (70)	- (-)	149.1 (6)	82.9 (6)	175.3 (11)	198.7 (25)	154.3 (20)	185.5 (25)	171.2 (93)
	학습지	평균 (수)	92.5 (58)	92.9 (302)	- (-)	101.7 (2)	85.4 (14)	94.0 (42)	93.7 (78)	92.7 (104)	92.6 (120)	92.9 (360)
	교재교구 활용	평균 (수)	100.0 (31)	121.4 (49)	200.0 (1)	72.3 (6)	107.8 (14)	102.5 (10)	118.9 (26)	99.7 (14)	160.1 (9)	113.8 (80)
	통신교육	평균 (수)	124.8 (8)	104.9 (42)	- (-)	- (-)	100.0 (1)	129.6 (7)	105.0 (10)	75.8 (11)	124.2 (21)	107.6 (50)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수)	109.0 (11)	172.5 (73)	- (-)	102.0 (6)	114.1 (5)	83.6 (8)	186.5 (18)	185.7 (47)	- (-)	164.1 (84)
2021	학습지	평균 (수)	76.0 (20)	85.4 (402)	- (-)	106.9 (5)	69.9 (15)	69.9 (43)	83.5 (86)	89.0 (273)	- (-)	84.9 (422)
	교재교구 활용	평균 (수)	62.6 (15)	99.5 (89)	100.0 (1)	104.2 (3)	55.0 (11)	103.2 (15)	87.9 (23)	103.1 (51)	- (-)	93.6 (104)
	통신교육	평균 (수)	53.6 (4)	103.9 (66)	- (-)	15.0 (1)	67.1 (3)	120.3 (4)	89.1 (16)	106.8 (46)	- (-)	101.9 (70)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수)	94.8 (12)	157.1 (68)	- (-)	79.9 (4)	99.8 (8)	160.6 (9)	118.8 (17)	171.1 (42)	- (-)	148.5 (80)
	학습지	평균 (수)	65.4 (33)	75.5 (551)	60.0 (1)	68.5 (6)	65.1 (26)	74.2 (89)	69.4 (146)	78.7 (316)	- (-)	74.9 (584)
2018	교재교구 활용	평균 (수)	88.0 (23)	96.8 (55)	32.6 (2)	93.0 (5)	94.2 (16)	93.3 (16)	112.9 (14)	91.5 (25)	- (-)	94.3 (78)
	통신교육	평균 (수)	87.9 (2)	79.8 (11)	- (-)	30.0 (1)	150.0 (1)	159.0 (2)	30.2 (2)	74.3 (7)	- (-)	80.9 (13)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20~521. 〈표 X-3-4〉.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평균 이용비용은 개별교육 종류에 따라 경향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개별교육 종류에 대해 소득 400만원대 혹은 500만원대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비용이 높은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599만원인 경우에 월 평균 21만5,5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소득이 400~449만원인 가구에서도 월 평균 19만3,4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X-3-6〉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250~	300~	350~	400~	500~	600~	700만원	모름/무응
		299만원	349만원	399만원	499만원	599만원	699만원	이상	답
개안·그룹지도	평균	40.0	133.2	77.0	193.4	215.5	168.7	166.3	100.0
	(수)	(1)	(5)	(2)	(9)	(18)	(6)	(51)	(1)
학습지	평균	83.4	79.9	97.2	87.0	99.1	92.2	93.5	79.1
	(수)	(12)	(13)	(23)	(47)	(78)	(44)	(138)	(5)
교재교구활용	평균	300.0	150.0	108.3	124.6	98.6	161.2	97.2	-
	(수)	(1)	(1)	(3)	(11)	(16)	(10)	(38)	-
통신교육	평균	-	10.0	72.3	130.8	113.2	112.1	97.9	90.0
	(수)	-	(2)	(4)	(10)	(14)	(8)	(11)	(1)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12만2,800원이었으며, 이는 2021년 월평균 이용비용 10만8,700원보다 약 1만4,000원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이전 연도들의 비용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개별교육 이용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도 조사된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5~10만원 미만이 3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5만원 27.2%, 5만원 미만 14.3%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11만2,600원)보다는 유아(12만5,200원)의 월평균 비용이 높았고, 영아에 비해 유아가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세가 평균 지출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타 연령에 비해 20~30만원 사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보다 이용 비용을 더 크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보다 미취업모 가구에서 평균 지출 비용이 많았다. 이는 앞서 〈표 X-3-4〉에서 미취업모의 개별교육 이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개별교육 월 평균 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500~599만원 구간에서 가장 지출 비용이 높았다. 해당 소

득 구간에서는 다른 구간 대비 10~15만원을 지불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20~3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7〉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4.3	32.4	27.2	9.9	10.3	5.9	100.0(516)	122.8
영유아구분								
영아	17.1	33.5	30.2	7.1	6.6	5.5	100.0(112)	112.6
유아	13.7	32.1	26.5	10.5	11.1	6.0	100.0(404)	125.2
$\chi^2(df)/t$				3.6(5)				-1.2
생활연령								
0세	-	-	-	-	100.0	-	100.0(1)	200.0
1세	37.0	3.9	33.5	14.4	11.1	-	100.0(14)	102.6
2세	17.4	32.1	35.3	5.8	6.5	2.9	100.0(33)	103.2
3세	12.9	40.8	27.1	6.3	4.9	8.0	100.0(64)	118.9
4세	12.3	30.4	22.5	10.6	17.3	7.0	100.0(116)	140.3
5세	9.6	42.4	22.7	10.0	10.9	4.3	100.0(130)	114.8
6세	18.0	24.8	32.3	10.9	7.2	6.8	100.0(158)	123.6
$\chi^2(df)/F$				42.6(30)				1.1
지역규모								
대도시	13.8	29.3	26.2	11.3	10.2	9.2	100.0(242)	137.8
중소도시	15.0	35.4	29.2	6.2	11.5	2.7	100.0(197)	108.8
읍·면	14.1	34.3	24.9	15.2	7.1	4.4	100.0(77)	112.9
$\chi^2(df)/F$				16.7(10)				5.6** (a)
모 취업 여부								
취업	12.5	34.1	29.1	9.6	10.8	4.0	100.0(307)	116.6
휴직 중	16.9	29.9	18.6	14.8	12.3	7.5	100.0(36)	126.7
미취업	17.0	30.6	26.3	9.3	8.4	8.4	100.0(171)	130.8
부재 등	-	-	-	-	50.3	49.7	100.0(2)	254.7
$\chi^2(df)/F$				20.9(15)				2(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8.2	27.4	10.5	-	15.4	8.5	100.0(14)	99.9
300~349만원	17.1	40.7	11.9	12.1	6.2	11.9	100.0(18)	117.6
350~399만원	9.4	48.4	29.3	4.0	4.6	4.3	100.0(30)	102.8
400~499만원	25.6	22.7	27.9	7.6	7.8	8.4	100.0(68)	122.2
500~599만원	10.1	30.8	32.9	8.8	13.2	4.2	100.0(110)	133.1
600~699만원	8.7	40.7	24.9	4.5	12.7	8.6	100.0(62)	130.0
700만원 이상	13.0	32.4	25.2	14.4	10.2	4.9	100.0(208)	121.6
모름/무응답	10.1	19.7	70.2	-	-	-	100.0(6)	90.3
$\chi^2(df)/F$				53.7(35)*				0.6
2021년	20.2	31.0	28.3	9.0	7.2	4.3	100.0(598)	108.7
2018년	29.4	35.8	20.2	7.6	4.4	2.7	100.0(698)	93.0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2015년	33.7	45.5	11.2	5.3	3.4	0.9	100.0(521)	75.9
2012년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a)는 통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31~532. <표 X-3-5>.

* $p < .05$, ** $p < .01$.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을 2021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과 통신교육, 교재교구활용, 학습지 등 모든 유형에서 비용이 상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 개별 또는 그룹지도,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등에서 이용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습지에서는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이용 비용이 높았다. 모 취업 여부별로는 4가지 모든 개별교육 유형에 있어서 미취업모 가구가 취업모 가구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 있어서 미취업모는 취업모보다 월 1만8,000원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뚜렷하였다.

〈표 X-3-8〉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2024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수)	193.9 (52)	140.7 (30)	116.0 (11)	166.3 (60)	159.2 (5)	184.3 (27)	150.0 (1)	171.2 (93)
	학습지	평균 (수)	96.1 (158)	87.7 (140)	97.5 (62)	89.6 (208)	95.8 (28)	96.6 (123)	210.0 (1)	92.9 (360)
	교재교구 활용	평균 (수)	128.3 (37)	103.5 (35)	93.2 (8)	106.8 (48)	88.9 (4)	131.2 (27)	150.0 (1)	113.8 (80)
	통신교육	평균 (수)	105.3 (27)	112.2 (14)	106.0 (9)	101.8 (27)	173.7 (4)	102.3 (19)	- -	107.6 (50)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수)	149.0 (35)	192.9 (27)	142.4 (22)	131.9 (49)	149.6 (8)	225.9 (27)	- -	164.1 (84)
2021	학습지	평균 (수)	86.4 (184)	83.8 (171)	84.3 (67)	85.7 (209)	76.4 (38)	86.3 (172)	86.5 (3)	84.9 (422)
	교재교구 활용	평균 (수)	93.9 (58)	98.4 (38)	65.8 (8)	97.3 (52)	88.8 (14)	89.4 (36)	115.0 (2)	93.6 (104)
	통신교육	평균 (수)	106.4 (28)	104.2 (25)	91.9 (17)	105.3 (29)	83.1 (8)	103.0 (33)	- -	101.9 (70)

연도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등		
2018	개별 또는	평균	154.2	149.9	89.7	164.2	66.6	140.7	113.2	148.5
	그룹지도	(수)	(45)	(21)	(14)	(35)	(3)	(40)	(2)	(80)
	학습지	평균	68.4	80.4	76.8	77.1	63.5	72.9	85.1	74.9
		(수)	(217)	(181)	(186)	(300)	(15)	(261)	(8)	(584)
	교재교구	평균	88.9	107.6	73.0	110.7	66.8	74.3	50.0	94.3
	활용	(수)	(40)	(22)	(16)	(46)	(9)	(22)	(1)	(78)
통신교육	평균	68.5	78.4	188.8	89.1	159.0	50.0	-	80.9	
	(수)	(5)	(6)	(2)	(7)	(1)	(5)	-	(13)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24. <표 X-3-7>.

다. 개별교육 이용 만족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교육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3.7점~4.2점의 범위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교구활용 4.0점이며, 학습지 3.9점, 통신교육은 3.7점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할 때,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만족도가 0.1점 감소한 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만족’이 가장 많은 개별교육 유형은 개인·그룹 지도였고,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통신교육이었다.

<표 X-3-9>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계(수)	5점 평균		
								2021년	2018년	2015년
개인·그룹지도	-	-	13.2	51.3	35.5	4.2(0.7)	100.0(93)	4.3	4.1	4.0
학습지	0.1	2.9	24.2	54.2	18.6	3.9(0.7)	100.0(360)	3.9	3.7	3.7
교재교구활용	-	1.2	21.6	56.2	21.0	4.0(0.7)	100.0(80)	4.0	4.1	3.9
통신교육	-	6.2	33.0	50.1	10.7	3.7(0.8)	100.0(50)	3.7	3.9	3.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 525. <표 X-3-8>.



개별교육 서비스의 제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서는 영아보다 유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재교구활용이나 통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보다 영아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학습지 개별교육 유형은 영아·유아 간 만족도가 동일하게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개인그룹지도에 있어서는 전 연령이 고루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4세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학습지의 경우는 전 연령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1세와 6세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가장 이용비용이 비싼 교재교구활용 프로그램의 경우는 만족도 수준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큰데, 2세에서 4.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데 비해 1세나 5세, 6세 유아에서는 만족도가 3.8점으로 다소 낮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통신교육에 대한 6세 집단의 만족도로 3.4점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체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교재교구활용에서 3.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대도시는 개별·그룹지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 취업별로는 모든 개별교육 유형에서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가구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이 높지 않은 300~349만원 구간에서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고소득 집단보다 개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X-3-10〉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 (명)

구분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전체	4.2	3.9	4.0	3.7
영유아구분				
영아	4.1	3.9	4.1	3.8
유아	4.3	3.9	3.9	3.6
<i>t</i>	-0.7	0.3	1.6	0.7
생활연령				
0세	-	-	4.0	-
1세	4.1	3.8	3.8	-
2세	4.0	4.0	4.4	4.0
3세	4.2	3.9	4.0	3.8
4세	4.4	4.0	4.0	4.1
5세	4.2	3.9	3.8	3.6
6세	4.1	3.8	3.8	3.4

구분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i>F</i>	0.6(a)	0.4(a)	1.2	1.9
지역규모				
대도시	4.3	3.8	4.0	3.7
중소도시	4.1	3.9	4.1	3.6
읍·면	4.0	4.0	3.5	3.6
<i>F</i>	1.9(a)	1.6	2.5	0.0
모 취업 여부				
취업	4.2	3.8	3.9	3.6
휴직 중	4.0	3.9	3.9	3.7
미취업	4.3	3.9	4.1	3.7
부재 등	4.0	3.0	4.0	-
<i>F</i>	0.2(a)	1.0	0.4	0.0(a)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0	4.0	4.0	-
300~349만원	4.2	4.2	4.0	4.0
350~399만원	4.7	3.6	4.4	3.0
400~499만원	4.1	4.0	4.1	3.7
500~599만원	4.2	4.0	4.3	3.5
600~699만원	4.1	3.8	3.6	3.5
700만원 이상	4.3	3.8	3.9	4.0
모름/무응답	4.0	4.7	-	3.0
<i>F</i>	0.4	2.4*	1.3	1.3
(수)	(93)	(360)	(80)	(50)
2021년	4.3	3.9	4.0	3.7
2018년	4.1	3.7	4.1	3.9
2015년	4.0	3.7	3.9	3.9
2012년	3.9	3.8	4.0	3.8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25~526. <표 X-3-9>.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시간제 교육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 27.4%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72.6%는 시간제 사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이전 조사 연도인 2021년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의 경우 이전 3.5%가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2024년에는 5.3%가 이들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 외에도 예능, 체육관련, 한글·한자 등 언어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유아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 사교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유아기 코로나19를 거친 세대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행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통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비용은 월 평균 20만4,800원이며 3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비율이 약25%에 이르렀다. '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는 2,000원 정도 상향된 비용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집단 내 편차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하는 과목별 비용에서는 특히 영어의 평균 비용이 높아진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예능이나 체육 등 대부분 11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영어 프로그램은 17만3,1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1년에 영어 프로그램 비용이 14만9,1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16.1%의 비용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의 학원 이용비율이나 이용비용의 증가를 보더라도 영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집중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개별교육 이용 비율에 있어서는 82.3%가 학습지 등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81.8%가 이용하지 않았던 2021년 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즉, 개별교육 이용 수요는 지난 3년간 큰 변동이 없는데, 개인·그룹지도나 학습지 이용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미세하게나마 통신교육이나 학습지 이용은 줄어든 경향도 보였다. 특이점으로 읍·면지역에서 도시에 비해 학습지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 또는 그룹지도 이용이 도에서 더 많은 것과 상응하는 결과인 듯하다. 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비해 월 평균 이용비용은 조금 높아진 결과를 보는데 2021년도는 16만4,100원이었고 2024년에는 17만1,2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물가인상에 따른 사교육 이용 단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히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교육 이용이 많아지거나 하는 등의 이용행태 변화와는 크게 연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XI. 육아정책 관련 인식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4.2%, 현재 이용 중이라는 응답이 59.0%,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6.8%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2%, 현재 이용 중 24.5%,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7.3%로, 유치원을 이용해보지 못한 응답 가구가 2/3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영아 가구에서 85.7%로, 자녀가 첫째 자녀이면서 아직 유치원 이용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서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규모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7.6%로, 중소도시(16.0%)나 읍·면지역(16.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유치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대도시 거주자(65.5%)가 중소도시(68.5%)나 읍·면지역(68.4%) 거주자에 비해 약간 낮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 38.9%, 79.0%로 높았으며, 취업모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6%, 현재 이용 중이라는 응답도 66.2%로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경향성을 가진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치원 이용 경험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XI-1-1〉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수)
	과거에 이용	현재 이용중	이용한 적 없음	과거에 이용	현재 이용중	이용한 적 없음	
전체	24.2	59.0	16.8	8.2	24.5	67.3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6	70.4	25.0	8.1	6.2	85.7	100.0(1,440)
유아	55.9	40.7	3.4	8.4	54.1	37.5	100.0(1,054)
$\chi^2(df)$	892.6(2)**			754.2(2)**			
지역규모							
대도시	27.7	54.7	17.6	6.9	27.5	65.5	100.0(1,051)
중소도시	22.3	61.8	16.0	8.7	22.7	68.5	100.0(1,060)
읍·면	20.4	62.8	16.8	10.3	21.3	68.4	100.0(383)
$\chi^2(df)$	15.2(4)**			11.7(4)*			
모 취업 여부							
취업	26.6	66.2	7.2	8.6	27.0	64.5	100.0(1,296)
휴직	18.0	43.1	38.9	5.9	15.1	79.0	100.0(294)
미취업	22.8	54.5	22.7	8.3	24.2	67.5	100.0(883)
부재 등	33.9	61.5	4.6	19.3	33.9	46.8	100.0(21)
$\chi^2(df)$	222.4(6)**			30.8(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5.0	59.2	15.7	9.5	24.6	65.9	100.0(125)
300~349만원	22.3	57.8	19.9	6.0	22.4	71.6	100.0(164)
350~399만원	19.7	50.1	30.2	6.3	23.9	69.8	100.0(145)
400~499만원	19.0	56.2	24.8	7.0	19.6	73.4	100.0(421)
500~599만원	23.1	61.2	15.7	9.1	25.7	65.1	100.0(474)
600~699만원	26.0	61.5	12.5	8.1	25.4	66.6	100.0(376)
700만원 이상	27.6	60.7	11.6	8.9	26.7	64.5	100.0(750)
모름/무응답	28.3	45.9	25.8	11.1	21.3	67.6	100.0(39)
$\chi^2(df)$	66.2(14)**			14.9(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각 육아지원 정책별로 필요성을 7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평균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가 6.2점, ‘영유아 가구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와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지원 강화’가 각 6.1점, ‘어린이집·유치원 등 인프라 확대’,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가 6.0점이었고, ‘가정 양육 지원 확대’가 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021년 조사와 2018

년 조사에서도 2024년 조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각 6.2점,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XI-1-2〉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명), 점

구분	필요성							계(수)	평균 (표준편차)	'21년 '18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린이집·유치원 등 인프라 확대	0.6	1.0	1.6	9.0	17.6	24.8	45.5	100.0(2,494)	6.0(1.2)	5.9	6.0
영유아 가구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	0.7	1.1	2.4	7.7	13.2	19.8	55.2	100.0(2,494)	6.1(1.2)	6.0	6.1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	0.5	0.8	1.7	9.6	14.4	24.8	48.3	100.0(2,494)	6.0(1.2)	6.0	6.2
가정 양육 지원 확대	0.8	1.3	3.3	16.3	16.6	22.0	39.8	100.0(2,494)	5.7(1.4)	5.7	6.0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	0.4	0.8	2.0	9.8	16.5	23.4	47.1	100.0(2,494)	6.0(1.2)	5.9	6.1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0.5	0.3	1.2	6.9	10.1	21.2	59.6	100.0(2,494)	6.3(1.1)	6.2	6.3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0.7	0.6	1.2	8.0	11.3	21.3	57.1	100.0(2,494)	6.2(1.1)	6.1	6.2
아동 성장발달에 따른 지원 강화	0.5	0.5	1.3	8.6	12.6	25.9	50.7	100.0(2,494)	6.1(1.1)	-	-

주: 1) 7점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평균의 표준편차는 1.2~1.3 범위에 모두 있음.
 3) 2024년 응답자 이해를 위해 ‘현금성’ 용어 추가, 현금성 지원 확대 예시로 ‘부모급여’ 추가, ‘아동 성장발달에 따른 지원 강화’로 보기 항목 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33. 〈표 XI-1-1〉.

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수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51.6%,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8.1%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는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37.1%로, 불충분하다는 응답 41.3%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하다와 불충분하다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20% 후반에 그쳤었다. 한편, 2015년 조사와 201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50%대였으며,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30%대로, 2024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즉, 2024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이전 조사인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10%p 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거주지 주변에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많다는 응답이 11.8%, 1~2곳 있다는 응답이 67.3%, 없다는 응답이 5.0%로,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믿고 보낼만한 곳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믿고 보낼만한 곳이 많다는 응답이 10.1%, 1~2곳 있다는 응답 51.9%로, 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하긴 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어린이집 15.9%, 유치원 32.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XI-2-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단위: %, (명)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충분	불충분	잘 모름	많음	1~2곳 있음	없음	잘 모름	
2024년								
어린이집	51.6	38.1	10.3	11.8	67.3	5.0	15.9	100.0(2,494)
유치원	37.1	41.3	21.5	10.1	51.9	6.0	32.1	100.0(2,494)
2021년								
어린이집	42.7	40.9	16.4	10.8	56.0	8.8	24.4	100.0(2,500)
유치원	28.8	48.6	22.7	8.8	47.1	11.0	33.2	100.0(2,500)
2018년								
어린이집	45.0	44.5	10.5	9.8	60.2	14.0	16.1	100.0(2,533)
유치원	27.7	55.4	16.9	6.0	54.1	16.5	23.4	100.0(2,533)
2015년								
어린이집	51.8	37.3	10.8	13.7	60.2	12.1	14.0	100.0(2,593)
유치원	33.7	46.5	19.8	9.6	49.9	13.8	26.7	100.0(2,593)
2012년								
어린이집	57.1	36.9	6.0	10.3	62.2	18.1	9.3	100.0(2,528)
유치원	38.5	49.4	12.1	6.1	55.8	21.0	17.1	100.0(2,528)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33~534. 〈표 XI-2-1〉.

1) 어린이집 공급수준에 대한 인식

가구특성별 어린이집의 공급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영아는 유아에 비해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믿고 보낼만한 기관 수도 유아 가구들이 영아 가구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아 가구들은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18.6%로, 유아 가구(1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서

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56.4%)이 높았으나,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3%로 대도시(14.9%)나 중소도시(1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응답(49.3%)이 높았으며, 취업모의 경우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1~2곳은 있다고 응답(70.6%)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이 1~2곳은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이 많다는 응답 비중이 17.1%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유치원만 이용했던 경우에 오히려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 수준을 높게 응답(66.5%)한데 반해,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의 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20.9%)도 높게 응답되었다.

〈표 XI-2-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기관의 수 일반적 설치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				계(수)
	충분	불충분	잘 모름	많음	1~2곳 있음	없음	잘 모름	
전체	51.6	38.1	10.3	11.8	67.3	5.0	15.9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7.8	42.0	10.2	10.4	66.0	5.0	18.6	100.0(1,440)
유아	57.9	31.7	10.5	14.1	69.3	4.9	11.6	100.0(1,054)
$\chi^2(df)$	28.5(2)***			25.1(3)***				
지역규모								
대도시	49.3	41.7	9.0	10.9	67.7	6.5	14.9	100.0(1,051)
중소도시	52.3	36.3	11.4	13.1	66.1	4.3	16.4	100.0(1,060)
읍·면	56.4	33.2	10.5	10.2	69.7	2.7	17.3	100.0(383)
$\chi^2(df)$	12.4(4)*			14.9(6)*				
모 취업 여부								
취업	51.2	39.9	8.9	11.2	70.6	5.5	12.7	100.0(1,296)
휴직	41.6	49.3	9.1	11.1	64.4	5.0	19.5	100.0(294)
미취업	55.2	31.9	12.9	12.8	63.7	4.3	19.2	100.0(883)
부재 등	83.5	7.2	9.2	24.1	54.8	-	21.1	100.0(21)
$\chi^2(df)$	48.1(6)***			28.3(9)***				

구분	기관의 수 일반적 설치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				계(수)
	충분	불충분	잘 모름	많음	1~2곳 있음	없음	잘 모름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9.3	24.0	16.7	17.1	60.7	6.2	16.0	100.0(125)
300~349만원	52.0	35.1	12.9	12.7	65.2	6.5	15.6	100.0(164)
350~399만원	58.1	21.9	20.0	7.3	65.6	3.3	23.8	100.0(145)
400~499만원	55.7	32.7	11.5	12.1	66.2	4.3	17.4	100.0(421)
500~599만원	52.7	37.7	9.6	14.6	63.0	6.4	16.0	100.0(474)
600~699만원	51.6	39.4	9.0	11.2	68.9	2.9	17.0	100.0(376)
700만원 이상	47.7	45.7	6.6	10.4	72.4	5.6	11.6	100.0(750)
모름/무응답	32.0	45.7	22.3	8.1	52.0	1.3	38.5	100.0(39)
$\chi^2(df)$	79.8(14)***			58.5(21)***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54.6	38.2	7.3	12.5	70.6	4.4	12.5	100.0(1,255)
유치원만 이용	66.5	14.6	18.9	15.8	63.3	-	20.9	100.0(31)
둘 다 이용	56.3	34.0	9.7	12.8	71.0	4.8	11.4	100.0(911)
미이용	31.6	47.5	20.9	7.6	48.9	7.7	35.9	100.0(297)
$\chi^2(df)$	109.7(6)***			157.2(9)***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2) 유치원 공급수준에 대한 인식

가구특성별 유치원의 공급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영아 가구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27.1%로 높고, 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47.1%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유아 가구는 많음(12.8%), 1~2곳 있음(63.4%)를 응답한데 반해, 영아 가구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41.0%에 달했다.

유치원의 공급 충분성에 대해 지역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8.5%로, 대도시(43.6%)나 읍·면지역(44.2%)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취업모의 경우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이 1~2곳 있다는 응답(55.3%)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43.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 불충

분하다는 응답은 높아지고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의 수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으나, 가구소득이 600~699만원과 7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1~2곳 있다는 응답 비중이 각 55.2%, 58.7%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유치원만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수준이나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유치원만 이용한 관측치는 31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XI-2-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기관의 수 일반적 설치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				계(수)
	충분	불충분	잘 모름	많음	1~2곳 있음	없음	잘 모름	
전체	37.1	41.3	21.5	10.1	51.9	6.0	32.1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1.0	41.9	27.1	8.4	44.8	5.8	41.0	100.0(1,440)
유아	47.1	40.5	12.5	12.8	63.4	6.2	17.6	100.0(1,054)
$\chi^2(df)$	99.5(2)***			150.6(3)***				
지역규모								
대도시	36.2	43.6	20.3	10.5	50.9	7.1	31.4	100.0(1,051)
중소도시	39.6	38.5	21.9	10.8	52.5	5.2	31.5	100.0(1,060)
읍·면	31.7	44.2	24.1	6.3	52.8	5.1	35.8	100.0(383)
$\chi^2(df)$	10.7(4)*			11.5(6)				
모 취업 여부								
취업	37.8	41.3	21.0	9.7	55.3	7.0	28.0	100.0(1,296)
휴직	29.6	45.7	24.7	6.7	45.0	5.0	43.2	100.0(294)
미취업	38.6	40.1	21.3	11.7	49.6	5.0	33.8	100.0(883)
부재 등	53.8	30.7	15.5	17.5	49.3	-	33.2	100.0(21)
$\chi^2(df)$	11.8(6)			40.0(9)***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2.8	29.5	27.7	16.0	48.1	3.2	32.7	100.0(125)
300~349만원	35.7	36.4	27.9	11.7	46.4	4.2	37.7	100.0(164)
350~399만원	34.8	36.3	28.9	3.9	49.1	4.1	42.9	100.0(145)
400~499만원	36.7	36.7	26.7	9.4	46.9	6.8	36.8	100.0(421)
500~599만원	38.6	42.2	19.1	11.3	48.0	7.8	32.9	100.0(474)
600~699만원	42.8	40.1	17.2	10.2	55.2	5.2	29.4	100.0(376)
700만원 이상	34.2	48.2	17.6	9.6	58.7	6.2	25.5	100.0(750)
모름/무응답	26.0	35.1	39.0	7.7	36.5	1.3	54.5	100.0(39)
$\chi^2(df)$	56.6(14)***			62.6(21)***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2.5	42.3	25.2	9.1	46.4	6.1	38.4	100.0(1,255)
유치원만 이용	74.4	18.4	7.2	33.5	60.1	-	6.5	100.0(31)
둘 다 이용	52.0	40.1	7.9	13.5	70.8	5.0	10.8	100.0(911)
이용경험 없음	19.9	42.2	37.9	5.0	31.4	7.9	55.8	100.0(297)

구분	기관의 수 일반적 설치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				계(수)
	충분	불충분	잘 모름	많음	1~2곳 있음	없음	잘 모름	
$\chi^2(df)$	227.0(6)***			333.1(9)***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이 항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와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제 돌봄(기본, 종합)을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과거에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1%, 알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56.2%,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그러나,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중 시간제 돌봄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39.1%)은 감소하고, 이용 경험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 종일제 돌봄의 경우 2024년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0.6%, 과거에 이용해본 적이 있다 1.3%, 알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5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1%였다. 영아 종일제 돌봄에 대한 인지는 시간제 돌봄에 대한 인지에 비해 10%p가량 낮았다.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는 영아 종일제 돌봄 이용 경험이나 인지도 자체가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0.2%, 과거 이용한 적이 있다 1.1%, 알지만 이용 경험은 없다 43.8%, 잘모르겠다 55.0%로,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2021년에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모른다는 응답이 55.8%로, 202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2024년에 설문 문항에 추가된 긴급/단시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0.2%, 과거 이용한 경험이 있다 0.9%, 알지만 이용 경험은 없다 44.7%, 잘모르겠다 54.3%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낮은 인지도와 이용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전 조사에 비해서도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XI-2-4〉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2024년 조사					
시간제 돌봄(기본, 종합)	3.7	6.1	56.2	34.1	100.0(2,494)
영아 종일제 돌봄	0.6	1.3	54.0	44.1	100.0(2,494)
질병감염아동자원 서비스	0.2	1.1	43.8	55.0	100.0(2,494)
긴급/단기간 서비스	0.2	0.9	44.7	54.3	100.0(2,494)
2021년 조사					
시간제 돌봄	2.8	5.3	52.8	39.1	100.0(2,500)
영아종일제 돌봄	1.9	2.8	53.9	41.4	100.0(2,500)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2	0.6	43.4	55.8	100.0(2,500)
2018년 조사					
시간제 돌봄	2.0	5.1	59.9	33.0	100.0(2,533)
영아종일제 돌봄	3.6	2.4	58.2	35.7	100.0(2,53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3	1.1	40.8	57.8	100.0(2,533)
2015년 조사					
시간제 돌봄	1.7	4.6	52.3	41.4	100.0(2,593)
영아종일제 돌봄	2.5	1.9	53.7	41.9	100.0(2,59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0.7	40.6	58.7	100.0(2,593)
2012년 조사					
시간제 돌봄	1.1	3.5	95.4	-	100.0(1,468)
영아종일제 돌봄	0.2	1.9	97.9	-	100.0(1,4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24년에는 가족센터 추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 수정/추가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40. 〈표 XI-2-4〉.

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1)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실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6~36개월미만)이지만, 시간제보육반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은 영유아 가구 전체에 질문한 문항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해당 설문은 시간제보육반 이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인지 설문 문항으로, 36개월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이전에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영유아 가구 전체에 질문한 문항이다. 이에 따라 이용

률이 실질적인 정책 대상(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영아)의 실제 이용률에 비해서는 낮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시간제보육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4.6%였다.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2.4%, 실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다. 시간제보육반은 이용 연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녀의 월령을 기준으로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3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4.7%로 이용률이 그 이하 월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 월령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용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49.2%로, 인지도 자체는 그 이하 연령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시간제보육반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0~11개월의 경우 39.5%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최연소 자녀 연령 기준으로 영아의 경우에는 이용 경험이 6.5%로, 유아 4.3%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시간제보육반 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6~36개월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제보육반 이용 경험은 2018년에 7.1%로 매우 높았으나, 2021년에는 3.2%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4년 시간제보육반 이용률은 5.7%로 2021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이용도 위축되었던 것에 대한 반등 현상으로 이해된다.

지역규모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7.4%로, 대도시 5.6%, 중소도시 5.4%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중도 읍면 지역이 33.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모 연령에 따라 모가 29세 이하인 경우 실제 이용 경험이 10.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모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간제보육반 이용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이용 경험이 5.3%로, 미취업인 경우 이용 경험이 6.4%, 휴직 중인 경우 6.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가정양육보다는 기관 이용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XI-2-5〉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들어 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모름	계(수)
전체	5.7	12.4	47.2	34.6	100.0(2,494)
아동 월령					
0~11개월	6.8	14.9	38.8	39.5	100.0(301)
12~23개월	5.7	12.4	46.7	35.2	100.0(441)
24~35개월	8.1	13.3	48.5	30.1	100.0(385)
36개월 이상	4.7	11.5	49.2	34.7	100.0(1,367)
$\chi^2(df)$	21.0(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5	12.6	47.1	33.8	100.0(1,519)
유아	4.3	12.1	47.4	36.2	100.0(975)
$\chi^2(df)$	5.9(3)				
지역규모					
대도시	5.6	12.0	47.2	35.3	100.0(1,051)
중소도시	5.4	13.1	47.0	34.5	100.0(1,060)
읍·면	7.4	11.5	47.9	33.1	100.0(383)
$\chi^2(df)$	3.4(6)				
모연령					
29세 이하	10.2	10.5	42.1	37.3	100.0(146)
30~34세	6.2	11.7	46.9	35.1	100.0(678)
35~39세	5.4	13.4	47.1	34.1	100.0(976)
40~44세	5.7	12.9	50.0	31.3	100.0(547)
45세 이상	2.0	4.5	46.0	47.5	100.0(90)
모름/무응답	0.4	16.1	43.0	40.5	100.0(57)
$\chi^2(df)$	26.4(15)*				
모 취업 여부					
취업	5.3	12.8	47.4	34.5	100.0(1,296)
휴직 중	6.2	11.3	48.7	33.7	100.0(294)
미취업	6.4	12.5	46.3	34.8	100.0(883)
부재 등	-	-	48.4	51.6	100.0(21)
$\chi^2(df)$	7.9(9)				
2021년	3.2	9.4	41.2	46.2	100.0(2,500)
2018년	7.1	35.4	21.5	35.9	100.0(2,533)
2015년	3.3	31.3	25.4	40.0	100.0(2,593)

자료: 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41. 〈표 XI-2-5〉.

* $p < .05$.

한편, 0~2세 정규 보육반에 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때 일일 3시간 단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한 인지도는 〈표 XI-2-6〉과 같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3.4%, 잘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10.6%,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2%였다. 이는 앞서 시간제보육반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도 낮은 인지도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8.8%p 높은 수준이었다. 단,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2022~2023년 시범사업 이후 2024년 본 사업으로 도입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 기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진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서 영아의 이용 경험(3.6%)이 유아(2.5%)에 비해 약간 높긴 하나, 영아 가구의 경우 전혀 모른다는 응답(43.7%)도 유아 가구(42.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녀 연령에 따른 제도 인지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제보육반과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통합반 이용 경험(4.9%)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이용 경험이 6.3%로, 취업모나 미취업모에 비해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 또한 모가 휴직 중인 경우 34.5%로 다른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XI-2-6〉 시간제보육 통합반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잘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모름	계(수)
전체	3.2	10.6	42.8	43.4	100.0(1,63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6	10.3	42.4	43.7	100.0(1,010)
유아	2.5	11.2	43.4	42.9	100.0(624)
$\chi^2(df)$	1.7(3)				
지역규모					
대도시	2.8	8.7	45.4	43.1	100.0(677)
중소도시	3.1	13.0	40.5	43.5	100.0(703)
읍·면	4.9	8.3	42.5	44.3	100.0(254)
$\chi^2(df)$	11.9(6)				
모 취업 여부					
취업	2.9	11.1	40.7	45.3	100.0(848)
휴직 중	6.3	10.6	48.6	34.5	100.0(196)
미취업	2.5	10.1	43.7	43.7	100.0(579)
부재 등	-	-	33.9	66.1	100.0(11)
$\chi^2(df)$	19.4(9)*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2) 시간제보육 인지 경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가 2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이 23.8%, ‘지인의 소개’ 19.9%,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16.7%, ‘교육부30), 지자체의 홍보물’ 10.2% 순이었다. 2021년에는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이 30.9%로 가장 높았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가 24.5%로 다음 순위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4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인지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게 된 경로가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규모에 따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0.0%로, 대도시(28.2%)나 중소도시(30.5%)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13.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중소도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지역규모에 따라 정보 인지 경로가 약간씩 상이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XI-2-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구분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교육부, 지자체의 홍보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 일 매체 게시물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전체	28.1	10.2	16.7	23.8	19.9	1.4	100.0(1,63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7	10.3	16.1	23.8	20.6	1.5	100.0(1,010)
유아	28.8	10.0	17.8	23.7	18.6	1.2	100.0(624)
$\chi^2(df)$			1.8(5)				
지역규모							
대도시	28.2	10.2	19.3	21.8	19.5	1.0	100.0(677)
중소도시	30.5	9.8	13.5	25.7	19.6	1.0	100.0(703)

30) 유보통합으로 보육업무가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설문에는 보건복지부로 표기되었으나, 보고서는 교육부로 수정하여 기입함.

구분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교육부, 지자체의 홍보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 일 매체 게시물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읍·면	20.0	11.3	19.7	23.5	21.9	3.6	100.0(254)
$\chi^2(df)$	27.1(10)**						
모 취업 여부							
취업	27.0	10.6	18.0	24.5	18.4	1.6	100.0(848)
휴직 중	30.2	9.9	15.7	21.2	22.1	0.8	100.0(196)
미취업	28.4	9.7	15.5	24.2	20.9	1.3	100.0(579)
부재 등	57.5	8.4	-	-	34.1	-	100.0(11)
$\chi^2(df)$	13.9(15)						
2021년	24.5	8.4	16.2	30.9	18.0	2.0	100.0(1,380)
2018년	31.6	8.5	19.0	14.8	21.4	4.7 ¹⁾	100.0(424)

주: 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경우 '이용보육기관(2.5)', '기타(2.2)' 항목으로 보고되어 이를 2021년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산출한 수치임.

2) 2024년 보기 문항은 거의 동일하나 업무 담당부처명 변경으로 수정, 일부 문문을 진행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42. <표 XI-2-6>.

** $p < .0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이유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가 37.8%로 가장 많고, '자녀가 어려 단시간만 이용' 30.1%,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20.3%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1년 조사나 2018년 조사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이었던 것은 하나, 2021년 조사에서는 '현재 입소대기 등으로 종일제 기관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이용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15.8%로 높았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사료되며, 2024년 이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11.0%에 달하고 있어, 종일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연소 자녀 기준으로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와 '자녀가 어려 단시간만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영아 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입소대기 등으로 종일제 기관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이용할 계획'이 13.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43.8%)가 매우 높고, '현재 입소대기 등으로 종일제 기관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이용할 계획'(5.5%)로 낮은 특징이 있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

직 중인 경우 ‘자녀가 어려 단시간만 이용’(43.1%)와 ‘현재 입소대기 등으로 종일제 기관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이용할 계획’(16.0%)가 높게 응답되기는 하였으나, 모가 휴직 중 이면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경우는 17명에 불과하여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XI-2-8〉 시간제보육 이용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어려 단시간만 이용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현재 입소대기 등으로 종일제 기관 이용 어려움	기타	계(수)
전체	30.1	20.3	37.8	11.0	0.8	100.0(15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8.9	21.3	36.0	13.1	0.7	100.0(109)
유아	33.4	17.7	42.9	5.1	1.0	100.0(47)
$\chi^2(df)$		2.6(4)				
지역규모						
대도시	39.2	14.2	31.3	14.6	0.6	100.0(62)
중소도시	21.2	28.9	43.8	5.5	0.6	100.0(67)
읍·면	31.0	13.4	37.9	16.1	1.5	100.0(27)
$\chi^2(df)$		11.9(8)				
모 취업 여부						
취업	31.0	14.9	41.7	10.8	1.6	100.0(82)
휴직 중	43.1	7.6	33.3	16.0	-	100.0(17)
미취업	24.2	31.6	34.8	9.5	-	100.0(57)
부재 등	-	-	-	-	-	
$\chi^2(df)$		10.1(8)				
2021년	24.1	14.8	42.1	15.8	3.2	100.0(101)
2018년	27.9	24.4	40.7	4.5	2.7	100.0(185)

주: 2024년 보기 1번 항목 문항 일부 윤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43~544. 〈표 XI-2-7〉.

한편,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종일 이용기관에 있거나 돌보는 사람이 있음’이 56.8%로 가장 많고, ‘제도를 몰라서’ 12.7%, ‘아이가 낯설어 함’ 10.5%, ‘집에서 멀어서’ 6.8% 순이었다. 2021년에는 ‘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14.3%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고, ‘아이가 낯설어 함’(8.8%)이나 ‘집에서 멀어서’(3.7%)의 비중은 2024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종일 이용기관에 있거나 돌보는 사람이 있

음’(66.6%)의 비중이 대도시(54.5%)나 중소도시(56.0%)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종일 이용기관에 있거나 돌보는 사람이 있음’(60.9%)과 ‘아이가 낯설어 함’(11.1%)이 모가 취업 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모가 미취업인 경우에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6.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XI-2-9〉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종일 이용기관 있거나 돌보는 사람 있음	아이가 낯설어 함	집에서 떨어져서	제도를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기타	계(수)
전체	56.8	10.5	6.8	12.7	7.8	2.0	0.8	2.6	100.0(1,47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7.8	10.1	7.6	12.2	6.3	2.4	0.7	2.9	100.0(901)
유아	55.0	11.3	5.3	13.6	10.4	1.4	1.0	2.0	100.0(577)
$\chi^2(df)$				13.8(7)					
지역규모									
대도시	54.5	14.5	7.5	11.9	6.5	1.6	0.5	3.0	100.0(615)
중소도시	56.0	8.8	6.8	13.9	9.7	1.8	1.3	1.6	100.0(636)
읍·면	66.6	4.7	4.6	10.8	4.9	3.8	-	4.5	100.0(227)
$\chi^2(df)$				46.1(14)***					
모 취업 여부									
취업	55.2	10.6	8.1	11.3	9.9	2.3	0.7	1.9	100.0(766)
휴직 중	60.9	11.1	7.8	8.3	5.4	1.9	0.6	4.0	100.0(179)
미취업	58.0	10.4	4.3	16.1	5.5	1.5	1.1	3.1	100.0(522)
부재 등	44.5	-	7.6	30.7	7.4	9.9	-	-	100.0(11)
$\chi^2(df)$				39.3(21)**					
2021년	62.0	8.8	3.7	14.3	4.4	1.6	1.2	4.0	100.0(1,279)
2018년	71.0	8.3	3.8	2.6	8.4	3.3	1.5	1.0	100.0(1,471)

주: 1) 2018년 수치는 ‘시간제보육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

2) 2024년 응답자의 이해를 위하여 질문 문항 수정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45. 〈표 XI-2-8〉.

** $p < .01$, *** $p < .001$

3)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이용 계획이 없음’이 48.9%로 가장 많고, ‘잘 모르겠음’ 22.8%, ‘비정기적으로 이용(필요시)’ 20.8%, ‘가끔 이용할 계획(주1회 정도)’

4.4%, ‘자주 이용할 계획(주2회 이상)’ 3.1%였다.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용 계획 없음’ 응답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 자녀의 경우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이 이미 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 ‘이용 계획 없음’ 응답 비중이 55.1%로, 대도시(48.3%)나 중소도시(47.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에 ‘이용 계획이 없음’ 비중이 54.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이용(필요시)’가 28.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고,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 이용(필요시)’가 25.3%, ‘자주 이용할 계획(주 2회 이상)’이 14.8%, ‘가끔 이용할 계획(주 1회 정도)’가 13.0%였다.

〈표 XI-2-10〉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자주 이용할 계획 (주 2회 이상)	가끔 이용할 계획 (주 1회 정도)	비정기적 이용 (필요시)	이용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3.1	4.4	20.8	48.9	22.8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5	5.0	24.5	44.5	22.5	100.0(1,519)	53.7(4)***
유아	2.4	3.3	14.1	56.9	23.3	100.0(975)	
지역규모							
대도시	4.4	4.4	21.5	48.3	21.4	100.0(1,051)	
중소도시	2.2	4.7	20.4	47.4	25.3	100.0(1,060)	19.9(8)*
읍·면	2.3	3.5	20.2	55.1	18.8	100.0(383)	
모 취업 여부							
취업	3.0	3.9	17.7	54.0	21.4	100.0(1,296)	
휴직 중	4.2	8.3	28.1	35.3	24.2	100.0(294)	63.7(12)***
미취업	2.7	3.7	22.8	47.0	23.7	100.0(883)	
부재 등	7.8	2.6	16.1	26.5	46.9	100.0(2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유무							
있음	14.8	13.0	25.3	35.5	11.4	100.0(156)	109.0(4)***
없음	2.4	3.9	20.6	49.7	23.5	100.0(2,338)	

구분	자주 이용할 계획 (주 2회 이상)	가끔 이용할 계획 (주 1회 정도)	비정기적 이용 (필요시)	이용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2021년	4.0	3.7	18.4	47.8	26.0	100.0(2,500)	

주: 1) 2018년도에는 항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 없음.

2) 2015년도에는 항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 없음. 또한 본 문항은 2015년 아동조사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에는 가구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응답단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전 조사 수치와 단순 비교는 주의를 요함. 2015년도 조사는 시간제보육 미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46. <표 XI-2-9>.

* $p < .05$, *** $p < .001$.

4) 시간제보육 만족도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자에 한해 질문했으며, 4점 만점에 3.4점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 45.6%, 만족 47.0%, 불만족 5.9%, 매우 불만족 1.4%였다. 최연소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는 3.4점, 유아는 3.3점으로 큰 차이는 없긴 했으나, 매우 만족한다 비중이 영아 47.7%, 유아 39.8%로 큰 차이를 보이기는 했다. 지역규모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 매우 만족 비중이 60.2%에 달하며, 평균 3.6점으로, 대도시(3.3점)나 중소도시(3.3점)에 비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읍·면지역은 비록 이용자 수는 적지만, 이용 비중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높았던 지역으로,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 앞서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은 높지 않은 편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표 XI-2-11〉 시간제보육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표준편차)	계(수)
전체	45.6	47.0	5.9	1.4	3.4(0.7)	100.0(15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7.7	44.6	6.1	1.6	3.4(0.7)	100.0(109)
유아	39.8	53.8	5.5	1.0	3.3(0.6)	100.0(47)
$\chi^2(df)/t$	1.5(3)				0.5	
지역규모						
대도시	44.7	46.1	6.3	2.9	3.3(0.7)	100.0(62)
중소도시	40.3	53.0	6.1	0.6	3.3(0.6)	100.0(67)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표준편차)	계(수)
읍·면	60.2	34.9	4.9	-	3.6(0.6)	100.0(27)
$\chi^2(df)/F$	5.8(6)				1.2	
모 취업 여부						
취업	52.1	39.4	6.0	2.5	3.4(0.7)	100.0(82)
휴직 중	43.2	44.5	12.3	-	3.3(0.7)	100.0(17)
미취업	38.6	57.2	3.6	0.7	3.3(0.6)	100.0(57)
부재 등	-	-	-	-	-	-
$\chi^2(df)/F$	6.7(6)				0.3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한편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3.2점으로, 시간제보육에 비해 0.2점 정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매우 만족이 44.6%, 만족 33.9%, 불만족 20.8%, 매우 불만족 0.7%로, 불만족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나 지역규모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4.3%로, 휴직 중(27.9%), 미취업(44.2%)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직 중인 경우 불만족 응답 비중이 59.3%로 매우 높게 응답되기는 하였으나, 관측치가 9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XI-2-12〉 시간제보육 통합반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표준편차)	계(수)
전체	44.6	33.9	20.8	0.7	3.2(0.8)	100.0(5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7.5	30.3	21.3	0.9	3.2(0.8)	100.0(36)
유아	36.9	43.7	19.5	-	3.2(0.8)	100.0(19)
$\chi^2(df)/t$	0.7(3)				0.3	
지역규모						
대도시	39.7	28.8	29.6	1.9	3.1(0.9)	100.0((20)
중소도시	37.2	38.6	24.2	-	3.1(0.8)	100.0((27)
읍·면	67.5	32.5	-	-	3.7(0.5)	100.0((8)
$\chi^2(df)/F$	5.1(6)				2.4	
모 취업 여부						
취업	54.3	38.4	5.9	1.4	3.5(0.7)	100.0(30)
휴직 중	27.9	12.8	59.3	-	2.7(0.9)	100.0((9)
미취업	44.2	46.6	9.3	-	3.3(0.7)	100.0((16)
부재 등	-	-	-	-	-	-
$\chi^2(df)/F$	18.1(6)**				4.9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3절에서는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대해 영유아 가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0~2세 표준보육과정을 ‘대략 안다’는 응답이 42.2%, ‘모름’ 34.5%, ‘잘 앎’ 23.3%였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의 경우 ‘모름’ 응답이 39.4%로, 유아 26.5%에 비해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 휴직 중인 경우 ‘대략 앎’이 3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모름’ 응답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 어린이집만 이용한 경우에는 모름 응답이 33.4%로, 유치원만 이용(25.3%)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다 이용한 경우(23.6%)에 비해 높았다. 2021년에는 ‘모름’ 응답이 40.4%, ‘잘 앎’ 16.5%였는데, 2024년에는 ‘모름’ 34.5%, ‘잘 앎’ 23.3%로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0~2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모름’ 34.1%, ‘대략 앎’ 41.1%, ‘잘 앎’ 24.8%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다.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도도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 자녀는 모른다는 응답이 42.8%에 달한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20.0%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3~5세 누리과정을 모른다는 응답이 53.5%로 매우 높았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모름’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성은 있으나, 가구소득이 350~399만원인 경우 ‘모름’ 응답이 45.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구간에 영아 자녀가 있으면서 모가 휴직 중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만 이용한 경우에 3~5세 누리과정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35.5%로 매우 높았다.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도도 2021년 ‘모름’ 36.2%, ‘잘 앎’ 19.6%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4년에 인지도가 약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 XI-3-1〉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누리과정 관련 인식

단위: %, (명)

구분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chi^2(df)$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chi^2(df)$
전체	23.3	42.2	34.5	100.0(2,494)		24.8	41.1	34.1	100.0(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9.9	40.7	39.4	100.0(1,440)	51.2(2)***	20.0	37.2	42.8	100.0(1,440)	142.8(2)***
유아	28.9	44.7	26.5	100.0(1,054)		32.6	47.4	20.0	100.0(1,054)	

구분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잘	알	대략	알	모름	계(수)	$\chi^2(df)$	잘	알	대략	알	모름	계(수)	$\chi^2(df)$
모 취업 여부														
취업	25.3	44.2	30.5	100.0	(1,296)		46.4(6)***	27.5	42.8	29.7	100.0	(1,296)		68.0(6)***
휴직	17.2	32.4	50.4	100.0	(294)			17.0	29.6	53.5	100.0	(294)		
미취업	22.8	43.0	34.2	100.0	(883)			23.9	42.9	33.2	100.0	(883)		
모 부재	18.5	45.7	35.8	100.0	(21)			18.5	45.7	35.8	100.0	(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4	36.0	42.6	100.0	(125)		31.4 (14)**	22.5	36.6	40.9	100.0	(125)		34.9(14)**
300~349만원	28.4	38.4	33.2	100.0	(164)			28.1	41.5	30.4	100.0	(164)		
350~399만원	15.8	39.0	45.2	100.0	(145)			18.7	36.0	45.3	100.0	(145)		
400~499만원	19.1	42.8	38.1	100.0	(421)			20.0	40.8	39.2	100.0	(421)		
500~599만원	24.8	41.8	33.4	100.0	(474)			25.6	41.1	33.3	100.0	(474)		
600~699만원	22.8	42.9	34.3	100.0	(376)			24.4	43.3	32.3	100.0	(376)		
700만원 이상	26.3	43.5	30.2	100.0	(750)			28.6	40.4	31.0	100.0	(750)		
모름/무응답	11.9	52.8	35.3	100.0	(39)			13.8	60.2	26.0	100.0	(39)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23.3	43.2	33.4	100.0	(1,255)		163.8 (6)***	23.9	40.6	35.5	100.0	(1,255)		290.1(6)***
유치원만이용	26.3	48.4	25.3	100.0	(31)			32.0	49.5	18.5	100.0	(31)		
둘 다 이용	29.6	46.8	23.6	100.0	(911)			33.3	50.1	16.6	100.0	(911)		
미이용	10.3	29.5	60.2	100.0	(297)			10.0	24.4	65.6	100.0	(297)		
2021년	16.5	43.0	40.4	100.0	(2,500)			19.6	44.2	36.2	100.0	(2,500)		
2018년	25.9	45.6	28.6	100.0	(2,533)			31.8	44.4	23.8	100.0	(2,533)		
2015년	29.9	47.0	23.1	100.0	(1,480)			33.5	48.6	17.8	100.0	(1,480)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47~548. <표 XI-3-1>.
 ** $p < .01$, *** $p < .001$.

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가. 비용 지원 정책 인지도

여기에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의 각종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큰 차이를 보여, 보편 지원 형태의 0~1세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이 각 59.8%, 59.0%, 53.5%였다. 반면, 지원 대상이 특정되는 장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답은 응답 비중이 76.6%에 달했으며,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와 시간제보육료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각 59.7%, 52.8%로 매우 높았다. 한편, 2024년 추가된 유아학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59.7%로, 아직까지는 제도 홍보가 많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4-1〉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0~1세 부모급여	59.8	29.5	10.6	100.0(2,494)
0~2세 보육료	59.0	34.6	6.5	100.0(2,494)
연장반보육료	35.3	36.2	28.5	100.0(2,494)
3~5세 보육료·유아학비	41.1	40.5	18.4	100.0(2,494)
가정양육수당	53.5	33.8	12.7	100.0(2,494)
장애아보육료	6.9	16.4	76.6	100.0(2,494)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11.1	29.2	59.7	100.0(2,494)
시간제보육료	13.9	33.3	52.8	100.0(2,494)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17.7	33.0	49.4	100.0(2,494)
유아학비 추가지원	13.4	26.9	59.7	100.0(2,494)
지방정부 수당	34.5	34.8	30.8	100.0(2,494)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의 경우 0~1세 부모급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 73.1%였으며, 0~2세 보육료 66.8%, 가정양육수당 51.8% 등으로 영아에게 보편 지원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유아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56.3%), 3~5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50.5%), 0~2세 보육료(46.3%)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에도 자신이 받는 보편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제도는 연장반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야간연장형등보육료, 시간제보육료, 지방정부 수당 등으로, 연장반보육료와 장애아보육료는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야간연장형등보육료는 대도시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시간제보육료와 지방정부 수당은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연장반보육료, 3~5세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야간연장형등보육료, 시간제보육료,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데 반해, 모가 휴직 중인 경우 0~1세 부모급여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0~1세 부모급여와 장애아보육료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350~499만원 구간에서 0~1세 부모급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장애 보육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 유치원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데, 0~1세 부모급여와 0~2세 보육료에 대한 인지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둘 다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오히려 인지도가 낮았다.

〈표 XI-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단위: %, (명)

구분	0~1세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연장반 보육료	3~5세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아간연장형 등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지방 정부수당
전체	59.8	59.0	35.3	41.1	53.5	6.9	11.1	13.9	17.7	13.4	34.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3.1	66.8	35.6	35.3	51.8	6.1	10.4	14.1	13.2	9.9	37.5
유아	38.3	46.3	34.7	50.5	56.3	8.2	12.3	13.5	25.0	19.0	29.5
$\chi^2(df)$	295.7(1)**	101.3(1)**	0.2(1)	56.5(1)**	4.8(1)*	4.0(1)*	2.0(1)	0.1(1)	56.6(1)**	42.6(1)**	16.8(1)**
지역규모											
대도시	58.9	59.9	33.4	43.0	54.7	5.0	7.3	11.7	16.5	11.8	30.6
중소도시	62.0	59.2	38.1	41.0	53.4	8.8	13.4	14.6	18.6	15.0	36.0
읍·면지역	55.3	55.4	31.4	35.5	50.4	6.3	14.6	17.8	18.1	12.5	40.9
$\chi^2(df)$	5.5(2)	2.1(2)	7.9(2)*	6.0(2)	1.9(2)	11.9(2)**	25.4(2)**	9.2(2)**	1.7(2)	5.2(2)	14.2(2)**
모 취업 여부											
취업	55.6	58.2	39.6	43.9	54.2	7.1	13.3	14.2	19.3	15.2	35.2
휴직 중	71.2	57.8	25.6	24.4	38.8	3.6	6.7	12.7	11.0	11.2	34.8
미취업	62.5	61.3	32.8	43.3	58.3	8.0	9.9	14.0	17.9	11.9	33.6
모 부재 등	27.1	27.1	28.7	32.8	38.5	-	2.6	2.6	13.3	-	21.1
$\chi^2(df)$	38.2(3)**	10.4(3)*	26.4(3)**	43.9(3)**	38.9(3)**	8.6(3)*	14.5(3)**	1.9(3)	12.5(3)**	9.3(3)*	2.4(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8.1	51.5	34.4	41.3	48.3	14.1	14.4	14.1	16.3	9.4	37.0
300~349만원	60.1	59.2	34.1	42.4	56.2	13.7	11.0	12.9	17.1	15.9	33.8
350~399만원	69.2	62.9	33.6	41.6	57.6	10.1	10.4	13.8	16.0	13.5	36.6
400~499만원	65.5	61.9	35.6	40.6	54.8	5.3	9.8	15.7	16.2	11.4	36.2
500~599만원	58.7	58.8	37.5	44.8	56.3	7.8	14.6	15.2	20.4	15.0	35.0
600~699만원	61.7	61.8	37.4	42.7	54.8	4.5	8.8	11.3	16.8	12.6	33.3
700만원 이상	56.4	57.2	34.3	38.8	50.8	5.9	10.8	13.5	18.4	14.6	34.1
모름/무응답	39.9	47.2	20.7	27.3	41.3	-	8.3	12.7	10.9	3.1	20.1
$\chi^2(df)$	24.0(7)**	10.3(7)	7.3(7)	9.1(7)	10.2(7)	35.0(7)**	10.8(7)	4.3(7)	5.5(7)	10.4(7)	6.1(7)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63.3	64.4	42.1	42.6	55.7	8.1	13.6	16.8	13.8	10.3	34.9
유치원만 이용	61.3	61.3	36.2	61.1	60.7	12.1	15.9	19.7	38.3	32.5	37.9
둘 다 이용	44.7	50.0	34.3	50.2	56.1	6.3	9.6	10.5	29.5	20.5	32.8
이용경험 없음	78.7	59.0	14.8	16.3	40.7	4.0	5.9	10.5	5.2	7.8	36.2
$\chi^2(df)$	139.0(3)**	42.1(3)**	99.0(3)**	132.3(3)**	30.9(3)**	9.1(3)	21.1(3)**	21.5(3)**	140.1(3)**	62.5(3)**	1.6(3)

주: '잘 알' 응답 비중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나. 비용 지원 정책 수혜 경험 및 만족도

1)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경험

각 제도별 지원금 수혜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가구 내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하였다. 먼저 2023년 9월 1일 출생아동의 경우에 0세 부모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들로, 전액 현금을 수급한 비중이 91.0%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바우처+현금을 지원받고 연장반까지 이용한 경우는 2.4%였으며,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 0.4%,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은 비중은 1.5%였다. 이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바우처+현금 지원을 받은 경우가 5점 만점에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제보육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4.4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는 조사 시점 기준 1세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대상들로, 전액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았다는 응답은 31.6%로 감소한 반면, 바우처+현금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68.4%에 달했다. 한편, 바우처+현금 지원을 받고, 연장반까지 이용한 경우는 24.1%로, 0세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보육료 지원 수혜율은 0.9%로 매우 낮았으며, 아이돌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1%에 그쳤다. 단,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와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은 경우 4.5점으로, 0세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영유아는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닌 연령으로,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반)을 받은 경우가 31.4%, 연장반까지 지원받은 경우 10.2%였으며, 3~5세 보육료를 지원받은 비중은 28.0%, 3~5세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비중이 35.1%,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5.5%였다. 3~5세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연장반 지원까지를 함께 받은 비중이 9.8%였으며,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가 0.4%였다. 한편, 3~5세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도 받은 경우가 16.4%, 5세 방과후지원비를 지원받은 비중은 3.8%였다.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0~2세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장반 지원까지 받은 경우가 4.4점으로 높았고, 3~5세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반 이용자나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4.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지원 수준이 높은 경우 만족도도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XI-4-3〉 비용 등 지원 수혜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 수혜율	만족도					계(수)	평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3년 9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 급여	전액현금	91.0	41.4	37.7	16.7	2.2	1.9	100.0(309)	4.1
		바우처+ 현금: 기본반	9.0	26.6	57.3	6.4	9.7	-	100.0(34)	4.0
		바우처+ 현금: 연장반	2.4	39.8	60.2	-	-	-	100.0(10)	4.4
		시간제보육료	0.4	44.9	55.1	-	-	-	100.0(2)	4.4
	(시간제 등)아이돌봄비		1.5	-	50.7	-	49.3	-	100.0(3)	3.0
'22년 9월 1일~'23년 8월 31일생	부모 급여	전액현금	31.6	27.0	38.5	22.6	7.8	4.1	100.0(146)	3.8
		바우처+ 현금: 기본반	68.4	29.6	46.5	18.0	4.0	1.9	100.0(309)	4.0
		바우처+ 현금: 연장반	24.1	37.5	37.2	19.0	3.4	2.9	100.0(97)	4.0
		시간제보육료	0.9	64.1	25.5	10.4	-	-	100.0(7)	4.5
	(시간제 등)아이돌봄비		1.1	67.4	13.6	18.9	-	-	100.0(5)	4.5
'22년 8월 31일 이전 출생	0~2세 보육료	기본반	31.4	22.5	60.6	14.1	2.5	0.3	100.0(750)	4.0
		연장반	10.2	60.1	24.1	11.5	3.1	1.2	100.0(256)	4.4
		장애아	-	-	-	-	-	-	-	-
	3~5세 보육료	기본반	28.0	34.4	47.8	14.1	2.8	0.9	100.0(573)	4.1
		연장반	9.8	61.0	28.0	9.9	0.3	0.8	100.0(216)	4.5
		장애아	0.4	58.7	31.6	9.7	-	-	100.0(5)	4.5
	3~5세 유아학비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35.1	27.1	50.6	18.5	2.5	1.2	100.0(792)	4.0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16.4	33.7	35.6	26.0	3.1	1.6	100.0(374)	4.0
		5세 방과후 지원비	3.8	41.4	41.6	13.7	1.9	1.4	100.0(92)	4.2
	2~5세 가정양육수당		5.5	6.6	20.4	51.1	11.4	10.4	100.0(94)	3.0

주: 1) '23년 9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23년 9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서 '바우처+현금: 장애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응답자가 없어서 표에서 삭제함.
 2) '23년 9월 1일~'23년 8월 31일생 아동에서 '바우처+현금: 장애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응답자가 없어서 표에서 삭제함.
 3) 조사시점은 9월 1일 기준임.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출산 관련 지방정부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0%로, 평균 수급액은 350만9천원이었다. 최연소 자녀 기준 영아의 수급율이 48.7%로, 유아의 수급율 28.6%에 비해 1.7배가량 높고, 수급액도 영아 410만7천원, 유아 188만4천원으로 2.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수급율이 46.8%로 매우 높고, 수급액도 423만6천원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현상을 방증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모연령에 따라서는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 수당 지급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모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도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지방정부 출산 수당을 지원받은 비중이 56.1%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XII-4-4〉 영유아 가구의 출산 관련 지방정부수당 지급 여부

단위: %, (명), 만원

구분	있음	없음	평균	계(수)
전체	41.0	59.0	350.9	100.0(2,494)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48.7	51.3	410.7	100.0(1,440)
유아	28.6	71.4	188.4	100.0(1,054)
$\chi^2(df)$	98.6(1)***			
지역규모				
대도시	38.2	61.8	317.5	100.0(1,051)
중소도시	41.8	58.2	353.3	100.0(1,060)
읍·면	46.8	53.2	423.6	100.0(383)
$\chi^2(df)$	8.5(2)*			
모연령				
29세 이하	52.4	47.6	431.7	100.0(146)
30~34세	47.3	52.7	397.3	100.0(678)
35~39세	38.8	61.2	312.0	100.0(976)
40~44세	35.9	64.1	333.0	100.0(547)
45세 이상	23.6	76.4	315.0	100.0(90)
모름/무응답(부재)	43.5	56.5	246.6	100.0(57)
$\chi^2(df)$	37.9(5)***			
모 취업 여부				
취업	36.7	63.3	310.4	100.0(1,296)
휴직 중	56.1	43.9	493.3	100.0(294)
미취업	42.0	58.0	334.8	100.0(883)
부재 등	32.9	67.1	338.1	100.0(21)
$\chi^2(df)$	41.6(3)***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순위 응답 기준)은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2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0%,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이었다. 2021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보육·교육비 등 정부지원금 인상' 2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14.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순으로, 2024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이었다. 즉, 지난 3년 동안 영유아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과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연소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19.7%)가 좀 더 높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22.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31.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38.2%)가 높았다.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45.7%)로 매우 높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27.8%)이 가장 요구가 높은 정책으로 꼽혔는데, 이는 고소득 구간에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14.3%)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24.7%)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육아정보·상담 제공'에 대한 요구도 5.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XI-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	보육·교 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공공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육아정보· 상담 제 제공 제 확대	유연근무 제 확대	기타	(수)	$\chi^2(df)$
전체	16.0	30.4	12.3	6.5	3.3	20.2	1.0	9.2	1.1	(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7.8	30.3	11.1	6.3	3.5	19.4	0.9	9.2	1.5	(1,440)	22.9
유아	13.1	30.7	14.3	6.7	3.0	21.5	1.1	9.2	0.3	(1,054)	(8)**
지역규모											
대도시	12.7	29.5	12.2	6.2	3.9	22.2	1.2	10.4	1.7	(1,051)	41.3 (16)***
중소도시	19.7	30.5	12.2	6.6	2.4	19.1	0.6	8.1	0.7	(1,060)	
읍·면	13.9	32.8	12.9	6.7	4.5	17.9	1.5	9.3	0.5	(383)	
모 취업 여부											
모 취업	14.8	26.6	12.8	7.8	3.6	22.0	0.8	10.5	0.9	(1,296)	137.5 (24)***
휴직 중	11.4	24.7	8.2	6.0	4.2	31.9	-	12.5	1.0	(294)	
미취업	19.7	38.2	13.0	4.4	2.4	13.1	1.6	6.3	1.1	(883)	
부재 등	7.0	24.6	17.6	14.0	7.4	22.2	-	-	7.2	(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2.9	45.7	10.0	6.1	5.2	13.9	2.0	2.1	2.1	(125)	167.8 (56)***
300~349만원	18.0	33.9	8.9	8.7	4.0	17.4	2.8	5.4	0.8	(164)	
350~399만원	17.3	39.1	17.6	4.8	3.4	10.4	1.9	5.4	-	(145)	
400~499만원	20.9	36.6	10.2	5.5	1.8	16.0	1.2	6.0	2.0	(421)	
500~599만원	18.1	31.1	15.1	6.8	3.3	17.9	0.5	7.1	0.1	(474)	
600~699만원	13.1	28.9	14.7	6.5	2.8	19.4	1.0	13.0	0.7	(376)	
700만원 이상	13.8	23.1	10.3	6.9	3.6	27.8	0.6	12.6	1.3	(750)	
모름/무응답	10.4	26.3	19.5	3.2	8.2	17.0	-	12.9	2.5	(39)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17.0	28.6	13.7	6.7	3.9	18.0	1.0	10.3	0.8	(1,255)	64.2 (24)***
유치원만 이용	19.5	14.3	22.0	3.8	1.9	24.7	5.9	7.9	-	(31)	
둘 다 이용	12.1	32.1	12.1	7.1	2.7	24.2	1.0	8.0	0.8	(911)	
미이용	20.8	34.0	7.7	4.7	2.7	18.9	0.7	8.0	2.5	(297)	
2021년	22.0	21.7	14.4	4.8	1.8	14.8	0.9	7.9	0.4		
2018년	35.9	11.7	17.5	5.7	3.7	10.2	0.9	6.5	-		
2015년	23.3	19.5	26.6	3.9	4.5	9.0	0.3	4.7	0.3		

주: 2024년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정책 활용성이 낮아 삭제, 응답자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 항목 기술방식 보완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하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58~559. 〈표 XI-5-1〉.

** $p < .01$, *** $p < .001$.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을 1+2+3순위까지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 비용 인상'이 6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시 소득보장' 51.8%, '보육 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48.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8.0%, 유연근무제 확대 37.8% 순이었다. 즉, 비중 순 1순위와 2순위는 동일하지만, 3순위 응답이 '보육교육기관

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바뀌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이 2순위나 3순위에서 훨씬 많이 응답되었음을 암시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는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 비용 인상'이 5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응답 항목이었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이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이나 유연근무제 확대와 같은 육아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경향성에 큰 차이는 없으나, 1순위 응답과 유사하게 영아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 유아 가구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이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시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 비용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XI-5-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보육 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공공아이를 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 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육아정보· 상담 제공	유연근무제 확대	기타	(수)
전체	38.0	63.4	48.9	29.2	19.4	51.8	7.3	37.8	2.2	(2,49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2.5	63.0	46.6	28.7	19.2	51.4	7.0	36.7	2.5	(1,440)
유아	30.7	64.0	52.6	30.0	19.6	52.4	7.8	39.5	1.7	(1,054)
지역규모										
대도시	34.9	63.4	44.2	29.9	20.0	54.8	6.3	40.9	3.4	(1,051)
중소도시	42.2	62.9	51.6	29.2	17.9	50.1	6.7	35.6	1.5	(1,060)
읍·면	33.4	64.7	53.5	27.4	22.4	48.6	12.3	35.7	0.7	(383)
모 취업 여부										
모 취업	34.0	61.2	45.1	33.2	20.2	53.8	5.8	41.7	2.2	(1,296)
휴직 중	38.0	52.2	42.0	26.4	14.7	67.8	5.5	47.8	1.8	(294)
미취업	44.1	70.6	56.9	24.1	19.8	42.8	10.1	28.8	2.2	(883)
부재 등	26.8	68.9	51.0	45.0	21.4	52.1	13.0	14.5	7.2	(2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3.1	78.4	46.3	29.0	24.5	46.7	10.1	22.5	3.1	(125)
300~349만원	44.2	70.7	53.8	26.5	12.8	45.0	12.4	29.1	2.6	(164)
350~399만원	45.6	70.8	57.1	28.7	24.0	42.2	10.8	19.7	0.5	(145)

구분	국공립 어린이 이집 확충	보육 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공공아이돌 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 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육아정보· 상담 제공	유연근무제 확대	기타	(수)
400~499만원	38.3	69.9	54.0	27.0	20.0	45.8	9.8	32.2	2.5	(421)
500~599만원	39.4	67.9	50.5	28.6	17.5	49.5	6.3	37.8	1.5	(474)
600~699만원	39.5	60.8	48.0	31.8	22.6	49.8	5.0	39.4	1.3	(376)
700만원 이상	34.0	53.7	42.0	31.2	18.2	61.7	5.7	47.3	2.9	(750)
모름/무응답	43.1	55.6	68.7	14.5	21.4	46.9	4.8	39.3	2.5	(39)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9.0	62.8	48.0	31.5	19.8	49.6	7.0	37.4	1.9	(1,255)
유치원만 이용	42.5	62.1	57.1	33.4	14.5	50.9	8.0	30.1	1.5	(31)
둘 다 이용	30.4	64.0	52.1	29.6	20.7	53.1	6.8	39.8	2.1	(911)
이용경험 없음	49.7	63.9	44.9	20.7	15.6	56.3	9.1	35.7	3.3	(297)
2021년	45.5	54.6	48.1	19.9	14.6	41.8	11.2	28.5	1.2	(2,500)
2018년	58.8	38.0	57.9	24.4	22.3	36.5	9.3	27.3	-	-

주: 1) 2024년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항목 삭제함. 2021년 양육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30.8%, 2018년 25.5%가 응답함.

2) 중복 응답.

자료: 1) 2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61. <표 XI-5-2>.

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1) 부모교육 받은 경험 및 내용

최근 3년 이내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3%로, 2021년 28.3%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2018년 37.2%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8%로,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33.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교육 경험 비율이 높아 41.1%였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1.8%에 그쳐, 낮은 부모교육 경험율을 보였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모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부모교육 경험율은 40% 전후인데 반해, 34세 이하는 30%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휴직 중인 경우 부모교육 경험 비율이 31.9%로 약간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이용비율이 15.5%로 현저히 낮은 특징이 포착되었다.

〈표 XI-5-3〉 부모교육 경험 여부(3년 이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6.3	63.7	100.0(2,494)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33.3	66.7	100.0(1,519)
유아	41.8	58.2	100.0(975)
$\chi^2(df)$	17.7(1)***		
지역규모			
대도시	41.1	58.9	100.0(1,051)
중소도시	31.8	68.2	100.0(1,060)
읍·면	37.2	62.8	100.0(383)
$\chi^2(df)$	19.9(2)***		
모연령			
29세 이하	30.5	69.5	100.0(146)
30~34세	29.2	70.8	100.0(678)
35~39세	41.0	59.0	100.0(976)
40~44세	39.8	60.2	100.0(547)
45세 이상	42.3	57.7	100.0(90)
모름/무응답	23.7	76.3	100.0(57)
$\chi^2(df)$	35.2(5)***		
모 취업 여부			
취업	37.4	62.6	100.0(1,296)
휴직 중	31.9	68.1	100.0(294)
미취업	37.0	63.0	100.0(883)
부재 등	14.9	85.1	100.0(21)
$\chi^2(df)$	7.5(3)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37.8	62.2	100.0(1,255)
유치원만 이용	44.6	55.4	100.0(31)
둘 다 이용	44.1	55.9	100.0(911)
이용경험 없음	15.5	84.5	100.0(297)
$\chi^2(df)$	95.8(3)***		
2021년	28.3	71.7	100.0(2,500)
2018년	37.2	62.8	100.0(2,533)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62~563. 〈표 XI-5-3〉.

*** $p < .001$.

부모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이 6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 52.6%,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35.7% 순이었다. 한편 ‘장애통합이나

다문화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3.2%, '정책지원 정보 안내' 3.7%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부모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설문은 2024년에 항목이 대폭 수정되어 전년도 자료와의 비교가 여의치 않은 점을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와 유아는 경향성 자체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영아 자녀의 경우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56.5%)를 받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아는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70.5%)나 '미디어·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19.3%)를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도 특기할만한 차이점을 발견되지 않았다. 모연령에 따라서는 모 연령이 45세 이상인 경우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77.8%), '부모 자기 이해 및 역할'(46.8%), '미디어·인터넷 과의존 예방'(24.9%) 교육을 받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57.2%)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28.9%)를 받았다는 응답이 적은 특징이 있었다. 한편,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만 이용한 경우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62.9%)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56.2%)를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와 어린이집만 이용한 경우가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일 확률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XI-5-4〉 부모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	부모 자기이해 및 역할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과의존 예방	장애통합이나 다문화 교육	정책지원 정보 안내	양육 스토레스 관리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정보	기타	(수)
전체	52.6	68.5	28.7	35.7	14.3	15.7	3.2	3.7	12.9	8.8	0.3	(952)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56.5	67.1	27.6	32.7	15.5	13.3	2.1	3.9	12.3	6.7	0.3	(536)
유아	46.9	70.5	30.3	40.0	12.5	19.3	4.8	3.3	13.7	11.9	0.2	(416)
지역규모												
대도시	49.0	68.4	29.4	36.3	16.6	16.3	3.8	3.6	15.0	10.2	-	(448)
중소도시	56.8	68.2	29.3	35.1	13.0	15.6	2.2	3.4	10.9	5.9	0.5	(352)
읍·면	52.5	69.6	24.9	35.2	10.3	14.5	4.0	4.7	11.5	12.7	0.5	(152)

구분	영유아 성장발 달이해	영유아 자녀 양육방 법	부모 자기이 해 및 역할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 육	미디어 인터넷 과의존 예방	장애통 합이나 다문화 교육	정책 지원 정보 안내	양육 스트 레스 관리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 학교 정보	기타	(수)
모연령												
29세 이하	52.8	71.9	39.7	36.9	16.8	7.4	2.8	1.6	6.7	11.8	-	(43)
30~34세	56.4	61.7	30.4	35.8	17.7	18.6	2.4	5.1	14.3	7.0	0.3	(216)
35~39세	51.4	72.2	25.7	33.7	13.2	12.7	4.1	2.8	12.4	8.3	0.4	(405)
40~44세	49.7	67.2	26.8	38.2	13.0	19.5	3.0	4.6	14.5	10.9	-	(233)
45세 이상	51.4	77.8	46.8	38.0	13.0	24.9	-	1.7	11.2	12.2	-	(40)
모름/무응답	72.9	49.0	34.1	40.4	9.3	9.3	-	4.5	4.5	4.5	-	(15)
모 취업 여부												
취업	52.2	66.8	27.2	37.3	15.7	16.4	3.2	4.7	12.3	10.4	-	(505)
휴직 중	57.2	69.7	28.3	28.9	11.9	9.2	1.5	2.6	14.2	6.3	-	(97)
미취업	52.0	70.5	31.4	34.9	13.1	17.1	3.7	2.5	13.4	7.4	0.7	(347)
부재 등	17.6	82.4	-	82.4	-	-	-	-	-	-	-	(3)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만 이용	56.2	62.9	28.7	34.9	13.5	13.4	3.3	3.7	13.4	6.9	-	(489)
유치원만 이용	48.8	76.9	49.0	51.8	26.5	18.7	27.4	18.7	27.4	4.4	-	(13)
둘 다 이용	44.3	74.8	27.9	37.7	14.6	18.8	2.5	2.5	11.5	12.7	0.7	(398)
기관 이용 경험 없음	71.5	75.1	29.0	26.9	17.0	16.7	2.0	7.2	13.9	3.3	-	(52)

주: 2024년 부모교육 내용은 어린이집 조사 항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설문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2021년 결과와 비교가 어려움.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59.4%로 가장 많고, 유치원 23.3%, 육아종합지원 센터 20.4%, 지자체 11.9% 순이었다. 2021년에도 어린이집 53.1%, 유치원 29.8%, 육 아종합지원센터 14.5%로, 2024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5.5%로, 유아 50.4%에 비해 높은데 반해,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42.2%로, 영아 10.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영아 23.1%, 유아 16.3%로, 영아 부모들의 이 용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4.0%로,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모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교육을 받은 비중이 69.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4.8%로 높았다.

〈표 XI-5-5〉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복수응답, 온라인 포함)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직장	종교기관	지자체	기타	(수)
전체	59.4	23.3	20.4	2.7	3.9	1.1	11.9	8.8	(952)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65.5	10.4	23.1	3.3	2.9	1.2	10.6	12.6	(536)
유아	50.4	42.2	16.3	1.9	5.3	0.9	13.8	3.1	(416)
지역규모									
대도시	55.9	23.9	20.6	2.2	4.1	1.3	10.9	9.1	(448)
중소도시	64.0	23.7	20.5	3.7	4.2	1.0	12.6	7.6	(352)
읍·면	57.4	20.5	19.2	1.6	2.1	0.6	13.2	10.8	(152)
모연령									
29세 이하	69.5	14.6	6.7	7.9	2.6	-	12.2	19.0	(43)
30~34세	57.1	16.9	23.2	2.9	3.2	0.4	11.8	16.3	(216)
35~39세	59.9	25.4	21.9	1.4	4.9	1.6	10.4	7.0	(405)
40~44세	57.4	27.6	18.5	3.8	3.6	1.3	15.1	2.8	(233)
45세 이상	59.4	26.1	23.0	4.7	1.5	-	11.8	5.5	(40)
모름/무응답	71.9	18.2	-	-	-	-	8.7	9.6	(15)
모 취업 여부									
취업	64.8	23.4	17.2	2.4	5.6	0.5	10.4	7.7	(505)
휴직 중	45.6	22.5	29.8	5.7	4.6	1.3	6.0	19.2	(97)
미취업	55.3	23.2	22.2	2.3	1.1	1.9	16.2	7.1	(347)
부재 등	100.0	62.0	-	-	-	-	-	-	(3)
2021년	53.1	29.8	14.5	4.1	4.6	2.0	12.2	16.5	(747)
2018년	55.1	29.3	12.1	3.7	5.3	4.1	8.5	1.0	(965)

주: 2018년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 '의료기관' 항목이 있었고, '지자체' 항목이 없었음. 따라서 2018년도의 '공공기관' 수치를 '지자체' 항목에 작성하고, 2018년도의 '의료기관(0)' + 기타(1.0)' 항목을 '기타' 항목에 기입하여 작성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65~566. 〈표 XI-5-5〉.

3) 부모교육 필요성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1.3%, 필요없음 10.2%, 잘 모름 8.6%로 다수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80.2%, 2018년에는 81.6%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난 3년간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인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역규모와 모 연령, 모 취업 여부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됐다. 다만, 부모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교육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2%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73.8%에 비해 20.4%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5-6〉 부모교육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전체	81.3	10.2	8.6	100.0(2,494)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81.7	10.0	8.3	100.0(1,519)
유아	80.4	10.6	8.9	100.0(975)
$\chi^2(df)$	0.7(2)			
지역규모				
대도시	82.6	9.4	7.9	100.0(1,051)
중소도시	80.2	10.8	9.1	100.0(1,060)
읍·면	80.8	10.5	8.6	100.0(383)
$\chi^2(df)$	2.3(4)			
모연령				
29세 이하	76.6	11.5	12.0	100.0(146)
30~34세	80.0	10.2	9.8	100.0(678)
35~39세	83.1	9.2	7.6	100.0(976)
40~44세	80.8	10.8	8.4	100.0(547)
45세 이상	83.9	8.2	7.9	100.0(90)
모름/무응답	77.0	20.0	3.0	100.0(57)
$\chi^2(df)$	15.4(10)			
모 취업 여부				
취업	81.3	10.7	8.0	100.0(1,296)
휴직 중	87.2	6.0	6.8	100.0(294)
미취업	79.1	11.0	9.9	100.0(883)
부재 등	77.6	10.1	12.3	100.0(21)
$\chi^2(df)$	12.3(6)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94.2	3.0	2.8	100.0(952)
없음	73.8	14.3	11.8	100.0(1,542)
$\chi^2(df)$	157.9(2)***			
2021년	80.2	8.0	11.9	100.0(2,500)
2018년	81.6	12.7	5.8	100.0(2,533)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p. 566~567. 〈표 XI-5-6〉.

*** $p < .001$.

4) 부모교육 희망 내용 및 방식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은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이 57.7%로 확연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17.3%, ‘부모의 자기 이해 및 역할’ 8.6% 순이었다. 이는 실제 부모들이 받았던 부모교육의 내용의 비중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연소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는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이나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 교육을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하고, 유아는 ‘부모 자기 이해 및 역할’과 ‘미디어·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등을 좀 더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에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교육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영양, 안전 교육’이나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 통합이나 다문화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이 4.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이나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이미 받은 적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XI-5-7〉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교육 내용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부모 자기 이해 및 역할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교육	미디어 인터넷 과의존 예방	장애 통합 이나 다문화 교육	정책 지원 정보 안내	양육 스트 레스 관리	어린 이집, 유치원, 초등 학교 정보	기타	계(수)
전체	17.3	57.7	8.6	3.0	1.7	3.0	0.6	2.1	3.7	2.0	0.3	100.0(2,019)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18.2	61.1	6.6	2.7	2.4	1.1	0.5	1.8	3.3	2.1	0.1	100.0(1,234)
유아	15.7	51.4	12.1	3.5	0.5	6.6	0.8	2.6	4.4	1.8	0.6	100.0(785)
$\chi^2(df)$	90.8(10) ^{***}											
지역규모												
대도시	17.5	57.6	8.0	2.7	1.2	3.8	0.7	3.0	3.7	1.8	-	100.0(863)
중소도시	17.3	57.1	9.8	3.2	2.3	2.6	0.5	1.7	3.1	2.0	0.5	100.0(836)
읍·면	16.8	60.2	6.2	3.1	1.5	2.4	0.7	0.6	5.6	2.6	0.3	100.0(320)
$\chi^2(df)$	24.9(20)											
모연령												
29세 이하	26.5	54.9	5.3	1.2	1.3	1.0	2.3	1.7	5.1	-	0.7	100.0(112)
30~34세	15.0	68.3	5.0	2.5	2.0	1.5	0.5	1.3	1.9	1.6	0.3	100.0(542)
35~39세	16.0	55.0	9.3	3.4	1.7	3.9	0.5	2.7	4.5	2.8	0.2	100.0(805)

구분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부모 자기 이해 및 역할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교육	미디어 인터넷 과의존 예방	장애 통합 이나 다문화 교육	정책 지원 정보 안내	양육 스트 레스 관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학교 정보	기타	계(수)
40~44세	20.4	49.4	12.7	3.3	1.4	3.2	0.6	2.6	4.7	1.7	0.0	100.0(442)
45세 이상	15.2	60.5	13.1	0.8	2.5	7.1	-	-	0.9	-	-	100.0(76)
모름/무응답	23.6	52.4	4.7	6.4	1.1	5.0	-	-	2.7	2.9	1.2	100.0(42)
$\chi^2(df)$	109.3 (50)***											
모 취업 여부												
취업	17.2	57.5	9.2	3.3	1.4	3.7	0.2	1.8	3.5	1.8	0.4	100.0(1,053)
휴직 중	14.3	60.7	7.0	2.5	4.2	1.6	0.9	2.0	4.5	2.3	-	100.0(250)
미취업	18.9	57.4	8.0	2.8	1.4	2.4	1.0	2.3	3.6	2.2	0.1	100.0(701)
부재 등	15.9	32.2	20.6	-	-	15.3	-	16.0	-	-	-	100.0(15)
$\chi^2(df)$	61.0(30)***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17.9	53.1	9.3	2.9	1.7	4.8	0.7	3.2	5.0	1.4	0.1	100.0(894)
없음	16.9	61.1	8.0	3.0	1.8	1.8	0.5	1.3	2.7	2.4	0.4	100.0(1,125)
$\chi^2(df)$	40.6 (10)***											

주: 2024년 부모교육 내용은 어린이집 조사 항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설문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2021년 결과와 비교가 어려움.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의 방식은 온라인 교육이 42.5%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면 1:1 컨설팅 35.0%, 집합 교육 22.0% 순이었다. 2021년 조사 결과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43.1%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긴 했으나, 대면 1:1 컨설팅이 42.3%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1:1 컨설팅 방식의 대면 교육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8년에는 집합 교육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여 48.8%가 집합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방식의 교육에 익숙해진 영유아 부모들의 변화 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희망하는 교육 방식은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대면 1:1 컨설팅 방식의 교육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을 좀 더 선호하였다. 모 연령이 30~34세인 경우와 45세 이상인 경우 집합교육을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취업모가 집합교육을 좀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인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집합 교육을 좀 더 선호한 반면,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1:1 방식의 컨설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XI-5-8〉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단위: %, (명)

구분	집합교육	대면 1:1 컨설팅	온라인 교육	기타	$\chi^2(df)$	계(수)
전체	22.0	35.0	42.5	0.4		100.0(2,019)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1.1	36.9	41.6	0.4	6.4(3)	100.0(1,234)
유아	23.8	31.5	44.2	0.5		100.0(785)
지역규모						
대도시	21.5	36.9	41.3	0.4		100.0(863)
중소도시	21.8	33.3	44.3	0.6	6.1(6)	100.0(836)
읍·면	24.3	35.3	40.4	-		100.0(320)
모연령						
29세 이하	16.9	37.7	45.5	-		100.0(112)
30~34세	24.3	36.4	38.8	0.5		100.0(542)
35~39세	21.6	35.3	42.4	0.7	21.8(15)	100.0(805)
40~44세	22.0	30.9	47.1	-		100.0(442)
45세 이상	24.6	29.5	45.9	-		100.0(76)
모름/무응답	10.7	51.2	38.1	-		100.0(42)
모 취업 여부						
취업	20.7	36.3	42.6	0.4		100.0(1,053)
휴직 중	21.8	39.1	38.6	0.4	8.9(9)	100.0(250)
미취업	24.0	31.7	43.7	0.6		100.0(701)
부재 등	21.2	24.3	54.5	-		100.0(15)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29.8	29.8	40.0	0.4		100.0(894)
없음	16.3	38.9	44.4	0.4	55.4(3)***	100.0(1,125)
2021년	14.5	42.3	43.1	0.1		100.0(1,965)
2018년	48.8	33.5	17.5	0.2		100.0(2,072)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69. 〈표 XI-5-8〉.

*** $p < .001$.

집체교육이나 1:1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부모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장소를 질문하였는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44.8%로 가장 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29.6%, 본인의 집 21.5%, 직장 3.5% 순이었다. 2021년도에는 특이하게도 직장에서도 부모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48.9%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다니는 기

관 40.2% 순이었다. 한편, 2018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67.3%,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26.4%로, 부모교육을 받고 싶은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4년 1:1 대면 컨설팅을 선호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인의 집을 선택한 비중이 증가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50.7%로 높은 반면, 영아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24.9%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싶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모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데 반해,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선호했고, 휴직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XI-5-9〉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다니는 기관	직장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	본인의 집	기타	$\chi^2(df)$	계(수)
전체	44.8	3.5	29.6	21.5	0.7		100.0(1,171)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41.7	3.4	29.6	24.9	0.4	19.5(4)***	100.0(725)
유아	50.7	3.6	29.5	14.9	1.3		100.0(446)
지역규모							
대도시	48.7	4.8	25.0	20.6	0.9		100.0(499)
중소도시	40.8	2.3	33.4	22.7	0.8	16.0 (8)*	100.0(488)
읍·면	45.5	3.0	31.1	20.3	-		100.0(184)
모연령							
29세 이하	38.8	3.3	28.6	28.4	0.9		100.0(59)
30~34세	44.1	2.2	27.6	25.7	0.5		100.0(327)
35~39세	45.8	4.7	29.3	19.2	1.0	26.2 (20)	100.0(477)
40~44세	45.2	3.4	35.4	15.1	0.9		100.0(241)
45세 이상	52.9	-	25.6	21.6	-		100.0(42)
모름/무응답	35.1	3.9	21.0	40.0	-		100.0(25)
모 취업 여부							
취업	50.4	4.1	25.4	19.3	0.9		100.0(611)

구분	자녀가 다니는 기관	직장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	본인의 집	기타	$\chi^2(df)$	계(수)
휴직 중	32.3	3.6	36.1	27.3	0.7	26.0(12)*	100.0(161)
미취업	41.8	2.5	32.6	22.5	0.6		100.0(392)
부재 등	39.5	-	52.4	8.1	-		100.0(7)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55.2	3.2	26.5	14.4	0.7	46.4(4)***	100.0(552)
없음	36.6	3.7	32.0	27.1	0.8		100.0(619)
2021년	40.2	48.9	5.8	-	5.0		100.0(1,124)
2018년	67.3	5.8	26.4	-	0.5		100.0(1,050)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이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70. <표 XI-5-9>.

* $p < .05$, *** $p < .001$.

5) 정부 지원 시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가정양육수당, 아동 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등)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73.5%, 없다는 응답이 26.5%였다. 2021년 조사 결과에서도 있다는 응답이 76.9%, 없다는 응답이 23.1%로, 2021년에 비해서는 2024년에 부모교육 참여 의향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소 자녀 연령이나 지역규모, 모연령, 모 취업 여부 등에 따라 경향성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부모교육을 더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8%,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69.3%로, 오히려 과거에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앞으로도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 부모교육의 필요성이나 참여 의향이 낮은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의 마련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XI-5-10> 가정양육수당, 아동 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받을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chi^2(df)$	(수)
전체	73.5	26.5		(2,494)
최연소 자녀 구분				

구분	있음	없음	$\chi^2(df)$	(수)
영아	73.1	26.9		(1,519)
유아	74.2	25.8	0.4(1)	(975)
지역규모				
대도시	71.9	28.1		(1,051)
중소도시	74.8	25.2	2.2(2)	(1,060)
읍·면	73.9	26.1		(383)
모연령				
29세 이하	77.0	23.0		(146)
30~34세	71.0	29.0		(678)
35~39세	74.7	25.3	4.4(5)	(976)
40~44세	73.4	26.6		(547)
45세 이상	76.9	23.1		(90)
모름/무응답	71.6	28.4		(57)
모 취업 여부				
취업	72.9	27.1		(1,296)
휴직 중	77.1	22.9	3.2(3)	(294)
미취업	72.8	27.2		(883)
부재 등	82.2	17.8		(21)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80.8	19.2	39.0(1)***	(952)
없음	69.3	30.7		(1,542)
2021년	76.9	23.1		(2,500)

주: 2024년 정책변화(부모급여 등)을 반영하여 설문 수정함. 응답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을 윤문함.
 자료: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21년 자료: 김은설 외(2021). p. 571. <표 XI-5-10>.

6.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7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평균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6.2점), ‘영유아 가구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6.1점),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지원 강화’(6.1점)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1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전반적인 경향성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최근 정부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확대, 강화가 얼마나 정책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는 의견(51.6%)이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의견(37.1%)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이전 조사인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10%p 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이 있다는 응답 비중도 2021년에 비해서는 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특성별로 영아 자녀의 경우 유아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치 혹은 공급량의 조절은 총량적인 설치 수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영유아 가구의 특성에 맞춘 교육·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특히 영아 자녀나 읍·면지역과 같은 경우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감안한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나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2021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10% 이하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보육실태조사의 아이돌봄서비스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실제 이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이용률이 아닌 전체 영유아 및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용률이라서, 실질적인 이용률보다 낮게 산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용률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28.1%)와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23.8%) 등을 통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만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금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즉, 장애아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시간제보육료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정책에 대한 정보 검색이 보편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2024년 조사 결과 기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순위 응답 기준)은 ‘보육·교육비 등 정부 지원비용 인상’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2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0%,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이었다. 2021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보육·교육비 등 정부지원금 인상’ 2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14.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순으로, 2024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2024년 영유아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보다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강화와 확대에 보다 높은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유아 가구의 변화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육아시간 지원 정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최근 3년 이내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3로, 2021년 28.3%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2018년 37.2%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1.3%의 영유아 가구가 동의하였으나, 정부지원금(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등)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73.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교육의 참여 의향은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 반대로 부모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의 마련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곱째, 영유아 부모들이 받고 싶어 하는 부모교육은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57.7%),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17.3%), ‘부모의 자기 이해 및 역할’(8.6%) 순으로, 이는 실제 부모들이 받았던 부모교육의 내용의 비중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즉, 부모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영아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일반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 연령에 맞춘 시의적절한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영유아 부모의 상담수가 대면 1:1 방식의 컨설팅(35.0%)을 본인의 집(21.5%)에서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대면 1:1 방식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의견은 2021년도 조사에서도 42.3%가 응답하여,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2024년에는 오히려 이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집합교육에 대한 선호가 소폭 증가(22.0%)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1 대면 방식의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적인 내용의 부모교육을 기획하여 개별 맞춤형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XII. 결론

XII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추후 심층 분석 및 후속 연구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1.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수요 예측 및 수급 전략 수립 필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4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6.8%, 사립유치원 29.5%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뢰가 가서'가 가장 주된 이유로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둘째 이하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접근성과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비용과 교육내용 순으로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수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51.6%,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8.1%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은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37.1%로, 불충분하다는 응답 41.3%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24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이전 조사인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10%p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주지 주변에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2021년 대비 충분하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특성별로 영아 자녀의 경우 유아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설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믿고 자녀를 보낼만한 기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생코호트별 향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높으나, 4~5세의 유치원 선호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유보통합이 진행 중에 있으나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의의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집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유아 부모들이 원하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특성(장점)을 살린 유보통합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 부모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다른 영유아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관은 충분하나 믿고 맡길 기관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2.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 추가개선 사항

2024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4.3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4.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통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비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2024년에도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했으나 평균 4.2점으로 만족도 수준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4년에 상대적으로 개선 요구가 높았던 사항은 교육내용 다양화, 인력증원, 노후시설 정비 등이었다. 기관 이용 목적은 전인적 발달을 위한 것(3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돌봄의 필요성(30.9%)보다 높았으며, 기관 이용 시작 시기는 점차 빨라져 평균 19.8개월부터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 돌봄에 대해서도 서비스 질 등에 만족도가 높아, 기관 보육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나마 제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시간보다 실제 이용시간은 한 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은 연장보육 등 장시간 보육을 희망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거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특히 혈연 돌봄)를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보육 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보다 사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단,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일 수 있으므로, 아동 연령별 적정 활동 등에 관한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방과후 과정(연장보육 포함)의 내실화를 통해 장시간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혈연인(특히 조부모)의 경우 양육으로 인한 심신 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조부모의 경우 부모에 비해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각종 육아정보, 육아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의 제도 홍보 사업 등이 강화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된다.

3.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4만5,800원이며,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월 보육·교육비는 평균 19만2,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4만1,000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용 지불 영유아 기준 보육·교육비 평균은 2021년의 19만2,800원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보육료 상한제 및 원비상한률 적용으로 이용비용의 인상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 단가 인상, 지자체의 차액보육료 지원 및 교육부의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에 비용 지원이 확대된 것에 따른 효과로 생각된다. 다만, 수익자부담 경비에 해당하는 현장학습비, 방과후 특성화비 등이 상승하여 비용 지원의 효과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부모들은 기관 이용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으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2021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 수준은 2021년에 비해 낮아져, 추가 지불 의향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비용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나,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평균 111만6천원으로, 2021년 대비 1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교육보육비용 이외의 양육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이나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등이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은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에 힘입어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는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추가지원보다는 그 외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보육정책(예 : 공공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어린이집 평가, CCTV 설치 등)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공공형 어린이집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는 아직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도움을 받은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3.8점으로, 2018년 3.5점, 2021년 3.7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등도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CTV 열람 확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긴 했으나 CCTV 열람의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집 CCTV 등의 경우 교사 인권 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CCTV 열람 절차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준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정보 중에서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교직원 관련정보, 어린이집 평가등급 관련정보, 보육과정 관련 정보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이 높게 나타나, 향후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육아시간 지원 정책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육아시간 지원 정책의 확장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요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로 육아시간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시 절반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육아휴직 경험 또한 어머니가 한 경우가 34.5%, 아버지가 한 경우는 3.6%,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6.1%에 그쳤다.

한편, 2024년 맞벌이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2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내 양육 시간이 길었던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24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사분담은 2021년에 비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2배 이상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모 7: 부 3)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주로 주말을 통해 이뤄지며, 주로 놀이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부의 양육참여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부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영유아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각 육아지원 정책별로 필요성을 7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평균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가 6.2점으로 다음으로 요구가 높은 정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양육활동에서 아버지가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최근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등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집단이 존재하는 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6. 가정양육 부모 지원 및 시간제 보육 인지도 개선 노력 필요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높아졌으나, 기관 이용시간

은 8시간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 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부모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비혈연인이나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1% 이하의 낮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그런데, 2024년 조사 결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는 2021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양육방법 선택에서의 혼란이 3.1점,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포기 3.0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정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즉,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크지만 독박 육아의 고통이 양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보다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잠시라도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시간제 보육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7.2%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4.6%로 매우 높고, 시간제 보육반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이 없다는 응답이 12.4%, 실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시간제 보육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관을 미이용 하는 6~36개월의 영유아로, 이용 가능 대상자를 기준으로 인지도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동의 월령에 따라 인지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0~11개월의 영아의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반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월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0~2세 정규 보육반에 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때 일일 3시간 단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한 인지도는 시간제 보육반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도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2022~2023년 시범사업 이후 2024년 본 사업으로 도입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 기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황은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보육 이용자들의 시간제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3.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양육의 공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 보육반과 시간제보육 통합반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람 홈페이지’(28.1%)와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게시물’(23.8%) 등을 통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만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유아 부모의 부정적 양육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부모 대상 정서 지원(부모 교육) 사업 등도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교육은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것이 57.7%로 확연히 높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17.3%, ‘부모의 자기 이해 및 역할’ 8.6% 순이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부모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부모교육 참여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 번도 부모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부모(특히 영아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 영유아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교육의 방식이 1:1 컨설팅 방식 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적인 내용의 부모교육을 기획하여 개별 맞춤형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사교육대책팀(2023. 6.). 사교육 경감대책.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4). 2024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4). 보육정책 DW 시스템 내부자료(2024. 12. 31. 기준)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 서울특별시(2024). 2024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조미라·김문정·윤문희(2024). '24년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 비공식 양육·돌봄지원제도 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제2024 - 250호 <https://gangwon.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96009>. (2024. 12. 16. 인출).
- 경기도 홈페이지. 2024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결정 [공고 제2024-221호].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07172291&menuId=1547>. (2024. 12. 16. 인출).
- 경상남도 홈페이지. 2024년도 경상남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제2024-173].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

- 135003009001&conTitle=%EC%88%98%EB%82%A9%ED%95%9C%EB%8F%84&conGosiGbn=&conIfmStd=2023-11-01&conIfmEnddt=2024-07-05&pageLine=10&page=1&mode=view&sno=44670&gosiGbn=A&searchCnt=15. (2024. 12. 16. 인출).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357호]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95991>. (2024. 12. 16. 인출).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2024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제2024-393호]. <https://sido.gwangj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30715&gosiGbn=A>. (2024. 12. 16. 인출).
- 교육부 홈페이지-영유아교육보육 정책-유치원 통계(2024. 12. 31. 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128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2024. 11. 2. 인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 (2024. 12. 16. 인출).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5>. (2024. 12. 16. 인출).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busan.childcare.go.kr/lbusan/d3_30000/d3_20032.jsp. (2024. 12. 16. 인출).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4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제 2024-202호].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1/C1_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56370. (2024. 12. 16. 인출).
-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childcare.go.kr/lincheon/d5_20000/d5_20035/d5_200351.jsp. (2024. 12. 16. 인출).
-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lsan.childcare.go.kr/lulsan/d8_20000/d8_20023/d8_30027.jsp. (2024. 12. 16. 인출).
- 전라남도 홈페이지. 2024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

고 제2024-195호].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21451&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44&boardId=J0203&displayHeader=>. (2024. 12. 16. 인출).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보육료 및 필요경비수납한도액 등)[공고 제2024-211호].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2002005000&boardId=BBS_0000129&dataSid=539373. (2024. 12. 16. 인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수납한도액) [공고 제2024-45호]. <https://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95623>. (2024. 12. 16. 인출)

충청남도 홈페이지. 2024년도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제2024-223호]. <https://www.chungnam.go.kr/cnportal/province/province/view.do?ntId=461765&menuNo=500487&pageIndex=1>. (2024. 12. 16. 인출).

충청북도 홈페이지.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제2024-194호].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GosiPblancView.do?key=422&no=51152&pageUnit=10&pageIndex=89&searchCnd=all>. (2024. 12. 16. 인출).

【통계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유치원) <https://kess.kedi.re.kr/index>(2024. 11. 21.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2024. 11. 21. 인출).

부록 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표



작성기관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으로, 교육부 의뢰로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조사와 아동 개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선정은 전국에서 부모급여,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구 중 무작위 추출되었으며, 귀 닥이 표본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조사진행 문의처: (주)한국리서치 실무담당자 오세미 부서장(02-3014-0111)

조사표 종류	가구번호(ID)				시도번호
1					
주 소	_____시/도_____구/시/군_____읍/면/동_____로_____길 공동주택명_____아파트, 빌라_____동_____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집 () - 휴대폰 () -
조사원 성명	(인)			응답 날짜	2024년 ()월 ()일

* 전화번호: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조사기준일 : 2024년 9월 1일



[응답표 2]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부모-자녀 외) ※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가구원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현재 동거인 경우만 응답합니다).

1 가구원 일련번호	2 관계코드	3 성별	4 생년월	5 교육정도		6 경제활동	
				5-1 학교	5-2 종업여부	6-1 취업여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 ⑤ 대학교 (3년제 이하) ⑥ 대학교 (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 ⑧ 미취학(영유아) ▶ 6 경제활동 ⑧ 무학 ▶ 6 경제활동	① 출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휴학 ⑤ 재학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미취업(미취학) ④ 모름	
0 8	●	●		●	●	●	●
0 9	●	●		●	●	●	●
1 0	●	●		●	●	●	●
1 1	●	●		●	●	●	●

2 관계코드 : 부모-자녀 외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관계코드를 작성합니다.

4 생년월 : 생년월은 연제입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조사원은 출생년도를 모를 경우 피를 물어서 정확한 생년월을 기입함)

II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최연소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모	
※ 조사원 확인 : 최연소 아동의 부모가 현재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가를 구분합니다.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비해당(부재)		☐	☐	
1 아동의 현재 부모는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근로자)입니까? 1 ① 그렇다(▶ 질문 1-1) ② 아니다(▶ 질문 2) ③ 비해당(부재)(▶ 질문 2)		☐	☐	
1-1 부모의 출신지는? ① 한국 ② 중국 ③ 중국(한국계) ④ 일본 ⑤ 대만/홍콩 ⑥ 베트남 ⑦ 필리핀 ⑧ 그 외 동남아시아 ⑨ 남부아시아 ⑩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⑪ 미주/유럽/대양주 ⑫ 기타		☐	☐	
※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인 경우에만 응답(2~8번)하고 미취업인 경우, 질문 9 로 가십시오.				
2 아동의 부모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기입함, 2024년 9월 1일 기준의 취업형태를 응답함) (※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도 평소 일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출퇴근 여부를 기준으로 응답함)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등) ④ 휴직 중 ⑤ 모름		☐	☐	
3 아동 부모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기입함, 2024년 9월 1일 기준의 취업형태를 응답함)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 질문 4) ②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질문 4)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질문 5)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질문 5) ⑤ 무급가족 종사자(▶ 질문 5) ⑥ 모름(▶ 질문 5)		☐	☐	
4 아동의 부모는 현재 유연근무제(예: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활용이 가능합니까? ① 가능(▶ 질문 4-1) ② 불가능(▶ 질문 4-2) ③ 모름(▶ 질문 5)		☐	☐	
4-1 [문 4에서 ① 가능 응답자] 아동의 부모는 현재 유연근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사용 중 ② 사용하지 않음		☐	☐	
4-2 아동의 부모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육아시간 지원 제도를 활용 가능합니까? 4-3 활용 가능하다면, 지난 1년 이내(2023. 9. 1 ~2024. 8. 31) 해당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제도명	부		모	
	4-2 활용가능여부 ① 가능(▶ 질문 4-3) ② 불가능 ③ 모름	4-3 사용 여부 ① 사용 ② 미사용	4-2 활용가능여부 ① 가능(▶ 질문 4-3) ② 불가능 ③ 모름	4-3 사용 여부 ① 사용 ② 미사용
1. 출산휴가	☐	☐	☐	☐
2. 육아휴직	☐	☐	☐	☐
3. 육아가근로시간 단축	☐	☐	☐	☐
4. 가족돌봄휴직	☐	☐	☐	☐
5. 가족돌봄휴가	☐	☐	☐	☐
6.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	☐	☐	☐
7.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하는 육아시간 지원(법적 보장 기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직/휴가 등)	☐	☐	☐	☐

	부	모
5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정기 휴일은 며칠입니까? ① 1주일에 1일 휴무 ② 1주일에 1일휴무와 토요일 격주 휴무 ③ 1주일에 2일 휴무(주 5일제 근무) ④ 2주일에 1일 휴무 ⑤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쉼 ⑥ 비해당(휴직중) ⑦ 모름	●	●
6 평일 출근시각을 기록합니다. (※ 예 08:00,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시 88분, 모름은 99시 99분 기입)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재택근무의 경우 일상적인 시간으로 기입)	__시__분	__시__분
7 평일 퇴근시각을 기록합니다. (※ 예 18:00,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시 88분, 모름은 99시 99분 기입) (※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재택근무의 경우 일상적인 시간으로 기입)	__시__분	__시__분
8 1주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시간 88분, 모름은 99시간 99분 기입) (※ 출퇴근, 휴식시간은 제외하고 평일(월~금)기준으로 기입)	__시간__분	__시간__분
9 (부 또는 모가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향후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현재 구직 중 (▶ 질문 9-1) ②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 질문 9-1) ③ 아이가 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 질문 9-1) ④ 기타() (▶ 질문 9-1) ⑤ 계획 없음 (▶ 질문 10) ⑥ 모름 (▶ 질문 10)	●	●
9-1 (부 또는 모가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언제쯤 취업할 계획입니까? ① 3개월 이내 ② 6개월 이내 ③ 1년 이내 ④ 2년 이내 ⑤ 3년 이내 ⑥ 5년 이내 ⑦ 10년 이내	●	●



10 (모든 응답자)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어머니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 질문 10-1) ②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 질문 10-1)
 ③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있음 (▶ 질문 10-1) ④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없음 (▶ 질문 11)

10-1 육아휴직을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육아휴직 시기와 육아휴직의 주 이유가 된 자녀를 선택해주시시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시간	부	해당 자녀	모	해당 자녀
첫 번째 육아휴직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세 번째 육아휴직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네 번째 육아휴직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다섯 번째 육아휴직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년 월 ~ 년 월	____ 번째 자녀
※ 부모 각각의 총 육아휴직 기간	총 년 개월		총 년 개월	

※ 부모 각각의 총 육아휴직 기간은 조사원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응답자가 아동의 주양육자이며 현재 취업중인 경우) 응답자가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주양육자가 미취업중이거나 휴직중일 경우 비해당 8을 기입함.)

구분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보통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비해당
1.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⑧
2. 늦은 퇴근(야간근무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⑧
3.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⑧
4. 토요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⑧
5.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⑧
6. 아이 보육 · 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겪는 어려움 (※ 기관 미이용시 비해당)	①	②	③	④	⑤	⑧

※ 다음은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근로자)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12 (이주민 부모 가구만 응답(문1=①인 응답자만))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각 질문에 대해 어려운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보통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1. 아이와 의사소통능력 부족(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한)	①	②	③	④	⑤
2.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3.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대외적 자신감 결여	①	②	③	④	⑤
5.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6.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 없음	①	②	③	④	⑤
7. (영유아 포함)자녀지도 · 교육	①	②	③	④	⑤
8.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①	②	③	④	⑤

III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 정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비해당 (부재)
1.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3. 아이 때문에 자기개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 한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질문 4 로 가십시오.

- 2 평소 자녀돌보기(놀이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한 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 ① 적극 참여함 ② 대체로 참여함 ③ 보통 정도로 참여함
④ 거의 참여하지 않음 ⑤ 전혀 참여하지 않음

어머니	아버지
☐	☐

IV

보육 · 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육아지원 정책 방향	필요성						
	← 낮음			높음 →			
1.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예: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 (예: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 교육비 지원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예: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프로그램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예: 가정 양육 가구 이용 서비스 확충, 부모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예: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예: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지원 확대, 직장의 근로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아동 성장발달에 따른 지원 강화 (예: 영유아 발달지원 강화, 놀이체험실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1. 0-1세 부모급여	①	②	③
2. 0-2세 보육료	①	②	③
3. 연장반 (16:00~19:30) 보육료	①	②	③
4. 3-5세 보육료·유아학비	①	②	③
5. 가정양육수당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가정에 지원)	①	②	③
6. 장애아 보육료	①	②	③
7.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이용 시 지원) * (야간연장) 19:30~24:00, (야간12시간) 19:30~익일07:30, (24시간) 07:30~익일07:30	①	②	③
8. 시간제 보육료(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①	②	③
9. 유치원 방과후과정비(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	①	②	③
10. 유아학비 추가지원(5세 대상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월 5만원 추가 지원)	①	②	③
11. 지방정부 수당(출산 시 지자체에서 일시금이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축하금 등 지원금)	①	②	③

참고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정책 세부 내용

▶ 0-1세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현금 혹은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로 제공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연령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만 0세	(현금) 100만원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바우처) 전액
만 1세	(현금) 50만원	(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 2만 5천원	(바우처) 전액

▶ 0-2세 보육료

0세반 540,000원~810,000원 / 1세반 475,000원~712,500원 / 2세반 394,000원~591,000원

▶ 연장반(16:00~19:30) 보육료

17시 이후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를 어린이집에 지원

참고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정책 세부 내용 <계속>

▶ 3-5세 보육료·유아학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280,000원~420,000원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아학비 100,000원~280,000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소득 무관) / 만약, 해당 아동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함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24~35개월	10만원	20만원	15만 6천원
36~47개월		10만원	12만 9천원
48~85개월			10만원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당 일반아동 4천원, 장애아동 5천원,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출에 따라 수납 가능,
지원한도는 월 60시간 이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기준 시간은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익일0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보육료 지원
(취학 아동은 야간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24시간 지정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이용 가능)

◎ 24시간 보육료 지원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지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

0~5세 부모보육료X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를 지원,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를 지원

▶ 시간제 보육료

생후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시간제보육 지정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를 지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50,000원~70,000원 지원

▶ 유아학비 추가지원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에 대해 최대 50,000원을 지원

▶ 지방정부 수당

출산 시 지자체에서 일시금이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축하금 등 지원금

14 귀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음 (▶ 질문 14-1) ② 없음 (▶ 질문 15) ③ 잘 모름 (▶ 질문 15)

14-1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교육 내용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영유아 성장발달 이해
 ② 영유아 자녀 · 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행동 지도 포함)
 ③ 부모의 자기이해 및 역할
 ④ 영유아의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⑤ 가족의 건강 · 영양 · 안전교육
 ⑥ 미디어 · 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⑦ 장애통합이나 다문화 교육
 ⑧ 정책지원 정보 안내
 ⑨ 양육 스트레스 관리
 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정보
 ⑪ 기타()

14-2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방식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집합 교육 (▶ 질문 14-3) ② 대면 1:1 컨설팅 방식 (▶ 질문 14-3)
 ③ 온라인 교육 (▶ 질문 15) ④ 기타 ()

14-3 부모교육이 실시될 장소로 귀하는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 ① 자녀가 다니는 기관(예: 어린이집, 유치원 등) ② 직장(강사 파견)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문 기관 ④ 본인의 집(가정방문)
 ⑤ 기타 ()

15 만약,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VI

기타 질문입니다.

1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질문 1-1) ② 없다 (▶ 질문 1-3) ③ 생각 중 (▶ 질문 1-3)

1-1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출산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현재 임신 중 ② 1년 이내 ③ 1년~2년 이내
④ 2년~3년 이내 ⑤ 3년 이후 ⑥ 잘 모르겠음

1-2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함.)

평 () 총

1-3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 ③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 때문에 ④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힘들어서
- ⑤ 건강이 안 좋아서 ⑥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⑦ 부모 나이가 많아서 ⑧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 ⑨ 기타 ()

2 귀댁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미취학 자녀 모두에게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댁은 지난 1년 동안(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양육 지원 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때 지방정부 양육 지원 수당이란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일시금이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의미하며, 아동수당 등 중앙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지원은 제외됩니다.

- ① 있다 (▶ 질문 5-1 로) ② 없다 (▶ 질문 6 로)

5-1 받은 적이 있다면 지난 1년간(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총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지난 1년간 총 _____ 만원

※ 조사원 확인사항

6 현재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여 표시하십시오.

- 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 · 다세대 주택
④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⑤ 기타()

※ 조사원은 담례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 후, 추가 담례품 발송이 필요한 경우 응답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십시오.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 조사표



작성기관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으로, 교육부 의뢰로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아동 개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선정은 전국에서 부모급여,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구 중 무작위 추출되었으며, 귀 닥이 표본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조사진행 문의처: (주)한국리서치 실사담당자 오세미 부서장(02-3014-0111)

조사표 종 류	가구번호	아동 가구원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2			

주 소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로 _____ 길 _____ 공동주택명 _____ 아파트, 빌라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 성명	아동 성명
응답자 성명	응답 날짜
조사원 성명	2024년 ()월 ()일

※ 조사원은 가구 조사표 [응답표 1]의 가구원 상황에서 아동의 가구원 번호와 이름을 옮겨 적고, 이 아동에 관하여 질문하십시오.

조사기준일 : 2024년 9월 1일



I

보육 · 교육 이용과 지원 개요

※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명의 자녀 중, ()번째 자녀

2 현재 낮 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부 ② 모 ③ 부모의 형제자매 ④ 친조부모
 ⑤ 외조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이웃·지인, 민간 육아도우미 등 ⑧ 공공아이돌보미
 ⑨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⑩ 없음(혼자, 형제끼리 지냄)

3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반일제 이상)은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④ 기타() ⑤ 기관 이용경험 없음 (▶ 질문 4)

3-1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반일제 이상)을 이용한 것은 몇 개월 때부터입니까?

()개월 때

3-2 이 아이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신체, 정서, 인지 등 전체적·통합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예체능 등 취미, 특기 개발 교육)을 위하여
 ④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주위에 놀이 상대가 없어서
 ⑦ 보육료 ·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⑧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⑨ 부 또는 모가 미취업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⑩ 기타()

- 4 이 아이의 각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주로 어디 또는 누구를 이용했습(합)니까? 그리고 이때 부모가 취업 중이었습니까? 각 순위에 해당되는 번호를 최대 세 개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많이 돌보는 사람 또는 이용시간이 긴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 아이의 연령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각 연도별 보육연령은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보기】			모의 취업상태	부의 취업상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 ④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⑥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⑦ 조부모 ⑧ 기타 친인척 ⑨ 비월연 육아인력(이웃 지인, 민간 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⑩ 부모가 직접 돌봄			① 전일제 취업중 ② 시간제 취업중 ③ 학업 및 취업훈련중 ④ 미취업 ⑤ 휴직 (육아휴직 포함) ⑥ 비해당(모부재)	① 전일제 취업중 ② 시간제 취업중 ③ 학업 및 취업훈련중 ④ 미취업 ⑤ 휴직 (육아휴직 포함) ⑥ 비해당(부부재)
	1순위	2순위	3순위		
	출생당해	●	●	●	●
	12개월 미만	●	●	●	●
	1세	●	●	●	●
	2세	●	●	●	●
	3세	●	●	●	●
	4세	●	●	●	●
	5세	●	●	●	●

〈출생연도-해당연도-보육연령 연계표〉

해당 연령	아동 출생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당해	●	●	●	●	●	●	●
12개월 미만	●	●	●	●	●	●	
1세	●	●	●	●	●		
2세	●	●	●	●			
3세	●	●	●				
4세	●	●					
5세	●						

5 이 아이가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질문 5-1) ② 없다 (▶ 질문 6)

5-1 그때 다니던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입함.)

- ① 다니던 어린이집 관련 불만 때문에(시설, 실내 환경, 프로그램, 원장, 교사, 주변 환경 등)
- ②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서
- ③ 가정과 어린이집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집과의 거리가 멀,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 ④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돼서
- ⑤ 기관의 폐원이나 이전 때문에
- ⑥ 다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원, 학원 등)에 보내려고
- ⑦ 집에서 양육하고 싶어서
- ⑧ 안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 ⑨ 기타()

(※ 4페이지 문항 6 관련 주요 내용)

지원구분	주요 내용
부모급여	- 현금 혹은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로 제공
시간제 보육료	- 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지원받는 영아가 시간제보육 이용 시 이용료 3,000원 지원, 2,000원 자부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지원금 없음
(시간제 등) 아이돌보미	- 양육공백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
0-2세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으로 지급, 23개월 이하는 부모급여에서 응답
3-5세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으로 지급
3-5세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 이용자 대상으로 지급 - 유치원 방과후과정비(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 - 5세 방과후 지원금(2024년부터 5세에 한해 월 5만원 추가 지원)
2-5세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소득무관하게 지원

6 이 아이는 2024년 9월 1일 기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6-1 에서 아동의 출생시기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문항만 응답하십시오.)

6-1 응답대상	급여 구분/돌봄 보육 이용 여부	6-2 지원비용 수혜여부 ① 현재 받음 (▶ 6-3) ② 현재 받고 있지 않음 (▶ II 영역)	6-3 비용지원정책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① 2023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2023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 부모급여 - 잔액 현금	☐	☐
	2)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바우처 + 현금 : 기본반(09:00~16:00) 보육료	☐	☐
	3)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바우처 + 현금 : 연장반(16:00~19:30) 보육료	☐	☐
	4)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바우처 + 현금 : 장애아 보육료	☐	☐
	5) 종일제 아이돌봄	☐	☐
	6) 시간제 보육료	☐	☐
	7) (시간제 등) 아이돌보미	☐	☐

※ ②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② 2022년 9월 1일 생 ~ 2023년 8월 31일 생	1) 부모급여 - 잔액 현금	☐	☐
	2)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바우처(+ 현금 : 기본반(09:00~16:00) 보육료	☐	☐
	3)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바우처(+ 현금 : 연장반(16:00~19:30) 보육료	☐	☐
	4) 부모급여 - (어린이집) 바우처(+ 현금 : 장애아 보육료	☐	☐
	5) 종일제 아이돌봄	☐	☐
	6) 시간제 보육료	☐	☐
	7) (시간제 등) 아이돌보미	☐	☐

※ ③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③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	1) 0-2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자) : 기본반(09:00~16:00) 보육료	☐	☐
	2) 0-2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자) : 연장반(16:00~19:30) 보육료	☐	☐
	3) 0-2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자) : 장애아 보육료	☐	☐
	4) 3-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자) : 기본반(09:00~16:00) 보육료	☐	☐
	5) 3-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자) : 연장반(16:00~19:30) 보육료	☐	☐
	6) 3-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자) : 장애아 보육료	☐	☐
	7) 3-5세 유아학비 (유치원 이용자) :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	☐
	8) 3-5세 유아학비 (유치원 이용자) :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	☐
	9) 3-5세 유아학비 (유치원 이용자) : 5세 방과후 지원금	☐	☐
	10) 2-5세(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	☐

II

미취학 아동의 부모 돌봄 시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 조사원은 기준일이 무슨 요일인지 기록합니다.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 기준일은 방문 전날이며, 방문날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 전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중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이 아이가 기준일,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이었습니까?

(※ 30분 이상 반올림함)

(※ 부모 부재일 경우 해당 칸에 88 기입함.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함.)

어머니	최근 평일(하루)	() 시간
	지난 주말(하루)	() 시간
아버지	최근 평일(하루)	() 시간
	지난 주말(하루)	() 시간

※ 조사원은 아동 및 가구조사표에 의거하여 해당아동에게 조사할 내용의 해당여부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조사하십시오.

(※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III.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IV. 미취학 아동 전체	① 해당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V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별/그룹지도·학습지 등 교육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VII. 전체 아동 중, 장애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VII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교육 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조사원 확인사항

☐ 해당 ☐ 비해당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을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거나 시간제보육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이용 기관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① 국공립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⑩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⑨ 사립유치원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협동어린이집			

2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 소재지와 아동의 거주지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 2-1 기관명 ()
- 2-2 아동 거주지와와의 관계
- ① 기관과 같은 동·읍·면에 아동이 거주
 - ②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에 아동이 거주
 - ③ 기관과 다른 시·군·구에 아동이 거주 (▶ 질문 2-2-1)

↓

- 2-2-1 아동의 거주지와 다른 소재지의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 ③ 차량 운행을 해주어서
 - ④ 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 ⑤ 직장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 ⑥ 기타()

3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③ 특기교육(예체능 등)을 위하여
- ④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서 (▶ 질문 3-1)
-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 ⑥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⑦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 ⑧ 비용 부담이 적어서
- ⑨ 기타()

- 3-1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아무데도 안 보냄
 - ② 기관에 계속 보냄

4 이 아이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か? (※ 2024년 9월 1일 기준)

()개월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 ()개월째 다니고 있음

조사원 메모

다니기 시작한 시점 : ()년 ()월

5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원장	② 교사	③ 운영시간	
④ 비용	⑤ 프로그램	⑥ 건강 · 영양(급식 · 간식 등)	
⑦ 기관 학급 규모(아동 수)	⑧ 기관 실내·외 환경	⑨ 안전한 보호(CCTV설치 여부 등)	
⑩ 집과의 거리	⑪ 기관 시설 · 설비	⑫ 국공립 여부(※어린이집, 유치원만 응답)	
⑬ 주변의 평판	⑭ 주변환경	⑮ 평가 결과(평가결과서 내용 등)	
		(※어린이집만 응답)	
⑯ 차량운행 여부	⑰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	⑱ 형제자매 재원 여부	
⑲ 공공형어린이집 여부(※어린이집만 응답)	⑳ 기타()		

> 기관 이용 일수 및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6 현재 이 아이가 기관을 이용하는 요일은 일주일 중 무슨 요일입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요일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요일 (이용여부 표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중 정기적 이용일 수
① 이용								주 _____ 일
② 미이용								

6-1 (어린이집 이용자 중 토요일 미이용자에 질문) 귀덕에서 이 아동에 대해 토요일에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음(6개월간 3회 이상) ② 가끔 있음(6개월간 3회 미만) ③ 없음

7 이 기관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시작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2) 끝나는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8 평상시에 이 아이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예: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4시 00분인 경우, 09시 00분 ~ 16시 00분(24시간 기준으로 작성)

※ 이용시간은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기관에서 하원 하는 시간까지를 작성합니다.

()시 ()분 ~ ()시 ()분

9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하고 싶으십니까?

※ 예: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4시 00분인 경우, 09시 00분 ~ 16시 00분(24시간 기준으로 작성)

()시 ()분 ~ ()시 ()분



➤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이나 입학금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원복과 체육복 비용 등 입학할 때에만 내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 합계를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지불한 금액이 없으면 금액에 0을 기입해 주십시오.)

(20)년도에 ()천원

11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매월 부모님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래 표에 해당 비용을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을 어린이집과 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기관의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조사원은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낸 경우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천원 단위로 기입함. 없으면 0기입함.)
(※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항목	금액	항목	금액
		①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 (정부지원금 제외, 입학금 포함)	월평균 ()만 ()천원
①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비용 ※ 기타비용에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아침·저녁급식비, 출입앨범비, 행사비 등이 포함됨.	월평균 ()만 ()천원	②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비용 ※ 기타 비용에는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 이용비, 출입앨범비 등이 포함됨.	월평균 ()만 ()천원
② 특별활동비	월평균 ()만 ()천원	③ 방과후특성화비(특별활동비)	월평균 ()만 ()천원
		④ 급간식비	월평균 ()만 ()천원
		⑤ 방과후 교육돌봄비	월평균 ()만 ()천원
		⑥ 교재비(방과후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제외)	월평균 ()만 ()천원
③ (어린이집)시도특성화비	월평균 ()만 ()천원		
총계	월평균 ()만 ()천원	총계	월평균 ()만 ()천원

12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됨

③ 적당함

④ 부담되지 않음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12-1

정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부모님께서 내시는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면,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현장학습비

② 차량운행비

③ 급간식비

④ 특별활동비

⑤ 기타 비용

(유치원 급간식비 및 어린이집 아침 저녁 급간식비)

(입학준비금, 졸업앨범비, 행사비 등)

1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14)

13-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최고 얼마까지 추가로 더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보다 추가로 월 최고 ()원까지 더 부담할 수 있음

14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등원시 ()

하원시 ()

【보기】

①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 질문 14-1 14-2)

②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 질문 14-1)

③ 보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 질문 14-1)

④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 질문 14-1)

⑤ 기타() (▶ 질문 14-1)

14-1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 이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교류합니까?

① 매일

② 주 1~2회

③ 월 1~2회

④ 전혀 안함

14-2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경우, 교직원(자원봉사자 등 성인 포함)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습니까?

①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

② 등원시만 동승한다

③ 하원시만 동승한다

④ 동승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15

위의 방법으로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15-1 등원

15-2 하원

() 분

() 분

594

16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 정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원장	①	②	③	④	⑤
2. 교사	①	②	③	④	⑤
3.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4. 시설설비 및 실내외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교재교구 및 장비	①	②	③	④	⑤
6. 내부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7. 비용	①	②	③	④	⑤
8. 건강관리	①	②	③	④	⑤
9. 급간식관리	①	②	③	④	⑤
10. 안전관리	①	②	③	④	⑤
11. 교육내용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참여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조사원 확인사항

※ ③ ~ ⑤ 응답 시 그 사유를 기록해주시요

[illegible]

17 귀하께서는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제공받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서비스 내용	1) 제공/참석	2) 만족도
	① 매일 ② 매주 1회 ③ 월 1회 ④ 분기 1회 ⑤ 연 1~2회 ⑥ 제공 안함 (▶ 질문 18) ⑦ 모름 (▶ 질문 18)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보육 · 교육 계획표 제공	●	●
2. 급식 · 간식 식단제공	●	●
3. 가정통신문(안내문 등) 제공	●	●
4. 자녀발달평가 결과지 제공	●	●
5. 부모상담	●	●
6. 부모교육 자료 제공	●	●
7. 부모참여 프로그램 제공	●	●
8. 양방향 알림장	●	●

18 다음은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0일 경우, 2) 문항에 프로그램 수 0만 기입하고 3)번 문항 이후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음)

특별활동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1) 운영 여부	2)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기록	3)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4)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5) 일주일에 몇 회 이용합니까?	6) 해당 특별활동에 만족하십니까?
	① 운영 ② 미운영 ③ 모름	(미이용시 0을 기입하고 이후 빈칸)	① 선택 가능 ② 무조건 이용	※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록 (미지불 888)	※ 일주일 기준으로 횟수 기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예능(미술, 음악 등)	☒	개	☒	천원	회	☒
2. 체육 관련	☒	개	☒	천원	회	☒
3. 수학/과학 관련	☒	개	☒	천원	회	☒
4. 영어	☒	개	☒	천원	회	☒
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	개	☒	천원	회	☒
6. 기타	☒	개	☒	천원	회	☒
총계		총 개		총 천원	총 회	

19 특별활동(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중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8번 질문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번호 기입. 특별활동(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해당 8 기입함)

- ① 예능(미술, 음악 등) ② 체육 관련 ③ 수학/과학 관련
④ 영어 ⑤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⑥ 기타
⑧ 비해당

(☒)

20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이 최소 1개 이상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질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③ 전혀 모른다 ⑧ 비해당(특별활동 미운영)

- 21 현재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인력	① 인력 증원 ② 인력의 질 제고
시설	③ 노후 시설 정비 ④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비용	⑤ 비용 절감 ⑥ 회계 투명성
서비스 운영	⑦ 안전관리 강화 ⑧ 교육내용 다양화 ⑨ 영양 및 급식 수준 ⑩ 아동학대 예방 ⑪ 기타 ()

- ※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질문 1~3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1 이 아이는 올해(2024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건강검진 여부	① 받음 ② 받지 않음 ③ 잘 모름
2. 사전안내 여부	① 사전 안내 받았음 ② 사전 안내 받지 않음 ③ 잘 모름

-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질문 2~3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2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입니까?

① 공공형(▶ 질문 2-1) ② 서울형(▶ 질문 2-1) ③ 잘 모름 ④ 비 해당(공공형 또는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

2-1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가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그렇지 않음 ④ 전혀 그렇지 않음

3 이 아이가 현재 기본보육만 이용합니까, 연장보육까지 이용합니까?

① 기본보육만 이용 (▶ 3-1)

② 연장보육까지 이용 (▶ 3-4 ↓)

3-1 이 아이가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체크 가능)

- ① 연장보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②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
- ③ 연장보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④ 어린이집이 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아서
- ⑤ 어린이집 외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 ⑥ 기타()

3-2 이 아이가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3-2-1)

② 아니오 (▶ 3-3)

3-2-1 이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① 예 (▶ 3-2-2)

② 아니오 (▶ 3-3)

3-2-2 이 경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3-3)

- ① 담임교사에게 직접 하원지도를 받지 못하는 점
- ② 낯선 교사와 환경으로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③ 어린이집 눈치가 보임
- ④ 신청방식(또는 절차)이 불편함
- ⑤ 기타()

**3-3 귀하께서는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본보육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 후 IV영역으로)**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문3에서 ② 연장보육까지 이용을 응답한 응답 3-4 ↓ 부터 응답해주십시오.

3-4 이 아이가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체크 가능)

- 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 ②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심되어서
- ③ 연장보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 ④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마음에 들어서
- ⑤ 기타()

3-5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영유아를 위한 저녁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저녁 급·간식 모두 제공 (▶ 3-5-1)
- ② 저녁 간식 제공 (▶ 3-5-1)
- ③ 저녁 급식 제공 (▶ 3-5-1)
- ④ 미제공 (▶ 3-6)

3-5-1 저녁 급·간식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① 부모 부담 (▶ 3-5-2)
- ② 어린이집에서 제공 (▶ 3-6)
- ③ 집에서 도시락 등을 지참해 보냄 (▶ 3-6)
- ④ 기타() (▶ 3-6)

3-5-2 한 달 평균 저녁 급·간식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달 평균 () 원

3-6 귀하께서는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본보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3-7 귀하께서는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연장보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 후 IV영역으로)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IV

미취학 아동 전체에 질문

조사원 확인사항

☒ 해당 ☐ 비해당

※ 모든 미취학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대기 신청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질문 1-1) ② 없다 (▶ 질문 2)

※ 대기한 곳이 여러 곳일 경우, 가장 오랜기간 동안 대기한 기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1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대기하였습니까?

()개월 (※개월 수로 환산하여 작성함.)

1-2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곳은 어디입니까?(1곳 선택)

- ① 국공립어린이집 (▶ 질문 1-3)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질문 1-3)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질문 1-3) ④ 민간어린이집 (▶ 질문 1-3)
 ⑤ 가정어린이집 (▶ 질문 1-3) ⑥ 협동어린이집 (▶ 질문 1-3)
 ⑦ 직장어린이집 (▶ 질문 1-3) ⑧ 국공립 유치원 (▶ 질문 2)
 ⑨ 사립 유치원 (▶ 질문 2) ⑩ 기타()

1-3 (어린이집 대기 경험이 있다면) 이 아이의 입소대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 수기 신청 : 입소 원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

- ① 수기 신청 (▶ 질문 2)
 ②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https://www.childcare.go.kr>) (▶ 질문 1-4)

1-4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통해 입소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만족(▶ 질문 1-4-1) ② 만족(▶ 질문 1-4-1) ③ 보통(▶ 질문 2)
 ④ 불만족(▶ 질문 1-4-2) ⑤ 매우 불만족(▶ 질문 1-4-2)

1-4-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기기간 단축 ② 투명한 입소자 관리 ③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④ 맞벌이자녀 입소거부 차단 ⑤ 기타()

1-4-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시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필요
 ②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③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④ 기타()

※ 2019~2024년생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2~4) 2018년생 아동은 질문5로 이동해주시시오.

2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시기에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관의 번호를 한 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아이가 이용하고자 할 때 모든 기관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응답해주시시오.

〈보기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 미이용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협동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⑩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⑪ 가정양육

〈응답표〉

기준년도	출생연도별 기관 이용 의향											
	2019년생		2020년생		2021년생		2022년생		2023년생		2024년생	
	보육 연령	기관	보육 연령	기관	보육 연령	기관	보육 연령	기관	보육 연령	기관	보육 연령	기관
2025년	5세	●	4세	●	3세	●	2세	●	1세	●	0세	●
2026년			5세	●	4세	●	3세	●	2세	●	1세	●
2027년					5세	●	4세	●	3세	●	2세	●
2028년							5세	●	4세	●	3세	●
2029년									5세	●	4세	●
2030년											5세	●

3 (위 2번에서 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신뢰가 가서 ③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교사가 우수해서 ⑤ 보육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4 (위 2번에서 ⑧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신뢰가 가서 ③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교사가 우수해서 ⑤ 교육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6 현재 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근 6개월 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등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1) 필요성 정도	2) 이용 빈도	3) 주로 이용하는 요일 및 이용시간	4) 서비스 만족도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필요 없음	① 주당 3회 이상 ② 주당 1~2번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없음▶질문 6	※ 주로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낮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경우 (아간전정보육,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월 60시간까지 이용 가능)	●	●	① 월~금 (시 : 분) (:) ~ (:) ② 토요일 (시 : 분) (:) ~ (:)	● ●
2. 주간 보육시간이 아닌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	●		●
3. 1박 2일 등 2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	●		●
4. 휴일(일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휴일보육)	●	●		●

6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주로 누가(어디서) 돌보아줍니까?

1.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상황	① 부모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③ 비혈연(이웃·지인, 민간 육아도우미 등)	④ 시간제보육
	⑤ 공공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⑥ 기타()
2. 아이가 아플 때	① 부모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③ 비혈연 (이웃·지인, 민간 육아도우미 등)	④ 어린이집
	⑤ 공공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⑥ 기타()

※ 공공아이돌보미 :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개별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을 해줄 수 있음
(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

7 최근 1년 이내에 이 아이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응답하십시오.

※ 자녀 연령이 6~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단, 36개월 이상이라도 만2세반(2021년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1) 이용 주기	2) 이용 건당 평균 이용 시간	3) 서비스 제공기관 (주 이용기관)	4) 방문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5) 이용 시 만족도	6) 이용 시 자녀양육 도움정도
보기	① 매일 ② 1주일에 2~3번 ③ 1주일에 1번 ④ 한 달에 1~2번 ⑤ 1년에 1~2번 ⑥ 이용경험 없음 (▶ V의 질문 1로)	()분	① 어린이집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도보 ()분 ② 대중교통 ()분 ③ 자가용 ()분 ④ 기타(()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도움 됨 ② 어느 정도 도움 됨 ③ 보통 ④ 도움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되지 않음

※ 조사원 확인사항 : 2021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어린이집 재원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어린이집 만 2세반을 이용할 경우 응답합니다.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학원 및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조사원 확인사항

☐ 해당 ☐ 비해당

※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일반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특기교육을 위해 다니는 시간제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이며, 1주간 평균 이용시간과 1개월간 학원에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또한 다니는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이용하지 않는 종류의 경우, 프로그램 수에는 0을 기입하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는 모두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각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을 지불한 경우임.)

이용	1) 프로그램 수	2) 이용시간	3) 비용	4) 전반적 만족도
	()개	주 평균 () 시간	월 총()천원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예능(미술, 음악 등)	개	시간	천원	●
2. 체육관련	개	시간	천원	●
3. 수학/과학 관련	개	시간	천원	●
4. 영어	개	시간	천원	●
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개	시간	천원	●
6. 기타	개	시간	천원	●
총 계	총 개	총 시간	총 천원	

2 현재 이 아이는 보육·교육기관에 다닙니까? 다닌다면 기관유형은 무엇이고,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합니까? 또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기관 유형		2) 1일 평균 이용시간	3) 이용 시 만족도
① 일반 어린이집	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평균 ()시간	① 매우 만족
③ 장애아통합어린이집	④ 유치원 일반학급		② 만족
⑤ 유치원 특수학급	⑥ 유아특수학교		③ 보통
⑦ 특수학교 유치원(부)	⑧ 기타()		④ 불만족
⑨ 다니지 않음 (▶ 질문 2-1)			⑤ 매우 불만족

2-1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기관에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 몰라서 ②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③ 기관을 믿지 못해서
④ 비용이 부담돼서 ⑤ 등·하원이 힘들어서 ⑥ 아이가 어려서
⑦ 기타()

2-2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이해 부족, 편견 ② 다른 아동부모의 이해 부족, 편견 ③ 교사의 지나친 관심
④ 편의시설 부족 ⑤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 ⑥ 특수교사 부족
⑦ 등·하원 시 불편 ⑧ 기타() ⑨ 어려움 없음
☞ 비해당(미이용)

3 이 아이는 언제 장애를 발견하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까? 최초로 진단받은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장애등록(복지카드 발급), 병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단 및 평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 ① 출생 이전 ② 출생 ~ 만1개월 미만
③ 만1개월 이상 ~ 만12개월 미만 ④ 만12개월 이상 ~ 만24개월 미만
⑤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 미만 ⑥ 만36개월 이상 ~ 만48개월 미만
⑦ 만48개월 이상 ~ 만60개월 미만 ⑧ 만60개월 이상

4 이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중복 장애의 경우 최초로 진단받은 장애에 대해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부모(나와 배우자)의 판단 ② 조부모 및 기타 가족의 권유
③ 원장 및 교사의 권유 ④ 지인의 권유
⑤ 영유아건강검진 ⑥ 기타 ()

VII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에 질문

조사원 확인사항
☐ 해당 ☐ 비해당

※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인 등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문1~문14는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 조사원 확인: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 및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포함) 중복 확인

- ① 혈연 ② 비혈연 ③ 혈연+비혈연
④ 혈연+기관 ⑤ 비혈연+기관 ⑥ 혈연+비혈연+기관

2 (1번에서 ①~③번에 응답한 경우) 주변에 있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④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⑥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⑦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⑧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⑨ 기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⑩ 기타()

3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 분께서는 이 아이를 포함하여 동시에 몇 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까? (※ 본인 영유아 자녀 포함하여 아동 수 기입)

조사 대상 아동을 포함하여 총 () 명

※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지 않는 경우 4~7번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4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가족이나 친인척은 누구입니까?

① 동거 친조부모	② 동거 외조부모	③ 비동거 친조부모
④ 비동거 외조부모	⑤ 동거 친인척	⑥ 비동거 친인척

5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아이의 집 (▶ 질문 6)	② 돌보는 사람의 집 (▶ 질문 5-1)

5-1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이를 매일 데려오십니까?

①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봄	② 가끔 데려옴 (▶ 질문 5-2)
③ 가끔 가서 봄 (▶ 질문 5-2)	

5-2 며칠에 한 번씩 데려오거나 가서 보십니까?

평균 ()일에 한번

6 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주로 언제 돌보고 있습니까?

① 하루 종일	②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③ 이용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④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⑤ 필요할 때마다(불규칙적으로)	⑥ 기타()

7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지불 안 함 (▶ 질문 8)	

7-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돌봄으로 지급하는 비용만 대답해주세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주십시오.

월 ()만원

※ 비혈연인이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비혈연인이 돌봐주지 않는 경우 8~14번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8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비혈연인은 누구입니까?

- ① 공공 아이돌보미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이웃·지인 ④ 기타()

9 이 아이는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아이 집 ② 돌보는 사람 집 ③ 기타 ()

10 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 ① 평소 알던 사람임 ② 지인 소개로 ③ 구인광고/신문
 ④ 민간업체 사이트/앱 등 ⑤ 공공기관 사이트/앱 등 ⑥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⑦ 기타()

11 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주로 언제 돌봐 줍니까?

- ① 하루 종일 ②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③ 이용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④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⑤ 필요할 때마다(불규칙적으로) ⑥ 기타()

12 돌보는 시간은 1주일에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1주일에 총 () 시간

13 이 아이를 돌보는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지불 안 함 (▶ 질문 14)

13-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모두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월 평균을 내어 주십시오.

월 () 만원

14 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비혈연인이 아이의 집에서 숙박 시 비해당 8 기입함.)

- ① 자주 있음 (▶ 질문 14-1) ② 가끔 있음 (▶ 질문 14-1)
 ③ 거의 또는 전혀 없음 ④ 비해당(비혈연인이 집에서 숙박)

14-1 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아이의 부모가 돌봄 ② 아이의 형제자매가 돌봄
 ③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부탁 ④ 이웃, 지인에게 부탁
 ⑤ 시간제 보육 이용 ⑥ 다른 아이돌보미 이용
 ⑦ 기타()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